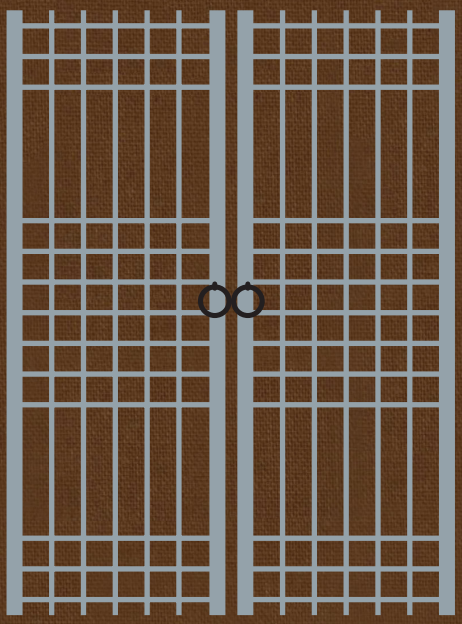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of Basic Necess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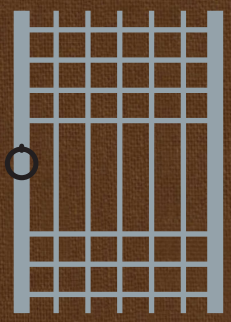
HOUSING

한국 의식주 생활 사전

주생활

ㄱㄴㄷㄹㅁㅂ





국립민속박물관

한국 의식주 생활 사전

주생활

ㅅㅇㅈㅊㅋㅌㅍㅎ

국립민속박물관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주생활 ❷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of Basic Necessities

HOUSING

발행일
2019년 12월 13일

발행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7
전화 02. 3704. 3141

발행인
윤성용

총괄
이관호

기획
강경표

편수원
백민영, 은현정, 김혜영, 류건욱

윤문·교열
엄민용, 김병동, 김용준, 김대훈, 김선아

디자인·제작
(주)디자인인트로 / www.gointro.com

발간등록번호
11-1371036-000318-01

ISBN
978-89-289-0241-5 94380 : 비매품
978-89-289-0239-2 (세트)

94380
9 788928 902415

한국 의식주 생활 사전

주생활

ㅅㅇㅈㅊㅋㅌㅍㅎ

국립민속박물관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발간사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한국민속학의 정체성 확립, 학술 연구의 기초 자료 제공과 함께 많은 분들이 민속문화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을 편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여섯 번째 주제인 <한국의식주생활사전>의 '주생활住生活 편'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전에서는 우리 민족의 생활 속에서 발생하여 전승되어 온 주생활住生活을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정리·해설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립민속박물관은 2002년부터 <한국세시풍속사전>, <한국민속신앙사전>, <한국민속문학사전>, <한국일생의례사전>, <한국민속예술사전>, <한국의식주생활사전>을 발간하여 한국의 민속을 집대성한《한국민속대백과사전》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간할 <한국생업기술사전>, <한국민속사회사전>까지 모두 한국 민속학 연구 성과를 집대성 하는 계기일 뿐 아니라 새로운 관심과 연구를 촉진하는 창조의 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사전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집필자, 자문위원, 감수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관계 기관과 사전이 나오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인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국립민속박물관장 **윤성용**

발간개요

국립민속박물관의《한국민속대백과사전》은 민속을 크게 8개의 주제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제1주제인〈한국세시풍속사전〉전5권을 2002년부터 2007년에 걸쳐 발간하였고, 2009년부터 제2주제인〈한국민속신앙사전〉편찬사업을 시작하였다. 2009년에 '무속신앙 편'(1·2권), 2010년에 '마을신앙 편'(1·2권), 2011년에 '가정신앙 편'(1·2권)을 발간하였다. 2012년에 제3주제인 <한국민속문학사전> 편찬사업을 시작하여 같은 해 '설화 편'(1·2권), 2013년에 '민요 편'과 '판소리 편'을 발간하였다. 2014년에는 제4주제인 <한국일생의례사전>(1·2권)을 발간하였고, 2015년에는 제5주제인 <한국민속예술사전>편찬사업을 시작하여 '민속극 편'과 '민속놀이 편'을 발간하였고, 2016년에는 '음악·농악·무용·민화 편'을 발간하였다. 2017년에는 제6주제인 <한국의식주생활사전> 편찬사업을 시작하여 '의생활 편(1·2권)'을 발간하였고, 2018년에는 '식생활 편(1·2권)'을 발간하였다. 올해는 <한국의식주생활사전>의 세 번째 편인 '주생활 편(1·2권)'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번에 발간한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주생활 편'은 표제어 406항목, 원고 5,500여 매, 사진 850여 장으로 구성하였다. 사진자료는 집필자로부터 이용권을 구입한 사진과 국립민속박물관 소장사진, 타 기관에서 제공한 사진을 활용하였다.

이 사전은 관내·관외의 주생활 연구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으로부터 사전편찬팀에서 선정한 표제어의 적합성을 검증 받았고, 여기에서 빠진 중요한 표제어를 추천 받는 등의 도움을 받았다. 또한 주생활 분야를 전공한 72명의 연구자가 원고를 집필하였다.

수합한 원고는 사전편찬팀의 검수를 받은 후 전문가의 교정·교열·윤문을 거쳤다. 최종 원고는 각 분야에서 많은 연구업적을 쌓은 외부 학자의 감수를 거쳤으며 감수위원단이 문제점을 제기한 원고는 수정·보완하여 사전의 신뢰성과 권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 사전에서는 주생활을 크게 집, 공간, 구성, 살림살이, 의례, 연장, 공법, 부재, 자료, 용어로 구분하였다.

사전은 발간사와 발간개요, 일러두기와 목차, 그리고 본문과 색인으로 구성하였다. 표제어 배열은 가나다순으로 하였으며, 분야별 차례를 구성하여 범주별 표제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집필자란을 마련하여 필자별 표제어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일러두기

사전의 전체 구성

<한국의식주생활사전 : 주생활 편>은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어 선정 및 범주

1. 표제어는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주생활 편에 독립항목으로 배열되는 단어를 말한다.
2. 표제어는 집, 공간, 구성, 살림살이, 의례, 연장, 공법, 부재, 자료, 용어의 범주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3. 표제어는 관내외 자문회의를 통해 그 방향과 범위를 설정하여 선정하였다.
4. 이 사전에서 사용되는 표제어는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을 따랐다.

표제어 배열 및 목차

1. 본문에서의 표제어 배열은 가나다순으로 하였다.
2. 목차는 가나다 차례와 분야별 차례 두 가지로 구성하였으며, 분야별 차례의 경우는 각 분야 안에서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다.

가표제어

주표제어와 거의 대등하게 불리는 이칭을 가표제어로 선정하였다. 가표제어도 목차에 같이 제시하였다. 가표제어와 관련된 주표제어 쪽수를 제시하여 사전 이용자의 검색 접근성을 향상 시켰다.

표기방법

맞춤법과 표기법은 기본적으로 현행교육과학기술부 규정 '한글맞춤법통일안(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과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2008년 10월 발간)'을 따랐다.

사진과 자료

사진, 도표, 삽화 등 내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는 본문의 해당부분에 첨부하고 그 출처 또는 소장처(제공처)등을 밝혔다.

속담·관용구

주생활 관련 속담과 관용구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내용을 정리·제시하여 주생활에 대한 한국인의 가치관과 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등록문화재 목록

문화재로 등록된 주거건축물에 대한 정보는 문화재청에 등록된 주거건축물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색인

표제어 및 표제어에 준하는 용어들을 가나다순으로 배열하고 해당 쪽수를 기재하여 본문에서 찾아보기 쉽게 하였다.

필자

필자의 성명과 소속 그리고 집필한 표제어와 해당 쪽을 기재하여 필자란을 통해서도 표제어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사진제공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여자고등학교 경운박물관, 교문사, 국가기록원, 국립경주박물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익산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대원사, 대전시립박물관, 도서출판 동녘, 동아일보, 문화재청, 부산광역시청,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서울사진아카이브, 서울역사박물관,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에넥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주택문화사, 충현박물관, 토지주택박물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관광공사

자문위원과 감수위원

1. 관내 자문위원은 기량, 김종규, 박선주, 정연학이 맡았다.
2. 관외 자문위원은 강영환(울산대), 김기덕(건국대), 김길식(용인대), 김명자(안동대), 김시덕(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박선희(전북대), 박철수(서울시립대), 이왕기(목원대), 전봉희(서울대), 정정남(건축문헌고고스튜디오), 천인호(동방문화대학원대), 홍승재(원광대)가 맡았다.
3. 감수위원은 김광언(인하대), 김삼대자(전 국립민속박물관), 김성우(연세대), 윤인석(성균관대)이 맡았다.

가나다순

차례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주생활

기역 ㄱ

ㄱ자집 018
가랍집 019
가리개 020
가사제한 022
가스레인지 027
가신 029
가옥도형 033
가옥문기 034
각게수리 037
간(칸) 667
감실 038
개공제 039
개량한옥 040
개별난방 042
개토제 043
거실 045
거중기 046
건넌방 047
건축연장 048
겨릅집 050
겹집 051
경대 053
경주 양동마을 054
계단 059
고래 061
고비 062
고성 왕곡마을 064
고시원 068
고콜(코클) 671
곡척(곱자) 070
골목 068
곱자 070
곳간 071
공동주택 073
공유주택 074
공인중개사 076
공포 077
광창 080
교창 082
구들(온돌) 525
구들목(아랫목) 478
국민주택 083
굴도리집 084
굴뚝 085
굴피집 087
궁가 088
궁집(궁가) 088
궤 090
귀틀집 091
그랭이질 093
금입택 095
기단 097
기둥 100
기역자집(ㄱ자집) 018
기와 103
기와집 105
기중기(거중기) 046
기초 106
까치구멍집 109

깎낫 110
꽃담 111
끌 113

니은 ㄴ

난간 114
난로 116
납도리집 117
내외담 118
냉장고 119
너와집 121
녹로 122
농(장롱) 575
누마루 124
눈꼽재기창 125

디귿 ㄷ

ㄷ자집 126
다락 127
다림보기 128
다세대주택 129
다용도실 131
단독주택 132
단청 134
달구질 136
달동네 138
담장 140
담집 142
당호 144
대들보 145
대목장 146
대문 148
대문채 150
대청 152
대패 153
더부살이 155
도리 156
도배 157
도시한옥 158
도투마리집 161
도편수 162
독신자주택 163
돌기와집 165
돌담 165
동사택서사택 167
두렁집 168
두레박 169
뒤주 170
뒷간 171
들어열개 173
등 175
디귿자집(ㄷ자집) 126
디딜방앗간 179
디딤돌 180
뜰집 181

미음 ㅁ

ㅁ자집 183
마당 184
마루 186
마루기와 188
마름질 190
마리 192
마을 193
마치(망치) 202
막살이집 199
막새 200
망치 202
맞배지붕 203
맞춤 205
머름 207
머릿장 209
먹통 209
명당 211

모델하우스 212
모임지붕 213
모탕고사(개공제) 039
목가구 215
목수 219
문 221
문갑 224
문고리 225
문방구 226
문배 228
문자형집 229
문지방 230
문패 232
문화주택 234
물형론 235
미닫이 237
미음자집(ㅁ자집) 183
미장 238
미장이 239
민가 241
민도리집 243
민영주택 244
민택삼요 245

비읍 ㅂ

반가 246
반닫이 249
반자 250
발 252
발코니(베란다) 262
방 253
방석 255
방장 256
배산임수 257
벌집촌 259
베개 261
베란다 262
벼락닫이창 264
벽 265
벽장 267
변기 268
변소(뒷간) 171
별당 269
별서 271
병풍 272
보 274
보료 275
보일러 277
복덕방 278
복부인 280
봉당 281
봉덕(부섭) 268
봉창 282
부경 283
부뚜막 285
부섭 286
부엌 287
부연 290
부지깽이 291
분가 292
분합문 293
불란서주택 294
불발기창 296
붙박이장 297
비 298
비보풍수 300
빗장 301

시옷 ㅅ

사글세(월세) 544
사당 418
사랑방 419
사랑채 421
사립문 422
사방탁자 423
산경표 424

산태극수태극 426
살강 429
살림살이 430
살림집 433
살창 437
상량제 440
새마을주택 441
샛집 443
생울 444
서고 445
서까래 446
서까래기와 447
서안 449
서옥 450
성주매기 451
세면대 454
세탁기 456
셋방살이 457
소로수장집 459
소목장 459
소파 461
손 없는 날 462
솟을대문 464
송곳 465
수렛간 467
수맥 469
시렁 470
식탁 471
신구간 472
십승지 473
싱크대 475
싸리울 476

이응

아궁이 477
아랫목 478
아산 외암마을 479
아파트 484
안거리·밖거리 488
안동 하회마을 489
안방 495
안방물림 497
안석 498
안채 499
안택 500
양옥 504
양택 506
양통집(겹집) 051
여닫이 509
여막 510
연가 512
연립주택 513
연상 514
연탄 516
영단주택 517
영조척 518
영주 무섬마을 520
오피스텔 522
옥상 523
온돌 525
옷장 527
와공 528
외양간 530
외통집(홑집) 728
요강 532
요사 533
욕실 534
우데기 535
우물 537
우진각지붕 539
움 541
움집 542
원룸 544
월세 544
윗목 545
윗방 546
윤도판 547
응접실 549

의걸이장 550
이부자리 551
이사 553
이음 554
익공 557
ㅡ자집 558
일자집(ㅡ자집) 558
임대주택 560
입식 561
입주 563
입춘첩 564
입택고사 565

지읒 ㅈ

자 568
자귀 569
자리 571
자생풍수 572
장(장롱) 575
장독대 573
장롱 575
장작 577
장지문 578
장판 579
적산가옥 580
전세 582
전원주택 583
전자레인지 584
정낭 585
정원 587
정주간 590
제등 591
제주 성읍마을 593
조선건축 596
족자 597
좌등 598
좌상 600
좌식 601
좌향 602
주련 603
주방 603
주상복합 605
주차장 606
주춧돌(초석) 660
주택법 607
주택복권 608
죽부인 609
줄 611
중문 612
중앙난방 613
지관 614
지붕 615
지붕얹기 619
지역난방 621
진산 622
집 623
집들이 631
집장사 633
집짓기 633
쪽마루 638
쪽매 639
쪽문 640
쪽방 640

치읓 ㅊ

차양 642
찬광 643
찬방 644
찬장 645
찬탁 647
창호 648
책상 651
책장 652
처마 654
천장 657
청석집(돌기와집) 165

초가집 659
초석 660
추녀 662
치목(마름질) 190
침대 664
침방 665
침실 666

키읔 ㅋ

칸 667
칼 670
코클 671

티읕 ㅌ

택리지 673
택보요전 675
택호 676
텃밭 677
텔레비전 678
토담 680
토막촌 682
토벽 683
톱 685
통시 686
툇간 687
툇마루 688
투막집(귀틀집) 091

피읖 ㅍ

판문 689
판벽 691
판자촌 692
팔걸이 693
팔작지붕 694
편액 696
평 697
평상 698
풍경 699
풍수 700
피란촌 703

히읗 ㅎ

한뎃부엌 706
한옥 707
한옥보존지구 714
함 716
함실 717
해막 718
해방촌 719
행랑채 720
헛간 721
현관 722
현판 724
협문 725
호롱 727
홑집 728
화단 729
화로 730
화장실 732
화재막이 733
화티 734
횃대 737
훑이기 738
휘장 740
흘림기둥 741
흙담(토담) 680
흙벽(토벽) 683

분야별

집

ㄱ자집 018
가랍집 019
개량한옥 040
겨릅집 050
겹집 051
고시원 068
공동주택 073
공유주택 074
국민주택 083
굴도리집 084
굴피집 087
궁가 088
귀틀집 091
기와집 105
까치구멍집 109
납도리집 117
너와집 121
ㄷ자집 126
다세대주택 129
단독주택 132
달동네 138
담집 142
도시한옥 158
도투마리집 161
독신자주택 163
돌기와집 165
두렁집 168
뜰집 181
ㅁ자집 183
막살이집 199
문자형집 229
문화주택 234
민가 241
민도리집 243
민영주택 244
반가 246
벌집촌 259
불란서주택 294
살림집 433
새마을주택 441
샛집 443
소로수장집 459
아파트 484
양옥 504
연립주택 513
영단주택 517
오피스텔 522
요사 533
움집 542
원룸 544
一자집 558
임대주택 560
적산가옥 580
전원주택 583
주상복합 605
집 623
쪽방 640
초가집 659
토막촌 682
판자촌 692
피란촌 703
한옥 707
해방촌 719
흩집 728

공간

거실 045
건넌방 047
곳간 071
누마루 124
다락 127
다용도실 131
대문채 150
대청 152
뒷간 171
디딜방앗간 179
마당 184
마루 186
마리 192
방 253
베란다 262
벽장 267
별당 269
별서 271
봉당 281
부엌 287
사당 418
사랑방 419
사랑채 421
서고 445
수렛간 467
안거리·밖거리 488
안방 495
안채 499
여막 510
옥상 523
외양간 530
욕실 534
우물 537
움 541
윗방 546

구성

응접실 549
장독대 573
정원 587
정주간 590
주방 603
주차장 606
쪽마루 638
찬광 643
찬방 644
침방 665
침실 666
텃밭 677
통시 686
툇간 687
툇마루 688
한뎃부엌 706
해막 718
행랑채 720
헛간 721
현관 722
화단 729
화장실 732
감실 038
계단 059
고래 061
광창 080
교창 082
굴뚝 085
기단 097
기초 106
꽃담 111
내외담 118
눈꼽재기창 125
담장 140
대문 148
돌담 165
디딤돌 180
맞배지붕 203
머름 207
모임지붕 213
문 221
문고리 225
문지방 230
반자 250
벼락닫이창 264
벽 265
봉창 282
부뚜막 285
부섭 286
분합문 293
불발기창 296
빗장 301
사립문 422
살창 437
생울 444
솟을대문 464
싸리울 476
아궁이 477
우데기 535
우진각지붕 539
장지문 578
정낭 585
중문 612
지붕 615
쪽문 640
창호 648
천장 657
코클 671
토담 680
토벽 683
판문 689
판벽 691
팔작지붕 694
함실 717
협문 725
화티 734

살림살이

가리개 020
가스레인지 027
각게수리 037
경대 053
고비 062
궤 090
난로 116
냉장고 119
두레박 169
뒤주 170
등 175
머릿장 209
목가구 215
문갑 224
문방구 226
문패 232
반닫이 249
발 252
방석 255
방장 256
베개 261
변기 268
병풍 272
보료 275
보일러 277
부지깽이 291
붙박이장 297
비 298
사방탁자 423
살강 429
살림살이 430
서안 449
세면대 454

세탁기 456
소파 461
시렁 470
식탁 471
싱크대 475
안석 498
연상 514
연탄 516
옷장 527
요강 532
의걸이장 550
이부자리 551
자리 571
장롱 575
장작 577
전자레인지 584
제등 591
족자 597
좌등 598
좌상 600
주련 603
죽부인 609
찬장 645
찬탁 647
책상 651
책장 652
침대 664
텔레비전 678
팔걸이 693
편액 696
평상 698
풍경 699
함 716
현판 724
호롱 727
화로 730
횃대 737
휘장 740

의례

개공제 039
개토제 043
달구질 136
상량제 440
성주매기 451
안택 500
입주 563
입택고사 565
화재막이 733

연장

거중기 046
건축연장 048
곱자 070
깎낫 110
끌 113
녹로 122
대패 153
망치 202
먹통 209
송곳 465
영조척 518
윤도판 547
자 568
자귀 569
줄 611
칼 670
톱 685
훑이기 738

공법

그랭이질 093
다림보기 128
대목장 146
도배 157
도편수 162
마름질 190
맞춤 205
목수 219
미장 238
미장이 239
소목장 459
온돌 525
와공 528
이음 554
장판 579
지붕얹기 619
집짓기 633
쪽매 639

부재

공포 077
기둥 100
기와 103
난간 114
단청 134
대들보 145
도리 156
마루기와 188
막새 200
보 274
부연 290
서까래 446
서까래기와 447
연가 512
익공 557
차양 642
처마 654
초석 660
추녀 662
흘림기둥 741

자료

가옥문기 034
민택삼요 245
조선건축 596
택리지 673
택보요전 675

용어

가사제한 022
가신 029
가옥도형 033
개별난방 042
골목 068
공인중개사 076
금입택 095
당호 144
더부살이 155
들어열개 173
모델하우스 212
문배 228
미닫이 237
복덕방 278
복부인 280
부경 283
분가 292
서옥 450
셋방살이 457
손 없는 날 462
신구간 472
아랫목 478
안방물림 497
여닫이 509
월세 544
윗목 545
이사 553
입식 561
입춘첩 564
전세 582
좌식 601
주택법 607
주택복권 608
중앙난방 613
지역난방 621
집들이 631
집장사 633
칸 667
택호 676
평 697
한옥보존지구 714

사당
祠堂

정의 신주나 위패를 봉안해 두는 건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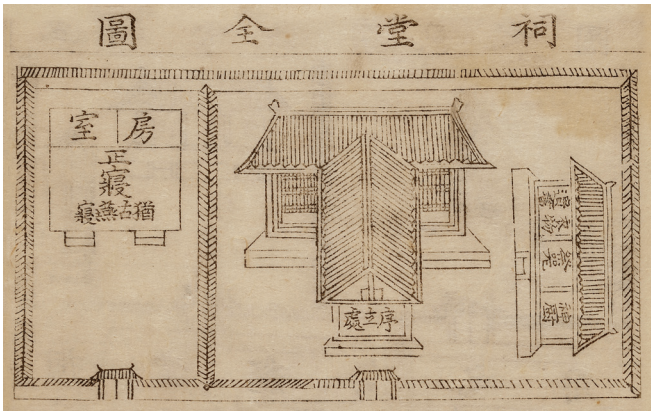
역사 고대에는 사당祠堂이라는 용어 대신 묘廟라고 했였다. 그 흔적은 오늘날의 가묘家廟, 예묘禮廟 등의 명칭에서 찾을 수 있다. 사당이라는 용어는 주자의 『가례家禮』에 최초로 등장하면서 통용되었다. 『가례』에서는 "정이천程伊川 선생이 제사 지낼 때는 영影자를 쓰는 것이 좋지 않다고 했으므로 영당影堂을 사당祠堂이라고 고쳐 부르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후 조선시대로 접어들어 『가례』가 보급되고 정착됨에 따라 사당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사당 제도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유입된 것은 삼국시대이지만 민간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고려 말부터이며, 유교를 국가이념으로 채택한 조선시대에 이르러 본격 시행되었다.

조선왕조는 사회 전반에 걸쳐 유교화를 꾀하기 위한 일환으로 가족과 친족제도를 유교이념에 입각하여 재편성하고자 하였다. 이때 가장 우선시된 것은 관혼상제 예법이었다. 즉 관혼상제는 유교에서 가족이념의 핵심 요소인 부계 혈연으로 가계家系를 이어 나가기 위한 통과의례인 까닭에 이를 『가례』에 입각하여 수행함으로써 '가정–사회–국가'의 유교화를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에서 1401년(태종 원년)부터 사당을 세울 경제 여건이 되지 않으면 주독主櫝이라도 마련하여 신주를 모시게 하였을 정도로 사당 건립과 신주 봉안을 적극 장려하였다.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 사당 건립을 권장하였음에도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사당제도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선조 이후부터였다. 즉 임진왜란 이후 사회질서가 크게 흔들리자 기강을 바로잡기 위하여 유교식 의례체계 정비를 통하여 종법제도를 확산시키려고 사당 건립을 더욱 강화한 것이었다.

내용 『가례』에 따르면 집을 지을 때는 사당을 가장 먼저 세우도록 하였으며, 위치는 정침의 동쪽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침의 동쪽이 아니라 보통 동북쪽, 서북쪽, 북쪽 등과 같이 높은 언덕에 사당을 세우는 경향을 보였다. 그 까닭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지형이 달랐기 때문이다. 대부분 평지로 이루어진 중국의 마을은 방향을 중시하는 향법풍수向法風水가 크게 발달하였다. 이런 이유로 가옥을 건립할 때 고도高度가 아니라 좌향坐向을 중시했다. 이에 반해 산악이 발달한 우리나라의 마을은 배산임수형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반가班家의 경우 주산主山의 능선이 끝나는 지점을 길지吉地로 간주하여 그곳에 가옥을 건립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산을 등지고 물[川]을 바라보는 형국을 취했다. 이에 따라 좌향보다는 고도와 위상의 높이를 동일시하는 관념이 생겨났으며, 가옥의 대지垈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조상을 모시기 위하여 정침의 뒤편 언덕에 사당을 세우는 관행이 보편화되었다.

사당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1칸 반의 규모가 일반 형태이다. 4대봉사 원칙에 의해 고조고비高祖考妣까지 모시는 경우 네 개의 감실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세 칸 규모의 공간이 기본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불천위 조상에 대한 별묘別廟만을 세울 때는 정면 한 칸, 측면 한 칸 반으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사당 건물의 중앙과 동서로 문을 설치해 두었다. 중문은 출주出主나 납주納主의 절차를 수행할 때 신주가 출입하며, 그 외의 사람들은 동문과 서문을 사용한다. 사당 주위에는 담을 쌓고 앞쪽으로 외문外門을 설치하여 외부로부터 독립된 공간을 형성하도록 한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 담을 두르지 않고 개방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지붕은 홑처마 맞배지붕이며, 측면에는 대부분 풍판을 달아 둔다. 또 사당 건물의 기단은 장대석이나 판석을 사용하며, 이를 한두 단 정도의 높이로 쌓고 그 위에 초석礎石을 둔다.

사당 내부의 바닥에는 마루나 벽돌[磚]을 깔고 그 위에 돗자리를 펴 두며, 신주를 봉안해 둔 감실을 설치한다. 『가례』에 따르면 탁자 위에 신주를 안치해 둔 주독主櫝을 두고 그 앞에 작은 발을 쳐 두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 사당의 북쪽 벽면에 교의를 세우고 그 위에 신주를 모



사당전도 | 가례집람 | 국립민속박물관



사당 배치 | 경북 안동 | 최지현

신 주독을 두는 형태, 둘째 북쪽 벽면에 선반을 설치하여 그 위에 신주를 봉안한 주독을 두는 형태, 셋째 북쪽 벽면에 벽장(감실)을 만들어 그 안에 신주를 모신 주독을 두는 형태이다. 만약 불천위不遷位 신주를 모시고 있으면서 별묘別廟를 세울 여건이 되지 않으면 가장 서쪽에 감실을 추가하여 4대 조상들과 함께 봉안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감실마다 높여진 탁자 앞에는 향탁香卓을 설치한다. 동쪽에는 향합香盒을, 서쪽에는 향로香爐를 둔다.

신주 배치는 가장 서쪽에 고조고비高祖考妣를 모신 뒤 증조고비曾祖考妣, 조고비祖考妣, 고비考妣 순서를 취한다. 불천위 조상을 모시고 있으면 가장 서쪽에 불천위 신주를 안치한 뒤 고조고비와 증조고비 등의 순서로 봉안한다. 조상의 신주는 4대봉사 원칙에 의하여 주제자主祭者로부터 4대를 넘기면 조매祧埋를 하며, 그런 다음 서쪽으로 한 칸씩 나머지 조상들의 자리를 옮기고 동쪽 끝에 자리한 감실에 새로운 신주를 모신다.

특징 및 의의 사당은 거주 영역에 위치하고 있는 까닭에 생生의 공간이면서 사死의 공간이다. 즉 산 자의 생활 공간에 자리하지만 사당 주변에 둘러진 담장에 의하여 산 자의 공간과 구분되면서 망자의 공간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당은 남성의 공간(사랑채)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 이유는 사당 출입은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당에는 조상의 신주가 모셔져 있는 까닭에 자손들은 일상에서 예禮를 갖추는 생활을 해야 한다. 이런 까닭에 집안의 주인은 매일 새벽이나 외부 출입 등을 할 때 반드시 사당에 고하며, 청명이나 한식 등 절기節氣에는 계절 음식을 올리고, 집안에 크고 작은 일이 생겼을 때도 그 내역을 아뢴다. 한편 『가례』에는 "홍수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와 도둑이 들었을 때는 가장 먼저 사당을 구한다. 신주와 유서遺書, 제기를 옮긴 후에 집안 재물을 옮긴다."고 되어 있다. 이처럼 사당은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로 간주되었으며, 그곳에 모셔진 조상은 마치 살아 있는 어른과 같이 자손들로부터 집안의 중대사를 보고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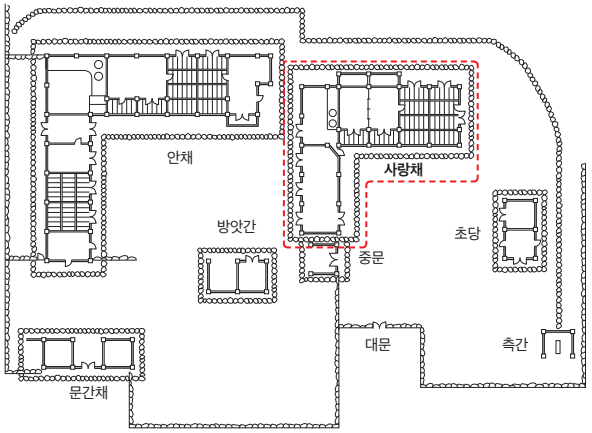
참고문헌 家禮, 禮記, 禮記集說, 유교의례의 전통과 상징(김미영, 민속원, 2010), 종가의 사당건축에 대한 연구(김홍곤·조중근, 대학건축학회논문집10, 대한건축학회, 1994), 종가의 사당을 통해 본 조상관(배영동, 한국민속학39, 한국민속학회, 2004), 한국의 상례문화(김시덕, 민속원, 201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김미영(金美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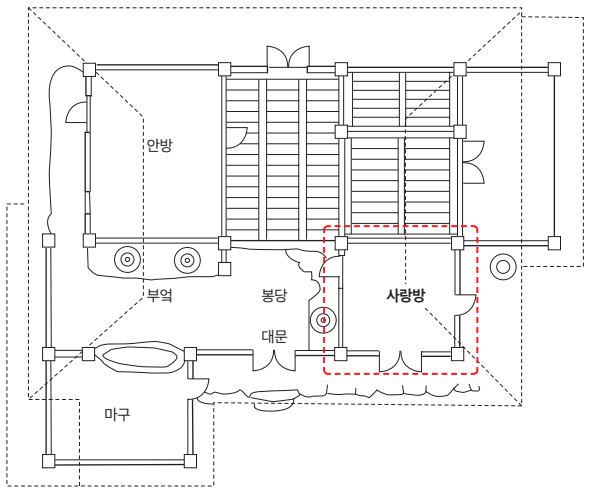
사랑방
舍廊房

정의 사랑채(몸채와 떨어져서 지은 채)에서 으뜸 가는 방으로 바깥주인이 거처하고 남자 손님의 응접과 시서詩書, 업무와 글방 등의 용도로 쓰이는 방.

개관 사랑방舍廊房은 바깥주인이 거처하는 방이면서 손님을 맞는 접객 공간이다. 안주인의 안방과는 거리



월성 주사댁 배치도 | 경북 경주 | 강영환



강원도의 여칸집 평면도 | 강영환

를 둔 곳으로, 주택 외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바깥주인은 양반이면서 글하는 선비이기 때문에 방 안을 유교적 덕목에 걸맞게 꾸며 방 안에 문갑, 서안, 연상, 지통 등의 문방가구와 팔걸이, 보료, 방석, 장침, 병풍 등을 두었다.

내용 사랑방은 사랑채에서 으뜸 가는 방으로 바깥주인이 거처하면서 남성 손님을 맞는 접객공간이다. 자녀의 교육공간이자 때로는 의례공간으로 사용되었다. 안주인이 사는 안방과는 거리를 둔 곳으로, 주택 외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사랑방은 대부분 한두 칸 규모이다. 바닥은 온돌이고, 천장은 반자틀에 천장지를 붙여 만든 지반자가 많고, 창호에는 세살문을 많이 설치하였다. 두 칸의 방 사이에는 장지문을 두어 남자 가족의 필요에 따라 여닫고, 인접한 사랑마루 사이에는 분합문을 달아 여름이나 행사가 있을 때는 문을 전체로 걸어서 공간을 넓게 사용하기도 하였다.

바깥주인은 양반이면서 글하는 선비이기 때문에 방 안을 유교적 덕목德目에 걸맞게 꾸몄다. 사랑방은 온돌로 인한 좌식생활로 천장이 낮고 실내도 비교적 좁지만 접대를 위한 정결한 분위기를 위해 수장공간인 반침을 두었고, 벽 쪽에 병풍을 세웠다. 실내는 계절에 따라 여름에는 자리를 깔고 그 외에는 보료, 장침, 사방침, 안석 등을 두었다. 사랑방 가구로 문갑·서안·연상·사방탁자 등 문방가구가 발전하였으며, 이동성을 고려하여 낮고 간결하게 제작되고 최소한만 설치하였다. 남성용 기거용품으로 주장, 거문고, 퉁소, 보검, 여의, 기국 등을 두었다. 거문고를 타는 일과 퉁소를 부는 일은 가곡을 익히는 것과 함께 사대부의 풍아한 소양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약기구로서 약절구나 약연 등도 갖추었다.

사랑방은 사랑대청과 함께 사랑채를 이룬다. 필요에 따라 작은사랑방, 책방, 침방, 청지기방, 누마루 등이 부가되었다. 사대부가에서는 넓은 사랑대청이 마련되어 대외적인 의식을 치르는 장소가 되었고, 누마루는 신분이 높은 손님의 접객 장소로 쓰였다. 사랑채는 안채와 행랑채의 중간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사랑채는 독립하여 짓거나 안채와 연결하여 짓는다. 사랑채 앞에는 사랑마당이 있는데 사랑마당과 안마당은 반드시 담이나 행랑으로 서로 구분한다. 이것은 주택 내에서 집안사람들의 생활과 외래객의 출입을 철저히 분리하고자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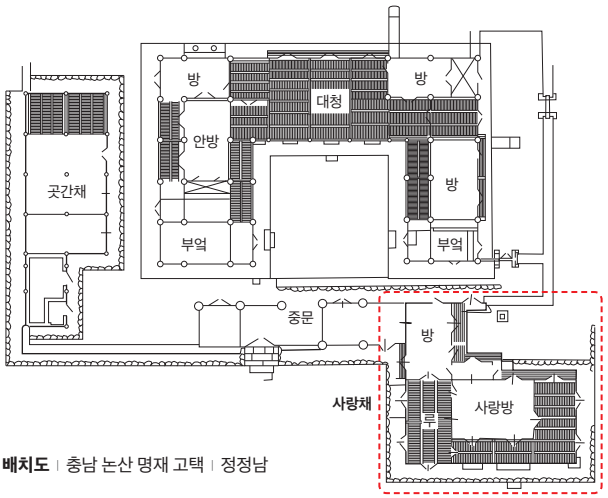
일반 서민들의 살림집인 민가와 같은 작은 규모의 주택에서는 사랑을 두지 않거나 두더라도 접객이나 교육 기능보다 농경이나 가내공업 등을 위한 작업공간 또는 남자들이 모여 한담을 즐기는 마을 공간 기능을 주로 하였다. 중류민가에는 안채에 연결되어 대문에 가까운 곳에 사랑채가 설치되고, 부농이나 중·상류주택에서는 독립된 사랑채 건물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상류주택에서는 사랑채도 큰사랑채, 작은사랑채, 별당채 등으로 가족 구성원의 지위에 따라 엄격하게 구별하였다. 이에 따라 사랑방의 명칭도 구분되었다.

· 큰사랑[大舍廊]: 한 대지 내의 주택에서 둘 이상의 사랑방을 꾸몄을 때 바깥 편에 있는 가장 큰 방.
· 작은사랑[小舍廊]: 자질子姪이 쓰는 사랑. 소사랑.
· 바깥사랑[外舍廊]: 한 대지 내에서 건물의 바깥 편에 있는 사랑방. 가장 큰 방이므로 큰사랑이라 함.
· 안사랑[內舍廊]: 바깥사랑 안쪽에 위치한 사랑. 중사랑中舍廊.

특징 및 의의 조선 전기 상류주택에서 사랑斜廊은 중문에 가로놓여 손님을 접대하는 작은 문간방 횡무橫廡에 불과하였고, 일을 보살펴 처리하는 바깥집[廳事]이 별도로 있었다. 조선 중기 이후 안채와 사랑채가 분리되면서 남성 가족 구성원의 생활 공간과 손님을 맞는 접객 공간이 합해진 사랑舍廊으로 변화하였고, 규모와 기능이 점차 확대되었다.

참고문헌 한국건축대계4-한국건축사전(장기인, 보성문화사, 1985), 한국의 사랑채(윤일이, 산지니, 2010), 조선시대의 목공가구(임영주, 한국의 미24-목칠공예, 중앙일보사, 1985), 문화콘텐츠닷컴(culturecontent.com),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윤일이(尹一二)



배치도 | 충남 논산 명재 고택 | 정정남



사랑채 | 충남 논산 명재 고택 | 정정남

사랑채

정의 살림집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남자 주인의 생활 및 접객接客을 위한 공간.

내용 사랑채는 살림집에서 남자 주인의 주생활 공간으로, 제사를 지내기 전에 재계齋戒하고 손님을 접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물에서 유래한다. 안채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바깥채라 부르기도 한다.

사랑채는 조선 후기에 형성된 공간개념으로, 그 탄생은 『주자가례朱子家禮』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례와 제례의 방식과 관계가 있다. 조선은 건국 초기 고려 말에 수용된 성리학과 관혼상제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주자가례』를 정교政敎의 강령으로 받아들여 사대부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그에 따른 생활을 권장하였다. 그러나 16세기까지 대부분의 사람은 여전히 고려시대의 습속을 유지하였다. 신랑이 신부 집 근처에 가서 사는 서류부가혼壻留婦家婚이 전과 같이 행해졌고, 여자형제들도 돌아가며 조상 제사를 모시며 재산을 동등하게 분배받는 윤회봉사輪回奉祀가 지속되었다. 이와 같은 삶의 방식으로 인해 여성들의 생활은 조선 후기에 비하여 덜 폐쇄적이었다.

사대부 남성들은 주택의 살림채에서 아내와 같이 기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조선 후기 살림집에서 보이는 사랑채와 같은 독립된 공간이 필요치는 않았다. 단지 제사를 지내기 위해 재계齋戒해야 하는 기간에만 책방이나 사랑斜廊 등의 공간을 이용하였을 뿐이다. 이때의 사랑은 남성 접객용 공간으로 조선 후기의 사랑채와 달리 살림채의 앞부분을 가로막으며 놓인 문간채 또는 행랑채의 일부분을 지칭한다.

이와 같은 상황은 임진·병자 양란을 기점으로 크게 변하였다. 사대부들은 전쟁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주자가례』의 수용과 조상 제사모시기에 힘쓰기 시작하였다. 혼인제도는 『주자가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친영제도가 받아들여져 혼인한 여성이 시가에서 살게 되었으며, 제사는 조상의 신주를 모신 종손의 집에서 지내는 것이 일상으로 받아들여졌다.

친영제의 확대로 시집간 여성들이 제사에 참여하기 힘든 상황이 되자 재산은 제사를 모시는 남자형제나 장자에게만 분급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친영제의 확대는 신랑의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 만들어지는 결과도 초래하였다. 집성촌이 형성되자 종가의 제사는 더욱 잦아졌고, 혈연관계의 남성들의 모임도 활발해졌다. 이로 인해 조선 전기에 손님을 접대할 목적으로 살림집에 별도로 지은 객청客廳은 사람들이 모여 제사를 지내는 제청祭廳으로 변용되기도 하였다.

제사와 손님 접대가 잦아지면서 남자 주인이 제사를 위해 재계하고 남성 손님을 접대할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결국 대문과 가깝고 신주를 모신 가묘家廟와도 가까운 곳에 별도의 규모가 큰 공간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이 공간이 사랑채[舍廊棲]이다. 사랑채는 조선 전기의 사랑이라는 공간의 명칭이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여 규모가 커짐에 따라 채의 개념을 얻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사랑채는 건축적으로 살림채의 전면에 연결되어 지어진 경우도 있고 별동으로 독립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는 경제적·지역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혼인과 제사의 변화, 즉 사회제도의 변화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특징 및 의의 조선의 주택은 16~17세기의 사회적 변화를 거치면서 안채와 사랑채의 구성을 갖추었다. 제사와 접객接客의 변화를 수용하여 남자 주인의 독립 공간인 사랑채가 탄생하였고, 바깥주인의 생활공간과 접객 기능이 빠져 나가면서 안채는 여성과 가족만의 생활을 위한 내밀한 공간이 되었다. 이제껏 우리나라의 전통주택은 여성의 안채와 남성의 사랑채라는 이분법적 구조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사랑채의 탄생은 주택이 사회제도 변화에 따라 가족만의 생활공간이 아니라 소규모 사회로도 변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16~17세기 사대부주택의 공간구성과 활용(정정남,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전통사회와 생활문화(송찬섭 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한국건축개념사전(한국건축개념사전기획위원회, 동녘, 2013), 한국건축대계4-신편 한국건축사전(장기인, 보성각, 2005), 한국건축의 역사(김동욱, 기문당, 2007), 두산백과사전(doopedia.c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정정남(鄭貞男)

사립문

정의 가느다란 나무 내지 가는 나뭇가지를 살대로 엮어 만든 문짝을 단 문.

내용 '사립문'은 가느다란 나무 내지 가는 나뭇가지를 살대로 엮어 만든 문짝인 '사립짝'을 달아서 만든 문이다. 살, 즉 뼈대로 구성한 문이다. 여닫이 형태이다.

사립문은 '사립', '싸리문', '삽작', '시문柴門', '시비柴扉'로도 알려져 있다. 사립문과 싸리문은 표기 방식은 다르나 발음이 동일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다. '싸리문'은 싸리나무 가지로 만든 문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립문의 잘못된 표현이다. 예부터 싸리나무가 흔하였기 때문에 싸리문으로 구전되는 경우가 많았다. '삽작'은 사립문의 충청도 사투리이다. 경상도나 강원도에서는 삽작이 문이나 대문을 뜻한다.

사립문을 한자로는 '시문柴門', '시비柴扉'로 표현한다. 시柴는 섶나무로 가느다란 나무 혹은 땔나무를 뜻한다. 즉 손쉽게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작은 나무를 엮어 만든 일반적인 문의 통칭이 '사립문'이다. '비扉'는 문짝, 문, 집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대로 사립문을 나타낸다. 문을 나타내는 호戶에 비非를 넣어 엮었다는 표현을 하였다. 살입에서 사립이 되었다. 사립은 나무를 엮어 만든 문을 지칭하는 순우리말로 볼 수 있으며, 후대에 사립문으로 쓰인다.

특징 및 의의 사립문은 나무나 나뭇가지로 살대를 엮은 문의 통칭이다. 사립은 순우리말로 살(대)과 입入의 결합어이다. 살입이 사립이 되고 경음화와 음운탈락 현상이 일어나 싸리가 되었다. 이 싸리를 싸리나무로 오인하여 후대에 싸리문이 싸리나무로 만든 문으로 잘못 쓰이고 있다.

사립문은 주변 나무를 엮어 손쉽게 만들 수 있어 조선시대 민가부터 양반가까지 널리 쓰인 문이다. '바자문'도 살대를 엮은 문으로, 사립문과의 차이를 밝히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일정한 문양으로 엮은 문인지 살대가 굵고 촘촘함의 차이인지는 향후 재검토해야 한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김왕직, 동녘, 2007), 우리궁궐을 아는 사전(역사건축기술연구소, 돌베개, 2015), 한국건축답사수첩(한국건축역사학회, 동녘, 2006), 한국건축대계4-신편 한국건축사전(장기인, 보성각, 2014), 한국민속식물(최영전, 아카데미서적, 1997), 한국의 문과 창호(주남철, 대원사, 2001), 한국의 민가(김홍식, 한길사, 199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stdict.korean.go.kr), 국립중앙박물관(museum.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조현정(趙賢貞)



①　②

사방탁자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① 가로39 세로35 높이150 ② 가로41 세로41 높이159

사방탁자
四方卓子

정의 네 개의 기둥과 여러 층의 층널을 조합한, 사방이 뚫린 탁자.

내용 사방탁자四方卓子는 전통 목가구 가운데 가장 단순한 구조로 제작된 문방가구이다. 네 개의 기둥과 층널을 조합한 탁자류卓子類로, 관상용품·애완용품·서책 등을 올려 두고 사용하였다. 형태는 정방형正方形을 기본형으로 하여 주로 쌍으로 놓고 사용하였다. 장방형인 장탁자로는 책을 보관하는 책탁자冊卓子, 다기를 보관하는 다탁자茶卓子 등이 있다. 규모는 방의 크기나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3, 4층으로 형태 변화를 보인다.

사방탁자는 대부분의 조선시대 가구가 폐쇄 형태를 띠는 반면에 개방 형태를 띤다는 특징이 있다. 네 개의 가는 기둥과 여러 층의 층널로만 구성됨으로써 사방이 트이는 개방감을 준다. 간결한 형태와 함께 시원하게 트인 공간감은 좁은 실내공간에서 부피감을 최소화하였다. 사방탁자는 단순하고 소박한 조형미를 내포하고 있어 조선시대 양반 모습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가구라 할 수 있다.

사방탁자는 소나무, 오동나무, 참죽나무, 느티나무, 배나무 등의 목재를 재료로 사용하였다. 뼈대를 이루는 기둥은 견고하게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단한 참죽나무, 느티나무, 배나무 등을 주로 사용하였다.

기둥과 층널의 연결은 맞짜임·장부짜임·연귀짜임으로 짜맞춤하고 기둥·천판·쇠목은 숨은삼방연귀촉짜임으로, 겉으로는 짜임이 보이지 않으면서도 견고하게 제작되었다. 기둥과 쇠목 연결은 연귀턱짜임을 사용하고, 못을 최소화하여 제작하였다. 기둥은 음각으로 선을 길게 파낸 쇠시리를 가공하여 직선적인

장식성을 극대화하였다. 조선 후기의 사방탁자는 이전 시기의 것에 비하여 구조나 기능 면에서 복합 형태를 보인다. 1층 또는 1~2층의 복판에 장, 농, 문갑처럼 수납공간을 설계하여 전면에 여닫이문과 서랍을 달아 수납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앞바탕에 자물쇠를 달아 문방구류나 문서 등 귀중품을 보관하기도 하였다.

특징 및 의의 사방탁자는 사랑방이나 안방에서 대체로 낮은 문갑과 함께 쌍으로 배치하여 수직과 수평의 상호 조화를 이루었다. 단순하고 정돈된 특유의 멋은 조선시대의 사회·역사 단면을 보여 준다.

참고문헌 목가구(김희수·김삼기, 대원사, 2004), 이조 후기 탁자류의 의장 소고(김헌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5), 한국 목가구의 전통양식(배만실,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8), 한국의 목공예-하(이종석, 열화당, 1988), e뮤지엄(emuseum.go.kr).

필자 김희수(金憙洙)

산경표
山徑表

정의 우리나라 산줄기의 계통을 도표 형식으로 정리한 책.

개관 우리나라는 국토의 66%가 산지인 나라이다. 그리고 그 산은 단순히 자연의 한 요소가 아니라 문화의 대상, 신앙의 대상, 이동의 대상, 경제의 대상이었다. 그 결과 일찍부터 관찬지리지官撰地理志를 통하여 산을 포함한 지역과 장소에 대한 체계화된 지식을 기록하였다. 특히 조선시대에 와서는 고지도古地圖, 유교 지식인들의 유산기遊山記, 『산림경제山林經濟』나 『산수고山水考』와 같은 백과전서 등 다방면에서 산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여 왔다. 삶과 문화에서 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기 때문이며, 국가 통치 차원에서도 중요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존에 축적된 산에 대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계통을 세워 통합 정리한 『산경표山徑表』는 그 형식과 내용면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으며, 오늘날에도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산경표』의 저자와 간행 시기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대략적인 시대 정황과 산에 대한 다양한 지식 축적으로 미루어 볼 때 조선 후기 영조 때의 실학파 지리학자 여암旅庵 신경준申景濬(1712~1781)이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는 신경준의 저서를 바탕으로 후대 사람이 쓴 책 정도로 보고 있다.

내용 『산경표』의 가장 큰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형식에 있어 우리나라 산 전체를 한 장당 11단段의 도표로 제시한 족보식 방식으로 구성한 점이다. 그래서 책의 제목이 '표表'라고 표현된 것이다. 둘째 내용 구성에서 백두산을 머리로 하여 전체를 큰 하나의 줄기[白頭大幹]와 14개의 갈래진 줄기로 본 것이다. 14개 줄기 중에서도 강을 끼고 있는 것은 정맥正脈, 그렇지 않은 것은 정간正幹으로 분류하여 '1대간, 1정간, 13정맥'으로 체계화하였다. 셋째 각각의 산 이름 좌측에는 작은 글씨로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주로 '영덕치재남이리盈德治在南二里'처럼 읍치邑治로부터의 방향과 거리를 이수里數로 제시하고 있다. 그 외에 '서래西來'처럼 산줄기 흐름의 방향, '분이기分二岐'처럼 다시 갈라지는 산줄기의 수 등을 표시하고 있다. 이처럼 『산경표』는 형식과 내용에서 간단명료하게 국토의 지형지리를 체계화하면서도 계통을 집대성해서 제시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1대간, 1정간, 13정맥' 체계라 할 수 있다. 1대간은 '백두대간'으로, 백두산에서 시작해 태백산까지 내려와 속리산과 덕유산을 거쳐 지리산까지 한반도를 종단하는 가장 큰 산줄기이다. 백두대간에서 가지 쳐서 나간 산줄기는 크게 14개로 구분하였다. 이것들은 하천을 기본으로 하여 구분된다. 단 14개 중에서 하나만은 계곡의 물만 흐를 뿐 하천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따로 정간으로만 표현하였다. 함경도 끝 '장백정간'이 그것이다. 나머지 13개 산줄기는 모두 하천을 중심으로 정맥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청천강을 중심으로 '청

북정맥'과 '청남정맥', 한강을 중심으로 '한북정맥'과 '한남정맥', 임진강과 예성강을 중심으로 '임진북예성남정맥', 금강을 중심으로 '금북정맥'과 '금남정맥', 한강과 금강을 중심으로 '한남금북정맥', 낙동강을 중심으로 '낙동정맥'과 '낙남정맥'이 그것이다. 그 외에 '해서정맥'은 실제로는 예성강과 대동강을 중심으로 하는 '예성북대동남정맥', '호남정맥'은 섬진강과 영산강을 중심으로 하는 '섬진서영산동정맥', '금남호남정맥'은 금강과 섬진강을 중심으로 하는 '금남섬진북정맥'의 의미가 된다.

우리 국토에 대한 『산경표』 방식의 이해는 현재 공식 계승이 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지하地下의 지질구조선을 중심으로 일본학자가 명명한 '산맥체계'가 일제강점기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과서와 교육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산경표』가 하천 중심으로 산줄기를 구분한 것은 산줄기의 봉우리를 이은 능선이 물을 나누어 흘러가게 하는 분수계分水界가 되기 때문이다. 산은 물을 가르고 물은 산을 건너지 않는다는 '산자분수령山自分水嶺'은 실로 『산경표』 원리의 시작이요, 끝이다. 그런데 '산맥체계'에서는 땅 위의 산줄기와 상관없이 지질구조선을 따라 산맥을 그렸기 때문에 많은 산맥이 물길을 넘는 모순이 나타나며, 산맥의 흐름 또한 실제와 다르게 거의 직선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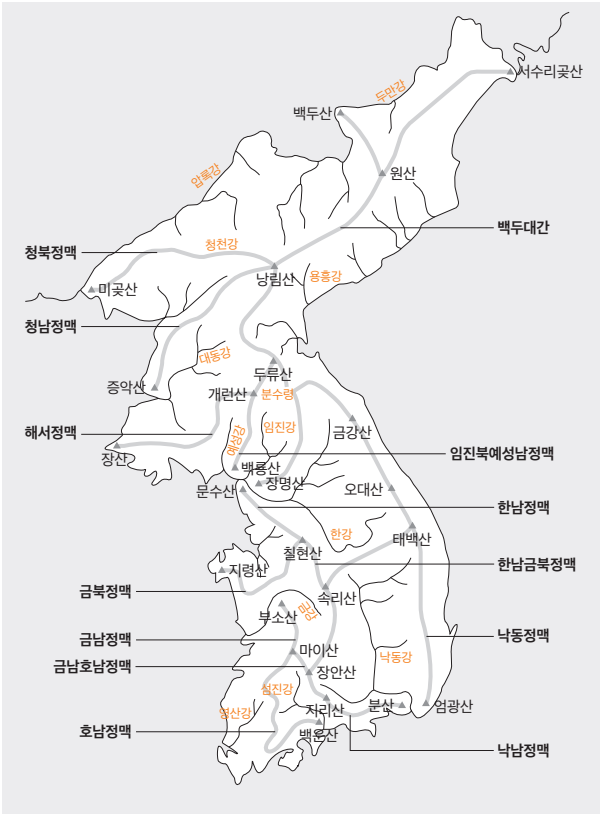
이처럼 『산경표』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전통 산줄기에 대한 이해와 교과서에 실려 있는 지질구조선에 입각한 산맥체계를 둘러싸고 그 적합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국토연구원은 과학 증거가 없는 논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하여 1995년부터 연구를 체계화하여 2004년 『한반도 산맥체계 재정립 연구』라는 연구서를 발간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백두산에서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이 중간에 단절되지 않고 끝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것을 한반도의 주된 산맥으로 복원시켰으며, 전통 지리서와 고지도의 정확성 및 과학성을 입증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의 의의를 "일제에 의해 창지개명創地改名된 우리 국토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를 털어 내 국토의 명예를 회복하고, 한반도의 지형·지세에 관한 정확한 지식체계를 확립하였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일부 지리학계의 반대 의견에 의하여 아직까지도 교과서에서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제시된 '산맥체계'가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경표』는 『여지편람』의 '산경표'를 비롯하여 여러 판본이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필사본 형태로 훨씬 더 많은 판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필사를 거듭하면서 글자의 오류와 누락은 있지만 『산경표』 판본들 사이에 심각한 차이는 거의 없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산경표』는 박용수 해설이 첨가된 도서출판 푸른산에서 발간한 1990년판 영인본이다. 이 책은 1913년 육당六堂 최남선崔南善이 인쇄본으로 발간한 조선광문회본朝鮮光文會本을 다시 영인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통 산줄기 인식을 대신하여 지질구조선에 입각한 일본학자의 이론이 1908년 지리교과서에 등장하자 그에 대한 민족 저항의식에서 최남선을 중심으로 인쇄본 『산경표』가 발간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산경표』는 본래 풍수설과 관계없이 국토의 산줄기를 계통에 입각하여 정리할 목적으로 출현하였다. 그러나 풍수에서는 집터 및 묘터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뒷산[主山]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중시한다. 그것은 주산의 역량이 얼마나 뛰어나며, 물줄기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를 말해 주기 때문이다. 결국 『산경표』의 계통 이해는 풍수에서 말하는 태조산-중조산-소조산-주산의 흐름을 파악하게 해 준다. 특히 『산경표』의


山經表

산경표 | 조선 | 국립중앙박물관



산경표에 입각한 우리나라 산줄기

산줄기 지맥 마지막은 대부분 읍치의 주산이 되고 있다. 그 때문에 오늘날 풍수학인들에게는 『산경표』가 중요한 풍수서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는 일부 차이가 있음에도 오늘날 산과 물의 흐름을 시각화시켜서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그 결과 현대의 세밀한 축적 지형도나 GIS 정보와 함께 여전히 『산경표』와 『대동여지도』를 결합한 전통 지식과 정보는 풍수 연구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그 분석 결과는 현재에도 풍수 관련 학술논문의 연구 방법과 연구결과로 유효하게 인정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우리나라 산의 계통을 도표 형식으로 정리한 『산경표』는 대단히 창의적인 시도로서 세계사를 통틀어 유일한 것이다. 이에 비해 일본학자에 의하여 제시된 지질구조선에 입각한 '산맥체계'는 실제 산줄기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런데 서구의 경우에도 지상으로 드러나는 산줄기의 흐름보다는 오히려 지질구조선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제국주의 시절 식민지 지하자원 침탈을 위한 연구 목적의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근대 이전 서구의 고지도를 보면 우리나라의 고지도만큼 정교하지는 않지만 지상의 산줄기와 그에 따른 물줄기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16세기에 제작된 유명한 로마 바티칸 박물관의 '지도의 방'에 전시되어 있는 이탈리아의 각 지역 지도는 '공중투시도' 방식으로 그렸기 때문에 산이 계통적으로 이어지면서 '산자분수령'에 부합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산경표』의 산줄기 이해 체계는 역으로 서구의 지리학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한 관점에서 최근 알프스Alps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의 산줄기를 한국의 『산경표』 논리로 제시한 연구도 발표되었다.

또한 본래 산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산을 둘러싼 사람들의 삶 및 문화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산경표』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문화권文化圈의 이해나 차후 풍요로운 생활사의 창출을 위한 자료로 『산경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인의 삶에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등산 분야에서 일반화된 '백두대간' 종주 답사의 유행, 점차 상식화되고 있는, 『산경표』 방식에 입각한 산줄기와 물줄기의 이해에 더하여 『산경표』를 통한 문화권 및 생활사 연구 결과가 축적된다면 이 또한 전 국민의 인문학 소양을 높여 주는 것이다. 또한 바람직한 삶과 문화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사람의 산 우리 산의 인문학(최원석, 한길사, 2014), 산경표(신경준, 푸른산, 1990), 산경표를 적용한 알프스산맥 유럽지형 분석과 활용(김기덕·김한래, 역사민속학47, 역사민속학회, 2015), 한반도 산맥체계 재정립연구-산줄기 분석을 중심으로(김연준·김영표·임은선, 국토연구원, 2004).

필자 김기덕(金起德)

산태극수태극
山太極水太極

정의 산의 흐름과 물의 흐름이 서로 태극 모양을 이루는 지형을 일컫는 용어.

개관 풍수 논리에서는 산의 흐름과 물의 흐름을 보면 그 지역의 풍수 조건을 판별할 수 있다. 산과 물로 대변되는 음양이 조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의 흐름이 산을 감싸고 돌아 주어야 한다. 물이 산을 감싸고 돈다는 것은 산에 의지하여 형성된 마을을 감싸고 돈다는 의미도 된다. 마치 인간사에서 상대방을 보호해 주려고 팔을 감싸 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러므로 산과 물이 서로 평행선을 긋고 가는 것을 산수동거山水同去라 하여 좋지 않게 본다. 물이 산을 감싸지 못하여 음양이 조화된 땅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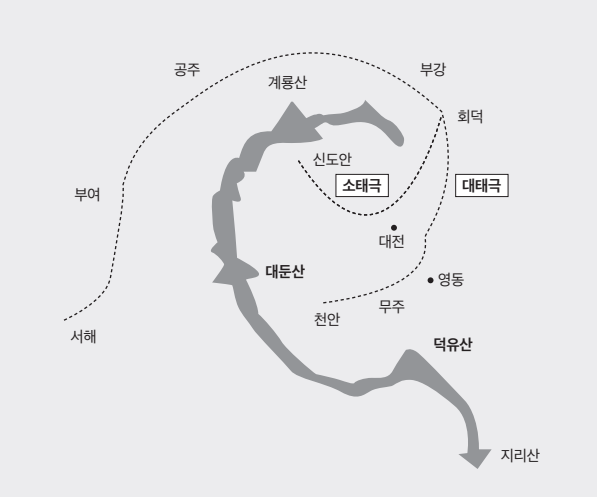
그런데 물이 산을 감싸는 모습이 태극 모양으로 교차하면 특히 귀한 지형으로 여긴다. 산과 물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다. 대체로 물은 직진直進하고자 한다. 그러나 물이 직진하지 못하고 굽어 가는 것은 산(자락)이 와 있기 때문이다. 그 산자락을 넘어가지 못하니 굽어 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 굽어 가는 것이 산을 뱅뱅 감싸고 돌수록 더욱 좋게 본다. 그만큼 물이 산을 잘 보호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지형을 풍수에서는 산태극수태극山太極水太極의 지형이라고 표현하였다. 이것은 온전히 한국에서 출현한 용어라 할 수 있다.

내용 한국의 산태극수태극 대표 지형으로 흔히 계룡산 신도안 일대가 회자되었다. 많이 인용되는 그림을 보면 산의 흐름은 덕유산, 대둔산을 거쳐 공주 동쪽에 이르러 반달 모양(C자형)으로 우회하며 계룡산을 이룬다. 계룡산에서 크게 우회한 산의 흐름이 원의 중심으로 흘러 들어가는 산태극의 경로가 된다. 수태극은 물의 발원지에 따라 크게 두 흐름이 있으며, 이는 소태극과 대태극으로 표현한다. 소태극이란 계룡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신도안을 거쳐 동남으로 빠졌다가 다시 동북으로 역류하여 금강과 합류하면서 계룡산의 후면으로 흘러 공주와 부여를 지나 서해로 들어가는 물의 흐름이다. 대태극이란 전라북도 장수·진안·무주에서 발원한 금강이 대전의 갑천, 음성의 미호천과 합류한 후 다시 계룡산을 감싸고 역시 공주·부여를 지나 서해로 들어가는 물의 흐름이다.

이처럼 계룡산은 남쪽 자락의 신도안을 중심축으로 산과 물이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것처럼 태극 모양을 이룬다. 그런데 태극 모양이 되려면 산과 물이 완벽하게 돌아 주어야 한다. 즉 완벽한 산태극은 끝이 반달 모양(C자형)이 되어 자기를 낳은 일종의 조상 산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을 회룡고조回龍顧祖라 한다. 또한



회룡포 | 경북 예천 | 국립민속박물관



산태극수태극

완벽한 수태극은 산의 반달 모양 안에서 물이 시작되어 반대 모양의 반달 모양(☽자형)으로 물의 흐름이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산과 물이 서로 태극의 음양 모양(☯)처럼 결합되어 있는 형상이 된다.

이러한 계룡산의 지형은 일찍부터 풍수지리에서 뛰어난 대길지大吉地로 여겨졌으며, 그 결과 조선 초기에 수도를 정하는 과정에서 계룡산이 거론되었다(1393, 태조 2 정월). 태조는 친히 계룡산으로 거둥하여 5일을 머물면서 새 도읍지가 될 주위의 형세를 살피고 만족하여 신도新都 공사를 지시하였다. 그러나 공사 진행 10개월 만에 신도 공사는 전격 중지되었다. 하륜을 중심으로 한 계룡산 반대파의 논리가 통하였기 때문이다. 하륜은 계룡산의 위치가 국토의 남방에 치우쳐 있다는 점, 가까운 곳에 대하大河가 없어 조운漕運과 용수用水에 불편하다는 점과 함께 송나라 호순신胡舜臣의 이기 방법론의 풍수 논리를 가져와 계룡산이 도읍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 결과 계룡산 신도안 지역은 조선의 도읍으로 되지는 못하였지만 이후에도 항상 장차 도읍지가 될 것이라는 풍수도참의 발원지로 널리 회자되었다. 또한 난을 피할 수 있는 십승지지十勝之地의 하나로 여겨져 신흥종교의 집산지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삼군본부가 이전해 오면서 신도안의 옛모습은 과거 속으로 묻혔다.

계룡산의 산과 물 지형은 거의 태극 모양에 가깝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산이 들어온 지형을 물이 180도 이상 감아 돌면 대체로 산태극수태극이라 말한다. 크게 보면 그것도 산과 물이 태극처럼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상북도 안동의 하회마을이나 예천의 회룡포, 영주 무섬마을과 같은 곳을 산태극수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전 세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도시들 가운데에는 산태극수태극 지형이 많이 있다. 영국의 배스Bath, 스위스의 베른Bern, 스페인의 톨레도Toledo, 프랑스의 브장송Besancon 등 셀 수 없이 많다. 어떤 지역은 이러한 산태극수태극이 중첩되어 있다. 체코의 체스키크룸로프Cesky-krumlov가 그러하며, 이탈리아 로마Rome의 테베레강과 주변 산세도 크게 보면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풍수 이론과 용어는 대부분 동아시아 삼국이 공유하였지만 자신들의 지형 특수성에 따라 차이점과 강조점이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그 가운데 한국의 물형론은 한국 고유의 것만은 아니지만 특히 한국에서 크게 유행하였다. 산의 모양을 사람·동물·물상의 형태로 파악하여 해석하는 풍수방법론인 물형론은 한국의 마을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산태극수태극도 비록 '태극' 개념을 가져온 것이지만 크게 보면 물형론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이 산태극수태극은 한국에서 출현한 용어로서 대단히 논리정연하면서도 산과 물의 흐름을 체계화해서 설명할 뿐만 아니라 세계 보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태극'을 원용하여 제시했다는 점에서 독창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도시를 비롯하여 전 세계의 유명한 도시들은 바로 산태극수태극 지형이다. 이 점에서 산태극수태극 논리는 세계에 통용될 수 있는 보편 개념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지형을 해석할 때 더욱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고려시대의 연구(이병도, 아세아문화사, 1980), 계룡산(정종수, 대원사, 1996), 산경표를 적용한 알프스산맥 유럽지형 분석과 활용(김기덕·김한래, 역사민속학47, 역사민속학회, 2015), 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함인가(최창조, 서해문집, 1990).

필자 김기덕(金起德)

살강

정의 그릇 같은 부엌 세간살이를 얹어 놓기 위하여 부엌의 벽 중턱에 가로로 드린 보관기구.

개관 살강은 전통가옥에서 주부가 부엌에서 그릇 등을 씻어서 얹어 두던 곳이다. 대를 엮어서 바닥을 만든 후에 여유 공간인 벽에 설치한다. 보통 주부의 손이 닿을 수 있는 벽 중턱에 살강을 설치한다. 개방 공간으로, 기물들이 눈에 잘 띄어서 주부는 쓰고자 하는 것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다. 젖은 그릇이라도 이곳에 얹어 놓으면 물기가 쉽게 없어진다.

내용 부엌은 전통 사회에서 취사와 난방, 집안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전형적인 여성공간이었다. 주부들은 취사와 요리 공간으로서 부엌에서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각종 기명器皿과 도구들을 가지런히 비치해 놓아야 한다. 부엌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관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둘 필요성이 있다.

부엌의 기물 보관 방법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찬장을 배치해서 음식과 기물들을 보관한다. 두 번째는 기둥 등에 못을 박아서 기물들을 걸어 놓는다. 주부들은 바가지와 키, 떡살, 다식판 등 자주 사용하지 않는 기물들을 평상시 이곳에 걸어 놓는다. 세 번째는 대를 엮어 바닥을 만들어서 벽에 설치한다. 이를 살강이라 한다. 식기류 등 매번 사용하는 기명들은 이곳에 가지런히 엎어 놓는다.

살강은 그릇 따위를 얹어 놓기 위하여 부엌의 벽 중턱에 들인 개방공간이다. 기물들이 눈에 띄어서 주부는 쉽게 찾아 사용할 수 있다. 벽 중간쯤에 대나무 쪼가리를 발처럼 촘촘하게 엮어서 들인 살강에는 대접과 접시, 밥그릇 등을 엎어 놓았다. 이때 단지 대나무나 통나무만을 시렁처럼 늘어놓으면 그릇이 빠지게 되므로 밑바닥을 대로 엮어 두는 것이 보통이다.

살강은 그릇 등을 한 줄로 가지런히 얹어 놓기도 하고 켜켜이 쌓아 놓음으로써 찬장 등 보관기구 역할을 한다. 발처럼 엮어서 만들기 때문에 살강에 얹은 그릇의 물기는 잘 빠진다. 개방공간이어서 통풍이 잘되므로 물기가 덜 빠진 그릇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히 물기가 없어진다. 살강에 비치한 그릇은 폐쇄된 찬장에서와 달리 냄새가 배지 않는다.



살강 | 경북 안동 하회 북촌댁 | 서헌강

살강에는 언제나 빈 그릇들이 가지런히 잘 정리되어 있다. 때가 되면 밥그릇에 싸라기밥, 곱삶은 꽁보리밥, 무밥 등을 담았다. 국그릇엔 시래깃국·쑥국·콩나물국 등을, 접시엔 각종 나물을 담아서 가족들 상에 올렸다.

시간이 흐르면서 부엌에서 사용하는 기물은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주부들은 한정된 공간에서 늘어나는 기물들을 잘 보관하는 공간을 필요로 하였다. 그들은 부엌에서 유휴공간을 찾을 수밖에 없다. 네 면의 벽과 천장은 한정된 부엌 공간을 최대한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주부들은 살강을 보조공간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구조와 설치 위치로 보아 살강은 찬장 이전부터 부엌에서 활용하였던 도구일 수 있다. 찬장은 맞춤형 보관기구로서 일정한 비용을 치르고, 살강은 일찍이 찬장 등 맞춤형 보관도구 제작과 보급 이전부터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강은 기물 이외에 음식을 잠시 보관하는 공간이기도 하였다. 여름엔 식은 밥, 삶은 국수, 감자, 고구마 등이 살강에서 머물다가 밥상에 올랐다. 요즘에는 신식 수납장과 냉장고 등에 자리를 내주고 부엌에서 살강의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다.

발처럼 엮어서 만들기 때문에 살강의 대 사이로 얹어 놓은 숟가락 등이 부엌 바닥으로 빠질 수 있다. '살강 밑에서 숟가락 얻었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는 남이 빠뜨린 물건을 수고 없이 얻어서 좋아하다가 물건 주인이 나타나 헛되이 좋아한 것이 됨을 비유하는 말이다. 살강은 대를 엮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밑으로 숟가락이 떨어져 있기 십상이다. 살강 밑에서 숟가락을 줍는 일은 드물지 않다. 별일 아닌 것을 크게 자랑하는 사람을 빗댄 말이라 하겠다.

특징 및 의의 여유공간을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살강의 설치는 부엌의 활용도와 효용성을 상당히 높였다. 수직 벽을 보관공간으로 만들어 공간을 확보하면서 주부들은 부엌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였다. 살강은 보조공간 수단으로 보이지만 구조와 설치 위치로 보아 주부들이 찬장 이전부터 부엌에서 활용한 도구일 수 있다. 살강은 대를 엮어서 만든 개방공간으로 주부들의 활용도가 높았으며, 그릇의 건조시간을 줄였다. 습한 여름에는 살강의 사용이 매우 위생적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의 살림집(신동훈, 열화당, 1986), 한국의 주거민속지(김광언, 민음사, 1988).

필자 박종민(朴鍾珉)

살림살이

정의 의식주를 비롯하여 육아, 생업 등 한 가족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본 가재 용품과 가구, 설비 일체를 가리키는 말.

내용 살림살이는 순수한 우리말이다. 명사적 의미로 '살림을 차려 사는 일'과 이를 위해 필요한 세간을 의미하고 동사적 의미로 '살림을 차려서 산다'는 뜻이 있다. 또 국어사전에서 '살림'에 대한 정의를 보면 "첫째, 한 집안을 이루어 살아가는 일, 둘째, 살아가는 형편이나 정도, 셋째, 집 안에서 주로 쓰는 세간"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살림살이는 세 번째 정의와 관련이 깊다. 세간은 집 안에서 쓰는 온갖 물건을 말한다. 가구, 가재家財 도구, 가재기물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살림살이'의 옛말인 '살님사리'는 19세기 문헌에서부터 나타난다. '살님사리'는 '살님'과 '사리'가 결합한 말이다. '살님'은 '살리다'와 접미사 '-ㅁ'으로 분석되며, '사리'는 '살다'의 어근인 '살-'에 접미사 '-이'가 붙어 파생된 말이다. 이러한 어휘적인 의미를 토대로 살펴보면 살림살이는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그 자체를 의미하는 말이면서 이에 필요한 가재용품을 다 포괄하는 말이다. 즉 살림이란 집에서 개인이나 가족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꾸려 갈 수 있게 지원하는 생활 용구와 가구 등을 포함한 집기 일체를 가리킨다. 매일의 의식주를 영위하고 어린 자녀들의 양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생활용품 등을 포괄하는 것이다.

사람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


안방


사랑방

살림살이 | 서울 종로구 경복궁 | 국립민속박물관

다. 집은 그러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재충전하는 중요한 공간이므로 가정의 모든 생활은 중요하다. 전통사회에서는 지금과 달리 자급자족하는 생활이 대부분이었다. 또 농업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생산과 관련한 중요한 일들이 가정 내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현대보다 훨씬 더 집안에서의 활동이 중요시되었다. 그중에 하루 세끼의 식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분배하여 만들어서 먹고 치우는 것, 즉 '삼시 세끼'를 챙기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는 일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식생활의 기본은 취사설비와 상차림이다. 취사를 위해서는 식품을 보관하고 씻어서 갈무리하며 조리할 수 있는 여러 용구와 겨울철 저장식품을 저장하고 수납할 수 있는 용품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계절 변화가 뚜렷한 한반도에서 더위와 추위를 막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의생활과 주생활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집에는 옷의 세탁과 건조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의복을 수납할 수 있는 가구나 설비 용품 등이 필수적이다. 주생활을 위해서는 온도 조절을 위한 계절별 침구, 취침을 위한 가구, 주거의 환경적 관리 등을 위한 용품, 실내 장식을 위한 물품까지 필요하다. 이러한 일상적 용품과 달리 비일상적인 의례나 명절, 여행 혹은 취미생활 등에 필요한 특별한 용품, 그 외 가족의 여가와 취미 활동을 위한 용품도 요구된다.

이러한 생활 집기들에는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다. 산업사회 이전의 전통사회는 농경사회이고 모든 것이 수공예적 생산으로 이루어져 대부분이 자연재료로 만들어졌다. 그중 가장 기능적이면서도 고급품은 가구들이었다. 어떤 재료와 형태로 되어 있는지도 중요하였지만 무엇보다 장인의 기술과 표현 능력의 가치 수준에 따라 물품의 격에 큰 차이가 있었다. 특히 전통 안방에서 사용한 가구는 좌식생활이었음에도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였다. 물론 사회적, 생활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산림경제山林經濟』의 <방청기물房廳器物>에 "상류계층의 안방 가구들은 수납가구로 장, 농, 반닫이가 있고, 장식가구로 문갑, 사방탁자, 장탁자가 있다. 기타 소품으로는 경대, 빗접, 함, 궤, 반짇고리, 등촉구 등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춘향전>에 "방중을 둘러보며 벽상을 살펴보니 여간기물 놓얐난대 룡장봉장 객계수리 이렁저렁 버렸난듸 무슨 기림장도 붓쳐 있고 기림을 그려부쳤으되 서방없는 춘향이오."라고 하였으며, <흥부전>에는 "박 속으로 왼갖 세간이 다 나온다. 자개함롱 반닫이며 룡장 봉장 귀뒤주 쇄금들니 삼층장 게자다리 옷걸이며 쌍룡그린 빗접고비 룡두머리 장목비 놋촉대 백통유기 새벌같은 요강타구 그득히 벌여 놓고 운단이불 대단요미 원앙금침 잣벼개를 반닫이에 쌓아 놓고 사랑치레 더욱 좋다. 룡목괘상 벼루집 화류문갑 각게수리 룡연벼루 거북연적 대모책상 호박필통 황홀하게 벌여놓고 서책을 쌓았으되 천자류합 동몽선습……."이라 기록된 것으로 보아, 장·농·반닫이와 촛대·타구·벼루·책상 등의 물품이 전통 상류사회의 주요 살림살이였음을 알 수 있다.


대청


부엌

살림살이 | 경기 용인 한국민속촌 | 국립민속박물관

여기에 등장한 물품들은 조선시대의 일반 품목이라기보다 백성들에게 선망 대상이 된 방의 고급스러운 세간살이였다. 이외에도 판소리 열두마당의 하나인 <옹고집전>이나 민속탈춤인 <봉산탈춤>과 <동래야류>, 서울·경기 지역 무가인 <황제풀이> 등의 대사나 서사에 안방 가구들이 묘사되어 있다. 공통으로 나오는 가구는 자개 함롱, 반다지, 용장, 봉장, 가께수리 등이다. 이들 가구는 현대의 텔레비전이나 세탁기, 냉장고처럼 과거 한국인이 노래 부르듯이 외울 수 있을 정도의 주요 살림이었다.

한편 실제 사례로는 강원도 강릉 선교장에서 대대로 사용하던 물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중 안방 생활용구로는 48개가 나와 있다. 그중 가구는 관대상자 1개, 주함朱函 2개, 문갑 3개, 반닫이 1개, 이층장 1개, 칠함 2개, 삼층장 2개, 옷장 1개 등이었다.

안방 가구 마련은 우선 신부가 결혼할 때 준비한 혼수 품목에서 시작되었다. 1917년 경상북도 봉화에서 태어난 성춘식 할머니는 "시집에서도 상답이라 그믄서 농을 미리 신부 집에 보내지 신행 날 받아 가지고 결혼하고 금방 막바로 안 오거등요. 상답이 요새 함택이라. 그때 금반지는 모르고 은반지, 쌍 반지, 외 반지, 비녀 두 개. 나는 보통은 받은 택이래요. 경대하고 농하고, 시집에서 농 보내는데 옷감 많이 보내지. 그것도 형세 나가며 부잣집에서는 많이 보내고 그랜는데 우린 그저 보통은 되그러 보냈고."라고 하여 자신의 혼수에 대해 구술하였다. 이를 통하여 시집올 때 경대와 농을 마련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시댁에서 농을 제공한다는 경상도 지역의 독특한 관습을 보여 준다.

이에 비하여 충청남도 논산 명재 고택의 종부 양창호 할머니는 시집올 당시에 옷과 침구 외에 머릿장과 이층장, 반닫이를 혼수로 해 왔다고 한다. 할머니의 친정이 대단한 집안이라 이층장도 좋은 재질로 여러 개나 마련해 왔다고 하였다. 지금도 이 집에는 200여 년이나 된 먹감나무 이층장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전통사회에서는 가구와 생활용품 등 다양한 형태의 살림살이 등이 있었다. 안방의 기본 가구는 반닫이, 장, 농 등 의류 수납용 가구였다. 이러한 전통 고가구들은 오늘날 기능성보다 장식성이 인정되어 인테리어용으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살림살이는 1970년대 전후하여 아파트 도입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변화하였다. 주거양식의 획기적인 변화는 삶의 모든 것을 바꾸었다. 난방 방식의 변화로 인한 부엌의 실내 입식화, 다양한 가전제품 확대, 식생활 양식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 1970년대 가스레인지가 보급되고 1980년대 전후 아파트에 가스보일러를 비롯한 대도시의 난방방식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아파트 평면설계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부엌 규모가 커지고 다용도실이 확대되면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물품 배치가 용이해진 것이다. 특히 부엌의 실내 입식화는 1980년대 아파트의 양적인 폭주와 더불어 크게 확산되었다. 이는 우리 생활양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 편리한 취사 방식 변화로 한

식 이외에 다양한 서구적인 식생활 문화가 도입되었고, 이러한 식생활을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가전제품이 크게 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생활행위별 살림살이의 기본 유형을 정리해 보면 식생활에서는 취사용 소형 물품인 냄비, 팬과 주전자에서부터 가전제품인 전기밥솥, 전기포트, 냉장고, 김치냉장고 등이 대표적이지만 개별 가족생활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존재한다. 식사를 위해서는 입식의 식탁과 의자, 일상용 혹은 손님용 그릇, 개별용 수저와 다양한 컵이 필요하다.

의생활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의복을 수납하고 사용 관리할 수 있는 옷장이나 서랍장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가전제품은 세탁기, 건조기, 다리미 등이다. 붙박이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 역시 주거 유형과 가족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주생활은 본래 집 안에서의 생활 전반을 의미하지만 의생활과 식생활을 제외하면 우선 한국인의 좌식생활과 입식생활 혼용에 필요한 모든 용품이 주생활에 필요하다. 취침에 필요한 계절별 침구들과 침대, 방석, 카펫, 거실용 소파, 기타 책상과 의자, 책장 등 가족 특성에 따른 다양한 보조 물품이 있을 것이다. 또한 쾌적한 생활에 필요한 설비로 여름을 위한 에어컨이나 선풍기, 겨울철 보조 난방기, 제습기, 공기청정기와 청소용 기구, 가족 오락과 휴식을 위한 텔레비전과 음향기기 등이 있다. 이외에도 단독주택이나 농어촌주택과 같이 주거 유형에 따라 더 많은 생활도구나 생업용 도구들이 존재한다.

현대는 과거와 달리 다양한 여가 활동을 위한 개별 물품의 종류와 수도 매우 늘어났으며, 이러한 것들은 필수품이 아니기에 가족의 소비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또한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아이들의 양육을 위한 별도의 의식주 물품들이 소요된다.

특징 및 의의 현대 가정의 살림살이는 행위의 일상성 여부, 가족의 유형과 개개인의 활동, 거주 유형의 특성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기본적인 살림살이의 유형은 무엇보다 생활양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소유한 물품의 크기 및 수량과 관련이 있다. 가구나 대형 가전제품은 공간 제약을 받기 때문에 주거공간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 현대의 살림살이는 공통적인 것도 많지만 그 외 개별 용품들의 소유 유형이나 양은 시대 경향과 개별 취향에 따라 차이가 크다.

참고문헌 강릉 선교장(이기서, 열화당, 1980), 이부자리 피이 놓고 암만 바래도 안 와(성춘식 구술, 신경란 편, 뿌리깊은나무, 1990), 한국 목가구의 전통양식(배만실,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8), 한국의 목공예·상·하(이종석, 열화당, 1996).

필자 박선희(朴善姬)

살림집

정의 가족이 주생활을 영위하는 건물과 장소.

개관 우리 말에서 집이라는 용어는 다중의 의미가 있다. '이층집'이나 '곰탕집', '찻집' 등의 용법에서 사용되는 '집'은 용도와 관계없이 단순히 '건물'만을 의미한다. '우리 집', '집과 학교' 등에서 사용되는 '집'은 특별히 주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을 지칭한다. 한편 '행복한 집'이나 '가난한 집'이라는 표현에서 '집'이란 건물로서의 집이 아닌 일정한 사회 단위로서의 가족과 가문을 의미한다. 일단의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근거지로서 가족의 주생활, 즉 살림살이가 이루어지는 장소와 건물을 특별히 '살림집'이라고 구별한다. 하지만 함께 생활하는 사회 구성, 생활 방식, 물리 환경이나 시설은 사회마다 다르고 시대에 따라 변해 왔다. 따라서 살림집을 이해하는 방식도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게 조망되어야 한다.

내용 살림집이란 일상의 주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하지만 집은 공간이나 시설의 기능 차원을 넘어 의미가 다양하다. 그것은 역사 과정에서 새롭게 부여되거나 강화된 개념이지만 집의 의미를 조망하는 다양한 측면이기도 하다. 한국인의 살림집으로서 한옥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역사 속에서 한옥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은 은신처에서 출발하였다.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초기 인류도 생존과 번식을 위하여 집을 짓기 시작하였다. 생존을 위협하는 혹독한 기후와 맹수들로부터 자신과 어린 새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하려는 행위는 본능에 가까운 일이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동굴이나 바위그늘이 없다면 이러한 은신처를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계속 이동하면서 채집과 수렵으로 생활을 영위하던 구석기인들에게 오래 견딜 만한 크고 튼튼한 집을 지을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충청남도 공주 석장리 등에서 나타나는 구석기시대의 막집형 살림집은 부부와 자식으로 구성된 가족 단위의 일시적 거처를 위한 최소한의 생존 장치였음을 보여 준다.

둘째, 집은 생활과 생산의 근거지가 되었다. 어로나 농경의 시작은 정착생활을 유도하게 된다. 생산이 이루어지는 근처에 정착하게 되고 집은 노동력의 근거지로서 지속 가능한 생활환경으로 변화했다. 많은 사람을 수용하는 좀 더 큰 공간과 오래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체를 만들게 되었다. 집약된 노동이 필요한 농경생활은 생활 단위의 규모를 증대시켰고, 가족 단위가 집중되면서 마을이라는 생활공동체를 발전시켰다. 마을이 생활과 생산, 방어의 사회공동체로 조직되면서 살림집은 마을의 사회 단위로 기능하게 된다. 수확물을 저장하거나 공동생활, 작업을 위한 시설은 살림집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셋째, 집은 신분과 권위의 상징이다. 이는 계급사회 발생과 관련이 있다. 철기시대 이래 신분제 사회로 이행하면서 신분 차별화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지배계층은 많은 재산과 노동력을 수용하기 위해 더 큰 집이 필요하였고, 피지배계층과의 차별화를 위해 더욱 화려한 집을 요구하였다. 살림집에 다양한 구성원과 기능을 담기 위하여 공간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고급주택을 짓기 위하여 건축 재료와 기술이 발전하게 된다. 안악 3호분과 같은 고구려 벽화에서 나타나는 부엌, 고깃간, 수렛간 등의 모습은 다양한 건물과 공간으로 구성된 상류주택의 모습을 보여 준다.

한편 지배계층은 피지배계층이 자신들의 주택을 모방하지 못하도록 주택 형식을 제한하는 제도를 두기도 했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신라의 가사규제는 당시의 주택에서 계층성을 표현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이억영 | 한로 | 국립민속박물관

를 설명해 준다. 상류주택들은 담장과 회랑을 두르고 대문을 달았으며, 큰 마구간을 두기도 하였다. 매끈하게 돌을 다듬어 만든 계단과 기단, 공포라는 기둥머리의 짜임, 부연을 달아 길게 돌출한 처마, 고급 기와와 금·은·단청 등 오늘날 한옥의 기와집과 유사한 형태가 만들어졌다.

넷째, 집은 소우주의 의미가 있다. 고대국가시대 이후 중국에서 전해진 풍수 사상과 방법은 살림집의 집터를 선택하는 원리가 되었다. 단지 좋은 땅을 구하기 위한 술법만이 아니라 한국인의 보편화된 자연관이며 유토피아관으로 자리 잡았다. 풍수에서 자연관은 땅을 만물의 어머니로 보고 땅의 생산력과 보육력에 의지하여 생활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땅을 훼손하기보다는 좋은 땅을 찾아 그곳에 삶터를 꾸미는 방법으로 발전된다. 좋은 땅이란 하늘과 땅의 기운이 조화로운 곳으로서 산과 물의 조화, 산과 들의 조화를 갖춘 곳이다. 결국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는 철학으로, 이에 따른 건축방법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풍수의 국局은 우주의 조화와 질서를 갖춘 거룩한 땅을 의미한다. 사신四神은 성聖과 속俗을 구분하는 경계이며, 수구水口는 그 경계를 출입하는 입구이며, 주산主山은 천지를 연결하는 우주의 축cosmic axis으로 해석된다. 그 중심의 혈과 명당은 세계의 중심center of the world이 되어 소우주microcosm를 형성한다.

다섯째, 집은 공사公私 생활이 만나는 곳이다. 고려시대의 집에는 온돌과 마루가 겸비된 주거 형식이 출현한다. 온돌은 이미 고대국가시대에 발달한 난방법이지만 침실 전면에 온돌이 시설되고 아궁이가 방 밖에 설치된 모습은 고려시대부터 보편화된 것으로 알려진다. 침실 사이에는 대청이라는 마루 공간이 설치된다. 고려시대 문헌에는 '따뜻한 방과 시원한 마루'를 의미하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이는 겨울철에 사용되는 온돌방과 여름철을 지내기 위한 마루가 함께 시설되었음을 의미한다.

한옥에서 온돌과 마루는 계절에 따라 사용되는 냉난방 시설이나 공간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침실이 사적 공간이라면 마루는 공적 공간의 의미를 띤다. 살림집은 개인의 사생활과 가족생활, 나아가 가족 외부와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러한 관계를 조절해 주기 위한 공간 장치로 발전한 것이다. 사적 공간인 방에 대한 공적 공간이며, 외부와 방을 연결해 주는 전이 공간이며, 방과 방 사이의 관계를 조절해 주는 매개 혹은 완충 공간의 의미를 띠게 된 것이다.

여섯째, 집은 이상향을 지향한다. 외부공간을 사유화하고 인위로 경관을 조성하는 것은 이미 고대국가시대에 시작하였다. 하지만 살림집에 정원을 가꾸는 사례는 고려시대에 보편화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 귀족들이 호화스러운 원림을 조성하였다는 기록이 많이 나타난다. 규모가 수십 리에 달하는 것도 있고, 먼 곳에서 귀한 나무를 옮겨 심은 사례도 보인다. 이러한 원림은 정자와 연못, 기암괴석奇巖怪石, 기화요초琪花瑤草 등으로 꾸며져 마치 신라 왕궁의 안압지와 같은 조경을 연상하게 한다. 원림은 자연의 본모습을 담도록 꾸며지는 것이니 집에는 이상향으로서의 의미가 담겨지게 된다.

일곱째, 집은 새로운 가계를 만들거나 계승하는 근거였다. 조선시대에는 중국의 예를 본받아 종법제宗法制가 시행되었다. 종법제란 장자長子 중심으로 가계를 계승하며, 선조의 제사를 모심으로써 부계父系 위주의 가족질서를 제도화한 것이다. 장남은 집을 상속받아 가계를 계승한다. 상속받은 집과 그 가족은 후손들에게 종가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이다.

차남 이하의 자녀들은 결혼과 함께 분가分家하였다. 결혼을 통하여 새로운 가족집단이 형성되었다고 해도 부모와 같은 집에 거주하는 동안은 분가라고 하지 않는다. 분가는 생활근거지로서 독립된 주택을 사용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집이 지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형성되는 것 이상으로 그 집을 사용하는 사람들 집단이 생활공동체로서 독립된 가족사회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새로운 주택과 함께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여덟째, 집은 가례家禮를 실행하는 장소였다. 조선시대에 살림집의 변화는 성리학에 근거한 가족제도와 주생활의 변화가 주도하였다. 가족 구성은 성리학



평생도 | 국립민속박물관

의 종법제宗法制에 따라 부계父系 중심의 가부장제 직계가족 형태로 이행되었다. 성리학에서는 도덕 규범 중에서도 특히 예의를 중시하였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가례家禮라는 생활규범을 지켜야 하였다. 따라서 집은 가례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 하였다. 남녀 구별[內外], 어른과 아이 구별[長幼], 학문과 접객 등 사대부로서 성리학 규범들을 준수하기 위하여 생활공간이 구별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건물과 공간이 조성되었다. 양반가에서는 조상의 신위를 모시기 위한 사당도 설치해야 하였다. 기본적으로 행랑 영역, 사랑채 영역, 안채 영역이 구분되었다. 각 영역은 건물과 마당을 갖추게 된다.

아홉째, 집은 경제적 재화가 되었다. 자본주의 시대로 이행하면서 살림집의 자본 가치가 폭등하게 된다. 급속한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심화되고, 택지와 주택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택가격도 폭등했다. 자본이 있는 계층에서는 많은 주택을 과점하여 경제 이익을 추구하려 하였다.

주택수요와 주택가격 폭등은 주택에 대한 사용가치使用價値보다 교환가치交換價値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살기 좋은 집보다 팔거나 세를 놓아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집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주택은 교환가치를 극대화하는 형태로 지어지고 변모해 갔다.

적은 토지에 많은 주택을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아파트와 같은 집합주택 양식의 도입은 필연이었다. 고층화·고밀화된 주택단지 속에서 건물과 외부공간을 공유하는 새로운 형식의 살림집이 도입된 것이다. 아파트는 도시생활의 편리성과 단지시설의 편의성을 제공하였고, 부동산 투기 열풍을 타고 교환가치가 폭등하면서 도시의 주거양식으로 보편화되어 갔다.

특징 및 의의 살림집의 기능과 의미는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를 거쳐 왔다. 그럼에도 살림집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인 가족이라는 사회집단, 집에서 이루어지는 주생활, 주생활 무대로서 공간과 설비는 살림집의 핵심 요소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급격한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핵심 요소마저 변질된 다양한 살림집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우선 가구 구성의 대변화를 들 수 있다. 근대화 이전 시기까지 가구 구성은 대가족 중심이었다. 근대화 이후 가구원 수가 급감하면서 핵가족 구성으로 전환되었고, 최근에는 1인 가구의 수도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심지어 비혈연 구성원들이 한 집에 모여 생활을 공유하는 공유주택 개념도 출현하였다. 다양한 가구 구성과 공유 형태에 따라 다양한 주거 형식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살림집을 가족의 생활무대로 한정하기

어려운 시대 현상이다.

둘째, 주생활의 대변화를 들 수 있다. 디지털 기술 및 교통과 정보통신의 급격한 발달에 따라 주생활의 수요는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다. 조리, 청소, 세탁 등 전통 주생활 기능들은 외주화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반면 재택근무가 증가하면서 사무 환경의 수요가 많아지고, 다양한 문화생활을 집안에 수용하려는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기술 진보에 따른 스마트 홈smart home 구축은 집 개념을 '잠자고 먹는 공간'에서 '자연과 가까이 호흡하며 다양한 즐거움을 누리는 문화공간'으로 확장시켰다.

셋째, 가구 구성과 주생활의 변화는 주택이라는 공간 환경의 변화를 촉진시켰다. 이는 홈 오토메이션 home automation에 따른 스마트 홈으로의 전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종래 공간 환경의 총체 변혁을 요구한다. 폐쇄된 칸막이로 구획된 침실들의 조합, 공생활을 위한 거실 구성과 같은 종래의 살림집 공간은 점점 더 유연성과 개방성을 띠는 공간으로 전환되고 있다. 모호성, 무경계, 중첩의 환경을 특성으로 하는 로프트형 공간은 공장과 살림집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다.

참고문헌 주택계획이론과 설계(강영환 외, 기문당, 2010), 집의 사회사(강영환, 웅진출판, 1992),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강영환, 기문당, 2013).

필자 강영환(姜榮煥)

살창

정의 울거미 속에 가는 살대를 짜서 만든 창.

개관 국어에서 '살'은 "창문이나 연鳶, 부채, 바퀴 따위의 뼈대가 되는 부분"으로 정의되고, '울거미'는 "얽어맨 물건의 겉에 댄 테나 끈"을 의미한다. 살창[箭窓]은 창호의 틀을 이루는 울거미 안에 뼈대가 되는 가는 살대를 필요에 따라 가로나 세로 또는 대각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엮어 만든 창이다. 한국건축의 살창에 쓰이는 울거미와 살대는 주로 가는 목재를 정교하게 가공하여 만들지만 민가의 소박한 창에는 싸리나무나 대쪽을 엮어 살대로 쓰는 경우도 있다. 창의 울거미 안을 전부 살대를 짜 넣어 채우기도 하지만 방에 출입하는 문 용도에 쓰일 경우 주로 울거미 아랫단 일부에 청판을 끼우기도 한다. 좌식생활 문화에 맞춰 만들어진 한국 주거건축에서는 방에 출입하는 호戶(방문房門)와 채광 및 조망을 위한 큰 창窓의 형태 구분이 하단의 머름 유무 정도로 모호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 때문에 살창에서 살대를 엮는 여러 유형의 방식들이 방의 창과 문에 두루 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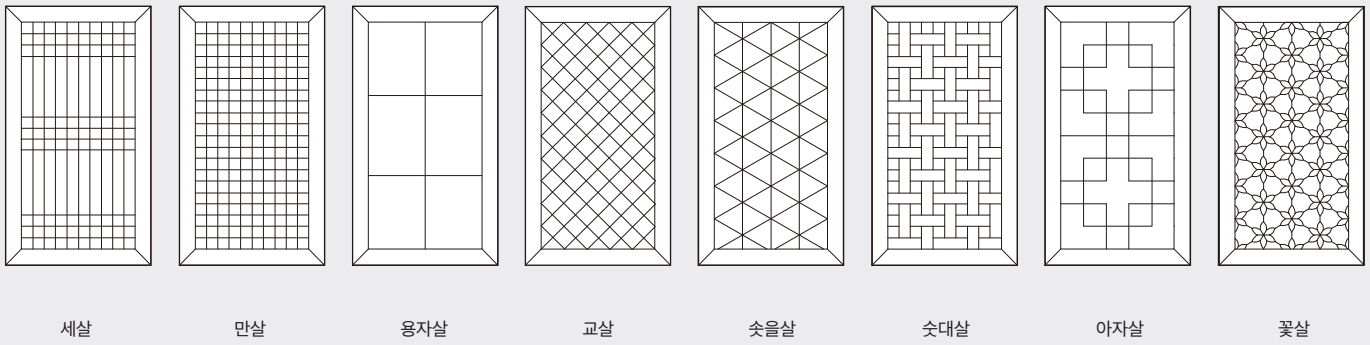
경기 용인 한국민속촌 | 국립민속박물관



주택문화사

살창

한국과 중국, 일본의 고대 건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고식古式 살창 형태는 벽에 고정된 인방이나 창틀에 직접 세로로 촘촘히 살을 끼워 안팎을 격리한 세로살창이다. 이 창은 붙박이여서 채광과 환기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휘장, 발, 덧문 등의 추가 요소가 필요하다. 세로살창은 중세 이후에도 문묘 등 의례용 건물이나 환기를 중시하는 창고의 창문, 부엌 등의 봉창에 쓰였다. 한편 민가 부엌 벽에 뚫은 봉창에 싸리나



살창 종류 |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 | 김왕직·동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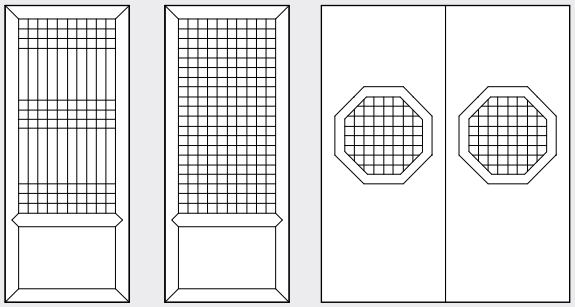
무, 나뭇가지나 대쪽 등으로 세로나 가로, 우물 정井 자 등 간단한 살대를 끼운 경우도 볼 수 있다. 이 유형의 현존 유물은 조선 후기 이후 만든 것이지만 이보다 앞서 고대 및 중세의 견실한 세로살창보다 좀 더 원시적인 형태의 살창은 아마 이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로살창이나 다양한 봉창에서 바람을 막고 빛은 들이고 싶을 때 살대 안쪽에 창호지를 바르기도 하였다. 이는 현존하는 대다수 살창에서 창호지를 붙잡아 주는 살대의 기원과 관계된 초기적 형태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

참고로 위에서 세로살창이라 적은 창호는 학자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세로살창'이라는 이름은 김왕직(2007)의 사전에 쓰인 것이다. 반면 신영훈(1983)과 주남철(2001)의 저서에서는 이 유형의 창문만을 '살창'이라 불렀다. 장기인(2005)의 사전에서는 이 유형을 '사롱斜籠', '사롱창斜籠窓'이라 지칭하면서 살창의 여러 정의 중 하나로도 다루었다. 『영건의궤』(2010)에서는 '사롱'은 창호가 아니라 대문이나 협문 상부에 홍살처럼 구성한 것을 뜻한다 하였다. 이는 장기인(2005)의 사전에 '사롱'의 두 번째 의미로 기재된 내용과 유사하다.

내용 대다수의 살창들은 건물의 창틀과 별개로 짠 울거미 안에 살대를 엮고 만든다. 개폐 방식과 살대에 종이를 바르는 정도, 살대가 엮이는 형태 등으로 채광·환기·조망·의장 효과 등을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대 건물의 판비板扉와 세로살창보다 정교한 세공이 필요한 진보된 형식이다. 채광이 가능한 살창에서는 창호지를 살대의 한 면에만 붙이며, 창호지 대신 얇은 비단을 댄 사창紗窓도 드물지만 쓰인다. 살대가 촘촘하면 창호지를 견실하게 잡아 주지만 빛을 가릴 수 있고, 살대가 성기면 빛이 좀 더 잘 들어오지만 견고함이 덜하다. 또한 살대를 엮어 만드는 무늬들의 의장 효과도 다양하기 때문에 한국건축에서는 기능과 위계에 따라 다양한 살창들이 통용되었다.

살창의 유형 중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은 세살 또는 띠살이라 부르는 것이다. 띠살창(문에 쓰이면 띠살문)에서 세로살은 울거미 상하를 가로질러 촘촘하게 채워 넣으며, 가로살은 문 크기에 따라 3~5가닥에서 5~7가닥을 한 묶음으로 상단·중단·하단에 각각 가로지르는데 각 단 사이는 간격을 벌려 둔다. 이때 상단과 하단은 같은 수의 가로살을 쓰고 중단의 가로살은 그보다 한두 가닥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창문이 작으면 각 단을 2~3가닥으로 처리하거나 중단을 아예 생략하기도 한다. 이들 못지않게 흔한 형태는 만살, 넉살, 정자살[井字箭] 또는 격자살이라 부른다. 울거미 안을 가로질러 가로살과 세로살을 같은 간격으로 촘촘하게 배치해서 정방형이 연속되는 격자를 만든 것이다. 세살, 만살은 분합에 많이 쓰인다.

촘촘한 만살과 달리 살대의 간격을 넓게 잡아서 획 사이가 넓은 쓸 용用 자나 우물 정井 자를 이루면 용자살, 범살이라 부른다. 살대 사이가 넓어 빛을 덜



세살청판분합 만살청판분합 불발기분합

가리므로 쌍창 안에 다는 미닫이 영창처럼 빛을 환하게 들이는 창에 쓰면 적합하다. 견고함과 의장적 효과를 위하여 범살의 살대를 좁은 간격으로 나란히 두 줄씩(쌍살, 곱살) 놓기도 한다. 이런 창문은 곱살창, 쌍줄범살창이라고 한다. 용자살은 영창 안쪽에 설치하여 빛과 외풍을 차단하는 흑창을 만들 때에도 잘 쓰인다. 이들은 창 양면에 종이를 두껍게 발라 살대가 노출되지 않으므로 단순한 짜임새를 취하는 것이다. 흑창이나 갑창을 만들고자 문 양면에 종이를 바를 때 울거미만 노출시키거나 종이로 전부 싸서 바른 창호의 가장자리 둘레에 따로 테를 대어 도드라지게 한 창호는 도듬문이라 한다. 울거미 속 면에는 서화를 붙여 치장하기도 한다.

사선 방향으로 살대를 놓을 경우 살대를 45도 방향으로 교차시키는 것은 교살 또는 빗살이라 부르고, 30도 또는 60도 방향이면 솟을살(소슬살)이라 한다. 이들은 가로살, 세로살과 섞어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격자살과 교살을 합친 것을 격자교살 또는 격자빗살이라 한다.

앞에 열거한 유형 외에도 가로 세로의 살대와 사선방향 살대를 간격과 길이에 변화를 주면서 조합하여 장식성과 상징성을 강화한 여러 유형이 있다. 가로살과 세로살이 丁자로 만나는 형태가 반복 조합되어 울거미 안을 채우면 과거에 계산에 쓰던 산가지 놓는 법에 빗대어 숫대살 또는 줏대살이라 한다. 팔각형 또는 육각형의 조합으로 장생하는 거북의 무늬를 연상시키면 귀갑살[龜甲箭]이라 한다. 완자살[卍字箭], 아자살[亞字箭], 귀자살[貴字箭]은 살대의 결속 모양과 특정 한자를 결부시킨 것이다. 각 유형에는 당연히 다양한 변형이 존재하며, 유형 사이의 조합도 무수해서 복잡한 무늬의 살창 중에는 어느 한 유형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것도 많다.

궁궐이나 사찰의 꽃살문은 살창의 살대를 꽃잎 모양으로 가공한 것이 많지만 아예 꽃을 통째로 직접 새기거나 판재를 투각해서 무늬를 만드는 등 화려함을 극대화한 예도 있다. 단순한 세로살창의 살대(장기인은 '사롱살'이라 지칭) 또한 소목장의 솜씨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살대의 조합만이 아닌 살대 자체의 가공 형태도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대다수의 살창에서 살대의 창호지 붙이는 쪽 면은 평평하게 처리하지만 살대의 나머지 부분과 울거미는 시선에 노출되므로 적절한 쇠시리가 필요하다. 울거미의 면에는 요철을 두 줄 길게 넣는 쌍사를 치고 안쪽은 모접기를 하곤 한다. 살대는 윗면을 볼록, 오목, 쌍사로 가공할 수 있다. 장기인(2005)과 김왕직(2007)은 이 살대 윗면을 가공한 기법을 등밀이라 통칭한다. 반면 주남철(2001)은 윗면이 평평하면 등밀이, 오목하면 골밀이, 볼록이나 쌍사로 튀어나오면 배밀이로 구분해서 부른다. 한편 좀 더 고급스러운 형태로 위는 둥글고 양옆이 경사진 살대 단면에는 투밀이란 명칭이 일반적으로 쓰인다.

특징 및 의의 살창은 사용 목적과 미감에 따라 소박한 것부터 화려한 것까지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조선 말기 실학자 서유구徐有榘는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중 섬용지贍用志에서 중국의 창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창은 문살이 빽빽하고 살대의 깊이가 깊으며 종이를 안쪽에 붙이기 때문에 햇빛을 들이는 데에 방해가 된다는 단점을 들어 우리의 살창 기법을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살창 겉으로 노출된 살대의 짜임은 단순히 창호지를 붙잡는 기능을 넘어 건물 의장의 중요한 일부이다. 밝은 실외로 드러낸 살대의 음영이 칸칸의 입면에 입체감 있는 문양을 전개하고, 등밀이한 살대의 잔잔한 굴곡이나 힘써 조각한 꽃살의 화려함이 다가가

서 보는 이의 감흥을 더하는 것이 한국 살창의 아취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김왕직, 동녘, 2007), 영건의궤(영건의궤연구회, 동녘, 2010), 임원경제지-섬용지1(서유구, 임원경제연구소 역, 풍석문화재단, 2016), 한국건축대계1-창호(장기인, 보성각, 1993), 한국건축대계4-신편 한국건축사전(장기인, 보성각, 2005), 한국의 문과 창호(주남철, 대원사, 2001), 한국의 살림집(신영훈, 열화당, 198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korean.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이우종(李雨鍾)

상량제
上樑祭

정의 건물의 건축 과정에서 종도리(마룻대)를 올리며 축원하는 제의.

개관 집을 완성하고 나서 이를 성화시키고 축원하는 의식은 상고시대부터 토속신앙으로 존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고대사회에서 상량제上樑祭의 존재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고려시대 문헌에는 다수의 상량문이 나타나고 상량제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미 그 이전부터 의식화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 상량문은 보통 노동요 형식으로 되어 있고, 아랑위兒郞偉라는 어구로 시작한다. 아랑은 젊은 사람을 뜻하는 말이지만 상량문에서는 도목수가 장인들을 싸잡아 부를 때 사용하는 상투적 표현이다. 이를 보아 목수들이 주관하는 의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은 건축의 의의와 배경, 건축 과정, 형상, 축원 등을 담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식 제의에 따라 형식화한 것으로 보인다. 『태종실록太宗實錄』에 "박윤영이 누문 상량제에 향탄 바치는 것을 궐하였다."고 사헌부에서 죄를 청하는 내용을 보면 의례가 법제화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민간건축에 이르기까지 상량제가 보편화되면서 의식 절차는 간소화·지역화된 것으로 보인다. 상량문도 개기나 상량의 시기, 건물의 좌향, 기타 재난을 피하고 복을 비는 내용으로 간소화된다. 의례 형식도 경제력이나 지역 관습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되었다.



장혀에 상량일시 적기



상량식

상량제 | 1999 | 국립무형유산원

내용 상량上樑은 전통 목구조에서 종도리에 해당하는 부재를 말한다. 종도리는 목구조의 최상부에 위치하는 주요 구조재로, 종도리를 설치하면 건물의 구조체가 완성된 것으로 여긴다. 상량제는 종도리를 설치하면서 건물 뼈대의 완성을 축하하고 축원하는 의식이다.

상량제는 미리 택일을 받은 날에 시행된다. 의례가 시작되기에 앞서 상량문이 작성된다. 상량문의 앞뒤에는 귀龜와 용龍 또는 청룡과 백호 등을 첨가하기도 한다. 거북과 용은 수신水神으로서 화재를 피하는 의미로 설명된다. '강태공이 만든 곳(姜太公造作處)'이라는 글귀를 적어 넣기도 한다. 강태공은 700년을 가난하게 살다가 700년을 부귀하게 살았다는 전설상

의 인물로,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가 있다. '하늘의 해, 달, 별님은 감응하시어 인간에게 오복을 내려 주소서(應天上之三光 備人間之五福)'라는 축원문이 포함되기도 한다.

큰 건물에서는 공사에 참여한 도목수의 이름까지 기록되었다. 상량을 성주의 탄생으로 본다면 목수는 그 출산을 도와준 산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상량문은 마룻대나 마룻대를 받치는 장혀에 먹으로 쓰는 것이 일반 형태이다. 큰 건물에서는 장혀에 구멍을 파내고 그곳에 한지에 쓴 상량문을 감추는 경우도 있다.

의례는 대략 세 단계로 진행된다. 제물을 진설하고 배례를 드리는 과정, 마룻대를 설치하기 전에 유희로서 상량채를 걷는 과정, 마룻대를 설치하면서 축원이나 점복하는 과정이다. 제물의 종류나 양은 주인의 경제 형편에 따라 크게 다르다. 제상 앞에는 마룻대를 놓고 이를 향해 배례한다. 대목들은 마룻대에 성주신이 깃들어 있다고 말한다. 마룻대는 무명천으로 양쪽을 묶어 지붕 위로 올린다. 대공 좌우 양쪽에 올라앉은 목수 두 사람이 무명 끈을 나누어 쥐고 들어 올린다. 마룻대를 제자리에 설치하면 "아무 날 아무 시에 상량하였소."라고 외친다.

의식이 끝나면 사용된 제물이나 돈은 건축공사에 참여한 장인들에게 제공한다. 이렇게 풍부한 부수입이 주어지기 때문에 대목들은 상량고사를 '목수의 생일'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따라서 상량은 공사에 참여한 장인의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도 있다.

지역사례 상량제(또는 상량고사)는 지역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나타난다. 제물 종류는 건축주의 경제력에 따라 선택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충청도 내륙지역에서는 술이나 대추, 곶감, 배 등 보편적인 제수 외에 팥죽이 반드시 포함되고 경기도에서는 시루떡이 놓이는 것처럼 지역 차이도 있다. 제상 앞에 마룻대를 놓고 집주인이 잔을 올리며 배례하는 의식은 거의 유사하다. 집이 완성될 때까지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집을 짓고 나서 부귀공명을 누리게 해 달라는 축원을 올리면서 집의 네 귀퉁이에 술을 조금씩 붓는다. 친척이나 축하객도 절을 올리며 제상 위에 돈을 올린다. 대목들은 마룻대에 상량신이 깃들어 있다고 말한다. 마룻대가 제자리에 설치됨으로써 성주신으로 변한다고 한다.

제주도에서는 마룻대를 설치한 뒤 그 위에서 닭의 목을 쳐서 닭목이 떨어지는 방향에 따라 길흉을 점치기도 한다. 동쪽으로 떨어지면 부자가 되고, 남쪽은 장수하며, 서쪽은 가난해지고, 북쪽은 단명한다고 한다. 전라남도 거금도에서는 입택 후에 상량 1주년이 되는 날 성주 생일제를 지낸다고 한다. 마루의 성주동이 앞에 제상을 차리고 주인이 삼배三拜 한 다음 목수와 토역 등 건축에 관여한 사람들을 초청하여 음식을 나눈다. 성주신의 돌잔치라는 인식을 반영하는 사례이다.

특징 및 의의 상량은 구조체의 완성인 동시에 성주신 탄생으로 이해된다. 상량문은 성주신의 호적과 같은 의미가 있다. 상량문에는 살림채의 좌향, 상량 시기, 축원문이 기록된다. 상량문에 기록되는 상량 시기에는 인격체의 사주와 같은 의미가 있다. 사람이 탄생한 해와 달, 일, 시가 그의 운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되듯이 상량 시기로 이루어진 성주의 사주는 그의 운명을 예시하며, 가족과 가문으로서의 집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상량문에는 사람의 호적처럼 그가 탄생하게 되는 과정이 기록되고 사주四柱가 명기되며, 성주의 앞날이 무궁히 발전하라는 축원이 담긴다. 이를테면 상량일은 인격체로서 성주의 탄생일이며, 상량제는 탄생에 대한 통과의례 성격을 띤다.

참고문헌 집의 사회사(강영환, 웅진출판, 1992), 한국의 민가(김홍식, 한길사, 1992), 한국의 민가연구(장보웅, 진보제, 1986), 한국의 살림집(신영훈, 열화당, 1986), 한국의 주거민속지(김광언, 민음사, 1988).

필자 강영환(姜榮煥)

새마을주택

정의 1972년부터 본격 전개된 새마을운동을 통해 10채 이상의 농촌주택으로 단지를 조성한 다음 기존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한 농촌지역의 유사 표준형 주택.



새마을사업 | 경북 영천 | 1972 | 국가기록원

내용 1970년 4월 22일 부산에서 한해旱害 대책 지방장관회의를 주재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마을은 우리 손으로 가꾸어 나간다는 자조, 자립 정신을 불러일으켜 땀 흘려 일한다면 모든 마을이 멀지 않아 잘 살고 아담한 마을로 그 모습이 바꾸어지리라 확신한다. …… 이 운동을 새마을 가꾸기 운동이라 해도 좋을 것"이라 하였다. 정부는 이듬해인 1971년에 전국 3만 3,267개 행정 동리에 시멘트 335부대씩을 지원하며 본격적인 새마을운동에 돌입하였다.

1972년부터 전국 범위로 확대된 새마을운동은 생활 혁신과 환경개선 및 소득증대를 통한 농촌 근대화를 목표로 삼아 정부가 직접 관장하고 주도한 사업으로 전통적 질서가 유지되던 농촌의 공간 환경을 단기간에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지역적 차이를 하나의 미학과 기준에 따라 표준적 유형으로 재편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새마을주택은 흔히 산뜻한 푸른색과 붉은색의 지붕으로 조성된 마을 풍경을 만들어 내었다. 슬레이트 지붕 사이에 섞여 있던 초가지붕은 박정희 정권이 내세운 조국근대화의 걸림돌이자 낙후된 전근대를 상징한 까닭에 울긋불긋한 색으로 치장한 지붕이 만든 농촌마을의 풍경은 근대화 달성을 상징하였다. 단순한 지붕개량사업이 근대화를 상징하고 전근대를 극복한 근대적 개발 성과로 판단되었다.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1972년부터 농촌주택개량사업이 마무리되던 1978년까지 지붕개량사업은 모두 261만 8,000동이 시행되었다. 이는 당초 목표치의 107%에 달하였으며, 같은 기간 농촌주택 표준설계 적용이 병행되며 1984년까지 모두 123종의 표준주택이 제안되었다.

특징 및 의의 1970년대 후반에 제시된 농촌 표준주택은 표준 가구구성원 6명을 기준으로 방 셋에 마루와 부엌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외벽은 6인치 블록 쌓기와 모르타르 마감에 간이 트러스 방식의 지붕틀에 기와형 슬레이트를 채용한 박공 형식이 사용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획일적 풍경을 완화하기 위해 서구형과 고유 한식, 개량형 한식 등이 선택적 본보기로 제안되고 부엌은 입식부엌을 택하였다는 것이다.

난방과 취사를 분리해 부엌이 실내로 들어왔으며, 마루 역시 분합문을 설치해 내부공간으로 만들었다. 표준모델 가운데 하나로 제시된 '서구형' 새마을주택은 도시지역에서 유행한 '불란서주택'을 모방하는 방식을 따랐다. 이는 도농의 소득 격차로 이촌향도 현상이 심화되자 '문화적이고 기능적이고 현대적이며 근대화된 기거방식의 형상'으로 여겨진 도시형 주택을 새마을주택의 전범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농촌문화주택'이라는 명칭이 새마을주택에 보태졌다.

특히 1978년에 건설부와 내무부 주도로 책정된 표준형 농촌주택 설계도는 내무부 지방국 새마을지도과를 통해 전국적으로 배포되며 농촌의 풍경을 바꾸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주택 자체를 지지하는 구조의 성능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단순한 지붕 재료 교체가 안전성에 문제를 초래하였고, 건물 재료와 지붕 재료가 미관상 어울리지 않는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자연스럽게 농촌주택의 신축이나 개축을 통한 주택개량사업을 확대하기 위함이었다. 이 과정에서 도시지역 주택이 자연스럽게 농촌지역 주택의 이상형으로 간주되며 새마을주택의 전형으로 굳어졌다.

참고문헌 그들의 새마을운동(김영미, 푸른역사, 2011),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 상황 사진보고(대통령비서실 경제 제1비서관실, 1978), 새마을운동 길잡이(내부무, 1975), 새마을운동과 유신체제-박정희정권의 농촌 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박진도·한도현, 역사비평47, 역사비평사, 1999), 한국건축개념사전(한국건축개념사전기획위원회, 동녘, 2013).

필자 박철수(朴哲守)

샛집

정의 억새로 지붕을 엮은 집.

개관 한반도의 살림집을 지붕 재료에 따라 구분하면 크게 초가집과 기와집으로 나눌 수 있다. 기와집이 상류층의 주택을 대표한다면 초가집은 서민계층의 주택형식이다. 흔히 초가집은 볏짚을 엮어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억새나 갈대와 같은 야생에서 자라는 풀도 지붕 재료로 사용되었다. 억새로 지붕을 엮은 집을 '샛집', 갈대로 지붕을 엮은 집을 '갈집'이라고 한다. 억새나 갈대를 엮어 만든 지붕은 재료가 다를 뿐만 아니라 엮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고, 지붕 형태도 다르다.

내용 벼농사가 시작된 이래 한반도에서 가장 보편화된 지붕 재료는 볏짚이었다. 볏짚은 벼농사의 부산물로 풍부하게 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볏짚 속의 공기가 단열·보온 효과가 있는 재료였다. 또한 볏짚은 줄기가 가늘고 표면이 매끄러워서 두껍게 덮지 않아도 방수 기능이 우수했다. 하지만 습기에 약하여 쉽게 상하기 때문에 일 년에 한 번은 갈아야 하는 단점도 있었다.

벼농사가 적은 지역에서는 볏짚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체할 만한 지붕 재료를 자연에서 구해야 하였다. 억새는 벼과의 다년초 식물로서 볏짚을 대체할 만한 지붕 재료였다. 샛집이 어떤 생태환경에서 언제부터 출현하였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는다. 다만 제주도와 전라북도 산간지역, 울산, 경상남도 양산 등지에서 조사된 바 있다.

억새는 산이나 들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지만 볏짚만큼 흔하지는 않았다. 제주도에서는 지붕 재료를 얻기 위하여 일부러 억새밭을 가꾸어 재배하였다. 일정한 지역에 공동으로 가꾸어 보존하면서 1년에 한두 번 날을 정하여 베었다고 한다. 지붕 면적의 5~10배의 새밭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쉬는 땅을 택하여 새밭(새왓)으로 가꾸었다.

육지에서의 샛집은 볏짚의 초가집보다 더 고급 건축으로 인식되었다. 집 근처의 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볏짚과 달리 억새는 다소 먼 산지에서 베어 운반해야 하였다. 따라서 일꾼을 고용해 품삯을 지불해야 구할 수 있는 비싼 재료였다. 지붕을 덮는 일도 전문가를 고용해야 할 정도로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었다. 하지만 볏짚에 비해 수명이 오래 가기 때문에 '초가 3년에 샛집 10년, 기와 만년'이라는 표현도 생겨났다. 실제로 샛집의 수명은 10년 이상이며, 새로 덮을 때에도 썩은 부분만 교체하면 된다.

억새는 볏짚에 비하여 잎이 넓고 두께가 굵은 재료이다. 넓은 잎으로는 밀식한 지붕 표면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뿌리 쪽 마구리로 지붕 표면을 구성한다. 마구리도 굵어서 빗물 침투를 막기 위해서는 두껍게 쌓고 지붕의 물매를 급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급한 경사를 만들기 위하여 지붕 바닥을 솔가지 등으로 채운다. 하지만 제주도와 같이 바람이 거센 지역에서는 높은 지붕을 만들 수 없었다. 새는 얇게 펴서 덮었다.


경남 함양 추상마을 | 1995


제주 제주시

샛집 | 국립민속박물관

이때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새끼줄을 그물처럼 엮어 덮거나 헌 그물로 덮기도 한다.

육지에서 샛집의 지붕은 훨씬 두껍고 경사가 급하다. 지붕이 우뚝 솟아 우람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지붕이 두꺼운 만큼 보온·단열 효과도 우수하다. 하지만 지붕 무게도 그만큼 무거워서 소농의 초가집보다 더 튼튼한 구조체가 필요하였다. 기둥이나 보, 도리 등의 구조 부재가 더 굵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울산 지역의 대목들은 중농 이상이 되어야 지을 수 있는 고급 주택으로 인식하였다. 구조 뼈대가 굵고 지붕이 우람한 샛집의 외관은 아담한 초가집과 뚜렷이 구별되는 독특한 모습이었다.

특징 및 의의 초가집은 전통 서민주거를 대표하는 형식으로 알려져 왔다. 대체로 초가집은 볏짚을 엮어 만든 지붕 형식으로 알려져 있고 억새나 갈대 등 다른 초본류의 지붕은 식별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초가집과 샛집은 단지 지붕 재료의 차이만을 갖는 것이 아니다. 샛집은 벼농사라는 생산 양식과 경제력을 배경으로 출현하고, 그 제작 과정이 다르며, 형태 및 구조도 초가집과 다른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너와집, 굴피집, 청석집 등과 더불어 특수한 지역 환경 및 경제력을 배경으로 하는 중요한 민속유산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샛집의 건축디자인에 관한 연구(김용집,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16,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03), 울산·울주지역 민가에 관한 연구(강영환, 대한건축학회지28-121, 대한건축학회, 1984), 한국의 민가연구(장보웅, 보진재, 1986), 한국의 주거민속지(김광언, 민음사, 1988).

필자 강영환(姜榮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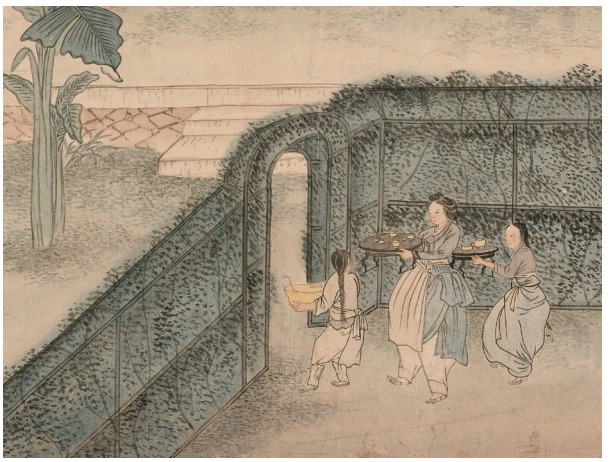
생울

정의 나무를 나란히 심어 담장을 대신하거나 일정한 공간의 경계를 나누는 울타리.

내용 '생울'은 나무를 나란히 심어 일정한 공간의 경계를 나타내는 울타리 즉 담장이다. 살아 있는 나무가 곧 울타리가 된다고 하여 '산나무울' 혹은 '생울타리'로 부른다. 조선시대 가옥의 울타리부터 궁궐 정원 조경에 버금가는 아름다운 형태, 죄인을 유배지에서 달아나지 못하게 하는 용도까지 그 쓰임과 형태가 다양하다.



어수문 생울 | 서울 종로구 창덕궁 | 국립민속박물관



생울 | 신윤복 | 상화청금도 중 부분 | 조선 | 국립중앙박물관

생울로 쓰이는 수종은 대나무, 탱자나무, 측백나무, 사철나무 등이다. 사시사철 푸르른 상록수 계열이 많다. 생울의 높이는 성인의 허리에서 가슴 정도로 하거나 성인 키를 훌쩍 넘게 손질하기도 한다. 특히 가시가 있는 탱자나무로 만든 생울은 성인의 키보다도 조금 높게 하여 유배지에서도 쓰였다. 전라남도 지역에서 탱자나무 생울을 다수 볼 수 있다. 위리안치圍籬安置라는 조선시대 형벌과 관련 있기 때문이다. 위리안치는 유배지에서 죄인이 달아나지 못하게 가시로 울타리를 만들어 가두므로 탱자나무를 활용하였다. 한편 충청남도 서산 해미읍성 주변에는 탱자나무를 둘러 적이

성벽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용도로 쓰였다.

궁궐의 '취병翠屛'도 생울의 한 종류에 해당한다. 취병을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비취빛 병풍이라는 뜻으로, 명칭에서부터 이미 그 아름다움을 짐작할 수 있다. 취병은 심은 나무의 가지를 구부려 묶어 주기도 하므로 상록수 중에서도 가지가 연한 수종을 선호하였다. 일정한 틀을 만들고, 그 틀 속에 있는 나무를 이용하여 담장이나 출입구로 손질하며 사용하는 방식이다. 창덕궁 주합루 앞 어수문 주변이 취병에 해당한다. 동궐도東闕圖에서는 궐 내에서 다수의 취병을 확인할 수 있다. 신윤복의 <상화청금도賞花聽琴圖>에서는 취병이 성인 키보다도 높다. 이 회화 사료를 통해 궁궐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양반 가옥에서도 취병을 설치한 것을 알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생울은 살아 있는 식물을 다듬어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자연을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장소와 용도에 맞도록 폭넓게 활용하였다. 생울 중 취병은 가지를 구부려 단순히 울타리가 아닌 조경의 일부가 되도록 꾸몄다. 탱자나무 생울은 가시가 있는 특성을 살려 방어와 감금의 용도로 활용하였다. 생울은 자연을 시의적절하게 응용하는 조상의 지혜가 돋보이는 구조물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林園經濟志, 增補山林經濟,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김왕직, 동녘, 2007), 영건의궤(영건의궤연구회, 동녘, 2010), 우리궁궐을 아는 사전(역사건축기술연구소, 돌베개, 2015), 우리 생활 속의 나무(정헌관, 국립산림과학원, 2008), 한국건축답사수첩(한국건축역사학회, 동녘, 2006), 한국건축대계4-신편 한국건축사전(장기인, 보성각, 2014), 한국고전용어사전(한국고전용어사전편찬위원회·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1), 문화콘텐츠닷컴(culturecontent.com),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조현정(趙賢貞)

서고
書庫

정의 책을 보관하는 방이나 건물.

개관 서고書庫는 책을 보관하는 방이나 건물이다. 문文을 숭상하는 시대상의 반영으로 조선시대 양반은 서책을 중요시하였고, 사랑채에 서고를 구성하였다.

내용 삼국시대 불교가 수용되면서 사찰에는 경전을 안치하는 경루經樓를 세우기 시작하였다. 합천 해인사海印寺에는 13세기 제작된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장경판전(법보전法寶殿과 수다라장修多羅藏)이 있고, 그 사이에 책을 보관하는 서고인 동서사간고東西寺刊庫가 잘 남아 있다. 그리고 조선의 유학자들이 공부하던 서원에도 서고를 세웠다. 안동 도산서원陶山書院에는 책의 판본을 보관하는 장판각과 책을 보관하는 광명실이 있다. 이들 서고는 습기를 줄이기 위해 판문을 달거나 바닥에 마루를 깔고, 화마火魔를 막기 위해 다른 건물과 거리를 두어 독립 공간을 형성하였다.

문文을 숭상하는 조선시대 양반은 글하는 선비였기에 사랑채에서는 글 읽기와 자녀교육이 행해졌다. 그래서 양반가에 서책과 문고·서화·고완古玩을 수장



서사간고 | 경남 합천 해인사 | 문화재청



광명실 | 경북 안동 도산서원 | 문화재청

하는 서고를 두었다. 서고는 사랑채에 부속된 방으로 설치하거나 독립하여 지었다. 서고의 규모는 신분과 경제력에 따라 반 칸에서 일곱 칸(연경당演慶堂 선향재善香齋)까지 다양하다. 기능도 책만 보관하는 장서고와 책을 보관하고 독서도 할 수 있는 서재로 나뉘었다. 이러한 기능의 차이에 따라 명칭도 서고, 책방, 문방 등으로 다양하게 불렀다. 건축 구성은 서고인 경우 마룻바닥에 판벽으로 하고 서책을 보관하기 위하여 책궤를 여러 개 쌓아 두었다. 책방인 경우는 온돌바닥에 심벽으로하여 사랑방과 유사하게 꾸몄다.

서고의 위치는 사랑방에 근접시켜 수시로 책을 꺼내 볼 수 있게 하거나 사랑방과 일정한 거리를 두어 손님이 오더라도 한적하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서고에 비치된 장서는 선비·우인友人과 어울리고 지역의 서당·서원·향교와 연결하는 매개체였다.

특징 및 의의 조선 효종 때 학자 이유태李惟泰(1607~1684)가 『초려집草廬集』에서 "사랑채[廳事]는 기와집 세 칸 정도로 방 두 칸, 당堂 한 칸이면 족하다. 당과 방 사이에 쌍지게문을 내고 제사 때에는 여기에 제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 사랑채 옆으로 서실書室 두 칸이 있으면 좋겠다. 초가집으로 아이들이 글 읽는 장소로 쓴다. 쓸데없는 사람의 출입을 금하고 친척이나 이웃집 아이들도 공부하는 아이가 아니면 출입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양반들이 사랑채 근처에 서실을 두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건축대계4-한국건축사전(장기인, 보성문화사, 1985), 한국의 사랑채(윤일이, 산지니, 2010).

필자 윤일이(尹一二)

서까래

정의 지붕의 도리와 도리 사이를 일정 간격으로 건너질러 지붕의 하중을 받는 부재.



장연과 단연 | 경기 이천 김좌근 고택 | 2009 | 김왕직



마족연 | 충남 서천 이하복 고택 | 2003 | 김왕직

내용 서까래는 한자로 연목椽木이라고 표기하며, 건물의 가장 윗부분에 올라가 기와나 초가 등의 지붕을 올릴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서까래는 건물 규모에 따라 한 단에서 네 단까지 건다. 가장 간단한 3량가의 경우 종도리와 앞뒤 처마도리 사이를 장연長椽으로 한 단만 건다. 5량가의 경우는 처마도리와 종도리 사이에 중도리가 있다. 따라서 2단으로 서까래를 걸며, 처마도리와 중도리 사이의 서까래를 장연長椽이라 하고 중도리와 종도리 사이의 서까래를 단연短椽이라 한다. 처마 쪽에 거는 서까래는 항상 외벽 밖으로 돌출되기 때문에 건물 안쪽에 걸리는 서까래보다 길다. 그래서 절대 길이와 관계없이 항상 장연이라고 부른다. 7량가가 되면 중도리는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장연과 단연 외에 중연中椽이 추가된다. 9량가가 되어 중연이 두 단이 되면 위에 것을 중상연, 아래 것을 중하연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건물 중앙 부분은 서까래가 단으로 구성되어 장

연, 중연, 단연으로 위치에 따라 구분하지만 걸린 모습은 평행하게 나란히 걸리기 때문에 평연平椽 또는 평서까래라고 부른다. 이와 대비하여 건물 모서리의 추녀 양쪽은 거는 서까래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평연과 구분하여 귀서까래라고 부른다. 귀서까래를 거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중도리에 하나의 꼭짓점을 두고 부챗살처럼 거는 선자연扇子椽과 꼭짓점을 중도리 안쪽의 가상 지점에 두고 추녀 양쪽에 엇비슷하게 거는 마족연馬足椽이 있다. 마족연은 추녀 옆에 붙는 귀서까래 말구 부분이 마치 말발굽을 닮아 붙여진 이름으로, 말굽서까래라고도 한다. 한국은 선자연과 마족연 기법만 있으나 일본은 두 기법이 일찍 사라지고 귀서까래도 평서까래처럼 나란히 건다. 이를 나란히 서까래라고도 부르지만 한국에는 없는 기법이어서 별도의 용어가 없다. 중국은 엄밀한 의미에서 선자연이 없고 마족연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동양 삼국 중에서 정확한 선자연 기법은 한국에만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한국건축의 지붕에는 처마앙곡이 있기 때문에 정중앙의 기준 서까래를 제외하고는 모든 서까래에 곡이 있다. 따라서 서까래를 가공할 때는 곡률에 따른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목자판을 사용한다. 연목자판에는 앙곡의 범위 내에서 소요 서까래 수만큼 눈금이 그려져 있다. 중도리와 처마도리 간격으로 설치된 두 지지점에 서까래를 올리고 처마 길이만큼에 설치된 연목자판의 눈금을 재면 서까래의 들림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들림이 많은 것일수록 추녀 쪽으로 걸게 되며, 각각의 위치를 잡으면 앙곡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서까래는 굽은 정도가 모두 다른 원목이 들어와야 한다. 선자연은 굽은 정도가 평연보다 더 크며, 굵은 것을 사용하여 처마도리 안쪽은 물샐 틈없이 붙여 댄다. 선자연은 연목자판이 없다. 목수가 실제 크기나 2분의 1 정도의 현척도를 그리고 이 도면에 의하여 선자연마다 내외 길이, 들림 정도, 폭, 좌우 높이차 등의 수치를 산출하고 표를 만들어서 이에 따라 위치마다 다른 선자연을 가공한다.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기법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전승되지 못하고 일찍 사라졌다. 중국에서도 정선자를 걸지 못하고 마족연으로 대체되었다.

평연보다 선자연 구간에서 앙곡이 세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평연에서도 곡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곡선이 연결되어 현수선에 가까운 아름다움과 동적인 느낌이 강하다. 또 서까래는 말단으로 갈수록 밑을 걷어 내는 소매걷이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곡선으로 동적이며 경쾌하다. 중국은 끝 쪽만 사방에서 걷기 때문에 마치 핫도그와 같은 느낌으로 동적인 맛은 없다. 일본은 소매걷이가 없고 직선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특징이다. 또 서까래 말구는 한국에서 10분의 1 정도의 경사로 비껴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은 90도로 직절한다. 비껴치면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았을 때 서까래가 옆으로 퍼져 보이는 착시현상을 교정할 수 있어서 더욱 선명하고 동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 한국건축의 역동성은 바로 이러한 상세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썼기 때문에 얻어지는 조형성이다. 서까래 위는 싸리나무나 수수깡, 쪼갠나무를 발처럼 엮어 깐다. 이를 산자엮기라고 한다. 산자엮기 대신에 판재를 까는 경우도 있으며, 산자엮기나 개판 위에는 적심과 보토를 한 다음 기와를 올린다. 서까래는 하중을 받는 구조 부재로 한국건축에서 지붕의 조형성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참고문헌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김왕직, 동녘, 2007), 지혜로 지은 집 한국건축(김도경, 현암사, 2011), 한국건축사전(장기인, 보성각, 1998).

필자 김왕직(金王稙)

서까래기와

정의 서까래의 부식을 막고 치장하기 위하여 연목과 부연 및 사래 끝에 부착한 기와.

내용 서까래는 도리와 직각을 이루는 건축부재로, 연목椽木과 부연付椽 및 사래로 나뉜다. 서까래기와[椽木瓦] 는 사용처에 따라 연목기와, 부연기와, 사래기와,



① ② ③

① 녹유연목기와 | 지름15 | 전북 익산 미륵사지 | 백제 | 국립익산박물관, **② 구름무늬부연기와** | 높이16 | 경북 경주 황룡사지 | 고려 | 국립경주박물관
③ 귀면무늬사래기와 | 높이21 | 경북 경주 안압지 | 통일신라 | 국립경주박물관

토수吐首로 구분된다. 서까래기와는 백제에서 제작되기 시작하여 전 시기에 걸쳐 사용되었다. 토수는 사래에 덧씌우는 이형의 기와로, 조선시대에 출현하였다.

연목은 둥글고 긴 서까래로, 연목기와에 못을 박아 부착한다. 연목기와는 그 형태가 수막새와 같은 원형이나 주연부가 생략되고 자방의 중심부에 못 구멍이 뚫려 있다. 연목기와는 백제에서 제작되어 성행하였고, 통일신라와 고려까지 계속 사용되었다가 조선시대에는 대부분 단청으로 바뀐다. 전라북도 익산 미륵사지에서 출토한 녹유연목기와는 백제의 서까래기와로 수작秀作이다. 인동자엽이 새겨진 연꽃이 장식되어 녹유의 발색과 함께 그 의장이 화려하다. 통일신라 때는 점토제의 연목기와 이외에 금속제의 연목기와가 약간씩 제작되어 궁궐 건축에 사용되었으며, 경상북도 경주 안압지에서 출토되었다. 고려의 연목기와는 연꽃이나 초화, 구름 등이 새겨졌다. 녹유연목기와도 일부 제작되었다.

부연은 겹처마에서 연목 끝에 거는 방형의 짧은 서까래다. 부연기와에 못을 박아 부착한다. 부연기와는 그 형태가 네모꼴이며, 중심부에 못 구멍이 뚫려 있다. 부연기와는 백제에서 제작되기 시작하여 통일신라와 고려까지 계속 사용되었다. 조선시대에는 대부분 단청으로 바뀌었다. 부연기와는 연목기와와 달리 주연부가 있고, 연꽃·보상화와 초화·구름 등이 다양하게 새겨진다. 경주 황룡사지에서 출토된 구름무늬부연기와는 고려시대에 제작되었으며, 네모꼴로 다소 큰 규모이다. 자방의 중심부와 상단에는 못 구멍 두 개가 뚫려 있다.

사래는 추녀 끝에 잇댄 네모난 서까래로, 사래기와에 못을 박아 부착한다. 사래기와는 원두방형圓頭方形으로, 연꽃과 귀면이 새겨져 불교의 장엄과 벽사를 나타낸다. 경주 안압지에서 출토한 귀면무늬사래기와는 귀면의 이마에 '왕王'자가 새겨져 있다. 이는 귀면이 벽사의 으뜸임을 나타낸 것이다. 사래기와는 삼국시대에 제작되어 전 시기에 걸쳐 사용되다가 조선시대에는 암키와로 대체되어 못을 박아 사용하거나 단청으로 바뀐다.

토수는 추녀 끝의 네모난 사래에 덧씌워 사용하는 기와로, 조선시대에 출현하였다. 토수는 주로 궁궐과 관아 건물에 사용되었다. 앞면은 이무기나 잉어와 같은 모습이고, 뒷면은 사래에 덧씌워질 수 있도록 커다란 구멍이 나 있다. 토수는 토제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동제토수가 경복궁의 근정전과 덕수궁 중화전의 사래에 사용되어 이채롭다.

특징 및 의의 연목과 서까래의 일종인 부연과 사래는 그 끝이 노출되어 부식될 염려가 많기 때문에 삼국시대부터 여러 종류의 서까래기와가 제작 및 사용되었다. 서까래기와는 부식 방지는 물론 연꽃과 구름, 귀면과 인면이 새겨져 길상과 벽사의 의미를 잘 나타냈다. 서



동제토수 | 서울 종로구 경복궁 근정전 | 국립민속박물관

까래기와는 조선시대에 대부분 단청으로 대체되어 건축의장의 새로운 변화를 살필 수 있다.

참고문헌 백제 사비기 연목와의 형식과 제작기법(편소리, 백제기와,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2012), 백제와전(국립부여박물관, 2010), 옛 기와(김성구, 대원사, 1992).

필자 김성구(金誠龜)

서안
書案

정의 바닥에 앉아서 책을 읽고 글을 쓸 때 사용하는 전통 책상의 일종.

개관 서안書案은 과거 사방탁자, 책장, 의걸이장 등과 함께 남성 공간인 사랑방의 대표 가구로, 평좌식 생활에 편리하게 제작된 전통 가구이다. 오늘날 입식화된 주거 환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책상冊床이라 할 수 있다. 서안에는 전통 선비문화의 소박함과 검소함, 전통 목공예품의 절제미 등이 잘 나타난다.

내용 서안은 한국 전통 온돌문화에서 바닥에 놓고 사용하던 평좌식 책상으로, 당시 서책이나 두루마리 서한書翰 등을 앉아서 읽고 쓰는 데 사용하였다. 서안의 옆에는 연상이 놓여 있어서 붓, 벼루, 먹을 보관하여 항상 글을 쓸 수 있도록 하였다. 대체로 서안은 상판이 일자형인 책상, 사찰에서 두루마리 경전 등을 읽기 위하여 상판의 양쪽 끝이 둥글게 올라간 경상經床 등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서안과 달리 경전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한 두루마리 상판 형태의 경상은 불가로부터 유입되어 일반 민가에서 두루마리 서책이나 편지를 읽고 쓸 때 책상으로 사용하였다.

서안은 남성, 즉 선비들이 사랑방에서 주로 사용한 목공예품이다. 조각이나 색채에서 화려하게 장식된 안방 가구와는 달리 책상이라는 기능에 충실하면서 나무의 목리를 살려 담백한 멋을 잘 나타낸 대표 사랑방 가구이다. 서안의 구조는 천판으로도 불리는 상판, 층널, 천판과 층널을 지지하는 양측면의 판각, 상판과 층널 사이의 크고 작은 서랍과 빈 공간들로 이루어져 있다. 경상의 구조는 상판, 상판 양 모서리의 두루마리 개판, 층널, 층널과 상판 사이의 작은 서랍, 다리, 족대로 이루어져 있다. 서안과 달리 경상은 다리에 다양한 조각 문양이 있다. 경상의 다리는 일자형으로 되어 있는 서안의 판각형 다리와 달리 호족虎足 형태의 죽절竹節형 조각, 호족형 당초와 죽절을 투각한 조각 호족형 등의 다리 형태가 주류를 이룬다.

서안은 개인 책상으로 당시의 서책이나 두루마리 불경 및 편지 등의 크기에 맞추어 가로 세로 높이가 660×295×310㎜, 600×275×342㎜와 같은 크기를 보인다. 경상은 746×320×284㎜, 862×318×330㎜, 763×320×347㎜ 크기로 가로가 길고 앉아서 사용하기 적합한 넓이와 높이로 제작되었다. 목재는 주로 그 지역에서 벌채되는 나무였다. 문헌에는 주로 비자나



서안 | 가로29 세로65 높이29 | 20세기 초 | 국립민속박물관

무, 느릅나무, 물푸레나무 등을 사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황해도 뽕나무, 호남지역의 먹감나무, 제주도 산유자나무 등으로 만든 서안들을 볼 수 있다. 또한 전국에 산재된 소나무나 느티나무로 만든 서안 및 경상도 볼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현존하는 서안이나 경상은 19세기 이후 조선시대 후반에 남성, 즉 선비들의 공간인 사랑방에서 주로 사용된 가구이다. 검소하고 청빈한 선비의 정신을 담아 형태가 단순하고 장식이 절제된 아름다움을 갖추었다. 당시 온돌문화 시대에 따뜻한 바닥에 앉아서 서책을 보기에 편리하였다. 사랑방에서 주인과 손님이 상하나 연장자 등 관계에 따라 자리를 결정하여 윗사람을 서안 안쪽의 상석에 앉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목가구(국립민속박물관, 2004), 실용가구용어사전(문선옥, 경상대학교출판부, 2014), 전통목가구(김삼대자, 대원사, 2003), 한국 미의 재발견 목칠공예(김동우·박영규, 솔출판사, 2005), 한국의 목공예(이종석, 설화당, 1986), 한국전통가구(남경숙 외, 한양대학교출판부, 2008).

필자 문선옥(文善玉)

서옥
壻屋

정의 남성이 혼인하여 여성의 친정 근처에 살기 위해 마련한 집.

내용 서옥壻屋은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사위의 집이다.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의한 친영親迎이 행해지기 이전에는 결혼하면 남성이 여성의 친정 근처에 가서 살았다. 이때 결혼생활을 위해 지은 집을 서옥이라 한다.

서옥은 『삼국지三國志』「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에 처음 나온다. 동이전의 고구려조에 "처음 말로써 혼인을 정하고 다음에 여자의 집 대옥大屋 뒤에 소옥小屋을 지어 서옥이라 부르며, 저녁에 사위가 여자 집에 와서 문밖에서 자기의 이름을 알리고 무릎 꿇고 절하면서 여자와 같이 잘 것을 세 번 원하면 여자의 부모는 이것을 듣고 소옥에서 같이 잘 것을 허가한다. 남자는 다음날 떠날 때 전백錢帛을 놓고 간다. 여자는 자녀를 낳고 자녀가 성장해야 비로소 남자의 집에 살러 간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서옥이 바로 사위의 집이다.

『삼국지』「위서」 동이전에 등장하는 서옥에 관해서는 데릴사위제, 봉사혼奉仕婚, 해묵이 풍속에 따른 것이라는 견해가 병존한다. 데릴사위제는 딸만 가진 부모가 사위를 집으로 들여 함께 사는 것을 말하고, 봉사혼은 남자가 여자 집에서 일정 기간 머무르며 노력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 또 해묵이는 혼인식을 올린 여자가 자기 집에 머물러 있고 남자가 몇 번이고 재행再行한 뒤 해를 지나 별도로 날을 잡아 남자 집에 살러 가는 것을 말한다.

데릴사위제, 봉사혼, 해묵이 풍속은 혼인의 과정과 여성의 친정 기거 기간은 다르지만 모두 남성이 여성의 친정 근처에 가서 산다는 사실만은 동일하다. 이와 같은 혼인 풍속을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 또는 서류부가혼壻留婦家婚이라 한다. 남귀여가혼은 조선이 건국된 후 『주자가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영혼親迎婚으로 서서히 바뀐다. 친영혼은 남성이 여성의 집에서 결혼식을 한 후 신부를 맞이하여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 혼인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친영혼은 조선사회에 쉽게 수용되지 않았다. 이전부터 뿌리 깊게 이어져 내려온 남귀여가혼 전통 때문이었다. 친영혼 대신 결혼 후에도 일정 기간 여성은 친정에 살고 남성이 본인의 집과 장가杖家를 오가며 지내다가 날을 잡아 아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는 반친영혼이 행해졌다. 앞에서 설명한 해묵이 풍속은 반친영혼을 말한다.

반친영혼의 풍속에서도 남성이 여성의 집에 가서 머무는 공간이 필요하였을 것이고, 이 공간은 시대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렸을 테지만 그 개념만은 서옥을 잇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서옥은 남성이 여성의 친정 근처에 살기 위해 지은 집으로, 현재와 전혀 다른 결혼 풍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건축물이다. 사랑채와 더불어 사회제도의 변화가 주생활 공간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三國志, 太平御覽, 전통사회와 생활문화(송찬섭 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한국건축개념사전(한국건축개념사전기획위원회, 동녘, 2013), 두산백과사전(doopedia.c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정정남(鄭貞男)

성주매기

정의 집을 새로 짓거나 이사할 때 또는 집안 식구의 운수가 좋지 않을 때 가옥의 신神인 성주를 받아 모시는 의례.

내용 집 안에 가신家神들을 좌정 또는 봉안시키고 위하는 일은 한 가정의 안녕을 기원하고 보장받기 위한 종교적 방편 중 하나이다. 기본적으로 한 가정에서는 성주와 조왕을 중심으로 터주, 용왕, 삼신, 측신 등을 모신다. 이들 신령에게는 각기 자신이 맡은 집 안의 구역과 그에 따른 역할이 있다. 집을 새로 짓거나 다른 집으로 이사하여 식구들이 입주하면 곧바로 집 안 곳곳에 가신들이 자리를 잡는다. 그러나 성주는 다른 신령들과 달리 상량식上梁式이나 안택安宅의 한 절차로써 정식 초빙하여 앉힌다. 성주신은 대개 '어느 집이나 다 있는 것'이라는 관념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가옥 축조 등을 통하여 그 집 자체가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좌정하게 되는 신령으로 여겨진다. 또한 성주는 가장家長을 중심으로 하는 부계의 조상과 동일시된다. 이러한 성주는 집안의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최고의 가신으로, 건물 그 자체로도 인식된다.

성주를 받으려면 대주大主(그 집의 가장)에게 성주운이 들었는지를 살펴야 한다. 대주의 나이가 짝수인 경우는 성주운이 들지 않으므로 성주를 받지 못하고 홀수인 경우에만 이를 받을 수 있다. 대개 3, 5, 7이 나이의 끝수일 때 성주를 받는다. 9일 때는 아홉수라 꺼린다. 한편 성주는 집안에 초상이나 출산 등 부정한 일이 생기면 집 바깥으로 나가기도 한다. 이때는 안택 또는 성주받이 고사를 해서 성주를 다시 상량에 봉안해야 한다. 만약 대주의 운이 닿지 않으면 가족의 운을 대신 볼 수도 있다. 예컨대 손자의 운이 닿아도 집을 지을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대주에게 대운이 든 해에 미리 대들보를 마련하여 그의 이름을 적어서 비를 맞지 않게 잘 보관해 두었다가 이듬해 집을 지을 때 사용하기도 한다. 밖으로 나간 성주는 대개 대추나무나 밤나무 또는 감나무에 앉아 있다. 이처럼 과실나무에 성주가 앉는 것은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자손의 번성을 바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대잡이가 성줏대를 붙잡고 집 외부에 있는 나무에서 성주신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와서 어느 자리에 좌정할지를 묻는다. 대체로 성주 자리는 마루의 대들보이므로 그곳에 다시 앉는 경우가 많다.

집을 지을 때 기둥 세우는 날을 '입주立柱', 마룻대 올리는 날을 '상량上梁'이라 한다. 입주일과 상량일은 대목수가 풍수를 잘 아는 이에게 받는다. 상량식 날 대목수가 상량에다 그 해 간지干支를 쓴다. 간혹 대주의 사주를 함께 묵서墨書하기도 한다. 가장이 집을 지을 운에 닿지 못할 경우에는 가족 중에 운이 맞는 사람의 명의로 집을 짓고, 상량에도 그 사람을 가주家主로 하여 그의 사주를 적는다. 대개 성주는 집을 새로 짓거나 개축改築할 때 새로 모시지만 가장이 사망하여 그 아들이 집을 이어받을 때도 대주가 바뀌게 되므로 성주를 다시 모신다.

상량식을 할 때는 상량 아래에 작은 상을 차리고 흰 시루떡 또는 켜떡을 놓는다. 그리고 통북어를 시루 양쪽에 껴 넣거나 떡 위에 올려놓는다. 막걸리나 돈도 함께 올린다.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돼지머리를 올리기도 한다. 상량고사를 마치고 나면 상량대를 올린다. 대들보 양쪽에 소청을 매고 이를 들어올린다. 상량이 올라가면 식구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하고 떡과 북어를 흰 종이에 싸서 상량에 매단다. 이를 사흘간 두었다가 내려서 식구들끼리 먹는다. 이렇게 상량이 올라가는 것 자체로 성주가 좌정한다고 여긴다. 그래서 집을 짓는 건축 행위를 '성주 한다.'라고도 부른다. 성주가 좌정하는 위치는 가옥의 정중앙인 대들보 위나 밑, 상기둥의 윗부분이 된다. 일부 가정에서는 상량대가 올라가는 날을 '성주 생일'이라 하여 그 후 3년까지 혹은 매년 같은 날에 떡을 쪄서 고사를 지낸다. 가정에 따

라 설과 추석 차례 때 별도로 성주상을 차려서 위하기도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혼례 때 입은 아녀자의 옷이나 상복喪服을 상량대에 걸쳐 두면 궂은 사람이 집에 들어와도 탈이 없다는 속신이 있다. 부잣집에서는 오색 광목을 걸어 두어 집안의 재수를 빌기도 한다.

대목수 중에는 간혹 무당 또는 법사가 제작하는 성주의 신체神體를 본인이 대신 만들어서 대들보 아래에 붙여 주는 이도 있었다. 성주 신체의 형태는 흰 종이를 접어서 실타래로 묶거나 백지白紙를 막걸리 또는 청수淸水에 적셔서 반구半球 형태로 붙인 것이 많다. 이사 갈 때는 이를 떼어 내 불사르거나 천에 싸서 들고 가다가 냇가나 다리를 건널 때 물에 띄워 보낸다. 별도로 성주 신체를 만들지 않아도 으레 대청마루의 상량 기둥 아래 근처가 성주가 좌정하고 있는 곳이라고 여긴다. 이를 '건궁'이라고 부른다. 남부지역에서는 주로 성줏단지나 성주독을 신체로 봉안한다. 이를 주로 마루에 모셔 놓고 추수가 끝나면 손 없는 날을 택하여 그 안에 쌀을 넣어 둔다. 묵은쌀로는 떡이나 밥을 해서 가족끼리만 먹는다. 전라남도 도서지역에서는 차남이 분가하면 그를 위하여 성주 동이부터 마련한다. 이를 먼저 집 안에 들여놓고 쌀을 담은 후에야 다른 이삿짐을 옮기는 것이 상례이다.

지역사례 경기도 고양에서 무업巫業에 종사하고 있는 김 아무개 만신(1945년생)의 성주받이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대주가 사망하면 그 아들의 성주를 새로 받는다. 또 집을 개축하거나 집안의 우환 때문에 성주가 나갔다고 하면 다시 받아 모신다. 대주의 나이가 홀수인 해에 받을 수 있다. 소나무 가지로 만든 대에 성주신을 내려서 그 대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모셔 온다. 대부분 살아 있는 나무에 성주신이 있다. 성주 신체는 베를 돌돌 만 형태이거나 한지를 접어서 막걸리에 축인 다음 붙여 놓은 것이다. 후자의 경우 그 안에 지폐를 접어 넣는다. 그리고 성주에게 쌀을 던지면서 "천석요, 만석요."하고 외친다.

경기도 김포 대곶면 약암2리 약산마을에 사는 민 아무개(2004년 당시 88세)는 자신이 시집 온 후 성주받이를 서너 차례 하였다. 성주받는 날짜는 한학을 한 시아버지가 책을 보고 잡아 주었다. 성줏대는 손 없는 쪽으로 뻗은 참나무 가지나 앵두나무 가지로 만들었다. 대에 성주신이 내리면 대잡이가 이를 들고 가까운 동산에 가서 나뭇가지를 꺾어 온다. 이를 실과 광목, 북어와 함께 대들보 아래에 매달아 두면 성주신을 새로 모시게 되는 것이다.

경기도 안성 서운면 청룡리 청룡마을에 사는 김 아무개(2004년 당시 77세)는 새로 집을 짓고 나서 상량을 하였다. 이때 천으로 만든 상량주머니 안에 쌀을 넣고 무명실 타래로 대들보에 묶었다. 가옥은 가장의 운이 닿아야 지을 수 있는데 마침 남편의 그해 운이 닿지 않았다. 그래서 큰아들을 가주로 하여 상량문에도 큰아들 사주를 적었다. 가옥이 완성된 날에 액막이를 위하여 큰아들이 홀로 절굿공이를 들고 들어가 아랫목에서 이를 거꾸로 베고 잤다. 그런 후 손 없는 날에 고사를 지내고 입주하였다.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건네며 "내가 네 집을 사야겠다. 팔아라."라고 하였고, 아들이 그 돈을 받고 "예, 팔겠습니다."라고 하여 거래를 마치고 식구들이 들어가 살았다.

강원도 동해에 거주하는 만신 김 아무개(2005년 당시 68세)의 성주받이 사례는 다음과 같다. 새집으로 입주할 때는 반드시 성주를 앉혀야 한다. 무녀가 소지종이를 들고 집 안을 돌아다니며 성주신이 어느 방향에 앉으실지 묻는다. 그러다 보면 소지종이가 벽에 붙는 곳이 있다. 그곳에 성주가 앉으신다고 여긴다. 다른 사람이 살다가 이사 나간 집인 경우에는 묵은 성주를 대에 실어서 내보내야 한다. 묵은 성주가 안 나가고 있으면 이사 들어오는 사람의 성주와 상충하여 집안에 우환이 든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무녀가 대나무에 한지를 묶고 집안을 한 바퀴 돌아 밖으로 나가면서 묵은 성주는 주인 따라 가시라고 빈다. 그리고 묵은 성주를 불사르고 나서 새로 대를 매어 집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새 성주에게는 묵은 성주가 떠났으니 이제 집으로 들어가 좌정하여 집안의 자손창성과 부귀공명을 이루어 달라고 빈다.

강원도 영월 남면 북쌍1리에서는 집을 지을 때 성주신이 좌정하겠다고 정한 자리에 종이를 접고 소나



성주굿 | 경기 양주 | 1983 | 국립민속박물관

무 가지를 꽂아 실타래로 매어 걸어 두는 것과 함께 단지에 쌀을 담아 모신다. 매년 안택을 하고 나면 성주를 새로 맨다. 성주단지 안에는 가을에 처음 수확한 쌀이나 햇곡을 넣어 둔다. 이전에 담은 쌀로는 떡을 해서 성주에게 먼저 올리고 절한 다음 식구들끼리 나누어 먹는다.

충청남도 태안 근흥면 안기리 궁틀마을의 함 아무개(2004년 당시 68세)의 집에는 성주가 봉안되어 있다. 상량문에는 '서기 1976년 양력 10월 13일 사시巳時 상량, 병향丙向 임좌壬坐 갑인'이라고 쓰여 있다. 함 아무개는 미리 인근 마을에 사는 법사에게 연락하여 상량식을 치를 때 성주를 받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보통 상량문은 대목수가 직접 써 주는 경우가 많지만 특별히 집안에서 글 잘 쓰는 이를 데려다가 쓰기도 한다. 상량문이 완성되면 법사가 그 앞에서 성주 축원을 한다. 처음 집을 짓고 성주를 받을 때도 여느 안택과 마찬가지로 진행된다. 법사가 조왕 앞에서 부정을 풀고 조왕경을 마치면 대청 대들보 앞에서 성주경을 읽은 후에 성주 신체를 만들어서 붙인다. 신체는 제물로 올린 팥 시루떡을 조금 떼어 내 하얀 종이에 넣고 돌돌 말아서 대들보 아래 께에 붙인 것이다. 법사가 성주를 봉안하면 그 집 대주가 성주 앞에서 재배再拜한다.

충청북도 제천 수산면 오티리에서는 성주를 처음 모시는 것을 "성주 맨다."라고 한다. 이때 경쟁이(법사)가 와서 독경을 통하여 신을 받아 모신다. 성주의 신체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제작된다. 한지를 가로 10㎝, 세로 23㎝ 크기로 접고 수숫대를 25㎝ 정도 되게 잘라서 두 쪽으로 쪼개어 한지의 앞면과 뒷면에 댄다. 그리고 생소나무의 상순 끝부분을 15㎝ 정도 크기로 꺾어 한지 위에 놓는다. 이어서 실타래로 한지를 감아서 기둥에 매단다. 이러한 성주의 신체는 매년 안택을 할 때마다 새로운 것으로 다시 만들어서 달아 둔다. 이것을 "성주 앉힌다."라고도 한다. 여러 해가



대성주 | 국립민속박물관



성주독 | 전북 부안 | 국립민속박물관

되어 많이 쌓이게 되면 불에 태워 처리한다.

경상북도 안동 임하면 금소리의 서 아무개(2005년 당시 72세)의 경우 남편이 서른다섯 살 되는 해에 건강이 안 좋아지자 철학관을 찾았다. 철학관에서 남편에게 성주운이 있어서 이를 모셔야 한다고 하면서 날을 받아 주었다. 마침 남편이 한문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가 직접 성주를 모셨다. 성주를 모시기 위한 제물로 팥 시루떡을 찌고 고기와 각종 나물 등 반찬을 장만하였다. 남편이 작은 식기食器에 쌀을 담고 홍두깨를 그 안에 세워 잡았다. 그리고 경을 읽으니 홍두깨에서 손을 떼었는데도 홍두깨가 식기 안에 그대로 서 있었다. 곧 독경을 멈추고 홍두깨를 누인 뒤 성주 신체를 만들었다. 성주는 종이를 접어 그 사이에 명주실을 넣은 것으로 마루 기둥에 못을 박아 매었다.

전라남도 영광 군남면 백양리에 거주하는 무속인 문암댁(여, 2006년 당시 79세)이 제보하는 성주맞이는 다음과 같다. 새로 이사를 하거나 집을 지은 경우 "성주가 안 따라왔다."라고 하면 좋은 날을 받아서 성주를 맞는다. 그 집 주부가 방 밖에 앉아서 시루에 손을 대지 않고 머리에 이고 있으면 시루 안에다 쌀 한 되 정도를 붓는다. 그리고 방 안에서는 "성주님 내리소사."라고 하면서 빈다. 잠시 후에 "성주님이 들어왔다."고 하면서 성주경을 읽는다. 시루에 담은 쌀은 그대로 성주자리(방의 가운데 기둥이 있는 곳)에 두었다가 이튿날 아침에 그 쌀로 밥을 해서 성주에게 올린다. 이사를 갈 때도 식구들이 밥을 먹으면서 성주지앙에 밥 한 그릇을 놓고 "오늘 갑시다." 하고 알린다. 한편 상량 올리는 날을 성주 생일이라 하여 집을 짓고 나서 3년간 쉰다. 이날 집에서 메를 지어 성주 자리에 올려놓고 가족들이 그 상에 있는 음식을 먹는다.

특징 및 의의 성주신은 한 집안에 좌정하는 여러 가신 중 대표 신격이다. 이러한 성주신은 가옥을 새로 짓거나 그 집의 대주를 교체할 때 새로 모신다. 그래서 대개 성주신은 그 가옥의 상량 또는 그 집 자체로 인식되기도 하고, 그 가족의 대표인 가장과 동일시된다. 무당 또는 법사에 의해 제작되는 성주 신체도 주로 대청의 대들보나 상량의 상단 부분에 봉안된다. 성주가 자리 잡는 상량목(종도리)은 가옥의 중심축으로서 그 가옥의 가장 신성한 공간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를 통해 그 가옥에 입주한 가족들은 집이 형성되면서 좌정하는 성주신 등 여러 가신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 이러한 전통에는 인간의 거주 공간을 신들과 공유하는 신성한 영역으로 설정함으로써 신령의 보호와 축복을 받는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가족의 안정과 평안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참고문헌 새로 쓴 한국 주거역사와 문화(백영흠·안옥희, 신정, 2011), 전통민가의 주거생활사 연구(윤원태, 민속원, 2009), 집으로 보는 우리문화 이야기(강영환, 웅진닷컴, 1992), 충남지역 성주신앙의 존재양상(이필영, 한국역사민속학26, 한국역사민속학회, 2010), 한국의 가정신앙1~9(국립문화재연구소, 2005~2008).

필자 임승범(林承範)

세면대
洗面臺

정의 입식으로 세면 등을 할 수 있는 시설.

개관 우리나라에서 세면대洗面臺는 서양식 건축이 한식에 영향을 미쳐 화장실이 욕실과 함께 주택의 실내로 들어오면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세면·목욕·화장실 기능이 욕실이라는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된 것

은 1970년대 이후로 본다. 1988년에 발표된 200만 호 건설계획에 따라 아파트 건설 붐이 일면서 화장실의 일반 개념이 욕실로 정립되었고, 화장실 인테리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생겨났다. 1960년대 말부터 매년 성황리에 열리는 경향하우징페어 등의 박람회는 국내외에서 개발된 새로운 재료와 디자인의 세면대가 설치된 욕실을 소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관심과 안목을 높이고 있다.

내용 전통 좌식문화에서 입식문화로 바뀌면서 나타난 가장 커다란 변화는 부엌과 함께 욕실이 실내로 들어와 실내에서 세면 등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욕실에서 세면대 설비는 필수이며, 욕실을 대표하는 요소이다. 세면대는 언제나 서서 세면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세면기와 세면을 위한 작은 액세서리, 세면용품을 저장하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초창기의 세면대는 배수 파이프가 노출되고 세면기가 브래킷bracket 선반대로 받쳐진, 대부분 규격화되고 정형화된 단순한 형태였다. 세면대의 구조는 팝업pop-up이 장치되어 물을 받을 수 있는 세면기와 그 아래 배수를 위한 트랩trap, 급수를 위하여 세면대에 고정된 수도꼭지로 이루어져 있다. 세면대 종류는 단독형, 카운터형, 트윈형, 수납형, 코너형, 독립노출형 등으로 분류된다. 가정에서는 단독형, 스탠드형, 카운터형으로 불리는 세면대를 많이 사용한다.

단독형 세면대는 오래된 주택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으로, 벽에 부착된 브래킷 세면대로도 불린다. 두 개의 브래킷 선반으로 세면기를 받치고 세면기 아래에 배수관이 노출되어 있다. 스탠드형 세면대는 페디스털(받침대)형으로, 배수관을 바닥부터 가리는 형태와 벽의 중간부터 커버하여 그 위에 세면기를 올려놓는 형태 두 종류가 있다. 높이 조절이 자유롭다. 스탠드형은 배수관이 보이지 않으므로 욕실이 깔끔하며 다양한 형태의 세면기 디자인으로 현대 욕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세면대이다. 페디스털이 세면기와 하나로 되어 있는 일체형 페디스털 세면대는 용이한 청소와 단순한 형태의 디자인으로 욕실을 더욱 깔끔하게 만든다. 카운터형 세면대는 수납공간이 충분한 하부장이 있는 책상형 위에 세면기를 올려놓는 방식이다. 톱top형, 세미semi형, 언더under형으로 구분된다. 톱형 세면기는 물을 받는 용기가 책상 위에 전부 올라와 있는 형태, 세미형은 용기가 절반만 올라와 있는 형태, 언더형은 용기가 카운터 안으로 완전히 매립되어 있는 형태이다.

하부 수납가구 위에 올려놓는 다양한 톱볼top bowl 형태의 세면기는 규격화와 정형화를 벗어난 고급형 디자인, 즉 오브제 미술품과 같은 자유로운 외관과 다양한 컬러 및 문양의 유리나 도자기 등의 재료로 제작된다. 이러한 오브제 세면기는 욕실 분위기를 아름다운 미술품을 감상하는 휴식 공간처럼 바꾸어 준다. 미 감각이 돋보이는 톱볼형 세면기는 휴식공간 같은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에 고급 음식점이나 백화점의 화장실에 많이 설치된다. 오브제 디자인의 톱볼카운터형 세면대는 개인의 위생과 힐링을 추구하는 현대인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서구로부터 유입된 욕실은 화장실 기능은 물론 추운 겨울에도 실내에서 따뜻한 물로 세면할 수 있는 설비로 편리함을 주면서 생리위생과 건강관리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초창기에는 욕실에서 세탁기를 두고 빨래 등 가사도 하였다. 오늘날에는 세탁실의 분리로 욕실이 화장실과 세면 기능에 점점 더 집중하면서 단순한 세면 이상의 외모 치장까지 할 수 있는 세면대 디자인과 설비를 갖추게 되었다.

우리 주거 공간의 중심은 전통으로 안방이었다. 서구화로 생활 중심이 거실로 바뀌었고, 오늘날에는 욕실로 점차 바뀌고 있다. 이는 욕실이 단순히 씻거나 생리 현상을 해결하는 공간에서 개인 시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말하여 준다.

참고문헌 아파트가구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남영락, 서울산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아파트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가사작업공간 사용행태와 의식(김진영,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세면기 디자인에 관한 연구(구창모,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욕실 세면기 개발에 관한 연구(박윤선,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주거문화적 배경으로 본 아파트 단위세대 주방공간의 계획 특성에 관한 연구(정다운,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한국가구의 역사(조숙경, 미진사, 2019).

필자 문선옥(文善玉)

세탁기
洗濯機

정의 기계의 힘과 세제를 이용하여 더러워진 의류의 오염을 제거하는 가전기기.

개관 한국에서 국산 세탁기洗濯機가 처음 시장에 출시된 것은 1969년 2월이지만 초기에는 세탁용량이 적고 가격이 비싸서 널리 보급되지 못하였다. 입주 가사도우미의 고용이 줄고 아파트 거주자가 늘면서 세탁기가 대중화되기 시작하였다. 점차 대용량 세탁기가 개발되고 소비자도 대용량 세탁기의 구매를 선호하는 추세였으나 현재는 1인 가구 증가로 다시 소형 세탁기가 각광받고 있다. 한편 세탁기로 빨래를 하게 되면서 빨랫비누 대신 합성세제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가 대두되었다.

내용 1950년대까지도 더러워진 옷이나 이불을 빨기 위해서는 먼저 잿물 또는 양잿물에 담가두었다가 빨래터나 마당 수돗가에서 빨랫비누를 문질러 손으로 비비거나 빨래방망이로 두들기고 빨래판에서 치대야 하였다. 그런 다음 여러 번 물에 헹구고 물기가 빠질 때까지 꽉 짜서 빨랫줄에 널어 말렸다. 특히 겨울과 같이 기온이 낮은 시기에 찬물에다 일일이 손으로 빨고 물기를 짜야 하는 빨래는 가사 중에서도 시간과 힘이 가장 많이 드는 일이었다. 이처럼 대부분 손으로 빨래를 하였지만 1950년대에도 세탁기는 있었다. 일부 부유층에서 수입한 고가高價의 외국산 가정용 자동세탁기를 백화점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국산 가정용 세탁기가 최초로 판매되기 시작한 것은 1969년 2월이다. 금성(현재의 LG전자)에서 세탁통과 탈수통으로 나뉜 2조식 자동세탁기를 '백조'라는 제품명으로 내놓았다. 일본과의 기술 제휴로 개발된 백조세탁기는 세탁용량이 2㎏밖에 되지 않아 한 번에 와이셔츠 10벌을 빨 수 있는 정도였다. 당시 외국산 세탁기가 이미 판매되고 있었고, 부유층에서는 입주 가정부를 고용하고 있던 상황이라 소용량의 수동식 국산 세탁기 판매는 저조하였다. 뒤를 이어 대한전선, 삼성전자, 신일산업, 한일전기, 화신전기 등에서도 세탁기를 개발·판매하였으나 세탁기 보급률은 1976년 당시 국내 전체 가구의 2%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입주 가정부의 인건비가 오르고 구인할 형편도 어려워지면서 1970년대 말부터 세탁기를 구매하는 가정이 늘기 시작하였다. 주부가 직접 세탁과 가사를 맡으면서 가사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는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세탁기를 구매할 수 있는 가정이라 해도 세탁기로 한 번에 빨 수 있는 양이 적은 데다 빨래를 하면 옷이 손상되고 때가 제대로 빠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하여 세탁기 보급 속도는 더디었다.

이후 가정에서 세탁기를 적극 구매하게 된 데는 아파트라는 주거 양식이 영향을 미치었다. 빨래를 널 넓은 마당이 없는 아파트에서는 베란다나 실내 여기저기에 빨래를 널어놓고 말려야 하였다. 빨래로 인하여 집이 지저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건조시켜야 하였고, 이때 탈수 기능이 있는 세탁기가 필요하였다. 특히 빨래를 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물기를 짜는 일은 손목이 시큰할 정도로 힘이 많이 드는 데다 겨울에 옷이 얼거나 잘 마르지 않아서 세탁기가 매우 유용하였다.

그렇다 해도 1979년 당시 전국 가구당 세탁기 보급률은 7.7%에 불과하였다. 세탁기가 대부분의 가정



대한무지개 세탁기 | 1975.02.15 | 경향신문

에 보급되기 이전에 과도기적 가전제품으로 인기를 끈 것이 탈수기이다. 일명 '짤순이'로 알려진 탈수기는 한일전기주식회사에서 1975년에 출시하였다. 통 안에 헹굼 과정까지 마친 빨래를 넣으면 원심분리기 모터로 짧은 시간 안에 물기를 짜 주는 제품이다. 탈수기는 세탁기에 비하여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크기도 작아서 집 안에 설치하기 편하였다. 게다가 세탁의 모든 과정이 아니라 탈수만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부담도 적어 주부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이후 세탁기의 가구당 보급률은 꾸준히 증가하여 1996년에는 92.1%에 이르렀다. 세탁기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에 설치하는 세탁기의 용량도 커졌다. 1987년경에는 4㎏ 용량의 세탁기가 주로 판매되었으나 10년이 지난 1997년에는 13㎏ 용량의 가정용 세탁기가 출시되었다. 1988년 수입개방 조치가 시행되면서 외국산 대형 세탁기의 수입이 늘었고,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국산 세탁기의 용량도 커졌기 때문이다. 외국산 세탁기와 경쟁하기 위하여 국내 가전업계에서는 세탁기를 대형화하고 삶아 빠는 세탁기, 방망이로 두드려 빠는 효과가 있는 세탁기와 같이 한국 소비자에게 익숙한 빨래 기능을 추가한 제품을 선보였다. 또한 대형화되는 추세 속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는 1인 가구 대상의 소형 세탁기도 중요한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특징 및 의의 세탁기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세제 시장의 판도도 달라졌다. 세탁기 빨래에 적합한 합성세제 사용이 증가한 것이다. 국산 합성세제는 1966년에 처음 출시되었다. 종래에 사용하던 고형 빨랫비누에 비하여 짠물이나 우물물에서 세척력이 월등한 데다 합성섬유 세탁에도 적합하였다. 가격은 비쌌지만 이러한 장점 때문에 손빨래를 하는 가정에서도 일부 사용하였다. 그러나 합성세제 소비가 늘어난 중요한 계기는 세탁기 사용 증가였다. 그 결과 수질오염이 심해져 사회 문제가 되었다.

참고문헌 한국인 어떤 옷을 입고 살았나(양미경 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한국인 어떤 집에서 살았나(김혜숙 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가전품 대형 많이 찾는다(동아일보, 1990.4.11), 가정 최대용량 세탁기(한겨레, 1997.8.13), 세탁기수요 급증 3월 말 전년비 54% 증가(매일경제, 1979.4.24), 세탁기 판매부진(매일경제, 1976.9.17), 컬러 TV 냉장고 보급률 100% 육박 포화상태(동아일보, 1997.1.7).

필자 김혜숙(金惠淑)

셋방살이

정의 남이 소유한 집의 방을 빌려 생활하는 주거 형태.

개관 집을 빌려서 거주하는 생활을 기록한 자료는 조선 전기부터 등장한다. 주로 지방 출신 선비들이 서울에서 벼슬살이를 할 때에 나타나므로 방 한 칸을 빌려서 거주하는 형태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제강점기에는 인구 증가와 서울의 도시 정비 및 확장 등으로 주택이 줄어 셋방살이가 더 늘었고, 집주인들의 횡포도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였다. 광복과 함께 월남민이 증가하였고 6·25전쟁은 주택 부족을 심화시켜 셋방살이 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다. 새롭게 가정을 꾸린 부부의 신접살림은 '단칸방 셋방살이'로 표상화되었으며, 셋방살이를 면하는 것은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향상되는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195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발표되기 시작한 여러 형태의 공공주택 설계도면을 보면 애초부터 셋방을 염두에 두고 방 한 칸과 그에 딸린 부엌을 주인집 생활공간과 분리한 설계가 흔히 발견된다. 그러나 변소와 대문·마당은 공유해야 하였으므로 집주인과 완전히 격리되지는 못하였다. 주인집 또한 사생활이 구분되기를 희망하였으므로 차츰 셋방살이는 다세대주택의 형태로 변화해 나갔다. 단독주택 역시 아파트처럼 마당이 줄어들고 실내공간 중심으로 생활이 바뀌어 가면서 공간을 공유하는 셋방살이는 줄어들었다. 대신 1인 가구나 소가족을 위한 오피스텔, 원룸, 투룸 등 새로운 임대주택과 고시생의 임시 주거인 고시원이 과거 셋방이 차지하던 도시 서민의 주거를 대변하고 있다.

내용 남의 집을 빌려 거주하는 형태에 관한 기록은 조선 전기부터 살펴볼 수 있다. 조선 성리학의 종장 가

운데 한 사람으로 불리는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1431~1492)의 문집인 『점필재집佔畢齋集』에 "때로는 쫓겨나有時被驅逐 동서로 떠돌았다東西漂轉頻."라는 내용의 시가 남아 있으며, 퇴계 이황李滉(1501~1570) 역시 셋집 마당에 핀 꽃을 보고 시를 남긴 바 있다. 이들은 시중 들 하인을 거느렸으므로 방 한 칸만 세를 내지 않았을 터이지만 대가를 지불하고 집의 전부나 일부를 빌리는 방식이 이미 활성화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집세가 밀리거나 시세에 따라 오른 집세를 낼 형편이 안 되면 쫓겨나는 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 방 한 칸을 빌려 거주하는 형태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셋방살이 관련 기록은 근대 언론이 발달한 이후에 등장한다. 일제 강점 초기인 1912년에 시작된 시구개정사업으로 새로운 도로망이 뚫리고 기존 가로가 확장되면서 수많은 주택이 허물어졌다. 이 때문에 사글세집은 더욱 줄고 월세도 크게 올랐다. 심지어 조선물산공진회나 조선박람회 같은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에는 집 주인들이 숙박업 특수를 노려 세입자를 내쫓고 숙박업소로 영업하는 행위가 『매일신보』 등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광복과 남북분단은 귀환자와 월남민의 증가를 불러왔고, 6·25전쟁 때문에 수백만 명의 피란민이 생겨났다. 이들이 휴전 후에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대도시로 몰려들면서 주택난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50년대 말부터 여러 형태의 공공주택이 만들어졌다. 서구의 근대식 입식생활에 준해 설계했을 뿐 아니라 세를 줄 목적으로 집 뒤꼍에 방 한 칸과 그에 연결된 부엌을 집 뒤꼍에 만들어 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1970~1980년대에 널리 지어진 이른바 '집장사집' 중에도 셋방살이를 반영한 집이 많았다. 이른바 개량한옥 중에도 별채나 문간채에 부엌을 하나 더 만들어 사글세를 놓는 경우가 흔하였다.

셋방살이는 대문, 변소, 마당을 주인집과 공유하였으므로 생활 동선이 겹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집세 인상이나 체납과 같은 직접적인 갈등 이외에도 변소 이용이나 공공요금 분담에 대한 알력이 있었다. 셋방살이하는 가족의 자녀가 주인집 자녀를 때리거나 공부를 더 잘한다는 이유 등으로 쫓겨나 새 셋집을 알아보아야 하는 일도 비일비재하였다. 1975년의 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방 하나당 평균 세 명가량 사는 셈이었고, 열 명 이상이 사는 가구도 있었다고 한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서민아파트와 같은 소형 주거가 큰 인기를 끈 데에는 셋방살이의 설움이 작용하였다고 보기도 한다.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하여 아이가 생겨 자랄 때까지 셋집에서 주인집 식구들의 눈치를 봐야 했기 때문에 이웃에게 생활을 노출하지 않을 수 있는 아파트라면 공간이 좁아도 셋방살이보다 낫다고 여겼다.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1984년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이 시행되었고, 다세대주택이라 이름 붙인 주거형태가 도입되었다. 이미 한 집에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건축법을 개정한 것이었다. 우선 단독주택에서는 금지되던 가구별 부엌·화장실 별도 설치가 가능해져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통풍·채광·습도 상태가 원활하지 않고 시선 차단에 불리하여 저소득층 셋집으로 사용되던 지하층을 방 높이의 절반이 땅 위에 노출되도록 하여 반지하 셋집이 정착될 수 있었다. 옆집과 유지해야 하는 거리도 완화하여 토지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법제 변화로 인해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이 크게 늘면서 셋방살이는 사라지고 오피스텔이나 원룸·투룸 형태가 새로운 도시서민의 주거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다.

특징 및 의의 셋방살이는 방 한두 칸과 부엌 정도의 규모인 소형 주거를 매월 임대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빌리는 것을 말한다. 1970년대까지는 방과 부엌으로만 구성되어 변소와 마당·대문은 주인집과 공유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관련 법제의 개정으로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늘면서 일상을 주인집과 공유하지 않는 셋집살이가 보편화되었다. 또한 오피스텔과 원룸·고시원과 같은 주거 형태가 새롭게 등장하여 도시주거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 주거의 미시사(양세화·전남일·홍형옥, 돌베개, 2009), 한국인 어떤 집에서 살았나(김혜숙 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필자 이대화(李大和)

소로수장집

정의 도리를 받치고 있는 장혀 밑에 별도의 장혀 또는 상인방을 끼우고 상하 장혀 사이에 소로를 끼워 좌우 변형을 막도록 한 방식의 민도리식 살림집.

개관 민도리집은 기둥 상부에 다포 또는 익공에서 사용하고 있는 첨차와 살미·익공·주두 등을 사용하지 않고 다포처럼 출목이 없으면서 보와 장혀, 보아지, 장혀 받침재가 짜 맞춤을 한 형식이다. 민도리집은 가장 단순한 보와 기둥과 도리만으로 짜 맞춤을 한 형식부터 단순한 형식에 소로를 사용하여 장식한 형식까지 세분된다. 소로수장집은 민도리식 중 소로를 사용한 살림집이다.

내용 단순한 민도리식의 결구는 기둥 상부를 십자로 홈을 파낸 사갈 튼 기둥 상부에 전후 방향 보와 좌우 방향 도리가 사개맞춤을 하는 방식이다. 다음 단계의 민도리식은 도리 밑에 장혀를 삽입하여 도리의 처짐을 막도록 한 방식이다. 보 밑에 보아지를 삽입하여 보머리를 받도록 한 예도 있다. 마지막 단계의 민도리식은 소로수장 방식으로 도리받침장혀 밑에 별도의 장혀 또는 상인방을 끼우고 상하 장혀 사이에 소로를 끼워 좌우 변형을 막도록 한 것이다. 이 방식은 민도리집 기둥 상부 구조의 마지막 발전 단계로 볼 수 있다. 즉 소로수장집은 좌우 외곽기둥에 걸쳐 있는 상하 장혀 사이에 소로를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하여 집의 얼굴을 장식한 집이다.

소로수장집은 먼저 상인방을 끼우고 윗면에 소로를 일정하게 놓고 사갈 튼 기둥 상부에 도리받침장혀와 보를 결구한 후 좌우 기둥 위 보 머리 위에 도리를 거는 방식이다. 좌우 도리는 보와 맞춤을 한 후 나비장이음으로 결속되어 있다. 장혀와 상인방 사이는 소로를 끼워 목재의 뒤틀림을 잡으면서 입면을 장식한다. 두 부재 사이 소로를 조립하는 방식은 첫째 소로 굽만큼 간격을 띄워 조립 후 소로와 소로 사이를 별도 부재로 막아 마감하는 방식, 둘째 아래 장혀에 소로 굽 높이만큼을 파내 후 소로를 끼운 후 위 장혀를 조립하여 상하 부재를 밀착시키는 방식, 셋째 통소로가 아닌 반쪽 쪽소로를 장혀 또는 인방재에 고정하는 방식 등이 있다.



납도리 소로수장집 | 경기 화성 김진구 가옥 | 정연상

특징 및 의의 소로수장 방식은 근대 이전에도 사례가 있었지만 근대 이후 도심형 한옥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도심의 집장사들이 근대 한옥의 의장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적극 사용하는 등 시대 사회상을 보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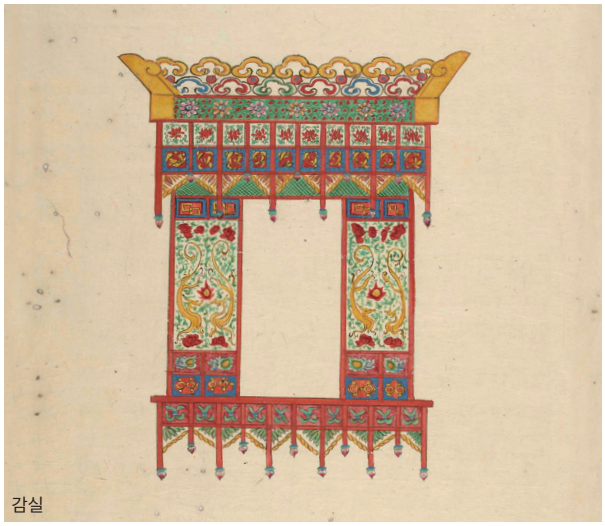
참고문헌 맞춤과 이음(정연상, 고려출판사, 2010),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김왕직, 동녘, 2007), 한국건축대계5-목조(장기인, 보성문화사, 1988), 한국의 살림집(신영훈, 열화당,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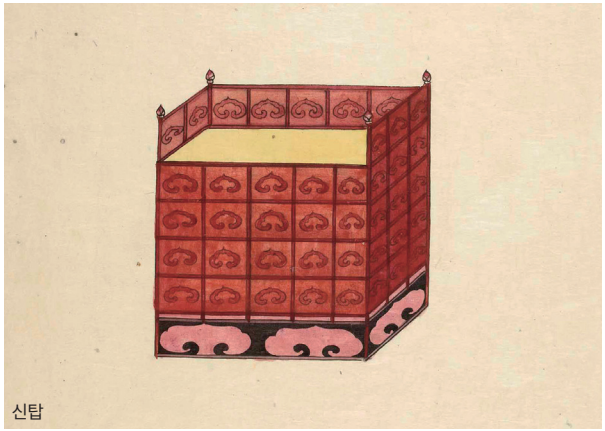
필자 정연상(鄭淵相)

소목장
小木匠

정의 나무를 다루어서 각종 기물을 만드는 장인.

내용 소목장小木匠은 나무를 깎아 사용하는 각종 일상 가구家具를 비롯하여 여轝나 연輦과 같은 탈것, 제사에 필요한 각종 제기祭器 등 무수히 많은 종류의 목제 기물을 만드는 장인을 말한다. 무기 제작에도 소목장이 동원되었다. 창병목槍柄木이나 조총鳥銃의 개머리판을 소목장이 만들었다.


감실


신탑

소목장 | 현사궁별묘영건도감의궤 | 1824 | 국립중앙박물관

대목장들이 만드는 건축물의 뼈대는 기둥을 제외하면 사람 손으로 쉽게 만져 볼 수 없는 위치에 있다. 고려 말기 주심포 건축은 매우 정교하게 목부재를 가공한 반면에 대부분의 조선시대 건축은 투박하게 목부재를 가공하였다. 각 부재의 마감 처리가 투박하다 하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어 쉽게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 문제되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이 직접 손으로 쓰다듬어 만질 수 있는 가구나 제기는 마감 처리가 매우 정교해야 한다. 나무판이 울퉁불퉁하게 마감되었거나 흠집이 있다면 곧바로 불량품 판정을 받는다. 이런 이유로 소목장은 대목장에 비해 훨씬 다양한 연장을 사용하였다. 나무판의 마감 정도를 어떻게 할지, 외사나 쌍사 같은 장식을 첨가할지 여부에 따라 다양한 대패를 사용하였다. 또한 건축물은 홍수나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 외에 강한 외부 충격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 하지만 소목장이 만드는 기물은 항상 외부 충격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들고 다니다가 떨어뜨리기도 하고 다른 기물과 부딪치기도 한다. 따라서 기물을 만드는 나무판끼리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맞춤이 필요하다. 대목장의 맞춤이 단순한 데 비해 소목장의 맞춤은 매우 다양하면서 치밀한 이유이기도 하다.

대목장과 소목장은 다루는 나무에도 큰 차이가 있다. 대목장은 대부분 소나무를 다뤄 건물을 짓는다. 기둥재로 느티나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소나무를 쓴다. 반면에 소목장은 소나무를 선호하지 않는다. 가장 널리 사용한 목재는 백자목栢子木(잣나무)과 단목椴木(가목椵木, 피나무)이다. 백자목으로 만든 백자판은 잣나무 판자를 말하며, 단목으로 만든 단판(또는 가판)은 피나무 판자를 말한다. 최상급의 재료는 백자판이고, 다음으로 단판이었다. 옛 문헌에서는 당연히 백자판을 사용해야 하지만 여러 정황상 백자판 대신 단판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진종효순후가례도감의궤眞宗孝純后嘉禮都監儀軌』(1727)에서는 의복대함衣服大函, 소소함小小函, 세수소함洗手小函, 속백중함束帛中函을 백자판 대신 단판으로 만들었다고 기록하였다. 또 백자판과 단판 대신 송판을 사용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대부분 백자판이나 단판을 구하기 어려웠다. 일례로 1648년에 인조仁祖와 장렬왕후莊烈王后의 가례가 있었다. 크고 작은 함 열한 개를 만드는데 단판이 없어서 송판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하지만 일을 맡은 소목장이 송판은 나무 성질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백자판을 사용하자는 의견에 따라 백자판으로 만든 일이 있었다.

건물을 짓는 일에도 많은 수의 소목장이 동원되었다. 이들은 건물 내부에 비치할 기물을 제작하는 일에 동원되었다. 당가唐家를 비롯하여 앉는 의자의 일종인 좌탑座榻, 신주를 봉안하는 감실龕室, 천장이나 당가에 설치하는 부룡浮龍, 현판懸板 등 소목장이 제작하는 기물은 매우 다양하였다. 이런 시설들도 백자판이나 단판으로 만들었다. 기물 외 건축물에 꼭 필요한 창호와 난간도 소목장이 제작하였다. 1647년(인조 25)에는 동궐의 동궁인 저승전儲承殿을 짓는 공사가 있었다. 저

승전 공사는 다른 건축공사와 다르게 특별히 세 살소(외소겸세전소현판소外所兼細箭所懸板所)를 두었다. 주로 저승전과 행각에 사용할 창호를 전문으로 제작하였다. 의궤에는 세살목수[細箭木手]라는 장인 명칭이 기록되었는데 소목장 대신 세살목수라고 기록한 경우는 이것이 유일하다.

특징 및 의의 옛 문헌에서 건축물의 뼈대를 만드는 장인을 '목수木手'라고 지칭하였다면 건축물보다 작은 크기의 물건을 만드는 목수는 따로 '소목장'이라고 불렀다. 집을 짓는 건축일이 드물어 목수들은 평소 다른 일과 병행하면서 살았다. 하지만 소목장의 일은 끊임없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각 아문에 일정 수의 소목장이 소속되어 있었지만 소목장은 언제나 숫자가 부족하였다. 가례나 국장같이 국가에 큰 의식이 치러질 때면 항상 전국의 소목장을 찾아 나서야만 하였다.

참고문헌 건축장인의 땀과 꿈(국립민속박물관, 1999), 이제 이 조선톱에도 녹이 슬었네(배희한 구술, 이상룡 편, 뿌리깊은나무, 1992), 조선후기 장인의 담당 공종에 관한 연구(이연노,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25-8, 대한건축학회, 2009).

필자 이연노(李演魯)

소파

정의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이 앉도록 제작된,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푹신한 의자.

개관 국내에 소파가 유입된 것은 한국 최초의 서양식 주택이 19세기 말에 건축되고 평좌식 온돌 한식 주택이 입식의 서양식 주택으로 개조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서양식 건축이 주거 생활에 영향을 미치면서 1900년대부터 절충식 상가 건물들이 서울 종로와 남대문 등 일대에 건축되면서 다른 한식 주택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광복 이후 상류층에서는 소파가 배치된 서구식 응접실과 입식 생활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내용 소파란 용어는 17세기경에 출현한 것으로 본다. 현재 형태의 소파는 프랑스에서 17세기 말에 비롯되어 1830년경 소파에 천, 천연가죽, 인조가죽 등의 덮개를 씌우는 형태가 등장하면서 구조 및 디자인이 발전하였다. 오늘날 가정이나 사무실 등 우리 일상생활에서 소파는 필수 가구이다. 크게 가정용과 사무실용으로 나뉠 수 있는 소파는 다양한 크기 및 새로운 디자인으로 유행에 따르는 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소파는 네 개의 다리와 좌판, 등받이, 팔걸이로 구성되어 두 사람 이상이 앉을 수 있는 의자로 정의된다. 그러나 오늘날 국내에서 소파는 1인용, 2인용, 3인용 등으로 생산된다. 실내 구조나 크기에 따라 혼합하여 一자형, ㄱ자형, ㄴ자형, ㄷ자형 등의 다양한 배치를 할 수 있다. 대체로 소파는 내장재를 넣고 합성섬유로 씌운 다음 천, 천연가죽, 인조가죽 등으로 외부를 마감하여 완성한다. 내장재는 주로 거위털, 오리털, 스펀지, 라텍스, 인공 솜 등이다. 이러한 소파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는 팔걸이·등받이·좌판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회의 등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국내의 소파는 디자인에서나 재료에서 웰빙 시대에 맞추어 다양하게 나타난다. 현재 증가하고 있는 1인 또는 2인 생활을 위한 1인용 안락의자, 2인용 형태의 소규모 소파에서 모듈형 소파가 있다. 같은 형태를 반복하거나 배치를 다양하게 함으로써 크기나 디자인을 다르게 배치할 수 있는 모듈형 소파는 이동성이 좋고 가변성이 많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라운지 등지에서도 다양한 중복 배치에 따라 효율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생활 문화를 반영하는 온돌 문화를 적용한 온돌 소파는 소파 바닥을 따뜻하게 함으로써 실버세대를 겨냥한 기능성 소파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능성 소파는 바닥의 온도 조절이 자유롭다. 대리석·오석 등 다양한 천연 돌과 대나무 숯, 황토 흙 등으로 개발한 보드판을 적용하여 웰빙·로하스·힐링 시대를 겨냥한 한국 전통 생활 문화로부터 개발된 친환경 소파 겸용 온돌, 침대 겸용 소파로 우리 거실을 차지하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



카우치 소파 | 에넥스

특징 및 의의 한국은 온돌 문화의 평좌식 전통 생활에서 입식 주거로 바뀌면서 소파, 의자, 침대 등이 서구에서 유입되었다. 19세기 근대화의 사회상은 우리 생활에 입식 문화 영향으로 침실에서는 침대 사용, 응접실(현재의 거실)에서는 소파 사용, 부엌은 주방으로 불리면서 입식으로 바뀌어 식탁 사용이 일반화 되었다. 특히 1958년의 아파트 출현은 본격 입식 생활을 예고하면서 거실에서 손님을 맞거나 가족이 모여 소파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면서 텔레비전을 보는 생활 중심 역할을 하면서 발전하였다.

참고문헌 1인 가구를 위한 소파 베드개발에 관한 연구(김상권, 한국가구학회지 27-4, 한국가구학회, 2016), 가구사전(문선옥, 경상대학교출판부, 2014), 건축·인테리어 용어사전(허동국, 건축세계, 2001), 근대이후에 한국 가구의 양식 변천에 관한 연구(신영식,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목가구(국립민속박물관, 2004), 실용가구용어사전(문선옥, 경상대학교출판부, 2014), 한국 근대 가구에 관한 연구(강혜영,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필자 문선옥(文善玉)

손 없는 날

정의 날짜에 따라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니면서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사람을 해코지한다는 귀신인 '손'이 없는 길일.

개관 '손'은 음력 날짜에 따라 동서남북 네 곳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사람의 일을 방해하고 사람을 해코지한다는 악귀나 악신을 뜻한다. 예부터 '손 없는 날'이란 귀신이 없는 날이란 의미로, 악귀나 악신이 돌아다니지 않아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길한 날이다. 따라서 이날에는 무슨 일을 해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 하여 이사·집수리·개업·혼인 날로 잡는 등 중요 행사를 하는 날로 여겨 왔다.

내용 현재 민간에서 이사, 집수리, 개업, 혼인 등 중요한 행사를 할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바로 '손'이다. 우리 민속에서 '손'은 날짜에 따라 동서남북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해코지하는 귀신으로, '손님'을 줄여 부른 것이다. 이와 달리 『주역周易』의 팔괘八卦 중 다섯 번째 괘인 손괘(☴)에서 유래하였다는 해석도 있다. 손괘는 바람[風]과 출입出入을 상징한다.

예부터 우리 민간 풍속에서 이사를 한다거나 혼례를 치르거나 먼 길을 떠나는 등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손 없는 날'이라 하여 좋은 날을 골라서 해 왔다. 반면에 '손 있는 날'은 악귀나 악신들이 그 해당 날짜와 방위로 옮겨 다니며 인간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훼방을 놓는다고 믿어 이날에 중요한 행사를 치르거나 이동하는 것을 꺼린다. '손 있는 날'에 집을 수리한다거나 이사를 하거나 멀리 길을 떠나면 손실을 보든가 병이 나는 등 큰 해를 당한다고 믿었다.

'손 없는 날'을 가리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음력으로 날짜 끝수에 1이나 2가 들어가는 날은 동쪽, 3이나 4가 들어가는 날은 남쪽, 5나 6이 들어가는 날은 서쪽, 7이나 8이 들어가는 날은 북쪽에 '손'이 있으므로 그 방향에서 악귀나 악신이 활동하는 날로 여겨 이날을 피하여 중요한 행사 날을 고르는 데 활용한다. 마지막 9와 0이 들어가는 날은 '손'이 하늘에 올라가 있어서 어떤 방위에도 '손'이 없으므로 이날도 '손 없는 날'이라고 한다. 이렇게 '손'은 10일 간격으로 돌아다닌다고 한다.

즉 '손 없는 날'은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행사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하여 '손 있는 날'을 제외한 날과 어느 방향에도 악귀나 악신이 활동하지 않는 음

력으로 끝수가 9 또는 0일인 9일과 10일, 19일과 20일, 29일과 30일이 해당된다.

- 동쪽에 손 있는 날: 1, 2, 11, 12, 21, 22일
- 서쪽에 손 있는 날: 5, 6, 15, 16, 25, 26일
- 남쪽에 손 있는 날: 3, 4, 13, 14, 23, 24일
- 북쪽에 손 있는 날: 7, 8, 17, 18, 27, 28일
- 손 없는 날: 행사하고자 하는 방향에 '손 있는 날'을 제외한 날. 즉 9, 10, 19, 20, 29, 30일.

복잡하게 택일을 하지 않고도 '손 없는 날'이라 하여 이날 산소를 돌보거나 묏자리 고치기, 이사·집수리 같은 일을 한다. 또 이날 장을 담그면 맛이 좋다고 하여 한 해 동안 먹을 장을 담그기도 한다. 정혼 후 신랑 집에서 신부집으로 사주단자를 보낼 때도 일진日辰과 방위를 보아 '손 없는 날'을 골라서 보냈다. '손 있는 날이나 방위'에 이사, 집수리, 혼인, 개업 등을 했다가는 큰 재앙을 당한다고 사람들은 믿어 왔다.

경상북도 칠곡 매원리에 거주하는 김정환 씨는 집에 못을 치고 담을 쌓고 집수리를 할 때도 '손 없는 날'에 대장군방을 피해서 하며, 지붕(이엉·기와) 올리는 날도 '손 없는 날'에 했다고 한다. '손 없는 날'에 해야만 뒤탈이 없고 집안에 재수가 좋고 가족 간에 화목하다고 한다.

예천 통명동 골마을에서는 음력 2월에 '손 없는 날'을 가려서 영등할마이(영등할머니)에게 빈다. 경상남도 창원 의창구 북면 마산마을에서는 정월 '손 없는 날'이나 말날에 주로 장을 담근다. 성산구 삼정자동 외리마을에서는 정월 음력 9일이나 10일 '손 없는 날'을 택하여 장을 담그고 메주도 9월 '손 없는 날'에 끓인다.

전라남도 영암 장암리 남평문씨 집안은 음력 9월 9일인 중양절 또는 중구 이날을 '손 없는 날'이라 하여 6·25전쟁 때 죽은 집안사람들의 제사를 지낸다. 충청남도 서산 지역에서는 안택을 주로 정월 대보름 안으로 날을 정하여 지낸다. 특히 '손 없는 날'에 해야 좋다고 한다.

한식寒食이나 청명淸明은 식물이 잘 자라는 시기에 다 무슨 일을 해도 탈이 없는 날 또는 '손 없는 날'이라고 여겨서 이날 묘를 손질하고 떼(잔디)를 다시 입히기도 한다. 경기도 광명 지역에서는 한식날을 '손 없는 날', '귀신이 꼼짝 않는 날'로 여겨 산소에 손을 대도 탈이 없는 날이기에 산소에 개사초改莎草(잔디를 새로 입힘)를 하거나 비석 또는 상석을 세우거나 이장移葬을 하기도 하였다. 강원도 강릉에서도 한식날을 '손 없는 날', '무해無害의 날'이라 하거나 '공마일空魔日'이라 하여 귀신이 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평소에 꺼리는 일을 해도 탈이 없다면서 산소를 손질하거나 화장실을 고치기도 한다.

'손 없는 날' 중에서도 음력 2월 9일은 '무방수날'이라 해서 어떤 일을 해도 해害가 없는 날로 여긴다. 민간에서는 음력 2월 초하루에서 초여드레까지는 이틀씩 동서남북으로 '손[害]'(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초아흐레에야 비로소 '손'이 하늘에 올라가므로 무방수날에는 무슨 일을 하여도 탈이 없기 때문에 꺼리지 않아도 된다고 여겨 왔다.

무방수날에는 "성주단지를 뒤집어 놓아도 집안에 아무런 탈이 생기지 않는다." "시신을 거꾸로 세워도



달력 | 국립민속박물관

탈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해가 없는 날로 여겼다. 또한 만물이 소생하는 날이어서 이들과 관련된 행위가 이루어진다. 전국적으로 그 내용은 서로 다르지만 대체로 나무를 심거나 귀신이 하늘로 올라간 날, 귀신이 와도 꼼짝 못하는 날로 여겨 평소 꺼린 일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날 변소를 옮기거나 새로 짓고 집을 고치며, 평소 '손'이 있는 곳을 가려 함부로 치지 못한 못을 치고 가재도구를 정비한다. 이사나 사초莎草 또는 이장移葬 같은 평소 조심하던 일을 마음놓고 할 수 있다.

중국 명나라의 임소주林紹周가 편찬하고 조선시대 관상감에서 증보하여 펴낸 『천기대요天機大要』에서는 속칭 '손'을 '태백살太白殺'이라 하고 혼례 때 초례상醮禮床을 차리는 방향을 피하는 정도로만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17세기 초 『현풍곽씨언간』에서 말馬을 보내는 날로 '손 없고 조용한 날'을 꼽는 것을 볼 때 오래전부터 민간에서 행사 택일을 할 때 '손 없는 날'을 두루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풍속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손 없는 날'에 이사, 혼인, 개업, 집수리, 장 담그기 등 여러 가지 일을 해도 좋다고 확장해서 인식하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손 없는 날'이 순서대로 항상 반복되므로 누구나 책력冊曆 없이도 쉽게 알 수 있어 민간에서 중요한 행사일을 잡는데 널리 쓰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징 및 의의 '손 없는 날'의 경우처럼 사람들은 복잡한 택일 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이를 단순화·규칙화하여 활용하기 쉽도록 바꾸는 경향이 있다. 이는 끊임없는 신랄한 비판에도 택일 풍속이 오랫동안 민간에서 전승될 수 있게 된 큰 원동력이다. 이로 미루어볼 때 '손 없는 날'을 가리는 풍속은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고 '손 없는 날'이 웬만한 길일을 대체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한국민속신앙사전-가정신앙(국립민속박물관, 2011), 한국민속의 세계2(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한국세시풍속1(김명자, 민속원, 2005), 한국 택일풍속의 전승양상과 특징(김만태, 정신문화연구114,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현풍곽씨언간주해(백두현, 태학사, 2003), 현지조사자료(김정환, 남, 1925년생, 경북 칠곡 왜관읍, 2007.6.9).

필자 김만태(金萬泰)

솟을대문

정의 주변 담장 내지는 행랑채의 지붕보다 높게 솟아오르게 지은 대문.

내용 '솟을대문'은 대문 종류 중 하나로 주변의 담장 혹은 연결된 행랑채보다 높게 지은 문이다. 문의 형태에서 비롯된 명칭이다. 반면 주변의 담장 혹은 행랑채와 용마루 높이를 동일하게 이어서 설치한 문은 평대문이다.

행랑채에 솟을대문을 설치하는 방식은 양반가 등 규모 있는 살림집에서 볼 수 있다. 행랑채가 집의 경계 가장 바깥에 있는 외행랑의 경우 행랑채의 외벽이 담장 역할을 하게 된다. 이때 행랑채의 한 칸 정도에 대문을 낸다. 이 대문의 높이를 행랑채 높이보다 한 단 높게 설치한 문이 솟을대문이다. 솟을대문 양옆으로 담장이 이어진 경우는 담장 높이보다 솟을대문의 높이가 껑충하게 한 단 높다.

대문을 총 세 칸으로 구성하고 가운데 칸의 문은 양옆 칸보다 높게 하는 사례도 다수 볼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솟을삼문'이라고 한다. 솟을삼문은 사대부집에서는 드물게 볼 수 있으나 궁궐, 관아, 서원, 향교, 사묘 등에는 설치하는 사례가 많다. 가운데 칸에는 두 짝 판문을 달고 양옆 칸은 높이를 한 단 낮춰 외짝 판문을 설치하거나 실을 꾸미는 경우가 있다.

솟을대문의 등장은 거주자 내지는 주 출입인의 이동수단과 관련이 있다. 종2품 이상의 관리가 타던 수레를 '초헌軺軒'이라고 한다. 이 초헌은 초거軺車, 헌초軒軺, 명거命車, 목마木馬라고도 한다. 수레 형태로 바퀴는 하나이고 가운데에는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다. 여섯에서 아홉 명가량이 한 조를 이루어 끌었다. 초헌이 집 앞마당까지 들어가려면 대문이 넓고 높아 한다. 바퀴가 지나가려면 문지방에 홈을 내서 지나가거나 문지방이 없어야 하였다. 따라서 솟을대문은 문지방이 없거나 문지방이 있는 경우 초헌의 바퀴가 지나갈 수 있는 홈이 있다. 문지방 모양이 오목한[凹] 형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솟을대문에 다락을 만들어 가마와


전남 보성 이진래 고택


충북 보은 우당 고택

솟을대문 | 서헌강

같은 탈것을 올려 두기도 하였다. 솟을대문 문짝은 안여닫이가 대부분이다.

특징 및 의의 솟을대문이 있는 가옥은 고위관료가 거주하는 곳이라는 상징과 다름없었다. 그러나 조선 말 사실상 신분제가 무의미해지면서 솟을대문을 설치하는 신분이 늘어나게 된다. 중인 가옥에서도 솟을대문을 짓기 시작하였다. 솟을대문은 마치 고위층의 특권과도 같은 상징이다. 이렇듯 솟을대문을 짓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오히려 솟을대문을 설치하던 가옥들은 평대문으로 고쳐 짓기도 하였다. 평대문은 다양한 신분의 주택에서 널리 쓰인 대문이었다. 서민의 초가와 기와집부터 양반가까지 다양하였다.

당초 솟을대문은 초헌이라는 이동수단의 출입을 위한 건축물이었다. 즉 기능 변화로 만들어진 건축물이었으나 점차 건축물 자체 기능보다는 권위의 상징이 되었다. 이후 솟을대문을 짓는 계층이 넓어지자 역설적으로 본래 솟을대문이던 집들은 평대문으로 고쳤다. 이는 조선시대 건축물이 단순히 기능 그 이상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실질적 사례 중 하나이다.

솟을삼문은 격식을 중시하는 유교와 관련 있는 건축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솟을삼문은 사찰에서는 거의 볼 수 없다. 해남 대흥사 내 표충사에 솟을삼문이 있다. 사찰에는 드문 유교 형식의 사당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김왕직, 동녘, 2007), 한국건축개념사전(한국건축개념사전기획위원회, 동녘, 2013), 한국건축답사수첩(한국건축역사학회, 동녘, 2006), 한국건축대계1-창호(장기인, 보성각, 2000), 한국건축대계4-신편 한국건축사전(장기인, 보성각, 2014), 한국 미의 재발견(편집부, 솔, 2008), 한국의 문과 창호(주남철, 대원사, 200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stdict.korean.go.kr), 국립민속박물관(nfm.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조현정(趙賢貞)

송곳

정의 뾰족한 쇠 날로 목재, 종이, 천, 가죽, 쇠 등에 구멍을 뚫는 연장.

개관 송곳[錐]은 공예품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장이다. 공예품은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예술품이나 생활용품을 만드는 것이다. 목재, 금속재, 석재, 가죽재, 골각재, 종이, 짚 등 주변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료가 공예품을 만드는 소재가 된다. 공예품은 단일 소재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재료를 접합하여 만들기도 한다. 두 재료를 접합하기 위하여 구멍을 뚫어 끈으로 엮거나 못을 박기도 한다. 송곳은 이처럼 구멍을 뚫을 때 요긴하게 사용하는 연장이다. 그러므로 송곳은 공예품을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연장이다.

내용 송곳은 쇠로 된 날과 나무로 된 자루(손잡이)로 만든다. 날은 쓰임새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이 있다. 가장 간단한 송곳은 날의 한쪽 끝을 뾰족하게 만들고 한쪽은 자루에 박을 수 있도록 슴베를 만들어서 자루에 끼워 사용한다. 대개 사람 손으로 비비거나 돌려서



송곳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① 비비송곳 | 길이16 ② 돌대송곳 | 길이49 너비40
③ 타래송곳 | 길이51 ④ 중심송곳 | 길이36

구멍을 뚫으며, 어떤 것은 망치로 쳐서 뚫기도 한다. 특별히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있다. 손바닥으로 비벼서 사용하는 것을 '비비송곳' 또는 '비빔송곳'이라고 한다. 송곳은 날 모양에 따라 종류를 구분하지만 활비비라든가 돌대송곳은 보조기구를 이용하므로 사용 방법이 일반 송곳과 조금 다르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작은 송곳은 날 몸을 연철로 만들어 쓰지만 큰 송곳이나 때려서 구멍을 뚫어야 하는 송곳은 날 끝을 담금질해서 강철로 만들어 쓴다. 그러면 날 끝이 쉽게 마모되지 않아 오래 쓸 수 있다. 자루는 대부분 나무로 만들어 쓴다. 송곳 자루는 쓰임새에 따라 길게 만들거나 '丁'자 모양으로 만든다. 주먹처럼 뭉툭하게 만든 것도 있다.

송곳은 생긴 모양과 사용하는 기능을 바탕으로 이름을 붙인다. 네모송곳은 송곳날이 네모뿔 모양으로 길고, 길이는 쓰이는 곳에 따라 다양하다. 양손바닥으로 비벼서 구멍을 뚫기도 하고, 단단한 나무나 큰 구멍은 자루를 꽉 거머쥐고 좌우로 돌려 뚫기도 한다. 특히 작은 구멍을 뚫을 때도 사용한다. 세모송곳은 송곳날이 세모뿔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마찰이 비교적 적어서 깊은 구멍을 뚫을 때 사용한다. 네모송곳과 용도가 거의 비슷하다. 타래송곳은 구멍을 크게 내거나 구멍을 넓힐 때 또는 대못구멍을 내고자 할 때 사용하는 송곳이다. 길고 네모진 날을 틀어서 꼬고는 각 모서리를 쪼아 둔다. 사용할 때는 미리 조그만 구멍을 낸 다음 여기에 날 끝을 꽂아 손잡이를 비비 틀면 된다. 구멍을 넓히고자 할 때는 송곳을 앞뒤로 문지르면 쪼아진 날이 톱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 쉽게 넓힐 수 있다. '통송곳'이라고도 한다. 중심송곳은 단단한 나무 또는 대나무 등에 정확하게 구멍을 뚫는 데 사용하는 송곳이다. 송곳날이 조그맣고 넓으면서 뾰족한 세 개의 날로 되어 있고, 그중 가운데 날이 조금 길다. 뚫고자 할 때 가운데 긴 날을 그 중심에 대고 돌리면 정확히 중간에 구멍을 뚫을 수 있다. 마치 쥐의 이빨같이 생겼다 해서 '쥐이빨송곳'이라고도 한다.

활비비는 활을 이용하여 작업을 좀 더 능률적으로 하는 연장이다. 송곳을 뚫고자 하는 곳에 고정시키고 활시위를 송곳자루 중간에 한 바퀴 돌려서 앞뒤로 당겨 회전시키면 쉽게 뚫어진다. 활비비는 용도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다. 이중 자루로 하여 윗부분은 날 대가리를 고정시켜서 누르거나 바로잡게 하고, 아랫부분은 활시위를 매어 돌아가게 만들기도 한다. 긴 자루에 날을 끼워 날과 자루가 함께 돌아가게 만든 것도 있다. 활은 주로 대나무, 줄은 가죽으로 만들었다. 활을 사용하기 때문에 '활밀이' 또는 '활송곳'이라고도 한다. 돌대송곳은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좀 더 능률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한 연장이다. 긴 자루 끝에 날을 박고 자루에는 구멍 뚫린 쇠목을 끼워 가로질러 둔다. 그리고 자루 꼭대기와 쇠목의 양쪽에 끈을 매어서 쇠목을 자루 중심으로 돌려 감은 후 상하로 움직여서 돌대를 회전시켜 구멍을 뚫는다. '돌이송곳'이라고도 한다.

특징 및 의의 송곳은 소목장, 안자장, 목혜장과 같이 공예품을 만드는 장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장이다. 공예품은 여러 재료를 접합하거나 굽혀야 하기 때문에 재료에 구멍을 뚫고 실을 꿰고 못을 박아야 하는

공정이 많다. 이와 같이 공예 기본 작업에 사용하는 필수 연장이 송곳이다. 공예 작업 특성상 여러 종류의 송곳을 사용한다.

참고문헌 연장과 치목(이왕기, 건축36-4, 대한건축학회, 1992), 조선후기의 건축도구와 기술(이왕기, 한국전통과학기술학회지1-1, 한국전통과학기술학회, 1994), 한국의 건축연장 연구2(이왕기, 목원대학교논문집8, 목원대학교, 1985).

필자 이왕기(李王基)

수렛간

정의 수레를 보관하기 위하여 마당 한쪽에 따로 세운 건물 또는 바깥채에 칸을 나누어서 수레를 보관하도록 만든 공간.

개관 수레는 지게와 함께 옛 사람들이 사용하던 대표적인 운반도구 또는 교통수단이다. 따라서 수레는 몸체에 바퀴를 달아 짐을 옮기는데 사용한 짐수레와 사람이 타고 다니는 수레 등이 오래 전부터 분화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없지만 고구려 고분벽화에 수레의 모습이 다수 확인되고, 신라나 가야고분에서 수레 모양 토기가 다수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삼국시대 이전에는 수레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원전 3~2세기의 초기철기시대 무덤과 낙랑고분에서 청동 마면·재갈 등 마구와 함께 수레 난간을 장식한 청동제 입형 동기, 乙자형 동기, 권총 모양 동기, 청동제 차관, 나무 수레바퀴 모형 등이 출토되고 기원전 1세기 유적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저습지유적에서 나무 수레바퀴와 수레에 장착되는 일산 부속구가 출토된 것으로 보아 적어도 초기철기시대 이후에는 교통수단으로서의 수레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의 수레는 마구가 함께 동반되는 것으로 보아 말이 끄는 수레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수레를 어떤 곳에 보관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당시에 수레가 신분을 표상하는 매우 중요한 기물이었으므로 고구려 벽화고분에 보이는 것과 같은 별도의 수렛간[車間]에 귀중하게 보관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수레를 보관하는 수렛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고구려의 안악3호분 벽화이다. 황해도 안악군에 있는 안악3호분은 357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내부 벽에는 다양한 주제의 벽화가 그려져 있다. 그 가운데 하나인 부엌과 수렛간 벽화는 사실 표현으로 유명하다. 앞방 동쪽에 딸려 있는 작은 수렛간에 독차犢車라고 적힌 작은 수레가 그려져 있다. 이는 사람이 타는 수레로, 2대가 사실 화법으로 묘사되어 있다. 수렛간에 잘 보관되어 있는 수레의 모습을 통하여 고구려의 최고 지배층은 여러 대의 수레를 소유하였으며, 수레를 매우 귀중한 물품으로 여겨 그에 맞게 수렛간도 잘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고구려 고분벽화 110여 기 가운데 18개 고분에서 40대의 수레와 네 개의 수레바퀴가 확인되어 고구려 지배층은 수레를 타고 다녔으며, 그에 따라 집안에는 수레를 보관한 수렛간도 마련되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안악3호분과 덕흥리 벽화고분 등의 행렬도에는 무덤 주인공이 탄 수레를 소가 끄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어 소가 끄는 수레라 하여 반드시 짐수레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후대로 갈수록 사람이 타는 수레는 말 전용으로, 짐수레는 힘이 센 소 전용으로 분화되어 갔다.

백제의 경우도 충청남도 부여 궁남지 발굴조사에서 나무 수레바퀴가 출토되어 지배층 중심으로 수레가 널리 사용되었음을 보여 준다. 또 백제의 수도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사비도성에 일정 규모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일부는 포장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도 백제 지배층 중심으로 수레가 널리 이용되었고, 수렛간도 갖추어져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경기도 오산 가수동 유적 등에서도 수레 사용의 흔적이 확인되고 있다.

신라·가야에서는 주로 고분 부장품으로 다수의 수레 모양 토기가 출토되고, 신라고분에서는 실제 소가 끄는 모습으로 표현된 짐수레도 다수 출토된 것으로 보아 사람이 타는 수레와 짐수레 모두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에는 수레를 담당하는 승부乘府라는 관청이 있었으며, 한 번에 2,000대의 수레를 동



수렛간 | 안악3호분 고분벽화 | 고구려

원한 기록도 찾아볼 수 있다. 수레가 다녔기 때문에 자연히 도로도 발달하였다. 신라 수도 금성은 방리제에 의하여 수레가 다닐 수 있도록 넓은 길을 만들어 놓은 철저한 계획도시였다. 이를 통하여 지배층과 귀족들은 수레를 보관하기 위한 수렛간도 집집이 갖추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역사에서 수레 활용이 가장 활발한 시기는 삼국시대였다. 오히려 1,000년이 지난 조선시대에 수레 사용이 크게 줄어든 착각마저 일으킬 정도로 삼국시대의 수레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었으며, 그에 따라 수렛간은 필수였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신라의 경우 많은 수레를 통제하기 위하여 『삼국사기』 거기조車騎條에서 신분에 따라 그 꾸밈의 사치스러움을 제약하는 법규를 정했을 정도이다. 따라서 집 형편에 따라 여러 채의 수레를 보유하기도 하였을 것이므로 이를 보관하기 위한 수렛간을 설치해야만 하였다. 수렛간의 모습은 통일신라·고려·조선에서도 이와 마찬가지였으나 임진왜란 이후 차츰 퇴보하여 수레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적어졌고, 짐을 실어 나르는 수레만이 제작되게 되었다.

따라서 짐수레를 보관하기 위한 헛간이 지어졌다. 짐수렛간은 사람이 타던 수레를 보관하던 수렛간에 비할 수 없는 소박한 규모이다.

내용 조선시대에서 근대 시기에 이르기까지도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산골짜기나 산기슭에 자리 잡아 개울과 넓은 들이 내려다보이는 곳을 선호하여 살았다. 지방에 지어진 집은 농사짓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사는 소박한 농가였다. 안채·헛간채·측간 등을 갖추고 있었으며, 유교 관습에 맞추어 대문채·중문채·사랑채 등을 구비하려고 애를 썼다. 산골짜기의 집은 대개 목재의 귀틀집이었다. 목재 귀틀집은 많은 눈이 지붕 위에 쌓여도 그 하중을 지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농가의 지붕은 대개 초가이며, 안채·헛간·잿간·측간을 설치하였다. 곳간이나 뒤주, 외양간·돼지우리·마굿간·수렛간·일간 등이 필요에 따라 추가되었다. 이때 수렛간에 보관된 수레는 소가 끄는 짐수레가 대부분이었지만 경제적으로 수레를 갖추지 못한 집도 많았다. 따라서 수레와 수렛간을 갖춘 집은 마을에서도 농지가 많아 실어나를 농산물이 많은 농가였다. 요즈음 트럭이나 트랙터로 농사짓는 농가와 비교되는 것으로, 수레와 수렛간은 농사의 다과 및 경제력의 척도가 되기도 하였다. 짐수레는 달구지라고도 한다. 짐수레는 대개 힘이 센 소가 끌기 때문에 수레의 동력에 해당하는 소가 묵는 외양간 옆에 수렛간을 두게 된다. 또 외양간과 수렛간에 접해서는 외양간에 쌓인 두엄을 쳐내고, 헛간이나 측간의 거름을 실어 내기 편하도록 수렛간은 대개 대문 옆의 안채에 부속시켜 만들게 된다.

전통 농가의 수렛간은 수레 전용 공간에서 점차 수레와 관련된 잡다한 물품도 함께 보관하는 곳으로 변하여 가서 여러 가지 농가 물품을 보관하는 헛간이나 창고와 큰 차이가 없는 공간으로 변화되었다. 수렛간 위에도 나무를 걸쳐 시렁을 만들어서 수레나 소, 외양간과 관련된 잡다한 농가 물품을 보관하는 곳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특징 및 의의 이와 같이 수레는 교통수단과 짐을 나르기 위한 운반수단으로 제작되어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그에 따라 갖춘 수렛간 역시 수레 소유와 함께 신분과 재력을 상징하는 척도가 되기도 하였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고구려 고분벽화에 묘사된 수레바퀴신이다. 전통 농가에서는 수렛간의 존재는 농지 소유의 다과와 경제력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점차 교통과 물류 수단이 발달함에 따라 수렛간은 그 본래의 기능을 잃고 농가의

잡다한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로 변용되어 갔다. 따라서 수레 및 수렛간의 변화 과정은 전통 농가 성격의 변화 과정과 궤를 함께하여 소장消長을 거듭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經國大典, 高麗史, 三國史記, 三國遺事, 세상을 바꾼 수레(김용만, 다른, 2010), 안악 제3호분 발굴보고(황욱·리동성, 유적발굴보고3,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58).

필자 김길식(金吉植)

수맥
水脈

정의 땅속 지층을 따라 흐르는 지하수의 흐름.

내용 고전풍수에서 수맥水脈이란 지표수를 의미한다. 현재의 수맥이라는 개념은 지하수를 의미하여 서양에서 형성된 것이다. 즉 기원전 이집트의 파라오였던 람세스가 버드나무 가지로 사막에서 수맥을 찾아내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주로 지하수를 찾기 위한 것이었다. 비나 눈 등에 의해 형성된 지표수의 상당량은 땅 밑으로 흘러가 지하수를 이루게 된다. 지하의 대수층帶水層은 통수성이 좋고 충분한 물을 보유하여 많은 지하수를 산출하는 지층이다. 수맥전문가들은 이 지하수가 흐르는 바로 위의 지표에서 강력한 힘이 작용하여 이것이 건물이나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한국에서의 수맥은 가톨릭 사제인 임응승 신부(1923~2015)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1937년 동성상업학교 재학 당시 교장 신인식 신부에게 수맥 찾는 법을 배워 전국 각지의 온천수와 지하수를 탐사하는 등 전국으로 전파시켰다.

수맥의 기본 원리는 인체의 피가 계속 흐르는 것처럼 수맥도 혈맥과 같이 순환작용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 수맥은 원래 풍수와는 관련성이 없었다. 즉 풍수에서의 수맥은 지표수를 의미하는 것이지 지하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현대의 일부 풍수가들이나 수맥전문가들은 수맥이 지나가는 자리에서는 묘터도 악영향을 받고, 거주하는 인간들도 병들게 하거나 인간들에게 수면장애 등을 일으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 일부 풍수에서는 수맥은 수맥파를 일으키고 이 수맥파가 인간이나 건물에 영향을 미쳐 인체상의 위해나 건물의 부실 원인이 된다고 한다. 이는 수맥이 지나가는 자리는 물줄기를 공급받기 위한 자체 운동에 일어나고 있다는 논리에 의거한 것이다. 이에 대해 현대 수맥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즉 동물실험 결과 번식능력이 감소하였다든가 암환자의 잠자리를 조사한 결과 수맥파 지점이었다든가 수맥 위에서는 혈압과 맥박이 상승한다는 등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나 학술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니다.

특징 및 의의 수맥을 탐사하는 방법은 갈라진 나뭇가지(특히 수양버드나무 가지)를 양손으로 붙잡고 가다 수맥이 있는 곳에서는 밑으로 휘어지는 것을 통한 나뭇가지 사용법, 시계추 모양으로 흔들리는 물체를 이용하여 수맥이 지나간 자리에서는 움직이는 것을 이용하는 추 사용법, L자로 된 두 개의 금속막대기를 들고 수맥 자리를 지나면 막대기가 교차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L-로드법 등이 있다. 간접적으로는 건물의 벽이 상하로 갈라지거나 논둑이 꺼지는 등의 현상이 나타날 경우 수맥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한다. 수맥전문가들은 수맥을 차단하는 방법도 소개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동판銅版을 까는 방법이며, 간편하게는 알루미늄 포일을 촘촘하게 까는 방법이 있다.

수맥이라는 개념은 중국과 한국의 풍수고전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고전풍수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 수맥 전문가들의 다양한 주장에 일부 풍수가들이 이 논리를 수용함으로써 풍수의 한 유형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지만, 수맥을 풍수 논리로 인정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검증과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생활수맥 건강수맥(정판성, 동학사, 1996), 수맥과 풍수(임응승, 새남, 1986), 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함인가(최창조, 서해문집, 1990), 지하수를 찾는 비법과 풍수(최범수, 지평, 1994).

필자 천인호(千寅鎬)

시렁

정의 방 벽이나 대청, 처마 등에 나무들을 달아매어 물건을 가지런히 얹어 놓는 수납공간.

개관 시렁은 방 안 벽 윗부분과 대청, 앞 퇴 처마 아래에 달아매어 놓은 일종의 수납공간이다. 가족과 세간살이 등이 늘면서 가족들은 자신들의 활동 공간 유지와 물건 보관 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방과 대청, 처마 아래 등에 시렁을 설치하면서 유효공간을 적절하게 만들었다. 이곳에 세간살이를 보관하면서 필요에 따라 그것들을 쉽게 꺼내 사용하였다.

내용 옛날 방은 어른이 앉아서 두 팔을 벌리면 벽이 닿을 정도, 무릎이 맞닿을 정도의 크기였다. 대가족 제도 아래에서는 여러 명이 한 집에 모여 살았다. 방 크기는 작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가족이 늘면서 세간살이도 함께 늘기 때문에 가족들은 기존의 공간에서 생활하기에 불편을 느끼게 되었다. 세간살이 등이 하나둘 늘면 한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방의 넓이가 작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개개인에게 할당된 사용면적이 작아짐을 의미한다. 사용 면적 감소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들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였다. 게다가 가족은 방의 수량도 더 필요로 하였다.

작은 방 안에 필요한 가구나 물건을 배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가족들은 좁은 공간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방도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물건 등을 쌓아 두거나 여유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우선 방도였다. 기존의 방은 벽과 천장 주변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와 크기였다. 방의 크기를 좁히지 않고 가구와 물건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였다. 이때 생겨난 것이 벽장과 시렁이다.

벽장은 방 안에서 부엌 쪽으로 내어 마련하였고, 시렁은 사람 눈높이 정도로 해서 벽에 배치하였다. 활동하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벽을 활용해서 수납공간을 마련하였다. 이곳은 가구나 물건을 하나라도 더 보관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매우 높은 공간이었다. 시렁을 높은 공간에 배치하였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커 가면서 시렁에 머리를 부대끼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 벽체는 흙벽 또는 돌로 쌓았고, 벽체 상부에 시렁을 매어 좁은 터의 작은 집에서 쓸모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시렁은 벽 윗부분에 달아매어 놓은 일종의 수납공간이다. 대체로 시렁은 대나무나 통나무 두세 개를 가로로 길게 늘여서 벽에 붙여 놓았다. 이곳에 이불, 옷, 가방 등을 올려놓았다.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의 여유공간에도 시렁을 설치해서 가구들을 보관하기도 하였다. 안채 앞 퇴와 처마 아래 등에 시렁을 매달아서 대바구니 등 가벼운 세간살이를 보관하며 필요시 쉽게 꺼내 쓸 수 있도록 하였다. 대청의 대들보와 대들보 사이에 몇 개의 긴 네모 막대를 연결한 후 상 등을 얹어 놓은 시렁도 찾아볼 수 있다.

모양이나 쓰임새에서 시렁과 유사한 선반이 있다.


안방 | 경북 안동 하회 북촌댁


대청 | 전남 나주 남파 고택

시렁 | 서헌강

선반은 받침이 판자로 되어 있어 작은 물건들을 얹어 놓을 수 있다. 그러나 시렁은 받침이 없이 단지 대나무나 통나무를 길게 늘어놓아서 작은 물건을 얹을 경우 대나무나 통나무 사이로 빠져나가 버린다. 그래서 시렁에는 부피가 상당히 큰 물건만 얹어 놓을 수 있다. 시렁과 선반은 유사한 것 같지만 사용된 받침이 달라서 모양과 쓰임새가 다르다.

현대의 기술 발달과 가정경제 여유 등으로 주거공간 확대는 싱크대와 서랍장 등 여러 방식으로 수납장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왔다. 예전과 확연히 다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시렁은 집 안팎의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작은 집의 좁은 공간에서 유효공간을 넓히는 장치였다. 이뿐만 아니라 이것은 공간 확대를 통하여 평소에 느낀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려 한 흔적이다. 가족들은 기존의 방과 대청, 앞 퇴를 굳이 넓히지 않고서도 공간을 적절하고 여유 있게 사용하였다. 시렁은 유효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효율성도 함께 향상시킨 기물의 수납공간이었다.

참고문헌 한국의 살림집(신동훈, 열화당, 1986), 한국의 주거민속지(김광언, 민음사, 1988).

필자 박종민(朴鍾珉)

식탁
食卓

정의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기 위한 목적의 탁자.

내용 현재의 부엌은 1970년대를 기점으로 아파트 건설이 대거 도입되고 입식화 생활이 본격화되면서 입식화 부엌으로 면모되고, 종래의 평좌식 밥상에서 탈피하여 식탁食卓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부엌가구로 분류되는 식탁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리 역할을 하는 두 개의 구조물 위에 직사각형의 판을 올려놓아 만든 중세시대의 가대架臺 탁자로 거슬러



안중식 | 조일통상장정체결기념 연회도 | 1883 |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올라간다. 그리고 17세기에 본격 사용되기 시작하여 현재의 식탁으로 발전된, 주로 수도원 식당에서 사용한 리펙토리refectory 탁자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발전되어 서구에서 사용된 식탁의 국내 사용은 주방으로 불리는 부엌, 화장실, 욕실이 하나인 실내 공간에 공존하는 입식 아파트 문화의 보급과 더불어 본격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50년대 출현한 아파트의 대량 공급은 입식 가구의 대량 수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좁은 주거 공간에서는 식탁 겸용 다용도 탁자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식탁과 탁자는 용도 및 높낮이에 따라 식탁의 구분은 명확하게 나타난다.

사용 목적에 따라 소파용 탁자, 침대용 탁자, 협탁과 같은 보조탁자 등은 높이가 400~450㎜ 정도인 반면에 식탁은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높이가 700~750㎜ 정도이다. 식탁은 대부분이 직사각형으로, 대개 4~6인용 기준으로 슬라이드 식이지만 접었다 폈다 하면서 크기를 넓히기도 한다. 원형의 식탁이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반면에 직사각형의 식탁은 좁은 공간에서의 활용이 효과가 더 있다. 특히 직사각형의 아일랜드 식탁은 오늘날 부엌에서 보조 역할을 하면서 메인 식탁을 대신하여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현대의 주방 형태는 독립형 주방, 식당겸용주방DK, Dining Kitchen, 거실 식당겸용주방LDK, Living Dining Kitchen, 다용도 주방 등으로 나타난다. 또 효과 높은 공간 활용을 위하여 싱크대 겸용 아일랜드 식탁을 사용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상판 재질에 따라 목재, 대리석 등의 돌, 유리, 백골에 다양한 도장 등을 한 식탁은 부엌 분위기나 크기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목재의 다양한 천연 문양을 나타내면서 자연스럽게 구불구불한 나무 형태를 살린 슬래브우드slab wood 상판의 식탁이 대중화되어 있다. 슬래브우드 식탁은 10년쯤 전부터 나타나 친환경 로하스 시대에 맞추어 다양한 국내산 및 수입 목재의 수공예로 제작되어 느티나무, 오크, 웰넛, 부빙가, 스기, 아프로모시아, 웬지, 티크, 홀스밤나무, 편백, 비치, 아카시아 등의 다양한 목리를 아름답게 나타냈다.

특징 및 의의 한국은 식사를 위한 전통 식탁으로 바닥에 앉은 높이에 적합한 소형의 개별 소반을 주로 사용하였다. 쟁반과 작은 상의 역할을 하면서 밥상으로 불리는 소반의 크기와 형태는 평좌식 생활에 따라 부엌에서 구들장을 깐 방에 불을 지피면서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던 한국의 전통 부엌을 잘 나타낸다. 이러한 부엌에서 여성이 식사를 준비하여 밥상을 들고 실외로 나와서 대청마루를 지나 방으로 밥상을 들고 다녀야 하였기 때문에 크기는 주로 소형이었다. 그리고 전통으로 장유유서長幼有序의 사회상과 대가족으로 웃어른을 존경하는 문화에 기인하여 겸상을 하지 않아 개인용 밥상, 즉 소반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음식을 담는 그릇이 도자기나 유기로 만들어져서 매우 무겁기 때문에 밥상은 커질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이러한 개별 밥상 문화를 하나의 식탁으로 가져와 실내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가족의 화목을 도모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성으로 하여금 부엌일이라는 부담감을 줄이고 편리하게 일을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남아선호男兒先好 사상에 입각하여 부엌 출입이 금기시된 전통문화로부터 남성들도 부엌을 자연스럽게 출입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문헌 가구디자인(강신우, 미진사, 2011), 가구사전(문선옥, 경상대학교출판부, 2014), 건축·인테리어 용어사전(허동국, 건축세계, 2001), 디자인사전(안그라픽스, 2000), 실용가구용어사전(문선옥, 경상대학교출판부, 2014), 한국가구의 역사(조숙경, 미진사, 2019).

필자 문선옥(文善玉)

신구간
新舊間

정의 절기상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3일 사이, 신구세관新舊歲官이 교체되는 손 없는 날을 택해 이사하는 일주일 정도의 기간.

개관 대한大寒과 입춘立春이라는 절기가 말해 주듯이 신구간은 '묵은철'과 '새철'이 교체되는 시기이다. 제주에서는 입춘을 '새철 드는 날'이라 하였다. 인간세상을 관장하는 1만 8,000여 신들이 모두 하늘로 올라가 옥황상제에게 한 해 동안 일어난 일을 보고한 뒤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고 오게 된다. 인간세상에는 신들이 없는 상황이어서 이 기간에는 이사나 집수리, 변소나 외양간 고치는 일, 나무 자르는 일 등 금기된 일을 하여도 탈이 나지 않는다고 여긴다. 신구간 기간에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이사였다. 제주도가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신구간이 곧 '이사철'로 통용되면서 '이사하는 기간'이란 개념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내용 제주도에는 무속巫俗이 완강하여 1년 내내 신의 구속을 받으며 살아온 제주인에게 세관歲官 교체로 인한 신의 부재는 숨통이 트이는 기간이었다. 신구간 동안만이라도 일상의 모든 일을 좌우하는 신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여겨 금기된 일을 이 기간에



신구간에 이사가는 장면 | 홍정표

해치웠다. 그런데 이런 풍속은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2일 사이에 신구관이 교차하는 때여서 …… 집을 짓고 매장하는 일을 임의로 해도 불리함이 없다."(大寒後五日立春前二日 乃新舊歲官交令之際 …… 起造葬埋 任意爲之 無不利, 『천기대요天機大要』)는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문헌의 2일 전과 현재 풍속의 3일 전이 다름). 이런 풍속이 전국적인 세시풍속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제주도에서만 행해졌다.

조선 후기 세시풍속을 다룬 『동국세시시』, 『경도잡지』, 『열양세시기』 등 어디에도 신구간 풍속을 언급한 바는 없다. 물론 조선시대 제주에 파견된 관리나 유배객의 기록에도 신구간이 제주도 풍속이라고 언급된 바가 없다. 이는 외부인의 눈에 드러날 정도의 풍속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신구간의 집수리, 변소 개축, 이사 등 풍속은 있었지만 이사하는 빈도나 규모가 지금과는 달리 미미한 행사였기 때문일 것이다. 신구간 풍속은 한반도 전역에서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주 고유의 것이라는 주장과 제주 무가에도 언급된 바 없는 신구 세관의 교체 이야기가 『천기대요』가 제주에 유입되며 나타난 것으로 보아 외래의 것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특징 및 의의 남쪽 지방인 제주에서는 '신구간' 기간이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하는 때이기도 하였다. 이 시기는 제주에서 일평균 기온이 5℃ 이하로 내려가는 유일한 기간이었고, 미생물 증식이 야기하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었다. 또한 5℃ 이하로 내려가는 추위로 인해 식물의 성장이 멈추는 농한기 상황을 맞게 된다. 이 기간은 농사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곧바로 다시 농사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동안 미루어둔 집안일을 바삐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였다. 농사 시기에 전념하지 못한 집수리, 변소 개축, 이사, 이장 등 농사 외 일은 농한기인 신구간에 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70~1980년대도 신구간을 맞아 집 주변의 허물어진 돌담이나 변소를 고치는 것을 보았다는 경험담이 채록된 바 있다. 1970년대 제주시내 집주인이 학생에게 방을 빌려주었을 때 방을 빌린 학생이 신구간에 이사 오고 이사 간 사례도 보고되었다. 신구간 기간 택일한 날에 이사를 못하면 이사 갈 집 아궁이에 불을 피워 밥을 지어먹어야 하는 것으로 믿었다. 신구간 이사의 중요한 물품이 불과 솥이었고, 불씨와 불의 신을 옮기는 의례를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혹은 체와 푸는체(키)만 옮겨 놓으면 이사를 다한 것이라 여기고 나머지 살림은 나중에 옮겨도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제주도의 신구간 풍속은 한반도의 윤달 풍속과 유사하다. 육지에서 윤달은 정상적인 달이 아니어서 지상의 신들이 월중행사에 관여하지 않는 텅 빈 달이란 관념에서 평상시 금기하던 일을 하는 것으로 속신되고 있다. 제주도의 신구간처럼 집수리, 이사, 단장, 이장 등 윤달에 처리하기 적합하다고 여겼다.

1970년대 근대화와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신구간이 '이사하는 기간'으로 굳어지고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이사하는 폐단이 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이사비 폭등과 쓰레기 급증, 전화와 가스 등 설비 교체 폭주가 발생하였다. 전통적인 세시풍속은 아파트 분양일자도 신구간에 맞추어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 그 전통이 서서히 와해되고 혼란도 해소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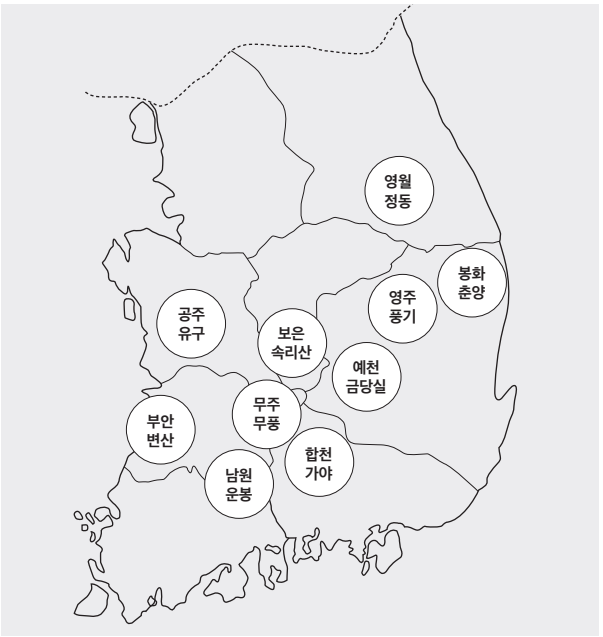
참고문헌 天機大要, 제주도민속-세시풍속(제주민속연구소, 1997), 제주도 신구간 풍속 연구(윤용택, 제주대학교출판부, 2008), 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jeju.grandculture.net).

필자 허남춘(許南春)

십승지
十勝地

정의 조선 후기의 혼란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병란兵亂을 피해 몸을 보전할 수 있다고 민간에 널리 유포된 열 개의 대표 장소.

개관 승지의 사전상 의미는 자연경관과 거주 환경이 뛰어난 장소를 말하며, 그 최상의 상태는 이상향理想鄕,



십승지 분포도

utopia이 된다. 동천洞天이나 복지福地, 낙토樂土 등과 같은 뜻이다. 그러나 실제 승지는 조선 후기 사회상과 관련하여 병란을 피하거나 어지러운 속세를 피하여 몸을 보전할 수 있는 피란처라는 의미로 널리 사용되었다. 복지도 실제 피란처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심지어 전통시대 이상향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청학동도 십승지의 하나로 인식되었다. 이것은 이상향에 해당하는 용어들이 피란처의 의미로 인식될 정도로 너무나도 어려운 당시의 현실 여건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내용 십승지는 조선 후기 정치·사회 혼란과 민간인들의 경제 상황 피폐라는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생겨났다. 국내외 사회 모순 속에서 힘없는 백성들은 어딘가로 숨어서 자신들의 몸을 보전해야 하였다. 따라서 십승지의 출현은 극심한 혼란 속에 등장하는 일반 백성들의 보편화된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 후기 십승지의 특징은 풍수사상과 결부되었다는 점, 역모 사건에 자주 인용되는 『정감록鄭鑑錄』이라는 예언서에 대표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십승지의 위치에 관해 『정감록』의 「감결鑑訣」에서는 ①풍기豐基 예천禮泉 ②안동安東 화곡華谷 ③개령開寧 용궁龍宮 ④가야伽倻 ⑤단춘丹春 ⑥공주公州 정산심마곡定山深麻谷 ⑦진목鎭木 ⑧봉화奉化 ⑨운봉雲峰 두류산頭流山 ⑩태백太白 풍기대소백豐基大小白이 제시되고 있다. 이것을 보면 그 지리상으로 대부분 내륙의 산간오지에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정감록』 외에 다양하게 전해지는 예언서에서 제시되는 십승지는 일부분 차이가 있으며, 그러한 책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내용이 첨가되기 때문에 실제 십승지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 더욱이 『정감록』 내에서도 감결의 십승지 외에 뒷부분에 가면 좀 더 범위를 좁혀서 다시 십승지를 제시하고 있다. 장소는 감결에서 제시한 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 지도에는 현재 가장 일반화된 십승지 위치로 언급되는 곳이 표시되어 있다.

『정감록』에 포함된 십승지 예언은 자신의 몸을 보전하기 어려운 백성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그 결과 십승지로 지목된 장소로의 인구 이동과 주거지 형성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일례를 들어 1959년 기준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풍기로 전입한 주민들의 이주 동기 중 30% 이상이 『정감록』과 관련 있었다고 한다. 외침으로 인한 전란과 정치 환란의 굴곡에서 살림살이가 피폐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정감록』을 믿고 피란하여 보신保身의 삶을 일구어 나간 것이다.

십승지를 제시한 『정감록』의 핵심 내용은 난세를 맞아 풍수설에 따라 십승지를 중심으로 하는 피란처에 들어가 살면 지복至福을 누릴 수 있으며, 궁극으로는 정씨鄭氏 성의 진인眞人이 출현하여 이씨 왕조가 멸망하고 새로운 세계가 도래한다는 예언이다. 그런데 『정감록』에는 풍수설에 따라 장차 도읍지가 어디가 되어야 할 것인가, 지기쇠왕地氣衰旺의 원인은 무엇인가, 도읍지의 수명은 어떻게 되는가, 도읍지의 재앙 발생 원인은 무엇인가, 도읍지의 공간 배치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등 풍수와 관련한 토론 내용이 등장한다. 이를 감안할 때 『정감록』은 나름 풍수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반왕조反王朝 지식인이 풍수 논리를 중심으로 백성을 설득한 후 진인 출현을 통하여 새 왕조를 염원하고자 쓴 책이라 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십승지는 난세에 몸을 피할 수 있는 풍수 길지吉地로 제시된 것이지만 무엇보다 반왕조 예언서 『정감록』에 등장한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았다. 그러나 실제 십승지 이주와 반왕조 행동은 직접 연결되지 않았다.

오늘날에 와서 십승지가 과연 풍수 관점에서 좋은 장소인지를 확인하려는 연구들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십승지의 위치를 명확하게 비정하기 쉽지 않다. 또한 위치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위가 너무 넓어서 정확한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십승지는 본래 피란처라는 조건에서 파생된 것이므로 일반적인 풍수 논리로 분석하여 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십승지는 반왕조 사상과 새로운 세계의 도래를 주장하기 위해 풍수 지식을 활용하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정감록 집성(안춘근, 아세아문화사, 1973), 풍기읍의 정감록촌 형성과 이식산업에 관한 연구(오세창, 지리학과지리교육,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1979), 풍수학사전(김두규, 비봉출판사, 2005), 한국 이상향의 성격과 공간적 특징(최원석, 대한지리학회지44-6, 대한지리학회, 2009), 한국의 풍수사상(최창조, 민음사, 1984).

필자 김기덕(金起德)

싱크대

정의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 놓은 작업대.

개관 현재의 부엌은 1970년대를 기점으로 아파트 건설에 대거 도입되면서 부엌이 방, 마루와 동등하게 실내에 함께 위치하고 주방용 가구 개념이 생겨나는 등 일반 주택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부엌이 형태와 기능 면에서 일대 혁명이 일어난 입식부엌이 보급되면서 간편성과 편리성을 추구하는 싱크대가 등장하였다. 한국 전통 재래식 부엌에서 허리를 구부린 채 가족 식사를 준비하던 주부들은 허리를 쭉 펴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싱크대가 일반화되기 전에는 타일로 장식한 시멘트 개수대가 가장 세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개수대가 스테인리스 싱크로 바뀌면서 부엌가구를 대표하는 것은 싱크대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내용 1980년대에 가전제품의 급속한 보급에 의하여 전기밥솥, 오븐,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전기프라이팬, 전기포트, 믹서, 토스터 등 다양한 조리 기구가 사용되면서 싱크대 구조 및 구성에 많은 영향이 미쳤다. 2000년대 이후 고급아파트에 이탈리아산 등 고가의 수입 키친 시스템 설비 영향을 받아 부엌가구 대명사인 현대 싱크대는 최첨단 기능을 갖춘 높이와 조리 동선 능률을 고려하여 개발되고 있다. 주방이라 부르는 현대 부엌은 공간 구조와 넓이에 따라 싱크대는 일[一]자형, 병렬[二]형, ㄱ[ㄴ]자형, ㄷ[U]자형, 아일랜드형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이 가운데 아일랜드형은 소비자의 취향이나 요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이 가능하고, 언제나 이동이 용이하다. 현대 주방은 구조 및 넓이에 따라 대체로 독립형 주방, 식당겸용주방DK, dining kitchen, 거실 식당겸용주방LDK, living dining kitchen, 다용도 주방 등으로 나타난다.

싱크대는 크게 상부장, 상판, 하부장으로 나뉠 수 있다. 상부장은 주로 식기 등을 보관하는 수납장, 싱크대의 상판은 준비대·개수대·가열대·조리대·배열대 등 순서로 부엌 크기나 구조에 맞추어 각각 구성된다. 하부장은 하부수납장, 식기세척기, 오븐 등을 갖춘 설비로 구성된다. 주방 시스템키친 전문인 한샘과 같은 주방 전문 국내 업체는 주방 형태나 넓이에 따라 맞춤형 디자인을 하여 키 큰 수납장과 냉장고, 와인캐비닛, 오븐, 전자 및 전기레인지, 밥통, 쌀



싱크대 | 에넥스

등을 보관하는 수납장이 시스템으로 설비되기도 한다. 국내 업체에서 생산되고 있는 싱크대 규격은 주로 높이가 850㎜, 상부장 높이가 바닥에서 최대 2,200~1,300㎜, 수납장 길이가 500~650㎜, 하부장 작업대 깊이가 550~600㎜, 상부장 깊이가 머리가 부딪치지 않을 정도의 290~300㎜이다.

해마다 하우징 건축박람회 등 부엌가구 박람회를 통하여 나타나는 최고 기능과 기술을 겸비한 현대 부엌의 트랜드는 흰색, 엷은 화이트, 민트, 바이올렛 등 밝고 새로운 색상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경향은 집안의 분위기 중심지로 요리를 하고 싶게 만들고, 가족들의 대화 및 화목한 식사를 유도한다. 주방 가전 제품도 인테리어와 어울리는 빌트인 싱크대 배치나 고객의 취향을 살린 분위기의 인테리어로 주방을 꾸미기도 한다. 이에 따라 이러한 싱크대는 사용자의 맞춤형 디자인 창출을 추구하며, 다양한 수납공간을 두어 작은 그릇이나 도구에서부터 커다란 물건을 손쉽게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과 함께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특징 및 의의 오늘날의 부엌은 온 가족의 가장 친근한 공간이 되었으며, 국내외에서 개발되고 있는 부엌 시스템은 최첨단 과학기술 전시장이 되어 가고 있다. 최첨단 지능형 싱크대는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의 체형을 센서로 인지하여 높낮이를 조절하고, 외출 시 원격 조정으로 전기밥솥의 시작 버튼을 누르고 마트에서 냉장고 안의 식품 목록을 실시간 파악해 찬거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싱크대는 한국 전통 의식인 남아선호 사상에 의하여 남성에게 금기시된 가부장 중심 문화에서 남성들도 부엌에 자유롭게 들어가 음식을 만들게 하는 등 의식 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참고문헌 가구디자인(강신우, 미진사, 2011), 건축·인테리어 용어사전(허동국, 건축세계, 2001), 아파트가구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남영락, 서울산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아파트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가사작업공간 사용행태와 의식(김진영,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주거문화적 배경으로 본 아파트 단위세대 주방공간의 계획 특성에 관한 연구(정다운,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한국가구의 역사(조숙경, 미진사, 2019).

필자 문선옥(文善玉)

싸리울

정의 싸리나무 혹은 그 가지 여러 개를 일정한 간격으로 길게 엮어 만든 울타리.

내용 '싸리울'은 싸리나무나 싸리나무 가지 여러 개를 세로로 나란히 세워 발처럼 길게 엮어 만든 울타리, 즉 담장이다. 싸리나무 가지는 가늘고 부드러우면서도 낭창하여 쉽게 부러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 싸리나무를 한자로 소형小荊이라 하여 옛날에는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였다. 싸리나무는 땔감부터 각종 소쿠리, 건축자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싸리울과 비슷한 용어로 '바자울'이 있다. '바자笆子'는 싸리, 갈대, 대나무, 수수깡 등으로 발처럼 엮거나 서로 어긋나 엮어 짜서 만든 물건이나 울타리를 통칭한다. 바자울은 이 바자로 만든 울타리이다. 따라서 싸리울은 바자울의 일종이다.



싸리울(바자울) | 일제강점기 | 국립중앙박물관



싸리울 | 경기 용인 한국민속촌 | 국립민속박물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등 고문헌에서는 '시리柴籬'가 싸리울의 한자 표현으로 등장한다. 시리는 가느다란 나무 혹은 그 가지들을 통칭하는 '섶나무'의 울타리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시리 역시 바자울 혹은 싸리울을 지칭한다. 일제강점기에는 싸리울을 '소형번리小荊藩籬'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싸리울은 좁은 의미로 싸리나무나 그 가지를 나란히 엮은 울타리이다. 넓은 의미로는 싸리나무가 아니어도 가느다란 섶나무를 엮은 울타리를 통칭하는 형태로 변화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바자울과 혼용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싸리울은 싸리나무 내지는 그 가지를 나란히 길게 엮어 세운 울타리이다. 조선시대 초가 등 여염집에 널리 쓰였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1431년(세종 13) 4월 3일 첫 번째 기사에서는 1426년 한양에 대형화재가 있어 시리柴籬를 금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따라서 궁궐이나 종묘 등 관영건축에서는 이미 조선 초기부터 싸리울과 같이 말린 식물을 재료로 하는 울타리가 사라지기 시작하였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싸리울은 현재 표준어로 등록되어 있으나 싸리의 어원이 싸리나무에서 비롯되었는지 가느다란 살이 엮어졌다는 의미인지 갈대인지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김왕직, 동녘, 2007), 우리궁궐을 아는 사전(역사건축기술연구소, 돌베개, 2015), 한국건축답사수첩(한국건축역사학회, 동녘, 2006), 한국건축대계4-신편 한국건축사전(장기인, 보성각, 2014), 한국민속식물(최영전, 아카데미서적, 1997), 한국의 민가(김홍식, 한길사, 199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stdict.korean.go.kr), 국립중앙박물관(museum.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조현정(趙賢貞)

아궁이

정의 땔감을 이용하여 불을 지피는 곳.

내용 아궁이는 불을 지피는 곳을 통칭하는 용어지만 온돌 구조에서 불을 들이는 곳을 특정하기도 한다. 불이 들어가는 입 또는 온돌의 입이라는 의미로 문헌에는 화구火口 또는 돌구堗口로 기록되어 있다. 주택의 길흉을 계획하는 양택서陽宅書에서는 곡기穀氣가 드나드는 입구라는 뜻으로 조구灶口라 하면서 사람들이 드나드는 대문大門, 천지의 기운이 드나드는 주방柱房과 함께 주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필 3요소로 꼽고 있다.

아궁이는 방고래로 바로 열기를 보내기 위해 함실에 불을 지피는 함실아궁이와 함실과 고래는 방바닥 아래에 설치하고 그 앞쪽에 부뚜막을 만들어 솥을 거는 부뚜막아궁이로 구분할 수 있다.

함실은 온돌구조에서 열기가 모여 갈라지는 곳이다. 이곳에다 바로 불을 지피는 함실아궁이의 경우 방바닥의 아랫목이 시꺼멓게 타거나 불이 날 때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함실 상부에 설치하는 구들은 구멍을 덮을 수 있을 정도로 크고 열기를 견딜 수 있을 정도의 두꺼운 것을 사용한다. 이를 함실장이라 한다.

부뚜막아궁이는 함실아궁이보다 후대에 사용된 시설로, 불을 지펴서 온돌을 데움과 동시에 불을 지피는 곳에 솥을 거는 부뚜막을 설치하여 물을 끓이거나 음식을 만드는 용도로도 사용하도록 한 시설이다. 함실아궁이는 함실에 불을 지피기 때문에 아궁이가 1개이지만 부뚜막아궁이 개수는 온돌방 벽면 크기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한 칸 규모에는 1~2개의 아궁이를 내고 한 칸 반 규모에는 2~3개의 아궁이를 낸다. 부뚜막에 거는 솥의 개수도 아궁이와 같거나 하나 적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뚜막 아궁이에 건 솥의 수를 보면 집의 살림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아궁이가 있는 공간은 17세기 문헌기록에만 해도 '인칸[囚間]'으로 표기하여 음식을 하는 부엌과 구분하였다. 그런데 18세기 문헌에서는 '인칸'을 찾아볼 수 없고 개념적으로 부엌을 뜻하는 '주廚'로만 기록되어 있다. 이는 18세기가 되면 아궁이만 시설한 곳도 그 용도나 규모에 상관없이 부엌이라 부르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근대기로 오면서 온돌을 데우기 위한 열원이 장작이나 숯에서 연탄으로 변하였다. 이때는 아궁이 앞에 열원의 명칭을 붙여 연탄아궁이라 하였다. 현대의 난방



아궁이 | 전남 나주 남파 고택 | 서헌강



경북 안동 하회



한뎃부엌 전남 순천 낙안읍성

아궁이 | 국립민속박물관

을 위한 연료는 기름이나 가스이다. 그런데 열원을 주입하는 곳을 아궁이라 하지 않는다. 이유는 연료를 주입하는 곳에서 바로 불을 지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대신 열원으로 발화시켜 조리하는 곳을 주방廚房이라 지칭할 뿐이다.

특징 및 의의 아궁이는 열을 발생하는 곳이기는 하지만 불이 생성되지 않으면 아궁이라 부르지 않는다. 아궁이는 어디에 위치하는지, 어떤 형태인지, 열원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른 명칭으로 불렸다. 이는 아궁이가 온돌구조의 일부분이 되면서 생긴 문제로 아궁이의 명칭 변화를 통해서 주거생활의 변화 과정을 읽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陽宅三要, 易斷繪圖朝鮮民宅三要, 18세기 이후 조선사회의 온돌에 대한 인식변화와 난방효율 증대를 위한 건축적 모색(정정남, 건축역사연구 27-3, 한국건축역사학회, 2018),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김왕직, 동녘, 2007), 한국건축개념사전(한국건축개념사전기획위원회, 동녘, 2013), 한국건축대계4-신편 한국건축사전(장기인, 보성각, 2005), 한국의 전통건축(장경호, 문예출판사, 1994), 두산백과사전(doopedia.c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정정남(鄭貞男)

아랫목

정의 온돌방에서 아궁이와 가까운 쪽에 위치한 방바닥.

역사 아랫목은 아궁이에 지핀 불길로 구들장을 달구어 바닥의 온도를 높이는 난방 방식인 온돌 구조에서 아궁이 가까운 쪽의 방바닥을 일컫는다. 이처럼 아랫목은 좌식생활을 하는 온돌문화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온돌은 초기 철기시대에 시작되었다는 견해도 있지만 고구려 안악 3호분 벽화 등을 볼 때 삼국시대에 성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당시의 온돌은 방의 일부에만 설치했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실내로 들어와서 의자 등에 걸터앉는 입식 방식이 기본이었으며, 조선시대로 접어들면서 방 전체를 데우는 구조로 발전하여 좌식 방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다. 그러나 이때에도 궁궐과 관청, 상류층의 일부 가옥에만 적용되었을 뿐 크게 일반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에 이르러 서민층으로까지 확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온돌문화가 발전하면서 좌식생활이 보편화됨에 따라 아랫목을 중시하는 관념이 생겨났다.

내용 온돌은 아궁이에서 가까운 아랫목의 온기와 멀리 떨어진 윗목의 냉기가 대류현상에 의해 서로 섞이면서 방 전체의 온도를 조절하는 난방 방식이다. 이처럼 온돌의 난방 구조에 의해 형성된 아랫목과 윗목은 독특한 거주문화를 만들었다. 아궁이와 가까운 따뜻한 아랫목은 상석上席으로 간주되어 집안 어른이나 연장자의 자리로 간주되었다. 이때 어린 아이들은 아랫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리 배치를 통하여 장유長幼 관련 예의범절을 자연스럽게 익혀 나갔다. 또

아랫목은 늦은 겨울밤에 가족들이 모여 앉아 군고구마나 홍시 등을 함께 먹으면서 집안의 화목을 다지는 장소였으며, 항상 온기를 유지하고 있는 덕분에 술과 식혜·메주 등과 같이 음식을 숙성·발효시키는 조리 공간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아랫목은 아궁이가 놓인 부엌과 맞닿아 있다. 대체로 부엌의 천장 공간은 다락으로 이용되었다. 따라서 아랫목에는 다락을 오르내리는 문과 통로가 설치되어 있었다.

아랫목은 의례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역할을 하였다. 첫째, 출산을 한 뒤 신생아의 태를 잘라 짚으로 싸서 사흘 동안 아랫목에 두었다가 나흘째 되는 날 왕겨로 싸서 아궁이에 넣어 태웠다. 다 탄 재는 거름더미나 강과 바다 등에 던진다. 따뜻한 아랫목에 태를 보관하는 이유는 따뜻한 열기로 인해 태가 잘 삭혀지기 때문이다. 둘째, 아랫목에는 출산을 관장하는 삼신의 신체神體를 모셔 둔다. 삼신단지 형태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안방 아랫목 벽의 높은 곳에 선반을 매달아 그곳에 봉안하는 것이 일반 형태이다. 안방 아랫목에 삼신을 모시는 까닭은 산모가 이곳에서 출산과 몸조리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머리를 아랫목 방향으로 두고 누우면 "거꾸로 잔다"고 해서 금기시하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머리는 서늘하게 유지하고 손발은 따뜻해야만 건강에 이롭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이사한 날에는 머리를 아랫목 방향으로 두고 잠을 자는 민간습속이 있기도 하다. 그리고 "사람 안 죽은 아랫목 없다"는 말과 같이 임종을 앞둔 환자는 반드시 사랑방이나 안방의 아랫목에 모셨다.

특징 및 의의 아랫목은 아궁이의 불길로 구들장을 데워 온기溫氣를 만들던 온돌문화를 기반으로 생겨난 공간으로, 일상생활에서 크게 네 가지 의미가 있었다. 첫째, 추운 겨울밤에 가족들이 따뜻한 아랫목에 모여 앉아 음식을 먹거나 담소를 나누면서 가족애를 다지는 공간이었다. 둘째, 아랫목은 집안 어른과 연장자의 공간이라는 인식을 아이들에게 심어줌으로써 장유長幼와 상하에 대한 예절을 자연스럽게 일깨워 주는 공간이었다. 셋째, 따뜻한 온기로 음식을 숙성·발효시키는 일종의 조리 공간이었다. 넷째, 출산을 도와주고 아이의 건강을 지켜 주는 삼신이 모셔져 있는 의례 공간이었다. 이처럼 아랫목은 온돌을 기반으로 한 좌식생활에서 여러 기능을 수행하며 다양한 거주문화를 만들어 내었다.

참고문헌 온돌주거지의 발생과 양상(김미영, 가라문화18, 경남대학교 가라문화연구소, 2004), 전통온돌의 구조와 열성능에 관한 연구(정기범,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한국의 온돌방문화(박윤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42, 대한건축학회, 199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향토문화전자대전(grandculture.net).

필자 김미영(金美榮)

아산 외암마을

정의 조선시대 충청 지역 농촌 동족마을로, 사대부 가옥과 농가가 함께 있는 예안이씨禮安李氏 집성마을.

개관 충청남도 아산 송악면에 있는 이 마을은 마을 전체가 국가민속문화재 236호로 지정되어 있다. 외암리에 언제부터 마을이 형성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구전되는 이야기로는 이미 500여 년 전에 강씨와 목씨 등이 정착하여 마을을 형성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문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항이 아니다. 예안이씨禮安李氏 족보와 외암巍巖 이간李柬(1677~1727)의 『외암기巍巖記』에 의하면 원래 외암마을의 주인은 평택진씨平澤陳氏였다고 한다. 지금도 참봉 진한평陳漢平의 묘가 외암마을 남쪽으로 약 500m 거리의 구릉 골말에 있어 과거 이 마을의 주인이었음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부터 평택진씨가 외암마을에 살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외암마을의 명칭은 외암리 서쪽에 있는 역말, 즉 지금의 송악면 소재지와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역말에는 조선 초기부터 이미 시흥時興이라는 역驛이 있었고, 외암마을은 이 시흥역의 말을 거두어 먹이던 곳이라서 예부터 '오양골'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외암'이라는 이름은 바로 오양골의 '오야'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1723년(경종 3) 외암 이간이 쓴 『외암기』에 의하면 이미 이전부터 마을 이름을 '외암'이라 하였다. 이간은 자신의 호를 마을 이름에서 따와 지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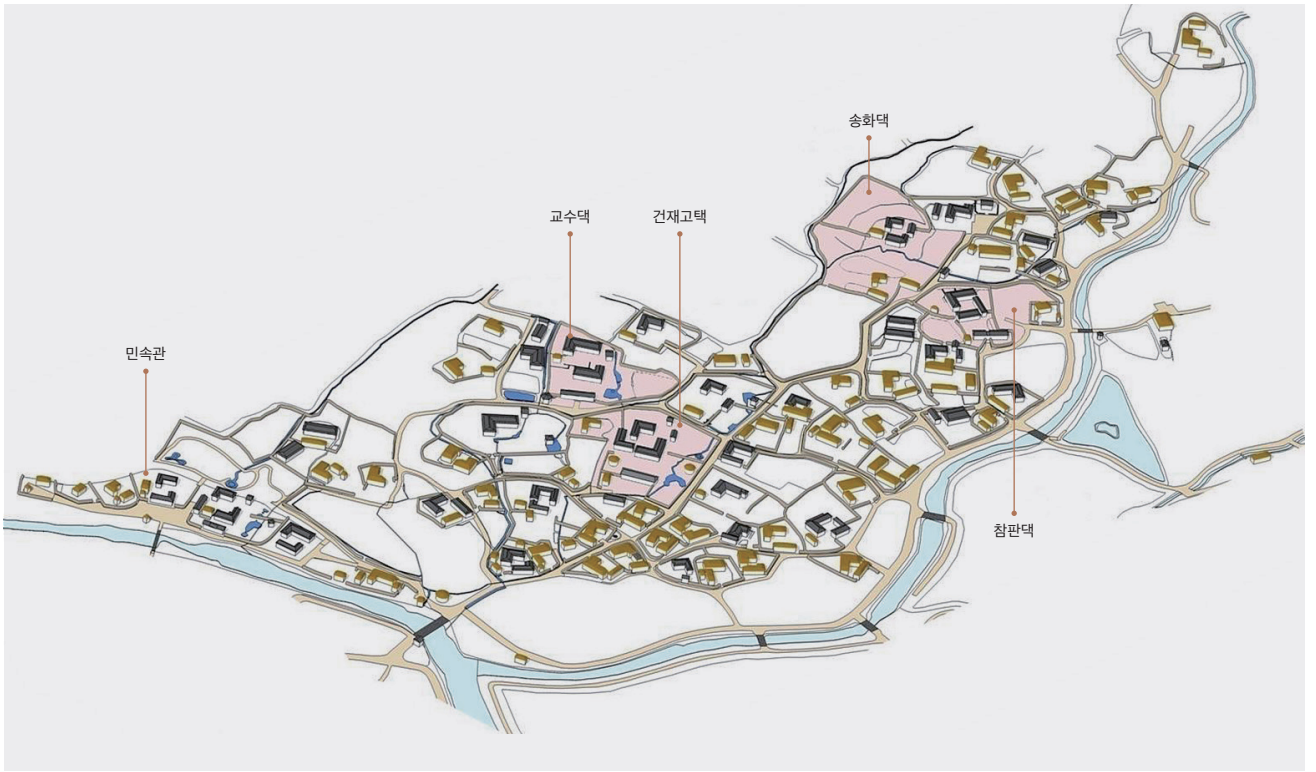
내용 외암마을은 예안이씨가 주로 살고 있는 집성마을이다. 예안이씨 중 처음으로 외암마을에 입향한 사람은 평택진씨 참봉 진한평의 사위인 이사종李嗣宗이다. 즉 이사종이 평택진씨의 사위가 되면서 예안이씨가 외암마을에 입향하게 되었다. 당시 진한평은 아들이 없고 딸만 셋 있었다. 예안이씨 이사종이 진한평의 장녀와 혼인하면서 마을에 입향하게 되었고, 그 후손들이 마을의 주성을 이루게 되었다. 마을에는 현재 69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이 가운데 농가가 38가구이고 농사를 짓지 않는 일반 가옥이 31가구이다. 거주민은 모두 192명(남자 103명, 여자 89명)이다. 마을 내 가옥 수는 한옥기와 가옥 57동, 초가 128동, 돌기와 가옥 2동, 양와 가옥 11동, 기타 가옥 15동 등 모두 213동이다. 마을 건물의 과반이 초가로 되어 있어 마을 경관만 보아도 농촌마을임을 알 수 있다.

약한 구릉지에 배치된 마을의 주택들이 입구의 물(다리)을 건너면서 형성된 길을 따라 독특한 공간을 구성하면서 점지하고 있다. 마을 가운데로 안길이 있고, 이 안길은 올라가면서 좌우로 샛길을 뻗치고 있다. 이러한 형상은 나뭇가지와 같이 큰 줄기를 따라 올라가면서 작은 가지가 뻗고 가지 끝에 열매가 맺어 있는 것과 같은 자연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듯한 마을의 형상에는 근본적으로 어떠한 원칙에 따라 만든 것을 볼 수 있다. 즉 주산인 설화산과 서남쪽에 위치한 봉수산을 잇는 지축을 설정하고 이 두 지점이 이어지는 축 선상에 설화산을 배경으로 일정한 영역을 형성하여 그 영역의 중심으로부터 확산되어 가는 배치 형국을 하고 있다. 전체적인 형상은 동서로 긴 장축이어서 평면적으로는 타원형을 보여 주고 있다. 배산이 되는 동북쪽의 설화산 자락이 마을에 이르러서는 완만하게 형성되어 서쪽의 마을 어귀는 낮고 동쪽의 뒤로 갈수록 높아지는 동고서저東高西低 형상을 보인다. 이러한 지형 조건에 따라 주택의 좌향은 거의가 서남향으로 되어 있다. 간혹 남향으로 자리를 잡은 집도 있다.

마을의 살림집은 규모에 따라 건물 형태가 다양하다. 규모가 큰 사대부 가옥의 경우 문간채, 사랑채, 안채, 사당 그리고 곳간과 같은 부속채로 구성된다. 이런 살림집은 대개 정면에 횡으로 길게 대문채를 두고 이 대문을 들어서면 一자 모양의 사랑채와 그 뒤에 ㄱ자 모양의 안채를 배치한다. 그리고 그 주변 좌우로 부속채를 배치해 두었다. 사당은 안채의 후면에서 약간 동측에 치우쳐 배치되어 있다. 즉 가운데 비어 있는 안마당을 중심으로 사랑채, 안채, 부속채가 둘러서 배치되어 있는 모양이다.

마을 내에 사랑채가 있는 집은 11가옥이다. 사랑채는 가옥 중에서도 남자들의 활동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평면 구성은 가운데 부분에 사랑대청을 두고 그 좌우에 방을 배치하였다. 대청 동편에는 집안 어른이 거처하는 큰 사랑방을 두고 서편에는 작은 사랑방을 두고 있다. 사랑채에는 책방을 두기도 한다. 책방은 큰 사랑방에 이어 붙이거나 뒤쪽에 작은 방을 하나 두어 사용한다. 사랑방 뒤쪽으로 두 자 또는 두 자 반 정도의 반침을 두어 이불이나 여러 가지 잡동사니를 넣어 두는 곳으로 사용한다. 외암마을 사대부 가옥의 사랑채는 대개 대청마루를 작게 만들고 마루 좌우에 크고 작은 사랑방을 설치해 두었다. 그리고 전면에 툇마루를 두었고, 전체를 마루로 하지 않고 한 칸은 방으로 막아 두었다. 건재고택 사랑채의 경우 가운데 한 칸을 대청마루로 하고 그 좌우에 두 칸씩 방을 두었다. 전면과 동측 면에 툇마루를 두었다.

동편 툇마루 한 칸은 마루를 넓게 내달아 마치 정자마루와 같은 공간이 되게 하였다. 사랑채 서쪽 끝에도 마루를 달아 두었다. 참판댁은 큰댁과 작은댁이 있다. 큰댁 사랑채 역시 가운데 대청을 두고 좌우에 방을 두었다. 동편의 익랑채와 지붕이 연결되어 ㄱ자 평면을 하고 있으나 사랑채 공간만으로 보면 一자형 평면이다. 전면에는 툇마루를 길게 두었다. 참판댁 작은댁 사랑채는 ㄱ자 평면으로 회첨 부분에 대청마루를 두고 서편으로 나란히 네 칸의 방을 두었다. 대청마루 북편에 중문간을 두고 그 건너편에 또 하나의 방을



마을 배치도 | 충남 아산 외암 | 이왕기



마을 배치 | 충남 아산 외암 | 한국관광공사·김지호


장승 | 이왕기


다리 | 한국관광공사 김지호

외암마을 | 충남 아산

배치하였다. 송화댁 사랑채는 가운데 대청마루를 두었는데 건재 고택이나 참판댁 작은댁 사랑채와는 달리 대청마루가 꺾이는 회첨 부분에 위치하게 된다. 그리고 마루 북편과 서편에 각각 사랑방을 두었다. 전면 세 칸에는 툇마루를 설치하였다. 이 밖에 6개 가옥은 사랑채를 초가로 지었다. 평면은 一자형에 방, 마루, 부엌으로 구성되었다.

안채는 마을 내 모든 가옥에서 볼 수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구조는 목조초가와 목조와가다. 안채 평면은 크게 ㄱ자형, 一자형, ㄷ자형으로 구분된다. 반가에서는 대부분 ㄱ자형에 일부 一자형 평면인 데 비하여 서민주택과 초가에서는 ㄱ자, 一자, ㄷ자형 평면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 중 ㄷ자형 평면은 신창댁 안채 한 동뿐이다. 마을 내 반가의 ㄱ자형 안채 평면은 대부분 가운데 두 칸 안대청을 중심으로 동측을 트고 서축을 꺾어 ㄱ자 모양이 되게 하였다. 내부 공간은 두 칸 크기의 안대청 좌우에 안방과 건넌방을 두고 서쪽 꺾인 부분에 아랫방과 부엌을 배치하였다. 동측 건넌방에 이어서 또 하나의 부엌과 끝방을 둔 경우도 교수댁 안채와 참판댁 안채에서 보이고 있다. 대표 사례로 건재 고택, 교수댁, 참판댁 큰댁 및 작은댁, 송화댁, 감찰댁, 이준세 가옥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안대청이 가장 큰 것은 감찰댁으로, 세 칸이다. 一자형 안채가 있는 가옥은 두 개이다. 참봉댁 안채에서는 안대청의 크기를 한 칸으로 작게 만들고 위치도 중심이 아니라 동측에 배치하고 있다. 대신 전면 네 칸에 툇마루를 달아 마루 면적을 크게 만들었다. 이효숙 가옥 역시 참봉댁의 안채와 유사하다. ㄱ자형 안채 평면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앞에서 설명한 반가 안채의 기본적인 평면 구조를 그대로 축소시켜 만든 유형이다. 전체 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청을 한 칸으로 작게 만든다. 대청이 두 칸이면 방 또는 부엌을 작게 만들었다. 대청이 한 칸이면 대청 옆방 앞쪽으로 툇마루를 두기도 한다. 안대청을 없애는 대신 방을 중심부에 두고 그 앞에 툇마루를 한 칸 또는 두 칸 폭으로 달아 두는 경우도 있다.

문간채는 마을 내 28개 가옥에 남아 있다. 문간채는 문간을 비롯하여 창고, 방, 화장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예전에는 문간채를 창고나 머슴들이 거주하는 부속공간으로 사용하였다. 근래에는 방이나 부엌을 두어 생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수세식 화장실을 문간채에 설치하거나 문간채에 벽을 덧붙여 쌓아 화장실을 만들기도 한다.

사당은 외암 사당을 비롯하여 모두 여섯 동이 있다. 이 중 한 동은 외암 불천위 사당이다. 나머지는 건재 고택, 교수댁, 참판댁 큰댁, 참판댁 작은댁, 감찰댁(이동식 가옥)에 있는 가묘다. 외암 사당의 평면은 정면 세 칸, 측면 한 칸이다. 전면 열은 툇마루로 되어 있다. 홑처마 맞배지붕이고, 측면에는 풍판을 달지 않고 박공면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기단은 사괴석 두벌대로 하고, 방형 초석에 네모기둥을 썼다. 일각대문을 두고 주위는 담으로 에워싸고 있다. 가묘는 대부분 정




외암마을 | 충남 아산 | 문화재청

면과 측면 각각 한 칸이고, 전면에 툇마루를 설치해 두었다. 지붕은 홑처마 맞배지붕이다. 주위는 담을 두지 않고 안채 가까운 동북쪽에 배치해 두었다. 부속채는 주거생활에서 생활용구나 농기구 등을 넣어 두는 데 필요한 공간이다. 마을 내 가옥 중에서 부속채가 있는 가옥은 19개이다. 부속채는 한 동 또는 두 동인 경우가 많다. 구조는 대부분 목조 초가이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부속채는 대부분 창고이다. 창고에 붙여 화장실을 두거나 세면실을 두는 경우도 있다. 마을에는 특이하게도 다른 지역 반가에서 볼 수 없는 정원이 있다. 주로 사랑마당이나 사랑채 근처에 있다. 건재고택을 비롯하여 참판댁 큰댁과 작은댁, 송화댁, 교수댁 등이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규모가 작은 반가의 살림집은 사랑채와 안채로 구성된 사례도 있다.

마을의 모든 가옥은 돌로 담장을 둘렀다. 이 담장에 사용된 돌은 마을 현지에서 채취한 것으로, 총 연장은 약 6㎞이다. 지질 조건상 마을 지표면에는 수많은 괴석塊石이 있다. 옛 주민들은 이 괴석을 이용하여 가옥의 담을 쌓고, 경작지를 만들기 위하여 걷어 낸 돌로 논밭의 축대를 쌓았다. 외암마을의 경관이 다른 마을과 독특하게 구별되는 것은 바로 이 돌담과 축대 때문이다. 돌담은 외암마을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마을 안에는 세 그루의 정자나무[亭子木]가 있다. 한 그루는 마을 입구의 다리를 건너면 좌측에 있고, 또 다른 나무는 마을 안길 진입 후 첫 번째 샛길로 연결되는 고샅에 자리 잡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무는 마을 후면의 가장자리인 개천 변에 자리하고 있다. 마을 안에 있는 나무는 동제를 지내거나 마을 축제를 할 때 제를 지내는 신성한 공간이다. 마을 후면에 자리 잡고 있는 정자나무는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외암마을의 구성 요소로 채택하고 있는 물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자연 형태의 물이고, 다른 하나는 인공 형태의 물이다. 자연 형태의 물은 설화산 계곡에서 마을의 남측으로 흘러 근대골 내로 진입하는 개천으로, 풍수적 시각에서 보면 내수구가 된다. 인공 형태의 물은 마을의 상부에서 지수를 만들어 마을의 각 주택을 통과하도록 만든 인공수로이다. 이 물줄기는 마을 내 여러 집들을 통과하면서 생활용수가 되기도 하고 마당을 지나면서 곡수曲水와 연못을 만들어 아름다운 정원을 꾸미고 있다. 이렇게 마을 안을 흐르는 곡수는 화재 시에 방화수로 사용되기도 한다.

특징 및 의의 이 마을 구성에서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마을 안을 통과하고 있는 인공 수로이다. 이것은 풍수에서 말하는 '염승厭勝'이라는 기법이 사용된 예이기도 하다. 오행五行의 화와 수는 상극이다. 이 마을에서 주산인 설화산雪華山은 '화산火山'으로, 마을에까지 그 '화'의 기운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하여 마을 내부에 화와 상극하는 '물[水]'을 끌어들여 '화'의 기를 제압하자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화'를 제압한다는 것

은 그 근본 개념이 자연과 인간의 상호 조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에 스스럼없이 적응해 나가기 위한 빼어난 착상이라고 판단된다.

조선 후기에 외암마을에서는 많은 인물이 배출되었다. 그 가운데 외암 이간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외암 이간은 조선 후기 문신이자 학자로, 기호학맥의 적통을 계승한 수암遂菴 권상하權尙夏 문하의 팔학사八學士 중 한 사람이다. 외암은 주로 온양 향리에서 지낸 인물이다. 31세 되던 1707년(숙종 33)에는 관선재觀善齋를 건립하여 후학들에게 강론을 하기도 하였다. 마을 내 여러 가옥에는 조선 말기에 조성된 정원이 남아 있다. 이 정원은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이 마을만의 특징이다.

참고문헌 아산 외암마을의 주거변화에 관한 연구(이강복·이왕기·최흥기, 건축역사연구10-3, 한국건축역사학회, 2001), 아산 외암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이왕기, 아산시, 2002), 외암 민속마을(이왕기, 아산시, 2002), 외암마을 보존방안 학술조사연구보고서(이왕기·새한건축문화연구소, 아산군, 1990).

필자 이왕기(李王基)

아파트

정의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외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가구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공동주택의 하나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역사 일반적으로 제국주의는 식민지로부터 강제 잉여를 유출하기 위한 통로로, 식민지 지배를 영속화하기 위한 장치로 회사·공장·은행 등 기구는 물론 경찰·학교·감옥·병원 등의 근대 제도를 식민지에 이식하였다. '아파트'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일제강점기에 은행이나 회사의 급여생활자는 물론 전문학교 학생, 기자, 작가, 카페 여급 및 각종 사회단체 활동가 등 근대적 직종에 가담하게 된 독신생활자들을 위하여 일본인 사업가들이 단기 거처용 임대주택으로 조선에 처음 소개한 새로운 주택 유형이 '아파트'이다.

3·1 만세운동 이후 일제의 무단통치가 문화정치로 겉모양을 바꾸며 창간이 허용된 각종 신문이며 잡지·단행본과 전문잡지 등을 통하여 당시 아파트의 쓰임새를 살펴보면 '아파-트멘츠·하우스', '아파-트멘트', '아파-트' 등으로 부르거나 표기하였다. 때론 '아파-ㅌ멘트', '아파-아트', '아파아트', '아쌰트', '아파트' 등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아주 예외이긴 하지만 아파트먼트apartment의 미국식 발음인 [əpáːrtmənt]를 소리 나는 대로 읽어 '판멘'이라 소개한 경우도 있다. 1930년 2월부터 4월까지 『동아일보』에 주요섭이 연재한 조선 고학생의 미국체류기인 「유미외기留米外記」에 실린 내용에서이다.

새로운 것이자 늘 보아 온 경우와는 다른 도시주택으로 일제강점기 조선에 등장한 '아파트'는 당시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명확한 개념이나 용례를 정립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런 까닭에 '아파트'라는 호칭이나 명칭이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은 민간에서 주도한 도심형 임대주택에 국한하지 않고 공장기숙사나 근로자 숙사宿舍, 목조나 벽돌구조 혹은 콘크리트구조 등을 따로 구별하지 않은 채 기존의 단독주택과는 다르면서 주로 공동생활을 보장하는 규모가 큰 주택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마치 18세기 후반부터 한반도 주변 바다에 빈번하게 출현한 서양 배를 가리켜 '이양선異樣船'이나 '황당선荒唐船'이라 부르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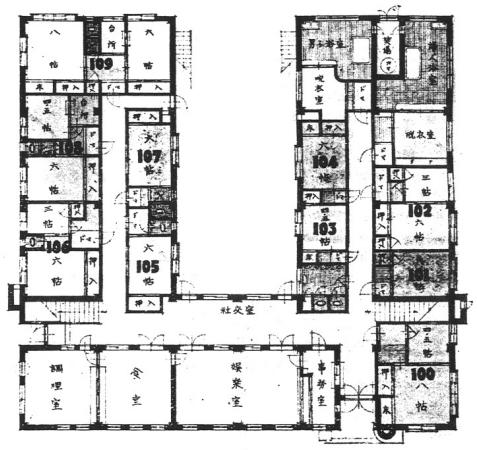
식민지 조선에 '아파트'를 전파한 일본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아파트를 변형시킨 미국식 아파트를 일본인 중류가정의 주택 모델로 채택하였고, 1925년에 '문화아파트'라는 이름의 주택을 도쿄 오차노미즈お茶の水에 건설하였다. 또한 간토대지진으로 파괴된 주택의 복구와 이재민 구휼을 목적으로 조직한 사단법인 동윤회同潤會가 도쿄와 요코하마 중심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 내진내화耐震耐火 성능을 띤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다층주택多層住宅을 '아파트'라고 불렀다. 이들 아파트는 대개 도심 간선도로변에 지어졌다. 1층에는 상점, 식당, 카페, 오락실, 사무실

등이 들어섰다. 2층부터 3~4층까지는 크기가 서로 다른 독신자용 방이 늘어선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또한 층마다 공동화장실이나 공동취사장 혹은 응접실 등을 따로 두었다. 그러므로 당시의 아파트란 가족용 살림집이라기보다 화장실이나 세탁장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각 방은 침실로만 사용하는 독신자용 단기 거처용 주택이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 '아파트'라는 용어가 처음 알려진 것도 1925년이었다. 당시 조선에서 발행된 유일한 건축전문지 『朝鮮と建築(조선과건축)』에 「동윤회의 아파트먼트」라는 제목으로 내용이 소개된 것이다. 경성공업고등학교[京城高工]의 1927년 학생 졸업 작품으로 '아파트먼트 하우스'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대중잡지인 『별건곤』, 『삼천리』, 『동광』, 『신동아』 등과 『동아일보』를 비롯한 각종 신문에서도 '아파트'가 간헐적으로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대체로 1925년부터 1930년 사이에 도회지의 많은 사람이 '아파트'에 대해 일정한 지식이 있은 것으로 보인다. 1930년에 들어서는 실제로 지어진 아파트가 『朝鮮と建築』에 소개되었다. 서울 회현동의 '경성 미쿠니三國상회 아파트'가 대표 사례이다.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에 동원된 관공리들의 거처인 관사官舍나 사택社宅에도 '아파트'라는 호칭을 붙였지만 근대 도시의 전문 직업군에 속하는 독신자나 학생 등을 위한 단기 거처용 임대주택으로서의 아파트가 조선에 본격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초·중반이다. 1930년 11월 『京城日報(경성일보)』에는 '광희문 밖에 로마의 콜로세움을 연상하게 하는 거대한 아파트가 출현'하였다고 하였는가 하면 『每日申報(매일신보)』 1937년 1월 21일자 기사에서는 '훈련원 터에 3층으로 모던 독신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내용이 게재되었다. 이들 아파트는 대체로 난방장치와 함께 취사용 연료로 가스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마다 옷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수납장을 두기도 하였다.

또한 독신자용 임대아파트라는 뜻에서 거주자의 벌이에 맞춤하도록 임대료가 책정되었다. 다다미 4장인 경우와 6장인 경우가 비교적 넓은 방에 속하였고,



1935년 내자동에 지어진 미쿠니아파트 1층 평면도 | 조선과건축14-6



미쿠니아파트 | 서울 중구 | 권이철

층마다 대부분 라디에이터 난방설비를 갖췄다. 다시 말해 한국 최초의 '아파트'에 해당하는 사례들은 도시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빚어진 독신자 근로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라는 뜻이니 오늘날의 아파트와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1934년과 1935년에 각각 평양, 경성에 준공한 아즈마東아파트와 내자동 미쿠니三國아파트는 당시 장안을 떠들썩하게 할 정도였다. 69개의 임대용 방을 갖춘 미쿠니아파트는 옥상전망대에서 준공식을 치렀다. 준공식에는 유력자 300여 명이 참석하여 오후 6시까지 여흥을 즐겼다고하였다. 매점이며 이발소, 당

구장과 상점까지 구비한 아즈마아파트는 근대건축의 정수라는 찬사가 붙여지기도 하였다. 당시 일본어로 발행된 『조선신문朝鮮新聞』이 전한 내용이다.

내용 1930년대 중반부터 일본에서는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인들이 벌일 만한 유망한 사업 가운데 하나로 주택임대업을 꼽았다. 러일전쟁의 승리로 만주농업이민이 활발해졌고 경성, 부산, 대구, 인천, 청진, 평양 등 대도시는 일본과 대륙의 중간 지역으로서 인구유입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미 조선에 진출한 크고 작은 일본기업들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였고, 이 과정에서 식민지 조선의 대도시에는 아파트 붐이 일어나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도시 풍경을 만들었다.

그러나 1937년 7월에 발발한 중일전쟁은 이러한 분위기를 바꾸었다. 한반도가 병참기지 구실을 수행하게 되면서 조선총독부는 1939년 9월 <지대가임통제령地代家賃統制令>을 발동해 주택가격 안정화를 꾀하였다. 지대地代와 집세를 한 해 전인 1938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되돌리고 부府와 읍邑 단위의 행정기관에서는 공영公營주택 건설대책을 강구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이미 1937년 11월 1일부터는 총독부령인 <철강공작물축조제한령鐵鋼工作物築造制限令>에 따라 백화점, 극장, 영화관, 상점, 은행, 사무소, 여관, 숙박소 등의 신축이 원칙적으로 불허되었다. 여기에 이미 '아파트'가 포함된 터였다.

이에 따라 적정 임대료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아파트 임대사업자들은 기존의 아파트를 속속 호텔로 전업하였고, 조선의 서민주택 수급 곤란을 우려한 조선총독부는 민간아파트의 호텔로의 전업을 강력 통제하는 동시에 오늘날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합병되기 이전의 대한주택공사 전신인 조선주택영단朝鮮住宅營團을 1941년 7월 서둘러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조선총독부는 경성, 평양,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서는 공채를 발행해 '공영아파트'를 건설할 것을 강력 권고하였다. 1930년대 말부터 광복 이전까지 대도시에서 아파트를 포함한 부영주택府營住宅 건설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채 발행이 급증한 이유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 기획되었거나 지어진 공영아파트 역시 민간 임대주택인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1층에는 상점·사무실·식당·오락실·응접실 등을 두었고, 2층 이상은 대부분 독신자를 위한 침실만으로 공간을 구성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국가기록원의 당시 기록과 도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총독부가 강력 권고한 대도시 아파트 건설은 중일전쟁으로 인한 물자 부족과 함께 공채 발행이 여의치 않아 대부분 취소되었고, 일부만이 지어졌다.

광복과 함께 38선으로 나뉜 한반도의 남측은 미



아파트 단지 | 서울 마포구 | 1964 | 토지주택박물관



아파트 단지 | 대전 서구 | 2003 | 전재홍

군이 점령하였고, 미군정이 실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는 다시 한 번 변신하게 된다. 즉 미군과 그 가족, 군사·경제고문단이 한반도에 장기간 머물게 되면서 그들의 거처가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번듯한 주택을 접수하였고, 여기에는 이미 호텔로 전용한 아파트와 패전으로 인하여 일본인이 남기고 간 많은 임대용 아파트가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일제가 조선의 강제병합 25주년 기념으로 제작한 『대경성부대관大京城府大觀』에 등장하는 취산翠山아파트는 1930년대 중반에 지어진 것으로, 광복 후 군정 당국에 접수되어 기혼자 가족 42명의 미군 요원 숙소로 활용된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 물론 준공식을 옥상 전망대에서 치른 내자동의 미쿠니아파트 역시 미군정에 접수된 뒤 내자호텔이라는 이름을 달고 상당 기간 미국 경제고문관과 군사고문단 숙소로 사용되었다.

이후 남한 단독정부 수립과 6·25전쟁 발발 등으로 아파트 공급은 지지부진하였고, 1953년 휴전 이후에는 전쟁 이전 상태로의 재건과 복구가 우선 과제로 책정되어 이렇다 할 진척이 없었다. 1958년부터 시작된 도심 주요 간선도로변의 상가주택 건설 및 원조자재·대금을 활용한 운크라UNKRA주택과 재건주택, ICA주택, 부흥주택, 희망주택 등 소규모 주상복합 건축물과 단독 및 연립형 구호주택이 그 뒤를 이었을 뿐이었다. 대표적인 아파트로는 1950년대 후반에 지어진 종암아파트와 개명아파트 정도를 꼽을 수 있다.

5·16 군사정변 이후 아파트 건축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일제강점기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도심지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단일동單一棟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마포아파트단지로 대표되는 가족용 단지형團地型 아파트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흔히 광복 이후 중요한 아파트 선례로 꼽는 종암아파트와 개명아파트는 이승만 정권 이후 승승장구하던 민간건설회사인 중앙산업에 의하여 지어진 것이다. 이는 단일동 형식과 단지형 아파트의 중간 성격으로, 독신자용 아파트가 가족형 아파트로 전환되는 시기의 대표 사례에 해당한다.

1962년 대한주택공사 설립 이후 아파트는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에 따라 대부분 가족형 아파트로 조성되었으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민공동시설이나 편의시설을 모두 담장 안에 구비한 단지형 아파트로 바뀌면서 임대와 분양이 선택 활용되는 주택 유형으로 자리 잡았다. 이후 1970년의 한강맨션아파트를 통하여 모델하우스에 의한 선분양先分讓 방식이 도입되었고, 단지 안에는 쇼핑센터와 각종 주민 편의시설이 모두 들어가는 방식이 고착되며 오늘날의 아파트 단지로 변모하였다. 이후 특별한 공간 구성의 변화 없이 이러한 방식은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오늘날의 아파트는 미국식 아파트를 중류주택 규범으로 삼은 일본이 간토대지진 이후 문화 및 모던한 가족 본위의 생활공간으로 아파트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대도시에 들여온 유형으로, 2016년 6월 이후 전체 재고 주택의 60%를 넘기며 우리나라 주택의 절대적 유형으로 자리 잡았다.

일제강점기에는 민간이 주도하는 단기 거처용 임대주택으로서 대도시 지역 중심으로 공급된 독신자 주거 공간이었다. 그러나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 중일전쟁 격화로 상당수의 아파트가 호텔로 전용되었고, 광복 이후 미군정에 접수되어 미군 가족이나 고문단 등의 거처로 사용되었다. 이후 도시 확장과 변화 과정에서 가족용 단지형 아파트로 자리 잡았다.

특히 1950년대 후반 이후에는 기존의 임대 위주 방식과 달리 임대와 분양 방식이 함께 적용되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는 담장을 두르고 내부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춘 단지식 아파트로 고착되고, 선분양 방식이 채택되었다. 1970년대 초반에는 이를 더욱 강화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과 관계 법령이 속속 마련되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과 주민공동시설 설치가 법률로 강제되고 오늘날과 같은 아파트단지로 보편화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독신자용 거처이자 도심형 주택 유형으로서의 아파트는 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의 행정구역 확대와 함께 외곽의 신시가지 조성이 잇따르면서 처음 모습과는 다른 유형으로 탈바꿈해 가족용 주택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욕망하는 보편적 주택유형으로 자리 잡기에 이르렀다.

참고문헌 대한민국 아파트 발굴사(박진희·장림종, 효형출판, 2009), 아파트(박철수, 마티, 2013), 아파트 한국사회(박인석, 현암사, 2013), 일제강점기 근대시설의 모더니즘 수용(강상훈,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한국공동주택계획의 역사(공동주택연구회, 세진사, 1999).

필자 박철수(朴哲守)

안거리·밖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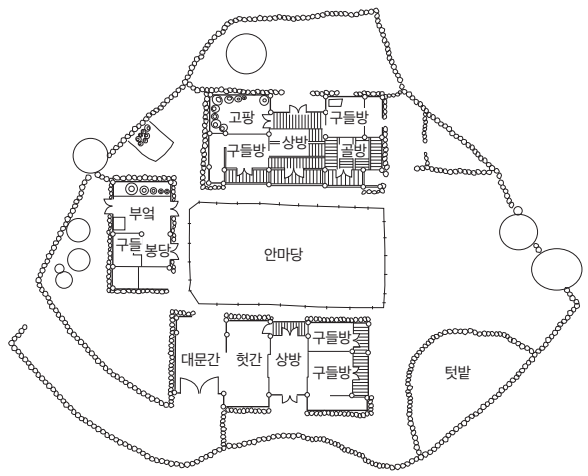
정의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함께 살 경우 안채와 바깥채로 나누어 공간을 배치하는 제주도 지역의 주거 형태.

개관 살림이 어렵거나 식구가 단출한 경우는 안거리 한곳에 살았으며, 살림에 여유가 있거나 여러 세대가 모여 살면 안거리 맞은편에 밖거리를 두어 마주 보며 살았다. 제주도 말로 '거리'란 채를 이르며 안거리는 안채, 밖거리는 바깥채, 모서리에 두었다는 뜻의 모커리 또는 묵거리는 별채를 일컫는다. 제주도에서 안채와 바깥채는 세대별로 사용 건물이 달랐다. 대개 안거리는 부모가, 밖거리는 자식 세대가 사용하였다. 부모 중 한쪽이 사망하거나 고령이 되면 자식 세대가 안거리로 옮기고 부모 세대는 밖거리로 옮겼다. 생애주기의 일정한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내용 제주도 가옥은 마당을 중심으로 안거리(안채), 밖거리(바깥채), 모커리(별채)로 공간이 구성되고 'ㅁ'자 형을 이룬다. 안거리, 밖거리라고 이름을 달리 불렀지만 규모나 재료 등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안거리와 밖거리에는 각각 상방(마루), 구들(방), 정지(부엌), 고팡(곳간)이 있다. 그 분리된 공간에서 부모와 자식 세대의 독립적인 생활이 이루어진다. 안거리와 밖거리는 저마다 공간이 있지만 조상 제사를 지내는 일(상방), 제사를 준비하는 일(정지), 제주용 제수를 보관하는 일(고팡) 등은 안거리에서만 할 수 있다. 가정의례가 통합되었다는 증거이다.

제주도에서는 안채와 바깥채를 쓰는 부모와 자식들이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다. 안채와 바깥채가 독립적으로 살림할 수 있는 부엌과 장독대를 따로 갖추었고, 먹고 자는 것은 물론 딸린 밭도 달랐기 때문이다. 즉 경제의 분리와 독립이 이루어져 있었다. 취사와 생활을 달리 하지만 필요에 따라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부모 중에 아픈 사람이 있을 경우 집안사람의 생일 등 특별한 날에는 함께 모여 식사를 하였고, 그 외의 경우는 독립적으로 밥을 해 먹었다. 한 가족이지만 두 가족이고 두 가족이지만 한 가족 소속으로 공동의 의례를 치렀다. 과거 공동체문화가 강한 현실 속에서도 젊은 세대의 독자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었다는 점을 보더라도 제주도 문화가 지향하는 세대 간 배려를 읽을 수 있다. 근대문명이 '개인의 발견'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권위적 질서를 극복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데 반해 공감과 공생과 공존의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제주의 안거리 밖거리 문화는 개인과 공동체를 함께 아우르는 '따로 또 같이'의 정신이다. 따로 살면서도 함께하고 함께하면서도 독립 생활을 누리는, 대등하고 평화로운 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거릿길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대문 대신 가로로 걸쳐 놓은 길고 굵직한 나무를 '정낭'이라 한다(『제주어사전』). 제주만의 독특한 대문 형식이다. 나무를 걸쳐 놓는 대문 형식은 동남아와 스리랑카 지역에 두루 퍼져 있는 남방식 문화이다. 그러나



제주도 민가 배치평면도 —자형 살림채 튼 ㄷ자집 | 강영환

제주에 정낭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세거리집은 대개 정낭을 해 놓고 네거리집은 대문을 달아 놓았다. 세거리나 네거리는 대개 안거리와 밖거리로 나누어진다. 안과 밖에 정지(부엌)를 두어 부엌을 분리한 것으로, 취사만의 분리가 아니라 생활 단위의 분리이다. 할아버지·아버지·손자 3대가 함께 살던 전통적 가족 형태 속에서 늘 부딪치는 문제가 고부간 갈등이다. 제주의 안거리와 밖거리의 분리는 함께 살면서도 고부간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세대별 독립생활 방식을 가능하게 한다. '안거리 밖거리 주거 형태'는 3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 미학, 공생 과학, 공존 철학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후면 노인만 사는 집이 지금의 두세 배로 늘어 노인문제가 심각해지고, 3대가 함께 모여 사는 집은 1%로 줄어든다고 한다. 자신을 낳고 길러 준 부모를 함께 모시고 살면서도 세대별로 독립생활이 유지된다면 지금 겪고 있는 우려와 폐단은 상당히 없어질 것이다. 21세기는 제주의 안거리·밖거리 문화를 배워 풍요로운 가족 형태를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제주는 과거 전통을 잘 지키고 보전해 온 곳이다. 이러한 과거 전통 속에 미래가 담겨 있다. '오래된 미래'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신화(허남춘, 보고사, 2011), 제주도지7(제주도지편찬위원회, 제주도, 2006), 제주 성읍마을(김영돈, 대원사, 1989), 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jeju.grandculture.net).

필자 허남춘(許南春)

안동 하회마을

정의 13세기 고려 말 전서 류종혜柳從惠가 이곳에 자리를 잡은 이후 풍산류씨豊山柳氏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씨족마을.

개관 안동 하회마을은 풍산류씨豊山柳氏 집성촌으로, 13세기 고려 말 전서 류종혜가 이곳에 자리를 잡으면서 시작되었다. 하회마을에 터를 잡기 전, 마을에는 허씨와 안씨 일가가 살았다. 하회마을은 화산 기슭이 아닌 끝자락이 서쪽 화천(낙동강)으로 흐르는 지맥 위에 화천이 마을의 삼면을 감싸 흐르는 곳에 터를 잡았다. 풍산류씨의 하회마을이 번창하게 된 시기는 류종혜의 5세손인 입암立巖 류중영柳仲郢(1515~1573)과 입암의 두 아들 겸암謙庵 류운룡柳雲龍(1539~1601),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1542~1607) 때부터이다. 마을이 들어설 자리는 당시 울창한 숲이었으며, 주변은 웅덩이와 습지로 되어 있었다. 이후 하회마을은 입향조 류종혜가 터를 잡은 뒤 지형적으로 낮은 곳을 메워 터를 확장하였다. 하회마을은 배산임수의 보편적 풍수 관점에서 터를 잡지 않고 주변의 자연경관과 지리체계를 고려해 터전을 잡았다. 그리고 마을의 건축물들이 위계질서에 따라 종택에서 소종가로 분가하면서 씨족마을의 면모를 갖추었다. 현재 하회마을의 종가를 비롯한 여러 건축물들은 이 마을의 인문지리적 환경과 자연환경을 품으면서 개별적으로 독특한 경관을 소유하고 있다.

내용 1. 마을의 전개: 하회마을은 가세가 번창하면서 양진당과 충효당을 건립한 후 서애 류성룡의 후손들이 주일재와 남촌댁을 지어 남동쪽으로 주거공간을 확장하였다. 이후 하회마을은 동측으로 하동고택, 류성하 가옥, 류시광 가옥 등이 들어서면서 남촌지역 주거공간을 갖추었다. 마지막으로 하회마을은 삼신당 당나무를 등지고 북촌댁과 주변 가옥, 북촌댁에 딸린 가랍집을 지으면서 주거지를 북쪽지역으로 확장하였다. 이로써 하회마을은 삼신당의 당나무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모든 방향을 취할 수 있는 주거군을 형성하였다. 이후 하회마을은 높은 자리에 터를 잡은 고택 중심으로 강변과 농경지, 진입로 쪽으로 확장하게 된다. 그리고 하회마을은 강변을 따라 심은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다.

일제강점기 이후 근대기 하회마을은 면내 행정 중심지이면서 물류 집산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1919년에 개교한 풍남국민학교는 면사무소와 지서가 이주한 이후 역사가 가장 오래 된 교육시설 역할을 하였다. 하회마을에는 일제강점기 초기 300호

에 가까운 가옥이 있었고, 1979년 조사로는 160호 정도가 있었다. 근대기의 하회마을은 외부의 요구로 마을의 경관과 질서가 바뀌기 시작하였다. 가장 큰 요인은 일제에 의한 국민학교(초등학교) 및 면사무소, 지서, 교회 등 공공시설 신축과 1934년 홍수로 인한 가옥 멸실이었다. 새로운 근현대 건축물의 등장과 기존 전통가옥의 멸실로 하회마을의 경관 및 공간 구조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리고 현대적 설비인 전기의 공급으로 생활문화가 점진적으로 근대화되었으며, 특히 1960~1970년대에 새마을운동으로 주변 경관이 바뀌기 시작하였다.

1970~1980년대 농촌지역의 이농으로 하회마을은 빈집이 급증하였고, 이들 공가는 자연적으로 소멸하여 공대지로 바뀌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농경지 정리, 전기 도입 등은 하회마을의 주거환경 변화를 촉진시켰고, 지붕 재료의 변화 등으로 마을 경관이 빠르게 바뀌었다. 하회마을은 1978년에 시멘트 양식 기와와 슬레이트를 올린 가옥들이 건립되기 시작하였다. 2002년 이후 하회마을은 마을 보존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마을 주민의 의지로 신축과 증축 건물이 늘어났다. 하회마을은 1980년 12월 30일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23호로 지정되었다가 1984년 1월 10일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제122호로 변경 지정되어 중앙정부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하회마을은 2010년 7월 31일 경주 양동마을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회마을은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시설물, 관광객을 위한 숙박 및 판매 시설과 이와 관련된 설치물과 관리시설 등이 기존 경관을 바꿔 놓기 시작하였다. 마을 내 주차시설과 보관시설 부족으로 인해 방치된 차량과 농기계 등도 가옥 주변의 경관을 깨뜨리고 있다.

2. 마을의 공간구조: 마을 및 건축 공간에는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보편적 가치와 그들만의 고유한 가치가 있다. 또한 유·무형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회마을은 마을 동쪽의 화산 자락으로 낙동강이 흘러 돌아가면서 만든 퇴적층에 자리하고 있다. 마을의 이름인 '하회河回'는 '강이 휘돌아 흐른다'라는 뜻이다. 이는 낙동강이 마을의 삼면을 크게 휘감으며 흐르는 데서 유래하였다. 하회마을의 지형은 위에서 내려다보았을 때 산과 강이 감싸 도는 모습이 각각 태극형太極形을 이루고 있다고 해서 '산태극수태극'이라고 불린다. 마치 연꽃이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모양이라 해서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이라고도 한다. 또는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모양과 같다고 하여 '행주형行舟形'이라고도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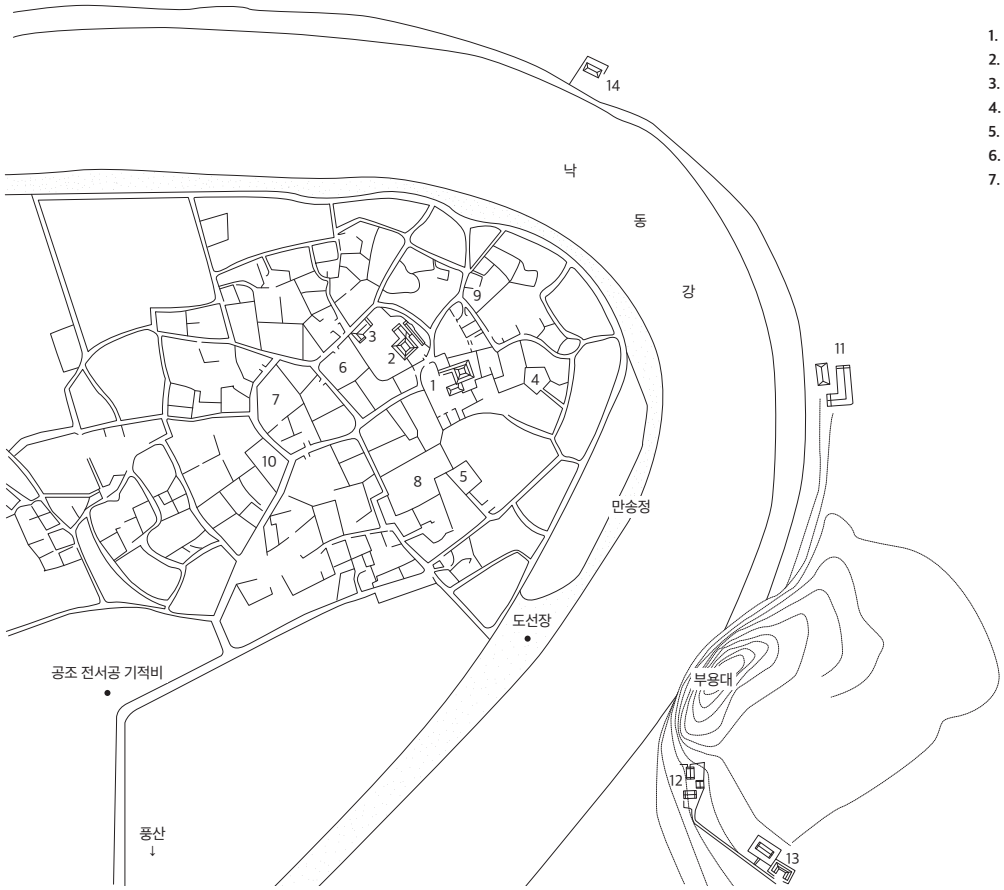
안동 하회마을은 종택 및 가옥의 주생활 영역, 상당과 중당과 삼신당, 주변 자연 경관인 화산, 화천, 만송정, 부용대의 의식 영역, 농경지의 생산활동 영역으로 나뉜다. 화천은 동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낙동강의 본류로 남쪽과 서쪽, 북쪽 면을 휘감아 흐르고 있다. 그리고 마을 주변은 크고 작은 산들이 주변 경관을 구성하고 있으며, 마을 동쪽에 화산이 있다. 따라서 하회마을은 동쪽을 제외한 남쪽, 북쪽, 서쪽 면이 화천 방향으로 경사져 있다.

하회마을의 주산인 화산이 마을의 동쪽 농경지 너머에 있으므로 하회마을의 토지이용은 일반적인 전통마을과 달리 농경지가 화산과 마을을 연결하고 있다. 마을과 농경지는 1981년 조성된 남쪽 제방의 보호를 받고 있다. 하회마을을 향한 지맥은 화산에서 서쪽을 향한 산 능선을 따라 흐른다. 첫 능선 위에는 상당이 있고, 또 다른 남쪽 능선 끝자락에 중당이 있다. 그리고 마을을 향한 지맥은 중당 지맥의 남쪽 능선을 따라 흐른 후 농경지를 거쳐 마을을 지나간다.

마을을 향한 지맥은 생산활동 영역인 농경지를 남측과 북측으로 양분한 후 마을 속으로 휘어 돌아 들어가면서 마을의 독특한 지형을 만들었다. 마을 속으로 흐르는 지맥의 능선과 지맥이 흐르는 주변에는 가옥과 삼신당 그리고 마을 길 등이 있다. 마을의 주생활 영역은 지맥 흐름으로 높낮이가 달라 다양한 지형조건을 갖고 있다. 초기에 터를 잡은 과거 사람들도 분명히 이런 지형 흐름을 인식하였다.

3. 건축 공간

1) 누정건축: 하회마을은 조선시대 씨족마을로,



마을 배치도 | 경북 안동 하회 | 2014 | 대원사

양반들의 생활과 가치를 담고 있는 공간이 잘 보전되어 있는 마을이다. 하회마을은 유교문화가 살아 있는 종가의 살림집, 정사 및 정자, 서원 등 역사적 건축물들을 다른 마을에 비해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 외 마을은 인문적으로 빼어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하였다. 그들의 학문적 깊이와 발자취를 읽을 수 있는 전적, 고문서, 문집 등이 전해오고 있으며, 주민의 생활문화와 민속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양반과 평민 계층의 무형유산이 오늘날까지 잘 전승되고 있다.

유·무형의 문화유산 중 의식영역에 속하는 유산은 양반의 가치관과 자연관, 의식세계를 엿볼 수 있는 누정건축과 서원건축, 민속신앙 관련 건축물들이다. 특히 누정건축과 서원건축은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독특한 건축 공간을 구현한다. 하회마을의 누정건축으로는 겸암정사, 빈연정사, 옥연정사, 원지정사가 있으며, 서원건축으로는 화천서원과 병산서원이 있다.

겸암 선생은 부용대 남쪽의 겸암정사와 마을 내 빈연정사를 지었고, 서애 선생은 부용대 동쪽에 옥연정사와 마을에 원지정사를 지었다. 특히 겸암정사와 옥연정사는 산과 강이 주변을 감싸고 있으므로 조경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그리고 이들 건물은 강 건너 만송정과 마을, 멀리 화산이 또 다른 경관을 만들고 있기에 건물 내에 조경하기보다 외부의 경관을 잘 받아들이는 구조이다. 마을 내 원지정사와 빈연정사는 담장 너머로 만송정과 화천, 부용대 그리고 겸암정사와 옥연정사를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이들 정사와 정자 주변의 자연경관은 이들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곳을 자주 사용하였던 사람들의 가치관과 자연관을 엿볼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이다.

2) 서원 관련 건축 공간: 하회마을에 서원은 병산서원과 화천서원 두 곳이 있다. 병산서원은 풍산류씨 가문의 서당인 풍악서당이 전신이다. 풍악서당은 원래 풍산에 있었으나 1572년 서애 류성룡이 31세 때



마을 전경 | 경북 안동 하회 | 최지현

후학 양성을 위해 현 위치로 옮겼다. 서애 선생 사후 1614년에 서애 류성룡을 흠모하던 제자들과 유학자들이 서애 류성룡을 모시는 사당 존덕사를 세우고 강학과 제향 공간을 모두 갖추면서 서원으로 격상되었다. 서원은 하회마을의 주산인 화산의 동남쪽 경사면에 있다. 서원 앞으로 낙동강이 흐르고 강 건너에는 병산이 있다. 병산은 앞산이 병풍처럼 펼쳐진 형상을 하고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병산서원의 배치는 경사진 대지를 적절히 이용한 터 위에 자리한 건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문—누각—강당이 중심축을 이루고 있으며, 이 축 뒤쪽에서 동쪽으로 약간 벗어난 곳에 사당 존덕사가 있다. 따라서 병산서원은 전면에 개방형 누각을 조성하여 외부의 자연경관을 마음껏 즐긴 영남지방 대표 서원이다. 병산서원은 서원과 주변 자연이 만들어 내는 아름다운 경관으로 유명하다. 특히 만대루에서 바라본 병산과 낙동강의 경치는 일품이다. 이들 경치를 노래한 <병산 10절>이라는 시도 있다.

화천서원은 겸암 류운룡을 기리기 위해 지방 유림이 1786년에 세운 사당 경덕사에서 시작되었다. 1802년에 강당인 숭교당을 짓고 1822년에 문루인 지산루를 지으면서 서원 모습을 갖추었다. 화천서원은 부용대 동쪽 산기슭에 자리 잡은 옥연정사의 동북쪽에 있다. 서원 이름은 부용대 앞을 흐르는 낙동강 이름인 화천을 딴 것이다. 화천서원은 1868년 흥선대원군이 내린 서원철폐령으로 강당과 살림집으로 쓰인 주소만 남고 헐려 한동안 화천서당으로 불리다가 1994년 가을에 복설되었다.

3) 민속신앙 공간: 과거 한국의 마을에는 마을을 지키는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민속신앙 관련 전통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제관이 되어 주관하는 제사인 동제와 기타 의식에는 연극이나 놀이 등의 오락적 요소가 포함된다. 동제는 주민 간 결속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한다. 하회마을의 동제는 매년 정월대보름과 사월 초파일에 행한다. 정월대보름 밤에는 상당(서낭당)과 중당(국신당, 국시당)에서 동제를 지내고 이튿


양진당


충효당


양오당 고택


화경당 고택

하회마을 | 경북 안동 | 최지현

날 아침 삼신당에 제를 올린다.

제의는 아침 8시경 상당에서 시작한다. 상당 제물은 그대로 중당으로 옮겨 사용하고 중당에서 음복한다. 상당은 '서낭당 김씨 할매'라고도 부른다. 서낭당은 하회의 터주로, 하회별신굿의 신앙 대상이기도 하다. 이렇게 서낭당이 온전하게 남아 있고 수백 년 전의 제의적 전통에 따라 동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중당은 국사당이라고도 하며, 서낭당에 오르는 화산 기슭 오른편에 있다. 삼신당은 마을 한가운데에 있다. 수령이 600여년 된 느티나무이다. 상당은 화산에서 마을로 흐르는 능선 위에 단칸 규모의 건물을 지어 사용하고 있고, 상당의 사면은 산의 나무숲으로 둘러싸여 있다. 중당은 화산의 산자락과 농경지가 만나는 곳에 자리하였다. 중당도 단칸 규모의 건물을 지어 사용하고 있다. 중당 주변에는 묘와 커다란 소나무와 전답이 있다.

4) 종가 및 기타 살림집: 현재 하회마을에 있는 문화유산은 겸암 류운룡과 서애 류성룡 두 형제와 자손들이 남긴 것이 대부분이다. 하회마을 관련 문화유산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가 있다.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는 하회탈과 병산탈 및 『징비록懲毖錄』이 있다. 보물은 류성룡 종손가 문적, 양진당, 충효당, 류성룡 종손가 유물이 있다. 사적은 병산서원, 천연기념물은 만송정 숲이 있다. 중요민속자료는 화경당, 원지정사, 빈연정사, 옥연정사, 겸암정사, 염행당, 양오당, 하회마을, 작천고택, 하동고택이 있다. 중요무형문화재는 하회별신굿 탈놀이, 도지정문화재 민속자료는 안동 지산고택이 있다.

양진당養眞堂은 입암 류중영의 장자 겸암 류운룡의 종택으로, 1600년대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양진당은 풍산류씨 대종택으로서 류중영의 종택이기도 하다. 양진당은 풍산류씨 하회마을 입향조 전서 류종혜가 처음 자리를 잡은 곳에 지었다. 양진당에는 류중영의 호를 빌려 '입암고택'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양진당은 류운룡의 6세손 류영(1687~1761)의 어릴 때 이름에서 따 온 것이다. 양진당 내부에는 한석봉이

쓴 '양진당'이란 당호와 함께 여러 현판이 걸려 있다. 안채와 사랑채, 대문채(행랑채), 사당, 기타 부속채로 구성되어 있다. 안채는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다시 지었으며, 화재로 손상된 흔적이 안채와 맞닿은 사랑채 부분에 남아 있다. 양진당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306호로 지정되었다.

충효당忠孝堂은 서애 류성룡의 종택으로, 1600년대에 지은 고택이다. 종택은 서애 류성룡의 손자 졸재 류원지(1598~1674)가 서애 선생을 흠모하여 유림과 제자들과 함께 내당인 안채를 조성하였다. 이후 서애 선생의 증손인 눌재 류의하(1616~1698)가 'ㅁ'자형 안채에 사랑채를 증축하여 완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류성룡의 8세손 류상조는 행랑채를 지었다. 충효당의 당호는 서애 선생이 평소 자손들에게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라는 말을 자주 하였기에 이를 따른 것이다. 충효당은 안채와 사랑채, 행랑채, 사당, 영모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충효당은 서로 연접한 '一'자형 사랑채와 'ㅁ'자형 안채의 정면에 '一'자형 행랑채가 있고, 사랑채 뒤로 사당이 있다. 사당 정면에는 영모각이 있다. 충효당은 1964년 11월 14일 보물 제414호로 지정되었다.

양오당養吾堂은 서애 류성룡의 증손 류만하가 충효당에서 분가하면서 지은 고택이다. 양호당은 이후 류만하의 아들 주일재 류후장(1650~1706)이 확장하여 당호를 류후장의 호를 따라 최근까지 주일재라고 불렸다. 양오당은 안채, 사랑채, 문간채, 일각문, 방앗간채, 사당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전통가옥이다. 양호당은 초기 진입부를 바꾸면서 대문채를 두지 않고 길을 따라 쌓은 담장의 열린 부분으로 출입하며, 문간채 앞에는 내외 벽이 있다. 양호당의 채 구성은 문간채와 접한 사랑채가 '一'자형으로 길게 놓여 있고, 그 뒤편에 모두 '一'자형인 안채와 광채·협문간채가 있다. 안채 좌측에 사당이 있다. 양오당은 1979년 1월 23일 중요민속자료 제91호로 지정된 후 여러 차례 수리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화경당和敬堂은 조선 후기 전통가옥으로 1862년 경상도도사慶尙道都事를 지낸 류도성이 건립한 이후 여러 차례 보수하여 오늘에 이른 고택이다. 화경당은 안채와 사랑채, 대문채, 별당채, 사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채는 안마당을 중심으로 안채와 사랑채가 연접하여 'ㅁ'자형을 이루고 있다. 본채 뒤쪽에 사당, 좌측에 별당채, 정면에 '一'자형 문간채가 각각 있다. 화경당은 1979년 1월 23일 중요민속자료 제84호로 지정되었다. 화경당은 북측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품고 있으면서 유교문화와 민속문화의 전통을 잘 유지하고 있는 조선시대 양반가옥으로, 양진당과 함께 하회 북촌지역을 대표하는 큰 집이다.

염행당念行堂은 류성룡의 9세 손 류치목(1771~1836)이 현 위치로 분가해 나오면서 지은 고택이다. 염행당은 원래 단출한 가옥이었으나 19세기 말 류치



당산목(삼신당) | 경북 안동 하회 | 최지현



중양절 차례 | 경북 안동 하회 | 국립민속박물관



하회별신굿탈놀이 | 경북 안동 하회 | 최지현

목의 손자 류기영(1824~1880)에 의해 크게 확장되었다. 염행당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고택으로, 하회마을에서 잘 지은 고택에 속한다. 염행당은 대문간채, 본채, 사당, 별당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1954년 음력 6월 본채가 소실되었다. 사랑채와 안채로 구성된 본채 자리에 최근까지 초석 일부만 남아 있는 것을 중건하였다.

작천고택鵲泉古宅은 류도관이 살았던 곳으로, 그의 호를 따라 작천고택이라 불리고 있다. 1979년 1월 23일 중요민속자료 제87호로 지정되었다. 작천고택은 마을의 서남쪽에 있다. 작천고택은 안채와 별채, 문간채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1934년 대홍수로 문간채가 유실되면서 현재 안채와 별채만 남아 있다. 안채는 목조 기와집이고, 별채는 목조 초가집이다. 작천고택은 안채와 사랑채가 독립채로 있지 않고 한 채 안에서 실을 달리하고 있다. 작천고택은 안채 영역과 사랑채 영역 사이에 내·외담을 쌓아 영역을 구분하였다. 이는 규모가 작은 반가 또는 와가에서 유교예법을 따른 것이다.

하동고택河東古宅은 동서로 난 마을 중심 안길의 남쪽 경사면에 터를 잡고 북향을 하고 있다. 고택은 남촌지역 동측에 위치하여 안길 남측에 앉아 북향하고 있어 하동고택이라고 하였다. 하동고택은 지금의 예천 용궁현감을 지낸 눌헌 류교목(1810~1874)이 1836년에 세웠다. 이후 하동고택은 우천 류단하의 아버지 류시익이 1953년 인수하였고, 이 집은 '하회마을 선비의 집'으로 알려졌다. 하동고택은 대문간채, 안채, 사랑채, 중문간채로 구성되어 있다. 'ㅁ'자형 중정을 중심으로 안채와 사랑채, 중문간채가 서로 마주보고 있다. 문간채는 초가지붕이고, 나머지는 모두 기와지붕을 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하회마을과 마을의 건축 공간은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보편적 가치와 그들만의 고유한 가치가 있다. 또한 유·무형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회마을은 조선시대 유교사회의 특징인 정주형 씨족마을로, 가장 완전하고 대표적인 마을이다. 마을에는 전적과 고문서, 전승되고 있는 유교의례, 마을의 민속신앙과 민속놀이 등 유·무형의 씨족마을 문화가 살아 있다. 마을의 종택과 기타 가옥·정사·정자·서원·서당 등은 유교이념, 환경친화성, 자연과의 조화를 예술적·기술적으로 탁월하게 반영한 한국 전통건축 공간이다.

참고문헌 안동 하회마을(신영훈, 조선일보사, 2005), 전통 역사마을 하회(이상해, 부운디자인, 2010), 하회마을(이상해·정승모, 솔, 2007), 하회마을의 세계(임재해 외, 민속원,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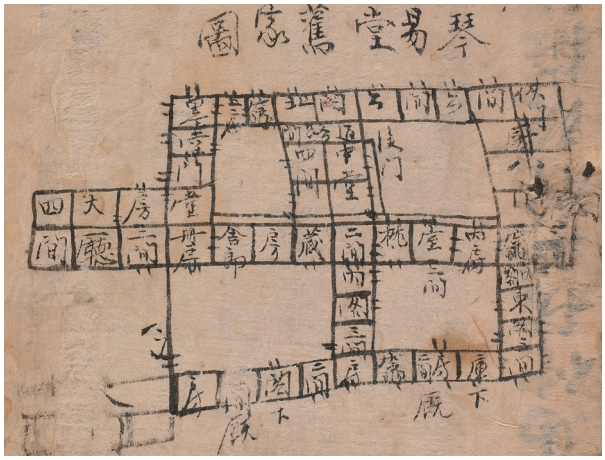
필자 정연상(鄭淵相)

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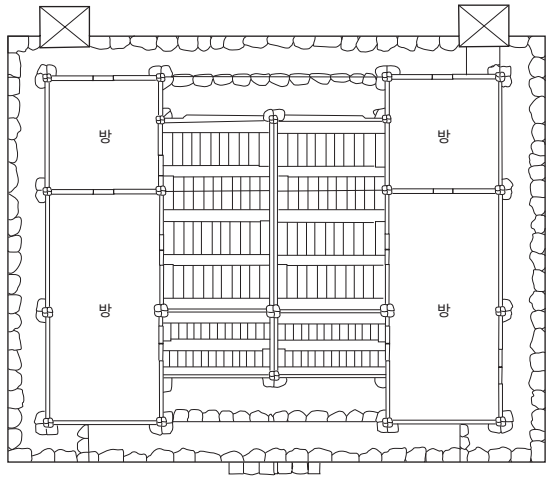
정의 사람들이 생활하는 살림집에서 밥을 짓는 부엌에 붙어 있는 넓은 방으로, 집안 살림을 하는 주부가 주로 사용하는 방.

내용 안방이란 말은 유교의 내외윤리가 일반화되자 살림채에서 방의 용도가 변화되면서 등장하였다. 실제로 안방의 건축구조적 위치는 밥을 짓는 부엌에 붙어 있다. 규모가 큰 사대부 주택이든 소규모 서민주택이든 안방은 부엌에 연결되어 있는 넓은 방이었다. 자연히 안방의 주 사용자는 부엌에서 조리, 음식 배분, 상차림, 설거지 등을 책임지는 주부였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살림집으로 남아 있는 충청남도 아산의 맹씨행단孟氏杏壇은 본래 고려 말 최



금역당 구가도 | 흥해배씨 임연재 종택



아산 맹씨 행단 평면도 | 강영환

안방

영崔瑩 장군의 집을 조선 초에 손녀사위 맹사성孟思誠에게 물려준 집으로, 안채와 사랑채의 구분이 없다. 16세기 건물로 알려진 경상북도 안동의 하회마을 풍산류씨豊山柳氏 대종택인 양진당養眞堂의 경우 사랑채가 안채보다 후대에 축조된 흔적이 역력하다. 이로 미루어 살림채에서 사랑채가 분화되기 시작한 초기의 건물로 판단된다. 안동에 있는 임연재臨淵齋 배삼익裵三益 종택인 금역당琴易堂은 1558년에 지어진 것으로, 18세기 전기의 건축 평면도가 전해지고 있다. 「금역당 구가도舊家圖」라는 평면도를 보면 '주廚'와 '조竈'에 연접한 곳에 '내방이간內房二間'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내방은 오늘날의 안방에 해당하며, 당시에도 평소에는 우리말로 '안방'이라고 불렀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인의 살림집에서 안방은 용도가 가장 다양한 공간이었다. 취침, 식사, 여성 손님맞이, 단란, 출산, 육아, 바느질, 베짜기, 다림질, 다듬이질, 메주 띄우기, 나물 다듬기, 콩나물 기르기, 떡 만들기, 음식 만들기 등 집안의 여러 가지 일을 안방에서 하였다. 그러므로 안방은 다른 방에 비하여 비중이 큰 방이었고, 쓰임이 다양해서 여러 가지 기물이 안방에 있었다. 게다가 전통사회에서는 가족 규모가 지금보다 커서 주부가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려면 안방이 다른 방보다 넓어야 했다.

전통사회의 안방은 땔감으로 난방을 하는 온돌방이었다. 방바닥은 부엌에서 땐 불기운이 강한 아랫목과 불기운이 약한 윗목으로 나뉘었다. 추운 계절에는 안방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연장자와 같이 서열이 높은 사람은 아랫목에 앉고 서열이 낮은 사람은 윗목에 앉았다. 겨울철 안방 아랫목에는 보온할 필요가 있는 메주, 숙성 중인 막걸리, 밥주발 등과 같은 음식이나 물품을 두고 이불을 덮어 두는 일이 잦았다. 겨울에는 추위를 타지 않도록 콩나물시루도 아랫목에 설치하여 콩나물을 길렀다. 추위가 심할 때는 안방에 화로를 피워 된장뚝배기 같은 음식을 데워 먹기도 하고 밤이나 고구마 등을 구워 먹기도 하였다.

전통적으로 상류층의 안방에는 장과 농을 두고 거기에 옷을 보관하였다. 서민가의 안방에는 옷을 바구니에 담아 시렁 위에 올려 두는 예가 많았다. 또한 옷을 횃대에 많이 걸고 그 위에 횃대보를 덮어 정리하곤 하였다.

안방 한쪽 높은 곳에는 삼신이라는 가신家神을 모셨고, 이따금 삼신을 위한 의례를 행하였다. 안방은 산실로도 사용되었다. 육아를 하는 방이었기 때문이다. 삼신은 아기를 점지해 주고, 순산하도록 도우며, 10세 무렵까지 잘 자라도록 돌보는 역할을 한다고 믿었다. 아기가 태어나면 할머니가 삼신에게 감사의 뜻으로 상을 차려서 비손을 하고 무병장수를 빌었다. 주부들은 해마다 일정한 날 혹은 아기가 아픈 날에 삼신상을 차려 놓고 아기가 잘 자라도록 빌었다.

오늘날 안방은 전통 안방의 다양한 기능 가운데 일부만 수행하고 있다. 가구원 수가 감소한 이유도 크지만 서양식의 거실[living room]이 가족을 위한 공간이

자 접빈 공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안방 기능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안방의 용도가 크게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안방이라 부르고 있다. 하지만 이제 안방은 주부의 방이 아니라 부부의 방이 되었다.

특징 및 의의 안방은 사랑방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조선 중기에 유교의 종법宗法과 내외윤리가 중시되면서 안채로부터 사랑채가 분화되었다. 사랑채가 분화되기 전에는 살림채에서 가장 넓은 방이 난방과 취사를 겸하는 부엌에 붙어 있었다. 이를 '큰방'으로 불렀다. 안채에서 사랑채가 분화된 후로는 큰방을 차츰 '안방'이라 부르게 되었다. 지금까지도 큰방이라는 말과 안방이라는 말이 혼용되고 있는 것은 그런 까닭이다. 사랑채가 없던 시대에는 살림채에서 핵심이 되는 공간이 취사와 난방을 겸하는 부엌과 그에 접한 안방이었다. 부엌에서 불을 때 밥을 짓는 일은 주부의 몫이었으므로 안방은 자연히 그 집에서 주부권主婦權을 행사하는 여성의 방이었다. 주부가 며느리를 맞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서 며느리가 가풍을 익히고 나면 '안방물림'이라 하여 안방을 며느리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아랫방 혹은 상방으로 물러나서 지냈다.

안방은 정말 다용도로 이용되었다. 어린아이들도 안방에서 어머니와 함께 기거하였으므로 다른 방보다 면적이 넓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안방은 가족생활의 기본 공간이면서 주부 중심 방이었고 여러 가족이 모일 수 있는 회합 공간이기도 하였다. 현대에 와서 서양식 단독주택과 아파트에도 안방이 있지만 그 기능이 종전보다 대폭 축소되어 부부의 방으로 자리 잡았다. '부부유별'의 규범이 주거공간에서 사라지면서 안방은 '부부공동' 공간이 되었다.

참고문헌 민속학으로 읽는 민가 주거문화의 전통(배영동, 건축54-3, 대한건축학회, 2010), 유교이념의 실천공간으로서 주거(배영동, 유교민속의 연구시각, 한국국학진흥원, 2006), 종가의 사당을 통해본 조상관(배영동, 한국민속학39, 한국민속학회, 2004), 주거공간 이용과 집 다스리기의 전통(배영동, 비교민속학26, 비교민속학회, 2004), 흥해배씨 종가 금역당의 건축과 조선후기의 구조변화(이종서, 건축역사연구25-4, 한국건축역사학회, 2016).

필자 배영동(裵永東)

안방물림

정의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안방을 물려주는 행위.

내용 안방물림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안방을 물려주는 일을 말한다. 생전에 안방물림을 하는 경우는 경상북도 북부지역에서 보인다. 기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시어머니가 죽은 후에 며느리가 안방을 물려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안방물림 때 시어머니가 60세 전후가 되었을 때 며느리에게 안방을 내어주고, 이때 곡간 열쇠 등도 함께 건네준다. 이때는 며느리가 집안일도 익숙해 있고 시어머니가 일을 추려나가기에도 힘이 든다고 생각되는 시기이다. 경북 북부지역에서는 안방물림 조건으로 첫째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하고, 둘째 제사를 잘 지내고, 셋째 접빈객을 잘 맞이할 줄 아는 것 등을 달았다.

과거 시아버지가 관직에 있다가 은퇴하였을 때 큰사랑방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이때에 맞추어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 안방을 물려주기도 하였다.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돌아가시면 안방을 물려받기도 하였다. 사례는 적지만 혼인해서 들어온 며느리에게 바로 안방을 물려주는 경우도 있다. 이는 며느리의 세간살이가 많아 작은방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그러나 현재 분가가 보편화되면서 안방물림 풍속은 자연스레 사라지고 있다.

안채는 보통 안방과 건넌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안방은 건넌방에 비해 규모가 크고 가구 등 살림살이도 갖추어져 있다. 또한 안방은 부엌이 딸려 있어 안주인이 부엌을 수시로 편하게 드나들 수 있으며, 안방에서 부엌 쪽으로 낸 다락방은 안주인의 잡동사니 물품 등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결국 안방에 기거하는 여주인은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집안일을 운영하는 권한이 있다.

종가댁이나 양반댁에서는 안방물림이 있을 때 큰 잔치를 하였다. 좋은 날을 택하여 안방물림 날로 정하고 음식을 장만하여 친척과 마을 사람들, 그 집안과 거래하던 사람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푼 후 많은 사

람 앞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열쇠꾸러미를 넘겨주었다. 열쇠꾸러미를 물려받은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큰절을 하였다. 잔치가 끝나면 시어머니의 살림은 며느리가 사용하던 건넌방으로, 며느리의 살림은 안방으로 옮겨졌다.

특징 및 의의 안방물림은 가정의 안주인으로 인정받는 것이고, 열쇠꾸러미 전달은 살림권을 양도하는 의식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시어머니가 죽은 후에 안방을 차지하였으며, 안방을 차지할 때 며느리의 나이는 가정 상황에 따라 달랐다. 시어머니가 장수하는 경우 며느리는 며느리를 또 얻어도 작은방 생활은 지속되었다.

참고문헌 은거제도의 분포와 유형에 관한 연구(이광규, 한국문화인류학7, 한국문화인류학회, 1975), 한국가족의 구조분석(이광규, 일지사, 1975), 한국가족제도연구(김두헌, 서울대학교출판부, 196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정연학(鄭然鶴)

안석
案席

정의 바닥에 앉아 몸을 기댈 때 사용하는 방석.

개관 안석案席은 『광재물보廣才物譜』에 '언석偃席'이라 표기되어 있고, '안셕'이라고 발음된다. 옥편 등에는 안석案席 외에도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한자로 '안식案息'을 병용하고 있다. 뜻은 모두 '앉아서 몸을 기대는 방석'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안석案席이 '언석'과 '안식案息'으로도 쓰였다고 할 수 있다. 또 궤几를 '안석 궤'라고 하는데 궤를 '안석 궤'라 하면서 '빙좌凭坐'라 설명하여 안석이 '빙좌(기대어 앉는 것)'라 하고 있다. 이는 안석으로 불리기 전에 '궤几로 표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세종실록世宗實錄』(세종 20, 9월 7일)에 '각 고을에서 사명을 영접할 때 침소의 휘장·안석案席·베개 등을 다투어 능단을 사용한다.'(各道各官使命迎接時 寢帳案枕 競用綾緞)고 하였다. 조선 초기에도 안석이 사용되었고, 비단 등으로 화려하게 제작한 것을 귀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또 안석 등을 '금후에는 모두 본국에서 생산되는 면주綿紬와 면포綿布를 사용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今後皆用本國所産綿紬綿布. 從之)고 하여 당시에 면직물로도 제작하여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안석은 '궤几'로도 표기되어 '궤장几杖'은 임금이 나이가 70세 이상이 된 2품 이상의 대신들에게 주는 하사품을 상징하게 되었다. 『문종실록文宗實錄』(문종 1, 11월 8일) 등을 비롯하여 고종 때까지 규례에 의하여 '상의사尙衣司'에서 만든 '안석과 지팡이'를 70세가 넘은 재상에게 하사하였다. 『고종실록高宗實錄』(고종 39, 7월 25일) 일정 벼슬에까지 오른 신하에게 그 공헌을 인정하여 임금이 하사한 물품이라는 데 의미가 있어 안석은 일반인이 사용하기보다 일정 신분 이상에서 사용하는 물품으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안석은 일종의 방석으로 볼 수 있다. 사용되는 위치가 다를 뿐 구조는 방석과 같다. 보충물인 동물의 털이나 솜 등으로 속을 채우고, 형태가 사각형이 아닌 산山 모양으로 만들었다. 봉우리가 3개나 5개 등으로 만들어 삼봉三峰 또는 오봉五峰이 되게 하였다. 산봉우리 모양의 위쪽으로 갈수록 너비와 두께가 약간 좁아지게 만들었다.

허리와 등이 닿는 부분은 안석의 속을 볼록하게 넣어 허리와 등을 기댈 때 해당 부분을 지지할 수 있



안석 | 높이50 너비49 | 20세기 초 | 국립민속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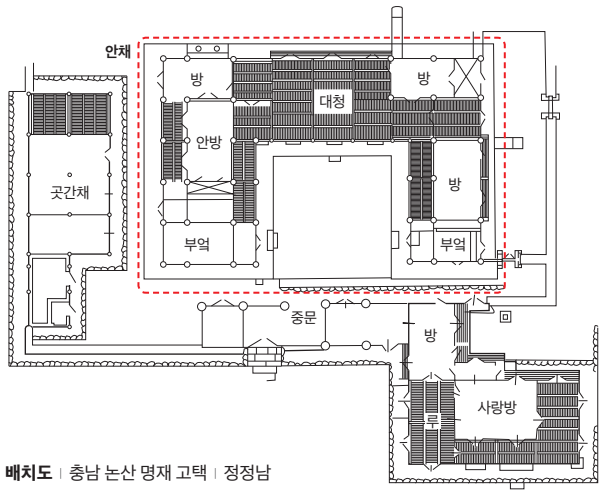
도록 하였다. 안석은 비단·모본단 등 단緞으로 앞뒤를 하고, 허리와 등이 닿는 부분은 안석 같은 모양을 다른 색의 옷감으로 한다든가 여름에는 왕골자리 등으로 대어서 장식하기도 하고 땀이 배지 않도록 하였다. 각 부분이 이어지는 곳은 3땀 상침 등으로 이음선을 눌러 박아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에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3땀 상침으로 장식성을 더하였다. 왕골자리로 덧댄 부분에도 바탕감과 같은 옷감으로 '壽(수)'자 또는 박쥐 문양 등으로 장식하거나 봉황 또는 학 등을 수놓아 장식하기도 하였다.

안감은 면 등으로 하고, 속은 목화솜을 단단하게 넣기도 하고 소·돼지 등 동물의 털을 넣기도 하였다. 바닥에 까는 방석보다는 단단하게 속을 채워 몸을 기댈 때 힘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안석은 단독으로 사용되기보다 보료, 장침長枕, 사방침四方枕과 한 세트를 이루어 안방이나 사랑방을 꾸미는 장식품이 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진사 이상의 신분에서만 사용하였다고 한다. 이는 70세 이상의 신하에게 왕이 '궤장几杖'을 하사하던 것이 전이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漢韓大辭典, 광재물보(홍윤표, 홍문각, 1998), 조선왕조실록(sillok.history.go.kr).

필자 김영재(金永才)



배치도 | 충남 논산 명재 고택 | 정정남



안채 대청에서 제례 올리기 | 경북 상주 우복 종택 | 서헌강

안채

정의 살림집에서 가족생활과 의례의 중심이 되는 공간.

내용 안채는 살림집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건물로 가족생활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 대청이 있는 공간을 이른다. 살림집은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안채와 사랑채로 구분되지 않았다. 남성이 여성의 친정 근처에서 사는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이 행해지고, 여자형제들도 돌아가며 조상의 제사를 모시며 재산을 동등하게 분배받는 윤회봉사輪回奉祀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은 조선 후기에 비하여 여성들의 생활을 덜 폐쇄적이게 하였고, 살림집도 특별히 남녀 생활공간을 구분하지 않아도 되게 하였다. 이때 사대부 남성들은 대개 주택의 살림채에서 아내와 같이 기거하였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조선의 사대부들은 17세기가 되면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주자가례朱子家禮』를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결혼제도와 제사의 양상도 크게 바뀌었다. 친영제도가 받아들여져 혼인한 여성은 시가에서 살게 되고, 종손의 집에는 조상을 모시는 가묘를 두어 가족들이 그곳에 모여 제사를 지내는 것을 일상으로 받아들였다.

여성들이 시가에서 남편의 가족과 함께 살게 되면서 살림집의 안채는 내외 구분을 위한 공간 폐쇄와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공간 서열화가 진행되었다.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위치한 안방과 건넌방에

는 각각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거처하였고, 시어머니가 죽으면 며느리가 안방을 이어 사용하는 안방물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반면 남성들은 횟수가 잦아진 제사를 위해 아내와 별개의 공간에서 재계하고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개방적이고 넓은 공간으로 나갔다. 이것이 바로 새로 만들어진 사랑채이다.

살림집은 안채와 사랑채로 분화되었지만 가정의례의 중심인 제사는 여전히 안채의 대청에서 이루어졌다. 그로 인해 안채는 정침正寢, 안채의 대청은 중당中堂이라 불렸다. 건물의 높이도 사랑채보다 높게 하여 정침의 권위를 유지하였다.

특징 및 의의 조선의 주택은 16~17세기 사회 변화를 거치면서 안채와 사랑채 구성을 갖추었다. 제사와 접객接客을 위해 남성 주인의 독립적인 공간인 사랑채가 탄생하였고, 안채는 바깥주인의 생활공간과 접객 기능이 빠져나가면서 여성과 가족만의 생활을 위한 내밀한 공간이 되었다. 이제껏 우리나라의 전통주택은 여성의 안채와 남성의 사랑채라는 이분법적 구조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사랑채의 탄생은 주택이 사회제도 변화에 따라 남녀만의 생활공간이 아니라 소규모 사회로도 변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16·17세기 사대부주택의 공간구성과 활용(정정남,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전통사회와 생활문화(송찬섭 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한국건축개념사전(한국건축개념사전기획위원회, 동녘, 2013), 한국건축대계4-신편 한국건축사전(장기인, 보성각, 2005), 한국건축의 역사(김동욱, 기문당, 2007), 두산백과사전(doopedia.c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정정남(鄭貞男)

안택
安宅

정의 마루의 성주, 부엌의 조왕, 장광의 터주(당산·지신) 등 집안 신령들과 조상에게 집안의 평안을 빌기 위하여 법사法師(경객經客 또는 경쟁이)가 앉은굿의 굿법과 절차에 따라 독경讀經을 위주로 음력 시월이나 정월에 기주祈主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는 굿.

내용 안택安宅은 음력 시월상달이나 정초에 많이 한다. 이를 각각 시월 안택, 정월 안택이라고 부른다. 안택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기주는 먼저 법사를 찾아가서 택일과 함께 안택과 관련한 준비 및 주의 사항을 상의한다.

택일은 기주의 집안 사정을 고려하되 대주大主의 생기生氣와 지주地主의 복덕福德을 가려서 잡는다. 아들에게 직성直星이 있다면 천의天意도 본다. 그러나 대주가 성주 받는 해[年]가 아니라면 지주의 생기만 보아서 택일한다. 그만큼 안택과 주부 관계는 밀접하다.

안택은 가내 평안을 축원하기 위하여 독경만 하는 것이 아니다. 집안 운수를 두루 살펴서 모든 현안도 적극적 풀려고 한다. 이렇게 안택을 해야 굿 덕을 크게 본다. 미숙한 법사는 가내 평안만 빌 뿐 시급한 집안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 안택을 해 굿 덕을 보지 못한다.

법사는 안택을 전후하여 온 가족이 매사에 근신하도록 신신당부한다. 기주 집에서는 안택 일주일이나 삼일 전 또는 하루 전이나 당일 아침에 대문 앞에 황토를 펴고 금줄을 매단다.

안택은 부엌에서부터 시작된다. 법사는 집안 신령 중에서 가장 먼저 부엌의 조왕竈王을 위한다. 제물은 그릇째 혹은 시루째 부뚜막 위에 올린다. 진설을 하면 부정을 가셔낸다. 물을 담은 바가지나 사발에 숯 세 개, 고추 세 개, 소금 세 숟가락 등을 넣고, 솔잎에 그 물을 묻혀서 부엌 사방에 뿌린다. 이른바 부정물이다. 다음에는 <부정경不淨經>을 구송한다. 일체의 부정을 가시게 하여 축원이 곧바로 집안 신령들에게 전달하도록 한다. <부정경>을 외기 전에는 모든 제물은 뚜껑을 덮어 놓아야 한다. <부정경> 구송을 마치면 부정물을 대문 밖에 내다 버린다. 이렇게 부정을 물린 다음에야 제물 뚜껑을 열 수 있다. 밥솥 안에는 식구 수만큼 숟가락을 꽂는다. 일 년 열두 달 식구들 배곯지 말라는 뜻이다. 이어서 법사는 <태을보신경太乙保身經>, <가택축원경家宅祝願經>, <조왕경竈王經>, <명당경明堂經> 등을 차례로 구송한다. <태을보신경>은

법사나 기주 등 안택에 참여한 사람들을 잡귀의 범접으로부터 보호한다. 모든 굿에는 잡귀가 모여들기 때문에 먼저 <태을보신경>을 읽는다. <가택축원경>은 안택이 잘되도록 집안 신령들에게 간절히 비는 기도이다. <조왕경>은 조왕에게 안택을 하게 되었음을 아뢰고, 조왕이 복福을 불러주고 액厄을 막아 달라고 비는 경문이다. 명당경은 집안 신령들을 안정시키는 경문이다. 안택에서는 구송할 경문, 즉 각 석席마다 <태을보신경>, <가택축원경>, <명당경>은 항상 읽는다. 다음에는 소지燒紙를 올린다. 소지는 기주가 식구마다 한 장을 올려 준다. 소지가 잘 타 올라서 그 재가 천장까지 날아오르면 그 식구는 대길大吉하고,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불운하다고 여긴다. 소지가 불운을 나타내면 그 식구는 근신하도록 한다.

부엌의 <조왕경>이 끝나면 장광으로 제물 일체를 그대로 옮겨서 터주와 칠성을 위한다. 다만 부엌 부뚜막에 올린 성주시루나 조상시루 등 제물은 안방으로 가져간다. 장광에는 터주시루와 칠성시루를 시루째 진설한다. 터주에게는 팥시루떡, 청수, 술 등을 올린다. 만일 집터가 세다고 하면 메밀묵을 추가로 올린다. 메밀은 이른바 도깨비터를 누르는 데 효험이 있다. 칠성은 '맑은 신'이므로 술은 올리지 않고 흰무리떡을 청수와 함께 차린다. 이렇게 진설을 한 후에 법사는 <당산경堂山經>, <칠성경七星經>을 왼다. 지역에 따라서는 <당산경> 대신 <지신경地神經>이나 <터주경>을 구송하기도 한다. 이들 경문은 집터를 안정시키고, 동토를 예방하며, 식구들을 편안하게 한다. <칠성경>은 특히 자손의 무탈과 건강을 위하여 읽는다. <당산경> 등을 마치면 터주시루는 안방으로 옮기고, 칠성시루는 촛불을 밝힌 채 장광에 그대로 둔다.

다음 안방으로 자리를 옮겨서 <성주경城主經>, <조상경祖上經>, <삼신경三神經>을 구송한다. 안방 문에서 가장 가까운 곳부터 조상상, 성주상, 삼신상을 차린다. 조상상에는 팥시루떡(조상시루), 메, 탕, 삼색실과, 세 가지 나물, 산자, 조기, 술 등을 올린다. 조상시루 위에는 불밝이쌀을 놓고, 그 곳에 촛불을 꽂아서 밝힌다. 성주시루와 삼신시루에도 그렇게 한다. 메는 집안에서 모시는 조상 대수代數만큼 차린다. 4대를 봉사한다면 각 내외 몫으로 여덟 그릇을 놓고, 부모와 조부모 2대만 모시면 네 그릇을 마련한다. 성주상에는 팥시루떡(성주시루), 메, 삼색실과, 세 가지 나물, 술 등을 차린다. 성주상 옆에는 쌀을 담은 메꾸리(멱둥구미)에 성줏대를 꽂아 놓는다. 삼신상은 깨끗한 볏짚을 한 일자一字로 펴고 그 위에 제물을 차린다. 메 세 그릇, 미역국 세 그릇, 청수 세 그릇, 간장 한 종지를 올린다. 술은 놓지 않는다. 그리고 종이 고깔 세 개를 접어놓는다. 삼신메는 반드시 아기 엄마가 먹는다. 어떤 집안은 삼신을 밝혀 주는 신령인 제석帝釋을 모시기도 한다.

이렇게 조상상·성주상·삼신상 등을 차리고 12대왕 위목位目·12등燈·조상꽃 등을 설치하면 법사는 의관을 정제하고 굿상을 향해 앉아서 북과 꽹과리를 두들기면서 <성주경>, <조상경>, <삼신경>을 차례로 구송한다. 각 경문을 읽을 때는 역시 처음에는 <태을보신경>, 마지막에는 <명당경>을 외운다.

법사는 <성주경>을 읽음으로써 최고의 가신家神인 성주에게 집안의 모든 소원이 성취되도록 축원한다. 여기에서는 집을 짓는 과정, 세간 장만, 농사의 과정, 자손을 낳아 과거급제를 하고 입신양명하는 내용 등이 주로 구송된다.

<성주경> 다음에는 <조상해원경祖上解怨經>, <육갑해원경六甲解怨經>, <청춘해원경靑春解寃經> 등 <조상경>을 외운다. 선망조상先亡祖上과 후망부모後亡父母를 송축하여 조상을 천도시키고, 극락왕생한 조상들이 후손들의 액을 걷어 주고 복을 주기를 바라는 경문이다.

이어서 <삼신경三神經>, <제석경帝釋經>, <칠성경七星經>을 읽는다. 삼신은 아기를 점지하고 기르며, 제석은 인간이 태어날 때 복을 주며, 칠성은 수명을 관장하는 신령들이다. 역시 이들 신령을 송축하며 자손의 번성과 무병장수를 기도한다.

만약 안택을 하면서 성주를 새로 받는다면 <성주경>, <조상경>, <삼신경>을 구송한 다음, 모셔서 앉힌다. 성주는 안택을 할 때마다 항상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주 나이가 1·3·5·7·9수에 해당되어야 한다. 곧 성주 운運이 닿는 해에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주 운이 들어도 '날 삼재三災'에는 하지 않는다.



조왕 위하기


조왕 위하기


터주 위하기


성주 받기


성주 자리 찾기


잡귀잡신 풀어먹이기

안택 | 충남 서산 | 2002 | 국립민속박물관

대주가 아직 어리면 성주를 모시지 않는다. 미혼의 대주도 마찬가지이다. 혼인한 남자만이 성주를 받을 수 있다. 한 번 성주를 모시면 대주가 사망할 때까지 모셔야 한다. 가운家運이 나쁠 때 성주를 받으면 액을 피할 수 있으나 운세가 좋아도 성주를 받지 않으면 오히려 운이 비껴간다. 그만큼 성주는 대주를 밝혀 주는 신령이다. 그래서 '대주는 성주 믿고 성주는 대주 믿는다.'라는 속담이 생겼다.

성주 운이 닿지 않은 해에도 간혹 성주를 새로 받는 경우가 있다. 가령 법사가 대잡이와 문답問答으로 집안일을 가려나가다가 "성주가 떴다."라고 판정을 하면 성주를 새로 받아 모신다.

성주는 집안이 불안하거나 그러한 조짐을 보이면 스스로 떠난다. 부정을 심하게 타도 성주는 떠난다. 집을 떠난 지 얼마 안 되는 성주는 아직 집 안이나 그 부근에 있기에 시간이 흘러 더 먼 곳으로 떠나기 전에 빨리 집 안으로 모셔 들이는 것이 좋다.

성주를 받는 모습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법사가 대잡이를 앞에 앉히고 축원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마침내 성주가 대에 내리기 시작한다. 성줏대를 잡은 대잡이는 자기도 모르게 부들부들 떨다가 갑자기 무엇에 이끌리듯 황급하게 방 밖으로 뛰어나간다. 이때에 대주는 술 주전자와 포脯를 들고 대잡이 뒤를 재빨리 따른다. 이곳저곳 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뛰어다니던 대잡이는 이윽고 성줏대로 성주가 내린 나무를 가리킨다. 성주가 내리는 나무는 대개 소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등이다. 성주가 앉으면 나뭇가지 끝은 격렬하게 흔들린다. 대주는 성주 내린 나무 밑에 술을 올리고 재배한다. 이렇게 예禮를 행한 후에야 성주 내린 나뭇가지, 곧 성주목을 꺾는다. 대주는 성줏대를 뒤쫓아 성주목을 모시고 집으로 되돌아온다. 집 안에 들어서면 곧바로 성주목을 성주시루 안의 불밝이쌀 옆에 잠시 봉안해 둔다.

법사는 이때 성줏대를 잡은 대잡이에게 "우가牛家도 성주요, 초가草家도 성주요, 와가瓦家도 성주인데, 우가 초가 다 버리고 와가 성주를 분명히 모셔왔느냐?" 하고 문답으로 사실 여부를 가린다. 만약 성주를 잘못 모신 것으로 판명 나면 다시 처음부터 성줏대를 가리고 축원을 하여 집 바깥으로 나가 성주를 새로 받아온다. 성주를 틀림없이 잘 받아왔다면 이번에는 성주 모실 장소를 역시 성줏대로 문답식으로 가려 나간다. 가령 성주를 안방에 모시는 것이 좋겠느냐고 물으면 성줏대가 예·아니오를 그 흔들림 여부로 판정한다. 흔들림이 없으면 부정의 의미이다. 성줏대가 격렬하게 흔들리면 긍정의 뜻이다. 대체로 성줏대는 성주 앉을 자리로 대청 윗목 또는 안방 윗목을 지정한다. 성주를 봉안한 다음 성주소지, 대주소지, 지주소지를 차례대로 올린다. 대주는 성주에게 다시 헌작·재배한다.

이제 법사는 성주를 비롯한 집안 신령들이 안택 정성을 잘 받았는지를 성줏대로 가려 나간다. 다음에는 역시 성줏대 가림을 하여 대주, 지주와 다른 식구들의 1년 신수를 보아 준다. 이때 법사는 불운에 대비하는 여러 방비책도 함께 일러 준다.

마지막으로 <안위안정경安慰安靜經>과 <퇴송경退送經>을 구송한다. 안택이라는 종교적 잔치에서 정성을 잘 받은 사중팔신舍中八神과 조상을 편안하게 안정시켜 주고, 안택에 초대받지 않았지만 잔칫집 식객食客이나 거지들처럼 기주 집에 모여든 잡귀잡신을 내쫓는 절차이다. 법사는 "천상천하 신령님네 자리 찾아 좌정하시고 선망조상 후망부모님도 왕생극락하옵시고 사중팔신 가내영신 성조대신 조왕대신님도 안위안정하시고 구걸하러 왔던 잡귀잡신은 대접을 후히 받았으니 속거타방速去他方 하라."라고 구송한다.

잡귀잡신에게는 그들을 풀어먹이고자 내전상을 차린다. 팥시루떡, 숟가락을 많이 꽂아 놓은 양푼 밥, 오곡밥, 탕, 나물, 삼색실과, 명태, 김, 큰 함지박에 담은 막걸리, 메밀묵 등을 푸짐하게 차린다. 또는 키에다 밥 세 그릇, 소금 세 주먹, 된장 세 수저, 짚신 세 켤레만 간소하게 놓는다. 키가 나타내는 잡귀잡신 구축의 상징성은 분명하다. 키는 곡식 등을 까불러서 쭉정이, 티끌 등을 날려 보낸다. 키에다 차려 준 제물을 먹은 잡귀잡신은 이미 멀리 날아갔다.

이렇게 잡귀잡신을 풀어먹이고 쫓아냈어도 법사는 다시 그들을 겁박하여 완전히 몰아낸다. 바가지에 굿상 제물을 조금씩 담아서 집 대문 밖에 힘차게 휙 뿌린다. 이때 "헛파세!" 등의 위협적인 주문을 외

친다. 마지막으로 안택에 사용한 성주대, 위목, 등, 지화, 조상옷 등은 모두 태워 버린다.

특징 및 의의 가내 안정과 화평을 비는 안택에서 기도와 청원의 대상은 집안 신령들, 이른바 사중팔신과 부계 혈연 조상이다. 한 가정이 터를 잡고 새집을 지어서 입주하면 집안 신령들은 집안 곳곳에 스스로 자리를 잡는다. 집터를 관장하는 터주(지신·당산), 불·음식·식구의 무탈을 담당하는 조왕, 자손의 점지·양육·수명을 보살피는 삼신과 칠성 등이 대표 가신이다. 그러나 성주는 상량식이나 안택의 '성주받기'에 의해서만 정식으로 초빙되어 마루에 모셔진다.

집은 식구들만 사는 공간이 아니다. 가정을 보살피는 신령들도 함께 사는 곳이다. 집은 사람만이 아닌 신령들의 공간이기도 하기에 집은 스스로 성화聖化되고 신역神域이 된다. 따라서 집에는 기본적으로 평안이 전제된다. 그러나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과 신령의 관계는 원만해야 한다. 신령들을 서운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들 가신에게 정기 또는 비정기로 각종 제祭, 고사告祀, 비손, 굿 등으로 잘 위해 주어야 한다. 그 대표 사례가 '가을떡과 정월떡(고사)'이다. 대개 가정에서는 추수 후에 가을떡을 쪄서 한 해 수확에 대한 감사를 가신과 조상에게 표하고, 정초에는 정월떡을 마련하여 한 해 농사의 성공을 가신과 조상에게 기도한다.

그런데 집안의 화평을 더욱 강화하고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문 사제인 법사를 초빙하여 안택을 한다. 법사는 독경을 위주로 하여 사중팔신과 조상을 송축하고 받들며, 가족의 소망을 그들에게 전한다. 이와 함께 불편한 문제가 있으면 이를 풀어 내어 집안을 안정시킨다. 특히 성주받기는 안택의 절정을 이룬다. 이런 측면에서 안택은 가을떡·정월떡과는 다른 집안의 별신제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가을떡과 안택(이필영, 한국문화연구1,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1), 서산의 가정신앙(이필영·남향·오선영,서산문화원, 2017), 서산의 법사와 앉은굿(이필영·오선영·임승범, 서산문화원, 2014), 태안 법사의 삶과 무속(이필영·오선영·임승범, 태안문화원, 2016), 한국의 가정신앙1~9(국립문화재연구소, 2005~2008).

필자 이필영(李弼泳)

양옥
洋屋

정의 개항기 이후 서구에서 전래된, 양식으로 지어진 건축물.

내용 '양옥洋屋'은 '서양식가옥'의 준말로, 서구에서 전래된 양식의 건축물을 지칭하는 단어 가운데 가장 널리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는 단어이다. 종종 '양옥'은 '한국식가옥'을 지칭하는 '한옥韓屋'과 대비되어 쓰인다. '한옥'과 '양옥'은 모두 재래의 건축과 외래의 건축을 구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신조어이다.

근대 초기 양옥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흐름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거주하던 개항장이나 개시장開市場에서 보이는 양상이다. 많은 외국 공사관이나 영사관, 선교사 주택과 종교 시설, 교육시설, 상관商館 등이 벽돌조 건물로 지어졌다. 이 건축물들은 외국인 건축가에 의하여 설계된 뒤 외국에서 공수한 벽돌, 함석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중국인들이 시공하였다. 특히 개항장의 거류지 내에서는 건축 규칙이 마련되어 초가와 같이 연소성 재료로 된 지붕의 건축을 지양하는 대신 기와나 철제 지붕의 벽돌조 또는 석조 건물을 짓도록 권장하였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개항장 내에 서양식 건축물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목조건축이 전혀 지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개항 직후 일본은 기와를 덮은 2층 목조로 된 영사관과 주요 시설을 많이 지었다. 이러한 건축물은 '서양식을 흉내 낸 양식'이라는 뜻의 의양풍擬洋風 건축물로 불리었다. 의양풍 건축물은 목조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외관은 서양식 건축물로 보이게 하려고 벽을 비늘 판벽으로 하고 그 위에 회칠을 한 뒤 오더나 아치, 페디먼트 등 석조건축에 쓰이는 요소를 목조로 모사하는 특징을 띠었다.

초기 양옥의 또 다른 한 갈래로는 대한제국 정부 및 왕실 친인척과 관련된 건축을 들 수 있다. 먼저 대한제국 정부는 번사창飜沙廠이나 전환국典圜局 등 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기능을 담는 건축물을 벽돌조로 하거나 경복궁景福宮·창덕궁昌德宮·경운궁慶運宮과 같은

궁궐 내에 중명전重明殿 또는 정관헌靜觀軒, 석조전石造殿과 같은 왕실 도서관, 외국 외교관 접대 장소 등을 서양식으로 지었다. 이것들은 부국강병을 목표로 하는 산업진흥시설과 대외적으로 대한제국 정부의 건재함을 보여 주기 위한 용도의 건축물이었다. 특히 궁궐 내에 지어진 초기 양옥들은 주로 서양 건축가를 고용하여 설계한 서양식 건축물이었다. 이들 건축물은 당시 새롭게 등장한 양식과 재료를 구법들과 적절히 혼합하여 지은 것들이었다. 한편 왕실 친인척이나 세력가 등의 주택이 서양식으로 지어지기도 하였다. 서울특별시 운니동의 운현궁雲峴宮 양관과 관훈동의 사동궁寺洞宮 양관이 대표적이다. 이들 주택의 특징은 서양식 양옥과 함께 조선식 기와를 얹은 한옥을 함께 두었다는 것이다. 접객 등 사교상의 목적을 위한 양옥과 평소 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한옥을 병존시킨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이국풍의 서양식 건축물을 지었지만 실제 생활에는 적합하지 않아 한옥을 함께 두며 생활한 이중생활의 흔적으로, 당시 왕실 친인척들이 부와 신분을 과시하기 위하여 생활에는 적합하지 않은 양옥을 짓기도 한 모습을 보여 준다.

일제강점기에는 주택개량운동과 함께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외국의 주택들이 주택 개량 모델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특히 일제강점기의 유일한 건축잡지 『朝鮮と建築(조선과건축)』에는 다양한 서양식 주택들이 도면과 함께 실리기도 하였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 등 서부의 주택들이 주를 이루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방갈로bungalow라 불리던 유형이 자주 언급되었다. 현재 '방갈로'라는 단어는 여름철에 산이나 바닷가에서 지낼 수 있게 만든 작은 집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원래는 인도 벵골 지역 민가에서 유래한 건축양식을 가리키는 말이다. 인도를 식민지로 두고 있던 영국 관리들이 영국으로 돌아가 해안가 근처에 별장을 지으면서 방갈로라는 말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 개념이 미국으로 건너가 소규모 중류주택으로 자리 잡게 된 이후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까지 소개되었다. 우리나라에 방갈로로 소개된 서양식 주택의 평면을 보면 1층에는 가족실·식당·주방 등 공적인 영역을 두고 2층에는 개별실과 욕실 등 사적인 영역이 배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뿌리는 19세기 영국의 빌라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결국 당시 일반화된 양옥은 일본에 의하여 재해석되어 1920년대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일명 '문화주택'이라 불리던 주택이었다.

192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문화주택으로 대변되는 '양옥'은 일본인과 일부 조선인 상류층만이 짓고 살 수 있던 주택이었다. 당시 시대 배경이 일제강점기인 만큼 일본식과 혼합되는 특징을 보이게 되고, 이것은 일명 '화양절충和洋折衷'이라는 양식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이런 주택의 특징은 외관은 서양식 주택을 지향하지만 내부 평면은 일본식 중복도형 평면을 채택하던 주택이었다. 이보다 앞서 대한제국기에 왕실 친인척 중심으로 지어진 대규모 양옥들에 하면 작은 규모로, 내부에는 일본색이 많이 가미된 주택이었다. 양옥은 여전히 재력이 상당한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주택들이었다. 목조에 비하여 고가인 벽돌조나 철근콘크리트 등 재료로 지어진 고급주택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대다수 양옥들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지만 서양식 주택으로 보일 수 있도록 꾸밀 수 있는 목조주택으로 지어졌다. 이런 주택은 기둥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마감한 평벽平壁 구조로, 일본식으로는 '오카베大壁'라 불리는 주택이었다. 내부는 일본식 목조주택의 모듈로 된 실 구성을 하고 있으면서 현관 옆에 서양식 응접실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 전체 주택은 목조로 짓는다 하더라도 응접실 부분만은 벽돌조로 처리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양옥 내부에는 우리나라의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하여 일부 온돌을 들이기도 하였으며, 결국 한화양韓和洋 양식이 결합되어 삼중생활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광복 이후 '양옥'은 단독주택을 지칭하는 일반 용어로 사용되면서 불편하고 비위생적인 '한옥'을 대신해서 장려하여야 할 주택을 상징하기도 하였다. 상하수도, 전기, 난방 등의 설비가 잘 갖추어져 능률적이며 위생적인 개량 주택이 곧 '양옥'이라는 인식이 더해졌다. 아파트가 주류를 이루는 1990년대 이전인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양옥'은 우리 주택의 한 이상형으로 여겨졌으며, '불란서식 주택'이나 '미니 이

층집' 같은 용어와 함께 널리 유행하기도 하였다.

특징 및 의의 대한제국기 지도와 문서 등에서 '양옥'은 '이계건二階建', '양철즙洋鐵葺', '연와건煉瓦建' 등으로 표시되고 있다. 이는 당시에는 드문 2층이라는 층수, 양철과 같은 지붕 재료, 벽돌이라는 구조가 양옥의 특징으로 인식되었음을 보여 준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양옥' 앞에는 층수를 붙여 '이층 양옥', '삼층 양옥', '사층 양옥' 등과 같이 부르거나 '적벽赤壁 양옥', '벽돌 양옥', '연와煉瓦 양옥', '석재 양옥', '철근콘크리트 양옥' 등 재료를 나타내는 단어와 함께 쓰였다. 이는 기존 단층 위주의 목조건물을 대변하는 '한옥'과 여러모로 대비되는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외래 양식 건물로서의 '양옥'에 대한 이미지가 한동안 지속된 것을 보여 준다. 당시 '양옥'이라는 단어는 주택뿐만 아니라 관청, 은행, 학교 등 비주거 건물을 지칭하는 데에도 쓰였다. 이를 통하여 '양옥'이라는 단어가 현재보다 폭넓게 사용된 것도 알 수 있다.

'양옥'은 재래건축인 '한옥'과 비교되면서 문명개화의 상징으로 비추어졌다. 또한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이 상당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건축물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서양식 건물에 대한 환상이 들게 하였다. 결국 양옥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서구에서 들어온 새로운 양식의 건물을 건축한다는 의미 이상으로 신분과 재력을 과시하는 행위이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거주박물지(박철수, 도서출판 집, 2017), 일제강점기 문화주택 개념의 수용과 전개(이경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집-집의 공간과 풍경은 어떻게 달라져 왔을까(전남일, 돌베개, 2016), 한국건축개념사전(한국건축개념사전위원회, 동녘, 2013), 한옥과 한국 주택의 역사(권용찬·전봉희, 동녘, 2012), 한국의 주택, 그 유형의 변천사(임창복, 돌베개, 2011).

필자 이경아(李炅娥)

양택
陽宅

정의 풍수에서 음택(무덤)과 대비되는 집터를 이르는 용어.

내용 풍수는 크게 묘터를 선정하는 음택陰宅, 집터를 선정하는 양택陽宅으로 나눌 수 있으며, 마을이나 도시를 선정하는 양기陽基를 추가하기도 한다. 양택풍수는 집터뿐만 아니라 집 안 내부의 공간 구성, 공간의 방위, 물이 나가는 방위 등 종합적인 논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양택의 외부 조건들은 음택풍수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풍수의 기본원리를 최창조는 간룡법, 장풍법, 득수법, 정혈법定穴法, 좌향론坐向論, 형국론形局論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비보론裨補論을 추가하기도 한다. 간룡법이란 산을 찾는 방법이다. 풍수에서는 산을 용이라고 칭한다. 이는 용의 모습이 변화무쌍한 것처럼 산의 모양과 움직임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이다. 양택에서의 간룡법이란 멀리는 태조산에서, 가까이는 주산에서 해당 주택까지 내려오는 산맥의 흐름을 보는 것이다. 이 산맥의 흐름이 살아 있는 용과 같으면 생룡生龍, 죽어 있는 용과 같으면 사룡死龍이라고 한다. 생룡의 여부는 기본적으로 용이 마치 살아 꿈틀거리면서 내려오는 모양으로 판단한다. 주로 산줄기가 좌우변화左右變化 또는 透迤變化 하는지 상하변화上下變化 또는 屈曲變化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 따라서 간룡법이란 용(산)의 건강성을 보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장풍법이란 바람을 갈무리하는 방법이다. 풍수의 요체는 혈이다. 혈의 기본 조건은 생기生氣를 타는 것이다. 이 생기는 바람을 만나면 흩어지고 물을 만나면 멈추게 된다. 따라서 바람을 갈무리하기 위해서는 혈을 중심으로 산들이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이를 풍수에서는 사砂라고 한다. 대표적인 사는 네 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사신사四神砂라 한다. 혈을 중심으로 앞을 주작, 뒤를 현무, 왼쪽을 청룡, 오른쪽을 백호라고 하여 혈을 전후좌우에서 수호하는 전설적인 짐승에 비유한 것이다. 사신사는 그 모양이 중요하다. 현무는 머리를 드리운 듯[垂頭], 주작은 빙빙 돌며 춤을 추듯[翔舞], 청룡은 꿈틀거리며 혈을 감싸듯[蜿蜒], 백호는 걸터앉아 있듯[蹲踞] 또는 순하게 길들여진 듯[馴頫]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음택의 사신사는 네 개의 산 또는 현무, 청룡, 백호는 산이되 주작은 산이 아닌 강이나 연못 등으로의 대체가 가능하다. 그러나 양택풍수서인 중국

의 『택경宅經』, 『사마두타지맥결司馬頭陀地脈訣』이나 조선 후기의 『산림경제山林經濟』,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등에는 양택 사신사가 나타난다. 즉 현무를 산[山], 청룡을 강[川], 백호를 도로[道], 주작을 연못[池] 등으로 표현함으로써 음택과 양택의 사신사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는 양택에서 외부와의 교통로 확보, 농업용수 확보 등 실생활과 관련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득수법이란 물을 얻는 방법을 총칭한다. 생기는 물을 만나면 멈추기 때문에 혈 앞에 물이 있어야 생기를 얻게 된다. 그런데 이 물은 들어오고 나가는 방위와 형태에 따라 길과 흉이 결정된다. 혈을 중심으로 물이 보듬듯이 환포하는 물길을 좋은 물의 흐름으로 본다. 이 환포하는 모양이 허리띠와 비슷하다고 하여 요대수腰帶水라 하며, 금성수金城水라고도 한다. 물이 빠져 나가는 마지막 장소인 수구水口는 열쇠를 잠근 듯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한다. 『택리지擇里志』에서는 집터를 잡으려면 수구가 꽉 닫힌 듯하고, 그 안에 들어 펼쳐진 곳을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수구가 좁아야 할 또 다른 이유는 물길은 바람길이 되기 때문에 물길을 따라 물도 흘러가지만 바람도 빠져나가게 된다. 이 경우 풍수의 장풍, 즉 바람을 갈무리해야 하는 원칙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또한 풍수에서는 물을 재물로 보기 때문에 수구의 물길이 더디게 빠져나가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한다.

정혈법이란 혈을 정하는 방법이다. 혈이란 음택의 경우 관이 들어가는 자리, 양택의 경우 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안방 등)이나 주택 자체의 자리를 의미한다. 혈은 의학에서 인체의 혈에 비유하기도 한다. 금낭경에는 정혈에서 털끝만한 차이로도 화복은 천리의 차이가 난다고 하였으며, 주자의 산릉의장에서는 정혈의 법이란 침구에 비유하여 일정한 위치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털끝만큼의 차이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좌향론이란 방위를 의미한다. 좌는 음택이나 양택의 뒤쪽의 방위, 향은 앞쪽을 바라보는 방위를 각각 의미한다. 풍수의 기본 원리를 산, 수, 방위로 볼 때 좌향은 방위를 의미한다. 좌향은 나경羅經 또는 패철佩鐵이라고 하는 나침반을 기본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기론理氣論이라고도 한다. 좌향론은 풍수에서 가장 많은 논란이 있는 논리이기도 하다. 또한 좌향론 중 상당부분은 물의 흐름을 파악하여 음택이나 양택의 방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수법론水法論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형국론은 산천의 모양을 사람, 동물, 식물, 문자 등에 빗대어 설명하는 논리를 총칭한다. 풍수의 법술이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다양한 대상에 빗대어 쉽게 비유하려는 것이다. 문화재관리국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형국은 모두 266개로 분류된다. 이 중 동물형이 163개(61.27%)로 가장 많고 물질형이 38개(14.28%), 인물형이 36개(13.53%), 식물형이 23개(8.64%), 문자형이 6개(2.25%)이다. 266개 형국과 관련한 마을터나 집터는 모두 2,146개소로 나타났다. 형국론은 결국 산천의 모양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인물이 나타난다는 점과 형국에 따라 해당 입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양태가 결정된다고 본다.

비보론이란 풍수적인 적지適地로 만들기 위해 인위적인 힘을 가하여 적지로 만드는 방법을 총칭한다. 이러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지나치게 강한 것을 눌러서 중화 시켜주는 것을 압승壓勝이라 하며, 부족하고 약한 것을 보완하여 중화시켜 주는 것을 비보라 한다. 현대에서는 비보가 압승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 풍수 고전에서도 비보에 대한 합리성을 부여하는 구절들이 발견된다. 청오경에는 나무와 풀이 무성하고 좋은 기운이 서로 응하는 것은 자연적인 경우도 있고 인위적인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설심부에서는 남는 것이 있으면 파내고 부족한 것은 마땅히 보충해야 한다 하였고, 발미론에서는 재성裁成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기존 터에 문제가 있다면 적절하게 마름질하거나 보완하여 맞추어 나가야 한다 하였다.

한국에서 마을이나 입지에 적용된 전통적인 비보로는 사찰과 사탑을 통한 비보, 수구의 허결함을 방지하기 위한 나무나 숲을 이용한 수구비보, 허결한 곳에 인위적으로 언덕·둔덕이나 조그마한 산을 만드는 조산造山비보, 지맥이 빠져나가는 곳에 인위적인 연못을 만들어 지기를 멈추게 하는 연못비보, 짐승 모양의 구

조물이나 배의 돗대 모양 또는 입석立石 등을 통한 상징물 비보 등이 있다. 특히 형국이 완전하지 못할 때 완전한 형국을 만들어 주기 위한 형국보완 비보도 있다. 예를 들면 소 모양의 형국에 적초안積草案이라는 안산을 만드는 것이나 뱀 모양의 경우 개구리 모양의 사砂를 조성한다든가 장군형국의 경우 장군을 따르는 병사, 깃발, 북, 말馬 등의 사를 조성하거나 땅이름[地名]을 인위적으로 설정하여 형국의 완성하려는 경우도 있다.

양택방위론이란 주택의 외부 방위 및 내부 공간 구성의 방위를 총칭하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풍수는 음택풍수가 위주였다 이는 음택풍수이론이 양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황제택경黃帝宅經』 이후 음택과 다른 양택풍수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명대 『양택십서陽宅十書』와 청대 『양택촬요陽宅撮要』, 『양택대전陽宅大全』, 『양택삼요陽宅三要』 등의 풍수서와 『거가필용居家必用』 등의 백과사전류에 양택이론이 일부 포함되었다. 조선 후기 홍만선의 『산림경제』의 복거편과 서유구의 『임원경제지』의 상택지 등에 양택풍수 관련 내용이 소개되었다. 이는 주로 중국의 양택서를 참고한 것이었다. 음택풍수는 형세론이 주가 되고 방위론이 보완되고 있지만 양택풍수는 방위론이 주가 되고 형세론이 보완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산(용)을 찾는 간룡법에서 산을 의미하는 용은 전설상의 짐승으로 길조吉兆를 상징하는 존재로 여겨졌다. 또한 제왕의 상징이 되어 절대적 권위와 아울러 덕德의 형상화로 성현의 비유물이 되기도 하였다. 풍수의 산을 용이라고 하는 것은 산을 천지간의 교통을 위한 구체적인 중심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간룡에서 태조산, 소조산, 주산으로 이어지는 위계 질서는 하늘의 질서와 땅의 질서가 동질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간룡법은 지형의 조건 중 산줄기의 형태와 분포상태 및 규모를 살피는 것이다. 따라서 간룡에서 본 맥세의 흐름과 연결성이 좋다면 동식물의 이동과 기타 생태적 요소의 흐름이 원활하다는 의미가 되어 생태적인 안정성을 보이게 된다.

득수법에서 이상적인 물길은 혈장에 대해 부드럽게 감싸면서 굴곡하면서 흐르는 물이다. 이러한 조건이 입지는 상대적으로 곡류하는 안쪽에 충적지를 형성하게 되어 마을터와 농경지를 제공하는 입지가 된다. 또한 혈장 또는 마을 앞에 물길이 있음으로써 생활용수와 농업용수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정혈법의 의미는 대지와의 합일, 음양조화의 원리를 상징하고 있다. 즉 정혈을 통해 인간은 생명의 근원인 땅으로 되돌아가려는 의식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명당도의 모양은 여성의 자궁子宮과 유사한 형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혈법은 자신이 태어난 자리와 유사한 곳으로 되돌아가려는 원초적 의식인 동시에 지모地母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좌향론은 방위에 대한 특별한 선호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태양의 위치, 바람의 방향, 산천의 형세가 인간의 거소와 조화 및 균형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좌향론은 공간을 천·지·인의 상관관계에서 파악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공동체의 결합으로 인식할 수 있다.

형국론은 주로 인간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물형은 크게 나누어 해당 입지의 사람들에 있어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장군 모양에서는 장군, 붓 모양에서는 선비, 옥녀 모양에서는 기예에 출중한 인물, 매화 모양이나 연꽃 모양에서는 지조 높은 선비가 각각 출현한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소 모양이나 돼지 모양에서는 평생 의식에 결핍이 없는 삶을 영위한다고 보는 것 등이다. 결국 형국론은 인간과 산천이 상호작용을 하여 인간이 산천을 닮는다는 유기체 세계관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풍수의 비보는 문제가 있는 땅을 인위적으로 고쳐 사용한다는 것으로 완전한 땅이 없기 때문에 흠결을 제거하거나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비보는 풍수의 본질은 아니다. 그러나 고려시대 비보는 도선 이후 국가 차원에서 관리되었다. 조선시대에도 도읍뿐만 아니라 중기 이후에는 각 읍치, 마을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풍수는 환경에 의해 인간의 삶이 결정된다는 환경결정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완전

한 땅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풍수적 문제점 등을 숲, 연못, 언덕, 지명地名 등으로 보완한다는 풍수비보는 비록 인위적인 힘이 가해진다 해도 자연에 대한 훼손보다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계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환경가능론 입장을 추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高麗史, 錦囊經, 發微論, 山林經濟, 雪心賦, 林園經濟志, 疑龍經, 葬書, 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함인가(최창조, 서해문집, 1990), 풍수지리학 연구(천인호, 한국학술정보, 2012), 한국의 풍수사상(최창조, 민음사, 1984), 한국의 풍수와 비보(최원석, 민속원, 2004), 朝鮮の風水(村山智順, 朝鮮總督府, 1936).

필자 천인호(千寅鎬)

여닫이

정의 한쪽을 축으로 하여 회전하면서 열고 닫는 창호.

내용 창호는 열고 닫는 방식에 따라 붙박이, 벼락닫이, 여닫이, 미닫이, 들어열개, 안고지기 등 여러 형태로 나뉜다. 여닫이는 한쪽 면에 회전축을 만든 다음 반대쪽에 문고리를 달아 이를 잡아당기거나 밀어 회전시키면서 창호를 여닫는 방식의 창호를 말한다. 하나의 창호만을 여닫는 경우 '외여닫이'라 하고 두 개의 창호를 여닫는 경우 '쌍여닫이'라 부른다. 현대에는 보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양쪽 방향으로 모두 개폐할 수 있는 자유문을 설치하기도 한다. 하지만 자유문이 개발되기 이전에 여닫이는 한쪽 방향으로만 열고 닫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여닫이를 설치할 때는 어떤 방향으로 창호를 개폐할 고민을 해야 했다.

문을 만들 때는 사람의 안전, 공간 활용의 극대화 등이 고려된다. 대문의 경우 대부분 안쪽으로 열리도록 만든다. 성문, 궁궐의 대문, 주택의 솟을대문, 일정한 면적을 점유하는 건축물의 바깥대문은 모두 안쪽으로 열리도록 만들었다. 중세를 배경으로 한 전쟁 영화나 드라마에서 성문을 두고 대적하는 광경을 많이 볼 수 있다. 성문을 닫고 빗장을 걸어 적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방어한다. 심지어 대문 안쪽에 무거운 물건을 잔뜩 쌓아 문이 열리지 못하게 한다. 여닫이가



서울 성북구 김진흥 가옥



여닫이 | 주택문화사

바깥보다 안쪽으로 열리는 것이 방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실외와 실내를 직접 연결하는 여닫이는 안쪽보다 바깥으로 열리는 경우가 많다. 여닫이가 안쪽으로 열린다면 창호가 실내에 쉬고 있는 사람, 방 안에 있는 가구와 부딪치기 쉽다. 즉 여닫이가 안쪽으로 열린다면 실내 공간 활용에 제약을 받는다.

사용이 빈번한 여닫이 창호는 내구성이 부족한 살대 대신 나무판을 이용하여 만든다. 나무판으로 만든 판문은 외부 충격에 강하지만 너무 무겁다는 단점이 있다. 너무 무거워서 돌쩌귀만으로 여닫이를 만들기 어렵다. 설령 만들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돌쩌귀와 창호가 분리된다. 따라서 판문은 돌쩌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회전축을 만든다. 문선의 상부와 하부에 둔테[屯太]라는 부재를 덧붙인다. 둔테에는 창호를 끼울 수 있는 홈을 판다. 판문에서 회전축으로 사용할 부분의 나무를 쐐기 형태로 깎은 다음 이곳에 꽂아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든다. 크기가 작거나 살대를 사용하여 만든 가벼운 창호는 마구리면에 '돌쩌귀'를 두세 개 설치해서 이것을 회전축으로 삼는다. 돌쩌귀는 현대의 경첩과 같은 역할을 한다. 암놈과 수놈 두 개의 철물을 조합한 것으로, 각각 문선과 창호에 박아 창호가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든다. 두 짝 혹은 세 짝의 창호에 모두 돌쩌귀를 달아 일체화시켜 겹으로 여닫이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이런 창호를 분합分閤이라 부른다. 분합은 여닫이 한 다음 모두 위로 들어올려 매단 들어열개로 마무리한다.

대문과 같이 크기가 큰 판문인 경우에 덧붙이는 둔테만으로 무게를 지탱할 수 없다. 이 경우 위쪽에는 둔테를 사용하지만 아래쪽에는 둔테 대신 신방목을 사용한다. 신방목은 문지방(하인방)에 직각으로 결구한 목부재로 판문의 쐐기를 꽂을 수 있도록 홈이 파여 있다. 신방목과 문지방 아래에는 H자 형태의 초석을 설치한다. 이를 신방석이라고 한다. 고대 건물지에서 신방석이 발견될 경우 건물의 출입 동선을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성문 역시 판문으로 만든다. 하지만 전쟁에 대비해서 무수한 철엽鐵葉을 박아 목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감싼다. 따라서 둔테나 신방목만으로는 성문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목재가 아닌 돌로 여닫이 할 수 있는 회전축을 만든다. 이것을 문지도리돌[樞石]이라고 한다. 문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커다란 돌을 땅에 묻고 쐐기를 꽂을 수 있도록 홈을 파서 이 위에 문을 설치한다. 하지만 문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쐐기가 마모되기 쉬우며, 회전하다가 부러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보강하기 위하여 문지도리돌 홈에는 쐐기 부분이 절구 모양으로 움푹 파인 확쇠[確金]를 설치하며, 문의 쐐기에는 일종의 신발인 신쇠[鞋金]를 덧단다.

특징 및 의의 쌍여닫이 가운데 간혹 창호와 창호 사이에 문설주를 설치한 경우가 있다. 이를 '영쌍창楹雙窓'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쌍여닫이는 두 개의 창호를 동시에 열고 닫아야 한다. 한쪽 창호에 걸쇠, 다른 쪽 창호에는 문고리를 단다. 걸쇠에 문고리를 걸면 열리지 않지만 문고리를 풀면 양쪽 창호가 모두 열린다. 하지만 영쌍창은 양쪽 창호 모두에 문고리, 중앙의 문설주에 양쪽의 걸쇠를 설치한다. 따라서 각각의 창호를 개별적으로 개폐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창호는 19세기를 넘어서면서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이런 까닭에 주택 건립 시기 판단에 유용한 기준으로 사용된다.

참고문헌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김왕직, 동녘, 2007), 영건의궤(영건의궤연구회, 동녘, 2010), 지혜로 지은 집 한국건축(김도경, 현암사, 2011), 한국의 문과 창호(주남철, 대원사, 2001), 화성성역의궤 건축용어집(경기문화재단, 2007).

필자 이연노(李演魯)

여막
廬幕

정의 부모상을 당하여 상주가 삼년상을 치르면서 무덤이나 궤연 옆에서 여묘살이를 할 때 지은 임시 거처.

역사 삼년상三年喪 기록은 삼국시대부터 나타나지만 여막廬幕에 관한 기록은 고려시대부터 나타난다. 고려 의종 때 손응시孫應時, 명종 때 장광부張光富의 여묘 3

년 효행 기록, 경주의 손시양孫時揚이 여막을 짓고 삼년상을 치러 정문旌門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에는 최누백崔累伯이 아버지를 잡아먹은 호랑이를 잡아서 복수한 다음 3년 동안 여묘廬墓에서 살았다는 기록, 정몽주가 여막에서 삼년상을 치렀다는 기록 등이 전한다.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도입한 조선시대가 되면 여묘살이로 삼년상을 치른 백성에게 국가가 상을 내린 기록이 많다. 그러나 주자朱子의 『가례家禮』에 장지葬地에서 신주神主를 조성하여 집으로 모셔오는 반곡反哭의 절차가 있어 여묘살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대표적인 것으로 노수신盧守愼(1515~1590)과 김우옹金宇顒(1540~1603) 논쟁이다. 노수신이 "민간에서 반혼返魂의 예를 행함으로써 상례의 기본이 무너져 풍속이 야박해지고 있다."라고 하자 김우옹은 "반혼이 고례古禮인데, 여묘를 하려고 반혼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예가 아니라."라고 반론한다. 류성룡柳成龍(1542~1607)이 둘의 주장이 옳다고 중재하고 단지 상을 치르면서 근신하지 않는 자만 적발하는 것으로 일단락된 유명한 일화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전한다.



여막 | 경북 안동 학봉 종택 | 2011 | 국립민속박물관

내용 여막이란 부모의 산소 옆에서 여묘살이를 하면서 삼년상을 치르고자 지은 임시 움막이다. 그러나 상례 때 복인服人이 거처하는 여차廬次도 오두막처럼 지었기에 여막이라고 한다. 이는 궁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집 안에 세우는 여차는 여막 모양이었지만 중문 바깥의 동쪽 담장에 서까래 같은 나무를 걸쳐 만들었다. 『의례儀禮』에 따르면 "효자는 의려倚廬에 거처하는데 거적 위에서 흙덩이를 베고 자며 질絰과 대帶를 벗지 않고 지낸다."라고 하였다. 또 "우제虞祭를 지내고 나면 기둥으로 들보를 받치며 자리를 깔고 잔다."라고 하였다. 각종 예서에서도 부모를 돌아가시게 한 죄인으로서 상주의 고통스러운 생활을 강조한 내용과도 같다.

조선시대에는 『가례』에 따라 효孝를 강조하였기 때문에 사대부 중심으로 여막이 유행하였다고 하지만 막상 여막의 구조를 알려주는 자료는 거의 없다. 다만 김장생金長生의 『가례집람家禮輯覽』「도설圖說」에 그려진 <의려도倚廬圖>가 있지만 여차여서 산소의 여막을 짐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의려도>에는 동쪽 벽의 서쪽에 기대어 지은 움막을 간략하게 그렸는데 풀로 거적을 엮어 덮는다고 하였다. 최근 김용환과 김형래는 묘소 옆에 짓는 여막 구조가 선사시대 움집과 유사한 형태로, 지붕과 벽체를 이엉으로 두른 구조물이라고 추측하였다. 아무리 움집이라 하더라도 두 번의 여름과 겨울을 나야 하므로 취식과 취침이 가능하고, 겨울의 한파를 막을 수 있는 난방시설을 갖추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안동의 이정회李庭檜(1542~1612)는 모친상을 당하여 여막에서 생활하면서 찾아오는 손님도 맞이하였다. 추운 겨울에는 노비들이 수시로 숯과 나무를 마련하여 추위를 견딜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김성일金誠一은 삼년상 기간에 모친의 행장과 묘지문을 작성하였고, 1년이 지난 뒤에는 『상례고증喪禮考證』을 편찬하였다. 이러한 학문 성과는 바로 여막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류성룡柳成龍 역시 60세에 모친상을 당하

여 여막살이를 하면서 『신종록愼終錄』, 『영모록永慕錄』, 『상례고증喪禮考證』 등을 찬술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보면 여막은 거처가 가능한 시설을 갖추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유명 종가에서는 현재까지도 삼년상을 지내고 있다. 이들 종가의 여막은 산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궤연几筵을 설치한 빈소殯所가 있는 건물의 외벽을 이엉으로 덧씌운 것을 말한다. 이는 『가례』의 의절에 따라 반곡을 하여 집에 마련한 빈소에 산소에서 제주題主한 신주를 모시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래서 외벽을 이엉으로 덧씌운 빈소에서 여묘살이를 한 것이다. 이는 시신을 매장한 산소의 백魄보다는 사당祠堂에 모신 신주인 신神 혹은 혼魂을 더 중요시하는 『가례』를 따른 결과이다. 따라서 기록에 등장하는 유명인사들의 삼년 시묘살이는 대부분 이러한 형태였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 유명 종가에서 전승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특징 및 의의 여막은 삼년상이라는 제도에 따른 여묘살이를 위하여 등장한 움막이다. 효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부모를 돌아가시게 한 상주는 거친 자리에서 상복을 벗지 않는 고통스러운 생활을 함으로써 그 죄를 갚겠다는 자식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三綱行實圖, 禮記, 朝鮮王朝實錄, 상례와 시묘살이(김문택, 조선시대생활사2, 역사비평사, 2000), 시묘살이 여막의 복원적 고찰(김용환·김형래, 박물관지10, 충청대학교박물관, 2001), 한국의 상례문화(김시덕, 민속원, 2012), 한국일생의례사전(국립민속박물관, 2011).

필자 김시덕(金時德)

연가
煙家

정의 굴뚝 윗부분을 장식하기 위하여 올린 집 모양의 특수 기와.

내용 연가煙家는 굴뚝 꼭대기에 올리는 갓으로, 빗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장식 역할을 한다.



십장생 굴뚝과 연가 | 서울 종로구 경복궁 자경전 | 국립민속박물관

굴뚝 위에 올리는 갓의 형태를 집 모양으로 만들기 때문에 연가라고 부른다.

연가는 기능보다 장식적 측면에 무게를 두고 설치하는 특수 기와이다. 일반 기와에 비하여 제작 기간이나 비용이 더 많이 들어 궁궐과 같은 권위 있는 고급 건축에서 주로 확인된다. 궁궐 전각의 굴뚝은 연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물과 거리를 두고 세우는 경우가 많다. 이때 여러 아궁이에서 지핀 불의 연기가 한 굴뚝에서 배출되도록 연도 방향을 조절한다. 굴뚝에 다다른 연도는 각기 다른 구멍과 연결되도록 시설한다. 즉 굴뚝은 하나지만 굴뚝 내 구멍은 아궁이 수만큼 만들어져 면적이 커지게 되고, 구멍마다 다른 연가를 올리기 때문에 연가의 수를 보면 아궁이의 수와 온돌방의 면적을 짐작할 수 있다.

연가를 설치한 궁궐 굴뚝 중 경복궁 자경전에 설치한 십장생 굴뚝이 단연 으뜸이다. 자경전 굴뚝은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해, 산, 구름, 바위, 소나무, 대나무, 거북, 사슴, 학, 연꽃, 불로초 등을 제각기 다른 조형전造形塼으로 장식한 예술 가치가 인정되어 보물 제810호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예술적 가치와는 별개로 자경전 굴뚝에는 열 개의 연가가 올려져 있다. 즉 건물 온돌방에 시설된 아궁이가 열 개라는 의미이다. 실제로 하나로 이어진 자경전과 협경당에는 열 개의 아궁이가 있다.

특징 및 의의 연가는 장식을 위해 제작된 특수 기와이지만 연가의 수가 갖는 의미를 이해하면 온돌방의 연기

가 보이지 않게 배출되도록 매우 섬세한 부분까지 건축적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경복궁 등 4대궁 온돌작동 검증을 위한 기초조사(문화재청, 2018), 덕수궁 준명당·즉조당 온돌수리 공사보고서(문화유산국민신탁, 2018),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김왕직, 동녘, 2007), 한국건축대계4-신편 한국건축사전(장기인, 보성각, 200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정정남(鄭貞男)

연립주택
聯立住宅

정의 층수 4층 이하, 면적 660㎡ 이상의 공동주택.

역사 우리나라의 연립주택聯立住宅 발생은 두 가지 수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일제강점기에 노동자들의 공동숙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건축형식은 길게 연속된 건축인 일본의 나가야長屋를 도입하는 형식이었다. 이는 현재의 연립주택과 유사한 노동자주택이었다. 또 다른 주거 수요는 도시상업지역에서 주택과 상가가 혼합된 형식인 상가주택과 관련이 많다. 소규모 토지에 건축되는 건축물의 양 측면이 연속되는 상가주택이 있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맞대어 건축한다.

상가주택으로서 연립주택은 6·25전쟁 복구, 도심재건, 부족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되었다. 1958년부터 도시계획상 미관과 전쟁 복구에 주안을 둔 상가주택이 서울의 중심인 을지로와 남대문로에 건설되었다. 상업지역에서 1~2층은 점포이고 3~4층은 주택으로 사용된 점포주택이다.

주거단지로 공급된 연립주택은 서울의 은평구 대조동 재건주택, 부흥주택(9평형, 1957~1958) 단지, 동대문구 회기동 희망주택·재건주택·국민주택(9평형, 1955~1959), 마포구 아현동 국민주택



연립주택단지 | 서울 영등포구 | 1978 | 서울사진아카이브

(1964~1965)의 일부에 4호 및 6호에 일부 적용되었다. 연립주택 단지로는 동대문구 휘경동에 단지(17평형, 1957)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도시화와 경제 성장이 현저하게 빨라진 1970년대 이후에는 연립주택보다 토지 이용 효율성이 높고 사업 경제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 아파트로 대체되는 추세를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연립주택은 아파트에 비하여 경제성과 효율성이 낮다고 평가되고 단지 규모, 부대시설, 주차 환경, 한층 진화된 수준의 주거설비에 비하여 더욱 멀어진 주거형으로 여겨져 온 것이 사실이다. 부유층에서는 소위 'OO빌라'라는 고급형 연립주택을 주거단지로 개발하고자 하였으나 아파트의 대중성에 밀려 그 가치를 확장시키지 못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립주택에 대한 소비자 계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연립주택의 장점을 홍보하는 소비자 계몽활동 기간이 필요하다.

내용 연립주택은 2호 이상의 주택이 연속된다. 즉 2호 연립, 4호 연립, 6호 연립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도로에 면하여 연속으로 연접되는 주택형, 주택들이 중간에 마당을 만들면서 배치되는 중정형, 연립주택들이 단지를 이루는 타운하우스형, 상가주택 등 형태가 다양하다. 주택의 평면 구성은 거실과 주요 침실이 채광 및 통풍을 위하여 중정, 가로에 면하는 구성이 된다.

우리나라 건축법에 의한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m^2를 초과하고,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4개 층을 초과하면 아파트로 분류된다. 물리적으로만 보면 연립주택은 다세대주택, 아파트와 구분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러나 연립주택은 주택이 1면 이상 인접하여 연속되는 특성을 띠기 때문에 아파트에 비하여 연립주택 구성이 다양해질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우리나라 주거단지계획으로 조성된 연립주택은 전후 복구와 도시주택 공급을 위하여 주택공단에서 공급하였다. 그러나 빠른 경제 성장과 급속히 보급된 아파트단지의 효율성에 비교되어 전근대식 주택으로 잘못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력이 성장한 이후에 개발된 판교 등지에서 보여 준 연립주택은 정숙하고 안정된 커뮤니티 확보, 우수한 건축기술 도입으로 다시 각광 받기 시작하고 있다. 더욱이 안정된 이웃관계가 더욱 중요한 노인주택으로는 공동체 생활환경이 더욱 중요해졌고, 이러한 계층에 대한 코하우징 등에 연립주택의 유형은 이상적인 주거형으로 재평가 받고 있다.

특히 경사 지형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자연지형을 존중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주거지를 점진적으로 조성하는 데 적절한 건축 유형이어서 저성장기에 들어선 우리나라 주거형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대한주택공사단지총람1954~1970(대한주택공사, 1979), 도시·주거단지계획(양동양, 기문당, 1992), 한국건축통사(대한건축학회, 기문당, 2014), 한국 주거의 공간사(전남일, 돌베개, 2010),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필자 손승광(孫勝光)

연상
硯床

정의 조선시대에 벼루와 붓 등을 보관한 옛 책상 높이의 벼루집.

개관 연상硯床은 벼루와 붓 등 필기도구를 보관한 우리 고유의 가구이다. 벼루를 넣어 보관할 만한 크기의 상자 형태에 서안과 경상 높이의 다리를 붙였다. 전통문화 생활 방식에 맞춘 고유한 형태로,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발달하지 않았다. 다리를 붙여 만들었기 때문에 '연상'으로 이름한다. 다리가 달려 있지 않은 작은 상자 형태는 '연갑硯匣'으로, 서안에 올려 두고 사용할 수 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이러한 '연갑'을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상자 형태의 연갑을 사용하였다. 『고려사高麗史』 열전列傳 「이승휴李承休」에서 서안 위에 연갑을 올려 두었다는 기록이 있고, 조선시대 상자형의 연갑이 현전한다. 다리를 붙여 높인 형태로 제

작된 벼루 보관 가구로는 연궤硏几, 연대硯臺라는 명칭도 전한다. 하지만 19세기 이후에 오면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과 의궤儀軌에 연상 및 연갑으로 분류하여 기록하고, 연궤나 연대 명칭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벼루를 보관하던 전통가구로 상자형과 다리를 붙여 만든 형태가 공존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19세기 이후 연갑과 연상이라는 용어로 정립된 것으로 보인다. 연상은 맨 위에 뚜껑을 덮어 두고 그 아래 선반이나 서랍을 만들어 둔 형태이다. 간혹 보이는 '연대硯臺'라는 벼루집의 형태는 뚜껑 없이 맨 위에 벼루를 얹어 두는 공간을 마련해 둔 것으로, 연상과 구별된다.

즉 오늘날 전통 벼루집의 일반 명칭은 연갑과 연상이고, 간혹 연대硯臺 형태의 벼루집도 전하고 있다. '벼루집'은 벼루를 넣어 보관하는 가구의 통칭이다.

내용 연상이나 연갑은 벼루를 담아 두는 벼루집이다. 연상에는 작은 서랍이나 수납공간을 만들어 붓 등 갖가지 필기도구와 문서를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벼루집은 선비 방에 놓이는 대표 문방가구로 꼽히지만 지체 높은 여성의 방에 놓이는 필수품이기도 하였다. 1730년(영조 6)에 대행대비[宣懿王后]에게 경종이 내린 연갑을 함께 납광納壙하라는 영조의 지시가 왕조실록에 전해진다.

조선 후기 연상의 형태는 대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맨 위에 뚜껑을 덮은 벼루 넣는 공간이 있고, 그 아래로 서랍이 있다. 그 다음 맨 아래에는 선반을 맨 공간을 만들었다. 맨 위의 뚜껑은 대개 경첩 없이 들어 올려서 열도록 되어 있고, 그 아래에 달린 서랍에는 대개 손잡이를 만들지만 손잡이를 일부러 만들지 않고 서랍 아랫면에 손을 넣어 천천히 밀어서 열도록 고안된 경우도 있다.

연상의 재료로는 소나무나 감나무와 같이 결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지만 견고한 나무를 쓴다. 또 오동나무나 먹감나무와 같이 무늬 결이 좋은 나무 혹은 물푸레나무, 늙은 뽕나무, 무늬가 있는 황유목黃楡木, 반죽斑竹 등 독특한 나무 재질을 살려 만든 것이 선호되었다. 글 쓰는 선비에게 연상은 필수 생활용품일 뿐만 아니라 가까이 두고 아끼는 애장품으로서 공예 감각의 아름다움도 충분히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연상 | 가로42 세로28 높이26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농암聾巖 이현보李賢輔(1467~1555)의 초상화에서 이현보 앞에 있는 경상 위에는 주칠의 연갑이 놓여 있다. 주인공을 빛나게 해 줄 소품으로 두드러진다. 『효종실록孝宗實錄』 1657년(효종 8)의 한 기사에서 인평대군麟坪大君 집에 도둑이 들어 훔쳤다는 물건 목록에 금병풍金屛風 홍전紅氈, 연갑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테면 벼루집은 선비 방에 둔 값비싼 공예품이기도 한 것이었다.

특징 및 의의 연상을 사용한 주요 계층은 조선의 유학자들이었다. 학문에 힘쓰고 글을 남긴 선비들의 필기구를 담던 필수품이었다. 상자형의 갑에 다리를 달아 높인 다음 수납공간을 만들어서 좌식생활에 맞는 규모로 만들고, 서랍과 선반의 짜임새 있는 구조로 된 편리함도 갖추었다. 표면은 특별한 장식 없이 단순한 형태로 만들었다. 금속의 손잡이를 별도로 달아 두지 않은 것도 깔끔한 외관을 유지하기 위한 한 방도인 것으로 보인다. 이덕무李德懋(1741~1793)의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후목연갑명朽木硯匣銘」에 먹감나무의 자연스러운 묵색이 그 자체로 연갑의 장식이 되었다는 기록은 자연 그대로를 꾸밈으로 하던 당시의 미감이 드러나는 글귀이다.

참고문헌 高麗史, 譯語類解, 가구(김삼대자, 한국민속의 세계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조선시대 문방제구(김삼대자, 국립중앙박물관, 1992).

필자 김미라(金美羅)

연탄
煉炭

정의 무연탄가루 등을 혼합해서 성형한, 검은색의 구멍이 뚫린 고체 연료.

개관 연탄煉炭은 무연탄을 주원료로 하며, 무연탄에 점결제粘結劑를 혼합해서 가루로 분쇄한 후 물을 넣어 뭉친 것을 성형기에 넣어 공기구멍이 뚫린 모양으로 찍어 굳혀서 만든다. 이때 점결제는 연탄이나 연탄재가 잘 깨지는 것을 방지하며, 연탄 내부에 위아래로 뚫은 구멍은 공기에 노출되는 표면적을 늘려서 연탄이 더 잘 타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연탄이 가정용 연료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이다. 그러나 1950년대까지도 여전히 장작과 숯이 가정용 연료의 주류였다. 연탄이 가정용 연료의 주종으로 부상하게 된 것은 1956년 정부에서 석탄개발 5개년계획 및 연료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1957년 석탄의 다량생산 체제가 확립된 이후였다. 이와 함께 정부가 강력한 산림보호정책을 취하면서 산에서 나무를 베거나 연료를 채취하기가 어려워지자 전국의 연탄 사용이 증가하게 되었다.

1960년대 초반 연탄공장에서는 15공탄, 19공탄, 25공탄, 39공탄, 49공탄, 4각 16공탄 등 6종류의 연탄을 생산하였다. 이 가운데 가정에서 취사 및 난방용 연료로 사용하던 연탄은 19공탄(일명 '구공탄')이었다. 연탄공장은 1961년 말 기준으로 서울에 458개, 전국에 2,054개 업체가 있었다. 연탄제조업은 1970년대까지 전성기를 누렸고, 이 과정에서 탄광업도 함께 호황을 누렸다. 연탄 소비는 1980년대 후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기름·가스·전기 등이 연탄을 대체하였다. 1990년대에는 연탄 소비가 크게 줄었다. 에너지 소비에서 연탄 원료인 무연탄의 비중은 1991년 7.9%에서 1996년 이후 1%대로 떨어졌다.

내용 연탄은 겨울철 난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난로의 연료로도 사용되었지만 가정에서는 주로 방에 딸린 붙박이식 아궁이나 바퀴 달린 레일식 화덕에서 연탄을 땠다. 붙박이식 아궁이는 초기에 기존에 있던 장작용 아궁이 자리에 설치하였다. 재래식 구들 구조는 그대로 두고 아궁이만 부뚜막에 토제관土製管을 넣어 연탄용 아궁이로 개조하였다. 이러한 설치 방식은 연탄이 빠른 속도로 보급되는 데 기여하였지만 한편으로 연탄가스 누출 사고가 빈발하는 원인이 되었다. 난방 시 갈라진 방구들 틈으로 새어 나온 연기가 장작을 땔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연탄을 땔 때는 바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레일식 아궁이는 구들장 밑으로 화덕을 밀어 넣어 난방을 하다가 음식을 조리하거나 연탄을 갈 때 화덕을 꺼내는 방식이다. 이러한 레일식은 연탄 화덕의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하나의 화덕으로 여러 방을 돌아가며 난방할 수 있어서 연탄 절약 효과가 있었다.

붙박이식이든 레일식이든 가정용 연탄아궁이는 대개 상하 2탄식이었다. 아래에 불붙은 연탄을 넣고 위에는 새 연탄을 올렸다. 그러다 위에 있는 연탄이 다 타기 전에 연탄을 갈아 넣어야 하였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루에도 수차례 연탄을 갈아야 하는 수고로움은 연탄가스 중독 위험과 함께 연탄 사용에서 가장 불편한 점이었다. 그러나 연탄은 가격이 저렴하고 화력도 좋아서 가정용 연료로 인기가 높았다. 이에 겨울을 앞둔 가정에서 연탄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미리 확보해 두는 일이 김장과 함께 월동 준비의 핵심이었다.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 연탄 값 폭등이나 연탄 파동, 연탄 사재기 등 문제가 반복되었다.



연탄 공장 작업 광경 | 1963 | 국가기록원

특징 및 의의 연탄이 가정용 연료로 확산되면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발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정부는 연탄가스 제독법을 공모하고 연탄가스 누출 방지법을 적극 홍보하였으나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연탄가스 누출 사고가 줄게 된 계기는 이른바 '새마을보일러'의 등장이었다.

새마을보일러는 1960년대 후반부터 보급되었다. 기존에 설치된 인공구들을 이용한 연탄 온돌 난방 방식과 달리 연탄의 화력으로 파이프 코일 속의 물을 데운 다음 그 물이 방바닥에 설치한 파이프를 따라 순환하게 하는 온수배관 난방이다. 이 방식은 설치도 간편하고, 설치 이후에도 윗목 아랫목 구분 없이 방바닥 전체가 따뜻하여 열효율이 높았다. 게다가 온수배관 난방 방식이어서 연탄가스 누출 사고 위험도 낮았다. 부엌에 붙어 있던 연탄아궁이를 베란다와 같은 별도의 공간에 설치할 수 있다는 점도 연탄가스 중독의 위험을 현저히 낮췄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새마을보일러는 크게 인기를 끌며 급속히 확산되었다.

한편 새마을보일러 설치는 가정에서 난방열과 조리열을 분리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그 결과 석유풍로와 가스레인지 사용이 확대되고 입식부엌으로의 개조가 촉진되었다.

참고문헌 한국 주거의 미시사(양세화·전남일·홍형옥, 돌베개, 2009), 한국인 어떤 집에서 살았나(김혜숙 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대한민국을 즐겨라-통계로 본 한국 60년(김영훈·손해용·정경민, 한국통계진흥원, 2008), 연탄보일러에서 전기보일러까지 50년(한국온돌난방시공협회, 2000), 연탄제조업체의 실태 조사 분석 및 공급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석탄합리화사업단, 1988), 연료(경향신문, 1962.9.12).

필자 김혜숙(金惠淑)

영단주택
營團住宅

정의 1940년대에 조선주택영단朝鮮住宅營團이 공급한 집단 주택.

내용 '영단주택營團住宅'은 1941년에 공포된 <조선주택영단령朝鮮住宅營團令>에 근거하여 설립된 조선주택영단이 공급한 집단 주택을 말한다.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총 18개 도시에 총 1만 2,064호의 주택을 설립하였다. 전체 공급량의 약 37%에 해당하는 4,472호가 경성에 건립되었고, 여기에 인천에 건립된 1,302호까지 더하면 전체 공급의 48%에 해당하는 양이 경인공업지대京仁工業地帶에 집중되었다. 경성에만 총 42개 지역에 영단주택을 건설하였다. 그중에는 영등포·돈암 등지의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이 열 곳, 상도·신촌과 같은 경성부의 부영府營 주택지가 두 곳 포함되어 있었다. 가장 먼저 사업을 시작한 곳은 1941년 영등포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의 도림정(현재 문래동)과 번대방정(현재 대방동), 일단一團의 주택경영지의 하나인 상도정(현재 상도동) 등 세 곳이었다. 이들은 모두 영등포 공업단지의 배후 주거지라는 공통점이 있는 곳이었다. 전쟁에 필요한 물자 생산 노동력 확보라는 취지에 어울리는 사업 대상지 선정인 것으로 보인다. 구역별로 보면 상도정이 1,067호로 가장 많았다. 도림정이 651호, 번대방정이 64호였다.

주택은 표준설계도를 이용하여 공급하였다. 갑형甲型(20평형)·을형乙型(15평형)·병형丙型(10평형)·정형丁型(8평형)·무형戊型(6평형) 등 총 다섯 종류로 나뉘고 형별로 갑형 11종, 을형 10종, 병형 4종, 정형 2종, 무형 2종 등 총 29종류의 평면이 있었다. 이 평면들은 조선건축회朝鮮建築會가 발표한 「조선에 있어서 소주택의 기술적 연구 보고朝鮮に於ける小住宅の技術的研究報告」를 기초로 마련된 것으로, 맞배지붕 형식에 중복도형 평면의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었다. 갑형은 단독주택형, 을형은 단독주택형 또는 2호 연립형, 무형은 2호에서 4호 연립형, 정형은 2호에서 8호 연립형, 무형은 10호 연립형이었다. 당시 일본의 영단주택과 비교하면 형별 규모가 작고, 한반도의 추위를 견디기 위하여 온돌실을 하나씩 두고 있었으며, 외벽을 모르타르 벽으로 하고, 이중창을 설치하였다는 점 등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이는 외관은 일본식, 내부는 절충식으로 하여 주택 계획에서도 내선일체內鮮一體 사상을 구현하려는 의도가 내재된 결과이기도 하였다고 한다.

영단주택 사업 초기인 1940년대 초반만 해도 갑형, 을형, 병형의 규모가 다소 큰 주택들이 지어졌지

만 일제강점기 후반으로 갈수록 전력戰力 증강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산업 노동자들만을 위한 주택 건설로 제한되었다. 따라서 전시규격戰時規格 주택인 무형戊型을 주로 공급하였고, 전쟁 막바지에는 응급공원주택應急工員住宅이라는 4.5평에서 7.5평의 극소형 주택을 짓기도 하였다. 10평 이상 주택은 일본인, 10평 이하 주택은 조선인이 각각 입주하도록 하여 차별을 두기도 하였다. 갑형 주택은 분양, 을형 이하는 임대를 원칙으로 하였다.

특징 및 의의 일제강점기 도시로의 인구 집중 현상이 매우 심각하였다. 20만 명에 불과하던 경성 인구가 1940년대가 되면 100만 명에 가까운 탄핵 시위에 따라서 경성의 주택 부족률이 22%를 상회하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서민들은 주택난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한 조선총독부와 경성부의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다가 1930년대 말 중일전쟁을 비롯한 전쟁이 본격화되자 전쟁물자 생산에 필요한 산업노동력 확보 목적을 위하여 주택 정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공급한 것이 바로 영단주택이었다.

광복 이후 영단주택들은 적산가옥敵産家屋으로 분류되어 한국인에게 불하되었다. 다다미방은 온돌방으로 바꾸고, 중복도를 없애 마루를 중심에 놓는 등 한국인들의 주생활에 맞게 바뀌어 사용되었다. 이것은 비록 영단주택이 식민지 상황에서 정치·사회적 의도가 내재된 주택으로 지어졌지만 결국은 한반도의 풍토에 적합하면서도 한국인의 오랜 생활습관을 반영하는 주택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음을 잘 보여 준다.

참고문헌 1941년~1945년에 건축된 영단주택의 주거실태에 관한 연구(신병학·이선구,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계획계9-11, 대한건축학회, 1989),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영단주택의 변화 및 그 원인에 관한 연구(박용환·이완철·이현희,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계획계20-1, 대한건축학회, 2000), 조선주택영단의 주택지 및 주택에 관한 연구(川端貢·冨井正憲·이광노,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계획계10-1, 대한건축학회, 1990), 한국건축개념사전(한국건축개념사전기획위원회, 동녘, 2013), 日本·韓国·台湾·中国の住宅営団に関する研究(冨井正憲, 東京大学 博士学位論文, 1996).

필자 이경아(李炅娥)

영조척
營造尺

정의 전통사회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척도로, 건축·토목·조차造車·조선造船 등에 사용된 자.

개관 전통사회에서 길이를 재는 데 사용된 기준 척도는 네 가지이다. 그중 하나가 영조척營造尺이다. 영조척은 기본적으로 집을 짓거나 성을 쌓는 데 사용하는 자를 말하지만 우마차를 만들거나 배를 만들 때도 사용하였다. 황종척黃鐘尺은 음악의 음률을 고정시키는 기준으로 사용된 척도이다. 포백척布帛尺은 면포를 잴 때 사용하는 자이다. 조선시대에는 세금을 면포로 받았기 때문이다. 양전척量田尺은 땅의 크기를 재거나 지역 간 거리를 계측하는 데 사용된 척도였다.

영조척은 흔히 길이를 재는 자로 알고 있려져 있지만 그 이름은 시대마다 다르게 불렸다. 고구려 때는 고려척高麗尺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이처럼 고려척·주척周尺·한척漢尺·당척唐尺은 사용하던 시대에 따라 붙여진 명칭이며, 복주척福州尺·항주척杭州尺 등은 지역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다.

내용 영조척은 흔히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자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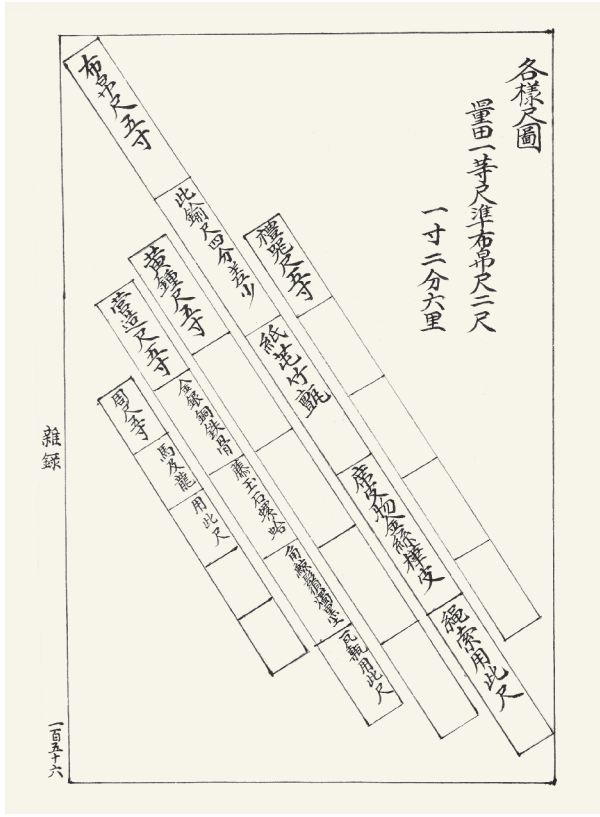


영조척 | 김홍도 | 기와이기 중 부분 | 조선 후기 | 국립중앙박물관

만 자의 길이는 시대마다 달랐다. 고구려 성으로 알려진 경기도 하남 이성산성에서 고구려척이 발굴되었다. 일부 파손되었지만 다행히 우측 눈금 시작부는 잘 보존되어 있어 척도 전체의 길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미터법으로 환산한 결과 고구려척으로 한 자는 35.6㎝이다. 고구려 평양성 외성에서 길을 정연하게 '井'자 모양으로 만든 도시 흔적이 확인되었다. 이를 분석한 결과 격자형 조방제를 적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조방의 크기를 고구려 척도로 분석하면 큰 리里는 가로 세로가 각각 2,000자이고 방坊은 500자, 작은 방은 250자로 만든 것이다. 충청남도 부여 쌍북리에서 백제시대 자가 출토되었다. 일부가 멸실되었지만 눈금이 남아 있다. 분석 결과 이 눈금을 기준으로 한 자는 29㎝이다. 이는 당척(29.5~29.7㎝)인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집을 지을 때 집 크기를 척도로 제한한 기록도 있다. "진골의 집은 실의 길이와 폭이 24척을 넘을 수 없으며(眞骨室長廣不得過二十四尺) …… 담장의 높이는 8척을 넘어서는 안 되고垣墻不過八尺)……."라고 적혀 있다. 이와 같은 척도가 모두 영조척이다.

조선 초기에는 명明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던 당대척唐大尺을 영조척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조선이 영조척을 독자 제정한 것은 세종世宗(1397~1450, 재위 1418~1450) 때 들어와서이다. 이때 영조척을 비롯한 각종 척도를 통일하여 각 지방에 보내 이를 기준으로 제작해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때 사용된 영조척은 한 자의 길이가 30㎝ 정도였다.

조선 초기 영조척의 치수 단위 명칭을 보면 1자[尺]를 기준으로 이보다 짧은 1할은 치[寸], 1치의 1할은 푼[分], 1푼의 1할은 리釐라 하고 1자의 10은 1장丈이라 하였다. 영조척의 길이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가 있었다. 정조 대에 와서 한 번 교정하였고, 순조 대에 와서도 다시 교정한 기록이 있다. 조선 말기 1894년(고종 13) 갑오개혁 때 근대 도량형의 개혁안을 세운 것이 계기가 되어 1902년에 와서야 비로소 근대 도량형의 정비를 보게 되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통 영조척의 1자 길이 30.3㎝는 이때 정해진 것이다. 영조척은 크게 금속(구리)과 목재로 만든다. 금속으로



각양척도 | 탁지준절 | 조선 말 | 규장각한국학연구원·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만든 것은 국가에서 제작하여 각 지방으로 보내는 기준 척도이고, 목재로 만든 것은 일반형 영조척이다.

특징 및 의의 영조척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척도이다. 집을 짓거나 가구를 짤 때도 영조척을 사용하였다. 영조척은 국가 차원에서 통일된 길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봉건시대에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하여 영조척을 비롯한 모든 척도, 이른바 도량형을 통일시키고자 하였다. 지금은 모든 척도가 통일되어 있지만 전통사회에서는 영조척 외에 길이 기준이 다른 황종척, 포백척, 양전척이 있었다.

참고문헌 백제시대의 자에 대한 연구(이강승, 한국고고학보43, 한국고고학회, 2000), 이조척도에 관한 연구(박흥수, 대동문화연구4,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67), 조선왕조 시대의 도량형 고찰(정덕기, 호서사학6, 호서사학회, 1978), 한국의 건축연장 연구1(이왕기, 목원대학교논문집7, 목원대학교, 1984), 한국의 도량형(국립민속박물관, 1997), 한국중세 도량형제 연구(이종봉, 혜안, 2001).

필자 이왕기(李王基)

영주 무섬마을

정의 국가민속문화재 제278호로 경상북도 영주 문수면 수도리에 반남박씨와 선성김씨 두 성씨가 거주하고 있는 전통마을.

개관 무섬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조선조 현종 7년(1666)부터로 당시 강 건너 머럼遠庵에 살고 있던 박수朴樅(1642~1729)가 결혼 후 분가하기 위해 이곳으로 들어와 대나무 숲을 쳐내고 1666년에 최초로 지은 집이 만죽재晩竹齋(경북 민속문화재 제93호)이다. 박수는 영주에 터를 잡은 반남박씨潘南朴氏 박침朴琛의 6대손으로 아버지인 경안景顔과 어머니 선성김씨宣城金氏(예안김씨禮安金氏라고도 함) 사이에 태어난 둘째 아들로 창녕성씨昌寧成氏인 부인과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었다. 그 후 박수의 손자인 박이장朴履章(1712~1786)이 1757년(영조 33)에 선성김씨 가문의 사위를 보게 되었는데, 그가 곧 선성김씨 김상金尙의 19대 손인 김대金臺(1732~1809)이다. 김대가 처가동네에 자리 잡고 난 후 무섬은 반남박씨와 선성김씨 두 성씨의 동족마을로 번창하며 유서 깊은 전통마을이 되었다.

그 후로 주민 수가 늘어나 구한말에는 120여 가구에 마을 주민이 500명이 살았을 만큼 번성하였지만 1960년대 이후 산업화 진행으로 이농이 늘면서 마을의 규모가 점차 줄었다. 현재 마을에는 50여 가구(반남박씨 12가구, 선성김씨 20가구, 기타 18여 가구)만 남아 있으나 광복 당시만 해도 90가구가 넘었다고 한다.

무섬마을의 입지형국을 『금남경』「사세편四勢編」의 "현무수두玄武垂頭하고, 주작상무朱雀翔舞하며, 청룡완연靑龍蜿蜒하고, 백호준거白虎蹲踞하다."는 기록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사신사四神砂 중 무섬마을 뒤쪽에 위치한 현무玄武 은고개산은 그 모양이 단정하고 준수하다. 또한 좌우의 청룡과 백호가 균형을 이루어 바람막이 역할을 하면서 정답게 수두垂頭하며 무섬마을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다.

태백산 줄기인 안동의 학가산鶴駕山 줄기 끝자락이 돌출하여 반도형상을 이루고, 낙동강 지류인 내성천乃城川이 마을의 동쪽 잘록한 일부를 제외한 삼면을 휘감아 돌아나간다. 이처럼 마치 오메가Ω 같은 모양으로 물이 마을을 도는 풍수 형국은 길지 중의 길지로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연꽃이 물 위에 떠있는 모습), '매화낙지형梅花落地形'(매화가 땅에 떨어진 모습), '행주형行舟形'(배가 가는 모습)이라 불리며 명당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이와 유사한 형국을 취한 곳으로 경북 지역의 안동 하회마을(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과 예천 회룡포(명승 제16호)가 있다. 이 두 곳은 물줄기가 동-남-북-서쪽으로 빠져나가는 데 비해 무섬마을은 동-북-서-남-동으로 흘러간다는 차이가 있다. 풍수에서는 이와 같은 물돌이의 마을을 태극명당이라고도 한다. 이 세 마을은 서쪽 절벽 위에 정자(또는 정사)가 앉아 있는 유사점을 가지는 동시에 하회마을과 회룡포는 마을 밖에서 볼 때 산태극·수태극이 되고 무섬마을은 마을 안에서 볼 때 산·수태극을 이룬다는 차이점도 가진다.

한편 이런 형국의 무섬마을은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섬과 같다고 해서 '수도리水島里'라 부르기도 하고, 또한 중국의 섬계剡溪(절강성浙江省에 있는 조아강曹娥江의 상류)지역의 지형과 비슷하다고 하여 '섬계마을'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마을은 뒷산인 달봉산을 배산하여 서남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뒷산에는 소나무·참나무 등으로 우거진 자연수림이 형성되어 있고, 반남박씨 선조 묘소가 있다. 서쪽으로는 마을 앞에 서천이 합수하고 있으며,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천과 그 너머의 전답과 주위의 산들이 근현대기의 개발세력에 굴하지 않고 잘 보전되어 산수가 뛰어난 자연경관을 이루고 있다.

현재 마을 주 진입로는 북서쪽으로 나 있는 수도교(1983년 건설)이고, 옛 진입로는 마을 남쪽으로 건너지르고 있는 '외나무다리'로 근년에 복구하였다. 마을의 터는 남북으로 긴 형상으로 주택들이 풍수원리에 따라 내성천을 향하여 배산임수하고 있다. 북쪽 3분의 1은 '웃마이', 중앙부는 '중간마이', 남쪽의 나머지 3분의 1은 '아랫마이'라 불린다. 박씨 입향조인



외나무다리 | 경북 영주 무섬마을 | 2018 | 정연상

박수가 개기한 중간마이에는 박씨가 다수 살고 있으며, 웃마이와 아랫마이에는 김씨가 주로 살고 있다. 마을에서 가장 먼저 지은 만죽재가 중간마이에 자리를 잡은 이후 분가 등이 종법적 질서에 따라 확산되면서 건립한 와가와 초가가 길게 늘어져 앉아 활 모양의 배치유형을 이루며 무섬마을 고유의 전통마을 풍광을 보여준다.

내용 마을 최초로 지은 만죽재를 비롯한 9개소 가옥이 경상북도 문화재(민속문화재 4개소, 문화재자료 5개소)로 지정되어 있고, 100년이 넘는 가옥도 16개소가 현존하고 있어 조상들의 자취와 숨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가옥 이외에도 정자 3개소(치류정, 환학암, 청퇴정)와 상여집 그리고 멸실되었던 것을 근년에 복원한 서당 아도서숙이 있다. 상엿집은 아랫마이에서도 멀리 떨어진 외진 곳에 있으며, 원래 초가이던 것이 블록조 슬레이트집으로 개변되었으나 상여와 장례 용구들이 비교적 잘 보관되어 있다. 아도서숙의 '아도'는 아세아 조선반도 내 수도리의 줄인 말이고 '서숙'은 옛날 서당을 가리키는 말로 1928년에 열어 1933년 일제강점기 때 강제로 문을 닫을 때까지 교육기관이자 이 지역의 항일운동의 거점 역할을 하였다. 멸실되었던 아도서숙은 2014년 옛터에 복원되어 무섬마을 고유의 소중한 유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편, 유교문화권관광개발사업(2000~2010) 때 경북의 전통마을로 지정되면서 일부 잃어버린 마을의 옛 모습을 거의 대부분 되찾았으며, 마을의 좌측편 멀리에는 관광 기반시설인 마을자료관과 체험관을 건립하였다.

무섬마을의 현존 가옥은 ㅁ자형 주택(12개소), 까치구멍집(8개소), 一자형과 ㄱ자형 집 및 기타(15개소)로 구분할 수 있다. ㅁ자형 주택은 안채공간과 사랑공간이 대각선으로 배치된 안마당이 비교적 작은 완전ㅁ자형 뜰집이다. 안방이 익사 쪽으로 세로로 길게 놓이고 안대청에 도장방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이 지역의 특성을 읽을 수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며, 이들 중 박종우 가옥만 안방을 안대청 쪽으로 가로로 길게 배열하는 안동 지역의 유형을 부분적으로 따르고 있다.

까치구멍집은 배연·환기·채광 등을 위한 구멍(일명 까치구멍)이 지붕의 용마루 양쪽 끝에 있고 정면 3칸·측면 2칸의 여칸(6칸)집으로 평면형식상 겹집이다. 봉당(실내 작은 마당)을 통하여 출입하고, 도적이나 짐승의 침입을 막기 위해 외관이 폐쇄적이며 사람과 소가 한 주거공간 내에서 생활하는 인축동거형의 주거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까치구멍집은 안동을 중심으로 영주 및 강원도 남단부까지 미치는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던 초가로 이 지역의 자영농계층에서 많이 지었던 주택 유형 중 하나이다. 까치구멍집의 평면형식은 방을 온돌로 구성한 '온돌중심형'과 앞쪽의 방 한 칸이 마루로 대체된 '마루중심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무섬마을의 까치구멍집 8개소는 모두 '마루중심형' 겹집과 이를 기본으로 하여 확장된 집들로 공간구성이 조금씩 다르다.

一자형 집은 부엌–온돌방–마루–온돌방으로 이루어진 남부형 민가형식이고, ㄱ자형 집은 중부형에 가까운 민가형식이다. 이 밖에도 일제강점기에 건립

한 근대기 한옥들이 여러 채 있다.

무섬마을은 유교가 성행하던 시대에 조성된 마을로 출산의례를 비롯한 전통적인 통과의례(관혼상제)는 대부분 사라지고 어른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지만 제례는 지금도 상당부분 전통적인 방식으로 지내고 있다. 마을의 집에 사당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관습처럼 이어 왔는데, 이는 홍수의 위험이 있는 지형적 조건으로 조상의 신위가 떠내려가는 윤리적 결례를 범하지 않기 위함이다. 이런 관습은 1923년 선성김씨 종가인 김광호 가옥에 사당이 건립되면서 사라지게 되었지만 다른 민속마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귀한 전통으로 무섬마을의 특이점이기도 하다.

주민들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부업으로 양봉을 하기도 한다. 내성천에서 전통적인 고기잡이 방법으로 '겨메기'가 있다. 잡은 고기로 만든 전통음식으로는 은어건진국수가 있다. 육장·점주도 이 마을이 자랑하는 음식이다.

민속신앙으로 공동체신앙인 동제는 없으나 고유의 마을 및 주거 민속인 지신밟기·입춘첩 붙이기·정월대보름놀이·화전놀이·한식성묘·단오놀이·칠석놀이·백중놀이·한가위놀이·마을시제·대동놀이·동지음식 등과 성주신앙·삼신·성불신·용단지·수문신·영등신·조왕신 등이 잘 전승되고 있다.

또한 2000년에는 선조의 얼을 이어받아 유교 문화의 보전 및 마을 환경 정비를 통하여 옛 무섬마을의 명성을 되찾는다는 목적 아래 '무섬마을 보존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잘 운영하고 있다.



마을 전경 | 경북 영주 무섬마을 | 한국관광공사·이범수

특징 및 의의 무섬마을은 역사가 350년 정도 된 이성동족 전통마을이다. 명당의 풍수형국을 제대로 갖춘 가거지로 그 형국이 하회마을과 유사하나 물 흐름과 그 형상에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마을에 자리 잡은 가옥들의 배치 또한 지정 민속마을과 다름은 물론 유사한 형국의 하회와도 다른 궁형의 띠 모양으로 흔치 않은 유형이다. 특히 전통마을의 풍광을 더욱 빛나게 해주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더해 주는 산수가 뛰어난 자연생태 환경이 거의 그대로 보전되고 있음이 돋보인다. 마을에 소재하고 있는 ㅁ자형주택, 까치구멍집, 一자형과 ㄱ자형 집 및 기타 가옥들의 배치 및 평면의 공간구성은 성읍·왕곡·외암 마을과는 지역적 특성을 달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경북 지역의 하회·양동·한개 마을과도 다른 점을 보이는 고유성과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마을과 주거 민속도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참고문헌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인정 자료보고서-무섬마을(영주시, 2012), 무섬마을 전통주택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신치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민속마을 다양화 기초조사 및 지정연구(문화재청, 2011), 수도리 무섬마을 정비 기본계획(영주시, 2004).

필자 정명섭(鄭明燮)

오피스텔

정의 건축법상 업무시설의 한 종류로 분류되는 건축물로서, 하나의 유닛에 숙박과 업무 기능이 혼합되어 있는 건축물.

내용 오피스텔은 하나의 유닛에 숙박과 업무 기능이 혼합되어 있는 건축물이다. 오피스텔이라는 용어는 1985년 마포의 '고려 아카데미텔'이 Office와 Hotel의 합성어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주택은 1가구 2주택 이상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

하여야 해 부담이 되었지만 오피스는 공급 과잉으로 분양이 잘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황에 착안한 개발업자의 아이디어로 공급되었다. 초기의 오피스텔은 지금의 주거용 오피스텔과 달리 오피스 중심이었기에 바닥 난방이 아니라 라디에이터 또는 Fan Coil Unit을 사용하여 난방을 하였고, 주로 소형 중심으로 공급되었다.

1988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업무시설의 종류에 오피스텔을 신설하여 주거 기능을 포함한 업무시설로 정의하여 분명한 법적 지위를 얻게 되었다. 오피스텔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71조(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에 따라 용도 지역상 상업지역 중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 주거지역 중 2종 일반, 3종 일반, 준주거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하다. 오피스텔이 허용되는 용도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공급이 제한되기도 한다.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는 주택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아 왔다. 오피스텔 중 주거용 비율에 대한 규정은 몇 차례 변화가 있었다. 1997년에는 주거용 비율 30% 이상인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려 오피스텔 수요가 위축되는 현상을 가져왔다. 그러나 1998년 6월 건설교통부는 주거용을 50% 미만으로 늘리고 칸막이벽의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주거용 오피스텔을 양성화하였다.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와 면세를 두고 논란이 있어 왔다. 상시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분양·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사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한다. 반면 비주거용 오피스텔은 분양·취득 시 과세사업자가 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및 환급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 시행령> 4조에 의해 준주택으로 분류된다. 준주택은 2009년 도입된 개념으로 오피스텔과 같은 사실상 주거시설에 대한 건축 기준을 강화하여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것이다.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되면서 국민주택기금 지원도 가능해지고, 소음·피난·화재 등의 기준도 강화되었다.

특징 및 의의 오피스텔의 상당수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오피스텔로의 주민등록 이전이 허용됨으로써 주거 기능이 인정되고 있다. 또한 통신설비의 급격한 발달과 인터넷 관련 벤처 사업의 발달은 주거와 업무 구분이 모호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고, 시장에서 주거용으로 공급되는 오피스텔이 아파트 수요를 대체하는 상품이 되면서 이제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파트와 다른 점은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다는 것과 화장실에 욕조를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오피스텔의 건축계획기준설정에 관한 연구(이경희·허해근,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7-2, 대한건축학회, 1987), 오피스텔의 법적 개념과 공법상 쟁점(민태욱, 토지공법연구65, 한국토지공법학회, 2014), 오피스텔의 법적 지위와 조세문제(민태욱, 고려법학72,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필자 천현숙(千賢淑)

옥상
屋上

정의 평지붕으로 된 건물 최상부의 평평한 수평면.

개관 옥상屋上은 한국 전통주택에서 존재하지 않던 공간이다. 옥상이 있으려면 경사가 없는 평지붕이어야 하므로 서양식 주택이라 하더라도 경사지붕이면 옥상이 없다. 평지붕은 세계에서 오래전부터 있어 온 지붕 형태의 하나이지만 한국 주택에 생긴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공동주택의 경우로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강점기부터, 이후 1960년대부터 본격 건설된 아파트가 그 시작이다. 단독주택의 경우 1980년대 중반부터 성행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이 그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즉 주거 공간 확장의 필요성에 의해 다층주택이 지어지고 최상층을 평지붕으로 조성하면서 옥상이란 공간이 탄생하였다. 특히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확산 시기에는 주거설비의 발달로 취사용 및 보일러용 가스탱크와 물탱크 설치를 위한 공간이 요구되었다. 이는 옥상이 있어야 하는 주된 이유가 되었다.



옥상 | 서울 중구 | 2011 | 서울역사박물관



옥상 장독대 | 서울 종로구 | 2009 | 서울역사박물관

내용 옥상은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장소이다. 지층으로부터 분리된 옥상 공간은 건물 바닥 크기의 면적을 확보한다. 특히 과밀한 도시주거에서 부족한 외부 공간을 대신하는 공간으로, '지면으로부터 올라온 마당'이자 '하늘로 열린 바닥면'이다. 옥상의 적극 활용은 부족한 공간을 보완하고자 하는 요구에서 출발한다.

옥상의 공간 구성 요소는 평평한 바닥과 다양한 형태의 난간 또는 건물 입면이 연장되어 올라온 패러핏parapet이다. 옥상의 접근성은 건물의 유형 및 높이에 좌우된다. 대개 아파트의 옥상은 안전 문제와 관리의 어려움으로 사용 빈도가 높지 않지만 단독주택에서 출발하여 공간 확장이 이루어진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옥상은 수월한 접근성과 함께 생활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충족시켜 준다. 옥상으로의 진입은 외부 계단을 통하여 가는 형식 또는 내부 공용계단을 통하여 옥상에 난 문으로 가는 형식 모두 가능하다. 평지붕이라 하더라도 고층 아파트에서는 옥상으로의 물리적 접근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피난 외에 생활공간으로의 활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에서 가스탱크 및 물탱크가 자리한 옥상의 나머지 공간은 과거 마당이 있던 단독주택에서의 생활 행위와 가사 관련 활동을 수용한다. 예를 들어 빨래 널기, 장독 보관, 물품 적재 등이 옥상에서 이루어진다. 옥상은 거주자의 휴식과 교류, 외부 조망을 위한 장소로도 제공된다. 애완동물을 위한 장소가 되기도 하는 등 사용 범위에 제한이 없다. 또한 옥상에 식물이나 농작물을 가꾸면 녹지 역할을 하는 '옥상 정원' 또는 '옥상 텃밭'이 조성되기도 한다. 한편 옥상의 유휴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소한의 주거 시설만 제공한 형태로 불법 증축된 주택 사례를 '옥탑방'이라 부른다.

특징 및 의의 옥상은 지붕 형태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본래 지붕 형태는 기후 조건에 따라 다양하며, 외부로부터 주거 공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경사지붕의 가장 큰 역할이 강수降水 대비라면 옥상이 있는 평지붕은 이에 매우 취약하다. 즉 배수 및 방수 문제가 항상 존재하지만 건설 기술과 재료 발달로 이를 극복하였고, 그 결과 얻게 된 추가 생활공간이다. 옥상은 외부 생활공간이 부족할 때 주생활의 여러 기능을 담당하는 장소가 되었다. 그 활용도는 저층의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에서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아파트에는 베란다와 다용도실이라는 외부 생활공간을 대신할 공간이 있지만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서는 대부분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옥상의 공간사회학(김미영·전상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2), 집-집의 공간과 풍경은 어떻게 달라져 왔을까(전남일, 돌베개, 2016), 한국 주거의 공간사(전남일, 돌베개, 2009), 한국 주거의 미시사(양세화·전남일·홍형옥, 돌베개, 2009), 한국건축개념사전(한국건축개념사전기획위원회, 동녘, 2013), 한옥과 한국 주택의 역사(권용찬·전봉희, 동녘, 2012).

필자 전남일(田南一)

온돌

정의 바닥을 열기로 데우는 난방 방식.

내용 온돌은 열원을 이용하여 바닥을 데우고 다시 바닥의 열기로 방 안의 공기를 데우는 대류의 원리를 이용한 난방 방식으로, 실내에서 신을 벗고 바닥에 앉거나 눕는 좌식 주생활 문화를 만든 주요 요인이다. 중국 북부지역에도 일부 공간의 바닥을 데워 사용하는 캉炕이 있지만 방바닥 전면을 데우는 온돌은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방식이다.

온돌과 같은 개념으로 혼용되고 있는 용어로 구들이 있다. 손진태에 따르면 온돌은 옛 문헌에 기록된 溫突, 溫堗, 突, 堗 등을 음차한 것이고 구들은 '구운돌'에서 연원한 순우리말이다. 온돌은 난방 방식, 구들은 온돌 구조의 일부분인 구들장을 각각 의미하기 때문에 구분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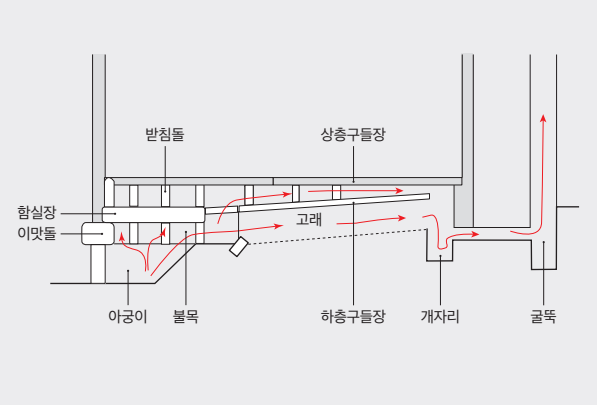
집을 만들기 시작하던 신석기시대 움집에서는 노爐에서 피운 불로 난방과 취사 및 조명을 하였다. 청동기시대에는 난방을 위한 노와 취사를 위한 부뚜막이 분리되어 있었으며, 초기 철기시대가 되어서야 온돌의 원시형이라 할 수 있는 고래식 구들이 나타났다. 북한에서는 평안북도 영변 세죽리와 노남리 유적에서, 남한에서는 수원 서둔동 움집터에서 가장 오래된 ㄱ자형 고래가 확인되었다. 서둔동 움집 고래의 양끝에는 아궁이와 굴뚝이 설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후 시기에는 쌍줄고래, 세줄고래와 같이 여러 줄의 고래를 시설하여 난방을 하였다. 이는 고구려 동대자 유적이나 발해 상경용천부 서구 집터 등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돌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10세기 중엽에 편찬된 『구당서舊唐書』의 「고려전高麗傳」에 실린 '장갱長坑'이다. 여기서 갱坑은 중국의 침대식 난방인 캉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면온돌 개념은 아니다. 외줄고래나 ㄱ자형 고래가 진화하여 방 전체에 고래를 설치하고 구들을 까는 전면온돌은 고려 후기에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전면온돌이 고려 후기에 구조적으로 완성되었다고는 하나 모든 주거용 건물에 시설하지는 않았다. 목조건축물의 바닥 전면에 불을 들이는 온돌은 고도의 시공기술이 겸비되지 않으면 목숨과 재산을 한꺼번에 잃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설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15~16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온돌은 서민들의 움집 유구에서 더 많이 확인된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이나 개인의 일기를 보면 사대부 주택의 온돌은 환자 치료용이나 손님 접대용과 같이 특정한 목적으로 시설되었으며, 그 면적도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인다.

제한적인 공간에만 온돌을 시설하던 상황은 16세기 말 17세기 초가 되면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바뀐다. 전면온돌이 시설되기 시작한 고려 후기 이래로 온돌 설치가 적극 이루어진 시기는 17세기이다. 현상적 계기는 임진왜란, 인조반정, 이괄의 난, 병자호란 등으로 파괴된 건축물을 복구하면서였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여름 한발旱魃과 겨울 추위가 계속되는 이상기후에 있었다. 17세기 온돌의 설치가 지역과 계층 구별 없이 급증하자 땔감 수급으로 인해 경제적·자연환경적 문제가 발생하였고, 온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가 병존하였다. 한번 채택된 온돌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였지만 병증 치료나 인간적인 배려 측면에서 효과를 발휘하여 조선 사회에 점점 더 확대되었다.



구들 | 경기 양주 회암사지 | 경기문화재연구원



이중온돌 구조도 | 정정남

18세기 중반 이후 더 이상 증가할 수 없을 정도로 온돌의 수요와 공급이 정점에 이르자 온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바닥을 구성하는 재료에 따라 판방板房과 온돌溫突, 溫堗로 구분하던 방에 온돌을 시설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시각이 형성되었고, 아궁이를 위해 형성된 인칸[囟間]과 조竈는 규모와 기능에 상관없이 부엌을 뜻하는 주廚로 기록되기 시작하였다. 온돌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는 난방효율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다.

난방효율에 대한 고민은 조선 온돌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내용은 박지원의 『열하일기熱河日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래둑의 재료, 울퉁불퉁한 구들장, 넓은 방고래, 견고하지 못한 벽, 불목이 없는 온돌, 엉성한 굴뚝 등 기존의 온돌구조를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의 문제점과 그 문제로 인해 온돌에 열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보존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은 박지원이 청나라에서 경험한 '캉'과의 비교를 통해서 얻어낸 것이다. 청나라의 캉은 규모는 작지만 벽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견고하게 보였을 것이고, 이를 자세히 살펴 조선의 온돌을 개량하고자 한 것이다.

서유구는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서 온돌을 보다 견고하게 설치하고 온돌 고래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또 온돌의 열을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하여 이중온돌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서유구가 제안한 이중온돌[複窯]은 18세기 말 19세 초 이미 도성의 재력 있는 집에서 채용한 온돌 구조로, 구들장을 이중으로 깔되 상면의 구들장은 결이 치밀하고 네모반듯한 것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중온돌은 훈기가 골고루 퍼져 한쪽만 뜨겁거나 차지 않아서 사용하기가 편하고 땔감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고급 기술과 많은 시설비용을 필요로 하기에 널리 보급되지는 못한 듯하다. 다만 유사한 방식이 20세기 초 영건된 덕수궁의 침전 건물 및 종친부 경근당 건물에서 확인된다.

18세기 온돌에 대한 고민은 난방효율 증대를 위한 건축적 변화까지 끌어냈다. 이전에 비해 온돌방의 칸을 적게 잡아 난방체적을 줄였고, 온돌방 주변에 수납공간이나 가퇴를 두어 열 완충공간을 만들었으며, 다중창호를 설치하여 외부의 한기를 적극 차단하였다.

건축 변화까지 끌어낸 전통 온돌은 아궁이에서 장작이나 숯에 불을 붙여 그 열기가 고래를 통과하면서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직접 가열식 난방으로, 취사와 난방이 동시에 가능한 구조였다. 근대 이후 열원이 연탄에서 가스, 기름, 전기 등으로 바뀌고 바닥에는 고래대신에 온수파이프나 전기패널을 설치하여 난방하면서 아궁이는 사라졌다. 연료를 주입하는 곳에서 바로 불을 피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취사를 위한 공간이 분리되었다. 건축재료도 불에 강한 철, 시멘트, 유리 등이 등장하면서 이전보다 화재에 대한 염려도 줄어들었다.

특징 및 의의 온돌은 추운 날씨를 대비한 시설로 만들어져 한반도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건축 요소로 자리잡았다. 시대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이 변화하면서 건축재료와 열원이 바뀌었음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주생활 공간에 온돌을 시설하고 있다. 이는 온돌이 건축공간을 이루는 바닥, 벽, 천장처럼 기능적으로 탄생한 건축요소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8세기 이후 조선사회의 온돌에 대한 인식변화와 난방효율 증대를 위한 건축적 모색(정정남, 건축역사연구27-3, 한국건축역사학회, 2018),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김왕직, 동녘, 2007), 한국건축개념사전(한국건축개념사전기획위원회, 동녘, 2013), 한국건축대계4-신편 한국건축사전(장기인, 보성각, 2005), 한국건축의 역사(김동욱, 기문당, 2007), 한국의 전통건축(장경호, 문예출판사, 199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정정남(鄭貞男)

옷장

정의 옷을 놓거나 걸어서 보관하는 장.

개관 장欌이란 하나의 연결된 구조, 즉 층이 따로 분리되지 않는 수납 가구이다. 대체로 장롱[籠]으로 알고 있는 것은 장과 농을 말한다. 농은 장과 함께 놓여 옷을 보관하지만 이층농·삼층농·사층농 등으로 구성되어 몸체가 두 개, 세 개, 네 개의 층으로 쌓아 놓은 가구이다. 각 층은 분리된다. 이러한 옷장은 통상 안방으로 불리는 방에서 사용한다. 안방 크기에 따라 3자(900㎜), 6자(1,800㎜), 9자(2,700㎜), 12자(3,600㎜) 등으로 불리며 장·농·의걸이장 등을 배치하여 사용하였다. 현재 가정용 가구로 분류되어 주로 침실에 배치되는 옷장은 입식화 및 아파트 주거의 영향으로 한쪽 벽 전체에 옷장을 설치하는 붙박이장 형식으로 변화하였다.

내용 한국 전통 옷장은 단층부터 여러 층으로 된 장과 농, 의걸이장, 반닫이장, 머릿장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옷장이라는 용어는 현재에 와서는 다양하고 많은 옷을 보관해야 하는 19세기 이후의 가구를 가리킨다. 장이나 농은 여성들이 사용하는 안방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의걸이장은 남성들이 사용하는 사랑방에 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장과 농은 아름다운 목리, 화려한 화각이나 자개, 화려한 백동의 금속장식을 사용하였다. 반면에 의걸이장은 선비들의 청빈하고 검소한 정신을 보여 주고 자연의 목리를 소박하게 나타내었으며, 거멍쇠 금속장식 등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이러한 전통가구는 조선시대 말까지 꾸준히 사용되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들어서면서 이층으로 제작되어 하층에는 이단 서랍, 상층에는 여닫이문의 나전의걸이장 등을 각각 사용하였다. 사실상 의걸이장의 하단 서랍들은 일본의 단스나 서구의 서랍장 형태인 장의 영향을 받아 등장한 것으로 여겨진다. 1920년대 양복의 보급은 이러한 의류 수납가구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1930년대부터 하단은 전통 반닫이,



먹감나무 옷장 | 가로103 세로45 높이148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상층은 여닫이 유리문의 옷장을 사용하였다. 1950년대 개량한복 등 의생활 변화에 따라 장롱이 통합된 옷장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양복장이라 불리며 하단에는 주로 서랍과 상단에는 여닫이나 미닫이문으로 제작된 옷장 형태가 나타났다. 20세기 중반 이후에 자개장으로 불리는 화려한 옷장과 그릇을 넣어 두는 찬장 등이 유행하였다. 그리고 가구 회사들은 주로 신혼부부를 겨냥하여 3자, 6자, 9자, 12자, 15자 등 다양한 크기의 차별화된 가구를 장·농·서랍장·의걸이장 등을 혼합하여 개발하였다. 이러한 혼례용 가구는 매년 새로운 소재 및 디자인 개발에 영향을 미쳐 가구 판매 및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오늘날 가정용 가구를 대표하는 옷장은 장과 농, 서랍장, 의걸이장을 모두 적용하여 개발한 붙박이장이다. 벽의 한쪽에 붙인 옷장으로, 내부에 다양하고 세세한 수납공간 확보와 편리한 활용으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사용이 증가되었다. 실내 구조 및 크기에 따라 여닫이, 미닫이, 접이식 문의 붙박이장이 있다. 옷걸이, 선반, 서랍의 혼합에 의한 다양한 크기와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다.



삼층 자개농 | 가로97 세로50 높이176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특징 및 의의 19세기 말 한국 최초의 양식 주택 건·신축으로부터 1920년대에 개량한옥이라 부르며 화장실, 욕실 등이 실내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주택 구조상 자연스럽게 사랑방이 사라지고 안방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많은 의복을 보관해야 하는 옷장은 그 집을 대표하는 가장 큰 가구였다.

참고문헌 근대이후에 한국 가구의 양식 변천에 관한 연구(신영식,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목가구(국립민속박물관, 2004), 한국 근대 가구에 관한 연구(강혜영,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한국 미의 재발견, 목칠공예(박영규·김동우, 솔출판사, 2005), 한국의 목공예(이종석, 설화당, 1986), 한국전통가구(남경숙 외, 한양대학교출판부, 2008).

필자 문선옥(文善玉)

와공
瓦工

정의 기와를 제작하거나 해체 및 번와 작업을 하는 장인.

개관 전통건축물 시공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하여 완성된다. 문화재로 지정된 전통건축물을 보수할 때도 각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업자가 참여한다. 문화재수리기술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한다.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감독 아래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와공은 문화재수리기능자로서 지붕의 기와를 해체, 보수하거나 제작하는 일을 담당한다.

한식 목공은 목조건조물의 해체, 조립 및 치목治木과 그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대목수, 목조건조물의 창호·닫집 등과 이와 유사한 구조물의 제작, 설치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소목수로 나뉜다. 한식 석공은 석재 가공과 그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가공석공과 석조물의 축조, 해체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쌓기석공으로 나뉜다. 미장공은 미장과 그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고, 화공은 단청(불화 포함)과 그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며, 드잡이공은 드잡이(기울거나 내려앉은 구조물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도구 등을 이용하여 바로잡는 일을 말한다)와 그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이 외에 철물공, 목조각공과 석조각공, 칠공, 도금공, 표구공, 조경공, 세척공, 보존과학공의 훈증공과 보존처리공이 있다.

내용 전통건축에 참여하는 와공은 번와 와공과 제작 와공으로 나뉜다. 번와 와공은 기와의 해체 및 번와와 그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와공을 말한다. 제작 와공은 기와·전塼 등의 제작과 그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와공을 말한다.

제작 와공은 기와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암키와와 수키와, 수막새와 암막새 이외에 용두 및 귀면와, 취미, 망와, 잡상, 굴뚝 위의 연가 등 지붕을 덮는 다양한 기와를 제작한다. 제작 와공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암키와와 수키와를 크기에 따라 소와, 중와, 대와로 나누어 제작하며, 특수한 경우에 사용하는 특소와, 특대와도 제작한다. 일반적으로 기와의 크기는 폭의 크기에 따라 나눈다. 소와는 9치, 중와는 1자, 대와는 1.1자 정도이다.


원통기와 성형


4장의 암키와로 분할


기원제


기와굽기

와공 | 경북 경주 | 김성구·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전통 기와를 제작하기 위해 먼저 기와 제작에 사용할 원토를 채취한 후 일정 기간 쌓아 두어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한다. 채취한 원토는 적당량의 물을 부어 이긴다. 원토의 조건에 따라 두 종류의 원토나 첨가제를 넣어 이기는 예도 있다. 흙은 사람이 밟아 이긴다. 양이 많은 경우는 소를 이용하였다. 이긴 흙은 기와 크기를 고려해 흙판을 만들어 기와 제작 형틀에 감싸서 성형 작업을 한다. 흙판을 배토판이라고 하는데 와공은 좌우 폭을 고려하여 6각형의 흙덩어리를 만든 후 원하는 두께로 철선을 수평으로 이동시켜 배토판을 떠낸다.

성형 작업에서는 수키와 틀 또는 암키와 틀을 물레에 수직으로 놓고 삼베를 두르거나 삼베자루를 씌운 다음 배토판을 밀착시키고,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한다. 다음 작업은 기와의 기밀성을 높이기 위해 방망이로 두들기고 수키와는 표면 2등분 선, 암키와는 표면에 4등분 선을 두께의 절반 깊이로 그어 놓는다. 2등분 선은 성형틀에서 삼베와 기와를 빼낸 후 건조하기 전에 나눌 때 사용한다. 수키와는 2등분, 암키와는 4등분으로 나뉜다. 이와 같은 등분을 위해 성형틀 표면에 얇은 널이나 철판을 박아 놓는 예도 있다. 자연 건조한 기와는 가마에 넣어 소성 과정을 거쳐 완제품이 된다.

번와 와공은 건물 위에서 기와를 잇거나 해체 작업을 하는 와공이다. 기와 잇기는 대부분 대목의 일이 끝난 후에 진행한다. 번와 와공의 일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적심을 채우면서 지붕면의 곡을 잡으며 시작된다. 와공은 지붕면의 곡을 잡을 때 보토와 강회다짐을 한다. 또한 지붕 형태에 따라 건물의 중심 용마루와 내림마루, 추녀마루의 위치, 기와골의 수를 결정한 후 암키와가 놓일 연함에 자귀로 홈을 파낸 다음 평고대 위에 고정시킨다. 암키와는 보토와 강회다짐이 마른 것을 본 후 오른쪽 처마 끝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깔며, 다음에 암키와와 암키와 사이에 홍두께 흙을 놓은 후 아래에서 위쪽으로 수키와를 내리눌러 덮



김홍도 | 기와이기 | 조선 후기 | 국립중앙박물관

는다. 마지막으로 용마루와 내림마루, 추녀마루 기와를 쌓아 마감한다.

이와 같이 번와 와공의 공정은 대목 공정 다음에 있기 때문에 와공은 대목의 작업을 검증 또는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동시에 건물에 대목의 의도를 반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처럼 번와 와공과 대목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 해 함께 일을 한다.

특징 및 의의 번와 와공과 대목, 도편수는 단원 김홍도의 풍속화 중 <기와이기>에도 묘사되어 있다. 풍속화에는 와공 네 명과 대목 세 명이 등장한다. 지붕 아래 두 명의 와공은 기와와 흙을 지붕으로 올리고 있고, 지붕 위 와공 두 명은 아래에서 올린 기와와 흙을 받고 있다. 도편수로 추정되는 대목은 장척을 잡고 번와 공사를 바라보고 있으며, 기둥 옆에 있는 대목은 추 대용으로 먹통에 실을 매달아 기둥이 기울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번와 공사를 하면서 기와를 한 곳에만 올릴 경우 지붕 무게로 인하여 건물의 변위가 생기는 것을 확인하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또 다른 대목은 판재를 대패질하고 있다. 이 <기와이기>는 대목과 와공의 작업 상황, 번와 공사 모습을 사실감 있게 표현하였다.

참고문헌 맞춤과 이음(정연상, 고려출판사, 2010),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김왕직, 동녘, 2007),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한옥(신영훈, 현암사, 2005), 한옥 짓는 법(김종남, 돌베개, 2011), 한국건축대계5-목조(장기인, 보성문화사, 1988), 한국건축대계6-기와(장기인, 보성문화사, 1991).

필자 정연상(鄭淵相)

외양간
喂養間

정의 말과 소를 기르는 간.

개관 외양간喂養間은 서남부 지역에서는 오양간, 제주도 지역에서는 쇠막 또는 쇠왕이라고 한다. 강원도와 경상도 지역에서는 마구간이라고도 부른다. 소를 두는 공간임에도 이렇게 마구간이라 부르는 것은 말을 기를 때 부르던 명칭이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마구간馬廐間은 말을 사육하는 간으로, 마방馬房·구사廐舍 등으로도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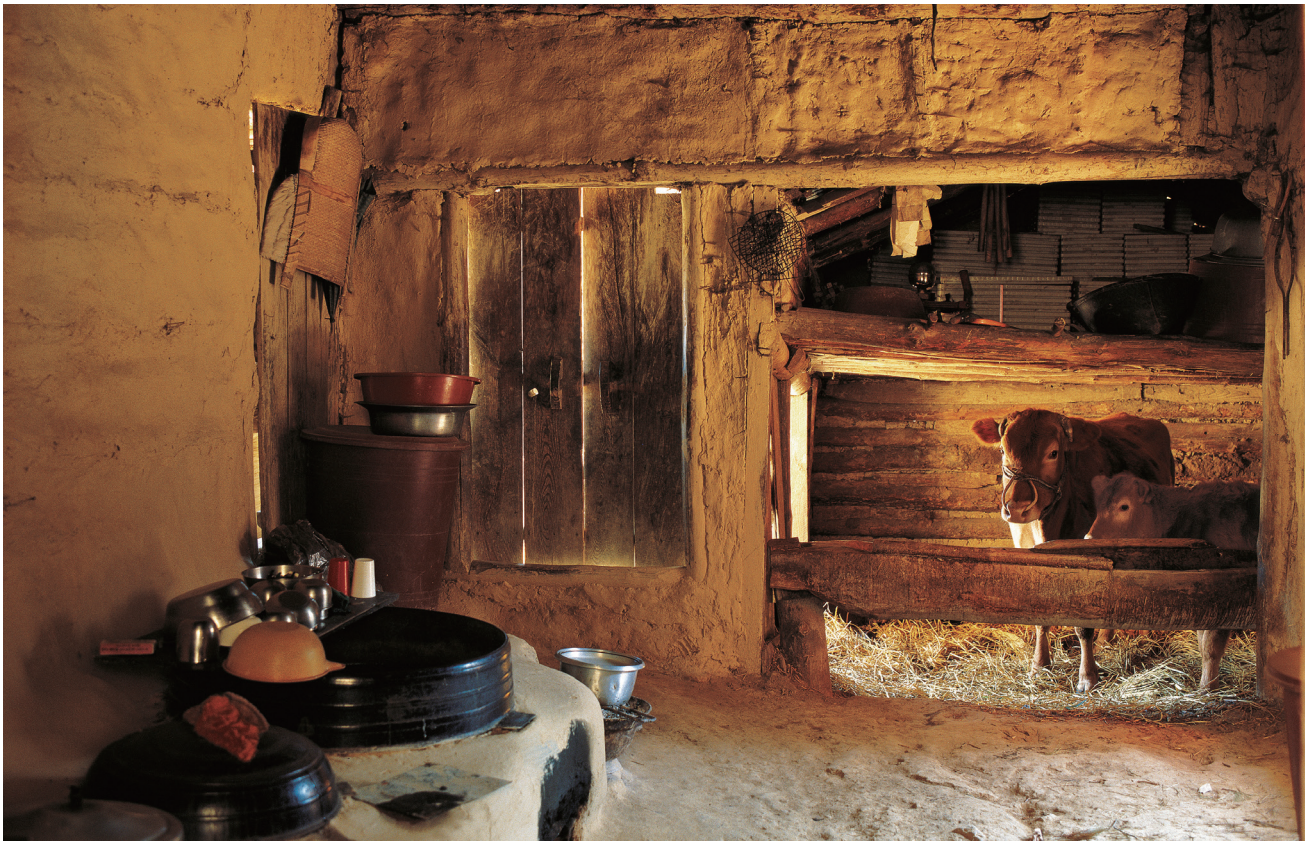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여러 가지 건물이 묘사되어 있다. 주인이 사는 거대한 집을 비롯한 부속건물들도 보인다. 특히 안악 제3호분 벽화에는 수렛간, 마구간, 외양간 등이 그려져 있다. 수렛간은 두 칸이며, 두 대의 고급 수레가 놓여 있다. 외양간 세 칸에는 수레를 끄는 소인지 밭갈이를 하는 소인지 불분명하지만 소 세 필이 구유에서 여물을 먹고 있다. 이웃의 마구간에도 세 필의 말 역시 세 칸의 마구간에 있다. 마구간 옆에 날짐승, 들짐승을 잡아 보관하는 육곳간 한 칸이 한 채의 건물로 세워져 있다. 신라시대 백성들의 집 형상과 규모를 제한한 『삼국사기三國史記』 옥사조에 따르면 육두품이 거주하는 집의 마구간 크기는 말 다섯 필, 오두품은 세 필, 사두품은 두 필을 수용할 정도의 규모이어야 한다고 제한하였다.

내용 최근 농촌에서는 말은 사육하지 않고 경우耕牛

(논밭을 갈 때에 부리는 소)만 일부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지만 조선시대 농가에서는 경우 사육은 물론 부유층 이상 가정에서는 말 사육이 널리 행하여졌다. 당시의 말은 중요한 교통수단이었기 때문에 도시주택에서 널리 사육되었다. 따라서 조선시대 마구간은 농촌과 도시의 부유층 주택에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필수 시설이었다.

외양간 가운데 우사牛舍는 일반 농가에서 토광(널따위를 깔지 아니하고 흙바닥을 그대로 둔 광)의 1칸을 쓰는 것이 많고, 변소나 잿간과 공용하여 우사로 하는 것도 있다. 경기도 지역과 삼남지방의 규모가 작은 집인 경우 외양간은 대개 부엌이나 불을 때는 함실아궁이와 가까운 쪽에 둔다. 이때 여물을 먹이는 구유는 부엌 쪽에 두고 여물을 부엌에서 직접 끓여 부엌에서 바로 먹이를 줄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외양간의 바닥은 부엌 바닥보다 낮게 만들어 소의 오물이 부엌 안으로 스며드는 일이 없도록 한다. 그러나 규모가 큰 주택에서는 행랑채의 일부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농기구고가 있는 헛간이나 행랑채 중앙의 대문간 옆에 붙여서 배치하는 것이 보통이다. 마사馬舍는 가부장이 멀리 나갈 때 사용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채와 가까운 행랑채에 많이 짓는다. 북부지방의 '田'자형 평면으로 된 주택의 경우 안채의 부엌에 접하여 지어진 토광에 이어서 우사가 만들어지는 것이 많다. 외양간의 평면 구조는 대개 두 면은 막히고 한 면은 출입을 위한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간단한 짚 등으로 가렸으며, 다른 한 면은 개방하여 이곳에 통나무로 만든 구유를 놓아 먹이를 줄 수 있게 한다. 바닥은 흙바닥이며, 이 위에 짚 등을 깔아 놓는다. 이 짚을 두엄이라 하는데 더러워지면 거름이나 땔감으로 이용한다.

특징 및 의의 조선 후기 서유구가 지은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 따르면 소와 말의 곳간은 달리해야 한다. 특히 말의 마구간에는 바닥에 두꺼운 나무널판을 깔되 앞면은 조금 높고 뒷면은 조금 낮아서 오줌이 잘 빠지게 해야 하며, 소의 외양간은 널판을 깔아서는 안 되



외양간과 봉당 | 강원 삼척 | 한승일

고 단지 잡풀과 썩은 볏짚을 깔아서 똥오줌을 거두어 들이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말을 오래도록 소 외양간에 매어 두면 말발굽이 붙어서 쇠를 견딜 수 없고, 소가 말 마구간에 오래도록 매여 있으면 발바닥이 부르트고 통증을 느낀다고 하였다. 말을 매어 놓은 마구간이라면 큰 나무 널판에 원숭이를 새기고 색을 칠하여 오른쪽 벽 위에 걸어 놓기도 한다. 이는 원숭이가 말이 놀라지 않도록 악을 물리치고 병을 없애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산수간에 집을 짓고(서유구, 안대회 역, 돌베개, 2009), 한국건축대계4-신편 한국건축사전(장기인, 보성각, 1998), 한국의 살림집(신영훈, 열화당, 1983), 한국주택사연구(김정기, 국립문화재연구소, 201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stdict.korean.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남호현(南虎鉉)

요강

정의 방에 두고 똥오줌을 누는 그릇.

개관 우리말 요강은 한자말 요강溺缸에서 유래한다. 조선시대에는 이밖에 요공溺缸, 요강溺江, 설기褻器, 수병溲甁 따위로 적었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는 요기溺器로 올라와 있다. 그러나 일반에서는 '오줌단지'(영·호남), '야호夜壺'라고도 불렀다.

삼국시대에는 범의 머리를 닮은 남성 전용의 오줌 요강을 중국 이름 그대로 호자虎子라고 불렀다. 가장 오랜 것이 충청남도 부여 부여읍 군수리에서 나왔다(높이 25.2㎝). 이밖에 깃봉 모양의 손잡이가 달린 항아리 꼴도 여러 점 선보였다. 한편 군수리에서 호자와 함께 나온 귀때동이를 여성용이라고 소개한 탓에 지금도 여성용 변기로 잘못 알려져 있는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또 호자가 고구려 유적에서도 나왔지만 신라 유적에서는 한 점도 보이지 않은 것은 의문이다.

요강은 오지, 놋쇠, 사기, 양은, 스테인리스로 만들었다. 조선시대에는 청자·백자·목칠木漆 요강과 지승으로 엮어서 옻칠을 한 종이 요강도 나돌았다. 병자호란 뒤 중국 심양에 볼모로 끌려간 봉림대군鳳林大君(뒤의 효종)이 자신을 따라간 유지만柳之蔓이 '얼굴이 비칠 정도로 반들반들하게 옻칠을 한 가죽요강을 쓰는 것을 보고 탄식하였다.'라고도 한다.

여행 중에 사용하는 작은 길요강도 있었다. 가마를 타고 가다가 쓰는 여자용은 바닥에 짚을 깔아서 소리가 나지 않게 하였으며, 남자는 바지 안에 넣고 손으로 잡은 채 오줌을 누었다. 이들 요강은 사용 후에 뚜껑으로 덮었다.

놋요강에는 반드시 꼭지가 달린 뚜껑이 딸려 있어서 두 손으로 받쳐 들었다. 사기요강에는 화접문花蝶紋이나 자손을 많이 낳기 바라는 모란꽃 따위를 그려 넣은 까닭에 꽃요강이라고도 불렀다. 꽃요강은 대야와 함께 서민층 신부의 혼수품으로 꼽혔다. 『산림경제山林經濟』에도 "살림형편이 어려우면 대야 대신 요강 둘을 마련해 준다."라는 기사가 있다. 이 둘 가운데 하나는 젊은 부부용이고 다른 하나는 시부모를 위한 것이다.

경상도에서는 신행 때 요강에 찹쌀을 가득 담아 가서 밥을 지어먹는 것이 관례였다. 이 찹쌀에는 농사의 풍년과 자손의 번성을 바라는 뜻이 들어 담겨 있다. 경상북도 문경 일대에서 신행 때 신부가 쌀을 봉긋하게 담은 놋주발 가운데에 새 생명을 상징하는 달걀을 세워서 가져간 것도 마찬가지이다. 집에서 섬기는 가장 큰 신인 성주의 신체가 쌀인 것도 기억할 만하다. 한편 농사를 열심히 짓는 농가에서는 여성의 오줌을 구유에 따로 모았으며, 여성이 기거하는 안채의 오줌을 남성 전용의 바깥채 오줌보다 귀하게 여겼다. 농작물의 생장에 땅의 신인 여성의 오줌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믿은 까닭이다.

어머니는 딸에게 요강을 물려주었으며, 신혼부부는 첫날밤 이 안에 촛불을 밝히고 잠을 잤다. 또 이것을 부부가 함께 썼다는 의미에서 일부러 깨뜨리는 행위를 인연을 끊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바가지도 요강으로 썼다. 제주도의 어린 잠수潛嫂(해녀·잠녀)들은 물질할 때 쓰는 뜨개박을 시집갈 때 요강 삼아 가져갔다. 바닷물에 찌든 바가지는 나무처


높이12 입지름13


높이16 입지름13

요강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럼 단단해서 쓸 만하였으며, 이것이 깨지면 부부 사이에 금이 간다고 하여 엉거주춤 앉아서 누었다.

한편 조선시대에는 과거시험장에서 밖으로 만든 과장호자科場虎子를 썼다. 시험 도중에는 밖으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간혹 이 안에 예상 답안을 넣고 들어가서 급제한 사람도 있었으며, 그를 호자당상虎子堂上이라고 낮추어 불렀다. 근래에는 고시장에서 요강 대신 비닐봉지를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중국에서 수입한 구리로 요강을 만든 까닭에 이이李珥(1536~1584)가 백성들이 낭비를 즐긴다는 탄식을 임금에게 늘어놓았지만(『숙종실록肅宗實錄』, 42년 12월 17일), 중국 관리들은 우리 요강을 몹시 탐냈다. 박지원朴趾源(1737~1805)이 효종에게 "청의 권력자인 어응거대於應巨大가 우리에게 재차 요강을 요구한다."라고 이른 것이 좋은 보기이다(『효종실록孝宗實錄』 9년, 3월 11일).

김병연金炳淵(1807~1864)은 요강의 공덕을 기리는 시를 남겼다. "요강 덕분에 밤중에도 귀찮게 드나들지 않으니(賴渠深夜不煩扉)/ 편히 누운 자리에 가까이 있어 매우 고맙구나(令作團隣臥處圍)/ 주정꾼도 네 앞에서는 단정히 무릎 꿇고(醉客持來端聘膝)/ 어여쁜 계집 앉을 때 살 보일까 조심스레 속옷 걷누나(態娥挾坐惜依收)/ 똥똥하고 단단한 생김새 유명한 안성맞춤인데(堅剛做體銅山局)/ 쏴 하고 오줌 누는 소리 흰 폭포 나는 듯(灑落傳聲練瀑飛)/ 가장 큰 네 공은 비바람 치는 새벽에 빛나고(最是功多風雨曉)/ 모든 곡식의 거름 되어 사람 살찌우는 것이로다(偸閑養性使人肥)."

특징 및 의의 우리네 살림집 뒷간이 구석진 곳에 있어서 드나들기 불편하고 시설도 허술한 탓에 간혹 사람이 빠지는 등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하였지만 휴대용 변기인 요강 덕분에 그럭저럭 지내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비바람이라도 치는 깊은 밤에는 요강 없이 꼼짝할 수 없었고, 아기를 기르는 집에서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살림살이였다. 또 요강은 농가의 풍년을 상징한 까닭에 혼수품의 하나라는 것도 기억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동아시아의 뒷간(김광언, 민속원, 2002), 백제 호자 이례(서성훈, 백제문화2,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1979), 이규태 코너(이규태, 월간조선사, 2001).

필자 김광언(金光彦)

요사
寮舍

정의 사찰 내에서 승려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으로 승방, 선방, 식당, 부엌, 곳간, 변소 등을 두루 포함하여 일컫는 말.

내용 요사寮舍는 요사채라고도 하며, 사찰 내에서 승려들이 수행하고 참선하며 공양하고 목욕하며 배설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을 말한다. 승방僧房과 선방禪房을 중심으로 식당, 부엌, 곳간, 변소 등을 두루 포함한다.

요사는 인도 초기 가람에서 승려들의 수행 생활을 위해 조성된 석굴인 승원굴僧院窟, vihara에서 기원하였다.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 불교 및 불교건축의 수용과 함께 전래된 것으로 보인다.

사찰 내 건물 중 요사는 불전 등의 주요 전각殿閣에 비해 그 위계와 등급이 낮으므로 건물의 규모, 구조, 의장 등이 간결하고 단순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건물 및 기단의 높이가 낮고, 납도리나 익공 등의 간단한 가구법架構法이 사용되었으며, 화려한 장식과 조각, 단청 등이 최대한 배제되었다.

고대 평지사찰에서 요사는 주로 강당과 함께 주불전 후면에 위치하였으나, 현존하는 조선 중기 또는 그 이후 중건된 대부분의 산지사찰에서는 주불전의 전면 또는 좌우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찰 규모와 지형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되었다. 한편, 조선 말기 서울과 경기 일대 사찰에서는 주불전 전면에 대방大房이라는 복합 건물을 세워 요사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요사는 그 기능에 따라 명칭이 다양하다. 심검당尋劍堂은 지혜의 칼을 찾는 집이며, 적묵당寂默堂은 고요히 명상에 잠기는 집이다. 설선당說禪堂은 강설講說과 참선參禪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집이며, 향적전香積殿은 향나무를 땔감으로 하여 공양을 짓는 집이다. 염화실拈花室은 염화시중의 미소를 상징하는 꽃을 드는 집이며, 반야실般若室은 최상의 지혜를 일컫는 반야의 집을 의미한다. 이러한 명칭은 현재 남아있는 공주 마곡사 심검당과 고방, 서산 개심사 심검당, 하동 쌍계사 적묵당, 삼척 신흥사 설선당과 심검당, 부안 내소사 설선당과 요사, 청양 장곡사 설선당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요사 건축 대표 사례로는 우리나라 불佛, 법法, 승僧 삼보 중 승보僧寶 사찰인 순천 송광사를 들 수 있다. 송광사에는 대규모 승방인 해청당, 법성료, 임경당, 문수전을 비롯하여 상사당(삼일암), 하사당, 행해당, 차안당, 목우헌 등의 크고 작은 요사 건물이 주불전인 대웅전을 중심으로 전후좌우에 고르게 배치되어 있다. 이는 승려들의 수행 본산인 승보사찰로서의 가람 배치 특성을 잘 보여 주는 것이다.

특징 및 의의 범어의 음역어인 '승가람마僧伽藍摩, Sangharama'에서 비롯된 가람伽藍은 여러 승려들이 함께 모여 불도를 수행하는 장소인 중원衆園을 의미한다. 즉 불교건축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승려들의 수행과 생활 공간이 먼저 생겨나고 그다음 불탑과 불전 등이 건립되면서 일련의 불교건축 공간으로서의 가람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승려들의 생활 공간인 요사는 불교건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건축 요소 중 하나이다.

참고문헌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김왕직, 동녘, 2007), 요사채(이응묵, 대원사, 1989), 한국건축대계4-신편 한국건축사전(장기인, 보성각, 2005), 두산백과사전(doopedia.co.kr), 문화콘텐츠닷컴(culturecontent.com),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현승욱(玄勝旭)

욕실
浴室

정의 신체의 청결을 위하여 세면과 목욕을 하는 장소.

개관 욕실浴室이란 과거 한국 전통 주거공간에는 없던 공간이다. 일제강점기 이후 '주거공간 위생화' 논의와 함께 근대 설비를 갖춘 공간으로 등장하였다. 과거 몸을 씻는 일은 일상의 일이 아니어서 목욕은 특별한 날에만 하는 연례행사였다. 양반들의 주택에도 세수간洗手間이나 목욕간沐浴間이 따로 마련된 경우는 드물었다. 여성들은 부엌 앞마당을 세수하는 장소로 사용하였고, 남성들은 기단에 세숫대야를 놓고 사용하기도 하였다. 목욕은 광이나 부엌 등에서 커다란 통을 사용해서 하였다. 개화기 이후 위생 강조는 주택 개량의 계몽론으로 이어졌고, 주택에 생리위생 공간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각 가정에 상수도가 설치되면서 마당 등 생활공간 가까이에 몸을 씻는 공간이 형성되었다. 공중목욕탕은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이 미흡하고 가정 내 온수 조달 및 사용이 불편하던 시기에 개별 주택의 욕실을 대신하였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영향으로 물을 데워 사용하는 목욕통



욕실 | 주택문화사

을 광 등에 설치하는 사례가 일부 상류주택에서 있었으나 욕실이 본격 보편화된 것은 주택 내 온수설비가 보급되면서부터이다.

내용 온수가 보급되기 이전 초창기 욕실은 커다란 가마솥 형태의 원형 무쇠 욕조를 사용하고 밖에서 아궁이를 통해 욕조 안의 물을 데워 쓰거나 어디선가 물을 데워서 가져오는 방식이었다. 이후 가정 내 보일러를 통한 온수 시설이 설치되고 세면대와 욕조 등 위생기구가 보급되면서 세면과 목욕 행위를 위생적이고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1962년 마포아파트에서 처음으로 욕조, 세면대, 변기가 함께 있는 배스유닛bath unit을 선보였다. 이를 시작으로 한국 주거공간에서 용변을 보는 곳과 몸을 씻는 곳을 하나로 통합하여 구성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따라서 '욕실'과 '화장실'의 공간 구성 및 설비 내용은 동일하다.

초창기 욕조는 시멘트로 마감한 간이형 물받이통의 형태였다. 이후 타일 마감을 거쳐 차츰 플라스틱 등 신재료의 욕조로 대체되었다. 단독주택의 경우 난방 방식이 재래식 온돌에서 보일러식으로 바뀌는 1970년대 중반에 욕실이 도입되었다. 1980년대까지도 욕실은 집 안에서 물을 사용하는 다양한 생활행위를 수용하였다. 욕조에 물을 상시 담아 두고 다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욕실은 특히 세탁기가 보급되기 전까지 '세탁을 하는 장소'였다. 따라서 욕실 바닥의 배수구 설비는 필수였다.

세탁기의 보급으로 욕실에서의 세탁 작업은 사라졌고, 욕실은 더욱더 사생활 영역으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위생 관념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과거보다 욕실 사용 빈도와 시간이 점점 증가하게 되었다. 생활공간으로서 다목적으로 물을 사용하는 욕실의 경우 바닥에 물을 버리는 습식濕式 형식이다. 욕실이 생리위생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넘어 휴식과 재충전 공간으로 변화하면 그 쾌적성에 대한 욕구가 점점 커져 거주공간과 비슷해지고, 배수구 없이 바닥을 건조하게 사용하는 건식乾式 형식이 더욱 선호된다.

특징 및 의의 욕실의 발달은 한 사회의 '문명화 과정'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생활 수준이 향상될수록 공간 및 설비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며, 이에 따라 가족 구성원들이 공간을 개별로 분리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점점 커지게 된다. 1970년대 후반 대규모 고급 아파트에서 '부부욕실'이 등장한 이래 현재까지 한 주택 내에서 욕실은 세대별로 분리하여 사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과거 한 집 안에 두 개 이상의 욕실이 있는 것이 상류층 문화였다면 오늘날에는 평균 수준의 주택에서도 대부분 분리된 두 개의 욕실을 설치한다.

참고문헌 집-집의 공간과 풍경은 어떻게 달라져 왔을까(전남일, 돌베개, 2016), 한국 주거의 미시사(양세화·전남일·홍형옥, 돌베개, 2009).

필자 전남일(田南一)

우데기

정의 울릉도의 민가에 설치된 구조물로, 겨울에 눈바람을 막기 위하여 처마선 끝에 붙여 수직으로 세운 벽.

개관 경상북도 울릉도에는 3세기 이전부터 고려시대까지 주민이 거주하였지만 조선시대의 공도空島정책으로 사람이 살지 않다가 1882년 영의정 홍순목洪淳穆(1816~1884)의 건의로 정책을 변경하고 1883년





우데기 | 경북 울릉 | 국립민속박물관

에 16호 54명의 주민이 전입하였다. 살림집은 1940년대의 형식이 남아 있지만 규모가 작아 겹집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평면은 대부분 깊이가 한 칸인 홑집이다. 울릉도는 연간 적설량이 200㎝를 넘고 연중 바람이 많이 분다. 특히 눈이 많이 오는 겨울 내내 눈보라가 집의 처마 밑 축담으로 들이치면 꼼짝없이 방 안에 갇히게 된다. 이 때문에 겨울에는 활동 범위의 제약이 매우 심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울릉도에 정착한 선조들은 이러한 문제를 우데기 설치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지붕의 처마선 끝에 집 전체를 한 바퀴 돌아가며 우데기를 설치하여 축담에 눈이 들이치지 않게 함으로써 겨울의 활동 공간을 확보한 것이다.

내용 우데기는 처마선의 서까래 아래에 도리를 받치고 기둥을 세운 고정식 보조 벽체이다. 우데기집의 주된 벽 구조체는 나무기둥을 쌓아 올린 누목식累木式 구조인 귀틀집이며, 지붕은 너와 혹은 억새로 얹었다. 즉 평면은 홑집이고, 벽체는 귀틀집이며, 지붕은 너와집 혹은 억새집인 셈이다. 이 집의 처마 끝에 수직으로 부착한 우데기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드문 유형이다. 평면과 벽체와 지붕의 구성보다 더 독특한 특징으로 눈에 띄는 요소이기 때문에 귀틀집이나 너와집이라는 명칭보다 '우데기집'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우데기집의 기단은 15㎝ 정도 올라와 우데기 안쪽의 축담을 형성한다. 우데기는 사면으로 돌아가면서 구성된다. 앞면에만 설치하면 기본 공간은 확보하겠지만 바람이 많이 불었을 때 안정된 구조를 확보하기 어렵고, 양측면 및 후면으로의 이동이나 수장 공간으로서의 활용성도 떨어진다. 따라서 사면으로 설치하는 것이 공간으로나 구조로나 가치가 높다. 우데기의 기둥(설외)은 일반 기둥보다 조금 가는 목재로 만들지만 영구 설치형으로 조성되고, 거기에 일정 간격의 가는 가세(눌외)를 고정하고 그 바깥쪽으로 억새나 옥수숫대 혹은 싸릿대를 엮어 부착한다. 출입구는 내부의 문이 있는 곳 앞에 모두 조성한다. 우데기의 문은 발처럼 말아 올려 고정하는 형식으로 만든다. 근대에 개량형으로 판재와 문짝을 설치한 경우도 있지만 문화재들은 모두 원형으로 복원하였다. 울릉도 투막집 부엌 공간의 바깥쪽 벽체는 우데기만으로 구성하여 공간 활용도를 넓게 사용하였다. 서해 도서지역에도 이와 유사한 구조인 '까대기'가 있다. 태풍의 영향으로 비바람이 많이 들이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부엌 앞의 나무광 등의 구조에 설치하는 보조 벽이다. 전라남도에는 김을 말리는 '짚담'이라는 벽체도 있다. 모두 용도는 다르지만 지역 풍토에 맞는 가벽假壁 구조라는 것은 같다.

특징 및 의의 우데기는 울릉도의 전통주택에서 겨울에 눈보라를 막기 위하여 처마 끝에서 바닥까지 설치한 가벽이다. 목조 틀에 억새나 수숫대 등으로 벽을 만들어 사방에 설치하였다. 한겨울의 눈보라를 막아 처마

선의 하부까지 내부로 만들어 활동 및 작업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지혜로운 구조물이다.

참고문헌 옛집에 담긴 생각(김일진, 도서출판 향토, 1996), 한국의 주거 민속지(김광언, 민음사, 1988).

필자 김화봉(金華峰)

우물

정의 땅속의 물을 퍼서 쓰려고 마련한 시설.

내용 우물의 본딧말은 '움물'이며, 이는 '움에서 솟아오르는 물'이라는 뜻이다. 그 뒤 '움'의 'ㅁ'이 떨어져 나가서 오늘날의 우물이 되었다.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의 '움물'이 좋은 보기이다. '움'은 곧 '샘'으로, 샘의 발전형이 우물임을 알려준다. 『계림유사鷄林類事』에도 "우물은 오몰을 말한다.(井曰烏沒)"라는 기사가 있다.

우리 우물에는 맨우물, 귀틀우물, 옹기우물, 도르래우물, 길고桔槹우물, 물레轆轤우물, 용두레우물, 전우물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둥근 시멘트 구조물을 전으로 삼은 것은 일제강점기에 선보였다.

가장 오래된 우물은 충청남도 논산 연무읍 마전리麻田里에서 출토된 청동기시대의 것이다. 긴 길이 1.7m, 짧은 길이 1.55m의 긴 네모꼴이다. 깊이 63㎝이고, 주위에 쪽널을 둘러서 오물이 흘러드는 것을 막았다. 우물에서 발견된 새 몸통과 날개를 닮은 유물(길이21.4㎝ 너비13.5㎝)은 솟대같이 생겼으며, 풍작을 비는 제사 때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전라북도 정읍 가정리에서 발견된 초기철기시대(1~2세기)의 옹기우물과 귀틀우물도 볼거리이다. 옹기우물은 큰 항아리의 바닥을 떼어 내고 묻었으며, 귀틀우물은 절반으로 쪼갠 나무를 둥글게 박았다. 이로써 맑은 물을 얻는 동시에 솟아오른 물을 가두는 효과도 있었다. 그리고 귀틀우물이 근래까지 이어내린 점도 기억할 만하다.

길고桔槹우물은 황해도 안악군에서 나온 4세기 무덤에서 보인다. 북벽에 '정井'이라고 쓴 글씨도 특별하지만 큰머리를 얹은 물 긷는 아낙은 물론 나무로 세운 우물전, 조금 뾰족한 자배기 및 항아리를 비롯하여 물동이와 집짐승을 위한 구유까지 두루 보인다. 그리고 아낙 위에 '아광阿光'이라고 쓴 붉은 글씨도 특별하다. 고구려 시조 동명왕東明王(기원전 37~기원전 19)의 명복을 빌려고 5세기 초에 왕릉을 옮기면서 마련한 우물은 벽을 밑으로부터 시각형·팔각형·원형으로 쌓고, 마지막을 팔각형으로 마감하였다. 밑바닥에는 귀틀을 박았다. 팔각의 한 변 길이는 2.8m이고, 중심점을 지나는 대각선은 6.2m이다. 규모나 화려하고 완벽한 형태는 물론 보습과 볏을 비롯하여 여러 짐승의 뼈와 투구·방패 따위가 선보인 것은 백제 및 신라 우물과 상통하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라 우물 가운데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우물은 국립경주박물관 터에서 발견된 통일신라시대의 것이다. 특히 어린이 뼈를 비롯하여 용왕목간龍王木簡, 두레박, 복숭아씨, 동물 뼈 등 120여 점이 나온 것은 고구려나 백제 우물에 없는 일이다. 어린이는 키 123.8㎝에 7~8세로, 앞에서 언급한 유물과 함께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뼈 위에 돌 귀틀을 놓은 뒤 흙과 자갈로 덮은 점 등은 아이들이 제물로 바쳐졌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중국에서도 신석기시대 산서성 원곡고성垣曲古城 동관東關유적 우물에서 사람 뼈와 함께 쇠뼈가 나왔으며, 서한시대 요양시遼陽市 우물에서도 남녀의 뼈가 있었다. 일본에도 같은 사례가 있다. 야요이彌生시대(기원전 3~3세기) 나라현奈良縣 덴리시天理市 우물에서 나



우물 | 충남 서산 경주김씨 고택 | 서헌강



우물제 | 충남 청양 | 2010 | 강성복

온, 머리가 아래로 박힌 여성의 상반신이 그것이다.

사람들은 우물을 신령스럽게 여긴 나머지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늘의 뜻으로 여겼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따르면 경상북도 경주 나정蘿井에서 말이 무릎을 꿇고 운 뒤 혁거세왕赫居世王이 태어나고, 용이 경주 알영정閼英井에 나타난 뒤 왕비가 태어난 것이 좋은 사례이다. 또 금성우물에 용이 나타난 뒤 왕 또는 왕비가 죽거나(6회) 왜구가 쳐들어 왔고, 궁중의 우물이 갑자기 넘친 뒤에는 큰 비가 열흘 동안이나 내렸다. 이와 대조적으로 백제 왕궁의 우물물이 넘친 것은 마한을 멸망시킬 징조였다.

『고려사高麗史』의 우물 관련 기사 12개 가운데 우물물이 끓어오른 것이 여덟 개이며, 그때마다 반란이나 지진이 일어났다. 왜구가 침입한 적도 있었다. 우물에서 소리가 나면 궁궐이 불탄 것 외에 반란이 세 번이나 일어났다. 또 범이 왕궁 우물에 뛰어든 뒤에는 몽골의 침략을 받았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일성록日省錄』 등에 실린 우물 관련 기사는 49개이다. 이들 기사 대부분도 앞에서 언급한 『삼국사기』와 『고려사』 기사처럼 흉조와 연관되어 있다.

일반 백성들도 우물을 신령스럽게 여긴 나머지 해마다 물을 상징하는 우물지기인 용에게 농사의 풍년과 가족·마을의 무사태평을 비는 용왕제를 지냈다.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와 조선시대에 국가에서 비를 비는 용왕제를 지낸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밖에 민간에는 용알뜨기와 용밥주기 민속이 널리 퍼져 있었다. 용알뜨기는 새해 첫 용날 새벽에 하늘에서 내려온 용이 우물에 낳은 알을 가장 먼저 뜨는 행사이다. 이로써 농사는 풍년이 되고 가족은 무사태평을 누린다. 이때 용알을 처음 뜬 사람은 효험을 독차지하려고 우물에 지푸라기를 넣는다. 용밥주기는 이름 그대로 용왕에게 먹이를 주는 행사로, 『경도잡지京都雜誌』 「대보름」에 "종이에 싼 밥을 우물에 던져서 악운을 쫓는다."라는 기사가 있다.

우물 훔치기도 벌였다. 물맛이 떨어지거나 물이 자주 마르는 집에서는 대보름날 새벽 마을의 물맛 좋은 집의 물을 몰래 떠 와서 제 집 우물에 부었다. 이 행사는 마을 단위로도 벌어졌다.

물은 서너 해가 지나면 청소를 하였다. 이를 '우물친다'고 하였다. 청명에 벌이는 중국과 달리 우리는 흔히 칠월칠석에 하였고, 더러는 장마가 지나서 우물 속으로 차오르던 흙탕물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청소하였다.

그러나 우물을 유난히 받드는 집에서는 날을 따로 잡았다. 이날에는 온 가족이 머리를 빗고 흰 옷을 입었으며, 신발도 깨끗이 빨아 신었다. 먼저 떡, 돼지머리, 과일 따위를 차려놓고 집안의 어른이 '오늘 우물을 치니 앞으로도 물이 풍성하게 솟고, 온 집안이 태평무사하게 도와주소서.'라고 축원을 올린다.

우물이 지나치게 크거나 깊지 않으면 사다리를 걸쳐 놓고 사람이 들어가서 양동이 따위에 바닥의 흙을 비롯하여 녹슨 두레박과 이것을 건지는 갈쿠리, 삭은 고무신 짝, 썩은 나무토막, 설거지 하다가 빠뜨린 숟가락이나 젓가락 짝, 비녀 등을 거두었다.

이와 달리 우물이 크고 깊으면 사람 둘이 들어가

서 한 사람은 바닥에서 거둔 잡물을 중간으로 올리고 다른 사람이 이를 받아서 밖으로 쏟았다. 영·호남지방에서는 임신한 사람이 맨 먼저 들어가면 용왕이 사내아이를 점지해 준다고 여겼다. 또 전라북도 고창 공음면에서는 청소를 마친 뒤에 우물 안에서 어른 손바닥만 한 붕어 서너 마리를 잡았다. 이 붕어를 샘각시라고 불렀다. 아무도 넣지 않은 것이어서 청소를 고맙게 생각한 우물신이 선물한 것이라고 여긴 것이다.

우물을 칠 때는 그 물을 마시거나 쓰는 집에서 한 사람씩 나섰고, 병이 나거나 하여 빠지는 경우에는 그대로 지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경상북도 경주 강동면 양동리에서는 1960년대부터 한나절 빠지면 하루 품삯의 절반, 종일 빠지면 하루 품삯을 냈다. 지규식池圭植이 남긴 『하재일기荷齋日記』에 "1892년 5월 우물 돌 벽을 다시 쌓는데 술값 8전을 건네고 우물 친 값으로 두 냥을 주었다."라는 기사가 있다(이때 하루 품삯이 열 냥이다).

우물 청소 때 간혹 사고가 발생했다. 『산림경제山林經濟』 권3 「구급救急」 입정사入井死에 "여름철에 우물을 치다가 더러 사람이 죽었다. 그중에도 오뉴월이 기장 심하다. 이는 우물 속에 쌓인 기운[隱伏伏氣]이 있어서 들어가면 갑자기 숨이 막히는 까닭이라."는 기사가 있다. 이는 오늘날의 가스중독 현상이다. 이때는 우물물을 떠서 입에 머금었다가 얼굴에 뿜은 뒤 웅황雄黃 가루를 물에 개어 먹였다.

강원도 강릉 성산면 금산리에서 정월 열나흗날 저녁 짚으로 엮은 용(길이1m에 지름30㎝)을 마을 동서남북 네 곳의 우물에 넣은 다음 "신령스러운 우물의 용왕님이여, 물이 끊이지 않게 도우소서."하고 읊조리고 용을 줄에 매단 뒤 "용물 달자, 용물달자."하고 외치며 다시 앞 네 곳의 물을 떠서 조금씩 뿌리며 마을 임경당臨鏡堂 우물에 넣었다. 이렇게 하면 온 마을의 우물이 마르지 않고 물맛도 좋아진다는 것이다.

우물은 마을 아낙네들의 휴식처이자 세상 소식을 접하는 소식통 구실도 하였다. 이곳에서 온갖 소문이 퍼진 탓에 상류층에서는 며느리가 우물에 가는 것을 지극히 꺼렸다. 또 젊은이들은 마음에 있는 사람을 남몰래 만나는 장소로도 이용하였다.

특징 및 의의 지금까지 경주 일대에서 발견된 신라시대 우물 유적은 270곳이 넘으며, 통일신라시대의 것이 215곳으로 80%에 이른다. 이에 대해 후지시마 가이지로藤島亥治郎(1899~2002)는 "신라는 큰 돌을 마음대로 자르거나 조각한 덕분에 우물이 아주 크고 튼튼하며, 최고의 예술적 분위기를 자아낸다."라고 찬탄하였다. 사이토 다다시齋藤忠(1908~2013)도 "치밀한 화강암으로 다듬은 아름다운 의장意匠을 지닌 우물 전은 정미整美한 형태를 지녔으며, 이는 세계 최고로 꼽히는 비잔틴시대 우물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라고 적었다.

한국의 우물이 논농사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논의는 전에도 있었지만 최근 다카노 야코高野陽子가 더 구체화한 의견을 제시했다.

"동아시아의 우물은 중국의 초기 논농사 발생 지역인 신석기시대 장강 하류 지역에 나타난다. 대한민국 충청도 논산 마전리에서 나온 우물 둘 가운데 하나는 일본에서 발견된 가장 오랜 우물인 이치다사이 토보유적市田齊當坊遺蹟의 것을 빼닮았다. 이는 논농사와 함께 전해진 남방계문화가 조선반도를 거쳐 일본에 전파된 증거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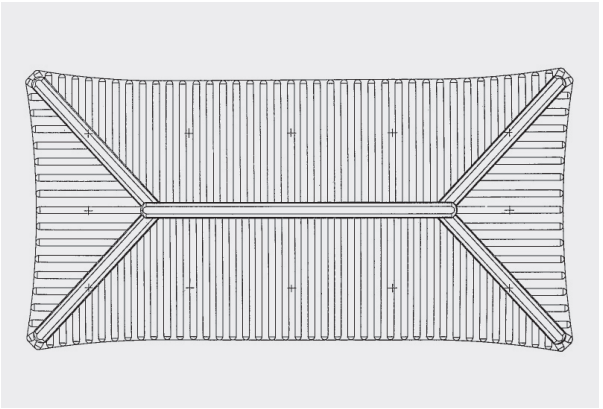
참고문헌 국립경주박물관부지내 발굴조사보고서(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2), 동아시아의 우물(김광언, 민속원, 2018), 안악 제23호분 발굴보고(황욱, 과학원출판사, 1958), 高野陽子(市田齊當坊遺跡の井戸と弥生時代の木組井戸, 京都府埋藏文化財情報93, 京都府埋藏文化財調査研究センター, 2004), 慶州の中心とせる新羅時代 浮屠·石井·石槽(藤島亥治郎, 建築雜誌48-585, 日本建築學會, 1934), 新羅の石井(齋藤忠, 考古學7-6, 1936).

필자 김광언(金光彦)

우진각지붕

정의 건물 앞뒤와 좌우 측면 모두에 지붕면이 있고 용마루와 추녀마루로 구성된 지붕.

내용 우진각지붕의 지붕면 앞뒤는 사다리꼴이고, 좌우 측면은 삼각형 모양이다. 유물을 통해 맞배지붕과 함께 철기시대 이후 장방형 움집에 본격 사용된 것을 확



우진각지붕 | 국립민속박물관



우진각지붕 | 경북 봉화 만회 고택 | 2018 | 김왕직

인할 수 있다. 초가지붕은 거의 대부분 우진각지붕이다. 우진각 기와지붕과의 차이점이라면 앙곡과 안허리곡이 없고 지붕 모서리, 추녀 부분을 방구매기를 사용하여 둥글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재료 특성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초가는 방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두껍게 잇고, 지붕면도 위로 배가 솟은 외만한 곡선을 이루며 각을 잡아 모서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였다. 각지고 모서리가 있으면 방수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와는 방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각지고 내만한 날렵한 지붕을 만들 수 있었다. 우진각 기와지붕의 경우에도 앙곡과 안허리곡이 사용되었고, 초가와 같은 방구매기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포형식과 팔작지붕이 유행하기 이전인 조선시대 이전에는 우진각지붕이 궁궐 및 사찰과 민가의 정전에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조선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 조선시대 숭례문과 흥인지문, 수원 화성의 장안문과 팔달문을 포함한 성곽 건물이나 돈의문과 같은 궁성문, 해인사 장경판전 등 특수 건물 또는 민가에서만 우진각지붕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주로 당, 송, 요, 금대에 건립된 산시성 우타이산의 포광쓰 대전, 산화쓰 대웅보전, 화옌쓰 대웅보전, 광성쓰 비로전, 쯔진청 등과 같은 사찰과 궁궐의 규모가 큰 정전은 모두 우진각지붕을 사용하였다. 오히려 부속 건물을 팔작지붕으로 하여 한국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우진각지붕은 사방에 지붕면이 있기 때문에 측면에도 거실을 배치하고 창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건물은 정면뿐만 아니라 측면으로 확대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또 측면을 보가 아닌 도리로 구성하고 측벽을 사용하여 장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건물의 기능을 수용할 수 있었고, 사찰건물의 경우 장엄이 확대되는 효과를 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한국건축에서 우진각지붕이 성곽 건축물을 제외하고 민가나 소규모 부속 건물에서 사용된 것은 목재 공급과도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규모가 큰 성곽 건물에도 우진각을 사용하는 이유는 맞배나 팔작은 측면에 목재가 노출되어 불 공격에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진각건물의 경우 측면의 규모가 커지면 길이가 매우 긴 추녀가 필요하다. 목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추녀를 구하기가 어렵다. 또 추녀에 버금가는 길이로 선자연을 걸기가 어렵다. 덕수궁 대한문의 경우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붕 구성을 팔작처럼 짧은 추녀를 걸고 그 상부는 얼기설기 덧목을 사용하여 우진각을 만들었다. 폭이 작은 민가의 경우도 추녀는 걸었지만 정선자를 걸지 못하고 엇선자를 걸어 해결하였다. 이처럼 규모가 커질 경우 우진각지붕은 추녀와 선자연 등에서 대경재가 필요한 것이 단점이다. 따라서 목재가 고갈된 조선 후기에는 꼭 필요한 건물 이외에 규모가 작은 민가에서 우진각지붕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성곽과 궁문, 민가 이외에 우진각지붕을 사용한 사례는 창덕궁의 관람정에서 볼 수 있다. 평면 모양이 부채꼴 모양을 한 특수한 건물로, 규모가 작아서 조

각과 같은 느낌을 주는 건물이다. 우진각지붕은 내림마루도 없고 측면에 박공이나 풍판도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장식이 가장 적은 소박한 지붕 형식이다. 물론 사찰과 궁궐에서는 치미나 취두, 잡상 등이 사용되기 때문에 화려하지만 민가의 경우는 고졸한 맛이 있다. 그래서인지 현대인들은 팔작지붕에 비해 격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한옥을 지으면 모두 팔작지붕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가에서는 우진각지붕이 많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붕 형식의 다양성 차원에서 민가에서는 우진각지붕 사용이 권고된다.

참고문헌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김왕직, 동녘, 2007), 지혜로 지은 집 한국건축(김도경, 현암사, 2011), 한국건축대계4-신편 한국건축사전(장기인, 보성각, 1998).

필자 김왕직(金王稙)

움

정의 구덩이를 파서 식재료·식품을 묻어 두는 시설물.

내용 식재료·식품을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 구덩이를 파서 갈무리하는 시설물로, 전체적인 모습은 원시부락의 움집과 비슷하다. 움에는 무·배추·감자·사과·김장김치 등을 보관하고, 제수용 밤을 저장하기 위해 대청 아래에 마련한 다소 작은 움도 있다.

움의 형태는 구덩이를 파서 그 위에 짚으로 만든 지붕을 덮은 것이 가장 보편적인 형태이다. 그러나 움 위에 기둥을 세운 후 그 위에 이엉을 덮어 제대로 규모를 갖춘 것도 있다. 강원도 산간지역에서는 토굴집처럼 땅을 깊고 넓게 판 후 사다리를 설치하여 감자, 배추 등을 보관하는 창고처럼 사용하였다. 그것은 산간지역의 긴 겨울철 추위로부터 식자재를 보관하기 위해 공간을 넓게 만든 것이다. 결국 보관하는 식품의 양과 자연환경에 따라 움집의 규모도 달라진 셈이다. 도시에서도 김치나 과일 등을 보관하기 위해 집 안에 시멘트를 이용해 움을 만들기도 하였다.



움집 | 강원 원주 치악산 | 강영환



김치움 | 국립민속박물관

중국 동북지역의 조선족은 지금도 움을 사용하고 있다. 헤이룽장성의 조선족은 추운 날씨 때문에 김치를 움에 보관해 둔다. 늦가을 집 앞 채전에 2m 깊이의 네모난 구덩이를 파고 그 위에 큰 나무로 들보를 놓고 사이사이 짚이나 수숫대로 지붕을 인다. 거기에 흙을 덮고 작은 문을 내면 낮은 봉분 모양의 김치 움이 완성된다. 그 안에 김칫독을 가지런히 들여 놓고 김장김치를 보관한다. 김치움의 한 모퉁이에는 무·감자·배추·파 등도 보관한다. 무나 감자는 모래에 파묻어 둔다. 이런 김치움은 해마다 파고 묻기를 반복한다. 여름이 되면 물이 차올라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3월이 지나면 기온 상승으로 김치가 물러서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랴오닝성은 지린성이나 헤이룽장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날씨가 따뜻하다. 그래서 옌볜처럼 김치움을 깊이 파지 않는다. 우선 김칫독의 크기보다 약간 크게 지면에 구덩이를 판 후 김칫독을 땅에 묻는다. 그리고

땅과 김칫독 사이에 짚이나 톱밥으로 움직이지 않게 꽉 채운다. 이렇게 하면 보온에도 유리하다. 독 아가리는 새끼줄로 꽉 조여 준다. 그리고 김치를 한 포기씩 다져 넣고 덮개를 덮는다. 그 주변에 4~5개 의 긴 나무막대기로 고깔 모양의 지지대를 세운 후 짚 포대로 사면을 덮는다. 즉 김칫독은 땅에 묻고 그 위에 원추형의 작은 집을 세운 셈이다. 김치를 꺼내기 위하여 작은 문을 하나 달아 둔다.

특징 및 의의 움은 주로 겨울철 식재료와 식품이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시설물로, 전국적으로 무움과 김장움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각종 저온저장 시설과 김치냉장고의 등장으로 이젠 움은 사라졌다.

참고문헌 김치와 김장문화의 인문학적 이해(김광억 외, 민속원, 2013), 움(권삼문, 한국의식주생활사전-식생활, 국립민속박물관, 2018), 중국 길림성 한인동포의 생활문화(김광언·여중철, 국립민속박물관, 1996), 중국 요녕성 한인동포의 생활문화(조경만, 국립민속박물관, 1997), 중국 흑룡강성 한인동포의 생활문화(황익주, 국립민속박물관, 1998), 한국의 농경문화1(국립민속박물관, 200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정연학(鄭然鶴)

움집

정의 땅을 파고 내려가 바닥을 만들고 수직 벽체 없이 지붕만 씌운 집.

개관 인간이 살림집을 짓기 시작한 것은 구석기시대로 알려진다. 한반도에서도 웅기 굴포리를 비롯하여 공주 석장리, 제천 창내 등의 구석기 유적에서 인공으로 집을 지은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 집은 평평한 땅 위에 가는 기둥을 불규칙하게 세우고 지붕을 덮은 모습이다. 이를 '평지 천막형 주거'라고 한다. 구조로 보아 일시 머물다가 간 은신처shelter 수준이었다.

살림집 건설은 신석기시대에 본격화되었다. 어로와 농경생활의 시작으로 점차 정착생활을 하게 되면서 오래 머물 수 있는 살림집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신석기인 생활유적에서는 움집 흔적이 많이 나타난다. 움집이란 땅을 파고 그 위에 지붕을 덮는 건축 형식을 말한다. 일정한 깊이 이하의 땅속은 지상에 비해 온도 변화가 적다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땅을 파고 내려가면 건물의 높이를 낮출 수 있어 거센 바람에 대응하기에도 유리하였다. 움집은 땅을 파야 하는 노동력이 필요하고, 내부 공간이 어둡고 습하기는 해도 혹독한 추위나 더위를 견딜 수 있었다. 즉 기후를 조절할 수 있는 건축 방법을 경제성을 감안하여 개발한 것이다. 움집은 정착형 주거로 발전하는 최초의 주거 형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내용 움집은 신석기시대에 나타나기 시작하며, 시대에 따라 약간씩 다른 형태를 띤다. 신석기시대 움집은 움의 깊이가 대부분 50~100㎝에 이른다. 이는 청동기시대 움집에 비하여 깊다. 평면은 원형圓形 또는 모퉁이를 둥글게 만든 방형方形의 평면이 많으나 후기에서는 장방형長方形의 평면도 나타나고 있다. 시기 순으로 보면 원형으로부터 모 죽인 방형, 장방형으로 변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규모는 30㎡ 안팎이 가장 많아 5~6명의 가족원이 생활한 것으로 추정된다. 바닥은 진흙을 굳게 다진 후 동물 가죽이나 마른 풀 같은 것을 깔고 생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움의 중앙에는 바닥을 약간 파고 강자갈을 돌린 화덕 자리가 있으며, 가까이에 토기를 파묻은 저장 구멍이 발견된다.

출입 시설은 계단이나 경사로를 만들어 외부와 연결시키고 그 위로 나뭇가지와 억새를 덮은 것으로 추측된다. 움집 구조는 움 주위에서 중앙을 향하여 서까래를 경사지게 세우고 정점에서 끈으로 묶은 뒤 나뭇잎이나 풀로 지붕을 덮은 원추형 또는 사각추형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 암사동 움집의 내부에서는 수직으로 뚫린 기둥 구멍도 발견된다. 이는 내부에 기둥, 보, 도리로 조합되는 육면체형 구조틀이 만들어졌음을 말해 준다. 이 구조틀에 기대어 서까래를 세워 지붕면을 만들었다. 즉 지붕과 구조체가 분리된 방법으로, 내구력을 좀 더 강화시킨 구조법으로 발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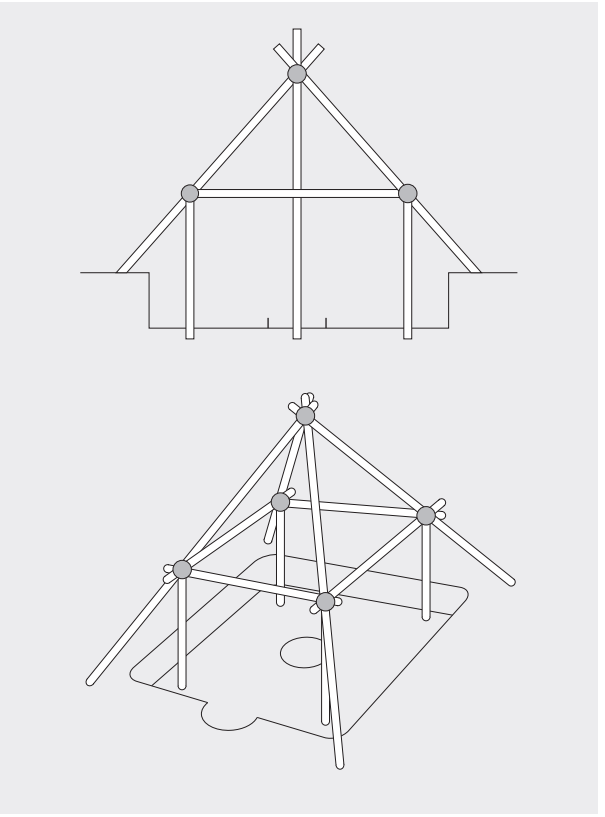
움집은 바닥면이 지표보다 낮기 때문에 추운 겨울 기후에 효과 높게 대응할 수 있는 주거 형태이다. 지

중온도地中溫度는 지하심도地下深度가 깊을수록 겨울에는 외기온도外氣溫度나 지표면 온도보다 다소 높아지고, 여름에는 그 반대로 낮아지는 타임래그time-lag 현상이 나타난다. 지하 60㎝ 이하의 지중온도는 계절에 따른 온도 변화의 영향만 나타나기 때문에 바닥이 깊은 움집은 혹독한 겨울 기후에 대응하기 쉬웠을 것이다. 실제로 암사동에서 깊이 70㎝인 움집의 경우를 실험 조사한 결과 난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기온도가 영하로 내려갈 때 온도차가 5~6℃로, 실내가 따뜻했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움집의 바닥 처리는 내부 공간의 환경 성능이 개선되었음을 보여 준다. 바닥에는 진흙을 다지고 그 위에 불을 놓아 굳힌 모습을 볼 수 있다. 여기에 마른 짚이나 짐승 가죽을 깔아 생활 면을 만든 흔적도 나타난다. 이는 지면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좀 더 쾌적한 주거 공간이 만들어졌음을 보여 준다.

움집의 구조체 높이가 낮기 때문에 내력耐力이 좀 더 강화된 구조라는 점도 의미가 있다. 즉 일정한 내부 공간을 확보하면서 지표면에 노출되는 구조물의 높이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바람에 견디기에 유리한 구조이다. 암사동 유적 등에서는 움 내부에 수직 기둥을 세운 사례도 나타난다. 내부에 기둥과 보로 만들어진 구조틀을 만들고 여기에 기대어 벽체를 위한 서까래형 경사 기둥들을 결구結構한 것이다. 좀 더 오래 지탱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체를 만들기 위한 기술 발전을 볼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움집은 청동기시대에도 보편화된 주거 형식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그 규모나 평면, 구조 등에서 신석기시대와는 큰 차이가 나타난다. 청동기시대의 움집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고 평면 형태가 장방형이며, 저장 공간이 없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화덕이 한편에 치우치게 설치되거나 두 개의 화덕이 나타나기도 한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닥의 깊이가 얕아졌다는 점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60㎝ 이상의 것도 있으나 30㎝ 이하인 것이 대부분이다. 바닥 깊이가 1m를 넘는 신석기 움집에 비하면 상당히 얕아진 셈이다. 청동기 움집들은 단순히 움의 바닥만 얕은 것이 아니라 구조나 형태상으로도 신석기 움집과 차이를 보인다.



암사리 4호 집터 복원도 | 강영환



움집 | 전남 승주 고인돌공원 | 1996 | 국립민속박물관

따라서 청동기시대의 것을 움집 단계에서 발전된 '반움집'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반움집이란 수직 벽체가 발생하고 지붕 서까래가 지면에서 떨어지는 움집을 의미한다. 반움집은 지붕이 벽체와 분리되면서 맞배나 우진각지붕의 가구架構 체계가 발전하는 단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반움집의 존재는

주거사에서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를 구분하는 중요한 단서인 동시에 움집에서 지상주거로 발전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참고문헌 우리의 선사문화(이융조 외, 지식산업사, 1994), 움집의 분류와 변천(임영진, 한국고고학보17, 한국고고학회, 1985),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강영환, 기문당, 2013), 한국의 전통건축(장경호, 문예출판사, 1992).

필자 강영환(姜榮煥)

원룸

정의 한 개의 거실에 욕실과 조리가 가능한 주방이 붙어 있어 독립된 주거를 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의 통칭.

내용 원룸은 명확한 법적 근거에 의해 분류되는 용어는 아니지만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을 말한다. 1인 거주를 위해 공급되는 주택을 뜻하는 시사 용어라 할 수 있다. 1인 가구용 주택은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주택 중에는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주택의 원룸과 다중주택 중 원룸형이나 고시원 등이 있고,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연립주택·다세대주택·아파트의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 등이 있다. 다가구나 다세대로 공급되는 주택 유형이 있으며, 이들은 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형태로 공급되고 있다. 비주거용 중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에 원룸형이 존재한다. 오피스텔과 고시원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지만 건축물 용도 분류에서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로 규정된다.



신림동 원룸 평면도 | 서울역사박물관

특징 및 의의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공급되는 원룸은 주로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공급되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소형주택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된 주택 유형이다. '도시지역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설되는 3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전용면적에 따라 원룸형,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주택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원룸형 주택은 주차장 설치 기준이 가구당 0.6대로 완화되어 적용된다.

참고문헌 1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유형 연구(김혜련,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차주엽,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거주자유형에 따른 1인 가구 도시주거 계획 기준 연구(이윤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원룸주택선호도(심은실,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 실태분석과 정책대안 연구(이동훈·이재수,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서울연구원, 2013).

필자 천현숙(千賢淑)

월세
月貰

정의 남의 집이나 방을 빌려 쓰는 대가로 매월 임차료(월세)를 지불하고 거주하는 임대차 유형.

내용 월세月貰는 임대차 유형의 하나로, 남의 집이나 방을 빌려 쓰는 대가로 매월 임차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전세보증금을 일시에 목돈으로 지불하는 전세와 달리 월세는 보증금이 적거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증금이 있는 경우를 '보증부월세', 없는 경우를 '월세'라 한다. 보증금 없이 일정 기간의 월세를 일시에 미리 지급하는 경우는 '사글세'라 한다. 제주도 지

역에서는 1년 치 월세를 선납하는 임대차계약을 연세라고 칭한다.

실제 임대차시장에서 전세보증금의 월세 전환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전월세전환율이라고 한다. 월세를 전세와 월세의 보증금 차이로 나눈 뒤 100을 곱하면 월별 이율이 나오고, 이를 12개월(1년)로 곱하면 전월세전환율이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전월세전환율 상한선은 기준금리에 3.5%를 더한 이율 또는 1할(10%) 중 낮은 값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상한을 정하고 있는 것은 임대차 기간에 무리한 증액이나 월세 전환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2019년 9월 현재 기준금리가 1.5%이므로 현재 전월세전환율 상한은 5%가 된다. 전월세전환율이 내리면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낮아졌다는 의미이고, 전월세전환율이 오르면 반대로 월세 부담이 높아졌다는 뜻이다. 2019년 7월 현재 전월세전환율은 서울 5.3%, 수도권 5.7%, 전국 6.2%이다(한국감정원).

특징 및 의의 우리나라는 전세 선호가 높아 임대차계약 중 전세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저금리 영향으로 월세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8년 현재 점유형태별 비중은 전세 15.2%, 자가 57.7%, 보증금 있는 월세 19.8% 등이다.

최근에는 월세와 전세가 복합된 형태인 반전세, 준전세 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 통계도 전세, 월세 외에 준월세, 준전세 등으로 세분화하여 공개하고 있다. 준전세는 전세에 가까운 형태로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를 초과하고 대푯값이 480개월 치(배), 전세금 대비 보증금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준월세는 월세와 준전세의 중간 성격으로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 구간, 대푯값이 48개월 치(배), 전세금 대비 보증금 비율이 10% 이상 6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참고문헌 월세시대를 맞아 새로이 개편한 월세통계 첫 공표(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5.8.2), 국토교통부 통계누리(stat.molit.go.kr).

필자 천현숙(千賢淑)

윗목

정의 온돌방에서 아궁이와 멀리 떨어진 쪽에 위치한 방바닥.

개관 윗목은 아궁이에 지핀 불길로 구들장을 달구어 바닥의 온도를 높이는 온돌방에서 아궁이로부터 멀리 떨어진 방바닥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온돌은 초기 철기시대에 시작되었다는 견해가 있지만 대체로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러 보편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온돌은 바닥에 편평한 돌을 깔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그 열기로 돌을 달구어 방을 데우는 난방 방식이다. 장갱長坑, 화갱火坑, 난돌煖埃, 연돌烟埃, 구들 등으로 호칭되다가 19세기 이후 '온돌'로 통칭되었다. 온돌방은 한대성 기후의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난방방식으로, 아궁이의 열기가 직접 전달되는 방바닥뿐만 아니라 온기와 냉기의 순환에 의해 방 전체에 따뜻한 공기를 제공한다. 즉 공기는 뜨거워지면 위로 상승하고 차가워지면 아래로 가라앉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아랫목의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윗목의 찬 공기는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된다. 이 같은 원리에 의해 온기와 냉기가 적절히 섞여서 방 전체의 공기를 따뜻하게 해 주는 것이다. 온돌방은 아궁이에서 가까운 따뜻한 아랫목은 집안 어른이나 연장자의 공간이고 아궁이에서 멀리 떨어진 탓에 온기가 거의 없는 서늘한 윗목은 젊은 층이 자리하는 것이 전통사회의 보편적 예절이었다.

내용 항간에 '윗목의 밥상 보듯 하다'라는 언설이 있다. 무언가를 소중히 다루지 않을 때 사용하는 말로, 차가운 윗목에 놓인 찬밥 신세라는 뜻이다. 이를 보더라도 윗목은 아랫목에 비해 소홀하게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항상 서늘한 온도가 유지되는 윗목은 상하기 쉬운 음식을 저장하는 공간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숙성과 발효가 필요한 음식을 아랫목에 두는 것과 달리 고구마나 감자 등은 추운 겨울철에

실외에 자리한 곳간에서 보관하면 얼어 버리는 탓에 실내의 시원한 윗목에 보관해 둔 것이다. 술이나 식혜도 아랫목에서 충분히 발효되고 나면 윗목으로 옮겨서 서서히 숙성시키곤 하였다.

윗목은 조상신을 모시는 의례 공간으로도 활용되었다. 전국 차원에서 볼 때 가신家神의 으뜸인 성주신은 안방의 윗목에 모셔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역에 따라 올벼심리(첫 나락을 수확하여 제사 지내는 풍속)를 할 때 성주신의 신체神體를 햇곡으로 갈아 준 다음 묵은쌀로 밥을 해서 윗목에 제사상을 차려 두었다. 동지에는 액운을 막기 위해 팥죽 한 양푼을 윗목에 두었다가 가족들이 함께 먹기도 하였다. 또 삼신을 윗목에 모시는 경우도 있었다. 산모가 진통을 하면서 해산 기미를 보이면 산실産室의 윗목에 삼신을 모신 뒤 그 앞에 정화수와 미역 등을 차려서 안산安産을 기원한다. 이처럼 제사상은 아랫목보다 윗목에 차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례 역시 마찬가지이다. 즉 사람이 숨을 거두면 시신을 아랫목에 모시고 제사상은 윗목에 차리는 것이다. 시신을 윗목에 안치하지 않는 까닭은 『가례家禮』의 천거정침遷居正寢 규범을 따르기 때문이다.

윗목은 반닫이 등과 같은 가구를 두는 장소이기도 하였다. 반닫이는 앞면을 절반으로 구분하여 위쪽 면을 여닫을 수 있도록 제작된 가구로, 대체로 윗목에 두고 사용하였다. 온기가 있는 아랫목에 가구를 두면 나무가 뒤틀릴 수도 있고 또 화재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특징 및 의의 온돌방의 윗목과 아랫목은 열기를 전달하는 아궁이의 거리 차에 의하여 형성된 공간으로, 아궁이에서 가까운 까닭에 온기를 항상 유지하고 있는 아랫목에 비해 먼 거리에 위치한 윗목은 한기寒氣가 맴도는 장소이다. 이런 이유로 아랫목은 집안 어른과 연장자들을 위한 공간이라면 윗목에는 젊은 층이 자리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처럼 아랫목에 비해 서늘함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 윗목에는 겨울철 양식인 고구마나 감자 등을 보관해 두는 등 아랫목과는 차별을 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참고문헌 온돌주거지의 발생과 양상(김미영, 가라문화18, 경남대학교 가라문화연구소, 2004), 전통온돌의 구조와 열성능에 관한 연구(정기범,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한국의 온돌방문화(박윤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42, 대한건축학회, 199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향토문화전자대전(grandculture.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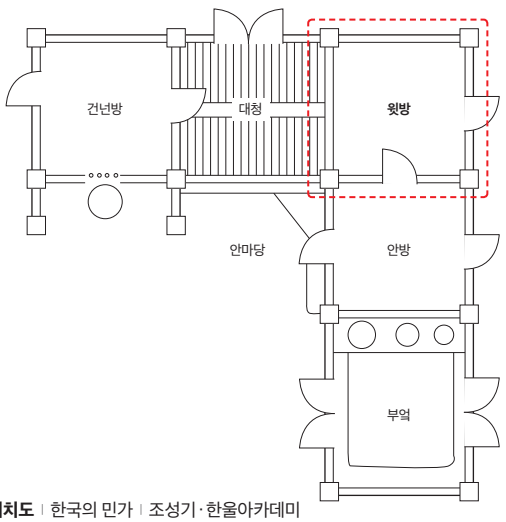
필자 김미영(金美榮)

윗방

정의 대체로 안방이나 사랑방에 인접한 방.

내용 윗방이라고 부르지만 경우에 따라 웃방이라고도 칭하였다. 조선시대 전통한옥은 목조 기둥 네 개가 세워져 만들어진 공간 구성 단위를 한 칸으로 하였다. 일반 한옥의 목조 기둥이 가능한 한 칸의 공간 크기는 한 변이 2.0~2.8m 정도로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므로 대가족이 거주한 종갓집이나 상류가옥은 안방 옆에 방을 인접하여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많다.

윗방은 안방 윗목에 인접한 방이다. 보통 이 윗방과 안방 사이는 네 짝 미닫이 창호로 되어 있다. 평상시에는 열어 놓는다. 윗방은 가족 구성원에 따라 사용 기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윗방의 윗목에는 장·농·반닫이 등을 늘어놓고 그 위에 실함, 반짇고리 등을 얹어 두기도 하였다. 바닥은 장지 마감, 벽과 천장은 한지 마감으로 안방과 같았다.



윗방 배치도 | 한국의 민가 | 조성기·한울아카데미

특징 및 의의 윗방은 안방에 이웃한 방으로, 전통한옥에서 볼 수 있는 공간이다. 안방을 확장하여 사용하거나 안방 보조 공간이었다.

참고문헌 조선시대 반가의 주생활과 공간사용에 대한 연구(박선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한국주택건축(주남철, 일지사, 1980).

필자 박선희(朴善姬)

윤도판
輪圖板

정의 집터나 묘터를 정할 때 방향을 고려하거나 다양한 풍수 요소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도구.

개관 윤도輪圖는 그 모양이 원을 그려 가며 글자 및 부호가 있어 수레바퀴 모양을 하고 있다는 데서 유래한 용어이다. 이 윤도의 몸체를 금속으로 만들면 한가운데에 있는 자침의 자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흔히 몸체는 자성이 없는 나무를 사용하여 윤도판輪圖板이라고 한다. 지관을 비롯하여 이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은 항상 몸에 차고 다녔으므로 패철佩鐵이라고도 불린다. 안에 있는 자침이 돌다가 정지하면서 방향을 표시하기 때문에 나침판羅針板이라고 하며, 보통 평평한 곳에 놓고 사용하기 위하여 소반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침반羅針盤이라고도 한다. 이 물건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경전經典과도 같이 중요하다고 하여 나경羅經이라고도 불린다. 방향을 보는 방법은 자침의 붉게 표시된 부분을 정북正北에 해당하는 자子의 가운데에 맞추면 남북의 절대 방향이 설정된다. 이 상태에서 보고자 하는 곳의 방향을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남쪽을 가리키는 소반 같은 도구라는 의미에서 지남반指南盤이라고도 하였고, 가운데가 자석이므로 지남철指南鐵이라고도 하였다. 민간에서는 아주 단순하게 쇠 또는 뜬쇠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현재 가장 일반화된 용어는 패철이며, 윤도(판)는 한국의 전통 용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윤도판이 출현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미 1세기 한반도의 낙랑 고분에서 식점천지반式占天地盤이 출토된 바 있고 신라 말기에 도선풍수가 유행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식 나침반이라 할 수 있는 윤도판은 일찍부터 출현한 것으로 추측된다.



윤도판
① 길이25 너비10 | 국립민속박물관
② 길이29 너비10 | 20세기 후반 |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1600년(선조 33) 당시 파평부원군 윤근수가 중국인 풍수가 이문통이 보여 준 나경에 대하여 선조에게 보고하기를 "마치 우리나라의 윤도처럼 생겼으며, 단지 더 자세하여 내면과 외면에는 각양의 양식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것으로 보아 조선 중기 이후 중국의 나경이 우리나라에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중국식 나경과 윤도판 기능보유자 김종대(국가무형문화재 제110호 윤도장)가 만든 윤도판은 내용에서 큰 차이가 없다. 조선 후기가 되면 좀 더 복잡한 중국식 패철로 일반화되었기 때문이다.

내용 윤도판(패철)은 몇 개의 원을 그리면서 정보를 제공하는가에 따라 5층·7층·9층 윤도 등으로 표현된다. 현존하는 가장 복잡한 것은 1848년(헌종 14) 관



지리천문신장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상감에서 만든 24층 윤도판이다. 중국에는 30층이 넘는 것도 많으며, 심지어 41층까지 그려진 것도 있다. 복잡해 보이는 윤도판의 분석을 위하여 크게 두 가지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윤도판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층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이기론에 입각한 풍수 방법론에서 도출된 것이다. 풍수 방법론에는 크게 형세론形勢論 이기론理氣論, 물형론物形論이 있다. 한국의 풍수는 땅의 지형을 관찰하고 그러한 땅의 흐름에 맞추어 집터와 묘터를 택하는 형세론이 기본이었다. 그러므로 실제로 윤도판이 복잡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중국은 지역에 따라 형세론과 이기론이 혼재되다가 점차 이기론이 일반화되었다. 이기론은 천문天文 지식과 주역周易 논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길흉吉凶 논리를 풍수에 적용한 것이다. 인간의 길흉을 판단하는 온갖 논리가 하나씩 첨가되어 적용될 때마다 패철의 층이 하나씩 늘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단순히 윤도판의 층이 많다고 해서 과학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풍수의 본질을 잊고 술수화術數化 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둘째, 윤도판의 효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산의 흐름을 24방위로 측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24방위를 측정하려면 자침磁針이 정확히 남북을 가리켜야 한다. 그러나 지구는 기본 축을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어 자침의 북이 가리키는 방향[磁北]과 실제의 진짜 북[眞北]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논리에 기초하여 정침正針 지반地盤, 봉침縫針 천반天盤, 중침中針 인반人盤의 삼침三針 개념이 생겨났다. 따라서 복잡한 패철에서는 이 세 가지가 모두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는 삼침 중에서 대부분 정침만을 사용하고 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5층 윤도에서 정침은 공통으로 4층에 배열되어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윤도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4방위의 측정이다. 24방위를 북쪽에서부터 제시하면 순서대로 임자壬子, 계축癸丑, 간인艮寅, 갑묘甲卯, 을진乙辰, 손사巽巳, 병오丙午, 정미丁未, 곤신坤申, 경유庚酉, 신술辛戌, 건해乾亥가 된다. 자子가 정북, 오午가 정남이므로 이 24개 글자는 각 방위를 나타낸다. 그런데 24방위는 단순히 방위만을 보는 것이 아니다. 측정된 방위 상태를 보고 산의 맥(풍수에서는 용龍이라고 한다)의 흐름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는다.

예를 하나 들면 윤도에서 임壬과 자子의 정확한 중간으로 산의 맥 방향이 측정되면 그것은 좋은 맥으로 본다. 그 이유는 위의 24방위 두 글자 조합에서 앞의 글자는 천간天干으로 양陽에 해당하고, 뒤의 글자는 지지地支로 음陰에 해당한다. 임자 중간으로 정확히 맥의 방향이 측정된다는 것은 그 맥이 양(천간, 남자)과 음(지지, 여자)의 조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마치 인간사로 보면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자식을 낳듯이 그 맥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건강한 맥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침 24방위는 단순히 윤도판의 여러 층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윤도판 전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정침 24방위가 더욱 중요한 것은 올바른 산의 맥 변화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산의 맥 흐름은 원칙 없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30도, 60도처럼 30도의 배수倍數로 움직인다. 이것이 건강하게 살아 있는 산의 맥 조건이다. 예를 들면 임자로 들어오는 맥이 계축 방향으로 바뀌면 30도 움직인 것이 되며, 간인 방향이 되면 60도 변화한 것이 된다. 360도 원에서 24방위 하나는 15도가 되며, 두 개의 조합은 30도가 되기 때문이다.

산의 지형에 맞추어 터를 택하는 우리나라의 풍수이론에서는 이처럼 24방위 외에 굳이 여러 층의 번잡한 이기의 풍수논리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들어와 중국 풍수서와 풍수이론이 유입되어 점차 확산되면서 종래의 한국 토종 풍수이론과 혼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윤도판도 잡다한 천문지식에 입각한 길흉 논리를 적용한 중국 패철처럼 점점 복잡하게 제작되었다.

특징 및 의의 윤도판은 풍수에서 필수 도구이지만 그 외 여러 분야에도 활용되었다. 일찍이 조지프 니덤이 지적하였듯이 15~16세기 유럽의 대항해시대가 가능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중국에서 건너간 나침반 때문이었다. 조선시대에도 풍수를 이유로 들지 않더라도 뱃사람이나 여행자가 방향을 아는 것이 필요할 때는 당연히 윤도를 이용하였다.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를 보면 터잡기 및 긋기 도구로 윤도판이 이용되고 있다. 또한 무속에서는 오른손에 지팡이, 왼손에 윤도판을 들고 있는 지리천문신장地理天文神將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윤도판의 민속 활용도 잘 말해 주고 있다.

특히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부채에 매단 선추扇錘에 24방위를 새겨 넣은 간단한 윤도판을 넣어 가지고 다녔다. 이것은 기본이 방위를 보기 위한 것이었지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24방위만 알아도 형세론에 입각한 풍수 논리의 거의 대부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방위 외에 바늘을 하나 더 달아서 해시계로도 이용하였다. 24방위는 24시간 개념으로도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윤도판은 풍수에서 필수 도구이지만 풍수가 아니더라도 방향을 알기 위하여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이러한 윤도판은 복잡하다고 결코 심오한 이론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국식 윤도판은 한국의 풍수사 흐름에 맞추어 중국식 패철과 구분되는 원형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윤도(천진기, 한국일생의례사전, 국립민속박물관, 2011), 조선 풍수학인의 생애와 논쟁(김두규, 궁리출판사, 2000), 조선후기에 제작된 윤도에 관한 연구(조인철, 한국문화55, 규장각한국학연구소, 2011), 풍수지리학 정립을 위한 과학풍수의 일사례-지기에너지 이동법칙 θ=∠30°× n의 이해(김기덕, 민속학연구17, 국립민속박물관, 2005), 풍수학사전(김두규, 비봉출판사, 2005).

필자 김기덕(金起德)

응접실
應接室

정의 손님을 맞고 접대하기 위하여 마련된 서양식 공간.

개관 '응접실應接室'은 서양의 드로잉룸drawing room, 즉 격식을 갖추어 손님을 맞고 교류하는 주택 내 공적公的 공간에서 유래하였다. 서양식 주거문화인 응접실은 두 경로를 통해 한국에 전파되었다. 이는 구한말의 서양식 선교사 주택에서 응접실이 처음 소개된 직접 유입 경로, 서양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일본주택이 일제강점기 한국에 들어오면서 소개된 간접 유입 경로로 구분된다. 응접실은 한국 주거공간의 현대화 과정에서 과도기에 존재한 공간이었다.

내용 응접실은 한국 전통 주거공간에는 없던 공간으로, 서양식 주택이 이식移植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변형·절충된 형식으로 나타났다. 대구·광주·청주 지역에 지어진 선교사 주택은 한·양 절충식이거나 서양식 주택이다. 선교사 주택에는 서양식 생활 습관을 따라 거실, 식당, 응접실 등이 있었다. 이후 개항과 함께 유입된 일본인 주택 중 서양의 영향을 받은 일日·양洋 절충식 주택, 즉 문화주택에서도 응접실이 나타난다. 1920년대 상류층 응접실 모습은 "더구나 마루를 순전히 응접실로 쓰기로 하고서 깨끗한 「테-불크로스」 덥흔 「틔-테불」과 함께 주위의 의자와 적당한 화병, 책탁자, 보기 조흔 곳에 그림 현판을 갓초아 걸은 것 이러한 것이 보통 집과는 다르다고 할 것 갓틈니다."

라는 묘사에 잘 나타나 있다.

접객을 위한 응접실은 외부인과 교류하는 장소로서 주택에서 가장 공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이러한 특성은 조선시대 양반주택에서 남성의 공간이던 사랑대청 및 사랑방 기능과 유사하다. 즉 응접실은 근대 주거 공간으로의 변화 과정에서 대청과 사랑방이 사라지면서 이를 대체한 공간이다. 서양식 주거문화와의 절충 과정에서 응접실은 남자 주인의 공간으로 유지되었고, 서재를 겸하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 건축가 김유방은 "구미인이 생활실과 식당을 구별하는 대신에 우리는 객실과 생활실을 별別하여 객실은 주인의 서재를 겸하게 하였으면 과히 불편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라고 하였다. 이후 가정의 남성 위주 접객 기능이 약화되고 가족 공용 공간으로서의 거실이 정착할 때까지 응접실이라는 명칭은 거실과 혼용되었다. 공간 기능을 분화하여 사용하기 어려운 규모의 주택인 경우 응접실은 초기부터 가족 공용 공간을 겸한 사례가 많았고, 이것은 차츰 거실로 대체되었다. 상류주택에서는 응접실을 따로 두는 경향이 더 오래 지속되었다. 응접실이라는 명칭은 단독주택에서 거실을 대신하여 1980년대까지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존재하지 않으며, 응접실 공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일제강점기 주택개량론의 주요 내용 가운데 "'접객 본위'의 공간으로부터 '가족 본위'의 공간으로"라는 주장이 많았다. 이는 응접실의 성격이 달라지는 전환점이다. 주부 위주로 꾸려지는 단란한 가정의 모습, 특히 서양식의 근대 신생활 모습을 실현하는 공간으로서 응접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부상하였다. 신여성의 생활을 묘사한 김원주金源珠의 자서전 『어머니의 수기』 중 "응접실에는 세계문학전집이 든 책장이 있었고 축음기와 피아노가 있었다. 소파에 둘러앉아 트럼프 놀이를 할 수 있는 책상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때 왕십리에서는 보기 드문 신식 서양식 응접실이었으리라……."라는 내용에서 응접실의 특징이 나타난다.

응접실은 한국 주거 공간에서 가장 먼저 입식이 도입된 공간이다. 격식을 가장 많이 중시하는 대외 공간으로, 초기에는 사랑대청 및 그것을 개조한 공간에 입식 의자와 테이블 등을 들였다. 서양식 가구는 차가운 마룻바닥의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도 하였다. 따라서 마룻바닥에 난방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카펫 등을 깔기도 하였다.

특징 및 의의 응접실은 규모가 큰 주택에서 볼 수 있다. 이는 가족 공간과 접객 공간을 분리하고 기능을 분화하여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공간 규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응접실의 입식 가구 역시 상류 계층의 상징이었다. 따라서 응접실 문화는 상류계층의 주거문화로부터 시작하여 그 아래 계층으로 전파되고 대중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응접실 | 서울 종로구 경교장 | 국립민속박물관

참고문헌 집-집의 공간과 풍경은 어떻게 달라져 왔을까(전남일, 돌베개, 2016), 한국 주거와 삶(윤정숙 외, 교문사, 2007), 한국 주거의 공간사(전남일, 돌베개, 2009), 한국 주거의 미시사(양세화·전남일·홍형옥, 돌베개, 2009), 한국의 주택 그 유형과 변천사(임창복, 돌베개, 2011).

필자 전남일(田南一)

의걸이장

정의 상하 두 개의 공간이 있어 위에는 옷을 걸어 두는 횃대 달린 높은 공간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신을 넣거나 옷을 접어 넣는 낮게 만든 2층 양식의 장.



의걸이장 | 가로85 높이158 세로43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내용 의걸이는 개화기에 사용되기 시작한 가구 양식이다. 19세기 말부터는 외래 문물, 특히 서구 문물 유입으로 조선 왕실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 가운데 하나가 갑신의제개혁으로, 관리의 복식 간소화와 문관의 예복으로 양복을 착용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의 전통한복은 남녀 공히 평면 재단을 하므로 옷은 접어서 장이나 농 등에 보관하여도 무관하였으나 양복은 입체 재단으로 제작하여 접어 둘수 없어 의걸이장이 생겨나게 되었다. 처음에는 남성 복식 전용 의걸이가 만들어져 아래 공간에는 목화木靴·혜鞋·구두를 넣고 위쪽 공간에는 횃대를 매어 두루마기를 걸쳐 두고, 양복은 옷걸이를 사용하여 횃대에 걸었다.

사랑방에서 사용하는 의걸이장은 대부분 오동나무로 만들고, 문판에 사군자를 각하거나 시문을 각한다. 알갱이인 오동판은 인두로 지지고 짚으로 문질러서 나뭇결이 두드러지게 하고, 밀을 발라 서장書欌과 유사한 양식을 보인다. 의걸이장은 문을 열면 횃대가 걸려 있으며, 머름칸까지 깊이가 있어 문보다 바닥이 깊어 옷자락이 문에 끼이지 않도록 배려하였다. 책장의 경우 두세 개의 선반이 걸려 있으며, 문의 길이가 바닥과 같아 책을 넣고 빼기가 쉽도록 배려하였다는 점이 다르다.

여성용 의걸이는 남성용보다 나중에 제작되어 사용되었다. 여성용은 하단에 의류를 접어 보관하는 반닫이가 부착된 경우가 많으며, 상단의 내면에는 횃대를 설치하고 표면에는 거울을 부착하였다. 특히 상류층에서는 중국산 화류에 자개를 박고 영국제 거울을 단 의걸이장이 유행하였다. 유리 거울은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있으며, 3자 거울이 달린 의걸이장은 1930년대 이후 제작된 것이다.

특징 및 의의 의걸이장은 조선 말기 복식 간소화에 발맞추어 생겨난 가구이다. 과거 신분과 의례에 따른 여러 종류의 옷을 간소화해서 웃옷을 주의(두루마기)로 통일시켜 가짓수를 줄이고 양복을 착용하게 함으로써 한복과 양복을 겸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어진 가구이다. 의걸이장은 양복장이 유행하기 전 잠시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전통가구에서 보이는 짜맞춤 기법이나 남성용의 중후한 문기를 보이는 의걸이는 현대 생활 공간에도 잘 어울리며, 사용하기에도 편리한 가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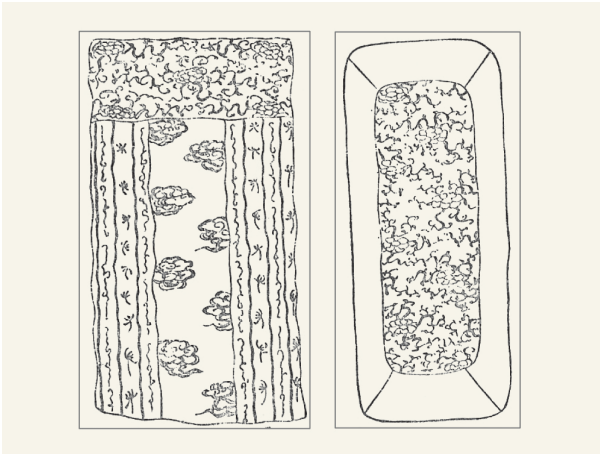
참고문헌 전통목가구(김삼대자, 대원사, 1997).

필자 김삼대자(金三代子)

이부자리

정의 잠자리에 사용하는 이불과 요 등의 침구.

내용 이불과 요를 언제부터 사용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현재 전해지고 있는 침구 유물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은 6세기 초 백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왕과 왕비의 베개이다. 통나무를 베개 모양으로 만들어 겉에 주칠朱漆을 한 후 봉황문과 비천문 금박장식을 해서 만들었다. 문헌기록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이부자리 | 청속기문 | 국립중앙도서관



이부자리(1990년대 재현) | 서울 종로구 운현궁 | 2013 | 한국관광공사·이범수

『고려도경高麗圖經』 권29에 수놓은 베개[繡枕]·침구[寢衣]라는 말이 나오고, 조선시대의 『금침발기衾枕件記』에 이불과 베개에 관한 기록이 보인다. 이불과 요의 형태를 알 수 있는 자료로는 『삼재도회三才圖會』, 『청속기문淸俗紀聞』의 이불·요가 우리나라의 것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유문쇄록諛聞瑣錄』의 목면근본기木綿根本記에 "솜타기·무명짜기[捍彈紡績]의 기구와 얇은 무명짜기와 배색配色·잉아[綜線]법 무늬 내기에 여러 방법이 있음을 가르쳐 옷·이부자리·띠·수건의 감을 짜내었다.……" 라고 있어서 이부자리에 목면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불[衾]은 『발그』를 보면 색상은 녹색 계열인 초록·초록양색·녹홍, 청색 계열인 남·양남·남양색, 자색 계열인 자색·자적·보라, 이외의 색으로 금향색·당색·장색 등 다양한 색상으로 제작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직물은 화사주, 장원주, 수화왜주, 화방주, 삼팔, 생항라, 항라, 갑사, 사, 숙갑사, 저우사, 당사, 은조광사, 초, 왜증, 단직물 등 다양한 견직물과 비단으로 이불을 만든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발굴된 출토 유물을 보면 이불은 삼베, 마포, 무명, 초綃, 궁초宮綃, 운한초雲寒綃, 명주明紬, 주紬, 토주吐紬, 추사縐紗, 화문사花紋紗, 공단貢緞, 문단紋緞 등의 직물을 사용하였다. 그중에서 단緞직물에 무늬를 넣은 문단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써 궁중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화려한 문단으로 침구를 만든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의 복장』에서 무라야마 지준은 일제강점기에 사용한 이불을 두꺼운 이불, 얇은 이불, 솜이불, 겹이불, 홑이불, 가벼운 이불로 구분하고 겉감은 면직물·캘리코·광목·면주綿紬·삼팔주三八紬·산동주山東紬·마미단麻美緞·나사류羅紗類·접영接英·모본단毛本緞 등을 이용하며 안감은 겉과 조화를 이루어 대체로 무명을 이용한다고 한 것을 보면 조선시대와 거의 유사하다. 이불 크기는 길이 175㎝, 폭 210㎝이고, 이불깃 폭은 30㎝, 덧깃(동정) 폭은 20㎝이다. 여기에 넣는 목화솜의 양은 두꺼운 이불의 경우 보통 20근 또는 15근, 가벼운 이불은 7근 또는 4근이 일반적이다. 요는 바닥에 닿는 면은 견·무명 등과 같이 역시 튼튼한 직물을 사용한다. 또 앞은 시트로 감싸기 때문에 흰색 면직물 등으로 만들고, 색상은 바닥에 닿는 면에 이불과 잘 어울리는 색상을 배치하고 남녀에 따라 달라진다. 크기는 길이 175㎝, 폭 90㎝이다. 솜의 분량은 10근 또는 6근이라고 하였다.

이부자리 속에 넣는 재료는 주로 목화솜이었고, 누에고치의 풀솜과 여름에 피는 부들꽃(창포꽃)을 잘 말려서 솜같이 된 것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개가죽이나 오소리가죽 같은 짐승가죽도 이용하였다. 경기도 화성에 거주하는 최재성에 의하면 예전에는 풀솜이라 하여 누에고치의 표면에 붙어 있는 실끄트러기를 떼어내서 모아 솜으로 사용하였으나 풀솜은 고치의 표면에 붙어 있어서 지저분하고 냄새도 많이 났으며, 위생적이지 못했다. 그래서 최재성씨는 고치를 삶아서 표백하여 명주솜을 만들므로 색이 흴 뿐만 아니

라 매우 위생적이라고 하였다. 이불 1채를 만드는데 명주솜이 2㎏정도가 든다고 하였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침구는 예단용 침구로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이부자리는 서양화된 생활방식으로 인하여 전통 방식보다는 실내장식과 어울리는 재료와 색상의 이부자리 사용이 많아졌다. 여름용은 면·인견·리넨·뱀부(대나무) 등, 겨울용은 솜 대신 오리털이나 거위털을 넣은 이불이 생겨났다. 일일이 시쳐서 꿰매는 이불잇 대신 커버를 씌워서 사용하거나 이불솜과 겉감 일체형으로 만든 차렵이불을 많이 사용한다.

특징 및 의의 이불의 색상은 남성용과 여성용을 구분하였다. 남성용 이불의 몸판은 감색과 흑색을 주로 한 차분한 색을 사용하고, 이불깃은 자주색·홍색 또는 흑색 바탕이 들어간 것을 썼으며, 동정은 백색으로 한다. 여자용은 좀 더 화려하고 밝은 색상을 쓴다. 몸판은 초록색을 주로 하고, 이불깃은 적색이나 분홍색 등으로 하며, 동정은 역시 백색을 사용한다.

우리나라 이불에는 깃과 동정이 달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깃·동정이 있는 부분이 목이 닿는 위쪽이다. 이불깃은 20~30㎝ 너비로 이불 몸판과 다른 색으로 하거나 붉은 색 계열을 많이 사용하였다. 동정은 얼굴이 닿는 부분에 백색 천을 덧대므로 자주 세탁하여 교체할 수 있어서 위생적이다.

혼수용 이부자리는 신부 측에서 맡아 여러 채를 준비하였으나 평안도 지역에서는 신랑쪽에서 도맡아 마련하기도 하였으며, 각 가정의 형편과 지방 풍습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혼수용 요는 두 개를 마련하였다. 보통 청색·홍색으로 하거나 색동으로 한다. 요의 겉감은 이불의 깃 색상이나 이불과 어울리는 색상으로 하고, 이불과 요의 안감은 남녀 모두 백색의 고운 면직물을 사용한다. 여름용으로는 모시나 삼베를 안감으로 대기도 한다.

참고문헌 국립중앙박물관명품도록(국립중앙박물관, 삼화출판사, 1972), 삼재도회(테라시마 료우, 왕치·왕쓰이·홍기원 역, 민속원, 2004), 이덕무 청언소품-한서 이불과 논어 병풍(정민, 열림원, 2000), 조선시대 침구에 관한 연구(박지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조선의 복장(무라야마 지준, 민속원, 2017), 조선조 궁중풍속연구(김용숙, 일지사, 1996), 조선향토대백과(평화문화연구소, 2008), 청속기문(孫伯醇·村松一彌, 평범사, 1966), 현지조사자료(최재성, 경기 화성, 200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최은수(崔銀水)

이사
移徙

정의 사는 곳을 다른 데로 옮기는 행위.

내용 이사移徙는 한 가정이 새로운 영역에 정착해서 생활하는 것이기에 일상에서 의미가 중요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이사 풍속이 생겼다. 우선 이사 가는 날을 선정할 때 '손' 없는 방위와 일진을 보아 길일吉日을 택하였다. '손'은 날수에 따라 사방위를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는 귀신을 가리킨다. 통상 손 없는 날은 일자에 0과 9가 드는 날이다. 한편 이사를 갈 때 기존 집에 있는 못 쓰는 물건이나 쓰레기는 청소를 하지 않고 그냥 두고 온다. 오랫동안 같이 생활한 물건이기에 이것을 쓸어내면 보이지 않던 복도 버리는 결과가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사 시간은 해가 떠오르는 아침이 좋다. 밝게 비치는 서광을 받아 가운이 번창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실제로 아침에 이사를 해야 새집에 물건을 정리하는 데 여유가 있다. 이사할 때는 집안이 번성하고 만복이 가득 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집안으로 들어간다. 새집을 들어갈 때 덕망 있는 어른이 먼저 들어간다. 이것은 집 안에 깃들어 있는 가신家神에 대한 예의를 차리는 행위로 여기지만 아이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다. 집 안으로 들어갈 때는 사람마다 돈이나 곡식, 베 등을 들고 간다. 이것은 이사를 온 후 앞으로 많은 재물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낸다. 농가에서는 대개 이렇게 하면 풍년이 든다고 믿었다.

집 안으로 가장 먼저 들이는 살림살이는 화로이다. 화로는 불씨를 보관하는 그릇이다. 화로의 불이 꺼지는 것은 가문의 멸망을 의미한다. 화로의 불처럼 집안이 융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화로를 가장 먼저 들인다. 그 이후 연탄불, 가스레인지를 이사 갈 집

에 먼저 설치하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그리고 솥 안에 요강을 넣어 가지고 간다. 이는 가족이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낸다. 솥은 밥 짓는 기구이고 요강은 배설물을 담는 그릇이듯이 잘 먹고 배설을 잘하는 것은 건강을 의미한다. 이밖에 대문 앞에 소금을 뿌려 집의 부정을 가시기도 한다.

이삿짐 장롱에는 붉은 팥떡을 넣고, 밑에는 붉은색으로 '왕王'자를 써서 간다. 붉은색을 사용한 것은 잡귀가 따라오지 못하게 함이다. 떡은 풍요, '왕'자는 호랑이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사한 집 안방에는 홍두깨를 가져다 놓는다. 커다란 홍두깨를 보고 악귀가 겁을 먹고 도망갈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행위이다.

이사 갈 때 가져가서는 안 되는 것이 찬밥, 식초, 비 등이다. 찬밥은 가난을 상징해서 이사 간 후 가난하게 살 것을 우려한 것이고, 식초는 그 맛이 쉬듯이 집안이 망할 징조로 여겼다. 비는 물건을 쓸어내는 도구로 새로 이사한 집의 복을 쓸어낼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사 후 집 안으로 들이는 것으로는 맷돌과 소가 있다. 맷돌은 곡식을 가루 내는 도구로서 곡식을 파괴하여 가난하게 살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새집에서 어느 정도 생활한 후 가져오고, 뿔이 달린 소는 집 안의 가신이 놀라 도망갈 것이라 여겨 후에 데려온다.

이사한 뒤에는 팥죽을 집 안의 여러 곳에 뿌려 잡귀의 근접을 막는다. 또한 집 안의 으뜸신인 성주에게 고사를 지내 새 식구가 자리 잡았음을 고한다. 그리고 잠자리에서는 평상시와 달리 머리를 부엌 쪽으로 향해서 잔다. 그러면 가신이 어리숙한 사람이 이사를 왔다고 여겨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집들이 때는 성냥이나 양초, 비누, 세제 등 생활용품을 선물하는데, 불이나 거품처럼 집안이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대한大寒 후 5일에서 입춘立春 전 3일 사이에 주로 이사를 한다. 이 기간을 '신구간'이라고 한다. 이때 집 안의 신들이 천상으로 올라가 비어 있어 이 기간에는 이사나 집수리를 비롯한 평소에 금기시된 일을 해도 아무런 탈이 없다고 한다.

특징 및 의의 개인의 생업이나 전근, 자녀교육, 분가, 재개발 등으로 이사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이삿짐센터'라는 새로운 직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이사짐센터가 이삿짐의 운반은 물론 정리까지 담당하면서 전통적인 이사 풍속은 자취를 감추었다. 다만 '손 없는 날' 이사를 선호하고 집들이 선물을 챙기는 것은 여전히 지켜지고 있다.

참고문헌 문과 상징(정연학, 시월, 2009), 이사(배도식,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5), 한국민속대관 I(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0), 한국민속문화론(임동권, 집문당, 1983), 한국의 이사 풍속(배도식, 한국민속학18, 한국민속학회, 1985).

필자 정연학(鄭然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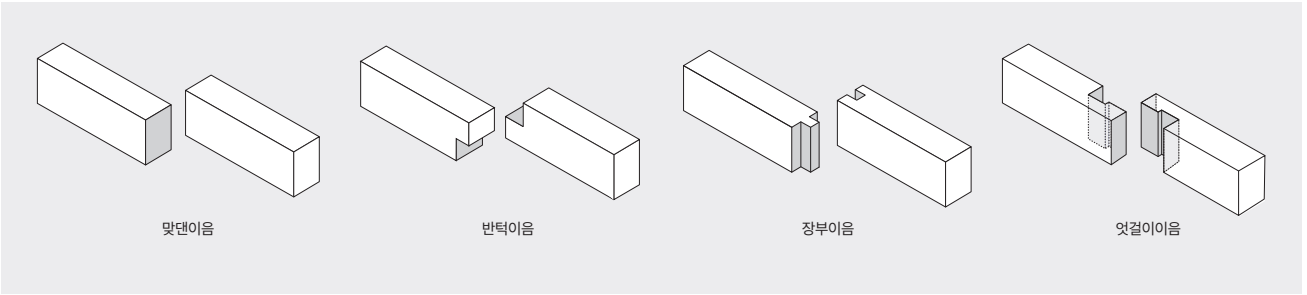


이사 | 국립민속박물관

이음

정의 목부재 간 결합 방법 중 하나로, 크고 작은 두 개 이상의 단일 부재가 같은 길이 방향으로 짜 맞추는 결구 방법.

개관 목조건축물은 하나의 단일 부재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다양한 목부재가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결구체계를 이룬다. 따라서 목조건축물의 결구는 부재 간 결합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부재 간 결합 방법에는 장인들의 조영원리가 담겨 있다. 그리고 목조건축물은 나무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재료의 조합



이음 | 정연상

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재료에는 특성과 물성, 구조에는 다양한 하중 응력에 대한 장인의 이해가 담겨 있다. 결구는 크고 작은 목부재를 결합하여 만든 목부재의 짜임새로, 목조건축물의 조영원리를 담고 있다.

목조건축물의 결구는 목부재 간 다양한 맞춤과 이음을 통하여 만들어지는데 건축물에 따라 목부재의 역할과 위치에 차이가 있다. 구조의 기본인 목부재 간 맞춤과 이음에 관한 연구는 목조건축물 구조와 결구 및 시공 기술에 대한 이해의 시작이 된다. 현존하는 많은 목조건축물은 목재의 재료적 특성 때문에 크고 작은 목재를 맞춤과 이음으로 짜였다. 특히 목조건축물은 세월이 지나면서 목재의 수축과 이완 등으로 목재에 변형이 생겨 맞춤과 이음 부분의 구조적 문제점이 발생한다.

내용 우리나라 전통 목조건물은 크고 작은 수평·수직재 그리고 사장재가 맞춤과 이음으로 짜여 있다. 이들 목부재 간 맞춤과 이음은 결합 형태, 위치, 목부재의 수평과 수직, 목부재의 목리 방향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이음은 목부재 간 결합 방법 중 하나로, 크고 작은 두 개 이상의 단일 부재가 같은 길이 방향으로 짜 맞추는 방법 또는 그 자리를 말한다. 이음을 한 목부재는 같은 목리 방향의 횡단면, 맞춤은 횡단면과 종단면이 서로 면한다. 그리고 쪽매는 양종단면이 평행으로 면한다. 수평 구조재 간 이음은 기둥 상부 중심에서 짜 맞춤을 하므로 이음부에 압축력과 인장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수직 구조재의 이음부는 압축력을 받는다. 수평 구조재의 이음은 기본적으로 맞댄이음, 반턱이음, 장부이음, 주먹장이음, 엇걸이이음 등이 있다. 이 외에 이들 이음에 보강재를 사용하여 부재 간 결속력을 높인 이음도 있다.

맞댄이음은 같은 길이 방향의 두 부재 마구리를 맞댄 것이다. 맞댄 이음새가 직각이 아닌 빗각인 경우는 빗댄이음이라 한다. 맞댄이음은 두 부재를 맞댄 상태로 마무리한 예도 있지만 두 부재 간 결속력을 높이기 위하여 나비장이나 철물과 같은 보강재를 사용한 경우도 있다.

반턱이음은 같은 길이 방향의 두 부재가 턱을 두고 서로 맞댄 형태이다. 하나는 받을장, 다른 하나는 엎을장이 된다. 반턱이음은 인장력에 약한 이음이지만 엎을장 부재의 이음부에 압축 하중을 가하여 부재 간 마찰력으로 결속력을 유지한다. 따라서 맞댄이음과 빗댄이음과 반턱이음은 구조적 안정을 위해서 상부의 압축하중과 횡방향의 횡하중 간 힘의 균형이 필요하며, 횡방향의 인장력이 강할 경우 이음부의 결속력이 떨어진다.

장부이음은 목부재의 제 몸에 장부와 장부 홈을 만들어 이음을 한 것으로, 장부 끝과 장부 목의 폭이 같다. 주먹장이음은 장부 끝의 폭이 장부 목의 폭보다 넓다. 장부와 주먹장이음은 우리나라 목조건축물에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장부이음보다 주먹장이음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장부이음은 앞의 두 예와 같이 횡방향의 인장력에 대하여 결속력이 약하다. 해서 인장력을 보강하기 위해 산지 또는 철물을 이용하여 결속력을 높인다.

주먹장이음은 보강재를 사용하지 않아도 인장력에 대하여 부재 간 결속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음부에 압축력이 가해질 때 결속력이 높아진다. 단 주먹장부 크기가 작을 경우 부재의 수축과 터짐에 의한

치수 변화로 이음부에 틈이 생겨 결속력이 떨어진다. 그러나 주먹장이음은 우리나라 목조건축물의 목부재 간 이음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음이다. 이 외에 구조재 간 통장부이음도 있다. 통장부이음은 작은 부재를 큰 부재에 끼워 넣어 상부 하중을 이용하여 구조적 안정을 취하는 방식이다. 긴 대량재가 필요할 때 길이가 짧은 단일 부재를 대량재 마구리에 이음을 하는 것이다.

기본적 이음 외에 변형된 이음방식이 있다. 그 한 예가 엇걸이이음이다. 이 이음은 부재의 접촉면을 서로 엇거는 방식으로 이음부에 인장력이 작용할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음방식이다. 그러나 목부재 접촉면에 강한 인장력이 발생하거나 이음부의 목리 방향으로 터짐이 발생할 경우 이음부의 결속력이 약해진다. 이와 같은 엇걸이이음을 더 정교하게 가공하여 조립한 이음이 엇걸이산지이음이다.

산지를 이용한 엇걸이산지이음은 수평 부재끼리 면한 부분을 턱지게 치목을 하고, 수평 부재의 마구리에 산지 단면 크기와 같은 길이의 짧은 장부를 만들어 조립한다. 이 이음방식은 수평 부재끼리 면한 부분에 산지를 박을 수 있는 장부 턱을 만들고 장부 홈에 산지를 박아 부재 간 결속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엇걸이산지이음은 수평의 구조재 외에 마루 귀틀과 같은 수장재, 더 나아가 수직 구조재인 기둥을 이어야 할 때 사용한다. 산지를 이용하는 방식은 엇걸이산지이음뿐만 아니라 서로 수평 부재를 엇댄 후 두 부재에 산지구멍을 내어 이음을 하는 방법도 있다.

수직 부재 간 이음은 대부분 기둥에서 그 사례를 찾을 수 있다. 기둥과 기둥의 결구 방법은 크게 별도의 보조재를 이용하여 이음을 하는 경우와 기둥 자체를 이용하여 이음을 하는 경우로 나뉜다. 이 외에 기둥 자체를 이용하면서 별도의 부재를 가하여 구조적 안정을 취한 예도 있다. 별도의 부재는 목재에서부터 철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목재로 만든 별도 보조재는 나비장과 산지, 촉, 쐐기가 가장 일반적이다.

상하 기둥의 나미장이음은 상하 기둥 사이에 촉을 박아 일차적으로 구조적 안정을 취하고, 다시 나비장을 끼워 이음을 견고하게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외부 충격에 약해져 나비장이음방식의 결구 방법은 부재 간 결속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기둥의 주먹장부이음방식은 나비장이음과 촉이음과 같이 별도 부재를 사용하지 않고 기둥 자체에 장부와 장부 홈을 만들어 이음을 한 결구 방법 중 하나이다. 수직 부재의 주먹장부이음방식은 전통목조건축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음방식 중 하나이다. 나비장이음방식과 촉이음방식보다 구조적으로 견고하다. 쌍주먹장부이음방식의 결구 방법은 주먹장부이음방식과 여러 면에서 유사하지만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주먹장부를 만들어 두 부재를 결합하는 방식이다. 쌍주먹장부이음방식은 주먹장부이음방식보다 이음 부분의 뒤틀어짐을 잡아주는 데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서 정교한 가공 기술이 필요하다. 쌍주먹장부이음방식은 흔한 방식이 아니지만 주로 살림집 규모의 건물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엇걸이산지이음방식은 평부재뿐만 아니라 수직 부재 간 이음에도 사용한다. 살림집보다 규모가 큰 건물 또는 기둥 크기가 큰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엇걸이산지이음을 한 김제 귀신사 대적광전의 기둥을 보면 살림집과 달리 직경이 큰 기둥을 사용하기 때문에 치목을 하여 조립을 할 때 많은 공력이 든다. 귀신사 대적광전의 엇걸이산지이음방식은 상하 기둥이 서로 면한 곳에 45㎜ 정도 깊이의 턱을 만들고, 마구리는 T자형 장부와 장부 홈을 만들어 짜 맞춤을 한다. 조립할 때 먼저 턱물림을 한 후 마구리의 짧은 T자형 장부를 결합하고, 이음의 중심에 사각형의 산지를 박아 부재 간 결속력을 높인다. 산지는 엇건 기둥의 장부를 위아래로 밀어내어 부재 간 결속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 외에도 수직 부재 간 이음으로 산지를 이용한 장부이음, 엇댄산지이음 등이 있다.

특징 및 의의 목조건축물은 하나의 단일 부재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다양한 목부재가 서로 결합하여 이루어진 하나의 결구체계이기 때문에 부재 간 결합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당시 집을 계획하고 지은 장인들의 조영원리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특히 부재 간 맞춤과 이음 방식은 재료적 특성과 장인 구조

해석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중요하다.

참고문헌 맞춤과 이음(정연상, 고려출판사, 2010),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김왕직, 동녘, 2007), 한국건축대계5-목조(장기인, 보성문화사, 1988).

필자 정연상(鄭淵相)

익공
翼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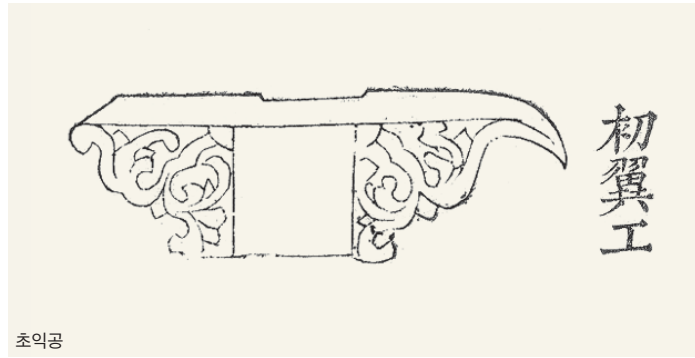
정의 살미에 익공만을 사용해서 간략하게 꾸민 공포의 한 유형 또는 쇠서가 뾰족해지면서 위에서 아래로 완만하게 굽은 공포 부재의 명칭.

내용 익공翼工은 특별한 형태로 가공한 공포 부재를 말한다. 공포 부재들 중에서 보 방향, 즉 벽체와 직각으로 설치하는 부재를 통칭해서 살미[栍尾, 山彌]라고 한다. 살미는 끝 부분에 쇠서[牛舌](소 혀)를 조각하여 장식 효과를 본다. 여러 살미 가운데 쇠서가 아래에서 위로 솟은 부재를 '제공齊工', 위에서 아래로 굽은 부재를 '익공', 익공 상부에 놓여 도리를 받치는 부재를 '운공雲工'이라 한다. 보 방향으로 사용한 공포 부재들은 모두 끝에 '공工'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였다. 운공은 구름 모양을 닮았다는 의미가 있지만 불교건축에서는 봉황 머리 모양으로 조각하는 경우가 많다. 『창덕궁수리도감의궤昌德宮修理都監儀軌』를 비롯한 17세기 의궤에는 '엽공葉工', '입공立工' 등 여러 명칭으로 등장한다. 18세기 중반부터는 '익공翼工'이라는 명칭으로 통일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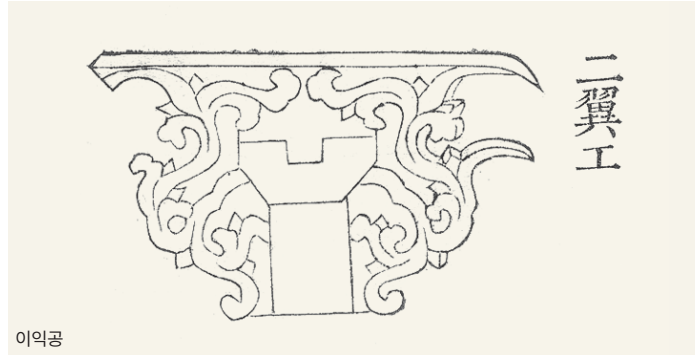
다포건축의 익공은 몇 단의 제공, 화려한 운공과 함께 조립해서 외관이 매우 화려하다. 반면 제공이나 운공 없이 오직 익공만으로 공포를 구성한 것을 익공건축 또는 익공식이라 부른다. 익공건축과 다포건축은 출목 구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익공건축은 평주 바깥에 외목도리[外木道里]를 설치하지 않으며, 외부로 출목을 형성하지 않는다. 동양건축에서 공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처마의 외부 확장 기능이 없다. 단지 건물의 높이를 높이는 기능과 장식만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익공건축이다. 과도하게 화려하지 않으면서 위계를 줄 수 있는 공포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익공건축은 고려시대 주심포건축 공포에서 사용한 헛첨차를 변형한 것이다. 헛첨차는 여러 살미 중에서 최하단의 살미를 기둥머리, 즉 주두 밑에 설치한 것을 말한다. 현전하는 고려시대 주심포건축도 헛첨차를 사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양분된다. 중국이나 다른 나라 건축에서 헛첨차와 유사한 부재는 찾아보기 어렵다. 고려시대 주심포건축의 독특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를 계승한 익공건축 역시 조선 건축의 독특한 모습이다. 한 개의 익공으로 공포를 구성한 경우 초익공初翼工건축, 두 개의 익공을 겹쳐 공포를 구성한 경우 이익공二翼工건축이라 한다. 물론 초익공건축에 비해 이익공건축의 위계가 훨씬 높다. 궁궐의 경우 중요 전각의 공포를 이익공으로 구성한 경우 부속 행각은 초익공을 설치하는 등 위계에 차이를 두었다.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익공건축은 충청남도 아산에 위치한 맹씨행단孟氏杏亶이다. 조선 초기 명재상인 맹사성孟思誠(1360~1438)의 주택으로 알려져 있다. 초익공으로 공포를 구성하면서 기둥머리에 첨차를



초익공



이익공

익공 | 화성성역의궤 | 1801 | 국립중앙박물관


초익공 | 충남 아산 맹씨 행단 | 2011


삼익공 | 강원 강릉 칠사당 | 1996

익공 | 이연노

꽃은 특징이 있다. 이 외에도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익공건축으로 합천 해인사海印寺 장경판전藏經板殿을 비롯하여 춘천 청평사淸平寺 회전문回轉門, 강릉 해운정海雲亭, 경주 독락당獨樂堂 등이 있다. 이들 건축은 모두 공포에 하나의 익공만을 사용한 초익공이다. 매우 독특한 것으로는 강릉 오죽헌烏竹軒이 있다. 오죽헌의 공포는 익공을 겹쳐서 설치한 이익공건축이다. 간혹 주택건축에 익공을 사용한 경우가 있지만 오죽헌과 같이 이익공을 사용한 건물은 찾아볼 수 없다.

궁궐, 산릉의 정자각과 같은 왕실 건축물은 조선 초기의 익공 형태를 계속 유지하지만 그 외 다른 건축물에서는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익공의 쇠서 형태가 변하기 시작하였다. 구조는 익공식이지만 조각만은 화려한 조선 후기 다포건축 형태를 닮아 갔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익공건축이다. 주두 아래 놓이는 헛첨차의 쇠서 형태가 익공이 아닌 제공 모습으로 변화되어 갔다. 제공에는 화려하게 핀 꽃 모양이 조각되었고, 최상단의 보머리 끝에는 봉황의 머리를 조각해 꽂아 넣었다. 출목만 형성하지 않았지 조선 후기 다포건축의 외관과 유사하게 만들어졌다. 이런 현상은 사찰건축뿐만 아니라 지방 관아건축에서도 널리 유행하였다. 익공을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조각하여 끼워 넣기도 하였고 익공을 2단이 아닌 3단으로 설치한 경우도 있었다. 그렇다고 이런 유형의 건축물이 다포건축이 될 수 없으며, 삼익공건축이라고 논의하는 것 역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된 익공건축의 모습이다.

특징 및 의의 익공건축이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고려 말기 또는 조선 초기에 새로 만들어진 건축 형식이 아닐까 짐작된다. 조선시대 건축은 규모에서 소박함을 추구하였고, 외관에서 철저히 화려함을 배제하였다. 조정에서 건축물의 웅장함과 화려함 모두 백성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건축물들 사이에 위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었다. 최소한의 공포 부재만을 사용한 익공이 여기에 가장 적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시대에 가장 널리 사용한 공포 형식은 익공이었다. 다포건축은 극히 제한된 건축물에 한정되었다. 궁궐건축의 대부분이 익공식이었고, 관아건축과 사묘건축 대부분이 익공식으로 만들어졌다.

참고문헌 고려말 조선초 다포건축 공포의 결구 특성에 관한 연구(이연노·주남철,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19-8, 대한건축학회, 2003), 고려말 조선초 주심포건축 공포의 결구특성에 관한 연구(이연노,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건축역사학회, 2018),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김왕직, 동녘, 2007), 익공에 관한 고찰(주남철, 대한건축학회논문집8-10, 대한건축학회, 1992), 지혜로 지은 집 한국건축(김도경, 현암사, 2011).

필자 이연노(李演魯)

—자집

정의 평면과 지붕이 一자 모양의 집.

내용 전통 민가의 평면 유형은 홑집과 겹집으로 대별된다. 홑집은 실들이 한 줄로 배치되는 형태이며, 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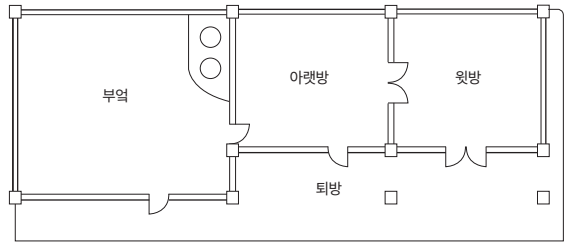
집은 실의 일부 또는 전부가 두 줄로 구성된다. 일(一)자집은 크게는 겹집(양통집)까지 포함하지만 보통은 홑집(외통집)으로서 일자집을 말한다.

일자집은 일부 산간지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다. 특히 기온이 온화하고 농경이 발달한 한반도 남서부지역에서 일찍부터 나타났다. 일자집의 평면 구성은 한쪽 끝에 부엌을 두고 그 옆으로 방과 실이 이어지면서 2칸집, 3칸집, 4칸집, 5칸집으로 늘어난다.

2칸집은 부엌과 구들로 이루어졌다. 선사시대 단실 주거에서 기능이 분화되고 바닥 전체에 구들이 설치되며 나타나는 원초적인 형태이다.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려운 소작민들이 살던 작은 오막살이집에서 볼 수 있다. 최소한의 주생활을 위해서는 3칸집이 기본이다. 서민 주거의 대표 유형인 '초가삼간'도 부엌 한 칸에 방 두 칸의 초가집을 말한다. 일자형 지붕 아래 부엌과 방 두 칸이 나란히 배치된다. 방 전면은 흙바닥을 이용하여 토방을 삼거나 안방 앞에 들마루를 놓기도 한다. 경제적 능력이 되면 앞 퇴를 구성하여 고정식 툇마루를 깐다.

4칸집 이상으로 규모가 확대되면 가운데 마루를 시설한 집이 나타난다. 대청마루가 있는 집은 경제적으로 좀 나은 자영농 이상의 집이다. 서남해 도서연안 지역에서는 3칸집에도 방 대신 1칸의 마루를 만들기도 한다. 마루는 이 지방에서 '마리' 또는 '말래' 등으로 불린다. 이곳에 신주도 모시고, 곡물들을 독에 담아 수장하기도 한다. 또한 4칸집이나 5칸집에서도 마루를 머리칸에 두기도 하고, 부엌 아래칸에 광 또는 구들을 두어 부엌이 가운데 오는 집도 있다. 이처럼 일자집의 평면 구성은 다양하다.

일자집의 가구 구조는 맞걸이 3량집과 전퇴집이 많다. 홑집은 구조적으로 퇴를 달아내어 공간을 확대하기 쉬운 구조이다. 툇마루는 마당과 방을 이어 주는 공간으로, 한옥 특징 공간이다. 조선 후기가 되면 전퇴, 후퇴 또는 좌우 측면에도 툇간을 두어 내부 공간을 확대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일자집은 보 방향의 공간이 확대되면서 앞뒤 두 줄로 실을 나눠 방을 배치하거나 방 뒤쪽에 도장과 마루방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一자집 평면도 | 한옥의 공간문화 | 한옥공간연구회·교문사



一자집 | 전남 순천 낙안읍성 | 국립민속박물관

일자집은 살림채 한 채로만 구성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개 헛간채나 행랑채 또는 사랑채 등을 두는 경우가 많다. 안채와 부속채의 수에 따라 쌍채집, 세채집, 네채집 등으로 구분된다. 부속채는 본채를 중심으로 안마당을 둘러싸며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징 및 의의 일자집은 우리나라 전역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농촌 민가의 기본형으로, 소작농에서 부농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의 주거에서 나타난다. 경제 여건에 따라 규모가 다르며, 자연 환경과 생활에 따른 지역 차이도 보여 준다.

참고문헌 한국의 민가(김홍식, 한길사, 1992), 한국의 민가(조성기, 한울아카데미, 2006), 한옥과 한국주택의 역사(권용찬·전봉희, 동녘, 201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홍승재(洪升在)

임대주택
賃貸住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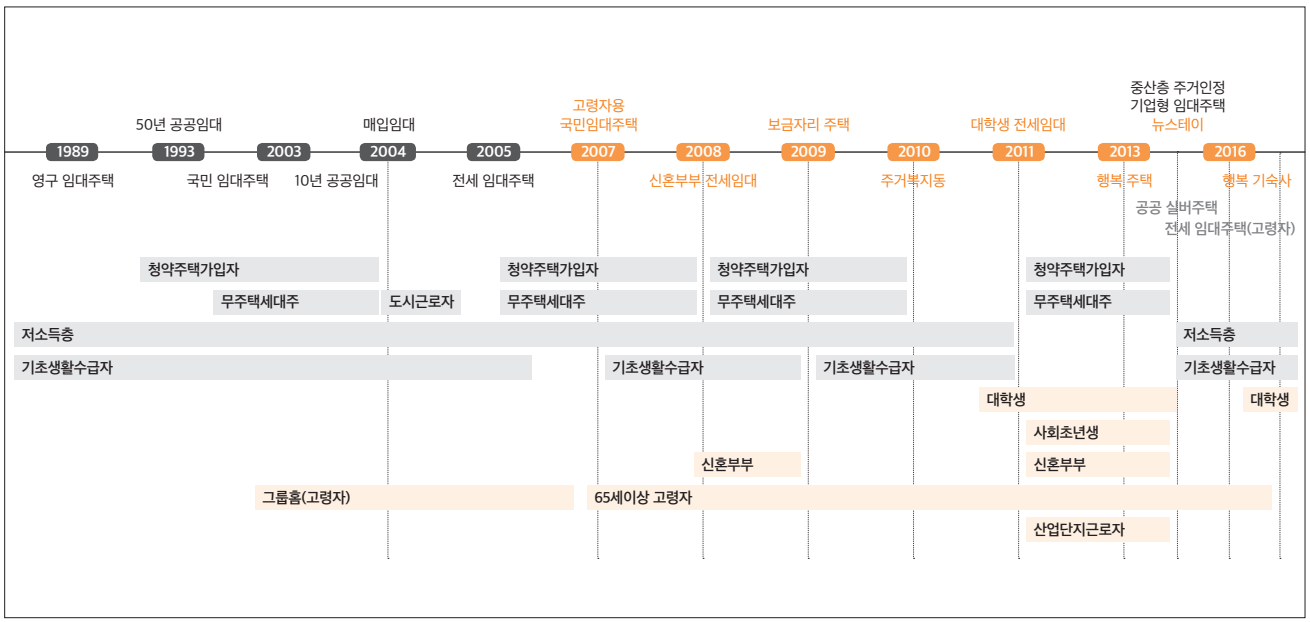
정의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공공기관 또는 민간 사업자가 건축하여 일정한 임대료를 받고 거주자에게 빌려 주는 주택.

개관 우리나라 최초의 임대주택賃貸住宅은 1962년 대한주택공사에 의하여 건설·공급된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소형 아파트였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72년에는 정부가 미분양된 구로구 개봉동 주공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전환하여 250가구를 공급하였다. 그러나 임대주택 육성을 위한 제도 장치는 1980년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1981년 3월 5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시작으로 임대주택건설 촉진을 위하여 1984년 12월 31일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하였으나 1993년 <임대주택법>으로 개편되었다가 2015년 공급주체별로 구분하여 <공공임대주택법>과 <민간임대주택특별법>으로 이원화하여 발전하였다.

내용 우리나라 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에게 주거를 다량으로 공급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주택법상 '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이다. 서유럽에서는 사회주택, 공영주택이라고 한다. 한국에서 공공임대주택은 1989년 노태우 정부에서 서구의 사회주택 개념을 최초로 도입하고 영구임대주택 19만호를 공급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한국의 사회주택정책 출발을 알렸다. 그러나 그 이후 복지 지향형 주택정책보다는 신보수주의 경제 운영으로 말미암아 임대 기간이 정해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고, 영구임대주택은 점차 감소하였다. 최근에는 취업난에 따른 청년 경제 위기와 저출산으로 인해 심화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요자 맞춤형

구분	공공임대주택	사회주택	준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공급주체	국가, 지자체, 및 공사	사회경제 주체, 국가, 지자체, 공사	민간기업	주택소유자
공급대상	사회취약계층 및 청년층, 신혼부부, 고령자	사회 취약 계층 및 청년층, 신혼부부	임대사업자가 결정	임대사업자가 결정
금융지원	국가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조합비 및 대출	자기자본 및 주택도시기금, 대출	자기자본 및 대출

임대주택의 개념 및 종류 | 신유진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시대적 흐름과 수혜대상 | 정소이 외

과 사회통합형 임대주택 공급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종류가 다양하다. 종류에 따라 주택 규모, 입주 대상 계층, 임대 기간 정부의 재정 지원, 임대료 수준 등이 다르다.

특징 및 의의 임대주택은 구매력이 취약한 저소득자, 국가유공자, 사회취약자,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고령자, 신혼부부 등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국가 등의 지원으로 시장가격보다 10~70%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 기간은 6~50년이며, 사회보조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과거 정부의 임대주택정책은 주로 저소득층 대상으로 공급하는 것이었으나 개편된 법에서는 중산층의 임대 수요도 고려하여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였다. 또한 조세, 금융, 택지 등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하여 민간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공공임대주택은 도시 외곽에 저소득층의 집중 거주를 유발하였다. 공공임대주택단지가 주거 분리에 따른 공간 양극화를 야기하여 임대주택 주민들에 대한 사회 배제가 사회 문제화되기도 하였다. 정부는 사회 혼합을 실현하는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사회복지와 주택정책을 접목시켜 커뮤니티 증진과 공급 방식 다변화, 시민단체 참여 등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참고문헌 국내외 공공임대주택의 사회통합 계획특성 연구(신유진 외,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26-5,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17), 넓게 보는 주거학(주거학연구회, 교문사, 2018), 생애주기별 주거수요 대응형 공공주택 공급방향 연구(정소이 외, 토지주택연구원, 201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김선중(金仙中)

입식
立式

정의 의자·탁자와 침대 등의 가구를 사용하는 생활 방식으로,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좌식과 대비되는 용어.

내용 삼국시대 고구려 상류계층은 입식立式 생활을 하였다. 그것은 벽화에 나타난 당시 생활 모습, 특히 안악3호분에 주인 부부가 평상 위에서 정좌하고 있는 고분벽화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이 평상의 모습은 쌍영총, 무용총, 감신총, 매산리 사신총에도 나타난다. 평상은 중국 상류층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던 가구였다. 그러므로 고구려 귀족들이 중국에서 들여와 즐겨 사용한 가구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전보다 다리 길이가 더 긴 평상이 5세기 초에 축조된 약수리 벽화고분에서 나타나 입식 생활의 진전으로 보이지만 명확하지는 않다. 평상 이외에도 각저총과 무용총 벽화에는 의자와 탁자가 그려져 있다. 무용총에는 무인 귀족으로 보이는 주인과 손님의 대면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다. 이들은 모두 의자에 앉아 대화를 하고 있고 음식이나 기물들이 다리가 긴 탁자 위에 놓여 있어 입식 생활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생활 묘사의 정황과 벽화 축조 연대로 미루어 볼 때 고구려 귀족들은 6세기 전반에 일부의 가구 중심으로 입식 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식 생활은 당시 가구 형태가 현대와 같이 완전하지 않아 계층이나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온돌 기술 및 발달과 더불어 가옥의 공간 구조도 점차 온돌 중심의 방으로 확대되면서 조선시대에는 한반도 고유의 좌식 생활 방식으로 정착되었다.

19세기 후반 서양 세계에 문호가 개방되고 일제강점기에 많은 외래 문화가 도입되었다. 특히 항구도시를 중심으로 서양주택이 건립되고 입식 생활이 소개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선진 문물을 일찍 수용한 사람 중심으로 가구를 배치하고 입식 생활을 하는 삶의 방식이 도입되었다. 입식 생활은 경제가 부흥되는 1970년대에 본격 확산되었고, 아파트를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하였다. 처음에는 책상과 의자가 사용되다가 점차 공간 크기나 가족 특성에 따라 거실 소파, 식탁, 침대가 실내공간에 배치되었다. 방의 크기가 적합하지 않은 중소도시나 농촌 주택에서는 입식과 좌식이 부분 혼용되었다.

입식 생활로의 변화는 부엌과 관련이 깊었다. 아



테이블과 의자 | 서울 종로구 창덕궁 희정당 | 국립고궁박물관

파트의 부엌은 처음부터 실내 입식화가 된 것은 아니었다. 물론 상류층을 겨냥한 중앙난방식 고급 아파트들은 실내 입식화로 시작하였지만 소형 평형의 일반 서민 아파트들은 연탄아궁이 난방 구조에 석유곤로를 사용하였다. 가스레인지가 도입된 1970년 전후를 중심으로 부엌에 입식 작업대가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지방 아파트는 1980년대 초에 건립된 주택공사 13평형 아파트가 방 2개, 거실 1개, 화장실 1개 규모였다. 부엌은 거실 뒤편에 분리되었다. 그러므로 완전한 입식 생활로 정착된 것은 아니었다. 물론 중산층 이상의 아파트는 중앙난방식 시스템으로 부엌의 실내 입식이 이루어졌다. 나중에 집약식 연탄보일러가 개발되면서 아파트의 연탄아궁이는 사라졌고, 다용도실에 연탄보일러와 연탄광이 마련되면서 난방 관리가 훨씬 수월해졌다. 그러므로 1985년도 통계에 우리나라 전체 보일러 사용 가운데 연탄보일러가 85%로 압도하는 등 부엌의 실내 입식화가 본격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연탄보일러는 가스보일러로 대체되어 연탄을 저장하는 수납공간이던 다용도실은 부엌과 가사노동의 보조 역할 공간으로 탈바꿈, 쾌적한 실내공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난방 방식의 설비 효율화로 부엌과 식사 공간이 집약된 실내 입식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 단독주택은 보수 형태의 좌식 공간 구조를 유지하다 보니 난방 관리의 불편함과 겨울철 추위 등으로 점점 아파트를 선호하게 되었다. 아파트의 평면설계 발달은 입식생활을 수반하는 공간 구조를 제공하였다. 아파트가 신축된다는 것은 그 수만큼 이주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하여 입식 생활은 점차 한국인의 기본 생활양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는 아파트의 모든 공간이 다 입식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가족생활 특성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겠지만 부엌 설비의 입식 제공을 근거로 볼 때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다.

오늘날 한국인이 실내공간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좌식 생활 방식을 완전히 탈피한 것은 아니다. 실내의 청결을 중시하는 좌식 생활을 전제로 하되 필요 공간에 따라 입식가구를 들이고 생활하는 겸용 방식이 대부분이다. 즉 좌식과 입식의 장점을 다 활용하면서 효용을 최대화해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인의 실내생활 모습이다.

특징 및 의의 입식은 신체의 자세를 바르게 하고 생활을

기능화해서 영위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가구 배치가 공간 성격을 규정하며, 기능성과 함께 쾌적한 삶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생활 방식이다.

참고문헌 부엌의 현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선택들(함한희, 정신문화연구25-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집과 가족의 문화와 역사(박선희 외,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 결과보고서, 한국학중앙연구원, 2002).

필자 박선희(朴善姬)

입주
立柱

정의 건물의 건축 과정에서 기둥을 세우는 작업.

개관 건물의 뼈대를 수직 부재인 기둥과 수평 부재인 보와 도리로 짜 맞추어 만드는 기술은 이미 선사시대에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기둥은 지붕으로부터 내려오는 하중을 주춧돌을 통하여 지반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정확하게 수직의 기둥을 세우는 일은 구조체의 안정성을 가름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나의 기둥이라도 수직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건물이 기울거나 무너지는 사례가 많았다. 한옥을 건축할 때 입주立柱는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우는 과정이다. 여기에는 튼튼하고 안정된 뼈대를 만들기 위한 기술의 전승과 함께 이를 기원하는 제의가 포함되어 있다.

내용 한옥 건축 과정에서 기둥을 세우는 작업을 입주立柱라 일컫는다. 입주는 일관日官이나 지관地官으로부터 선택받은 날에 시행될 정도로 중요한 과정이다. 기둥은 주춧돌 위에 세워지며, 주춧돌과 긴밀한 결합이 구조 안정성의 요체가 된다. 주초의 윗면이 편평하게 다듬어진 정평주초定平柱礎라면 기둥뿌리를 편평하게 다듬어 세우면 되지만 민간의 살림집은 다듬지 않은 자연석 '덤벙 주초'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랭이질'이라는 특수 공법이 사용되었다. 그랭이질은 컴퍼스 형태의 '그랭이칼'로 울퉁불퉁한 주초의 표면 형상대로 기둥뿌리에 선을 그어 파내는 공법을 말한다. 이를테면 울퉁불퉁한 주춧돌과 기둥 밑면을 정확하게 일치시켜 습기와 벌레의 침투를 막고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다. 기둥뿌리를 오래 보전하기 위하여 안쪽을 더 파내고 그곳에 소금, 간국, 백반을 넣어 썩거나 벌레 먹는 것을 예방하기도 한다.

그랭이질이 끝나면 기둥이 수직으로 세워졌는가를 시험한다. 이를 '다림본다'라고 한다. 기둥 몸체에 사방으로 먹줄을 긋고 기둥머리에서 추를 내려 먹줄과 일치하는가를 보는 것이 다림 보는 방법이다. '기둥이 기울면 집이 기울게 되고, 집이 기울면 집안이 망하게 되는 것'이라는 대목大木들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기둥은 가세家勢나 가운家運을 지탱하는 상징물로 여겨진다. 따라서 단지 구조만의 이유가 아니라 가운의 상징물로, 반드시 하늘을 향하여 수직으로 세워져야 하였다. 입주는 단순히 기둥을 세우는 작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둥머리에서 도리와 보를 결합시켜 건물의 뼈대를 형성하는 작업이 포함되기도 한다. 이 경우 입주상량立柱上樑이라는 하나의 공정으로 통합된다. 대목들이 입주立柱 하는 날을 '집 세우는 날'이라고 하는데 이는 건물의 뼈대가 이 단계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재를 사용하여 건물의 뼈대를 형성함에 있어 대목들은 일정한 목재 사용의 원칙이 있다. 즉 세우는 나무는 가지 쪽이 위를 향하도록 하며, 눕히는 나무는 가지 쪽이 안을 향하도록 한다. 다시 말하면 기둥이나 서까래·문골과 같이 수직으로 사용되는 목재는 가지 쪽이 위를 향하도록 배치하며, 도리나 보와 같이 수평으로 사용하는 나무는 가지 쪽이 안을 향하도록 배치한다.

이러한 원칙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한반도 전역에 걸쳐 적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심지어 중국 옌볜에서 활동하는 조선족 대목들도 이러한 원칙을 따르고 있다. 다만 『산림경제山林經濟』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조선 후기 이전부터 이 원칙이 지켜져 온 것으로 여겨진다.

"집 지을 때 기둥에 쓰는 나무를 뿌리 쪽이 하늘로 향하도록 거꾸로 쓰면 사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계속될 것이므로 솥뚜껑으로 나무를 두드리며



입주식 | 1991 | 국립무형유산원

거꾸로 섰어도 좋다고 자꾸 외쳐야 겨우 길함을 얻을 수 있고, 사는 사람은 두고두고 온포溫飽하여야 길함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은 목재 사용에서 위와 안으로의 지향성을 반영한다. 나무의 성장 방향이 뿌리로부터 가지 쪽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목재에서 가지 쪽은 성장, 발전, 번영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수직 부재의 가지 쪽을 위로 향하게 해서 나무의 성장처럼 가운이 번창하기를 기원하고, 수평 부재의 가지 쪽을 안으로 향하게 하여 외부의 복을 집안으로 끌어들인다는 의미가 있다. '기둥을 거꾸로 세우면 집안이 망한다.'든지 '삼대가 원수져야 문골을 거꾸로 세운다.'라는 대목들의 표현은 이러한 인식을 반영한다.

특징 및 의의 목조가구식 구조의 한옥에서 기둥과 도리, 보로 이루어지는 골격을 만드는 일은 건물 구조의 안전성과 건물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공정이었다. 입주는 골격을 만드는 첫 단계 작업인 동시에 상량까지 포함하여 골격을 완성하는 과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성주풀이 류의 노래에서 기둥은 "하늘님이 물을 주고 산신령이 기른 나무 정신없이 기른 나무 성주지동이 빠졌구나."라고 표현되곤 한다. 기둥을 성주신의 신체로 보는 인식을 드러낸다. 이러한 신화 인식 체계에서 입주立柱는 모태母胎 내의 성주가 발육하는 과정의 상징으로 표현되곤 한다. 열초列礎를 통하여 수태된 성주가 모태 안에서 발육하여 뼈대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뼈대가 잘못 형성되면 기형아를 출산하게 되듯이 성주도 인격체로서 자연 법칙에 따르는 골격의 형성이 요구된다. 목재 사용에서의 금기는 정상의 골격을 갖춘 성주를 출산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입주라는 공정은 건물의 구조체를 형성하는 작업 단계인 동시에 인격체로서 성주신의 골격을 형성하는 단계이며, 통과의례라는 인식을 반영한다.

참고문헌 山林經濟, 집의 사회사(강영환, 웅진출판, 1992), 한국의 민가(김홍식, 한길사, 1992), 한국의 민가연구(장보웅, 진보제, 1986), 한국의 살림집(신영훈, 열화당, 1986), 한국의 주거민속지(김광언, 민음사, 1988).

필자 강영환(姜榮煥)

입춘첩
立春帖

정의 입춘 때 문이나 집 안 기둥에 경축과 벽사를 기원하며 붙인 문구.

내용 입춘첩立春帖은 한 해의 무사태평과 풍농을 기원하고 봄이 시작되었음을 자축하기 위해 문구를 써서 집 안 곳곳에 붙이는 첩자의 하나이다. 최영년崔永年의 『해동죽지海東竹枝』에서는 첩자가 시기에 따라 입춘에는 입춘첩자, 설날에는 연상첩자, 단오에는 단오첩자로 나뉜다고 설명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예문관에서 입춘첩을 임금에게 바치기도 하고, 임금은 설날 며칠 전에 대제학大提學을 불러 신하 가운데 글을 잘 짓는 이들을 뽑아 그들에게 연상시延祥詩를 짓게 해서 그 가운데 합격한 것을

대궐의 문미門楣에 붙였다. 이는 입춘첩 짓는 것을 학문 평가의 잣대로 삼은 것이며, 그 내용은 봄에 대한 찬양과 임금의 은덕·오복五福 등에 관한 것이었다.

민간에서는 입춘첩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글을 쓸 줄 아는 문인들이 분주하게 붓을 놀려 자신을 위해 입춘첩을 짓기도 하고, 이웃에게도 선물하였다. 입춘첩은 가문마다 그 문구 내용이 다르며, 전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필사본을 만들기도 하였다. 입춘첩 내용은 고문헌의 좋은 문구를 따와 하나의 문장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반가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입춘첩을 쓰기도 하는 등 입춘첩을 통해 그 집안 아이의 학문 실력을 가늠하기도 하였다.

『경도잡지京都雜志』와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소개된 입춘첩을 보면 벽사, 평안, 풍년, 경축, 초복, 장수 등을 기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일부 문장은 옛 문헌에서 발췌한 것도 있지만 상당수 입춘첩의 문구는 출처를 알기 어렵다. 예를 들어 국태민안國泰民安은 『몽양록夢梁錄』, 가급인족家給人足은 『회남자淮南子』에서 각각 문구를 취하는 등 모두 옛 문헌의 내용을 그대로 참고하였다. '문신호령 가금불상門神戶靈 呵禁不祥' 내용 가운데는 '가금불상'만 『전당서全唐書』의 내용을 취한 것으로, 대구 가운데 하나만 옛 문헌을 참고한 경우도 있다. 또한 옛 문헌의 내용을 유사하게 표현한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육도六韜』에 나오는 풍조우순風調雨順을 우순풍조雨順風調로 단어 위치를 바꾸어 표현하였다.



입춘첩 | 경북 안동 하회 | 정연학

특징 및 의의 수많은 입춘첩의 문구 출처는 대부분 밝히기가 어렵다. 이것은 입춘첩의 내용이 글 쓰는 사람이나 집안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었고, 여기저기 선현의 기록 일부를 취해 의뢰한 사람에 의해 다시 재편집되었기 때문이다. 입춘첩 대부분의 내용이 집집마다 다른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근래에는 입춘첩이 일부 사람들에 의해 쓰여지고 일부는 판매가 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문장의 다양함을 엿볼 수 없다. 흔히 보이는 입춘첩 문구는 '입춘대길立春大吉'과 '건양다경建陽多慶'이다. 이들 문구는 대문 좌우에 붙이며, 일부 아파트에서는 입구 공고란에 붙이기도 하였다. 현 세태를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문과 상징(정연학, 시월, 2009), 조선후기 문집(국립민속박물관, 2005),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국립민속박물관, 2003~2005).

필자 정연학(鄭然鶴)

입택고사
入宅告祀

정의 집을 새로 지어 이사하거나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새집에서 무탈하고, 평안하고 축복된 삶이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베푸는 다양한 형식의 민속의례.

내용 전통사회에서 집은 건축물인 동시에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보장하는 가신家神이 임재한 곳으로, 가족과 신령이 공존하며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는 공간이다. 새집으로든 헌집으로든 거주 공간을 옮김에 따라 여러 가신을 돌보던 공간에 변화가 생긴다. 이주하는 새 공간은 가신이 임재하지 않아 불완전하고, 그곳






입택고사 | 경기 화성 | 2007 | 국립민속박물관

에서의 삶도 불투명하기에 불안하다. 이에 입택의 시점을 기하여 다양한 형식의 의례를 베푼다. 입택 이전에 베푸는 주술 의례를 비롯하여 입택 당일 집 안에 가신을 모시는 의례나 주술 의례, 입택 이후에 길일을 택하여 베푸는 의례 등 매우 다양하다.

입택에 앞서 더 중요한 점은 새집과 대주 간의 인연 여부이다. 대주의 나이 3·7·9수가 드는 해에 성주운이 든다. 특히 9수가 들면 대성주가 들었다고 하여 길하게 여긴다. 그러나 만일 대주의 나이에 성주운이 들지 않았다면 대주의 운으로는 집을 짓거나 이사를 하지 못한다. 다른 남자 가족이나 성주운이 닿은 이웃사람의 운을 빌려서 그 사람의 운으로 집을 짓거나 입주한다. 이럴 경우 상량上樑에 성주운이 닿은 사람의 생년월일시生年月日時를 써 넣고, 그 사람이 상량고사에서 첫 잔을 올리고, 입택 전날에 미리 새집에 들어가 잠도 자도록 한다. 성주운이 닿은 사람이 먼저 입주한 셈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베개가 아닌 홍두깨를 베고, 정상이 아닌 거꾸로 누워서 잠을 자야 한다. 이는 그 집의 실제 주인이 아니라 운만 빌려주는 존재임을 표상한다. 그 이튿날에 실제 입주할 사람이 그에게 약간의 돈을 지불하여 그 사람의 성주운을 구입한 후라야 비로소 입주할 수 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행하는 것이기에 훗날 안택을 해서 신령을 좌정시켜야 집안이 무탈하다.

입택의례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가신을 모시는 의례로, 집을 수호하는 대표 신령인 성주모시기이다. 성주는 집 건물의 신령인 동시에 대주의 수호신이다. 이사 갈 때 대주를 모시고 가듯 집안에 모셔둔 성주를 떼어서 모시고 집을 나선다. 건물의 신령이기도 한 성주를 새집에 그대로 모셔 둘 수 없기 때문이다. 새집의 성주는 새 건축물의 상징이기도 하므로 새로 받아 모셔야 하기 때문에 헌집 성주를 새집으로 들이지 못한다. 헌 성주는 길가의 살아 있는 나무에 묶어 두고 간다. 새집에 도착하면 곧 바로 안택을 해서 새 성주를 받아 모시기도 하지만 훗날 길일을 택해서 받아 모시는 것이 일반화된 모습이다.

성주와 달리 입택할 때 헌 집에 두고 와야 하는 가신도 있다. 터주는 집터를 수호하는 정령이므로 다른

곳으로 모시지 않는다. 이사한 집에 이전 집주인이 모시던 터주가 남아 있다면 원치 않아도 그 전통을 이어받아 터주를 모셔야 변고를 막을 수 있다. 이사 나가는 사람이 자신이 모시던 터주를 없앤다. 터주단지에 있는 쌀을 덜어내어 그 쌀로 밥을 지어 터주단지 앞에 두고 이사 가게 되었음을 고하고 단지도 없애 터주와의 안녕을 고한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새로 이사한 집에 박혀 있는 돌이 있다면 그 돌을 '텃돌'이라 하여 터주로 모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훗날 성주와 마찬가지로 안택을 하면서 새로 받아 모신다.

입택과 관련해서는 주술의례가 발달되었다. 새집은 미지의 공간으로, 그곳에서의 삶이 안정되기를 바라며 다양한 형식의 주술의례를 베푼다. 이러한 의례들은 개인의 비의秘儀로 베풀며, 지역성보다는 개별 양상을 띠기 때문에 대표 사례를 몇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사하는 날은 가장 길한 날로 택한다. 오늘날에도 이사하는 날은 손이 없는 날을 택하기 때문에 달력에 이사하는 날이 표기되어 있기도 하다. 제주도 지역에서는 '신구간'이라 하여 지상의 신령이 없는 날인 대한大寒 후 5일에서 입춘立春 전 3일 사이의 일주일 동안에만 이사한다. 혹시라도 탈이 날까 하여 주의하는 것이다.

이사 들어갈 때는 사람보다 먼저 솥 안에 요강을 담아 들인다. 먹고 배설하는 것이 원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이와 함께 요강은 배설물을 담는 도구로, 변소와 마찬가지로 부정을 억누르는 주력呪力을 상징한다. 이삿짐 가운데 장롱 밑에는 특별히 붉은색으로 임금 왕王자를 붙여 둔다. 이는 힘이 가장 강한 임금이 임재하고 있어 액운이 범접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사 나갈 때 가장 나중에 가지고 나왔다가 가장 먼저 집 안으로 들이는 것이 소금 자루이다. 일부에서는 대문 앞에 소금 자루를 놓아 두고 그것이 없어지도록 소금을 밟고 지나다니기도 한다. 이사할 때 거치는 집 밖은 가신이 부재不在한 부정한 공간이므로 혹여라도 따라붙은 부정이나 액운을 소금으로 정화淨化하고자 한 것이다.

입택 이후에는 팥죽을 쑤어서 집 안 곳곳에 뿌려 부정을 예방한다. 이 역시 혹시라도 끼었을지 모를 부정과 액운을 예방하는 것이다. 입택고사入宅告祀의 중요한 제물인 시루떡 역시 붉은색으로, 부정을 구축하는 주력이 있다고 믿는다. 이 떡은 잘라 이웃에 나눔으로써 인사를 겸해 인정을 나누는 기회로 활용한다.

이사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면 안방에 먼저 밥솥을 들여놓는다. 밥솥은 생명줄이므로 풍성한 삶을 보장받기 위함이다. 또한 식구들이 입택할 때는 빈손으로 들어가지 않고 돈이나 곡식, 베 등을 몸에 지니고 들어간다. 재물을 지니고 들어감으로써 재물이 많아지기를 기원하는 유사주술이다.

이사한 뒤에는 무당이나 스님이 준 부적을 방문이나 현관문 입구에 붙이기도 하고 소의 코뚜레, 배[船]를 묶는 밧줄 등도 문 위에 매달아 둔다. 이 가운데 코뚜레는 처음 코뚜레를 한 수송아지의 것이라야 효험이 있다. 거친 소의 코에 코뚜레를 꿰면 사람이 그 소를 조종할 수 있듯이 이사한 집의 만사를 인간이 조정할 수 있기를 고대하며 매단다. 배를 묶어 두는 밧줄도 동일한 원리에서 매단다. 거친 바다를 떠다니는 배를 묶어 고정시키는 것이 밧줄이듯이 새 집에서의 운을 묶어 자신의 의지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기에 집안이 순조로울 것이라는 바람이 담겨 있다.

이사 후에는 엄나무가지, 자작나무, 목화씨, 성냥 등을 조금씩 묶어서 안방 장롱 안의 손 없는 곳에 봉안해 둔다. 이들 봉안물은 제액초복除厄招福의 상징물로, 입택을 기점으로 집안의 운수가 좋기를 바라는 주물들이다.

특징 및 의의 새로운 거주 공간으로의 이주는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미래이지만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감이 고조되는 순간이다. 새집에 들어가는 입택 순간에 집안에 좌정할 여러 신령들을 모셔야만 그들의 보호 아래 미래가 질서정연하며, 안정되고 축복된 공간으로 바뀐다. 새집에는 가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들 가신을 청빙請聘하는 입택고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입택하는 당일에 베풀기도 하지만 훗날 택일해서 베풀기도 한다. 집안을 평안케 하는 안택

굿을 통하여 건축물의 신령이자 대주의 수호신인 성주를 받아 모심으로써 집안의 안정을 꾀한다. 성주 모시기 이외에도 집 안에 임재한 여러 신령을 좌정시키고, 집안이 편안하고 액운이 들지 않기를 기원한다.

한편 입택의 순간은 이동을 전제로 한다. 집 안과 달리 집 밖은 가신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위험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곳을 통과해서 집 안으로 사람이나 물건을 들일 때는 혹시라도 붙었을지 모를 갖가지 부정한 기운을 제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새집에 성주를 비롯하여 집 안 곳곳을 관장하는 여러 가신家神이 안착하고, 가족 구성원도 무탈하게 집 안에 안착하기 위해서도 부정은 구축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입택 순간에 다양한 주술 의례를 동원하는 등 주술 의례를 중첩해서 베푸는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민속신앙사전-가정신앙(국립민속박물관, 2011), 한국의 가정신앙(국립문화재연구소, 2006~2008), 한국의 이사풍속(배도식, 한국민속학18, 한국민속학회, 1985).

필자 김효경(金孝慶)

자

정의 길이, 너비, 폭, 깊이, 두께, 각도 등을 그리고 헤아리는 데 사용하는 연장.

개관 자는 한자로 '尺(척)'이라 한다. '尺'은 '가깝다'라는 뜻이다. 가장 가까운 것을 길이의 기본 단위로 표현하였다. 길이는 부피[量], 무게[衡]와 함께 국가에서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는 공통 기본 단위이다. 이를 도량형度量衡이라고 한다. 도량형은 한 나라의 법과 제도를 시행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기본 단위이다. 도량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자이다. 표준 척도가 있어야만 부피를 가늠하는 되와 말을 만들고 무게를 가늠하는 저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표준 척도 제정은 도량형 정비의 중요한 과제였다. 도량형의 기원은 이처럼 척도에서 비롯되었다. 인신척印信尺으로 10지폭이 지척指尺으로 사용되었고, 나중에는 주척周尺으로 통용되기도 하였다.

아주 오랜 옛날 길이를 측정할 때는 흔히 인체의 치수를 이용하였다. 예를 들면 손가락이나 손바닥 크기, 팔 길이, 보폭 등을 기준으로 길이를 쟀다. 길이 단위 가운데에서 지指, 뼘, 보步, 장丈 등은 인체를 기준으로 정해진 단위이다. 인체를 기준으로 길이를 만든 것은 동서양이 같다.

내용 자[尺]는 재는 장소, 물건, 방법, 모양과 이것을 만든 시대 및 나라에 따라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린다. 재는 장소에 따라 목재를 마름질하는 데 쓰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묘지나 토지를 재는 자가 있다. 토지를 재는 데는 부척浮尺, 副尺이나 답척踏尺이 사용되며, 피륙을 잴 때는 경척鯨尺이 사용되었다. 건축에 사용된 도량형의 응용은 길이를 나타내는 척도尺度로 기준을 삼았다. 이 길이의 기본 단위를 '척尺'으로 표시하였다. 이것은 다만 기본 단위에 불과하다. 시대, 지역, 용도에 따라 길이와 명칭이 달리 표현된 것이다. 주척·한척漢尺·당척唐尺·고려척高麗尺 등은 시대에 따



자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① 자 | 길이31 너비1 ② 정자자 | 가로42 세로17

라 붙여진 명칭이고, 복주척福州尺·항주척杭州尺 등은 지역에 따라 붙여진 명칭이다. 또한 황종척黃鐘尺, 영조척營造尺, 포백척布帛尺, 양전척量田尺 등은 재는 용도에 따라 붙여진 명칭이다.

자는 사용하는 곳에 따라 이름이 다를 뿐만 아니라 측정하는 위치와 생긴 모양에 따라 이름이 다르다. 목수들이 흔히 쓰는 자는 다음과 같다. 곡자[曲尺]는 'ㄱ'자 모양으로 굽어진 자에 눈금을 그어 치수를 표시해 둔다. 집을 지을 때 목수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본 자 가운데 하나이다. 가늠자[矩]는 눈금이 그려져 있지 않고 직각을 재는 데 사용하는 자이다. 크기는 곡자보다 작게 만들어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자자[丁字尺, 丁尺]는 '丁'자 모양으로 생긴 자이다. 직각이나 수직 등의 치수를 재기도 하고 먹매김을 할 때도 사용된다. 세로자는 눈금이 없어 손잡이로 사용하고, 가로자에는 눈금이 매겨져 있다. 먹매김을 할 때 쓴다고 해서 '먹자[墨尺]'라고도 하며, 다른 말로는 '미레자'라고 한다. 연귀자[緣歸尺, 燕口尺]는 창호나 치장재의 두 부재가 모이는 모서리 등을 모양 있게 맞추기 위하여 쓴다. 연귀자는 각도에 따라 45°, 30°, 25°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귀자는 45°자이다. 연귀자는 집 짓는 대목보다 가구를 만드는 소목이 더 많이 사용하였다.

준척準尺은 수평과 수직을 잴 때 쓰는 연장이다. 모양은 정자자를 거꾸로 세워 놓은 것과 비슷하다. 그림쇠[規]는 정확한 거리나 직경을 재는 데 쓰이는 연장이다. 원목의 마구리면, 일반 곡면 등을 본뜨는 데 주로 사용한다. 일정한 길이를 반복 사용할 때 편리하다. 흘럭자는 두 개의 자를 한쪽에 연결할 때 고정되지 않게 연결하여 원하는 각도로 먹줄을 그을 수 있도록 만든 연장이다. 이 자는 각도를 조정할 수 있게 만들어 한 점을 기점으로 한 방사선을 그릴 수도 있다. 주로 가구를 만드는 소목장이 많이 사용한다. 장척長尺, 杖尺은 1장(10척) 이상 길게 만들어 사용하는 자이다. 보통 10자 혹은 12자로 되어 있다. 주로 원목을 재단하고 기둥 간격, 높이, 방 치수, 간답(기둥 사이의 폭) 등 긴 것을 재는 데 사용한다. 장척은 길어서 휴대하기 불편하다. 주로 공사 현장에서 만들어 쓰다가 그 집에 두고 간다. 동척童尺(단척短尺)은 짧게 만든 자로, 세밀한 곳이나 정확성을 요할 때 사용한다.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어서 어디서든 쉽게 사용할 수 있다. 가구를 만드는 소목장들도 많이 사용하는 자이다. 줄자[繩尺]는 긴 거리나 간답 등을 재기 위하여 긴 노끈으로 만들거나 대나무를 가늘게 잘라 엮어서 만든다.

특징 및 의의 자는 주로 전나무, 삼나무, 대나무, 끈 등으로 만든다. 나무로 만든 것을 '나무자[木尺]' 또는 '대줄자', 노끈으로 만든 것을 '줄자'라 한다. 간혹 구리[銅]로 만든 동척이나 동물 뼈로 만든 골척骨尺이 사용되기도 한다. 특별한 것으로 주철로 만든 것도 있다.

근대 이전의 전통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자를 장인이 직접 만들어 쓰는 것이 특징이었다. 따라서 만드는 사람의 솜씨와 생각에 따라 형태가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치수는 반드시 통일된 기준을 따라야 하였다. 간혹 옛집을 보수하기 위하여 그 집을 지을 당시 사용한 치수를 적용한 자를 따로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문헌 백제시대의 자에 대한 연구(이강승, 한국고고학보43, 한국고고학회, 2000), 이조척도에 관한 연구(박흥수, 대동문화연구4,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67), 조선왕조 시대의 도량형 고찰(정덕기, 호서사학6, 호서사학회, 1978), 한국의 건축연장 연구1(이왕기, 목원대학교논문집7, 목원대학교, 1984), 한국의 도량형(국립민속박물관, 1997), 한국중세 도량형제 연구(이종봉, 혜안, 2001).

필자 이왕기(李王基)

자귀

정의 쇠날을 끼운 날틀에 손잡이를 끼워 나무를 쪼거나 홈을 파내는 데 사용하는 연장.

개관 자귀는 선사시대부터 도끼와 더불어 땅을 굴착하거나 나무를 쪼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 연장이다. 자귀는 건축연장 중에서 가장 요긴하게 사용되었다. 도끼 날이 자루와 직각 방향으로 장착되면 자귀 날은 자루와 평행하게 장착된다. 자귀는 점차 목재 가공에 전용되면서 주로 목수가 사용하는 연장으로 변

모되었으나 도끼는 다용도로 사용되는 생활 연장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자귀는 주로 목재가공용으로 사용되면서 크기가 다양해졌다. 일반적으로 크기에 따라 대자귀, 중자귀, 소자귀로 나뉜다. 자귀는 내려치는 힘으로 목재를 다듬기 때문에 다듬는 면이 거칠다. 긴 자루를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연장에 비하여 힘이 덜 드는 장점이 있지만 치목 면이 거칠다는 단점도 있다. 작은 자귀로 홈을 파거나 촉을 만들 때는 다른 연장에 비하여 효율이 좋을 수 있다.

ㅈ

자귀

내용 자귀는 목수가 많이 사용하는 연장의 하나이다. 크기에 따라 서서 쓰기도 하고 앉아서 쓰기도 한다. 날은 자루에 직접 박지 않고 나무토막에 박으며, 이 나무토막 중간에 자루를 끼운다. 자루는 빠지지 않도록 쐐기를 박아 둔다. 날의 반대편을 자귀머리라 한다. 자귀는 기본이 깎는 연장이므로 금속 날을 잘 갈아서 목재 면을 수월하게 깎아 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타격을 받는 목재와 날의 관계를 고려할 때 날의 등 쪽 선이 날의 단면 중심선과 이루는 각도가 작을수록 유리하다. 따라서 자귀 날은 안쪽에서 많이 갈아 내 단면이 비대칭을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날의 단면에 차이가 있을 뿐 기능과 용도는 도끼와 비슷하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자귀는 목수가 주로 사용하는 연장이 되었고 도끼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생활연장이 되었다.



대자귀 | 길이91 너비33 | 국립민속박물관



자귀질 | 1999 | 국립무형유산원

자귀를 크기에 따라 구분하면 대자귀, 중자귀, 소자귀로 나뉜다. 대자귀는 다른 말로 선자귀라고 한다. 주로 목재의 표면을 다듬는 데 사용한다. 마루판처럼 넓은 판재를 다듬거나 껍질 벗긴 원목을 건축 부재로 다듬을 때 대자귀를 많이 사용한다. 중자귀는 앉아서 사용할 때도 있고 서서 사용하기도 한다. 깎는 부재에 따라, 깎는 모양에 따라 앉거나 서서 하게 된다. 대자귀에 비하여 치목이 정확하고 정교하게 할 수 있다. 소자귀는 다른 말로 손자귀라고 한다. 크기가 작아 주로 앉아서 사용한다. 홈을 파거나 촉을 만드는 등 작고 세밀한 곳을 가공할 때 사용하고 기와를 올려놓는 연함을 깎을 때도 사용한다. 소자귀는 '강귀'라는 별칭이 있고, 제주도에서는 '곱자귀'라고도 부른다. 번자귀는 도끼와 똑같이 생겼다. 주로 원목을 벌채할 때나 원목의 거친 면을 다듬을 때 사용한다. 끌자귀[鑿鈇]는 목재의 이음 또는 맞춤을 할 때 홈을 파거나 촉을 만드는 데 요긴하게 사용하는 작은 자귀이다. 날을 끌과 같이 좁고 길게 하여 자루를 박아서 사용한다. 생긴 것과 사용법이 끌과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자귀질은 팔의 회전축과 내려치는 가속력 두 가지를 동시에 이용하기 때문에 정교하게 깎기가 쉽지 않다. 회전축에 중심을 두면 가속력이 약해지고, 가속력에 중심을 두면 회전축이 흐트러져 정확하게 깎이지 않게 된다. 자귀질은 도끼와 같이 큰 힘으로 내려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굴곡면이나 곧은 면을 깎는 것이기 때문에 힘보다는 정확성이 더 중요하다. 이때 깎아서 생기는 나뭇조각을 '자귀밥'이라 한다.

특징 및 의의 자귀는 선사시대 때부터 사용하여 온 건축

연장이다. 자귀는 대패가 발달하기 전까지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기둥, 보, 서까래, 널 등을 깎을 때는 반드시 자귀를 사용하였다. 목수가 자귀 쓰는 기술을 가장 잘 배워야 하는 이유는 이처럼 쓰임새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귀는 목수를 상징하는 대표 연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참고문헌 연장과 치목(이왕기, 건축36-4, 대한건축학회, 1992), 조선후기의 건축도구와 기술(이왕기, 한국전통과학기술학회지1-1, 한국전통과학기술학회, 1994), 한국의 건축 도구(이왕기, 건축장인의 땀과 꿈, 국립민속박물관, 1999), 한국의 건축연장 연구2(이왕기, 목원대학교논문집8, 목원대학교, 1985).

필자 이왕기(李王基)



자리 | 인정전진하도 무신진찬도 중 부분 | 조선 | 국립중앙박물관



화문석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자리

정의 공간의 위생, 장식, 의례 등을 위하여 바닥에 까는 깔개.

내용 자리는 흙이나 벽돌 등으로 마감된 바닥에 위생과 장식 목적으로 까는 깔개를 지칭한다. 깔개 종류로는 돗자리[席子]와 양탄자洋彈子가 있다. 자리를 까는 행위를 포진鋪陳이라 한다. 공업용 장판을 사용하기 전에는 온돌방과 마루뿐만 아니라 전돌로 마감한 의례용 건물의 바닥에도 포진이 행해졌다.

깔개 가운데 자리는 바닥에 깔기 위해 짚, 억새, 부들, 왕골 등을 이용하여 만든 것이다. 짚으로 만든 자리는 초석草席, 갈대로 만든 삿자리는 노점蘆簟이라 하며, 부들이나 왕골을 가공하여 만든 자리는 무늬나 색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 왕골을 이용하여 만든 자리는 제조 방법에 따라 돗자리와 자리로 구분하기도 한다. 돗자리는 가마니틀과 비슷한 돗틀에 미리 날을 걸어 두고 골을 바늘대에 걸어 지르고 바디질을 하여 짠다. 자리는 날을 고드랫돌에 감아 장목에 늘어놓고 골을 대어 엮어 나간다. 돗자리는 날이 속으로 감춰지고 자리는 날이 밖으로 노출되는 것이 특징이다. 자리를 이어 붙여 넓게 만든 것은 지의地衣라 한다. 19세기 말 서양에서 들어온 양탄자도 자리의 일종이다.

일반 서민부터 관아까지 가장 널리 이용된 자리는 초석과 노점으로 온돌이나 마루, 전돌 바닥의 밑 깔개 역할을 하였다. 격이 높은 건물에는 급이 높은 자리를 더 깔아 장식하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때 사용한 것은 부들이나 왕골로 만든 돗자리다.

무늬가 없는 것은 백문석白紋席, 무늬가 있는 것은 화문석花紋席이라 불렀다. 화문석 중 다양한 색의 꽃을 무늬로 넣어 만든 것을 채화석彩花席, 노란 바탕에 꽃무늬를 넣은 것을 황화석黃花席, 용무늬를 넣은 자리를 용문석龍紋席, 봉화무늬가 있는 경우를 봉문석鳳紋石, 경慶이라는 글자를 크게 넣은 것을 경석慶席이라 하였다. 그밖의 자리도 이름을 통해 무늬와 색을 알 수 있다.

자리를 헤아리는 단위는 장張이지만 1장을 헤아리는 기준은 무늬의 크기와 개수에 따라 다르다. 용문석과 봉문석, 채화석, 만화석, 황화석은 모두 1장에 10개의 무늬가 반복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특별한 무늬로 제작하는 별문석의 경우는 1장을 이루는 무늬의

수가 다르다. 무늬의 개수가 같다고 하여 자리의 크기가 모두 같지는 않다. 용문석과 봉문석의 경우 10문紋이 들어가는 채화석, 황화석 등에 비하여 1.5배 정도 길어서 화문석의 이름에는 무늬와 색 이외에도 사회적으로 약속된 크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약속된 크기와 무늬로 제작된 자리는 포진할 공간의 성격에 따라 테두리에 붉은색, 흰색, 청색, 남색, 황색 등의 천[緞]을 대고 마사麻絲로 꿰매어 사용하였다.

지의는 여러 개의 자리를 넓게 이어 붙인 것으로, 넓은 면적의 깔개로 이용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자리를 연결하지 않고 낱장으로 깔면 이리저리 움직여 안정되지 못하므로 서로 이어 붙여 그 번거로움을 덜려한 것이다. 지의로 가장 많이 사용한 돗자리는 백문석으로, 테두리 천의 색은 공간의 성격에 따라 달리하였다. 지의는 방, 대청뿐만 아니라 반외부 공간인 툇마루에도 깔고 궁궐의 정전, 사묘의 정전과 배위청 등 전돌이 깔려 있는 바닥에도 깔았다. 외부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을 위한 깔개로도 사용하였다.

서양의 문물이 유입된 후 사용된 깔개로는 양털에 색을 넣어 꽃무늬를 짜 넣은 양탄자가 있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매우 격식이 높은 곳에만 깔던 양탄자는 인조직물을 이용하여 대량생산이 가능해진 이후로는 카펫이라 불리며 대중에게 널리 사용되었다.

특징 및 의의 자리는 위생적 주생활을 위해 바닥에 사용한 깔개다. 그러나 의례나 장식적 의미가 더해지면서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진화하였다. 또 양탄자와 같이 새로운 문물의 전래에 따라 재료가 변화하기도 하였다. 돗자리의 진화는 주생활 용품이 주거를 위한 목적이 충족되면 사회적 또는 문화적 목적으로도 전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살펴볼 만하다.

참고문헌 영건의궤(영건의궤연구회, 동녘, 2010), 한국건축개념사전(한국건축개념사전기획위원회, 동녘, 2013), 한국건축대계4-신편 한국건축사전(장기인, 보성각, 2005), 화성성역의궤 건축용어집(경기문화재단, 200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정정남(鄭貞男)

자생풍수
自生風水

정의 최창조가 제기한 한국풍수의 기원 및 정체에 관한 개념 체계.

개관 최창조가 주장하는 자생풍수自生風水는 중국의 발복풍수와 대비되는 한국의 대동풍수이다. 주요 내용은 비보풍수와 개벽사상으로 구성된다. 자생풍수의 비조鼻祖는 신라 말의 승려 도선(827~898)이다. 최창조는 2011년에 이어 2016년의 저서에서 자생풍수의 특성을 10가지로 보완해 정리하였다. ①주관성: 마음이 중요하다 ②비보성: 고침[治癒]의 지리학 ③정치성: 새로운 세상, 개벽開闢 지향 ④현재성: 지금, 이곳에서 적응하라 ⑤불명성不明性: 비논리의 논리, 논리 뛰어넘기 ⑥편의성: 이상보다 현실에 충실하라 ⑦개연성: 그럴듯하게 보이고, 그럴듯하게 여겨지고, 실제 효과도 있다 ⑧적응성: 모든 삶의 분야에 적용된다 ⑨자애성: 내가 중심이다 ⑩상보성: 인간도 주인이고, 자연도 주인이다.

내용 최창조의 한국풍수 자생설은 초기부터 실마리가 보인다. 1978년의 첫 풍수 논문에서 한국풍수의 기원에 대해 “당에서 풍수설이 수입되기 전에 이미 풍수설이 존재하였다”라는 김득황(1958)의 견해를 인용하였다. 같은 논문에서 “풍수설에 가까운 것이 상고시대에 신봉되었는데 신라 말엽에 당으로부터 학리적인 풍수설이 수입되자 급속도로 유행하였다.”라고 파악하였다. 한국의 풍수는 “고래古來로부터의 토속신앙”이며, “나말여초 당으로부터 풍수의 학리가 수입되고 도선에 의하여 토착의 토지관과 결합, 전파됨으로써 시작되었다.”라고 결론지었다.

이후 자생풍수론은 1991년에 발표한 그의 논문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전래의 자생풍수지리가 이미 이 나라에 있어오다가 백제와 고구려에 중국에서 이론이 확립된 풍수지리가 도입되면서 서서히 알려지게 되었고, 통일신라 이후에는 전 한반도에 유포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하였다. 2013년의

저서에서는 전통적 지리관 자체를 자생풍수라고 광의적으로 해석하여 풍수에 대한 개념적 범주를 드러냈다. 그리고 중국의 발복풍수와 한국의 자생풍수를 이기적:대동적 풍수로 대비하면서, 자생풍수는 비보풍수와 개벽사상의 사고로 구성되었다고 하였다.

학계에서는 최창조의 자생풍수론에 대해 "중국의 풍수와 다른 한국풍수의 원형을 드러냈다"라는 김두규(2013)의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비판적 견해도 있다. 윤홍기(1994·2001)는 "풍수원리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 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한국풍수의 기본원리와 기본 풍수서는 중국에서 온 중국 것이기 때문"이라고 반론을 폈다. 김기덕(2003)은 "자생풍수의 최대 약점은 땅의 질서와 논리에 대한 천착을 생략하고 풍수를 형이상학적인 마음의 차원으로 가져갔다는 점"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런데 최창조의 자생풍수에서 논의의 전제는 풍수라는 용어의 범주와 정의, 풍수의 기원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에 뿌리를 두고 있다. 최창조는 풍수를 (중국과 한국의) 전통적 지리관으로 넓게 이해하였다. 그리고 풍수의 기원은 역사상 풍수 용어가 쓰이기 시작한 시점보다는 풍수의 본질인 지기地氣를 느끼기 시작한 시점으로 본다. 이런 인식 토대 위에 자생풍수론이 개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지리관 또는 풍수적 사고관념을 과연 풍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역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국의 풍수가 유입되기 이전에도 한국에 사상적으로 풍수와 유사한 또는 원시적인 지리적 인식과 태도, 땅에 대한 사고관념이 있었던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전래의 땅에 대한 사고관념이 중국에서 유입된 풍수사상 및 이론과 섞이고, 한국의 자연환경과 사회문화 풍토에 맞게 수용하여 형성된 역사적 산물이 한국풍수라고 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최창조의 자생풍수론은 조선시대 이후 폐해가 컸던 중국 묘지풍수의 발복적 목적과 이기적 술법성을 차별화하고, 한국풍수의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사상적 모색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자생풍수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유의해야 할 점은 '자생'과 '고유'의 함의는 다르며 따라서 자생풍수는 한국에서 '토착화'된 풍수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향후 자생풍수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한국풍수의 기원이나 발생 측면보다는 풍수의 한국적 토착화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사람의 지리 우리 풍수의 인문학(최원석, 한길사, 2018), 사람의 지리학(최창조, 서해문집, 2011), 풍수에 대한 지리학적 해석(박영한·최창조, 대한지리학회13-1, 대한지리학회지, 1978), 한국사상사(김득황, 남산당, 1958), 한국의 자생풍수1·2(최창조, 민음사, 1997), 한국 자생풍수의 기원 도선(최창조, 민음사, 2016), 한국풍수사상의 역사와 지리학(최창조, 정신문화연구14-1, 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한국풍수인물사(최창조, 민음사, 2013), 자생풍수에 대한 한 역사학자의 비판(김기덕, 교수신문, 2003.3.10).

필자 최원석(崔元碩)

장독대

정의 간장, 된장, 고추장 따위를 담은 독이나 항아리를 놓을 수 있도록 뜰 안의 일정한 곳에 마련한 축대.

내용 흔히 바닥에 호박돌과 자갈을 20㎝ 정도 깔고 그 위에 판석을 놓으면 빗물 따위가 잘 빠진다. 북한에서는 장독걸이, 중부 및 경상도에서는 장독간, 전라도에서는 장광, 제주도에서는 장항굽이라고 부른다. 전라도의 장광은 주위에 담을 두르고 문까지 따로 달아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우리가 흔히 남도를 '맛의 고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와 연관이 깊다.

4세기 무렵의 황해도 안악고분 벽화에도 등장한 것을 보면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장은 우리 식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까닭에 중류 가옥에서는 장독이나 장항아리를 두 줄이나 석 줄로 놓되 맨 뒤에는 된장이나 간장이 담긴 큰 항아리, 앞쪽에는 고추장과 담북장 같은 작은 항아리나 단지를 놓아서 햇볕을 고루 받게 하였다.

장독대의 위치는 곳에 따라 다르다. 평면이 ㅁ자꼴인 경상도 상류 가옥에서는 흔히 안마당에 차리며, 겨울철에 눈이 많이 쌓이는 울릉도에서는 부엌 부뚜



장독대 | 전남 구례 운조루 고택 | 2016 | 서헌강



터주굿(평택농악) | 경기 평택 | 국립무형유산원

ㅈ

장독대

막 건너편에 마련한다.

장독의 수도 집안 형편에 따라 다르다. 서민 가옥은 대여섯 개에 지나지 않지만 중류 가옥은 20여 개, 상류 가옥은 수십 개에 이른다. 이를테면 전라북도 김제 월촌면의 정 씨네 집은 장독대 넓이가 12×6m인 공간에 장독 수는 90개가 넘는다.

장독에 옹기장이가 손가락으로 풍요와 장수를 상징하는 대[竹]를 치거나 거북 귀龜 또는 용 용龍자를 그리거나 자신만의 무늬를 새긴 것도 볼거리이다. 독이나 항아리를 고를 때는 뉘어 놓고 짚불을 넣어서 새는 데가 없는지 살펴야 하며, 손가락으로 두드려서 흙이 잘 익었는지도 알아본다. 이때 맑은 소리가 나는 것이 가장 좋다.

곳에 따라 독이나 항아리 형태가 다르고 이름 또한 같지 않은 것은 우리 문화의 다양성을 말해 주는 좋은 사례이다. 이를테면 중부지역의 독은 남부지역보다 배가 덜 부른 대신 키가 크고 입과 바닥이 조금 너르다. 이는 기온이 낮은 만큼 햇볕을 더 많이 받기 위한 배려로 여겨진다.

'한 고을의 정사는 술 맛으로 알고 한 집안의 흥망성쇠는 장맛으로 안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우리네 아낙들은 장맛을 살리기 위하여 온갖 정성을 쏟았다. 왼새끼줄에 고추와 숯을 꽂아서 장독에 두르는 것은 물론 솔가지를 꺾어다가 조상님께 바치고 절을 올리면서 "제발 장맛이 나도록 주와 주소서." 하고 읊조렸다. 충청남도 논산 명재 고택에서는 '꿀독'이라고 적은 한지를 붙여 놓기도 하였다. 또 다른 곳에서는 버선본을 거꾸로 붙이면서 '꿀독'이라고 외쳤다. 버선본은 습기 많은 장독대에 잘 꾀는 지네나 노래기 따위를 쫓기 위한 것이다. 버선본을 거꾸로 붙이는 것도 햇볕을 더 많이 끌기 위해서이다. 이것으로도 모자라면 여러 개의 버선본을 이어 붙인 줄을 두르기도 하였다. 이처럼 버선본이 햇볕을 싫어하는 다지류多肢類를 쫓는다는 과학성을 알아낸 슬기도 놀랍지만 '버선본을 붙이면 장맛이 난다.'고 둘러댄 속마음도 길이 기억할 만하다. 사실대로 일렀다면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이 틀림없다.

전라남도 나주의 박 씨 가정에서는 장독대에 따로 제사는 올리지 않지만 설이나 대보름 등 명절에 차리는 별식을 반드시 바쳐서 장맛이 나기를 바랐다.

된장은 약품이나 비상식량 구실도 하였다. 『삼국유사三國遺事』권5 감통7 김현감호金現感虎의 "김현이 흥륜사 탑돌이에서 만난 처녀가 자신이 범임을 밝히면서 자기가 물어서 생긴 상처에 된장을 바르면 낫는다고 일러 주었고, 그 이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치료하였다"는 기사가 그것이다. 또 고려 문종 때는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된장을 주어 목숨을 살렸다(『고려사高麗史』 문종 6년 4월). 조선 태종에서 성종에 이르는 65년 사이에 간장으로 어려운 사람을 구했다는 기사가 여덟 번이나 등장한다.

또 장독대는 아낙의 성역이었다. 이곳에 성주를 모셨고 칠성님도 섬겼다. 이곳에 정화수 한 그릇을 떠

놓고 소원을 빌고 가족의 무사태평을 축원하였다. 그리고 멀리 떠난 자식이 돌아오기를 바랄 때는 빈 물레를 놓고 돌렸다. 돌아가는 물레바퀴처럼 자녀가 돌아오리라고 여긴 것이다. 이밖에 독과 독 사이에다 명주실을 이리저리 얽어 놓기도 하였다. 이것이 거미줄이 되어 발걸음을 잡는다고 믿은 것이다.

또 칠월칠석에는 처녀들이 정화수 그릇 위에다 고운 재를 평평하게 담은 쟁반을 올려놓고 바느질 솜씨가 늘게 해 달라는 축원을 올렸다. 신이 이를 허락하는 뜻을 재 위에 남긴다고 하여 눈이 빠지도록 세세하게 살폈다.

전라남도 신안에서는 안마당 장독대에 높이 1m의 대나무를 세운 다음 위를 찢어 부챗살처럼 펴서 그 위에 올려놓고 묶은 그릇을 칠성님으로 섬긴다. 그리고 달마다 7자가 들어가는 7일, 17일, 27일 아침에 정화수를 길어 부으면서 가족의 무사태평을 빌기도 한다.

아낙네들은 새벽마다 장독의 뚜껑을 열어서 맑은 공기를 쐬게 하고 햇볕도 들게 하는 것외에 수건으로 깨끗이 닦았기 때문에 독이나 항아리는 물론 작은 단지까지도 언제나 반들거렸다. 가정주부의 부지런한 정도를 장독으로 가늠하기도 하였다. 1990년대 초 유리가 달린 장독뚜껑이 나오면서 발효에 큰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곰팡이 따위도 피지 않아 아낙들의 근심이 그만큼 줄어든 것은 다행이지만 햇볕 정도에 따라 장의 양이 감소하는 문제도 생겼다.

특징 및 의의 장독대는 우리 겨레의 맛을 대대로 이어 내린 뿌리인 동시에 중국이나 일본은 물론 세계 어디에도 없는 우리만의 자랑거리이다. 발효식품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는 오늘날 장독대의 효용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시대 흐름에 따른 주거생활의 변화로 각 가정의 장독대에 담긴 조미료가 아니라 전문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제품을 사 먹는 실정이다. 한 집안의 상징이자 한 가정의 아낙이 대를 이어 평생을 바쳐서 지켜 온 장독대가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이다.

참고문헌 동아시아의 부엌(김광언, 민속원, 2015), 박장흥댁(김광언, 민속원, 2009), 한국민속의 현장(배도식, 집문당 1993), 한국식생활풍속(강인희·이경복, 삼영사, 1983).

필자 김광언(金光彦)

장롱
櫃籠

정의 옷을 넣는 장과 농의 합성어.

내용 장이란 단어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우리 고유의 말이며, 한자로 표기되는 장櫃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는 한자이다. 장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조선 초기인 1487년(성종 18)의 "내부에서 만들어 사자암獅子庵에 보관한 은장銀櫃을 도난당했다."라는 기사에서이다.

장이란 단어가 사용되기 이전에는 수궤竪櫃라 하였다. 궤가 위로 높아지면서 세워진 궤, 즉 수궤라는 명칭으로 불렸다.



삼층장 | 가로116 세로61 높이171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이층농 | 가로74 세로39 높이120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수궤가 장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역관들이 사용한 교재에 중국어 '수궤竪櫃-장'이라는 표기에서 알 수 있다. 중국의 수궤를 우리나라에서 장이라고 함은 이 외에도 1830년대에 편찬된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높은 궤를 북쪽지방에서는 수궤竪櫃, 남쪽지방에서는 주廚라 하였다. 중국 북쪽 지역과 주로 육로로 문화 교류를 많이 한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 수궤라고 표기하였으나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 이후 우리말 표기에 따라 장이라는 한자어를 만들게 된 것이다.

장은 단층에서 삼층까지, 드물게는 5층까지 층마다 여닫이문을 달아 옷이나 이불을 넣었다. 이러한 용도로 집안 살림을 하는 주부의 방인 안방에 비치하는 필수품이었다.

나무장의 기둥은 단단한 배나무·참죽나무·소나무로 만들고 알갱이는 나뭇결이 아름다운 문목을 대칭으로 넣어 아름답게 장식하였으며, 못은 사용하지 않고 결구를 짜임으로 하여 뒤틀리거나 터짐이 없도록 배려하였다.

18세기 이후 경제 부흥으로 가옥 크기가 커지면서 가옥 크기에 따라 가구의 크기도 커졌으며, 이에 따라 수요도 늘게 되었다. 특히 관공서에 예속된 경공장들이 공장제도가 문란하여지면서 관을 벗어나 자신의 공방을 차리고 수요에 맞추어 많은 기성품 장을 양산하게 되었다. 조선 후기의 장은 이전의 가구에 비하여 쇠목, 동자주 등 기둥이 굵어지고 알갱이에 사용하는 화장재는 얇아졌다. 현존하는 옛 가구의 대부분이 이 시기에 제작되었다.

농籠은 한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래 나무 또는 대나무 골격에 대오리를 엮어 만든 죽기竹器로, 뚜껑을 위에서 내리 덮도록 만든 상자 형태의 가구이다. 서민들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버들가지로 상자를 만들고, 이 역시 농이라 불렀다. 이러한 농은 서민들이 방의 윗목에 매어 둔 시렁 위에 얹어서 의복 등을 넣어 사용하였다. 농의 뚜껑이 위에 있고 둘 또는 셋이 시렁 위에 겹쳐 있으면 여닫을 때 불편하였기 때문에 조선 후기 들어와 전면前面에 두 짝으로 된 작은 문을 달아서 여닫는데 불편이 없도록 고안되었다.

대나 버들고리로 만든 농은 가볍고 튼튼해서 안과 밖을 종이로 도배하여 집안에서 의류를 보관할 뿐만 아니라 이동용 운반 도구로도 사용하였다. 이동하기에 편하도록 앞면과 양 측면에 금속제 들쇠를 달고 내용물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물쇠도 달았다. 표면에는 황칠을 하였다. 나무농은 죽기로부터 발전되어 동일한 형태의 두 짝을 포개 사용하였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 장과 유사하나 농에는 들쇠가 달려 있으며, 옹처럼 아래위가 분리되어 구분된다.

또 가옥이 커지면서 가구 수요도 늘었으며, 이에 맞춰 많은 기성품 장과 농이 양산되기에 이르렀다. 조선 후기의 장은 이전의 가구에 비하여 쇠목, 동자주 등 기둥이 굵어지고 알갱이에 사용한 화장재는 얇아졌다. 목농의 경우도 처음에는 판재를 짜서 만든 민농에서 쇠목과 동자로 장식한 수장농修粧籠으로 발전하였다. 현존하는 옛 가구의 대부분이 이 시기에 제작되었다.

특징 및 의의 반상班常의 신분계급과 빈부의 차이가 심한 조선시대에 장과 농은 양반과 부유층의 전유물이어서 매우 귀하였다. 임진왜란 직후 경제 사정의 어려움과 가옥 규제로 말미암아 집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못하여 장과 농을 비치한 가정은 매우 드물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경제 부흥으로 부유한 양반가에서는

장과 농이 필수 혼수품이 되면서 장롱欌籠이라는 합성어가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사람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서는 의류를 수납하는 장이나 농은 필수품이다. 주거 공간의 변화로 장롱의 수요가 예전 같지는 않지만 우리 정서가 듬뿍 담긴 장롱 양식이 현대식 공간에 어우러진다면 고향의 아늑함이 느껴질 것이다.

참고문헌 譯語類解, 譯語類解補, 五州衍文長箋散稿, 林園經濟志, 增補山林經濟, 전통목가구(김삼대자, 대원사, 1997).

필자 김삼대자(金三代子)

장작
長斫

정의 취사 또는 난방을 하는 데 쓰기 위하여 통나무를 쪼개 둔 나무 연료.

개관 가정용 연료로 연탄이 일반화되기 이전에 난방 또는 취사용 연료로 가장 많이 이용된 것으로는 낙엽, 솔가지와 솔가리, 잡목, 갈대, 짚, 왕겨, 숯 등과 함께 장작長斫을 들 수 있다. 1955년 기준으로 보면 가정용 연료의 78.1%가 숯과 장작이고 연탄은 7.4%에 불과하였다. 6·25전쟁으로 산림이 황폐해진 상황에서 연료를 조달하기 위하여 나무를 계속 남벌하자 정부는 산림녹화를 위하여 연탄 사용을 적극 권장하였다. 서울에서조차 남산(목멱산)의 잡목을 가정용 땔감으로 잘라 쓰는 상황이 지속된 가운데 정부는 1960년대에 초반 33개 도시의 장작 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후 가정에서 연탄 사용이 매년 급증하였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여전히 장작이나 솔잎과 같은 자연연료의 사용 비율이 높았다. 1970년 통계청의 주택총조사 결과를 보아도 전국에서 취사용 연료로 연탄을 쓰는 가구와 나무를 때는 가구가 반반이었지만 면 단위의 농촌에서는 85.6%가 나무를 썼다. 이에 따라 1973년 정부는 치산녹화治山綠化 10개년 계획을 세우고 입산통제는 물론 연료 채취 지역과 시기, 방법을 규제하는 한편 농어촌에도 연탄아궁이 보급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1970년대 후반에는 연탄과 석유가 난방 및 취사의 주 연료가 되고, 장작 등 자연연료 비중이 미미해졌다.

내용 전국적으로 보면 1960년대까지도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자연연료 비중이 높았다. 자연연료 가운데 서민 가정에서는 장작보다 짚이나 왕겨, 솔가리나 솔가지 등을 주로 썼다. 화력이 좋은 장작은 경제 사정에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 사용하던 고급 연료였다. 따라서 장작이 어느 정도 쌓여 있는가는 집의 재력을 가늠하는 척도 가운데 하나였다.

장작은 나무 종류나 마른 정도에 따라 화력이 달라진다. 나무가 단단하고 잘 마른 장작일수록 불이 잘 붙고 불꽃이 오래 지속되며 화력이 좋다. 따라서 산에서 베어 온 지 얼마 안 된 생나무보다는 1~2년 말린 나무, 어린 나무보다는 늙은 나무, 봄에 벌목한 나무보다는 겨울에 벌목한 나무가 수분 함량이 적어서 연료로 더 선호되었다. 확보한 장작은 수분이 잘 마르도록 비를 피할 수 있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였다. 주로 처마 밑이나 집의 적당한 공간에 차곡차곡 쌓아 두었다. 장작은 집안 남자 가운데 누군가가 도끼로 패기도 하였지만 품삯을 받고 아궁이에서 불을 때기 적당한 굵기로 장작을 패 주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춥고 긴 겨울을 앞두고 가정에서는 김장을 마치고 땔감을 다량으로 확보해야 월동 준비를 마칠 수 있었



장작 | 경기 용인 한국민속촌 | 국립민속박물관

다. 미리 땔감을 사 두려는 사람들로 인하여 초가을부터 겨울까지는 전국 어느 시장의 나무전[柴炭場]이나 대목을 맞았다. 벼농사를 짓는 농촌에서는 추수하고 난 뒤의 볏짚이나 쌀의 도정 과정에서 나오는 왕겨를 땔감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인근의 산에 가서 직접 낙엽이나 잡목을 긁어 올 수도 있지만 도시에서는 사정이 달랐다. 도시에서는 땔감을 직접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나무전이 더욱 붐볐다. 나무전에는 전날 산에서 해 온 나무를 지게에 지고 나온 등짐 나무장수도 있고 소나 소달구지에 장작 다발을 수북이 싣고 나온 나무장수도 있었다. 그 가운데 소나무나 참나무 장작이 주로 판매되었다. 장작은 단, 바리, 짐, 근, 평 등 다양한 단위로 거래되었다.

특징 및 의의 장작은 취사 및 난방 연료 가운데 가장 고급으로 여겨진 연료였다. 1960년대 이후 산림녹화 정책이 실시되어 도시에서의 장작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고 연탄과 기름 사용이 권장되면서 농촌에서도 아궁이 개량이 추진된다. 이후 신축 주택과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난방 및 취사에 장작을 사용하는 일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참고문헌 1950~1970년대 강경 상인의 존재양상과 상거래 관행 연구(김혜숙,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9), 대한민국을 즐겨라-통계로 본 한국 60년(김영훈·손해용·정경민, 한국통계진흥원, 2008), 한국인 어떤 집에서 살았나(김혜숙 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가정과학14-장작은 어떤 것이 조흔가(동아일보, 1938.2.24), 부엌에도 불어오는 연료 전환(경향신문, 1970.11.21).

필자 김혜숙(金惠淑)

장지문

정의 연이어 있는 방과 방 사이 또는 방과 마루 사이에 설치하는 미세기문.

개관 장지는 조선시대 영건의궤에 주로 '障子'로 표기되었다. 또 기능이나 형태, 문살 무늬 등에 따른 호칭이 그 앞에 추가되는 경우가 많았다. 영건의궤의 용례에서는 장지라는 단어가 문 이외의 용도에 쓰인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의궤에 실린 지벽장지[紙壁障子], 간장지[間障子] 등은 주칸[主間] 한 칸에 걸쳐 만살 형태로 살대를 짠 다음 벽지를 발라 마감한 붙박이 맹장지로 방풍·방한 용도의 가벽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의궤에 나오는 일간거리오봉장지[一間巨里五峰障子]는 창경궁昌慶宮 함인정涵仁亭이나 사묘 건축의 신위를 모시는 뒷벽에 사용되었는데 기둥 사이 한 칸에 걸쳐 맹장지를 짜고 일월과 오봉을 그려 붙박이 병풍처럼 만든 것으로 보인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장지문'을 "지게문에 장지 짝을 덧들인 문"이라 설명하였다. 그런데 같은 사전에서 '지게문' 또는 '지게'는 "옛날



장지문 | 서울 종로구 창덕궁 대조전 | 국립민속박물관



장지문 | 경북 경주 최부자댁 | 서헌강

식 가옥에서, 마루와 방 사이의 문이나 부엌의 바깥 문…….”으로 정의하고 ‘장지’는 “방과 방 사이, 또는 방과 마루 사이에 칸을 막아 끼우는 문…….”으로 정의하여 ‘장지’를 이미 ‘지게문’과 뜻이 겹치도록 정의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표준국어대사전 및 주요 백과사전, 건축용어사전 등에서 표제어 ‘장지’의 뜻으로 서술한 내용을 ‘장지문’의 설명에 그대로 인용해도 무방할 것이다.

내용 장지문은 이어져 있는 방 사이를 둘로 나누거나 방과 마루 사이를 나누기 위한 칸막이 용도로 설치하는 문이다. 거의 방바닥에서 천장 가까이에까지 닿도록 운두가 높은 두 짝 혹은 네 짝의 미세기문 형태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 장지문의 문턱은 낮게 설치하고, 문 상인방은 천장 반자에 가깝게 설치하며, 문틀의 선대는 양측 기둥에 붙여 세워 짜고, 문짝들은 홈대에 끼워 밀고 당길 수 있도록 한다. 장지문을 닫으면 두 방 또는 방과 마루 사이를 분절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쓸 수 있고, 밀어서 가운데를 열면 두 공간 사이에 높직하게 열린 개구부가 생기면서 시야와 출입 동선이 연결된다. 넓은 공간이 필요할 때 아예 장지문을 치우면 애초에 문턱이 낮기 때문에 기둥 사이에 바닥부터 천장까지 툭 트인 하나의 공간으로 쓸 수 있다.

장지는 주로 문울거미에 살대를 짜 넣고 창호지를 발라 만든다. 실내공간의 큰 면을 차지하므로 아자, 완자, 숫대살 등으로 공들여 꾸미기도 한다. 또 장지의 형식을 세분하는 용어로 한쪽 면에만 창호지를 발라 빛이 통하고 살대가 드러나는 명장지[明障子]와 양쪽 면에 모두 창호지를 발라 빛이 통하지 않는 맹장지[盲障子]가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 의궤에서는 맹장지라는 용어만 1900년대 이후에야 등장하고 명장지라는 용어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맹장지는 1900년대에 새롭게 등장한 단어이며, 명장지는 맹장지에 반대되는 속성의 장지를 총칭하고자 그 후에 만든 말로 생각된다.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서는 장지의 제작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서유구徐有榘는 『임원경제지』에서 장지를 ‘粧子’라 표기하고 방과 대청마루의 경계에 문살의 간격을 넓게 만든 쪽문을 네 짝이나 여섯 짝으로 설치하는데 안팎으로 모두 전후지錢厚紙, 즉 엽전 두께의 두꺼운 종이를 바른다고 하였다. 서유구가 설명한 장지는 현대어의 맹장지에 해당한다. 서유구는 장지가 종이로 만들어져 구멍이 뚫리고 도둑을 막지 못한다고 생각하였다. 이 때문에 서유구는 틈 없이 배열한 널빤지와 얇은 문살을 못으로 붙인 다음 종이를 바를 것을 제안하였다. 즉 겉은 종이로 싸서 발랐지만 문 안쪽은 판자로 모두 막은 형태이다.

특징 및 의의 조선 왕조 의궤에서 장지는 개폐 및 이동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울거미와 살대 위에 종이를 발라 만든 칸막이의 통칭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 주거에서 장지 또는 장지문은 주로 방과 방 사이, 방과 마루 사이를 나누고 여닫거나 치워 둘 수 있는 칸막이 용도의 문을 나타내는 등 이들은 한국 주거의 가변적 공간 사용을 위한 중요한 장치이다.

참고문헌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김왕직, 동녘, 2007), 영건의궤(영건의궤연구회, 동녘, 2010), 임원경제지-섬용지1(서유구, 임원경제연구소 역, 풍석문화재단, 2016), 한국건축대계1-창호(장기인, 보성각, 1993), 한국건축대계4-신편 한국건축사전(장기인, 보성각, 2005), 한국의 문과 창호(주남철, 대원사, 2001).

필자 이우종(李雨鍾)

장판
壯版

정의 전통가옥의 온돌방의 바닥 마감 재료.

내용 장판壯版은 전통가옥의 온돌방의 바닥 마감 재료다. 조선시대 사대부 고택은 실내 벽과 천장, 바닥에 한지를 발라 마감하였다. 특히 과거 전통가옥의 바닥은 화목을 이용하여 바닥을 데 피우는 난방방식을 취하였으며, 온돌방 방바닥에 장판지를 깔아 마감하였다. 이와 같이 방바닥 마감 공사는 도배공이 작업을 진행하며, 이 도배공은 장판지뿐만 아니라 벽지와 천

장 등의 마감일을 한다.

방바닥의 장판지 수장공사는 바닥 고리기, 풀칠, 초배 또는 재배를 한 후 두꺼운 장판지(한지)로 정배를 한다. 마지막 작업은 장판지에 기름을 메기는 작업으로, 목적은 장판지에 기름피막을 형성하여 이 물질이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종이가 귀하던 시기 종이 장판지는 경제력을 보여 주는 재료이며, 여유가 없는 살림집의 경우 멍석이나 짚을 깔기도 하였다. 현대화된 오늘날 장판지는 다양 재료로 다양한 형태로 생산되어 실내바닥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옥에 사용하고 있는 장판지는 한지를 여러 겹 붙여 만든 장판지를 말한다.

전통 온돌 구조의 방바닥은 구들을 놓은 후 황토미장으로 마감하였기 때문에 표면이 매끄럽지 않다. 장판을 깔기 전에 바닥 청소를 해야 한다. 과거 바닥 청소는 사발을 엎어 표면을 문질러 오톨도톨한 모래 또는 흙 알갱이를 제거하였다. 이 작업을 하지 않고 초배지와 재배지, 장판지를 깔면 바닥으로 뾰족하게 올라온다. 이와 같은 작업은 초배지와 재배지를 바른 후에도 작업을 반복한다. 한지 장판지 깔기 작업 시 풀칠은 풀이 고르게 묻도록 하고, 종이의 흡수 및 늘어남이 균일하게 되도록 빨리 칠하며, 두꺼운 장판지 등은 부드럽고 풀이 잘 먹도록 물을 뿌려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풀칠을 고르게 하여 붙인다.

초배는 바탕 풀칠 및 풀칠의 기법에 따라 주름살이 없게 이음새를 맞추어 붙인다. 초배지가 완전히 건조된 후 요철면을 정리한다. 재배지는 이음솔기가 일정하게 하며, 초배지의 이음부와 엇갈리도록 한다. 마지막 정배는 장판지를 붙인 작업으로, 온돌 바닥이 완전히 건조된 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장판지는 헝겊으로 중앙에서부터 갓 둘레로 풀을 밀어내듯이 붙이고 주름살, 기포 등이 없게 마른 천이나 사발 등으로 평활하게 밀어붙인다. 이음새는 줄바르고, 겹침 부분과 바닥과 벽면 경계 부분은 일정하게 폭으로 당겨 붙이고, 구석, 모서리의 각도 들뜨지 않도록 정확히 눌러 붙인다. 장판지 바닥은 콩댐을 하고 생으로 짠 들기름을 먹여 마무리한다.



장판 | 전남 영광 매간당 고택 | 정연상



장판 | 서울 종로구 운현궁 | 국립민속박물관

특징 및 의의 장판은 실내 온돌 바닥의 마감 재료로서 좌식생활을 주로 하는 공간에서 볼 수 있다. 과거 전통가옥은 대부분 종이 장판을 주로 사용하였지만, 오늘날 현대가옥은 종이 장판 이외에 다양한 현대적 재료로 만든 장판을 사용하고 있다. 종이 장판은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가옥이나 현대 한옥의 온돌방바닥 마감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참고문헌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김왕직, 동녘, 2007),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한옥(신영훈, 현암사, 2005), 집짓는 법(김종남, 돌베개, 2011).

필자 정연상(鄭淵相)

적산가옥
敵産家屋

정의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일본이 한반도에서 철수한 후 미군정 및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되었다가



일본식 가옥 | 경북 영천 | 문화재청



구 인천일본제18은행지점 | 인천 중구 | 문화재청

일반에 불하된 일본인 소유의 주택.

내용 적산敵産이란 적의 재산이라는 의미로, 우리에게는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한반도에 남겨진 일본인 소유의 재산을 일컫는다. 일본의 항복 선언 이후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하여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미군은 군정을 실시하면서 군정법령 제2호 <패전국 정부 등의 재산권 행사 등의 금지>(1945. 9. 25. 시행)에 의거하여 패전국의 재산권을 접수하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군정법령 제33호 <조선 내 소재 일본인 재산 취득권에 관한 건>(1945. 12. 6. 시행)에서는 1945년 8월 9일 이후의 일본인 재산은 1945년 9월 25일부로 조선 군정청이 취득하고 조선 군정청이 그 재산 전부를 소유하는 것으로 되었다(제2조).

미군정에 의하여 접수된 귀속재산은 1946년부터 민간에 불하되기 시작하였다. 1946년 6월에는 중앙과 각 도에 귀속재산 매각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2월에는 중앙관재처에 적산주택평가위원회 등을 설치하는 한편 각 지역에도 유사한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미군정에 의하여 접수된 귀속재산 중에서 이미 불하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한·미 간에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 정부 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1948. 9. 20. 발효)이 체결되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되었다. 한국 정부는 법률 제74호로 <귀속재산처리법>(1949. 12. 19. 공포)을 제정하였고, 이어서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각각 제정·공포하였다.

귀속재산 불하는 광복 후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되었다. 당시 신문에서 적산의 관리, 처분, 점유, 임대, 주택난 등과 관련된 많은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신문기사에서 나타난 '적산가옥'이라는 용어는 일본인 소유의 주택뿐만 아니라 상점과 회사 등 일본인 소유 건축물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구조, 재료, 용도, 양식 등에서 차별성을 띠는 특정 주택이나 건축물을 일컫는 전문 용어라기보다 귀속재산 불하와 관련된 사회·경제적 의미에서 사용된 용어였다. 그러나 광복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서 적산가옥은 의미가 변형되어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주택을 일컫는 일종의 건축 용어가 되었다. 또한 2000년대 이후 일제강점기 건축 유산 일부가 카페나 숙박시설 등으로 활용되면서 적산가옥은 소비문화와 연관되어 사용되기도 하고, 일제 잔재와 관련되어 일종의 청산 대상으로 인식되는 정치·사회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특징 및 의의 적산가옥에는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포함된다. 적산가옥은 광복 이후 우리 주거문화와의 차이에 따라 점차 변형되고 소멸되어 왔다. 현존하는 적산가옥의 일부는 일제강점기를

입증하는 네거티브 헤리티지negative heritage로,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부유층이 거주한 규모 큰 일본식 단독주택이나 철도, 관공서, 은행 등 기관에서 조성한 관사가 있다. 또한 소규모 주택이 연속된 연립주택 형태나 상점의 2층 또는 배면에 지어진 상가 병용 주택 등도 있다. 일제강점기 후반에는 도심 외곽에 대규모 주택 단지가 개발되기도 하였다.

적산가옥은 주로 일본식 목조주택 양식으로 지어졌지만 서구식 목조건축 기법이 가미되고 서양식 응접실이나 한국식 온돌방이 결합되어 주거문화가 융합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적산가옥은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주택이나 건축물을 지칭하는 데 적절한 용어는 아니다.

참고문헌 적산가옥(안창모,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적산가옥(이연경, 건축63-7, 대한건축학회, 2019), 중요 공개기록물 해설집5-국세청·성업공사 편(국가기록원 기록정부서비스부 공개서비스과, 2012), 한국 근대 주거론(박용환, 기문당, 2010).

필자 송석기(宋石基)

전세
傳貰

정의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임대차 유형.

내용 세입자가 집주인(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맡기고 그 집에 계약기간 거주하는 임대차 형태를 말한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받아 수익을 내거나 주택 구입자금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다. 전세 기간이 끝나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수익금이 월 임대료를 대신하는 것이다.

전세보증금은 거주에 따른 임대료 성격이라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전세와 월세가 융합된 반전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목돈으로 내고 차액을 매월 월세로 납부하는 형태를 말한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반전세라는 용어가 활용되고 있으나 한국감정원이 생산하는 부동산 통계에서는 준전세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준전세는 전세에 가까운 형태로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를 초과하고 대푯값이 480개월(배), 전세금 대비 보증금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세제도의 기원에 대해서는 '전당'에서 발전되어 왔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고려시대에 이미 전세제도의 전신인 전당이 행해져 왔음이 『고려사』에 나와 있다. 전당제도는 중국으로부터 도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조일수호조규 체결 이후 부산에 이어 인천과 원산의 개항으로 주민 이동이 빈번해지면서 서울 인구가 급증하여 주택수요가 증가한 것이 가옥의 전세 관계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론된다.

전세 계약 기간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최소 2년이 보장된다. 전세권 설정도 가능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며, 대부분 확정일자로 대체한다. 2018년 현재 점유형태별 비중은 전세 15.2%, 자가 57.7%, 보증금 있는 월세 19.8% 등이다.

특징 및 의의 전세제도는 세입자가 월 임대료를 내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 세입자에게 유리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집주인은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대신에 전세를 활용할 수 있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경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세는 또한 전세 사기나 집주인의 파산, 사망 등으로 전세금 반환이 몇 년 이상 지체되거나 날릴 위험을 세입자가 부담하는 문제점도 있다. 고금리와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경험한 한국에서 전세는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특징적인 점유 형태로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세는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목돈을 만들어 내 집 마련을 용이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세가 감소하고 있다. 이는 주택대출시장 확대로 전세의 사금융 기능이 감소하였고, 집주인들이 매월 임대수익이 보장되는 월세나 보증부월세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의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전세의 역사와 한국과 볼리비아의 전세제도 비교분석(김진유, 국토연구85, 국토연구원, 2015), 존폐기로의 전세제도(남원식·봉인식·장윤배, 이슈&진단112, 경기개발연구원, 2013), 한국전세권법연구(윤대성, 한국학술정보, 2009), 국토교통부 통계누리(stat.molit.go.kr).

필자 천현숙(千賢淑)

전원주택
田園住宅

정의 녹지나 농경지 등이 있는 교외나 농촌지역에 거주하기 위하여 지은 주택.

역사 1990년대 이전까지는 교외 또는 농촌지역에 있는 주택을 별장, 주말주택이라고 호칭되며 경제 및 시간 여유가 있는 계층이 계절에 한정하여 사용하거나 주말에 사용하는 주택 의미로 사용하였다. 1990년대 초고층아파트 위주의 주택 공급에 따른 단독주택 수요의 증가, 도시외곽으로의 주거지 확산, 자가용 보급으로 인한 통근권 확대,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 등으로 녹지가 풍부한 도시 외곽에 전원주택田園住宅이 건설되면서 상시 거주하는 단독주택 의미로 사용되었다. 중산층 증가로 정부도 1994년 준농림지의 개발 규제를 완화하여 전원주택 개발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전원주택 거주자들은 매일 반복되는 장거리 통근에다 불편한 교통문제, 편의시설 부족, 친지와의 교류 단절 등 문제로 다시 대도시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1997년 외환 위기와 함께 경제적 부침을 겪으면서 주택시장에서 전원주택 공급이 급속히 감소하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공간 제약을 줄이는 교통 및 정보통신의 눈부신 발달, 가치관의 다양화와 고도화, 주 5일 근무 정책 시행에 따른 여가시간 증가 등의 요인에 의하여 자연환경에서 휴식과 치유 효과를 누리기 원하는 수요가 급증하였다. 2010년대에는 전원생활에 대한 요구가 높은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되었고, 도시와 농촌을 오가며 거주하는 멀티해비테이션multi-habitation 생활 양식이 나타났다. 정책 측면에서 도농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귀농·귀촌정책을 강화하면서 전원생활을 원하는 가구에게 농촌지역에 마을 단위로 전원주택을 공급하는 전원마을조성사업이 추진되어 원거리에 전원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여건이 증대하였다. 주택공급 업체들도 도시 외곽에 단지 형태로 전원주택을 공급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내용 전원주택은 녹지나 농경지 등이 있는 교외에 위치한다는 입지 개념으로 사용된다. 전원주택에 대한 관점은 2000년대 이전과 이후로 구분된다. 2000년대 이전에는 반도시 생활로 전원에 상주하였다면 2000년대 이후는 도시와 전원을 왕래하거나 전원에 살면서 인접한 도시의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생활 양식이 나타나며, 전원지역이 도시와 원거리인 경우도 증가하였다. 도시와 농촌 등 다른 지역을 오가며 사는 거주 형태를 멀티해비테이션이라고 한다. 개인이 전원주택으로 이주하는 것과 달리 도시에 있는 주택과 전원주택을 오가는 생활도 이러한 거주 형태에 속하며, 수요가 점차 늘고 있다. 거주자가 전원주택에 대한 요구로 귀촌한 경우는 농업을 수입원으로 하는 농가주택과 구별된다.

전원주택에 대한 연구는 전원주택의 개발 방식, 건축 특성, 주거만족도 등에서 이루어져 왔다. 멀티해비테이션 관점에서 전원주택 실거주자의 입주 동기, 주택 특성, 생활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 전원주택 유형은 개인이 건설하는 단독주택 형태의 개별형, 주택공급자에 의한 교외지역 단지형 단독주택, 농촌지역 귀촌자를 위한 전원마을, 기존 농촌마을에 위치한 주택 등이 있다.

전원주택은 시간의 여유가 있는 중산층의 수요가 많다. 전원주택 거주자의 주거 가치는 자연선호, 건강, 가족중심주의 등 성향이 높다. 전원주택에 대한 요구가 높은 가구는 자연환경이 풍부하고 마당이 있는 주택에서 아이를 기르고 싶은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시간 및 경제 여유가 있는 가구, 자녀 독립기에 속한 가구 등이다. 연령층에 따라 전원주택을 택하는 특성에 차이가 있다. 젊은 층은 자녀 양육기에 자연 환경에서 자녀를 기르기를 원하여 교육 및

편의시설 접근성이 높은 지역을 선택하며, 은퇴층(자녀 독립기에 속한 가구)은 노후에 건강과 심리 안정을 위하여 농촌지역을 선택한다.

특징 및 의의 전원주택은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 형태가 많으며, 도시의 단독주택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목구조·친환경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공간계획 측면에서도 가족 수를 고려하여 적절한 주택 면적으로 하고 마당을 넓게 확보한다. 거실·부엌·식당을 일체화하여 평면의 중심에 두고 여가 공간을 배치한다.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연결성을 높게 하고 야외활동 공간을 중시한다. 이러한 공간계획을 통하여 가족 중심, 실용 및 편의 중심 생활양식을 추구한다.

참고문헌 내용분석을 통한 전원생활 및 전원주택의 패러다임 변화에 관한 연구(김유나·최정민, 한국지역개발학회지25-1, 한국지역개발학회, 2013), 단지형 도시근교주거의 실태 및 주거계획에 관한 연구(송빛나·주서령,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14-5,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05), 멀티해비 라이프스타일 실천자의 전원생활 정착과정에 관한 연구(최정민, 한국주거학회논문집24-4, 한국주거학회, 2013), 중도시 근교 전원주택의 건축적 특성(박경옥·변정녀,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15-5, 대한건축학회, 199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박경옥(朴庚玉)

전자레인지

정의 음식물에 포함된 수분에 전자기파를 투과하여 음식을 데우거나 해동 또는 조리하는 데 쓰는 가전제품.

내용 한국에서 국산 전자레인지microwave가 처음 등장한 시기는 1979년이다. 같은 해 8월 삼성전자에서 판매를 시작하였다. 음식을 가열하여도 타거나 눋지 않고 남은 음식을 다시 데워서먹을 수도 있는 혁신형 주방기기라고 소개하였다. 또한 당시 가정의 일반 조리열인 연탄 및 가스와 비교하여 전자레인지의 조리 속도가 연탄과 가스보다 각각 7배 및 3배 빠르고 연료비는 연탄의 2분의 1, 가스 기구의 5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선전하였다. 이 전자레인지 1대 가격은 39만 5,000원이었다. 당시 10인용 전기밥솥이 1만 5,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고가의 주방 가전제품이었다.

1970년대 후반 국내에는 이미 도시의 제과점이나 경양식 음식점 등에 상업용 전자레인지 400여 대가 보급되어 있었다. 그러나 일반인에게 전자레인지는 듣도 보도 못한 낯선 물건이었고, 판매장에 전시된 전자레인지를 보고 새로 나온 텔레비전으로 착각할 정도였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시판 초기에 삼성전자는 먼저 전자레인지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리는 데 힘썼다. 이에 1979년에는 서울 시내 백화점과 전국의 요리학원 등에서 가정주부 대상으로 전자레인지의 특성과 사용법을 소개하고 실제로 조리 과정을 보여 주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삼성전자에 이어 대한전선(현재 대우전자)이 1980년, 금성사(현재 LG전자)가 1981년에 전자레인지를 본격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전자레인지 시장이 경쟁 체제에 들어가면서 1982년 삼성전자에서는 광고를 본격하기 시작하여 당시의 유명 요리연구가 왕준련·하선정을 강사로 초빙하여 서대문, 영동, 반포, 잠실, 여의도, 압구정동 등 서울 시내의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순회하면서 전자레인지를 활용한 요리강습회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여자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가정학과 및 식품영양학과에는 실습용으로 전자레인지를 무료로 기증하여 학생들이 직접 사용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국내에 레토르트retort식품이나 냉동식품 시장이 거의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자레인지의 용도는 매우 한정되었다. 높은 가격으로 구입한다 하여도 가정에서는 주로 식은 음식을 데우는 데 쓰는 정도였다. 이로 인하여 전자레인지의 보급 속도는 매우 느렸고, 1987년 말 기준으로 가정 보급률은 6.4%에 그쳤다. 가정용 판매를 늘리기 위하여 삼성, 대우 등 가전업체에서는 저렴한 가격의 전자레인지를 출시하는 한편 1989년에는 한국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한국형' 전자레인지를 개발하였다. 대우전자의 경우 쌀밥·잡곡밥·현미밥 등 밥, 죽, 된장국·북엇국·콩나물국·미역국 등 국, 된장찌개·두부찌개·김치찌



전자레인지 | 1980년대 | 국립민속박물관

개·생선찌개 등 찌개, 갈비찜·닭찜·북어찜·계란찜 등 찜, 생선조림·장조림·두부조림·감자조림 등 조림과 같은 한국음식을 버튼 하나로 조리할 수 있는 전자레인지였다.

보급형 전자레인지 출시에 발맞춰 1989년 무렵에는 전자레인지용 식품 개발에 식품업체가 힘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다양한 종류의 전자레인지용 식품이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전자레인지의 효용성이 점차 높아졌다. 이미 1980년대에 레토르트식품과 냉동식품이 출시되어 있었으나 전자레인지 보급률이 낮다 보니 이러한 식품 판매가 활발하지 않았다. 1980년대 초반 국내에 등장한 레토르트식품으로는 짜장, 카레, 삼계탕, 미트볼, 햄버거, 단팥죽, 잣죽 등이 있었다. 이러한 레토르트제품은 포장째 뜨거운 물에 3분 정도 끓이면 바로 먹을 수 있지만 전자레인지에 가열하면 훨씬 신속하고 편리하므로 전자레인지 보급이 판매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전자레인지로 바로 익혀 먹을 수 있는 반조리 냉동식품 역시 마찬가지이다. 냉동식품은 식품을 급속동결시켜 영하 상태에서 보존시키는 포장식품이다. 1980년 냉동만두로 시작한 이래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보급과 함께 수요가 증가하였고, 돈가스·피자·햄버거·냉동만두·핫도그·크로켓 등이 생산되었다. 이러한 레토르트식품이나 냉동식품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일상에서 소비되었고, 상온 즉석밥을 포함하여 전자레인지용 식품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가정에서도 전자레인지 이용이 많아졌다. 2016년 현재 국내 전자레인지 보급률은 90%를 넘었으며, 편의점 확산과 1인 가구 증가로 인하여 전자레인지용 식품 이용은 크게 활성화되었다.

특징 및 의의 1979년에 국산화된 이후 1980년대를 거치며 가정에 보급된 전자레인지는 레토르트식품·냉동식품 시장과 함께 성장하여 왔다. 2000년대 이후로는 전자레인지용 식품 종류가 다양하여지고 가정간편식 시장이 커지면서 전자레인지는 가정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면서 가정에서는 전자레인지를 설치할 가구를 별도로 구매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기존에 쌀만 보관하던 쌀통에서 전자레인지를 올려놓을 수 있도록 받침대와 전기배선을 설치한 레인지대 겸용 쌀통이 나와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쌀 소비가 감소하여 쌀통 사용이 줄자 쌀통 대신 수납공간과 전자레인지대를 겸용하는 가구가 등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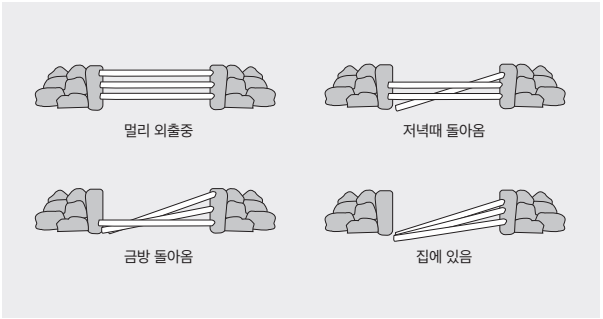
참고문헌 한국인 무엇을 먹고 살았나(양미경 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한국인 어떤 집에서 살았나(김혜숙 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겨울성수품 품목별 가격·수급동향을 알아본다-주방기기(매일경제, 1979.11.5), 녹아버린 초콜릿에서 시작된 전자레인지 … 1초 25억번 전자파 진동(조선비즈, 2016.8.18), 삼성전자 전자렌지 시판(매일경제, 1979.8.1), VTR·전자레인지 판매 주력 컬러TV·냉장고 내수 한계로(매일경제, 1988.4.19).

필자 김혜숙(金惠淑)

정낭

정의 거리길에서 집으로 이어지는 올레(골목)의 끝부분에 세 개의 구멍이 뚫린 돌을 양옆에 세우고 여기에 대문 대용으로 구멍에 걸쳐 놓은, 다소 거칠게 다듬어진 굵은 나무.

개관 제주 지역 전통가옥은 지형과 기후 조건으로 인하여 한국 전통건축에서 적용되어 온 풍수지리 사상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 바람과 빗물의 흐름, 지형 조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집터를 정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리길에서 집 안으로 이어지는 길들은 굽어지고 휘어져 제주 지역 전통건축 요소의 하나인



정낭의 의미



정낭과 정주석 | 제주 | 국립민속박물관

올레가 형성되었다. 이 올레를 중심으로 제주 전통건축의 출입 공간은 기승전결의 단계별 영역 성격을 띠고 있다. 도입부는 거리길에서 집으로 진입하는 양측이 돌담으로 축조된 좁은 보행길인 올레이다.

전곡부는 올레가 꺾이는 부분인 올레목으로, 길의 방향이 바뀌는 공간이다. 발전부는 마당공간으로 이어지는 부분이며, 종결부는 장독이 놓인 여성의 공간이자 정태 공간인 안뒤꼍과 집 안으로 이어지는 부분이다. 중요한 부분은 도입부이다. 이곳에는 영역을 표시하는 여러 장치가 놓인다. 올레가 시작되는 길의 모퉁이를 '어귀'라 하며 여기에 '어귀돌'이라는 큰 돌을 쌓는다. 만약 대문이 없는 경우에는 '어귀'에서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대문 대용으로 돌을 세우고 여기에 나무를 걸쳐 놓는다. 이것이 정낭이다. 즉 걸쳐 놓은 세 개의 나무를 지칭하는 것이다. 정낭은 목축 위주로 생활한 중산간中山間(표고가 200~600*m*인 지역으로, 경관·생태·지하수 등을 집중 관리하고 있는 지역) 취락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내용 정낭은 도입부에 해당되는 올레의 어귀 안쪽에 대문을 대용하여 양측에 세워진 돌, 즉 정주목의 세 구멍에 걸쳐진 나무를 말한다. 그러나 대개는 대문 그 자체를 일컫기도 한다. 대문 기능을 하는 정낭은 돌과 나무로 형성된 일종의 신호 체계이다. 밭일이나 집안일로 집을 비울 때 방문객에게 집주인의 위치를 암묵으로 알려주는 배려의 상징이다. 즉 정낭에 걸쳐진 세 개의 나무 가운데 맨 아래 나무 하나만 끼워져 있을 때는 마을 안에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두 개가 끼워져 있을 때는 이웃마을에 있음을, 세 개가 끼워져 있을 때는 다소 먼 곳으로 나가 있어 부재중임을 알리는 신호이다.

특징 및 의의 정낭의 설치 배경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기능이 여러 가지인 것은 사실이다. 첫째 공간 활용의 편리성이다. 중산간 취락에 정낭이 많은 것은 목축 활동에 편리하면서도 소와 말이 집 안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즉 대문을 설치해서 열고 닫는 번거로움보다는 항시 개방 공간을 유지함으로써 기자재 및 수확물 운반 등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둘째 소통 문제 해결이다. 생명수라 할 수 있는 용천수를 중심으로 주택들이 모여 있는 해안마을과 달리 중산간 취락은 용천수가 많지 않고, 대부분 빗물을 받아 사용한 봉천수를 중심으로 널리 흩어져서 목축 생활을 하여야 하는 공간 특성상 활동 반경이 넓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집집마다 부재 여부를 전달할 수 있는 간편한 신호 수단이 필요하였을 수 있다. 정낭은 세 개의 나무를 이용하여 집주인이 대략 어디에 있으며 언제쯤 귀가할 것인지를 전달하는 신호 수단인 셈이었다. 방문자 입장에서 보면 대문이 없으니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기 난처하고 게다가 초인종이 없어 자신의 방문 여부를 알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낭으로 집주인의 외출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다. 삶의 지혜가 묻어 나는 제주 지역만의 독특한 대문 형태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제주도민속자료(제주도, 1987), 한국의 발견 제주도(강용권 외, 뿌리깊은 나무, 1984).

필자 김태일(金泰一)

정원
庭園

정의 집에 딸린 뜰이나 동산.

개관 우리의 옛 기록에 나타난 '정庭'은 담장 안의 뜰을 의미하며, '원園'은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과수를 심은 동산을 말한다. '원園'과 관련된 한자로서 '유囿'와 '포圃'가 있다. '원유園囿'는 꽃나무와 새·동물을 기르는 땅, '원포園圃'는 여러 가지 오이·과수·채소를 심고 기르는 땅이다. 또한 '원園'이 일반주택의 동산을 뜻한다면 '원苑'은 궁궐에 속한 동산을 말하며 이곳은 금수禽獸를 놓아기르는 곳인 '원유苑囿'이기도 하다.

정원이라는 용어가 처음 쓰인 것은 조선시대 숙종 때이다. 『숙종실록肅宗實錄』 권59(숙종 43년, 3월 13일 무진)에 따르면 '정원庭園'은 일반 민가의 정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결국 '정원庭園'은 과수·꽃 등을 심은 일반 집 안에 있는 뜰과 동산을 말하며 '정원庭苑'은 동물을 기르고 식물을 기르던 궁궐, 곧 나라의 뜰과 동산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 정원이라는 용례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19세기 후반 일본에서 서양의 'Garden'을 번역하여 우리나라에 건너온 용어라는 설은 정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정원이라는 용어보다 '원림園林'이라는 용어가 절대 다수로 많이 나타난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이전까지 원림이라는 용어가 널리 쓰여왔다고도 볼 수 있다. 원림과 정원을 구분하여 인식하는 것은 전통 정원과 현대 정원을 이해하는 데도 필요하다.

내용 1. 궁궐 정원: 고조선시대부터 자연숭배 사상이 지배하여 천신에 제사를 지내는 행사가 많았다. 궁궐은 이러한 제사를 위한 장소였고, 자연숭배의 일환으로 나타난 것이 신림神林이다. 신림으로는 신라의 계림鷄林과 신유림神遊林이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성황림이 있었다. 고구려시대의 평양 안학궁은 동서남북 성문 내에 원림이 조성되었고, 그 주변에 연못과 괴석을 배치하였다. 백제의 왕궁의 풍납토성 유적이 남아 있는 궁남지宮南池는 궁 남쪽에 못을 파고 방장선산方丈仙山을 상징하는 섬을 못에 조성한 뒤 주변에 버들을 심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궁궐 조경에서 신선 사상이 처음 나타난 사례이다. 신라 왕궁의 경우 월성의 동쪽에 동궁이 조성되었다. 그곳에 안압지를 조성하였다. 연못 안에는 신선사상에 의하여 삼신산을 상징하는 3개의 섬이 있고, 연못의 북쪽과 동쪽에는 무산십이봉巫山十二峰을 상징하는 석가산石假山이 조성되었다. 고려시대 궁궐 정원에서도 석가산을 조성하고 그 곁에 작은 정자를 지었으며, 괴석을 모아 선산仙山을 만들고 물을 끌어들여 비천飛泉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의 정궁인 경복궁의 경우 왕비의 정침인 교태전 후원에 단을 쌓아 선산인 아미산을 상징하는 화계를 조성하여 꽃을 심고 괴석, 석지, 돌확, 꽃벽돌로 쌓은 굴뚝을 배치하였다. 조선시대 이궁으로 조성된 창덕궁에는 한국 전통정원의 정수를 보여 주는 드넓은 후원後苑이 있다. 이곳에는 정자를 비롯한 각 건축물과 여섯 개의 연못이 조성되었다. 정자와 연못가에는 괴석을 배치하였고, 괴석 모두 석분에 심었다. 또한 후궁 처소인 낙선재에는 조선왕궁 중 가장 화려한 후원이 조성되어 화계, 괴석, 정자 등이 배치되고 꽃담으로 둘러져 있다.

2. 주택 정원: 조선시대 주택의 조경 요소로 우선 마당이 있다. 안채가 있는 안마당은 보고 즐기는 대상이 아니라 가사와 의례 등을 행하는 생활공간이므로 별다른 조경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안채의 뒤쪽 공간은 여성의 전용 공간으로, 화계를 조성하여 사계절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였다. 가장과 남성 손님의 공간인 사랑마당은 석가산을 만들거나 방지원도형의 연못을 파서 꾸몄고, 장대석을 이용하여 정원을 꾸미기도 하였다. 주택 정원에서 경관을 도입하는 방법으로는 자연경관 속으로 들어가 노니는 방법과 자연경관을 주택 안으로 끌어와 즐기는 방법이 이용되었다. 주택 정원에 심은 식물은 상징성이 중요하게 여겨져 의도해서 식재되었다. 정원에 식물을 심을 때는 수종뿐만 아니라 장소도 제한시켜 금기되는 수종과 권장



부용지 | 서울 종로구 창덕궁 | 국립민속박물관

되는 수종이 있었다. 민간주택의 정원에서는 보고 즐기는 효과를 노리기 위하여 물을 모아 두는 지당池塘, 물을 떨어뜨리는 폭포, 물을 흐르게 하는 수로 등이 애용되었다. 돌로 만든 점경물도 석가산, 괴석, 석지, 석분, 식석 등의 형태로 활용되었다.

3. 별서 정원: 별서는 살림을 하는 본집 밖의 경치 좋은 곳이나 들 같은 곳에 한적하게 지은 집이다. 조선시대의 별서는 세상 이목을 피하여 번거로움 없이 지내려는 피세의 보금자리였다. 우리나라 별서 정원의 대표 작품으로는 담양 독수정 원림, 남원 광한루 경원, 담양 소쇄원, 영양 경정 서석지원, 단양 명옥헌 원림, 화순 임대정, 완도 보길도 부용동 원림, 함안 화환정 국담원, 진도 운림산방 등이 있다. 별서 정원에는 대부분 연못을 설치하였다. 형태는 네모난 것이 많고, 연못 중앙에는 둥근 섬을 두고 있다. 또한 연못 주변에 사절우四節友인 매화나무, 소나무, 국화, 대나무를 많이 식재하여 선비의 변치 않는 절개를 상징하고 있다. 경상도 지역의 별서는 담장으로 둘러싼 네모 공간 속에 거의 여백을 두지 않고 연못으로 채우고 있으나 전라남도의 원림에서는 연못이 조경 요소의 일부로만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4. 사찰 정원: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경주 불국사佛國寺의 청운교와 백운교 앞에 구품연지九品蓮池가 조성되었다. 연지의 전체 모습은 타원형이며, 물이 동측 축대에 돌출된 석루조石漏槽를 통하여 축대 앞으로 떨어져 폭포를 이루면서 연못으로 흘러들게 하였다. 도선선사가 창건한 순천 선암사仙巖寺에는 타원형 연지인 삼인당三印塘이 있다. 불교가 국교인 고려시대에는 왕실의 힘을 빌려 크게 중흥되었기 때문에 사찰 정원도 화려하게 치장되었다. 주로 목련·작약·연 등 화훼류의 식물과 송松·죽竹·백栢·삼杉·회檜 등 상록수 및 침엽수를 심고, 괴석에 연지蓮池 또는 지소池沼가 있었다는 기록이 많다. 대표적인 사찰 정원으로는 관란사觀瀾寺와 문수원文殊院 남지南池가 있다. 특히 문수원은 강원도 춘천 청평사의 원래 이름이다. 남지南池는 사다리꼴 모양의 상지上池와 하지下池 두 연못으로 구

분되어 있어서 계류의 물이 상지에 들어오면 토사가 가라앉고 맑은 물만 하지로 유입되도록 되어 있다. 고려시대에 창건된 양주 회암사檜巖寺는 화계에 조성된 폭포와 물길이 독특한 정원을 구성하고 있다. 절터 맨 뒤의 골짜기에 흐르는 시냇물 줄기에서 한 가닥 물길을 뽑아 경내의 여러 전각과 시설 사이의 화계를 통하여 흘러내리게 하였다. 또한 파주 혜음원지惠蔭院址는 뒷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적절하게 가두었다가 건물 주변을 흐르게 하면서 아래로 흘려보내는 방식이 매우 뛰어나다. 이러한 광경을 옆 건물에서 감상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도 하였다.

5. 서원 정원: 서원은 16세기부터 조성되었다. 조선의 유학자들은 중국의 주자가 1183년 무이구곡武夷九曲에 건립한 무이정사武夷精舍가 최고의 이상향이었다. 따라서 서원을 건립할 때 이를 본떠 조영하려 하였다. 1542년 최초로 건립된 영주 소수서원紹修書院에는 죽계竹溪, 제월교齊月橋, 경렴정景濂亭, 광풍대光風臺 등의 정원시설이 있다. 안동 도산서원陶山書院은 1557년 이황이 서당을 짓고 그 후 서원이 되었다. 이곳에는 연꽃을 심은 정우당淨友塘, 방지와 몽천蒙泉이란 샘, 매화·대나무·소나무·국화를 심은 절우사節友社, 조망을 하던 동대·서대 등이 있다. 경주 옥산서원玉山書院에는 1572년 이언적이 건립한 독락당獨樂堂이 있다. 이곳의 계간溪澗에는 계정, 세심대, 용추 등 아름다운 정원이 있다.

6. 능원 정원: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에는 고구려 무덤은 돌로 봉분을 만들었는데 주위에 소나무, 잣나무 등을 심어 울창하였다고 전해진다. 고구려 고분이나 신라 왕릉의 주위는 모두 송림으로 되어 있으며, 고려시대와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온다. 풍수사상이 풍미한 이후의 유택 위치는 풍수사상 지세에 따라 크게 작용하였으며, 집을 짓는 지세와 다르게 앞이 막히고 아늑한 공간이 묘지의 명당이었다.

특징 및 의의 서양의 정원은 인간 중심의 기하학 형태를 띠고 평면에 분수·조각 등을 중심으로 설계되는 데 반하여 동양의 정원은 자연스럽게 구부러진 나무와 길, 연못 등 곡선을 이용한 형태로 자연 중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표현한다. 중국은 정원 내에 건물이 많고 건물 규모도 매우 커서 정원을 돌아다니며 감상하도록 회화 형태의 경관을 만들었다. 즉 중국의 전통정원은 산악, 호수, 계곡, 동굴, 폭포 등 자연 풍경을 모방하여 조성하고, 불로장생 선인의 거처를 만드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다. 기암괴석을 형성하고 수목과 화초를 풍성하게 심으며 문형과 문창살, 난간, 장벽 등에 변화를 주어서 보는 사람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일본의 전통정원은 엄격한 법칙에 의하여 자연, 인공물, 수목 등을 배열하여 아름다움을 즐겼다. 일본은 감상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실내 가까이에 작은 규모의 축소판 자연을 깊은 숲속의 그윽한 분위기로 표현하였다. 즉 일본 정원은 대부분 연못이 있고 안에 섬이 있으며,



소쇄원 | 전남 담양 | 문화재청



일두 고택 | 경남 함양 | 문화재청

섬에는 거석과 소나무가 있다. 흰모래로 바다를 상징하는 방법으로 산과 강의 자연 경관을 축소해서 감상하였다. 한국은 생활 속의 자연을 그대로 감상하고 인간에 친근한 모습과 형태로 꾸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경관을 연출하였다. 우리나라는 숲이 유난히 많고 자연경관이 수려하기 때문에 조경도 자연히 자연과 동화된 자연풍경식 조경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중요한 특징은 지형을 함부로 변형시키지 않았으며, 물 이용에서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자연 법칙을 이용하며, 꽃이나 나무는 인공 수형을 만드는 가지치기 작업을 피하였다. 또한 외부에 펼쳐져 있는 자연경관을 차경하기에 가장 알맞게 꾸며져 있다. 이들은 자연의 지형과 지세를 그대로 살려 조성하였기에 마치 아름다운 자연 속에 온 것같이 편안한 느낌을 주는 '자연과 인간의 일체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이 자연을 끌어들여 독점하는 방식을 취하였다면 우리나라는 자연과의 경계를 특별히 두지 않고 자연 속으로 안기는 방식으로 정원을 조성하였다.

참고문헌 동궐도에 보이는 궁궐정원의 조영수법(진상철,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3-4, 한국전통조경학회, 2015), 동양 전통정원의 형식과 특성(김상범 외, 농업사연구8-3, 한국농업사학회, 2009), 전통정원의 특징과 변천(정재훈,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8), 전통조경분야의 정원 명칭 사용에 대한 고찰(하태일 외, 한국전통문화연구14,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한국건축의 역사(김동욱, 기문당, 2007), 한국의 전통정원에 관한 연구(장북,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한국의 정원(주남철, 고려대학교출판부, 2009).

필자 남호현(南虎鉉)

정주간
鼎廚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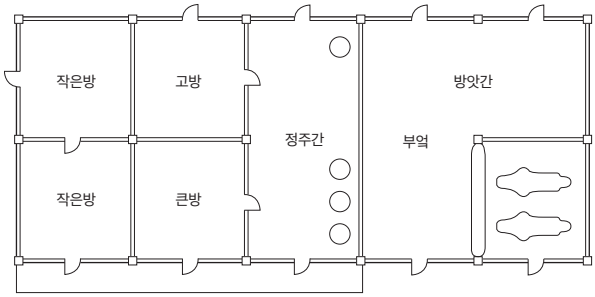
정의 함경도 지역 전통 민가에서 부엌에 큰 부뚜막 형태로 온돌을 설치한 공간.

개관 함경도의 전통 민가는 부엌 한 편에 넓은 부뚜막과 같은 정주간鼎廚間을 두고 거실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온돌 모습은 『신당서新唐書』나 『구당서舊唐書』의 고구려 관련 기록 가운데 장갱長坑 모습과 유사하다. 이 기록에는 "고구려 사람들이 한겨울에는 장갱을 만들고 여기에 불을 때서 그 열로 겨울을 따뜻하게 지낸다."는 표현이 있다. 만주 지역에서 캉[炕]은 부뚜막 형태의 원시 온돌을 의미하는 것이니 장갱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벽을 설치하여 온돌방과 부엌을 구획하는 모습은 고려시대 이후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정주간은 온돌의 원초 모습을 보여 주는 형식이라 할 수 있다.

고구려시대 이래 함경도 지역의 넓은 부뚜막 위에서 생활하는 주거생활 모습은 조선시대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성종실록成宗實錄』에는 "함경도 사람들은 남녀 구분이 없어 집에 큰 온돌[長突]을 만들고 지나가는 사람을 재우는데 분별함이 없다."고 기술되어 있다. 『중종실록中宗實錄』에는 "평안도와 함경도에서는 부자나 손님이 한 방에서 혼숙을 하는데 오랑캐 풍습과 다르지 않다."고 기록되어 있다. 장돌長突이라는 표현은 '장갱'과 유사하다는 점, 혼숙이라는 표현이 단실형 취침 공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정주간을 묘사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정주간을 포함하는 부엌 공간이 다기능을 통합해서 수용하는 독특한 주거공간으로서 함경도 지역의 특수한 생태 환경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내용 한반도의 북동부지역에 해당하는 함경도 일대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겨울이 길고 한랭한 기후 특성과 평야보다는 산지가 많은 지형으로 되어 있다. 주민들은 화전이나 수렵에 의존하는 생활양식으로 인하여 인구밀도가 낮은 산촌형散村型 취락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생태 조건 아래에서 난방과 방어의 효율성은 주거건축의 필수 요건이었다. 적은 연료로 장기간 난방할 수 있는 온돌이 이 지역에서 시작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주거공간을 가능한 한 하나의 건물 안에 집중시키는 것도 난방과 방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추운 겨울에는 외부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한 모든 주생활이 실내에서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공간을 집중시키면 적은 연료로 많은 공간을 난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각 공간이 외부와 닿은 면적을 최소화하여 열 손실을 줄일



함경북도 정주간형 양통집 | 강영환



정주간 | 중국 지린성 허룽시 해란촌 | 2018 | 국립민속박물관

수 있다. 공간의 집중 구성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 주거공간을 여러 건물에 분산시키는 것보다 방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함경도 지역 집들은 한 동의 건물에 주거공간을 집중시키는 방식이 발전되었다. 함경도 집에서 규모가 가장 작은 집은 부엌 안에 모든 공간이 개방되어 있는 형식이다. 부엌에 들어서면 흙바닥의 '바당'을 중심으로 한 편에 정주간, 맞은편에 외양간 또는 방앗간이 벽체로 구획되지 않은 채 배치되어 있다. 부엌은 기거 생활과 가축 사육, 생산 및 작업, 수장 기능이 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통합 공간이다.

정주간은 침실, 거실, 부엌 등 기거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부엌 바닥과 높이가 30㎝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벽체로 구획되지 않는다. 정주간의 뒤쪽 바닥에는 가마솥이 걸려 있어 부엌이 된다. 정주간은 부엌의 연장인 셈이며, 따라서 넓은 부뚜막 형태를 띤다. 두 칸짜리 정주간은 온돌이 깔려 있어 부엌인 동시에 침실과 거실 기능을 한다. 작은 규모의 집에서는 별도로 침실을 두지 않고 온 가족이 정주간에서 생활한다. 정주간을 '정지방' 또는 '안방'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 같은 복합된 다기능을 수용하는 공동 침실겸 거실의 용도임을 시사한다. 정주간은 함경도에서 침실을 분리하는 단계 이전의 거주 형태를 보여 주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정주간은 강원도를 경계로 남쪽지역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강원도 민가에서 침실과 부엌은 벽체와 천장으로 완전히 구획된다. 부엌에서 격리된 침실은 아궁이에서 나오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무연난방 공간이 된다. 외양간에서 나오는 악취와 해충의 직접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방앗간의 소음도 완화시킬 수 있다. 함경도보다는 겨울 기후가 온난하기 때문에 난방과 방어보다는 쾌적한 환경을 더 중시하는 형식이다. 정주간 대신 마루를 설치한 집도 많이 나타난다. 마루를 여름철 기거 공간으로 본다면 여름철 기후에 대응하는 환경의 요구가 높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이처럼 정주간은 한반도의 주택 형식 발달에서 원초 단계를 보여 주는 동시에 함경도의 특수한 환경을 배경으로 형성된 독특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북한의 옛집-함경도(강영환, 이담, 2010), 한국의 민가연구(장보웅, 보진재, 1986), 한국의 주거민속지(김광언, 민음사, 1988),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강영환, 기문당, 2013).

필자 강영환(姜榮煥)

제등
提燈

정의 자루가 있어 들고 다닐 수 있는 등.

내용 제등提燈은 밤길 나들이에 소용되는 일상생활의 필수품이었으며, 의·예식에서 휴대용으로도 사용되었다. 등 내골격 형태가 원형, 타원형, 사각형, 팔각형 등 다양하다. 등의 자루는 민간에서 더욱 짧아져 수등手燈 또는 수초롱[手燭籠]이 대부분이다. 휴대가 간편한 접이식 초롱과 한지 접등 형태도 널리 이용되었다. 비상시를 대비한 접이식 초롱은 소매 속에 휴대하고 다니기에 편리하도록 제작되었다.



제등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① 가로12 세로13 높이22 ② 가로11 세로5

주로 철사나 놋쇠, 나무 등으로 골격을 만들었다. 표면에는 종이나 깁[紗]을 씌웠으며, 공기 순환을 돕기 위하여 밑을 트고 위로 숨구멍을 내어 등의 위쪽에는 고리나 손잡이를 달아 들고 다니기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유리가 수입된 후에는 틀에 유리를 끼워 사용하였다. 등 내부에 초를 넣는 것을 초롱[燭籠], 등잔을 넣는 것을 등롱燈籠이라 하였다. 초롱과 등롱의 골격에 깁을 씌운 것을 사롱紗籠·사초롱[紗燭籠]·사등롱紗燈籠, 종이[油紙]를 씌운 것을 지롱紙籠·지초롱[紙燭籠]·지등롱紙燈籠이라 하였다. 청색, 홍색 등 깁의 색깔에 따라 각각 청사초롱과 홍사초롱으로 구분하여 불렀다.

궁중의 빈전殯殿이나 순라군巡邏軍이 밤에 순찰을 돌 때 사용한 제등으로 조족등照足燈이 있다. 발밑을 비춘다는 의미로 조족등이라 하지만 형태가 박과 같다 하여 박등, 도적을 잡을 때 사용한다 하여 도적등盜賊燈·조적등照賊燈·탐조등探照燈 등으로 불리어 왔다. 고요히 자취를 좇아 비춘다는 뜻으로 조적등照寂燈 또는 조적등照跡燈이라고도 하는데, 군사용으로 쓰인 것이다.

고종 때 간행된 『훈국신조군기도설訓局新造軍器圖說』에 조적등照賊燈에 관한 기록이 있다. 1867년 대장大將 신헌申櫶이 만들었다고 한다. 용도와 관련하여 대체로 군영軍營을 습격할 때, 강을 몰래 건널 때, 날씨가 어둡고 비가 와서 깜깜할 때 사용하며, 적으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검게 기름칠한 가리(조罩)보다 낫다고 하였다. 가리란 밑이 없는 통발과 비슷하게 대로 엮어 만든 어구漁具로, 아마도 조적등을 쓰기 전 가리를 활용한 등기구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 제시된 조적등의 장점은 첫째, 등을 들어서 적을 비추면 적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나는 능히 적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 둘째, 어둡고 깊이 들어간 곳[深凹之處]도 모두 비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순라군이 밤에 순찰을 돌 때나 궁중의 빈전殯殿과 관청에서 군사 또는 관용으로 두루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점차 민간으로도 퍼져 나간 것으로 보인다.

등갓은 마치 박 또는 엎어 놓은 둥근 항아리 같고, 크기는 지름 15~30㎝ 정도이다. 위쪽에 숨구멍과 함께 20㎝ 안팎의 손잡이용 자루가 달려 있다. 등 아래쪽을 트고 댓가지나 쇠로 부챗살처럼 뼈대를 갖춘 다음 안팎으로 기름종이를 여러 겹 발랐다. 등갓의 표면은 세로로 줄이 난 누비주름 형태가 많다. 여기에 여러 가지 경구警句나 길상吉祥 무늬를 넣고, 눈·비에도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흑칠黑漆을 하였다. 그리고 등 내부에는 회전식 철제 초꽂이를 설치하여 등이 상하좌우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도 항상 초가 수평을 유지하여서 불이 쉽게 꺼지지 않도록 하였다.

한편 제등의 한 종류로 간단히 휴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접등摺燈이 있다. 주름을 잡아서 위아래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 종이로 만든 등으로, 그 안에 초

나 등잔을 넣어 사용하였다. 형태로는 사각, 육각, 팔각 등 각진 형태와 둥근 형태가 있다. 종이로 만든 지롱紙籠은 접히고 펼쳐지는 동작이 마치 굼벵이와 비슷하다 하여 '굼벵이등'이라고도 한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현종顯宗 15년(1674) 기록에 "군중軍中의 초롱은 사롱紗籠과 지롱紙籠이 있는데 지롱은 반드시 두꺼운 종이를 쓰며, 이를 구하기 어려워 소호지小好紙를 썼다."는 내용이 있다. 이때의 지롱이 접등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두꺼운 종이를 썼다는 점에서 접등일 가능성이 있다. 아무래도 접었다 폈다 할 때 접히는 부분이 쉽게 해지거나 찢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견딜 수 있는 종이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틀의 겉면에는 조적등처럼 생활 신조信條로 삼을 만한 경구警句나 경전經典, 팔괘문八卦文, 동물문, 인동초나 당초 같은 식물문 등 여러 가지 길상吉祥의 의미를 띤 문양을 새겨 넣기도 하였다.

특징 및 의의 혼례 때 사용한 청사초롱은 화촉華燭과 더불어 그 자체로 혼례의 상징이 되었다. 조선 후기 들어와 혼례복이 관복을 차용한 것처럼 혼례 때 사용하는 청사초롱 또한 왕세손이나 정3품 당상관 이상의 관리가 사용한 초롱 양식이다. 일반 서민에게 평생 한 번 치르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례인만큼 신분 질서를 뛰어넘어 호사를 누릴 수 있게 한 것이다. 혼례상에 놓인 홍실과 청실처럼 초롱의 홍·청색 비단 또한 우주의 음양 조화를 뜻함으로써 부부 결합으로 새로운 가정이 탄생하는 것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부부간 금실과 화합에 대한 기원을 담고 있기도 하다.

오늘날 초롱과 등롱은 그 쓰임새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우리 주위에 자리하고 있다. 날이 저물면 청사초롱을 앞세운 함진애비가 '함 사시오!' 하고 외치는 소리가 아파트 한가운데서도 들려온다. 또한 전국 각 지역 축제 마당에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초롱 행렬에서 우리는 현재 속에 녹아 있는 전통을 만나게 된다.

참고문헌 續大典, 承政院日記, 林園經濟志, 訓局新造軍器圖說, 빛(국립민속박물관, 2005), 두산백과사전(doopedia.c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e뮤지엄(emuseum.go.kr).

필자 민병근(閔丙槿)

제주 성읍마을

정의 조선시대 제주의 행정구역인 정의현의 중심지이던 읍성으로, 현재는 관광지로 널리 알려진 제주도의 민속마을.

내용 1416년(조선 태종 16) 안무사安撫使, 오식吳湜의 건의로 제주 전역을 제주목濟州牧, 대정현大靜懸, 정의현旌義懸의 3개 구역으로 구획하여 관할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정의군이 대정군과 함께 제주군에 합병되는 1914년까지 제주 성읍마을은 정의읍성으로서 약 5세기 동안 이어져 왔다. 원래 정의현의 도읍지는 성산읍 고성리에 있었지만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지리적 문제와 우도를 통한 왜구의 잦은 침입 때문에 1423년(조선 세종 5) 표선면 성읍리(전 진사리)로 옮겨 현청 소재지가 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이 지역에 천연기념물 제161호 느티나무와 팽나무, 국가민속문화재 제68호 조일훈 가옥, 국가민속문화재 제69호 고평오 가옥, 국가민속문화재 제70호 이영숙 가옥, 국가민속문화재 제71호 한봉일 가옥, 국가민속문화재 제72호 고상은 가옥, 국가무형문화재 제95호 제주민요,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5호 정의향교,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7호 일관헌, 제주도 민속문화재 제2호 돌하르방 등의 유·무형문화재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이들이 모두 집단화된 문화유적지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우도가 제주의 지형과 풍경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제주도 자연의 축소판이라면 제주 성읍마을은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제주 역사민속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제주 성읍마을은 당시 제주도의 행정, 군사, 교육의 중심지였다. 이러한 사실은 정의읍성과 돌하르방의 존재, 일관헌, 정의향교 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권위를 상징하는 건물인 관아는 고을의 수령이 공사를 처리하던 동헌, 수령이 거주하던 아객, 수령을 보좌하던 사람들의 집무처인 향청 등의 관청을 의미한다. 제주성읍마을에 현재까지 전해 오는 건물은 일관헌과 향교 건물인 대성전 및 명륜당뿐이다.



제주 성읍마을 | 제주 서귀포시 | 한국관광공사·엠엠피 김진규

정의읍성 내 중앙에 자리 잡아 웅장하면서도 아늑한 어머니의 품과 같은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느티나무 맞은편에 있는 일관헌日觀軒은 정의현감이 집무하던 시설이다. 정의읍성을 축조하면서 일관헌도 건축되었다. 이후 손실되었다가 1975년 복원되었으나 2011년 태풍 무이파의 영향으로 팽나무가 쓰러지면서 크게 훼손됨에 따라 새롭게 복원되었다. 일관헌은 비록 지방에서 행정업무를 보고 있으나 임금을 위하여 바라보고 일을 하듯 바르게 일을 처리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일관헌은 정면 세 칸, 측면 두 칸 규모로 툇마루와 함께 구성된 공간 구조를 하고 있다. 측면은 현무암으로 마감되어 있고, 팔작지붕 형식의 건축물이다.

제주의 향교는 15세기 초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에 1개씩 세워졌다. 이것들은 현재까지 남아 있다. 그 중 하나인 정의향교는 1423년(세종 5) 서문 밖에 창건되었으나 몇 차례 이전되었다가 1849년(현종 4) 일관헌 뒤편 서문 안쪽에 위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제강점기에도 크고 작은 수난을 겪었다. 1914년에 폐교되었다가 1922년에 대대적으로 보수되었다. 기본적으로 향교는 남향이지만 정의향교는 동향인 것이 특징이며, 대성전과 명륜당이 좌우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명륜문이 정문 기능을 한다. 명륜문을 들어서면 정면에 대선정이 있고, 송덕비가 있는 마당 정면에 대성전과 나란히 명륜당이 서 있다. 명륜당 좌우에 있는 건물은 동서재이다. 명륜당과 대성전은 신도로 연결되어 있다.

한편 정의읍성 안에는 행정시설을 갖춘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다.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다행스럽게도 제주도의 보물인 『탐라순력도』에 이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하여 마을의 규모를 대략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다. 마을에는 민가 1,436호가 있었고, 주둔군 664명이 거주하였다. 마을에는 전답 140결, 말 1,178마리, 흑우 228마리의 생산자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상당한 규모의 읍성이었음은 틀림없다. 제주 성읍마을을 대표하는 중요한 문화자원으로는 역시 민가民家를 빼놓을 수 없다. 성읍의 민가는 기록에 의하면 1826년(순조 26)에 큰 화재가 발생하여 80여 동이 소실된 적이 있었다. 1948년 4·3사건 당시에는

서문 밖에 있던 민가도 거의 소실되었다고 한다. 정의읍성 안에는 국가지정 국가민속문화재 제68호 조일훈 가옥, 제69호 고평오 가옥, 제70호 이영숙 가옥, 제71호 한봉일 가옥, 제72호 고상은 가옥 등 5가옥 16동이 있다. 이 중 조일훈 가옥은 가옥 소유주인 조일훈의 할아버지가 1901년에 건축하여 약 116년 된 제주 전통건축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배치 형식은 폐쇄적인 공간 배치를 하고 있다. 즉 마당을 중심으로 안거리(안채), 밖거리(바깥채), 모거리(헛간채) 및 이문간이 ㅁ자형을 이루고 있다. 안거리는 3칸이다. 상방(마루)을 두고 오른쪽에 큰 구들(큰방)과 고팡(곡식 창고), 왼쪽에 정지(부엌)와 작은 구들(작은방)이 있다. 밖거리는 오른쪽에 식당, 전면에 마루방과 2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주의 전통건축과는 다른 형식을 하고 있다. 객사에 인접해 있던 객줏집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말을 매어 둔 시설과 돌들의 흔적이 남아 있다. 특이한 점은 도로변에 이문간을 지었기 때문에 제주 전통건축의 외부공간을 특징짓는 올레가 없다.

고평오 가옥은 정의현 남문의 길가에 있어 많은 방문객이 찾는 전통가옥 중 하나이다. 18세기 말에 건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거리, 밖거리, 이문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형적인 제주 전통건축이다. 특히 이문간은 격식을 갖추고 있다. 안거리는 남향, 밖거리는 안거리를 마주보고 북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동쪽에 서향의 모커리(곁채)가 배치되어 있어 제주 전통건축에서 볼 수 있는 기본 공간 형식인 마당 중심 배치 형식을 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안거리와 밖거리의 배치 형식이다. 밖거리의 경우 안거리와 평행 배치를 하지 않고 안마당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마당에서 안거리와 밖거리를 바라볼 때 마당의 깊이감과 역동성을 느끼게 한다. 안거리는 3칸형이다. 상방 중심으로 왼쪽에 작은 구들과 고팡이 있다. 오른쪽에는 정지가 있어 오른쪽으로 큰 구들과 고팡, 왼쪽으로 작은 구들과 챗방(식사방) 등 일반적인 안거리의 평면과 다른 형식을 하고 있다. 밖거리는 4칸형으로, 상방 중심의 큰 구들과 작은 구들로 구성된 매우 독특한 평면 형식을 하고 있다. 특히 이문간 측면 쪽에 퇴가 있어 마당을 통하지 않고도 출입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진입 형식은 관원官員 숙소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접객용 등 공간 기능 분화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영숙 가옥은 19세기 초 건축된 것으로 전해진다. 큰길에서 올레를 따라 진입하면 이문과 정낭 없이 직접 집 안으로 진입하게 되는 공간 구조이다. 한때 여인숙으로 사용된 적이 있다. 마당을 중심으로 안거리는 동쪽으로 향해 있고, 맞은편에 모거리가 서쪽으로 향해 있는 배치 형식을 하고 있다.

한봉일 가옥은 정의읍성 동문 가까이에 있다. 가옥 배치는 안거리, 밖거리, 모거리로 구성되어 ㄷ자형 배치를 하고 있다. 안거리와 밖거리는 모두 3칸이다. 특히 안거리의 경우 정지가 2칸 크기로 되어 있어 넓은 편이다. 또한 난방을 위해 설치된 굴묵(굴뚝)은 별도의 출입구가 없이 난간으로 출입하게 된 점도 특이하다. 밖거리의 경우 앞뒤가 트인 일반적인 상방과 달리 뒤쪽 공간에 작은 구들을 설치하여 폐쇄적인 공간으로 한 점도 특이하다. 이문간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모거리는 일반적인 형태로 쇠막과 헛간으로 이용되었다.

고상은 가옥은 고평오 가옥에 인접하여 있다. 19세기 말에 건축된 것으로 전해진다. 안거리와 모거리로 구성되어 있다. 안거리는 남동쪽 방향으로 향해 있고 모거리는 북동향을 향하고 있어 다소 변형된 배치 형식을 하고 있다. 옛날 대장간으로도 사용되었다고 전해진다.

오랜 역사를 간직한 전통마을인 만큼 제주 성읍마을에는 제주 민간신앙이 현재까지도 남아 있다. 대표적인 민간신앙 의례로 포제酺祭가 있다. 포제는 남성 중심의 재래신앙이고 무속 신앙은 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제주도 민간신앙의 기본 특성이다. 제주 성읍마을의 포제는 매년 음력 정월 초정일에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포제동산에서 제를 올리는 제의 행사이다. 특이한 점은 상단신에는 포신지위, 하단신에는 제수임신지위·염질신지위·목동신지위를 두고 있다는 제신祭神 가운데 목동신牧童神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성읍 지역이 농업뿐만 아니라 목축업이 그만큼 발달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벽


가옥

제주 성읍마을 | 제주 서귀포시 | 한국관광공사·김지호

한편 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무속신앙의 경우 안할망당·개당·쉐당 등이 20여 곳 있은 것으로 전해지지만 현재는 대부분 사라지고 안할망당·개당·문호당 등 일부만 남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일관헌이 위치한 곳에서 팽나무가 있는 주변의 안쪽 골목길을 따라 걷게 되면 한쪽에 작은 집이 있다. 이 집은 무속신앙의 기도처인 안할망당으로, 성읍마을 사람들의 안녕을 보살피는 본향당이다. 이와 달리 관청인 일관헌은 '관청할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전에 팽나무를 신목神木으로 하여 기왓장에 비녀와 옥구슬을 놓고 기도하였다. 1971년 현재의 위치로 옮겨 제단을 새로 지었다. 1991년에 당堂을 짓고 '안할망당' 신위를 모시고 있다가 1996년 당을 보수하면서 기왓장과 비녀, 옥구슬을 봉안하였다고 전해진다.

제주 성읍마을의 민요 이야기도 흥미롭다. 제주 농촌에서 전승되는 노동요, 성읍리에만 있는 창민요 등이 있다. 널리 알려진 <오돌또기>뿐만 아니라 <붕지가> <산천초목>도 전승되고 있다. 특히 성읍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빌고 주민의 단합을 위하여 즐긴 놀이인 '질궁'은 주민 공동으로 비용을 마련하여 놀던 화합과 단합의 놀이문화이다. 매년 음력 12월 15일에 열린다.

특징 및 의의 정의읍성의 역사와 규모를 짐작하게 하는 시설물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의 신앙과 의례, 민요 등도 계승되고 있다. 관광지로 바뀌어 과거 읍성으로서의 권위와 기능, 전통적인 역사경관이 훼손되어 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나 여전히 성읍민속촌은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살아 있는 모습으로 전해주는 중요한 전통마을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21세기 문화 시대에 걸맞게 어떻게 보전하며 활용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답사여행의 길잡이11-한려수도와 제주도(한국문화유산답사회, 돌베개, 1998), 성읍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남제주군, 1994), 제주 속 건축(김태일, 안그라픽스, 2018).

필자 김태일(金泰一)

조선건축
朝鮮建築

정의 광복 직후 건축 관련 분야의 기술자들이 참여하여 설립한 조선건축기술단에서 1947년부터 1949년까지 총 9집을 발간한 1940년대 건축 전문 잡지.

내용 조선건축기술단朝鮮建築技術團은 광복 이후 설립된 건축 관련 단체 중에서 가장 먼저 설립되었다. 건축 설계, 시공, 구조 등 다양한 분야 건축 기술자들이 참여한 건축 관련 대표 단체였다. 조선건축기술단은 1947년 조선건축기술협회로 개편하고 지방 지부를 설치하면서 1948년 7월 말 기준 700여 명에 이르는 전국 규모의 회원 구성 체계를 이루었다. 광복 직후 남한의 건축 기술인과 건축 관련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 수를 고려할 때 당시 건축인 대부분이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조선건축기술단은 건축계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건축계 전체를 대표하는 단체로 인식되었다.

조선건축기술단에서 건축 관련 학술지 및 대중 계몽을 위한 출판 사업으로 발간한 잡지가 『조선건축』이다. 『조선건축』은 1947년 3월 20일 발간된 1권 1집 창간호를 시작으로 1949년 5월 10일 3권 2집이 발간될 때까지 총 9집이 60~70쪽 분량으로 발간되었다. 『조선건축』 외 『건우建友』, 『건축문화建築文化』, 『조형예술造形藝術』 등 건축 관련 잡지나 기관지가 발행되었지만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없거나 전문성이 그리 높지 않았다.

『조선건축』에 실린 기사는 권두언, 본문, 자료, 협회 관련 기사, 부록으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본문은 논설, 강좌, 강의, 수필 같은 몇 가지 형식의 기사로 꾸며졌다. 총 9집에 실린 기사 가운데 협회 관련 기사와 단편 소식을 제외한 기사 수가 110여 편에 이른다. 이들 기사를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구조, 시공, 재료, 설비 등 건축 기술 관련 기사가 20여 편이다. 서양건축사와 한국건축사 등 건축사 관련 기사는 20여 편, 건축계 전반에 관한 현안 기사가 20여 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상과 같은 주제 이외에 주거나 도시계획 등과 관련된 기사가 상당수 게재되었다. 자료 부분은 주로 문헌초록과 건축용어, 당시에 진행된 현상설계와 신축공사 소개, 국내외 건축계 소식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잡지 발간은 조선건축기술단의 기관지 편집위원회가 전담하였다. 편집위원회에는 김윤기, 유상하, 김재철, 김종민, 이홍구, 전창옥, 송민구 등이 창간호부터 활동하였다. 이후 이균상, 김희춘, 장기인, 유덕호, 이희태 등이 참여하였다.

특징 및 의의 『조선건축』은 1940년대 후반 한국건축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유일한 건축 전문 잡지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건축물 신축이 매우 위축된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건축가들의 활동과 동시대 한국건축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문헌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를 벗어난 혼란기에 당시 건축가들의 생생한 활동 흔적이 기록되어 있는 역사 및 학술가치를 인정받아 2013년 등록문화재 제575호로 지정되었다.

『조선건축』 창간 초기부터 연재된 「건축술어제정보고建築術語制定報告」는 당시 건축인들이 식민 잔재 청산 작업의 하나로 삼아 우리말 건축술어(용어) 제정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였음을 보여 준다. 본문에 실린 많은 기사는 일제강점기에 정체되어 있던 근대기의 한국건축 발전을 논하였으며, 한국건축이 동시대 요구에 적합한 건축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 한 노력이었다. 한국인 건축가가 주도한 1940년대 후반의 한국건축이라는 조건 속에서 일제강점기 건축과 1920~1930년대부터 지속되어 온 모더니즘 건축을 재평가하여 한국건축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 당시 건축인들의 논의와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참고문헌 1940년대 후반 한국건축에서 신건축 관련 논의의 성격(송석기,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19-3, 대한건축학회, 2003), 조선건축에 나타나는 1940년대 후반 한국건축의 성격(조경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필자 송석기(宋石基)

족자
簇子

정의 한지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린 서화를 배접하고 주변 표지를 장식하여 벽에 걸 수 있게 한 전통 실내 장식.

내용 족자簇子는 글씨, 그림 등 서화를 벽에 걸어 늘어뜨리는 방식으로 장식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둘둘 말아 보관할 수 있어 공간을 크게 차지하지 않고 사용이 간편하다. 족자를 만들 때에는 서화를 먼저 그린 다음 옆면과 위아래에 종이나 비단을 붙여 장식하고, 위아래에 축을 연결한 후 상부에 고리와 끈을 달아서 벽에 걸 수 있도록 한다.

족자의 기원에 대해서는 티베트의 불화에서 유래되었다는 설과 불경의 가로형 두루마리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다. 이후 중국 북송 때 괘축掛軸이라 하



족자 | 국립민속박물관
① 묵죽도 | 가로47 세로101 ② 나전족자함 | 가로63 세로17 높이16

여 표구한 서화를 벽에 걸고 감상한 것이 족자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족자는 중국 당나라에서 한국으로 들어왔고, 다시 일본으로 전래되었다.

족자는 의식용, 기록보존용, 감상용 등 다양한 용도로 제작된다. 왕실 족자에는 왕의 초상을 그린 어진과 공을 세운 신하에게 내린 공신 초상화 등이 있다. 왕의 글씨나 그림을 족자로 만들기도 하였다. 족자의 장황은 왕실에 바치는 진상용과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는 반사용으로 구별된다. 진상용 족자는 최상의 재료로 장황하여 봉안의식과 같은 절차를 거쳐 왕실에 들였다.

조선시대 중·상류 계층에서는 조상이나 선현이 남긴 좋은 그림, 글씨를 액자에 넣거나 족자로 만들어서 감상하는 풍속이 널리 유행하였다. 일찍이 정약용丁若鏞은 족자에 대하여 "서재 안에 각 한 축을 걸어 두는 것이 좋으나 때때로 바꾸어 걸어야 할 것이다. 그림의 경우 봄·여름에는 가을·겨울에 관한 것을, 가을·겨울에는 봄·여름에 관한 것을 걸어야 한다. 또 산속에서는 수경水景을, 수거水居시에는 산경山景을 보면 바야흐로 그 신기神氣가 편안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묵담채나 수묵화를 높은 그림의 격으로도 평가하였다.

족자는 현대에도 꾸준히 애용되고 있다. 특히 서예나 문인화 등 작품을 표구하여 전시·감상하는 식으로 사용된다. 무게가 가볍고 전시나 보관이 용이한 것이 큰 장점이다. 족자는 서화 내용에 따라 전통한옥은 물론 현대 아파트에서도 실내 장식품으로 잘 활용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족자는 가볍고 간편하게 처리되어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양의 전통 실내 장식용품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현대에도 여전히 애용되고 있다. 특히 사용하지 않을 때는 두루마리로 보관할 수 있는 등 관리가 수월하다.

참고문헌 동아시아 전통 인테리어 장식과 미(박선희, 서해문집, 201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박선희(朴善姬)

좌등
坐燈

정의 실내에서 쓰기 위하여 나무로 짠 상자 모양의 틀에 종이나 천 따위를 발라 만든 등.

내용 좌등坐燈은 등잔이나 촛대처럼 등 주변을 집중해

서 밝히는 것이 아니라 실내 전체를 은은하게 밝히는 간접 조명 방식의 등燈 기구이다. 원형이나 장방형 틀에 얇은 비단을 감싼 것은 사등紗燈, 종이로 바른 것은 지등紙燈이라 한다. 간혹 쌍으로 사용되었으며, 아름다운 문양이나 조각을 한 매우 고급스러운 형태의 것이 많다.

몸통의 한쪽 혹은 사방에 여닫이문을 달고 창을 내었다. 여닫이문 아래에는 서랍을 두어 불을 켜는 데 필요한 소도구를 넣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창에는 한지나 흰색 비단을 발라 무늬가 투영되는 효과와 간접 조명의 아늑함을 살렸다. 불 그릇이 놓이는 등 위쪽 널판에는 무늬를 투각透刻하고, 장식과 함께 환기 기능을 겸하도록 하였다. 등의 몸체를 받치고 있는 받침다리에는 사방으로 돌아가며 풀잎 모양의 풍혈風穴을 둘러 등의 형태에 다양한 변화를 주었다. 사방으로 면面을 기울여서 만든 지붕에는 옮길 때 편리하도록 ㄷ자형 손잡이를 달아 놓았다.

좌등은 서등書燈과 장등長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서등은 얇은 나무판으로 상자를 만들고, 앞면에는 들어서 여는 문을 달아 내부에 등잔을 넣도록 고안되었다. 윗면에는 둥근 환기 구멍을 낸 뒤 검은 칠[黑漆]을 하였다. 문을 열면 등불이 책을 곧바로 비출 수 있는 높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로 선비들이 글을 읽을 때 사용하였다. 이 때문에 서경書檠, 서등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기능 면에서 요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동식 전기등인 '스탠드Stand'와 비슷하다. 내부에 쇠로 간단한 등 고정 장치를 설치한 것도 있으며, 다양한 크기로 제작되었다. 조선 후기에 석유가 수입되면서 한때 도자기로 만든 백자서등白磁書燈이 쓰이기도 하였지만 전기가 도입되면서 전등電燈으로 대체되었다.

장등은 각재角材나 반죽斑竹, 오죽烏竹 등으로 기둥을 만든 사각·육각·팔각·원형의 등 기구이다. 표면[燈皮]은 기름종이나 깁[紗]을 씌웠으며 유리가 수입된 후에는 유리를 끼워 사용하기도 하였다. 불빛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막고 화재를 예방하는 등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조선 후기 양식에는 아래쪽에 서랍이 달려 있는 경우도 있었다. 여기에 인광노引光奴(성냥), 초, 짧은 촛대 등 불을 밝히는 데 필요한 물건을 보관하였다. 등의 외관은 길상吉祥의 의미를 담은 다양한 조각이나 그림으로 장식하고, 옻칠이나 붉은 칠[朱漆]을 한 화려한 가구 양식을 보이고 있다. 장등이라는 명칭은 밤새도록 오랜 시간 불을 켜 두는 쓰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① ②

좌등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① 가로24 세로24 높이75 ② 가로30 세로30 높이100

특징 및 의의 좌등은 옥내용 등기구이다. 나무나 쇠를 이용하여 원형이나 장방형長方形의 틀을 만들고 한쪽 또는 사방에 여닫이문을 단 다음 내부에 초나 등잔을 넣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용 공간의 바닥에 놓고 사용하지만 들거나 옮기기에 편하도록 등의 위쪽[天板]에 손잡이(들쇠)를 달아놓았다. 한지韓紙나 깁으로 몸통을 싼 간접 조명 방식으로, 마루·대청·방 등 옥내 공간 전체를 은은하게 비춘다. 크기와 모양이 매우 다양하며, 갖가지 문양을 조각하여 한껏 멋을 낸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전기조명 방식을 받아들여 실내 분위기를 아름답게 꾸미는 장식용 등 기구로 활용되기도 한다.

참고문헌 고려대한국어대사전(국어사전편찬실 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9), 민족생활어사전(이훈종, 한길사, 1993), 두산백과사전(doopedia.c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e뮤지엄(emuseum.go.kr).

필자 민병근(閔丙槿)

좌상
坐床

정의 다리를 늘어뜨리고 앉는 좌구.

개관 걸터앉는 가구로, 현대 의미는 의자이다. 『역어유해譯語類解』와 『광재물보廣才物譜』에서도 등을 기대고 앉아 쉬는 가구는 '의[椅, 倚]'나 '의자椅子' '교의交椅'로 불렸다. 이외에도 걸터앉는 좌구로써 전통사회에서는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었다. 전통으로 상탑류牀榻類 가구를 눕거나 앉는 가구로 통용하여 상탑이 곧 의자를 지칭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것이 등을 기대고 쉬는 기구로서 의자의 명칭이 분리된 것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이다. 기록에서는 1800년 이후에야 찾아볼 수 있다.

『역어유해』와 『광재물보』에 '호상胡床'은 상床이나 평상과 같은 뜻이고, 앉기도 하고 누울 수도 있는 용구로 기록하고 있다. 즉 의자와 같은 역할이다. 그런데 조선 후기 『송남잡지松南雜識』 등을 보면 '호상'은 다리를 접는 형태의 의자를 일컫는 명칭으로 고정된다.

그 외 의자 종류로 『광재물보』에 '올자杌子, 등상[凳床, 凳子]'이라는 명칭이 있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승상繩床이나 교상交床, 답장踏障 역시 좌구 명칭이다. 올자와 등상은 등받이가 없으며, 등상의 경우 상례나 위판을 모신 낮은 의자 형태 또는 4~5인이 앉을 수 있는 긴 의자를 말한다.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의 『금화경독기金華耕讀記』를 인용한 글에 따르면 19세기 당시 의자는 중국의 것을 모방하였으며, 등받이가 있는 것은 '의椅'라 하고 없는 것은 '등橙'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의자 종류를 방의方椅, 원의圓椅, 절첩의折疊椅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요약하면 현대 의미의 등받이가 있고 다리가 달린 대표적 전통 의자 명칭은 '의'나 '의자', '교의'라고 일컬었다. 그 외 걸상의 의미를 띠는 전통 명칭으로 좌상坐床, 호상, 등상, 승상, 교상, 올자 등이 있다. 이는 다리 형태나 등받이 유무와 좌면의 크기에 따른 별칭으로 세분화한 것이다.



의자 | 한시각 | 북새선은도 중 부분 | 1664 | 국립중앙박물관



의자 | 조선 후기 가로81 높이117 | 대전 회덕 동춘당·대전시립박물관

내용 역사 속에서 바닥보다 높은 가구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다. 조선시대 지위가 낮은 사람들도 좌구를 사용하였지만 등받이가 없는 의자를 썼고, 지금처럼 등받이가 있는 의자 형태는 사용 계층이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

등받이와 손잡이가 있고 좌면坐面의 네 귀퉁이에

다리가 달린 대표적 전통 의자 형태는 '교의交椅'이다. 17세기 화원 한시각韓時覺이 길주 지역의 과거 시험장을 그린 <북새선은도北塞宣恩圖>와 비슷한 시기의 <권대운 기로연회도權大運 耆老宴會圖>(1689년경)와 같은 기록화에서 교의 형태가 확인된다. 등받이가 둥글게 되어 등에서 겨드랑이 팔까지 받쳐 주게 되어 있다. 유물로 전하는 것은 경기도박물관 소장으로 <이경석 李景奭 교의交椅>가 있다. 1668년(현종 10)에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이경석이 하사받은 것이다.

『의궤儀軌』에서 가례·흉례 때 사용된 은교의銀交椅, 왕이 의례 때 앉던 용교의龍交椅, 왕의 영정이 놓이는 선원전에 너비가 긴 승창교의陞窓交椅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의궤에는 교의 형태를 도설하였다. 이 역시 모두 등받이가 둥근 형태이다. 다리는 교차하여 접을 수 있거나 네 개의 다리가 땅을 지탱하는 형태를 하고 있다.

선교장에 흥선대원군이 하사하였다는 교의 역시 전통 교의 형태를 보여 준다. 전통 초상화에서는 등받이가 둥근 교의뿐만 아니라 직배直背 형태인 것, 청대淸代에 유행한 태사의太師椅 같은 다양한 의자 형태도 볼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조선시대는 좌식坐式 생활문화여서 의자는 크게 발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삼국시대 이래 중국과의 밀접한 영향 관계에서 상탑류 좌구가 발달하였다. 『고려도경高麗圖經』을 통해 고려시대에 입식문화의 발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도 상탑류의 눕거나 앉는 가구가 있었으나 다리를 늘어뜨리고 앉는 의자의 보급이 크게 전파된 것은 아니어서 현전하는 유물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상류층에 한정되어 사용한 대표적 전통 의자인 교의 형태는 전통 기록화나 일부 유물을 통하여 볼 수 있다. 중국 명·청대의 '권의圈椅'와 매우 닮은 형태로, 전통 회화 가운데 초상화에서 당시 발달한 교의의 다양한 형태가 확인된다. 초상화 속 의자들은 주흑칠의 화려한 장식보다는 우리나라 나무의 목리를 뚜렷이 표현하거나 세발 장식의 금속을 붙여 조선시대 목가구 제작 기법까지 묘사되어 있다. 즉 중국 명·청의 영향 아래 의자 제작이 이루어졌지만 세부 장식과 형태에서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특징을 나타내며 발달한 것이었다.

참고문헌 譯語類解, 林園經濟志, 가구(김삼대자, 한국민속의 세계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조선후기 한자어휘 검색사전-물명고, 광재물보(정양완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조선후기 회화에서 보는 입식 목가구(김미라, 미술사문화비평, 201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kyu.snu.ac.kr).

필자 김미라(金美羅)

좌식
坐式

정의 주택의 실내공간에서 신발을 벗고 바닥에서 생활하는 방식.

내용 한국의 전통 주거생활 양식은 실내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바닥 중심으로 몸을 의지하고 생활하는 좌식坐式이다. 이러한 좌식 생활 역사는 아주 오래 되었다. 좌식 역사는 구들 역사와 관련이 깊다. 한반도의 추운 겨울에 대비하여 발명된 것이 온돌방이다. 청동기시대에 비롯된 구들 구조는 그 위에 평면 공간을 만들어 생활할 수 있는 방으로 발전하였고, 마루와 더불어 한국 전통 공간 구조를 이루는 주요한 생활공간이었다. 입식 생활을 한 고구려 상류의 무사계층을 제외하고 좌식은 삼국시대부터 이미 한국인의 기본 생활 방식이었다.

마루는 여름철을 위한 공간이고 온돌방은 겨울철을 위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 온돌을 설치한 방과 마루가 접합되는 형식이 전통한옥의 기본 구조로 정착된 것은 조선시대 중기 이후였다. 한편 왕실과 상류계층은 좌식이라 하여도 중국에서 들여온 평상이라는 가구를 침상처럼 이용하였기 때문에 일부분에서는 입식과 좌식이 혼합된 생활양식을 보이기도 하였다.

온돌방 중심으로 한 좌식 생활 방식은 실내에 사용되는 모든 가구나 식사를 하기 위한 상차림과 소반, 실내 장식을 위한 집기 사용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낮은 눈높이와 활동에 맞는 문갑 및 반닫이를 비롯한 각종 수납가구, 앉거나 휴식에 필요한 보료와 장침·사방침·



엘리자베스 키스 | 장기 두기 | 국립민속박물관

안석, 손님용 방석이 이러한 것들이었다. 또한 한복 형태와 더불어 다양한 예절 행위, 즉 명절 때의 큰절이나 제례 시 하는 절 등도 좌식 예법에 맞게 발달하였다.

좌식 생활은 한국인으로 하여금 특히 겨울철 온돌방의 따뜻한 신체 접촉에 대한 특별한 감성이 들게 하였다. 흥미롭게도 오늘날 가구 중심의 입식 생활로 바뀌면서 이전 좌식 생활의 체감을 대신하는 독특하고 다양한 한국인만을 위한 현대 제품이 파생되었다. 전기매트, 온수매트, 흙침대, 돌침대, 찜질방 등이 좌식 생활에 대한 향수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이러한 제품들은 과거 온돌문화의 따뜻함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한국인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오늘날 한국인의 거주 방식이 전통 좌식에서 입식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집 안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며, 언제든지 청결하게 관리한 바닥에 편안하게 앉거나 필요할 때 침구를 깔고 취침도 하는 좌식과 혼용된 생활을 효과 높게 영위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현대 한국의 좌식 생활은 주택 유형과 관계없이 출입 문간에서 신을 벗고 들어가 청결하게 관리된 모든 실내 바닥에 신체를 밀착할 수 있다. 본래 전통 한옥에 거주할 때는 좌식 생활에 적합한 낮은 가구들이 사용되었다. 현대에는 가구 배치에 의한 입식 생활을 하면서도 좌식 생활을 병용하고 있다.

참고문헌 동아시아 전통 인테리어 장식과 미(박선희, 서해문집, 2014), 한국주거와 삶(윤정숙 외, 교문사, 2011).

필자 박선희(朴善姬)

좌향
坐向

정의 나침반을 놓고 방위를 따질 때 뒤가 좌坐, 앞이 향向이 되고 배산임수일 때는 산이 있는 쪽이 좌, 수가 있는 쪽이 향이 되는 방위.

내용 집의 좌향坐向을 측정할 때 나반을 놓는 방식으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마당 가운데에 놓고 보는 중정나반간법中井羅盤看法이고, 다른 하나는 건물의 중심축선상에 놓고 좌향을 보는 좌향나반간법坐向羅盤看法이다. 중정나반간법은 나침반을 놓는 곳이 하나의 점點이 되고, 좌향나반간법은 선상線上이 된다. 중정나반간법은 소위 동사택, 서사택, 혼합택의 여부를 따질 때 나침반을 보는 방식이다. 좌향나반간법은 용상팔살, 팔로사로황천살과 여타의 향법을 적용할 때 나침반을 보는 방식이다.

중정나반간법에서는 집의 좌향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마당 중심에서 각 실의 출입문이 어느 방위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따라서 마당의 중심을 어디로 정할 것이냐가 정확한 길흉판단의 관건이 된다. 하지만 좌향나반간법은 집의 뒤와 앞의 방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집 중심축선상의 어느 지점에 나침반을 놓더라도 좌향의 값은 동일하다. 자좌오향의 남향집은 용상팔살로 판단할 때 24방위상 흉한 기운이 침입한다고 간주되는 방위는 진辰방위로서 정동에서 남쪽으로 7.5도에서 15도 시계방향의 범위가 된다.

한편 자좌오향에서 팔로사로황천살을 따지기도 한다. 오향에 대해 좋지 않은 살기가 침입한다고 간주되는 방위는 손巽방위로 8방위상 남동향의 중심에서 좌우 7.5도의 범위가 된다. 만약 자좌오향으로 좌향이 측정되었다면 진방위와 손방위의 방위, 즉 남동향의 방위로 살기가 침입하기 쉬우니 그쪽 방향으로 출입구나 창문 등을 설치할 때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용상팔살이나 팔로사로황천살은 집의 좌향이 어떻게 측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해당 방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좌향의 측정이 매우 중요하게 간주된다.

24방위로 좌향을 따질 때는 좌방위 또는 향방위

중 어느 하나만 결정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결정된다. 즉 자좌의 집이라면 당연히 향은 오향이 된다는 것이다. 유좌酉坐는 곧 묘향卯向과 짝을 이루며 유좌묘향의 집이 된다. 24방위상의 마주 보고 있는 방위가 서로 좌 또는 향 방위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좌와 향을 모두 표시하지 않고 자좌子坐의 집이라든지 유좌酉坐의 집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한편 좌坐를 산山으로 표시하여 자좌오향을 자산오향子山午向으로, 유좌묘향을 유산오향酉山午向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묘지의 좌향을 논할 경우에 좌를 산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으나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360도를 24등분으로 구분하여 좌와 향을 따지는데 4방위상의 북좌남향은 24방위상 자좌오향子坐午向이 된다. 이때 4방위상의 남향이 정남正南을 중심으로 좌우 45도씩 90도의 범위가 되는 데 반하여 오향은 좌우 7.5도씩 15도의 범위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각도를 90도에서 15도로 좁힌 것은 길흉 판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참고문헌 정통풍수지리(정경연, 평단문화사, 2003), 풍수향법의 논리체계와 의미에 관한 연구(조인철,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필자 조인철(趙仁哲)

주련
柱聯

정의 건물의 기둥이나 바람벽에 써서 붙인 글귀.

내용 주련柱聯은 기둥에 시구를 연하여 걸었다는 뜻으로, 좋은 글귀를 붓글씨로 써서 붙이거나 그 내용을 얇은 판자에 새겨 걸기도 하였다. 현재도 궁궐·반가班家·사찰에 가면 손쉽게 볼 수 있으며, 권위 있는 건축물임을 암시한다. 주련 판자의 위아래에는 연꽃이나 당초문양을 새기고, 판자 전체에는 보통 밀타승密陀僧을 발라 하얗게 만들었다. 글씨에는 먹을 넣든지 군청群青을 가칠하고, 양각한 무늬들은 삼채三彩 정도로 화려하게 단청하여 장식미를 더하였다.



주련 | 충남 아산 외암 건재 고택 | 서헌강

궁궐의 주련에는 자연에 대한 예찬이나 군주가 갖추어야 할 덕목 등 다양한 내용의 시문 구절이 새겨져 있고, 창덕궁 내 16개 주련에서는 경관을 설명하고 있다. 사찰의 주련에는 불경의 내용이 담기지만 큰 스님들의 자취가 담겨 있는 경우도 있다. 반가 안채의 주련에는 아녀자의 정조와 아이들을 훈육하는 내용이 많고, 사랑채 주련에서는 외부인이 많이 드나드는 만큼 주인의 수작秀作이나 당대 명필과 문인들의 시로 풍류를 자랑하기도 하였다. 주로 오언절구나 칠언절구로 된 대구對句의 시구를 새겼는데 한 구절씩 적어서 네 기둥에 걸면 시 한 수가 된다.

특징 및 의의 주련의 문구는 그 건물에 부합되는 내용을 담아 가정은 물론 찾는 이들에게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하며, 부가적으로 장식의 가능도 한다. 또한 주련 자체로 권위 있는 건물임을 암시한다.

참고문헌 깨달음이 있는 산사(월서, 아침단청, 2011), 문과 상징(정연학, 시월, 200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정연학(鄭然鶴)

주방
廚房

정의 입식 조리 설비가 설치된 실내 부엌.

개관 주방廚房은 실내에 있다는 점에서 재래식 부엌과 구분된다. 주방은 부엌을 지칭하는 한자 주廚, 실내 공간을 뜻하는 한자 방房이 결합된 용어이다.

부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음식 조리와 취사이다. 넓은 의미에서 부엌은 한 가정의 가사 관련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주거 공간의 근현대화가 진행되면서 부엌도 크게 변화하였다. 설비의 발달로 깨끗하고 쾌적한 실내 공간이 되었고, 입식 설비가 도입되어 편리한 가사 작업이 가능해졌으며, 거실과 식사 공간 등 가족 공동생활 공간과 가까이 배치된 것이다. 이때부터 '부엌' 대신 '주방'이라는 명칭이 보편화되었다. 주방은 부엌의 원래 기능인 취사 및 가사 작업 기능을 유지하되 거실과 동일한 바닥으로 마감한다. 거실로 개방되어 있고, 입식의 싱크대 및 조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보통 식탁이 가까이 놓여 있다.

내용 전통주택에서의 부엌은 취사와 난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곳이어서 땔감을 사용하던 시기에는 어둡고 연기 많은 공간이었다. 또한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배수시설이 미흡한 시기에는 바닥이 습濕한 공간이었다. 부엌은 가사 작업의 연장 공간으로서 장독대나 텃밭 등 외부공간과도 긴밀히 연계되었다. 따라서 본래 부엌은 생활하는 거주 공간이 아니라 신을 신고 일하는 작업 공간이자 반외부 공간으로 인식되었고 흙바닥이었다. 아궁이를 통하여 난방을 하였기 때문에 재래식 부엌은 다른 공간보다 바닥이 낮았으며, 안방에 접하여 배치되었다. 부엌은 생활 공간과 연결되지 않아 마당을 통하여 출입하였다.



주방 | 주택문화사

1960년대 서구식 국민주택 도입 이후 부엌이 생활 공간에 가까이 배치되어 '주방'이라 지칭된 사례가 일부 있었다. '주방'이라는 명칭이 본격 사용된 것은 1970년대 이후 아파트에서부터이다. 아파트에서 먼저 보일러가 도입되었고, 난방을 위한 부엌과 안방의 바닥 높이 차가 없어졌다. 이러한 구조는 여러 층의 바닥을 시공하는 아파트에서 특히 유리하였다. 이후 바닥 차가 없는 '주방'은 단독주택에 보일러 난방이 도입되면서 아궁이의 소멸과 함께 확산되었다. 이때 아궁이가 불필요하여 부엌과 안방이 분리되었고, 부엌은 거실로 개방되었다. 거실 바닥과 같은 높이의 부엌은 바닥 마감도 거실과 동일하게 처리되었다. 이로써 부엌이 거실이나 방처럼 '거주하는 곳'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함께 '주방' 혹은 '주방 및 식당'이라는 명칭이 등장하였다. 특히 불편한 비위생의 재래식 '부엌'과는 차별화된 용어로 정착되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핵가족이 보편화되고 근대가족 개념이 형성되면서 서구 생활 양식이 도입되는 시기에는 부엌에 식탁이 배치되어 다이닝키친[dining-kitchen, DK]을 구성하였다. 식사 공간이 부엌 가까이 배치됨에 따라 주부의 동선이 짧아지는 등 편리한 공간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가스레인지가 설치된 입식 싱크대와 함께 냉장고, 전기밥솥 등 가전제품 보급이 확대되어 가사노동이 수월해졌다. 이후 주방 설비는 빌트인 설비 및 가구-가전 일체형 시스템으로 발전하여 가구와 같은 인테리어 요소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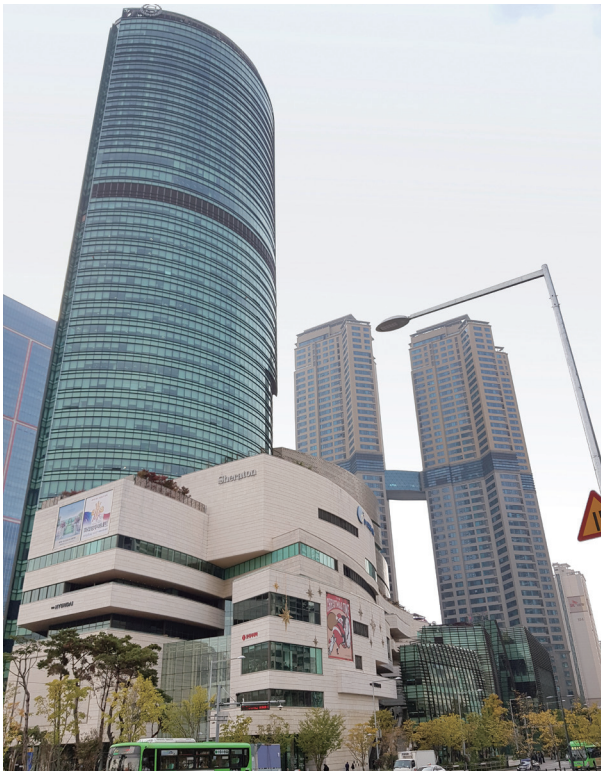
거실, 식사 공간, 부엌이 하나로 통합된 리빙다이닝키친[living-dining-kitchen, LDK] 형식도 흔히 나타난다. 주방이 개방되고 위상이 높아질수록 허드렛일을 담당하는 공간으로서 '보조주방'이 독립 형태로 구성되기도 한다.

특징 및 의의 주방은 한국의 주거 공간이 서구화·근대화되면서 진행된 변화를 반영한다. 주방은 안방과의 연계가 없어지고 거실과의 연계가 강해지면서 가족 공동생활 공간에 속하게 되었다. 주방이 등장함으로써

한국 근대 주거 공간의 모든 바닥이 평탄해졌고 바닥 마감의 구별도 사라졌다. 오늘날의 주방은 '사회 공간'과 '가사활동 공간'의 두 기능이 있다. 입식 설비와 식탁의 도입으로 가사노동이 수월하게 되자 주방은 근대 가족의 평등한 생활 공간으로 변화하였다. 주방은 여성의 가사노동을 전제로 하는 고립된 공간으로부터 탈피하여 가족 모두의 공간이 되었다.

참고문헌 우리생활 100년·집(김광언, 현암사, 2000), 집-집의 공간과 풍경은 어떻게 달라져 왔을까(전남일, 돌베개, 2016), 한국건축개념사전(한국건축개념사전기획위원회, 동녘, 2013), 한국 주거의 미시사(전남일, 돌베개, 2009), 한국건축사(주남철, 고려대학교출판부, 2002), 한옥과 한국 주택의 역사(권용찬·전봉희, 동녘, 2012).

필자 전남일(田南一)



주상복합 | 서울 구로구 | 김하나

주상복합
住商複合

정의 공동주택 등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시설과 판매, 업무 등 거주 외 목적의 비주거시설이 공존하는 건축물 유형.

개관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의 복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근대 이전 전통가옥 형식의 점포주택이나 광복 후 한동안 유행한 상가아파트와 근래 들어와 널리 건축되고 있는 소규모 상가주택도 주상복합住商複合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주상복합이라는 명칭 자체는 1990년대 이후 용도상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이 복합된 대규모 건축물이 널리 건축되면서 이를 지칭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하였다. 공동주택이나 상업시설 등 주상복합을 구성하는 개별 시설이 <건축법시행령> 등 법령을 통하여 정의되어 있는 것과 달리 시설 명칭으로서의 '주상복합'은 법률 정의가 없는 비법정非法定 용어이다.

내용 주상복합은 상업지역과 같이 법률상 공동주택의 단독 건축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공동주택과 주거 외 용도를 법정 연면적 비율에 따라 복합하여 건축한 건축물을 의미한다. 법령에서 이러한 건축물을 주상복합이라는 명칭으로 특정하여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거지역 내에서 근린상가 등 일부 상업 용도를 포함하여 건축되는 일반 공동주택과 구분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기준을 갖춘 건축물을 흔히 주상복합이라고 일컫는다.

주상복합의 주거시설 용도는 공동주택에 해당하지만 300가구 미만 건축 시 일반 공동주택에 비하여 간소화된 인허가認許可 절차와 설계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주거 외 용도는 판매시설 등 상업 기능이 주를 이루지만 입지에 따라 업무시설·숙박시설 등이 복합되는 경우도 있으며,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準住宅이 주거 외 용도로 도입되기도 한다.

주상복합이 입지하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은 용도상 높은 용적률 개발이 불가피한 지역으로, 주상복합 역시 이러한 입지 조건에 상응하는 고층·고밀도의 탑상형塔狀型 건축물 형태로 건축되어 왔다. 이는 한동안 주상복합을 언급할 때 가장 먼저 연상되는 외형 특징이기도 하였다.

공간 구조 면에서는 가로 연계 및 시설 활성화에 유리한 저층에 비주거시설을 배치하고, 조망·일조 등 거주성 확보가 용이한 중·고층에 주거시설을 배치하는 수직 공간 배치가 일반 형태이다. 입지 여건에 따라 주거시설과 비주거시설을 수평으로 분리하여 상호 간 시설 간섭을 최소화하고 자유로운 평면 계획을 가능하게 하는 수평 공간 배치 방식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주상복합은 상업과 업무 기능 중심으로 직주 근접 구현을 위한 일부 주거시설이 포함된 형태의 복합시설 개념으로 도입되었지만 사업성 확보의 어려움 등 경제성 이유로 점차 주거시설의 연면적 비율 제한이 완화되면서 현재는 90%까지 주거시설 건축이 가능하여졌다. 즉 주상복합이 사실상 주거시설로 변질된 것이다.

한편 주상복합은 활성화 초기에는 다소 높은 지가와 건축비용 때문에 고소득층의 전유물로 여겨지기도 하였지만 수영장, 체력단련장, 게스트하우스 등 당시까지 보편화되지 않은 주민 편의시설을 도입함으로써 추후 이러한 시설들이 일반 공동주택에 빠른 속도로 확산·정착하는 데 기여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서울시 주상복합건물의 주거 특성(정은진, 한국학술정보, 2006), 주상복합건물의 계획적 관리방향(양재섭, SDI정책리포트90,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1),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필자 김하나(金하나)

주차장
駐車場

정의 자동차의 주정차를 위한 공간이나 시설.

내용 자동차는 공간만 있으면 어느 곳에서나 주정차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통 주차장駐車場이라 하면 여러 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땅을 포장하고 차선을 그어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 자동차 크기에 따라 면적에 차이가 있지만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하면 일반형 자동차 한 대를 주차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간은 최소 너비 2.5m, 길이 5m가 되어야 한다. 또 <주차장법>에 의하면 주차장은 위치에 따라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으로 나뉘고, 주차 방식에 따라 운전자가 직접 차를 운전하여 주차하는 자주식 주차장과 기계 구동으로 자동차를 입출고하는 기계식 주차장 등으로 나뉜다.

자동차가 발명되기 이전에도 전통 가옥에는 이동하기 위한 말을 보관하거나 달구지 또는 가마를 보관하는 공간이 바깥채, 행랑채에 따로 있었다. 그러나 이런 공간들은 극히 일부의 상류층 가옥에나 있었다. 일부 부유층이나 관공서만이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도 별도의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냥 노지나 마당에 대는 것을 일반상식으로 여기던 시기였다. 그러다가 1962년 1월 <도시계획법>에서 주차장을 도시계획 구역 내 교통, 위생, 산업, 문화 등에 관한 중요 시설로 정의하면서 주차장이라는 공간에 대한 법률 기준이 생겨났다. 1967년 3월에는 건축법상 연면적 2,000m^2 이상의 상업 및 업무용 건축물에 부설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1970년 1월부터는 자가용 차량의 도심 주차가 불허되었다. 이후 산업 발달과 함께 자동차가 기하급수로 늘기 시작하면서 주차 공간으로 인한 여러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였다.

국토 면적이 넓거나 개인 주택이 많은 나라에서는 개인 주택 옆에 넓은 차고를 지어서 이곳을 여러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좁은 면적에 얼마나 효율 높게 많은 자동차를 수용할 수 있을지가 문제였다. 주택 내에 주차장을 짓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이어서 주로 공유 공간에 주차장을 마련하고 있다.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약 2,344만 대다. 이처럼 인구 2.2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인구밀도와 고층 아파트가 집약 형태로 발달한 한국 주거문화의 특성상 주차장 공간 확보는 사회 문제로 떠올

주택법
住宅法



주차장 | 인천 남동구 | 1992 | 국립민속박물관

랐다. 증가하는 차량을 수용하기 위하여 1980년대부터 아파트 단지에 주차장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개인 보유 차량 증가로 지상에서 더 이상 주차 공간을 소화하기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주차 시설을 지하에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주차 시설이 지하로 이동하면서 생긴 지상 공간에는 놀이터나 정원 같은 입주민 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다. 반면에 이로 인하여 지반이 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단지 내에 주차장 설치가 필수화된 아파트와 달리 이면 도로를 이용하여 주차하는 일반 주택의 경우 주차 문제로 이웃 간에 심각한 불화를 불러들이기도 하였다.

특징 및 의의 인구 두 명당 한 대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차장은 필수 공간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자동차를 쾌적하게 보호할 수 있는 넓은 주차장의 유무와 차를 주차하고 이동하기에 편리한 접근성이 주거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참고문헌 새서울 주차백서(서울특별시 교통관리실 주차계획과, 2002), 한국인 어떤 집에서 살았나(김혜숙 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국토교통부(molit.go.kr).

필자 은현정(殷賢貞)

정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건설·공급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법률.

내용 <주택법住宅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주택의 건설, 제3장 주택의 공급, 제4장 리모델링,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등 총 6장 106조와 부칙으로 구성된다.

제1장 총칙에서는 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국민주택, 국민주택규모, 민영주택,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주택법>에서 다루는 주요 개념들을 정의하고 있다. 제2장 주택의 건설 부문에서는 주택건설사업자, 주택조합, 사업계획의 승인, 주택의 건설, 감리와 사용검사, 공업화주택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3장 주택의 공급 부문에서는 입주자저축, 분양가 규제,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4장 리모델링 부문에서는 안전진단, 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기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법>은 주택건설계획과 사업자등록제도, 주택건설기준 등 건설공급을 위한 요소들을 망라하고 있다. 건설사업자등록제도는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가구 이상 공급하는 사업자나 1만 m^2 이상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다. 단독주택 30호 또는 공동주택 30가구 이상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하여 주택 및 시설의 배치, 가구 간 경계벽,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대지조성기준,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등에 대하여 주택건설기준에 따라야 한다.

주택의 공급과 관련해서는 입주자 저축, 분양가상한제,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주택 전매제한 등의 내용을 <주택법>에서 다루고 있다. 분양가격은 공공택지와 공공택지 외로 구분하여 제한할 수 있다. 현재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만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가능하도록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예고되어 있다(2019. 8. 1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장·도지사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조정 대상 지역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는 경우 허가와 면적, 가구수 또는 입주자 동의비율 등을 <주택법>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켜야 한다.

특징 및 의의 <주택법>은 1972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을 토대로 한다. 본격적인 주택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박정희정부는 '1가구 1주택'이라는 슬로건하에 <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하여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였다. 주택건설 촉진을 목적으로 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주 내용으로 다룬 <주택건설촉진법>은 2003년 전부 개정되면서 명칭도 <주택법>으로 바뀌었고, 내용도 건설·공급·리모델링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1972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은 주택이 없는 국민에 대한 계획성 있는 주택의 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및 건실한 주택용 건축자재의 생산·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2003년 개정된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과 공급 외에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주택법>은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을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고, 주거안정 외에 주거수준 향상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과 공급, 주거복지에 관한 내용을 모두 포괄하고 있었으나 2015년 <주거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국민의 주거 관련 기본법은 <주거기본법>으로 대체되었다.

참고문헌 주택법·정책의 환경변화와 입법방향(허강무, 아주법학10-4,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국토교통부 통계누리(stat.molit.go.kr), 대한주택건설협회-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khba.or.kr).

필자 천현숙(千賢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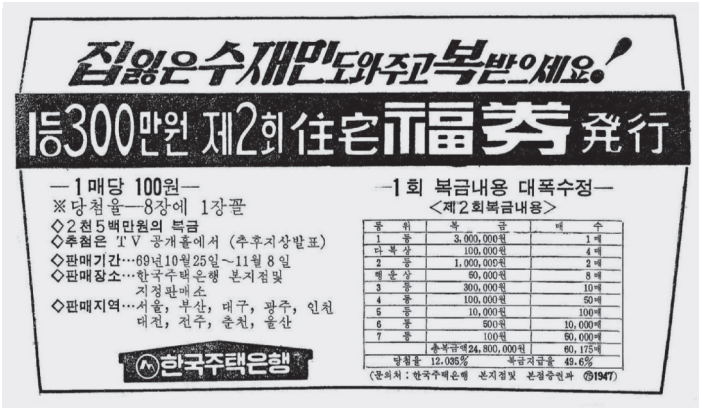
주택복권
住宅福券

정의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발행된 복권.

내용 복권福券, Lottery은 일정한 사행성을 전제로 국민에게 건전한 오락을 제공하고, 복권의 판매로 발생된 재원을 공익 사업에 활용하여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회 제도라 할 수 있다. 복권의 여러 종류 중 주택복권은 임대주택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발행된 복권이다.

주택복권은 1969년 9월 15일 <한국주택은행법>에 따라 처음 발행되었으며,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발행된 인쇄복권의 효시라 할 수 있다. 당시에는 무주택 군경유가족, 국가유공자, 파월장병의 주택 공급을 위한 자금 마련에 목적이 있었다. 액면가는 100원, 1등 당첨금은 300만 원으로 총 50만 장씩 월 1회 발행하였고, 서울에서만 판매되었다. 주택복권은 근대 복권 중 정부 지원으로 발행된 최초의 정기복권이다.

발행 횟수는 1972년 6월 월 3회에서 이듬해부터 주 1회로 바뀌었다. 1등 당첨금도 1978년 1,000만 원, 1981년 3,000만 원, 1983년 1억 원으로 올랐다. 2004년 기준 액면가는 1,000원, 1등 당첨금은 5



1등300만원 제2회 주택복권발행 | 1969.10.23 | 동아일보



결핵예방 표어 주택복권 | 1982 | 서울역사박물관

억 원, 2등은 2억 5,000만 원(2장), 3등은 100만 원, 4등 당첨금은 1만 원, 5등은 1,000원이었다. 그밖에 보너스상 2장(승용차·정기예금증서)과 행운상(500만 원)이 있었다. 주 1회에 총 360만 장이 발행되었고, 당첨금 소멸시효는 3개월(90일)이었다. 추첨은 주로 KBS 방송을 통해 이루어졌다. 일요일 낮 시간대의 추첨 방송은 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되기도 하였다.

1983년 올림픽 개최 비용 마련을 위해 올림픽복권이 발행되면서 주택복권은 발행이 중단되었다가 1989년 발행을 재개하였다. 당시 액면가는 500원이었다. 1980년대까지는 유일한 정기 발매 복권으로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 왔으나 1990년대 초 조흥은행에서 즉석식 복권인 엑스포 복권을 발행하면서 독점이 깨지자 즉석식 주택복권인 찬스복권을 발행하기 시작하였고, 1993년부터는 다첨식 복권인 또또복권을 발행하기도 하였다. 주택복권은 한국주택은행에서 발행하다가 2001년 4월 국민은행과 합병한 이후부터는 국민은행에서 발행하였다. 2006년 4월 복권위원회 복권 구조조정에 따라 폐지되었다.

수익금은 임대주택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국가유공자 복지사업, 저소득층과 장애인 및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유산 보전 사업, 국민주택기금 조성 등에 사용되었다.

특징 및 의의 복권은 사행성, 중독성, 역진성 등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지만 공공재원 조달, 저소득층 지원에 의한 소득분배 개선, 지역경제 발전 등의 긍정적인 역할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복권의 역할은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세금 부담을 줄이고 공익적 재원을 확보하여 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생활 속에서 건전한 오락으로 즐거움을 주며, 불법 사행적 도박이나 게임을 대체·흡수하는 역할을 들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복권기금의 공익적 사용으로 생산유발, 부가가치, 취업유발 효과를 내는 역할을 한다. 특히 부동산 및 서비스업에서 파급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택복권은 2006년에 폐지되었으나 현재도 로또·연금복권 등의 발행으로 생기는 수익금이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으로 전입되어 저소득층과 서민을 위한 국민주택 건설과 구입·임차·개량자금 지원 등 주거복지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참고문헌 2014 복권백서(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 사무처, 2014),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필자 천현숙(千賢淑)

죽부인
竹夫人

정의 대나무로 얼기설기 둥글게 짜서 여름에 끼고 자면 시원하도록 만든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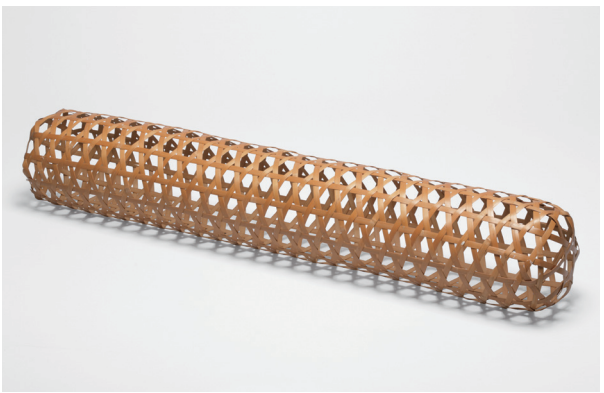
개관 『재물보才物譜』에 "죽부인은 죽으로 만들었고 긴 베개인 장침長枕과 같아서 여름에 잠잘 때 들이면 시원하다."라고 하였다. 그 생김새는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죽竹으로 짜서 만드는데 모양은 연통 같은데 안은 비어 있고 밖은 둥글고 매끄럽다. 여름에 이것을 이불 안에 넣고 자면 팔과 무릎을 쉬게 할 수 있다. 그런고로 죽부인이라 하는데 죽궤라고도 한다." 죽부인竹夫人은 이렇듯 죽궤竹几로 불리었지만 속칭 '청노靑奴'라고도 하였다. 그것은 북송대北宋代 시인 산곡山谷 황정견黃庭堅이 전하는 말로 설명된다. '손과 발을 놀리지 않는 것은 부인의 직분이 아니므로 청노'라 하였다고 전한다. 조선 후기 조재삼趙在三(1808~1866)의 『송남잡지松南雜識』에는 죽부인명竹夫人銘에 "지금은 한여름에 베 이불로 죽롱竹籠을 싼다."라고 하여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내용 죽부인은 오늘날에도 사용되고 있어 낯설지 않다. 여름에 바람이 잘 통하도록 고안된 전통 평상 위에 함께 놓고, 무더위를 견딜 수 있는 생활용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죽부인'이라는 이름은 『동문선東文選』에 실린 고려 사람 이곡李穀이 지은 <죽부인전>에 등장한다. 대나무로 만든 여러 기구를 의인화한 내용으로, 악기와 화살·낚시대 등 대나무로 제작된 갖가지 도구들의 쓰임에 관하여 언급하였고, 그 일가인 죽부인이 지조 있고 절개 있는 성품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어서 대나무에 담긴 상징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더운 날 대나무를 재료로 하여 만든 제구를 사용한 것은 중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임하필기林下筆記』「화동옥삼」의 '죽부인竹夫人과 탕파자湯婆子'에서 죽부인을 "대오리를 엮어서 통을 만들되 속은 비우고 겉은 구멍을 낸다. 더울 때 이것을 침대나 앉을 자리에 두면 손과 발을 쉬게 할 수 있으니 가벼움과 서늘함을 취한 것이다. 세속에서 이것을 죽부인이라 이른다. 상고하건대 육귀몽陸龜蒙이 죽협슬竹夾膝 시를 지었다. 죽협슬은 바로 이 기구였다."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조선시대 문인들은 시에서 소식蘇軾의 시 <송죽궤여사수재送竹几與謝秀才>의 '류아동행목상좌留我同行木上座 증군무어죽부인贈君無語竹夫人'이라는 글귀를 자주 인용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문인에게 잠시 달콤한 휴식을 취하기 위한 필수품으로 죽부인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옛 선비들이 죽부인을 사용한 것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죽부인은 '죽궤' 혹은 '청노' 등 별칭으로 불리었다. 죽부인의 재료인 대나무는 본래 중국 고대부터 군자와 정절을 상징하는 대상으로 여겨졌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조선 후기 『물명고物名攷』에서 대나무를 차군此君으로 기록하는 등 일반 식물과 다르게 인격을 부여하여 지칭하기도 하였다. 그만큼 대나무는 조선 문인들에게 친근한 소재였고, 이를 더위를 식히는 기구로 만들어서 무더위를 이길 생필품으로 썼던 것이다.

특징 및 의의 조선시대 대나무는 다양한 도구 재료로 활용되었다. 농이나 상자, 발[簾], 농기구, 부채, 칠기, 활, 화살통, 필통, 담뱃대, 낚싯대, 갓, 삿갓, 빗 등 셀 수 없이 많은 다양한 도구의 재료로 사용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대나무는 조선 선비들에게 군자의 상징체로서 그리고 벗으로도 여겨졌다. 선비 방에는 대나무로 만든 고비와 필통·부채 등이 있었고, 반죽은 더욱 환영받아 연상이나 붓대를 만들어 그 격을 높였다. 대나무의 대오리로 만든 죽부인은 통풍이 되고 탄력이 있어서 장침과 같은 효능이 충분하였으며, 더위를 식히는 최고 용품으로 쓰였다. 이 때문에 문인들은 글 속에서 죽부인을 피곤함을 달래 주는 휴식 도구로 자주 인용하였고, 중국의 산곡 황정견은 죽부인을 농리穠李



죽부인 | 길이120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나 소화昭華와 같은 귀인가貴人家의 기녀들 못지않다는 비유를 시로 남기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松南雜識, 林園經濟志, 林下筆記, 민족생활어사전(이훈종, 한길사, 1993).

필자 김미라(金美羅)

줄

정의 목재나 철재, 골각 등 여러 가지 재료의 표면을 갈아 내는 연장.

개관 줄[銼]은 공예품을 만들거나 연장을 연마할 때 사용하는 연장으로, 대체로 공정의 마지막 단계에 사용된다. 줄로 갈아서 공예품의 표면을 곱게 만드는 일은 제품을 아름답게 만드는 마지막 단계에 속한다. 그러나 제작 과정에 이음이나 맞춤을 할 때 작은 구멍을 세밀하게 확장하거나 장부를 절삭할 때도 줄은 요긴하게 사용된다. 줄은 이처럼 제품 가치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중요한 연장이다.

내용 줄은 단단하고 거친 표면을 이용하여 소재의 표면을 갈아서 세밀하게 절삭하는 데 사용하거나 제작품의 거친 표면을 부드럽고 곱게 가는 데 사용하는 연장이다. 줄은 주로 가구를 만드는 소목장, 창호를 만드는 창호장, 생활용품을 만드는 장인들이 많이 사용한다. 줄을 만드는 재료로는 크게 쇠나 상어 껍질이 있다. 쇠로 만든 것을 대체로 '줄'이라 한다. 상어 껍질로 만든 것은 '환' 또는 '어피환'이라 한다.

줄은 쇠판이나 쇠막대기 표면에 아주 작은 이빨을 촘촘히 만들어서 자루에 끼워 제작한다. 이빨의 크기와 수에 따라 거친줄이 되기도 하고 고운줄이 되기도 한다. 거친줄을 만들려면 이빨을 조금 크고 듬성듬성 제작하면 되고, 고운줄을 만들려면 이빨을 작고 촘촘히 제작하면 된다.

쇠판에 단단한 송곳을 비스듬히 대고 강하게 때리면 표면이 조금 올라온다. 이때 이빨의 크기를 조절하면 거친줄과 고운줄을 만들 수 있다. 이빨은 대개 같은 방향으로 세우지만 양방향으로 세우면 앞뒤로 갈 수 있다. 줄은 좁고 긴 쇠붙이에 이빨을 새겨 사용한다. 줄은 이빨 길이에 따라, 날의 거칠고 부드러움에 따라 여러 가지 용도로 구분된다.



줄 | 국립민속박물관
① 평줄 | 길이26 너비3 | 광복 이후 ② 삼각줄 | 길이28 너비2 | 광복 이후
③ 둥근줄 | 길이25 너비3 | 광복 이후 ④ 어피환 | 길이27 너비11 | 1960년대

대개 한 자 길이로 만든다. 한쪽은 나무 자루를 박아 손잡이를 만들어 둔다. 근래에는 기계로 만든 다양한 줄이 사용되고 있다. 줄의 모양과 기능에 따라 평줄, 각줄, 삼각줄, 반원줄, 둥근줄, 거친줄, 중간줄, 고운줄 등이 있다. 이들 쇠줄은 주로 쇠붙이를 연마할 때 사용한다.

목재를 마름질할 때는 '환'을 사용하였다. 줄은 쇠붙이 연마, 환은 목재 연마에 각각 사용한다. 환은 나무토막이나 나무판에 상어 껍질을 붙여서 사용한다. 상어 껍질을 어느 정도 말리면 세포 속의 습기가 건조되면서 가공하기 좋을 정도로 부드러워진다. 붙이고자 하는 나무 크기에 맞춰 자른 다음 거친 껍질이

밖으로 나오게 하고 안쪽은 목재 면에 압착하여 붙인다. 아교를 상어 껍질과 목재 면에 바르고 이 둘을 단단하게 붙인 다음 그늘에 말리면 어피환이 완성된다. 이것을 '나무줄'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는 '교피鮫皮', '안기려雁歧鑢'라고도 한다. 크기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각재에 붙여서 만들기도 하고 판재에 붙여서 만들기도 한다. 상어 껍질도 거친 부분과 고운 부분이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거친 것과 고운 것을 구분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갈고자 하는 면에 어피환을 대고 누르면서 앞뒤로 밀면 갈아진다. 어피환은 쇠줄에 비하여 약해서 오래 사용할 수가 없다.

쇠줄은 목재 면도 갈지만 강도가 세기 때문에 쇠를 가는 데도 많이 쓰인다. 특히 날이 촘촘한 톱날은 숫돌로 날을 세우기가 어려우므로 쇠줄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목재의 표면은 섬유질에 따라 고운 것도 있고 거친 것도 있다. 또한 장인의 솜씨가 좋아도 마무리가 일정하게 정리되기 어려운 면이 나타나게 된다. 맞춤과 이음은 표면 마무리를 정교하게 하기가 쉽지 않다. 줄은 이처럼 공예품의 표면 마무리를 정교하게 만들어 주는 연장이다. 주로 가구를 만드는 소목장, 창호를 만드는 창호장 등 공예품을 만드는 장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다.

특징 및 의의 줄은 물건을 만드는 공정의 마지막 단계에 주로 사용하지만 간혹 공정의 중간에도 사용한다. 줄은 두 부재가 만나는 부분의 세밀한 격차를 교정하거나 부재를 맞춤할 때 미세한 절삭이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연장이다. 특히 제작품의 거친 표면을 곱게 마름질할 때 효과가 있는 연장이다. 이러한 기능으로 인해 줄은 제작품의 가치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연장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연장과 치목(이왕기, 건축36-4, 대한건축학회, 1992), 한국의 건축 도구(이왕기, 건축장인의 땀과 꿈, 국립민속박물관, 1999), 한국의 건축연장 연구 2(이왕기, 목원대학교논문집8, 목원대학교, 1985).

필자 이왕기(李王基)

중문
中門

정의 대문과 중심건물 사이에 있는 문.

내용 중문中門, 重門은 대문과 중심건물 사이에 있는 문이며, 위치에 따른 문의 명칭이다. 궁궐, 사찰, 양반가 등 다양한 공간 내에 중문이 있다. 한자로는 '中門' 또는 '重門'으로 쓰인다. '중대문中大門, 重大門'으로 부르기도 한다.

건물의 배치에 따라 중문의 위치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궁궐과 사찰 중에는 중심건물에서 대문까지 직선으로 이어지는 중심축에 중문을 배치하는 사례가 있다. 경복궁에 그 모습이 남아 있다. 광화문이 경복궁



중문 | 서울 종로구 경복궁 흥례문 | 국립민속박물관



중문 | 경남 함양 일두 고택 | 주택문화사

의 대문이고 근정전이 중심건물이 되는데 근정전 앞 근정문과 홍례문이 중문에 해당한다. 사찰의 경우는 평지가람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금당과 일주문 사이에 있는 인왕문과 사천왕문 등이 중문에 해당한다.

중문이 대문부터 중심건물까지 이어지는 중심축에 지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양반가는 행랑채 한 칸에 중문을 내는 경우가 많다. 이때 행랑채에 연결된 중문은 안채 등 중심건물에서 일직선으로 연결되지 않고 자유롭게 배치된다. 창덕궁과 사찰 산지가람의 경우 중심축선이 반드시 직선을 이루고 있지는 않으나 대문과 중심건물 사이에 중문을 두어 자연스럽게 출입 경로가 되게 한다.

창덕궁 돈화문이 대문이고 인정전이 중심건물이며 진선문과 인정문이 중문에 해당한다. 돈화문에서 진선문은 금천교를 건너 서쪽으로 직교하는 배치이고, 다시 진선문에서 인정문도 북쪽으로 직교하는 형태이다. 인정문에서 인정전은 직선을 이룬다. 돈화문에서 인정전까지는 중심축이 두 차례 바뀐다. 그러나 돈화문에서 진선문의 위치가, 진선문에서 인정문의 위치가 각각 확인 가능하여 자연스럽게 경로를 유도하는 형태이다. 배치의 중심축선이 지형에 따라 바뀌어도 대문에서 중심건물 사이의 긴 거리에 중문을 두어 처음 방문하는 사람도 표지 없이 경로를 알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마당에서 안채로 바로 이어지는 규모의 살림집에서는 중문을 거의 볼 수 없다. 살림집 중에서도 규모가 있는 양반가 등에 중문이 있다. 대문에서 행랑채를 거쳐 안채나 사랑채로 이어진다. 이때 중문을 거치게 되어 있다. 행랑채의 한 칸을 중문으로 하기도 하지만, 안채와 사랑채 사이 또는 안채와 대문 사이에 내외담을 두고 중문을 설치하는 사례도 있다. 가옥의 중문은 거주자의 사생활을 지켜 주는 대표적인 구조물이다.

궁궐과 사찰의 중문은 가옥의 중문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진다. 궁궐의 중문은 대부분 단층이지만 경복궁의 경우는 중문인 근정문을 중층으로 하여 중층인 근정전과 어울리면서도 격식을 높여 설치하였다. 대문에서부터 여러 개의 중문을 거쳐 중심공간으로 이어진다. 이 긴 동선을 통과해야 겨우 통치자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심리적 거리감을 준다.

사찰의 경우 대문인 일주문에서 금당으로 진입하면서 사천왕문이나 인왕문과 같은 중문을 둔다. 일주문으로 속세와 부처의 세계를 구분하였다면 사천왕문이나 인왕문을 두어 신도에게 종교적 경건함을 유도하였다.

중문은 넓은 구역을 용도에 따라 구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분기점이면서도 거주자의 보안과 사생활을 보호해 주는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궁궐과 사찰에서는 해당 공간의 중심건물이 가진 각각의 특성을 극대화하는 단계적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참고문헌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김왕직, 동녘, 2007), 영건의궤(영건의궤연구회, 동녘, 2010), 한국건축개념사전(한국건축개념사전기획위원회, 동녘, 2013), 한국건축대계1-창호(장기인, 보성각, 2000), 한국건축대계4-신편 한국건축사전(장기인, 보성각, 2014), 한국의 문과 창호(주남철, 대원사, 200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stdict.korean.go.kr).

필자 조현정(趙賢貞)

중앙난방
中央暖房

정의 중앙기계실에 있는 보일러를 이용하여 한곳에서 데워진 물을 강제 순환시켜 주거동, 단지의 각 가구에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방식.

개관 중앙난방中央暖房은 중앙기계실의 보일러로 증기나 온수 또는 더운 바람을 만들어 배관이나 덕트duct를 통하여 각 가구家口에 분배하는 난방 방식이다. 난방을 하는 방식에는 보일러에서 연료로 데운 물이 바닥에 매설된 온수관을 통하여 따뜻해진 바닥면의 복사열을 이용하거나 실내에 라디에이터radiator와 같은 방열체放熱體를 설치하고 여기에 증기나 온수를 보내 실내 공기를 따뜻하게 데우는 방식이 있다.

중앙난방 스팀 방식이 아파트에 처음 시도된 사례는 1967년 외국인을 대상으로 계획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인아파트였다. 1970년대에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한 한강맨션아파트, 반포아파트 등의 대형 아파트단지나 민간건설업체가 공급한 대부분의 고층아파트들이 중앙난방 온수 방식으로 공급되었다. 초기 아파트의 중앙난방은 라디에이터를 데우는 스팀 방식이었으나 당시 좌식생활에 적합하지 않아 점차 온돌 바닥 패널panel난방 방식으로 변화하였고, 1990년대 이후에는 라디에이터 방식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

내용 공동주택의 난방은 크게 개별난방·중앙난방으로 구분되며, 중앙난방의 열원을 개별 단지가 아닌 도시 내 대규모 에너지 공급지역으로부터 얻게 되면 지역난방으로 구분된다. 중앙난방 방식은 중량 구조인 아파트의 축열기능을 활용하는 것이며, 단지에서 정한 난방 기간에 110℃ 고온수부터 70~80℃ 중온수를 각 가구에 오전과 오후 대략 두 번에 걸쳐 단시간(6~8시간)에 많은 열량을 공급한다. 중앙난방은 단지 내 보일러 운전자의 경험에 따른 난방 일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어 아파트단지 간에도 운전 방식이 상이하다. 적절한 난방 방식은 단지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 5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단지, 평지, 향후 지역난방 공급이 예상되는 곳에는 중앙난방이 적합하다.

1970년대 말부터 대규모 단지 형태의 아파트가 건설되었고 난방은 중앙난방 온수 방식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온돌난방 방식인 온돌 바닥 패널난방 방식으로 하였다. 1980년대에는 중앙난방 연료원으로 석유 대신 도시가스와 LPG liquefied petroleum gas(액화석유가스)가 등장하였고, 1990년대에는 정부가 공해문제 해결을 위해 아파트에 LNG liquefied natural gas(액화천연가스) 연료로 대체하도록 하면서 가스보일러가 증가하였다.

중앙난방에 대해, 1년 중 정해진 기간과 시간에만 난방이 되는 것, 단지 전체의 난방비용을 주택 규모에 따라 일률 부과를 하는 것, 같은 동에서도 층에 따라 온도에 차이가 나는 것, 난방온도를 개별 가구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없는 것 등의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이를 완화시키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정부 정책으로 가구별 열량계 또는 온도조절장치의 설치 의무화도 실시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석유 등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 소득 증대에 따른 가구별 에너지 대응 선호의 증가, 난방 기술 발달 등으로 중앙난방에 대한 선호가 감소하여 개별난방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특징 및 의의 아파트의 난방 방식인 중앙난방의 장점은 같은 규모의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단독주택에 비하여 관리비가 저렴하고, 개별 가구에 보일러실이 없어서 개별난방보다 공간을 넓게 확보하고, 보일러를 관리하지 않아도 되어 안전하고 편리하므로 가사를 경감시킨다는 것이다. 반면 단점으로는 1년 중 정해진 난방 기간과 하루 중에도 정해진 시간대에만 난방이 되고, 난방비를 개별 가구의 주택 면적에 따라 일률 부과를 하는 것, 같은 동에서도 개별 가구가 위치한 층에 따라 난방 온도가 차이 나는 것, 난방 온도를 개별가구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없는 것 등이다.

정부 차원에서 가정의 에너지 절감이 중시되면서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중앙난방을 지역난방이나 소형 열병합발전 방식의 효율 높은 운전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에너지기금을 지원하는 등 장려를 하고 있는 추세이다.

참고문헌 공동주택의 개별난방과 중앙난방의 장단점 비교1~4(이은택, 냉동공조기술10-11~11-2, 한국설비기술협회, 1993~1994), 주거용 연료의 전환에 의한 주거공간 구성의 변화 과정에 관한 연구(박용환·이순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7, 대한건축학회, 1997), 한국 근대 주거론(박용환, 기문당, 2010), 한국 주거와 삶(윤정숙 외, 교문사, 2011), 한국 주거의 미시사(양세화·전남일·홍형옥, 돌베개, 2009).

필자 박경옥(朴庚玉)

지관
地官

정의 고려시대 서운관과 조선시대 관상감에 소속되어 궁궐, 왕릉, 태실, 천도 후보지 등의 터를 잡는 관리.

개관 협의의 의미에서 지관地官은 지리[地] 관리[官]란

뜻의 조선 왕조 때 풍수관리를 말한다. 고려 왕조에서는 일관日官으로 불리었다. 그러나 풍수관리가 아닌 자로서 풍수에 종사하는 풍수가들도 존칭의 의미에서 지관으로 호칭되었다. 이는 최근까지 시골에서 신분상 양반이 아닌 평민임에도 택호로 상대방을 높여 '○○양반'이라 불리던 것과 비슷하다. 따라서 광의의 의미에서 지관에는 풍수업으로 생계를 꾸려 나간 지사, 풍수사, 풍수가 등이 모두 포함된다.

내용 풍수관리로서 지관이 되기 위해서는 풍수 관련 시험을 치러야 하였다. 고려 왕조의 풍수관리(일관) 선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날 『신집지리경新集地理經』 10조條, 이튿날 『유씨서劉氏書』 10조를 시험 보고 각각 6조 이상 통과해야 한다. 그 밖에 『지리결경地理決經』·『경위령經緯令』·『지경경地鏡經』·『가결訶決』·『구시결口示決』·『태장경胎藏經』·『소씨서簫氏書』 등에 대해서도 일정 분량 이상의 해석과 뜻을 알아야 시험에 통과해서 관리가 되었다.

조선 왕조에서 지관으로 선발되려면 두 차례의 시험을 통과해야 하였다. 1차 시험은 관상감, 2차 시험은 관상감과 예조가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청오경靑烏經』과 『장서葬書』(『금낭경錦囊經』이라고도 불림)에 대하여 해당 책 없이 돌아앉아서 그 내용을 외워야 하였고(배강背講), 『지리신법地理新法』·『명산론明山論』·『지리문정地理門庭』·『감룡경撼龍經』·『착맥부捉脈賦』·『의룡경疑龍經』·『동림조담洞林照膽』·『경국대전經國大典』 등을 펴 놓고 가리키는 문장의 뜻을 답해야 하였다(임문고강臨文考講).

지관은 시험을 통과한 국가 관리였기 때문에 수가 한정되었으며, 풍수 지식이 정확하였다. 조선 초기 세종 대 지관 가운데 이양달은 조선 개국과 더불어 도읍지 선정에 관여하는 등 지대한 공헌을 하여 정1품직을 받는다. 지관 안효례 또한 세조의 왕위 찬탈과 능묘 자리 선정 등에 기여하여 당상관의 벼슬에 오른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관의 지위는 낮았다. 잡과雜科 소속으로 기술직이자 중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양반 출신 관료들에 비하여 차별 대우를 받았다. 지리학(풍수학) 교수가 종6품, 지리학훈도가 정9품이었다.

특징 및 의의 삼국시대부터 조선 말까지 풍수관리로서 지관은 크게는 도읍지 선정에서 작게는 왕릉 선정까지 관여하였기 때문에 왕실뿐만 아니라 사대부와 서민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터를 잡고, 집과 무덤을 앉히고, 주변 경관을 조성하는 일체의 행위에 지관이 관여하지 않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바로 우리 민족의 국토관, 거주관, 생사관, 자연관에 지관이 직간접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그러한 까닭에 풍수 관리(지관)가 아니라 하더라도 풍수에 일정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대부, 승려, 잔반殘班뿐만 아니라 평민 중에서도 '지관' 노릇으로 생계를 꾸리거나 세도가 또는 부자들에게 접근하려는 자가 많아 조선 후기에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광복 이후 북한에서는 풍수를 '봉건도배들의 묏자리 잡는 일'로 치부되어 더 이상 '지관'들의 활동 영역이 사라졌으나 남한에서는 무덤, 집터, 사옥, 신도시(세종시·경북도청 등) 입지 선정과 공간 배치에 풍수가 활용되는 등 풍수 전문가들이 미약하게나마 '지관'의 전통을 이어 가고 있다.

참고문헌 高麗史, 풍수학사전(김두규, 비봉출판사, 2005), 한국풍수사상사연구(이몽일, 일지사, 1991), 朝鮮の風水(村山智順, 朝鮮總督府, 1931), 조선왕조실록(sillok.history.go.kr).

필자 김두규(金科圭)

지붕

정의 눈비와 볕을 차단하는 건물의 가장 윗부분을 아우르는 말.

내용 한국건축물은 기단부, 몸체부, 지붕부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기단은 대개 석재로 만들며, 지면의 습기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목조로 이루어진 몸체부가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 몸체부는 기둥과 벽으로 구성되며, 외부로부터 거주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지붕부는 몸체부에 모자처럼 씌워

눈비를 막고 햇빛을 차단해서 사람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원시시대 움집은 기단과 몸체가 없고 움에 씌운 지붕만 있는 구조였다. 움집은 채난採暖에는 유리하지만 습기에는 약하기 때문에 난방이 발달하는 시점에 지상화가 진행되면서 몸체와 분리된 지붕부가 탄생하였다. 움집의 지붕은 대개 원추형으로, 서까래를 고깔모자 모양으로 걸고 들에 많이 자라는 억새나 갈대 등으로 엮어서 완성하였다. 철기시대 이후에는 움의 평면이 장방형으로 발달함에 따라 지붕도 원추형의 모임지붕이 아닌 맞배지붕이나 우진각지붕이 등장하였다. 벽체가 없는 움집은 서까래를 지면에 직접 박고 내부 고주高柱가 지붕의 도리 등을 지탱하는 구조이다. 지붕의 빗물이 지면으로 바로 흘러내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움집 주변에 약간 높은 턱을 두어서 빗물이 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

목조건축물은 다른 건물에 비하여 빗물에 의한 부식에 취약하기 때문에 지붕곡과 처마 등이 있는 발달된 지붕을 만들게 되었다. 지붕의 뼈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 위에 도리를 올린 다음 도리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서까래를 걸어 지붕 가구를 만든다. 서까래부터 지붕이라 할 수 있으며, 서까래 사이를 산자엮기나 개판으로 막은 다음 방수를 위한 재료를 올리면 지붕이 완성된다.

지붕 종류를 재료에 따라 구분할 때는 최종 마감재로 한다. 한국의 전통건축물에는 볏짚으로 이은 초가지붕이 가장 많다. 다음이 기와지붕, 너와지붕, 굴피지붕 등이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건물로만 보면 초가는 수명이 짧고 급속도로 사라져서 기와집이 가장 많다. 벼농사가 시작되기 전, 움집의 경우 들이나 강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새[草]나 갈대로 이은 집이 대부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새는 띠나 억새 따위를 일컬으며, 이것으로 지은 집을 샛집이라고 하였다. 벼농사가 시작되면서부터는 주변에서 볏짚을 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샛집의 지붕 재료는 대부분 새가 아닌 볏짚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초가지붕이라 하면 볏짚을 이은 집으로 알고 있으나 원래는 들에서 자란 새를 이은 지붕이었다. 초가지붕은 서까래 위에 수수깡이나 싸리나무 등을 발처럼 엮은 산자엮기를 깔고 그 위에 진흙에다 여물을 썰어 넣어 잘 이긴 알매흙을 골고루 펴 준다. 이것이 지붕의 바탕면이 된다. 알매흙 위에는 지붕의 물매를 잡아 주기 위하여 탈곡하고 남은 짚이나 청솔가지, 낡은 이엉 등을 펴서 깔아 준다. 이를 군새라고 한다. 군새를 두껍게 깔아 주면 외부에서 물이 스며들더라도 지붕 아래까지 전달되지 않는다. 군새 위에는 새나 볏짚을 엮어 만든 이엉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깐다. 이를 초가잇기라 한다. 지붕의 가장 윗부분은 용마름을 엮어 올린다. 이엉을 다 잇고 나면 이엉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새끼줄로 묶어 준다. 이를 고사새끼라 한다. 고사새끼는 묶는 방법에 따라 격자엮기와 마름모엮기가 있다. 고사새끼 끝은 서까래 끝에 고정시켜 놓은 연죽에 잡아맨다. 연죽은 대나무나 긴 장대를 사용하였다.

초가지붕 형태로는 우진각지붕이 가장 많다. 드물게 맞배지붕이나 외쪽지붕이 있다. 맞배지붕이나 외쪽지붕은 부속건물, 가축우리, 창고 등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많지는 않다. 초가지붕에 들어가는 재료는 농경사회에서 가장 흔하게 구할 수 있고 경제성이 가장 좋았다. 가을에 추수가 끝나면 대개 마을 단위로 품앗이 삼아 초가잇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풍경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찾아볼 수 없다. 초가지붕은 수명이 길지 않아 1년 또는 2년 주기로 이엉을 새로 이어야 한다. 따라서 농경사회가 아닌 지금과 같은 현대 사회에서는 초가지붕 재료를 사는 것도 어렵고 가격도 비싸며 기능이 사라져서 품질도 떨어지고 인건비도 비싸 고가의 지붕 형식이 되었다. 초가지붕은 방수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3겹 이상으로 두껍게 잇고, 자주 갈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재료가 가벼워서 서까래와 기둥 등 가구 부재가 기와지붕에 비하여 절반 정도 굵기면 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다. 다만 단점은 수명이 짧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이 기와이다.

기와지붕은 안 되어도 기원전 3~2세기경 고조선 시대에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다. 기와는 흙으로 빚어 굽기 때문에 공임이 많이 들어가는 비싼 재료이다. 따라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반가班家나 궁궐, 사찰

등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기와 자체의 수명은 70~80년으로 알려져 있으나 기와 교체 주기를 보면 30~40년으로 나타난다. 초가지붕 재료와 비교하면 수명이 15~30년이나 길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보면 경제성이 더 뛰어난 지붕 재료이다. 단점이라면 무겁기 때문에 기둥과 보 등 가구 부재들이 굵어진다는 것이다. 기와지붕의 구성은 서까래 위에 산자엮기나 개판을 깐 다음 지붕물매를 잡아 주기 위하여 잡목으로 채운다. 이를 적심이라고 한다. 초가지붕의 군새와 같은 역할이다. 적심 위에는 단열과 방수를 위하여 일정한 두께로 흙을 깔아 준다. 이를 보토라고 한다. 보토에는 생토를 사용하며, 습기가 없는 건토를 까는 것이 좋다. 그러나 건토는 기와를 이었을 때 흘러내리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보토 위에 차진 진흙을 치대 깐다. 이를 알매흙 또는 새우흙이라고 한다. 알매흙 위에는 바로 암키와를 깐다. 암키와는 알매흙에 의하여 고정된다. 암키와 위에는 수키와를 잇고, 수키와 아래에는 홍두깨흙으로 채워서 암키와에 접착시킨다. 바닥기와 잇기가 끝나면 면과 면이 만나는 부분에 지붕마루를 잇는다. 지붕마루는 대개 암키와를 여러 단 쌓고 수키와를 올려 마감한다. 처마 끝에는 원활한 낙수를 위하여 드림새가 있는 막새기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붕마루에는 벽사와 방화를 기원하는 용도로 치미, 취두, 용두, 잡상 등 장식기와를 올리기도 한다. 기와지붕 형태로는 맞배지붕, 팔작지붕(합각지붕), 우진각지붕, 모임지붕 등이 있다. 초가지붕에는 없는 지붕 형식이 팔작지붕이다.

너와지붕에는 나무너와지붕, 돌너와지붕 두 종류가 있다. 강원도 산간지역과 같이 논이 없고 목재가 풍부한 곳에는 초가지붕 대신 나무를 판재로 켜서 올리는 나무너와지붕이 있다. 나무너와 재료로는 소나무가 많으며, 크기는 사방 한 자 정도이다. 나무너와는 톱을 사용하지 않고 도끼로 켜서 만든다. 그래야 나무 골이 살아 있어서 배수가 원활하며 너와가 빨리


기와지붕 | 전남 영광 연안김씨 종택 | 서헌강


초가지붕 | 경북 안동 | 국립민속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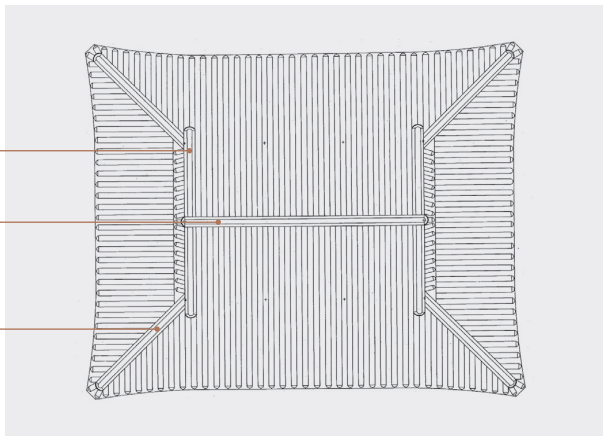

굴피지붕 | 강원 삼척 | 한승일


너와지붕 | 강원 삼척 | 서헌강

지붕

썩지 않고 오래 간다. 너와 수명은 5년 정도로, 초가에 비하여 상당히 길다. 나무너와는 바람에 날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누름대나 누름돌을 올려 고정시킨다. 점판암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에서는 나무 대신 판석으로 지붕을 올린다. 이를 돌너와라고 한다. 나무너와에 비하여 수명은 반영구라 할 수 있다. 지금은 사라져서 거의 볼 수 없는 지붕 재료이다. 너와지붕 형태는 합각 부분이 작고 환기구 정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진각 형태에 가깝지만 합각지붕과 달리 까치구멍집이라고 일컫는다.

특징 및 의의 한국건축물의 지붕은 외벽 밖으로 처마가 나와 있고 경사 지붕이기 때문에 용적이 넓다. 전체 입면 비례에서도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따라서 한국건축물 하면 지붕 이미지가 압도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한국건축물 하면 아름다운 지붕 곡선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처마곡선뿐만 아니라 용마루, 내림마루, 추녀마루가 모두 곡선이다. 게다가 지붕면 자체도 곡선이다. 지붕면을 곡선으로 하는 이유는 가속도에 의하여 배수가 더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처마곡선과 지붕 마루곡선을 현수곡선이라고 한다. 현수곡선은 컴퍼스를 사용해 그릴 수 없는 곡선이며, 지구의 만유인력이 만들어 낸 곡선이다. 미감으로는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곡선이라고 한다. 매우 완만한 일본의 지붕곡선이나 직선으로 가다가 추녀 있는 부분에서만 휘감아 올라가는 중국의 지붕곡선과는 확연히 대비된다. 이처럼 한국건축물의 지붕곡선은 인공이 만들어 낼 수 없는, 자연미학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붕마루 안내도 |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 | 김왕직·동녘

지붕에 곡선이 도입되지 않았다면 어떤 느낌을 주었을지 쉽게 추론해 볼 수 있다. 지붕의 모든 선을 수직과 수평의 직선으로 연결하고, 게다가 기와는 검고 육중하며 처마는 깊고 지붕이 크다면 압도하는 중압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양어깨가 처져 있고 어둡고 무거운 정적 느낌의 지붕을 경쾌하고 가볍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곡선의 도입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현수선이 가장 어색하지 않은 편안한 곡선으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만들어 낸다. 이것이 한국건축 지붕의 특징이며 건축미학이다.

기와지붕은 위로 치켜 올라간 앙곡이지만 초가지붕은 아래로 처진 뒷동산과 같은 곡선으로 서로 다르다. 지붕면도 기와는 배를 들어가게 하고 초가는 배가 나오도록 하였다. 초가는 용마루 부분의 경사가 완만하고 처마 부분에서 급경사를 이룬다. 빗물을 흡수하기 쉬운 초가 특성상 수량이 적은 용마루 부분은 완만하고 수량이 많은 처마 부분은 급경사를 이루도록 해서 배수가 급격히 되도록 하였다. 반대로 기와는 용마루 부분에서 급경사를 이루고 처마 부분에서 완경사를 이룬다. 기와는 물을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수량이 많은 처마 부분에서 오히려 유속을 줄여 기와의 손상을 방지한다. 재료에 따른 기능이 충분히 발현되면서도 미학이 반영된 지붕이라 할 수 있다.

기와지붕의 처마 부분에는 막새기와가 사용되고, 막새기와의 드림새 부분에는 각종 문양이 새겨진다. 불교가 들어온 이후로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막론하고 연꽃이 새겨진 연화문막새가 사용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인도 문자가 새겨진 범문자막새가 사용되었다. 기와지붕에서 연화문은 막새기와를 대표하며, 조선시대 말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었다. 궁궐기와에서는 용과 봉황이 많이 나타난다. 민가에서는 복과 장수·벽사를 기원하는 수복문양, 당초문양, 동물문양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따라서 막새의 문양은 소망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막새나 망와에는 지붕 중수연도, 기와 제작처, 와공들의 이름이 새겨진 명문기와도 많이 남아 있다. 한민족은 기록문화를 중

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명문기와를 통해서도 여실히 알 수 있다. 일본이나 중국의 기와에서는 한국만큼 명문기와가 발견되지 않는다. 막새를 사용할 수 없는 집에서는 수키와 끝을 하얗게 회로 마감하였다. 이를 와구토라고 한다. 처마선을 따라 흰 점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되어 지붕을 더욱 경쾌하게 하여 준다.

한국건축물은 온돌이 있기 때문에 배연시설인 굴뚝이 발달하였다. 굴뚝은 재료도 다양하고 지역에 따라 크기와 모양도 다르다. 추운 북쪽으로 갈수록 굴뚝은 높아진다. 굴뚝은 배연을 위하여 하늘로 열려 있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빗물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굴뚝에도 지붕을 설치한다. 규모가 있는 굴뚝은 건물과 같이 낱개 기와를 이어 만들지만 폭이 좁은 굴뚝은 기와지붕을 일체형으로 제작해서 올린다. 이를 연가煙家라 한다. 지붕이지만 집 모양을 닮았으며, 특수한 지붕에 속한다. 또 여기에는 특수 기와로 용마루가 없는 지붕에서 말안장처럼 생긴 마루기와를 사용한다. 이를 곡와曲瓦 또는 궁와弓瓦라 한다. 궁궐건축 중에서 대조전, 통명전, 교태전과 같은 건물에서 볼 수 있다. 반대로 지붕마루를 극도로 강조한 건축물도 있다. 궁궐, 관아, 서원, 향교와 같은 관영 건물에서 많이 나타난다. 지붕마루에 적새기와를 높이 쌓고 전체를 회칠해서 하얗게 마감하는 방식이다. 이를 '양성'이라고 한다. 건물이 크고 지붕마루가 높아 바람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양성을 하면 안정감을 준다. 검은 지붕에 하얗게 테두리를 둘러 깔끔하게 마감한 효과도 주며, 검은 지붕의 중압감도 상쇄하는 효과가 있다. 지금은 추녀마루의 끝을 마감하는 바래기기와, 귀면, 왕찌기와 등 장식 기와들이 사라져서 지붕 마감의 완성도가 많이 떨어진다. 이러한 고대 장식기와가 다시 생산되어 한국 지붕의 완성도를 높여 주기를 바란다. 또 기와는 방수 기능 이외에 실내의 습기를 배출하는 통기성도 중요하다. 지붕 잇기가 쉽고 환경 친화적인 기와 개발이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또 아무리 재료가 발달해도 평지붕은 방수에 한계가 있으므로 경사 지붕을 이용한 건물 디자인이 많이 개발되어야 하며, 곡선이 아름다운 한국지붕의 미학이 현대 건축에도 잘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김왕직, 동녘, 2007), 지혜로 지은 집 한국건축(김도경, 현암사, 2011), 한국건축대계-신편 한국건축사전(장기인, 보성각, 1998).

필자 김왕직(金王稙)

지붕얹기

정의 바람, 눈, 비, 햇빛 등 자연환경으로부터 생활과 건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 위에 여러 가지 구조와 재료를 덮는 행위.

개관 지붕이란 집의 덮개로서 벽과 기둥을 보호하는 필수 구조 요소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연환경으로부터 인간의 생활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붕은 자연 환경, 생산 재료, 문화 특성, 기술 수준에 따라 점차 독특하게 발전하여 왔고 사람들은 지붕 모양을 이용하여 건축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려 하였다.

지붕의 틀을 완성하면 그 위에 지붕얹기를 한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붕 재료는 기와와 짚이다. 굴피나무나 상수리나무 껍질을 이용하기도 하고, 적송이나 전나무를 켜서 사용하는 너와지붕도 인다. 흔하지는 않지만 간혹 얇고 넓게 쪼개지는 점판암을 사용하기도 한다. 지붕으로 얹는 재료에 따라 지붕틀도 다르다. 기와지붕은 무겁고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지붕틀에 사용하는 재료가 크고 단단해야 한다.

초가집이나 굴피집은 무게가 가벼워서 지붕틀에 사용하는 목재가 가늘어도 된다. 점판암을 이용한 청석집은 무게가 무겁고 흘러내릴 수 있으므로 지붕틀은 단단하면서 물매를 낮추어 만든다. 지붕은 집의 전체 모양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붕얹기를 해야 한다.

내용 기와를 얹기 전에 먼저 지붕틀을 만든다. 지붕틀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추녀와 서까래이다. 추녀는 집의 모서리 기둥 위에서 벽의 사선 방향으로 길게 뻗는 부재이다. 끝부분이 내려오면서 위로 살짝


기와 지붕얹기 | 1999 | 국립무형유산원


초가 지붕얹기 | 이왕기

지붕얹기

올라가도록 걸쳐 놓이게 된다. 서까래는 추녀와 추녀 사이에 길게 나란히 기울여 놓이는 부재로, 기와 무게를 받쳐 준다. 서까래는 긴서까래[長椽], 짧은서까래[短椽], 부채살서까래(선자연扇子椽)로 나뉜다. 장연은 지붕 끝으로 이어져 처마를 만들고, 단연은 중심부에 높이 솟아 용마루를 형성한다. 부채살서까래는 추녀 부분에 설치되는 서까래이다. 서까래 설치가 끝나면 그 위에 산자 또는 개판蓋板을 덮고 적심을 채운 다음 보토(황토)를 골고루 깔아서 지붕물매를 잡아 둔다.

지붕 네 면 끝부분으로 돌아가면서 암기와와 막새가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연함을 파서 고정시킨다. 이때부터 기와얹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기와얹기 작업을 번와翻瓦, 이 일을 전문으로 하는 장인을 번와장翻瓦匠이라 한다. 옛말로 개장蓋匠이라고도 하였다.

기와얹기를 할 때는 먼저 번와장이 기와 크기와 지붕 길이를 계산하여 몇 줄을 놓을지, 몇 겹으로 할지를 정한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줄을 띄어 몇 개의 기준선을 만들어 놓는다. 기와를 놓을 때는 먼저 암키와를 처마 부분에서 놓기 시작하여 용마루 쪽으로 올라간다. 암키와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알매흙을 암키와 양쪽 솟은 부분에 채워 가면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겹쳐 놓는다. 이때 세 장이 겹치도록 놓는다. 한 장이 깨져도 빗물이 그 아래 기와에서 받아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암키와 사이에 수키와를 처마에서부터 용마루 쪽으로 올라가며 놓는다. 수키와는 암키와와 달리 한 쪽 끝에 턱이 진 언강이라는 것이 있어 한 장씩 언강 위에 올리면서 놓으면 된다. 수키와는 홍두깨흙을 암키와 사이에 채우면서 놓는다. 암·수키와가 모두 설치되면 그다음 추녀마루와 용마루기와를 놓는다. 용마루기와를 놓을 때는 먼저 가장 아래에 착고로 암수키와를 고정시킨 다음 그 위에 부고를 올린다. 부고 위에 적새를 5겹 또는 7겹으로 올려 용마루 모양을 형성하면 마지막으로 수키와를 길게 이어서 올려 둔다. 용마루 양 끝에는 치미 또는 용두기와를 설치한다. 추녀 끝에는 망와 또는 귀면을 올려놓는다. 처마 끝에는 막새기와를 놓거나 와구토를 발라 마무리하기도 한다. 기와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수막새 기와에 와정瓦釘을 박아 두기도 한다. 기와지붕은 모양에 따라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팔작지붕, 모임지붕, 가섭지붕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지붕 형태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회첨골이나 모임지붕과 같이 특별한 것을 제외하면 기와얹기의 기본 기법은 거의 유사하다.

이엉얹기는 초가집에서 사용하는 지붕잇기 기법이다. 주로 탈곡이 끝난 볏짚을 이용해서 지붕을 만든다. 이엉을 얹기 위해서는 먼저 서까래를 걸고 그 위에 산자를 깐 다음 알매흙을 골고루 일정한 두께로 깔아 지붕면을 만든다. 그 위에 청솔가지나 짚으로 지붕 모양을 잡는다. 이것을 군새라고 한다. 먼저 짚을 길이 방향으로 나란히 길게 새끼로 엮어 가면서 이엉을 만들어 둔다. 지붕 전체를 덮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이엉이 필요하다. 이엉얹기를 할 때 짚의 가지 부분이 처마 쪽으로 향하게 하고, 처마에서 용마루 방향으로 올라가며 여러 겹으로 놓는다. 이엉은 7겹으로 한다. 두꺼운 것은 9겹으로 하기도 한다. 이엉을 모두 설

치하면 용마루를 설치한다. 용마루 역시 짚을 엮어 만든다. 이를 용구새 또는 곱새라고 한다. 용마루가 설치되면 이엉이 날아가지 못하도록 지붕 전체에 새끼줄을 격자 또는 마름모꼴로 걸고 처마 끝부분에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대나무를 묶어 마무리한다. 이 새끼줄을 고사새끼라고 한다. 고사새끼줄을 길게 해서 서까래 밑에 대나무를 걸어 두는 방법도 있다. 이 대나무를 연죽椽竹이라고 한다. 매년 이엉 상부의 3~4겹을 갈아주어야 오랫동안 지붕을 잘 유지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한국건축에서 전통의 특색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지붕이다. 지붕의 재료와 모양새가 다른 나라의 그것과 뚜렷하게 구별되기 때문이다. 지붕에 사용하는 재료로는 기와, 볏짚, 굴피, 너와, 청석靑石 등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한 재료가 기와와 볏짚이다. 볏짚은 곡물을 추수하고 남은 것을 이용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굴피지붕이나 너와지붕은 태백산맥 중심으로 산간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지붕 재료는 수명이 길지 않다는 단점 때문에 점차 사라지는 추세에 있다. 초가지붕, 굴피지붕, 너와지붕은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에서 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건축대계5-목조(장기인, 보성각, 1991), 한국의 살림집(신영훈, 열화당, 1983), 한국의 옛집(김광언, 마당, 198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이왕기(李王基)

지역난방
地域暖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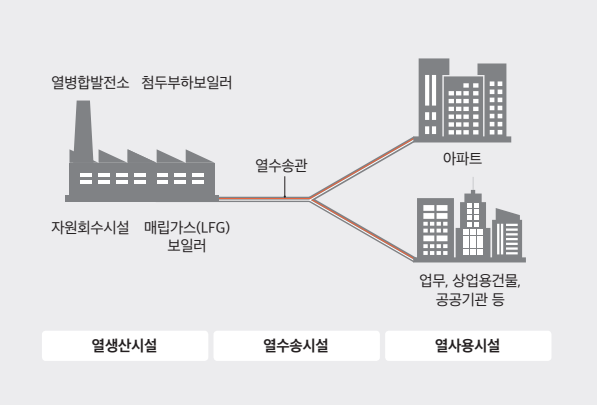
정의 집중된 대규모 열원시설에서 생산된 열을 배관으로 광범위한 지역의 다수 주택에 난방과 급탕으로 연속 공급하는 난방 방식.

개관 지역난방地域暖房은 정부가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1987년 11월 서울특별시 목동지구에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열 생산 시설인 열병합발전소를 준공하여 1988년부터 열 공급을 시작하였다. 지역 내 건물의 한 곳 또는 여러 곳의 열원 장치에서 난방용 열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폐열과 소각열을 활용하는 열 병용 플랜트 형태의 자원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대규모 열원 기기를 사용한 에너지 효율 이용, 대기오염 방지 등의 이점이 있다.

1990년대 이후 열병합발전을 이용하는 지역난방 방식을 촉진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사업법>(1991.12.14. 제정, 1992.6.15. 시행)을 제정하였고 정부의 많은 지원책으로 지역난방이 주된 난방 방식이 되었다. 지역난방은 중앙난방 방식과 유사하지만 열원이 단지 외부에 있고 지역난방회사가 열원과 열수송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따라서 아파트단지가 중앙난방 방식인 경우 지역난방으로 전환하기에 용이하다.

내용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은 열생산시설, 열수송시설, 열사용시설로 나뉜다. 열생산시설은 열병합발전소, 열전용보일러, 자원회수시설 등 열을 직접 생산하는 시설이다. 열수송시설은 열생산시설로부터 나온 온수를 사용자에게 수송하는 열 배관이다. 열사용시설은 지역난방을 공급받는 단지의 기계실에 설치된 열 교환기이다. 지역난방은 난방과 급탕이 가구로 전달되는 데 2단계를 거친다. 공해 방지 설비를 갖춘 대규모 열병합발전소, 자원회수시설 등에서 생산된 열(중온수)을 난방과 급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주택단지 내 기계실로 전달하면 단지에서는 열교환기를 통하여 일정 온도(50~60℃)로 데워진 난방과 급탕수가 배관을 통하여 각 가구에 24시간 공급된다. 장점으로는 도시가스 개별난방 또는 중앙난방에 비하여 난방비가 저렴하다는 것이다. 연속 난방으로 18~20℃가 유지되며, 가구 내 온도조절기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로운 열 공급은 제한된다.

단지 내에서는 난방에 필요한 기계실 면적이 줄고, 연료탱크 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기기의 운전과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줄일 수 있다. 대체로 열



지역난방 열공급계통도 | 한국지역난방공사

원비熱源費는 건물마다 개별로 열원을 놓는 경우보다 저렴하지만 열의 수요에 비하여 열을 보내는 배관이 길어질 때는 불리하다.

특징 및 의의 중앙난방을 하는 경우의 장점과 동일하게 가구별 개별 보일러가 필요 없으므로 단위 가구 내에서 보일러실 설치 공간만큼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것, 난방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시스템, 관리비가 다른 방식에 비하여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지역난방 방식은 열원기기의 용량 제어가 곤란하므로 에너지를 적절하게 분배하고 제어하여 필요한 에너지가 입주자가 있는 가구에 균등하게 전달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정 아파트는 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른 열 손실로 열 공급에 제한을 받게 되는 것과 단지 내에서 가구별 위치에 따라 난방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문제점이다. 이러한 단점에도 지역난방은 개별난방과 중앙난방에 비하여 소비자의 선호가 높다. 정부는 에너지 기금 등을 통한 재정을 지원하여 노후 아파트 중심으로 중앙난방식을 지역난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지역난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아파트 주거환경통계에 의하면 지역난방이 20.3%를 차지한다.

참고문헌 국내외 지역난방현황(권순갑, 대한설비공학회 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대한설비공학회, 2004), 아파트 난방방식 전환평가에 관한 연구(윤정기, 동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지역난방용 열병합발전의 원리(정찬교, 건축 36-6, 대한건축학회, 1992), 통계청(kostat.go.kr).

필자 박경옥(朴庚玉)

진산
鎭山

정의 도읍이나 고을, 지방의 취락에서 지리공간적인 중심을 이루는 주요한 산을 일컫는 역사지리적 용어.

개관 진산鎭山은 국도 및 지방의 취락을 지키는 주요한 산 또는 명산으로 지덕地德으로 한 지방을 진호鎭護하는 명산대악名山大嶽을 지칭한다. 진산은 취락의 안위를 보장해 주는 산악이라는 상징성과 신앙성이 부여된 개념으로, 고대의 산악숭배에 사상적 뿌리를 둔다. 조선시대의 전통사회에서 진산은 행정중심지와 취락의 군사적 방어, 신앙적 제의, 풍수적 주산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진산은 중국에서 유래되었지만, 조선시대에는 전국 대부분의 지방 고을에 진산을 배정해 관리함으로써 한국적 특색을 나타낸다. 조선시대의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를 비롯한 주요 관찬지리지나 지방의 읍지 문헌에서는 고을의 중요한 산을 '진산'으로 지정하여 지리정보를 기록하였다.

내용 '진鎭'의 뜻과 관련해서 중국의 옛 문헌인 『주례周禮』에서는 "주州의 명산으로 특별히 큰 것을 그 지방의 '진'이라고 한다."고 하였고, "한 지방의 주산을 '진'이라고 일컫는다."고 정의하였다. 또한 『성경통지盛京通志』에서는 "진호鎭護하는 주산으로 제사하던 큰 산"을 '진산'이라고 하였다. 신라에서는 중요한 산을 네 군데 골라 '진鎭'이라 부르고 제사를 지냈다. 고려와 조선에 와서는 지방 고을뿐만 아니라 국도의 주산도 진산으로 지정하여 소나무도 가꾸며 훼손되지 않게 관리하였다.

진산이 중국에서 유래된 것이기는 하지만 조선시대에 전개된 진산의 분포 양상과 공간적 특징은 중국과 달랐다. 중국에는 명·청대까지 특정 지역에만 진산이 있고, 형태상으로도 산세가 웅장하고 기이한 명산이 진산으로 지정되었으며, 고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조선 중기를 기준으로 전국의 331개 고을 가운데 255개 고을에 진산이 있었

을 정도로 수가 많았다. 형태나 높이를 보아도 중국의 진산에 비해 그리 크거나 높지 않았으며, 진산과 고을 간의 거리도 5리 이내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진산이 풍수적인 주산 역할을 한 점도 중국과는 다른 점이다.

진산은 고을의 입지 및 배치를 규정하며, 공간 구성과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중요한 경관 요소가 된다. 진산의 위치와 규모, 방향과 짜임새에 맞추어 공공건축과 주거공간이 배치·구성되었다. 진산은 고을의 중심을 기준으로 대체로 5리 이내의 거리에서 후면에 위치함으로써 읍치邑治를 지키고 표상하는 상징성을 띤다. 배치상 북쪽에 진산이 있는 고을이 절반을 넘어 조선의 고을터는 대다수가 등에 진산을 업고 남쪽을 향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진산은 지역민 전체의 공유지식common knowledge이 되어 산지 보전 및 활용, 태도와 관련하여 개개인의 의식과 행위까지 규정하였다. 한국인에게 전통적으로 사람과 산 그 관계의 중심에는 진산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전국에 있는 진산은 유산 가치를 발굴해 현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사경관 자원이기도 하다. 진산은 지방도시의 역사경관과 자연경관을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한다. 고을의 진산에 대한 이해를 통해 고유한 문화생태적 경관의 개성을 발굴하는 작업은 지방도시의 역사적 정체성을 정립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고을 경관에 대한 자연·문화 통합적 접근과 해석틀은 향후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고 생태적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데에도 역사적인 근거와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참고문헌 盛京通志,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周禮, 사람의 산 우리 산의 인문학(최원석, 한길사, 2014), 산천독법(최원석, 한길사, 2015), 조선시기 진산의 특징과 그 의미(최종석, 조선시대사학보45, 조선시대사학회, 2008), 조선시대 읍치의 진산과 주산(권선정, 문화역사지리22-2,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0), 조선시대 지리지에 수록된 진산의 특성(권선정, 문화역사지리23-1,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1).

필자 최원석(崔元碩)

집

정의 사람이나 동물이 사는 곳 또는 사람이 살기 위하여 지은 거처.

내용 '집'은 순수 우리말이다. 대체로 '사람의 거처居處'를 말한다. 그러나 집이란 낱말의 사용 범위는 더 넓다. '동물의 거처'도 집이고(개 집, 새 집) '가정', '가문', '집안'의 의미로도 사용된다(그 집 아빠, 집 없는 아이). '무엇을 파는 곳'의 뜻도 되고(빵 집, 차 집, 술 집), '무엇을 품는 자리'(아기 집, 칼 집)의 의미도 된다. '건물' 의미로 자주 쓰이는 편이지만(큰 집, 저 집, 빈 집) 바둑에서의 확보한 영역도 집이다. 대체로 집은 '생명체가 거주하는 곳'을 의미하지만 '물리 형태의 장소'가 초점이 되기보다 '거주하는 자리에 안식하는 느낌' 또는 '그렇게 느끼게 하는 정서상의 유대 관계'를 중요시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집은 '건물' 같은 대상물을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라 '생명체와 거처 사이의 관계'이고, '거처에서 거주하는 분위기'이며, '거처에서의 삶의 상황' 같은 것을 의미하는 측면도 중요하다. 건물에 제한해서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가정'과도 다르지만 '주택'이나 '가정' 의미를 포함하는 '삶의 거처'를 의미한다. '거주자', '거처', '거함'의 세 항목에서 하나만을 선별해서 강조하기보다 '거주자가 거처에서 거하며 사는 삶의 자리' 또는 '거하는 자者와 거하는 곳 사이에서 생성되는 거주 여건'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은 '나무라는 거주자'가 '땅이라는 거처'에서 '생명체가 거주'하는 것이고, 동물이 숲속에서 사는 것도 '거주 주체인 생명체'가 '자연이란 거처'와 '생명과의 거주 관계'를 맺는 일이다. 인간이 자연에서 거주하는 일도 근본으로는 이와 다르지 않다. 집 개념은 '거주자-거처 사이의 생명과의 거주 관계가 생성되는 곳'이라는 의미를 중요시한다. 인간은 '거주하는 존재'이므로 '집의 인간'일 수밖에 없다. 인간은 '집에서 거하려는 종種'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집

의 의미는 인간의 의미와 분리되지 않는다. 집은 이렇듯 '인간-집 관계의 본래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주택 같이 물리적 형태의 존재물을 제한해서 지칭할 수가 없다. 집은 인간에게 물리적 거처이면서 '자기 존재와 자기 삶의 세계로서의 거처'를 말한다. 아이가 집에서 자라나 어른이 되며, 집에서 부모와 함께 살면서 성숙하고, 삶의 공동체와 사회 유대 관계를 배우고, 매일의 피로를 풀고 쉬며 안식한다. 그러한 '거주 느낌을 갖게 하는 삶의 자리'가 집이다. 인간은 '자연이라는 일차 거처'에서 거주하되 자연에서 더 잘 거주하기 위하여 '이차 거처인 집'을 자연에 짓는다. '집이 무엇인가?' 문제는 '자연에서의 인간 거주가 무엇인가?'와 연결되고, '인간 존재의 생명체가 거주함은 무엇인가?'의 이해와 직결된다. 따라서 문화권마다 정신세계 배경이 다르면 집의 이해 방식이 달라진다. 집의 의미는 인간의 거주-거처 관계에 대한 우리 선조들의 정신 입장이면서 세계 보편성의 의미를 띠는 개념이므로 우리는 그 의미를 소중하게 간직하려 한다.

근대 이전까지 한반도 역사에서 집에 대한 생각은 인간의 거처를 이해하는 중심 개념이었지만 근대화 이후에 와서는 건축이라는 개념이 집 대신 중심 개념이 되었다. 근대 이후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과거와 달리 '건축'에 근거하여 인간의 집짓기를 사고하고 있으므로 건축과 집 간 의미 차이를 이해하지 않고는 집의 의미 파악도 어렵다. 건축과 집은 인간의 거처를 이해하는 두 개의 다른 입장이며, 이 두 의미가 이미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다. 그 상황은 집의 본래 의미를 과거보다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건축과 집 두 개념의 융합에 의한 발전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건축은 영어의 'architecture'의 번역어로서 19세기에 중국과 일본에서 '建築'으로 번역하여 표기된 것을 우리가 1900년을 전후하여 일본에서 받아들여 우리식 발음으로 표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20세기 전반에는 서양 근대건축의 경향이 전 세계에 확산되는 기간이었고, 우리도 서양 근대문화의 전체 흐름 속에서 건축 개념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Architecture'는 서양식 사고 습관이 필요로 하던 집짓기 개념으로, '건



민가 | 전남 구례 심원마을 | 1968 | 국립민속박물관

물을 만드는 일에서의 과학성과 예술성 성취'에 의미를 부여하려 한다. 즉 '건물이라는 물리 단위의 존재'를 전제하고 나서 사람에 의하여 그 '구축의 효율성과 표현의 심미성을 추구한 결과로서의 건축물 존재'를 강조하려 한다. 그와 달리 '집'은 '건물이라는 물건의 존재나 그 물리 상태'에 관심을 두기 전에 '거주자와 거처 사이에서 생성되어야 하는 생명적 거주 여건을 중요시하려 한다. '건물의 존재 상태'보다 '인간-거처 간 거주 분위기'를 중요시하려 한다. 건축과 집 개념 사이에는 이렇듯 인간-거주-자연 관계를 이해하는 정신 배경과 추구하려는 가치 차이가 개입되어 있다. 인간의 집짓기를 '인위 창조'로 이해하려는 태도와 '자연 생성'으로 이해하려는 입장차가 내포되고, 집짓기를 '인간에 의한 기계식 구성'으로 이해하려는 입장과 '자연에서의 생명체 거주 관계'로 이해하려는 입장차가 개입된다. 집의 전통은 건축의 경우와 완전히 다른 세계관에 근거하여 '집의 정신'을 형성하였고 '집의 문화'를 구축하여 왔다. 그 배경에는 세계를 '생명체 조화와 합일 현상'으로 이해하려는 동아시아 문화 고유의 유기체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 주변에 남아 있는 한옥, 궁궐, 사찰 등 전통건축은 건축이 아닌 집의 사례들이다. 집의 의미는 사전 상의 의미로 국한되거나 과거 사실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집의 문화'를 그렇게 형성시킨 정신 배경에 근거하여 이해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집을 '만든다'라고 하지 않고 집을 '짓는다'라고 한다. 사람이 자기 생각에 따라 무엇을 '만드는 것'이 있고 자연상황에서 사람의 의사와 무관하게 스스로 '생겨지는 것'이 있을 때 '짓는 것', 즉 '지음'은 '인위적 만듦'과 '생성적 생김' 사이에서의 중간쯤 되는 어느 곳에 위치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집을 짓는 일은 생김과 무관한 인간의 만듦이기보다 생김의 생성적 질서를 존중하는 지음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밥을 짓거나 눈물을 짓는 일도 그러하듯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상황에 따라 생성되게 하는 측면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에서 집짓기는 인위적 창조라는 의미 못지않게 생성적 지음의 의미가 포함된다는 사실도 집의 속성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는 많은 경우 '집'이란 말 대신 '주택', '아파트', '건축', 또는 '건물'이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집'이란 말은 '빵 집'이나 '큰 집' 같은 경우로 치중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편이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내가 사는 곳을 '내 집'이라고 생각하려는 심리적 습관이 남아있다. 우리 주생활은 '집에서의 생활'이고 나의 존재를 '집에서 사는 존재'로 이해하려는 '집의 사유 관행'이 남아 있다. 나의 '삶'을 '집'의 의미와 연결지어 받아들이고, '집에 부합하는 주생활'이 되게 하려는 속성이 남아 있다. 이러한 '집'과 '삶'의 긴밀한 관계는 미래의 우리 집짓기에서도 계승되어야 하는 본래 가치이지 후진 성격의 과거 사실이 아니다. 근대화 과정 이후 우리는 건축 관점에 치우쳐서 '우리 거처의 문제'를 이해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건축 관점이 집 관점으로 보완되고 보충되어 더 풍부하게 될 필요가 있다. 집이 갖는 '인간-집-자연 간 생명 합일의 가치'는 우리뿐만 아니라 인류 공통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는 가치이다. 우리에게 집이란 단어가 소중한 것은 그 사전 상의 의미 때문이 아니라 '집의 문화'와 '집의 정신'에 있는 보편가치 때문이다. 사람은 자기가 사는 곳을 집이라고 생각하면 집을 짓고 건축이라고 생각하면 건축을 짓는다. '우리가 사는 곳을 무엇이라고 규정하는가?'는 우리 스스로 정하는 문제이므로 집의 고유 개념은 소중하게 기억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집은 '자연에서의 인간 거처'라는 기본 의미를 함축하지만 20세기 이후에 우리가 집을 말하는 언어 습관에서는 '일반 주택'을 지칭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인간 집짓기는 주택에서 출발되었고, 지금도 인간의 거주 현실이 매일 주택에서 시작되어 주택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집의 의미에 관한 설명도 '우리 옛 살림집'의 경우를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어야 할 필요가 생긴다. 집은 순우리말인데 '그 의미가 우리 집짓기의 현실에서 어떻게 물리 형태로 구체화 되었는가?'라는 관점에서 조명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옛 집 내지 전통주택에 관한 설명은 많은 경우 건축역사나 민속학 관심에 의거하여



안마당 | 경북 봉화 닭실마을 | 2002 | 국립민속박물관

설명된 사례가 많다. 그러한 경향은 학문 영역의 관심사에 따른 설명으로 집중되게 하는 장점과 함께 그 분야의 영역 안으로 제한되게 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한 문화권에서 집의 본래 의미는 학문 분야의 관심사에 따라 설정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생성되고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가능한 한 그러한 의미의 본래성에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집의 역사는 '건물의 역사'이면서 '주생활의 역사'이고 '거주 양식의 역사'이면서 '거주 정신의 역사'이기도 하다. 우리 집짓기 역사는 '집의 역사'이지 '건축의 역사'가 아니다. 따라서 건축 개념이 아닌 집의 의미에 근거한 해석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 시대에 우리는 집의 관점을 상당 부분 건축 관점으로 대체시키고 있지만 집의 정신 입장은 우리 마음에서 그렇게 쉽게 소멸되지 않는다. 근대화 이후의 시대에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집의 의미가 다시금 되새겨지고, 회복시켜야 할 필요성이 커진다.

우리 역사에서 집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선사시대 이후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의 집짓기는 자연 환경에 대한 자기 보호 및 생명 유지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다른 어떤 기능보다 중요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선사시대부터 '움집' 또는 '수혈주거竪穴住居'라고도 불리는 원시 형태의 집 형식이 일반 거처였다. 땅을 원형으로 파고 나무로 원추형 지붕을 만들어서 덮는 움집 형식은 선사시대 이후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유지되었다. 기원전 3500년을 전후하여 농경생활이 시작되어 한 곳에서 정착하고, 사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움집 형식이 발달하여 바닥 평면이 장방형이 되거나 규모가 커지면서 내부 기능의 분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불을 피워 취사와 난방을 관리하는 곳은 '부엌'이 되고, 취침과 육아 등의 목적을 위한 상주 공간이 '방'으로 진화하여 '부엌-방'으로 분화된 평면 형식에 근접하여 간다. 물론 일반 주택이 아닌 공공 목적의 건물에서는 규모가 더 크고 기술이 진전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청동기시대에서 철기시대로 넘어가면서는 땅을 파는 깊이가 얕아지다가 점차 움집이 지상 구조물로 변화되고, 나무를 엮는 구조 수법에서도 더 세련된 기법이 활용된다. 그러한 변화는 땅을 파고 짓는 움집이 널리 지상주거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파고 짓는 움집과 병행된 발전 현상이 공존하였음을 의미한다. 여름 날씨가 더운 곳에서는 여름을 시원하게 지내기 위하여 집을 땅에서 들어 올려 통풍에 유리하게 한 '고상주거高床住居' 내지 '다락집'이 있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삼국시대로 넘어오면서 움집 경향은 남아 있지만 상류주택은 목조 가구를 활용한 지상 가옥이 되고 '온돌' 내지 그 초기 형식이 겨울 난방 방법으로 활용된 흔적이 나타난다. '온돌'이란 부엌에서 지피는 불과 연기의 통로가 되는 고래를 방 밑으로 지나가게 하여 방을 데움으로써 겨울 추위를 견디어 내는 방법으로 중국의 '캉'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화하는 등 한국 집의 중요한 특징이 된다.

이렇게 진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집'은 다른 곳의 집과 차별화되는 경향을 특징으로 한다. 지상에서 바닥이 떠 있는 '방'과 '마루'의 병합은 한국 집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로 자주 꼽힌다. 이 형식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상에 지어

진 여름용 다락집과 겨울용 온돌이 합해져서 한 집에서 여름과 겨울을 함께 지낼 수 있게 하기 위한 방편에서 생겨났을 것으로 짐작된다. 우리 선조들은 북방 유목민족의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남쪽으로 내려와 농경 정착 생활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추운 곳에서 필요해지는 온돌과 더운 곳에서 유리한 다락집의 혼합, 즉 북방과 남방 거주 형식의 융합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방과 마루 이외에 불을 사용하여야 하는 부엌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부엌-방-마루의 평면 구성은 한국 집 평면 구성의 기본 형식이 된다. 이 형식을 우리는 '초가삼간草家三間'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명칭과 무관하게 '우리 집의 최소 단위 형식'이라는 의미가 중요하다. 부엌은 흙바닥이었기 때문에 부엌—방—마루 구성은 각각 서로 다른 바닥 재료, 즉 흙—돌—나무에 의하여 구별되는 평면 구성 방식이었다. 지붕은 형편에 따라 기와로 덮기도 하고 초가집일 수도 있다. 우리 집의 전통에서는 지붕이 갖는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강조되는 편이며, 이 경향은 전통 집짓기 흐름 전체에서 유지된다. 빗물 처리 기능 때문에 불가피해지는 경사지붕 형태가 집 밖에서 볼 때 시각 비중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동시에 집은 하늘과 땅의 천지天地 관계를 인간의 거처로 연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기단이 땅의 연장일 때 지붕은 '떠있는 하늘'이라는 의미를 상징한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우리 선조들에게 집짓기란 '삶의 자리를 지붕으로 덮는 일'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었을 수도 있다. 집이란 단어가 '짓다'에서 유래되었으며, 집의 옛말도 '짓'이었고, '짓'은 초가지붕에 올린 '짚'의 변형이라는 학설도 있다. 부엌—방—마루의 삼간 형식은 한반도의 많은 지역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측면도 있지만 지방 특성, 경제 여건, 재료 한계 등의 사정에 따라 변형된 형식으로 진화하기도 한다. 규모가 작은 주택에서는 마루가 없는 경우도 있고, 마루 대신 방이 추가되거나 곳간(도장)이 추가되기도 한다. 그 외에 지붕 구조(삼량집, 오량집 등), 평면 모양(一자형, ㄱ자형 ㅁ자형, 田자형, 봉당집 등), 벽 재료(귀틀집, 흙돌집, 토벽집 등), 지붕 재료(기와집, 초가집, 너와집, 굴피집 등) 등에 따른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조선시대에 와서도 초가삼간 형식은 서민들의 집짓기 일반 형식이었지만 선비들 사이에서도 검소한 거처로서의 상징성이 있었다. 이 기본 형식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 신분과 경제 여건에 따라 서민용 단순 주거에서 더 복잡한 귀족용 고급주택으로 진화되는 여러 단계가 형성되었다.

귀족 계층의 고급주택은 현재 남아 있는 다수의 양반주택에서 잘 드러나듯이 기본인 최소 단위의 삼간 형식보다 방과 마루 규모가 커지고 추가로 필요해진 방, 마루, 창고, 보조부엌 등의 공간이 늘어나서 더 복잡한 배치 형식으로 다변화된다. 남자와 여자 영역을 사랑채 및 안채로 분리하고 하인을 위한 행랑채를 추가하는 '채 나눔' 방법은 한국 상류주택 배치 특징에 해당된다. 마당을 중심 구성 단위로 하여 여러 마당의 연결 방식이 배치 계획의 골격을 이루게 하는 방법은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활용되었지만 세부 적용 기법은 상당히 달랐다. 우리나라 집의 경우는 중국보다 대칭 또는 규칙화된 획일성은 완화되는 대신 집마다 다른 배치 구성의 자율성이 강조되며, 일본보다 건물 구성 방식이 단순한 대신 마당의 수평 구성은 더 복잡하다. 우리나라 집 마당은 마당마다 다른 분위기를 견지하면서 배치 전체를 하나로 합치시키는 효과를 중요시한다. 공통 질서를 존중하면서도 개체의 자율성을 살리려고 한다. 전체로는 고요하고 안온하며, 사람 사는 곳으로서의 분위기를 좋아한다. 양반주택과 같이 배치 규모가 커질 경우 사랑채·안채·행랑채 이외에 사당, 정자, 별채 등의 시설이 포함되면서 배치 계획이 더 다양해진다. 마당은 건물과 담장이 연결되어 구성되고, 각 마당은 여러 종류의 문門이나 구조물 간 열린 공간에 의하여 사람의 이동 흐름을 연결시킨다. 양반주택의 경우 채 나눔에 의한 영역 구분, 마당의 수평 연결에 의한 배치 구성, 담장-건물-문의 구성이 만드는 공간들이 합해져서 상류주택 경험 효과라는 특징을 형성시킨다. 마당 가운데에는 정원으로 꾸며지거나 작업장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대개 채워지기보다 비워져 있어서 사람이란 존재가 그 자리에서 존중받게 하려는 의미가 있다.

민가와 반가 구별을 떠나 우리 '집'은 땅을 연장시

키고, 하늘을 그 안에 머금게 하는 곳이 되려고 한다. 사람도 땅의 연장으로서의 신체 안에 하늘의 연장으로서의 공기를 머금어 살아있는 생명이 되듯이 집에서도 천지의 교감과 합일 관계가 역동하는 곳이 되게 하려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집'은 인간과 자연이 만나는 곳이되 인간과 자연의 생명이 만나서 상생相生하고 상승相乘되는 자리가 되게 하려 한다.

우리 집짓기의 역사에서는 집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조망하는 관점으로서의 '풍수'적 이해가 항상 동반되고 있었다. 풍수는 자연과 사람의 생명 기운 사이에서의 감응 효과를 인간의 삶에 활용되게 하려는 경험과학이었다. 풍수에서 우리는 인간-집-자연 관계에 내재된 생명적 세계관의 정신을 배워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 집의 전통에서는 거주의 기본 필요를 충족시키되 지나치지 않은 소박함과 절제된 은근함의 느낌을 유지하려 한다. 중국 또는 일본의 경우보다 장식이 많거나 화려한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 마감의 화려함보다는 거칠더라도 질박한 느낌을 좋아하고 격식과 형식을 지키더라도 자생하는 자연스러움과 다양함, 인위의 가공이 두드러지지 않는 단순함과 소박함을 좋아한다. 인위로 꾸민 과장보다 꾸미지 않은 사람과 삶의 직접적 느낌을 좋아한다. 서민주택의 단순하고 절제된 표현과 고급주택의 다변화된 표현은 우리 집짓기에서 서로 대비되는 양쪽 측면이면서 동시에



타작 | 강원 삼척 | 한승일

이러한 공통 속성으로 관통된다. 그러나 우리 집의 역사적 흐름은 좋은 쪽으로 강조할 수 있는 부분과 함께 내면적 자기한계를 함께 지니고 있었다. 특히 기술적 진보를 적극적으로 성취하기보다 과거 지향적 집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부재는 필요이상으로 과하게 사용되면서 과학적 개선을 추진하는 일에서 뒤처져 있었고,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기보다 낭비 요소가 남아 있어야 했다. 일본이나 중국에 비교해서도 새로운 제도나 설계기법의 활용 측면에서 앞서가지 못했고, 그래서 집짓기의 모든 측면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가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부족하였다. 내부공간은 기능에 맞게 확장되지 못했고, 사회적 여건도 기술자의 신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에 인색한 편이었다. 유교적 가치관과 과거 지향 관행, 명분 집착이 강하게 남아 있어서 기술 진보나 형식 다변화를 어렵게 하고 있었다. 우리에게 남아 있는 집짓기 사례는 우리가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부분과 함께 반성하고 경계해야 하는 경향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에게 남아 있는 옛집 사례 거의 전부는 조선시대 후반 이후에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흐름은 우리 경험에서 얼마간 멀어져 있다. 임진왜란 이후 17~18세기에 씨족마을 단위의 문중 관리 및 제사 기능이 강화되면서 종갓집 역할이 중요하여지고, 제사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랑채가 확장되거나 사당·재실 건축이 활발하여진다. 18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상업 기능을 겸한 도시 주거 시설이 확충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집 개념 자체가 변하기보다 집의 전통이 사회와 시대가 필요로 하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변화에 해당된다. 조선시대 말까지 유교 영향은 남아 있었고, 주택은 유교 이념을 생활을 통해 훈련하는 장소가 되어야 했고, 유교 가치가 성취되게 하는 인성교육의 장소가 되어야 하였다. 명망 있는 주택일수록 더욱 그러하였지만 집의 여기저기에 붙어 있는 당호堂號, 현판懸板, 주련柱聯, 기문記文 등은 물론 상량문上樑文이나 묵서명墨書銘에서의 글귀들은 예외 없이 유교 영향과 문학 취향을 잘 보여 준다. 조선시대의 집은 단순한 거주 장소이기도 하지만 유교 이상理想이 구현되는 곳이라는 이해가 수반



삼년상 | 경북 안동 학봉 종택 | 2009 | 국립민속박물관

되어야 한다. 제사나 상례喪禮 같은 비일상 의례 비중이 매우 크게 차지하고, 남녀의 처소가 엄격하게 구분되는 등의 현실은 한국 집의 전통을 벗어나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관행이다. 유교 영향은 과거 지향의 보수성 문제와 함께 이상 가치 구현을 추구하려는 관념상의 적극성 양쪽 측면을 함께 확인하게 한다. 한편 집짓기와 관련된 통과의례通過儀禮는 유교 영향 이외에 민간 토속신앙 내지 도교나 무속巫俗 신앙의 영향도 함께 보여 준다. 집을 짓는 과정에서는 집터를 잡을 때 지신地神을 기리는 토신제土神祭, 공사할 때 가신家神을 기리는 개공식開工式, 중요한 구조 부재를 얹을 때 하는 상량식上樑式, 집이 완공되었을 때 하는 낙성식落成式 등의 의례가 있었다. 민간신앙 요소로는 성주신, 조왕신 등을 향한 고사 내지 집들이 전통이 남아 있었다. 이렇듯 우리 집짓기 역사는 자연 환경 대응 방식인 동시에 사회 제도, 정신 이념, 민간 신앙 관습이 가미되어 형성된 집짓기 흐름 역사이었다. 전통 집짓기는 20세기 전반, 대략 1920~1930년 정도까지 유지되다가 그 이후부터 콘크리트와 벽돌을 사용한 근대 주택으로 변모한다. 재료와 구조 방식 변화는 집짓기의 근본 개념부터 다르게 하였다. 근대 주택은 단층에서 2층 이상의 다층 주택으로 바뀌고, 기계 설비 도입을 통하여 내부가 외부와 격리되며, 각 건물과 공간이 독립하여 구분되게 하는 등 과거에 없던 변화가 당연시 되었다. 서양 주택 내지 서양 근대 건축의 영향이 직접 반영되어 표현 경향과 생활 양식은 물론 집짓기 개념에까지 근본 변화를 겪게 된다. 20세기의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 집짓기 역사에서 '혁명기'라고 해야 할 정도의 격변기에 해당된다. '집'이 '건축'으로 바뀌는 과정이기도 하다.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포함한 근대 이후의 '건축'도 넓은 의미의 '우리 집'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내용에서는 '집'과 '건축'이 조화된 측면보다 '집'이 '건축'으로 교체되어야 한 측면이 훨씬 더 강한 것이 사실이다. 아파트 평면에서 어느 정도 확인되듯이 전통적 부엌–방–마루의 평면구성의 골격은 유지되면서 대청마루가 거실로 변화되고, 온돌 등의 효과는 기술적으로 개량되어 계승되고 있다. 우리는 '건축'이 다시 '집'으

로 회귀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둘 사이의 '융합적 진화'를 원한다. 20세기 이후의 근대적 변화 경향은 지금 우리의 경험 범위 안에 들어오는 현상이므로 여기에서 추가적 설명을 길게 개진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리 집의 긴 역사적 흐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와서 닿아 있다. 우리가 미래적 집짓기를 위해 오래 유지되어온 집의 정신을 얼마나 살려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숙제가 남아 있을 뿐이다. '집의 정신'은 후진적 과거가 아니라 우리 미래 가능성이고 인류를 위한 보편 가치이다. 인류 역사에서의 모든 발전은 서로 다른 문화의 충돌과 융합에 의해 초래된다. 집과 건축 두 경향의 만남도 새로운 융합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

특징 및 의의 '집'이란 단어에는 '사람이 살기 위하여 지은 건물'이라는 사전 상의 의미 이외에 우리 문화의 배경이 생성시킨 고유한 정신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집이란 단어를 써 온 흐름 안에는 인간의 거주가 '자연에서의 거주'이고, 인간의 집짓기는 '인간–자연 관계의 연장'이며, 자연에서의 인간 거처는 '거주의 생명성을 생성시키는 자리'라는 의미가 포함된다. 선사시대 이후 우리의 집짓기는 자연으로부터의 보호와 삶을 위한 적응이라는 과제를 극복하며 진화하여 오면서, 지면에서 들어 올린 온돌-마루의 융합, 부엌-방-마루의 최소 단위 형식 등의 요소를 보급시켜 왔다. 현존하는 전통주택 대부분이 조선 후반에 지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그 기간의 시대 및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집의 풍모가 우리에게 알려진 옛집의 인상으로 남아 있다. 서민 주택의 경우 초가삼간 형식과 같은 단순하고 절제된 건물을 울타리 안에 지어 놓고 마당 생활을 위한 작업장으로 활용하였다. 양반 가옥에서는 선비들의 성리학 이상과 제사 등의 의례, 남녀의 거처를 구분한 채의 나눔, 마당들의 연결과 조합 방식 등의 의도가 구현된 배치 계획을 보여 준다. '우리 옛집' 사례들은 인간 거주 분위기와 함께 집을 생각하는 정신 입장을 함축시켜 보여 준다.



지신제 | 대전 서구 | 2012 | 강성복

전통 집의 흐름은 20세기 전반까지 유지되다가 서양식 근대화 과정의 격변을 통하여 건축 흐름으로 대체되었다. 지금 우리는 집을 과거 전통으로 간주하려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주생활의 흐름 안에는 우리 삶이 '우리 집에서의 삶'이 되게 하려는 내면 의지 내지 '집'과 '삶' 간 끈질긴 관계가 살아 남아 있다. 집 문화는 건축 문화보다 '후진형 문화'가 아니라 '다른 문화'이며, 그 차이는 기와집과 콘크리트 건물의 차이만이 아니라 집과 건축을 다르게 만든 정신문화 입장과 세계관의 배경 차이이기도 하다. 우리는 집 정신과 건축 정신이 서로 보완되고 균형 잡히게 되어서 집짓기에 관한 주체의 관점을 새로이 구축하는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우리 옛집, 사람됨의 공간(윤재홍, 집문당, 2004), 집, 인간이 만든 자연(김경은, 책으로 보는 세상, 2014), 집은 어떻게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었나?(John S. Allen, 이계순 역, 반비, 2015), 한국건축의 역사(김동욱, 기문당, 1997).

필자 김성우(金聲遇)

집들이

정의 사람들이 새로운 가옥에 들어가 살기 시작하는 시점에 행하는 건축의례이자 주생활의례.

내용 집들이는 '새로운 가옥에 들어가는 의례'를 뜻하며, 한자어로는 입택入宅이라 하였다. 집들이는 사람들이 새로운 가옥에 들어가 살기 시작하는 시점에 하는 의례이므로 공간성 통과의례의 하나이다. 공간성 통과의례로서 집들이는 이중 의례 구조를 띤다. 가옥을 완공하였다는 것을 공표하는 '건축의례'와 그 가옥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리는 '주생활의례'이다. 건축의례는 대체로 개기—개공—상량(제)—입택(집들이)으로 이어지는데 집들이는 가장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며, 새로운 가옥을 완성하였음을 알리는 의례이다. 주생활의례 측면에서 집들이는 세간을 가옥에 넣고 찾아온 손님을 대접함으로써 주생활을 시작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건축의례는 '가옥 완공의례', 주생활의례는 '주생활 시작의례'인 셈이다. 즉 건축물을 기준으로 보면 집들이는 가옥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의례이고, 주생활을 기준으로 보면 집들이는 가옥에 사람이 사는 것과 관련된 의례이다.

집들이에는 대체로 집들이고사(가신家神 모시기), 세간(이삿짐) 옮기기, 집 알리기, 손님 대접하기 등의 내용이 광범하게 포함된다. 집에 가신을 모시거나 가신에게 고사를 올려 집안의 평화를 기원하였고, 입주할 때는 집안을 정화하는 의례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 알리기와 손님 대접하기 등 집들이잔치도 수행하였다. 이때 집들이잔치는 손님을 초청하여 집을 알리는 목적이 있다고 해서 '집알이'라고도 하며, 집들이의 기능 가운데 일부이다. 이처럼 집들이는 주술종교성 입주 행사로서의 집들이와 입주행사 뒤풀이로서의 집들이잔치로 구분된다.

집들이에 관한 기록은 흔하지 않다. 대표 기록으로는 유중림柳重臨(1705~1771)의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복거卜居조에 수록된 '입택入宅'에 관한 내용이다. 이를 보면 첫째, 새집에 들어갈 때나 이사할 때 좋은 날을 받아야 하며 둘째, 향촉, 술, 정화수, 버드나무 가지 또는 푸성귀를 준비하여 천지天地 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이때 잡귀를 물리치고 집을 보호하여 집에 복록이 깃들기를 빌고 셋째, 가신과 조왕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이때 정화수를 문이나 기둥에 뿌리면서 집안에 좋은 일만 생기도록 빈다는 내용이 있다. 즉 집들이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주술종교성 의식이 수반되었으며, 대체로 가옥의 굳건한 보전과 그 가옥에 살 사람들의 복록을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오늘날에도 전통성 강한 농촌사회에서는 새집에 들어가거나 이사를 할 때 택일하고, 살던 집의 가신에게 이사 가는 사실을 미리 고하며, 새집에 와서 남들이 오기 전에 가신을 모시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신축 가옥 집들이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이는 집들이가 애초에는 신축 가옥이 사회문화를 완성시키는 건축의례였음을 말하여 준다.

『증보산림경제』의 복거조 입택에서는 "새집에 들어갈 때는 택일한 날 길시吉時에 사람이 먼저 들어간 뒤에 세간[家伙]을 옮겨야 길하고, 세간이 먼저 들어간 뒤에 사람이 들어가면 불길하다. 이날 재물을 들이는 것은 좋으나 내어 가는 것은 나쁘며, 금은기물金銀器物을 들고 들어가야 하며 빈손으로 들어가면 불길하다. 마당에는 향촉을 피우고 식구들은 반드시 돈이나 비단 등을 손에 쥔다. 장남은 오곡이 담긴 그릇을, 어머니는 거울을, 그리고 가장은 가신을 모시고 차례로 안마당에 들어가서 자리를 펴고 그 위에 늘어놓는다. 다시 향을 피우고 예를 올리며 집안에 복이 깃들기를 축원한다."라고 하였다. 이 또한 가옥에 살 사람들의 복록을 유감주술 행위로 기원하는 것이다.

20세기 후반까지 전통 방식이 대체로 잘 남아 있다고 판단되는 농촌의 집들이를 보면 이사는 밥솥과 불씨를 옮기는 과정과 안방을 정화한 후 실내로 세간을 들이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밥솥은 살림살이 자체를 상징하며, 사람의 생존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생활기구로 인식되었다. 밥솥에 찰밥을 한 솥 지어서 가는 것은 입주자들의 생존 활동이 끈기 있고 왕성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불씨는 취사뿐만 아니라 가옥 전체의 온도 조절에 필수 자원임에도 불을 일으키기

가 쉽지 않아 이사 갈 때도 가지고 간 것이다. 이사할 때 불씨를 운반하는 전통은 상징 의미보다 실용 가치에 따른 것이다.

이어서 안방을 정화하는 의례가 행하여졌다. 전통으로 안방은 살림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방이기 때문에 최소한 안방만 정화하여도 가옥 내 모든 공간이 정화된다고 여겼다. 정화에 쓰이는 물품은 겨릅, 약쑥, 소금 등이다. 세간을 들일 때는 옷을 넣은 농, 찧은 곡식, 장독대 순서로 이동한다. 물품 옮기는 순서는 생필품 가운데 중요도가 높은 것을 우선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도 요강을 중요 물품으로 여기기, 물 퍼 오기, 방구석에 소금이나 팥죽 뿌리기, 이사 첫날 거꾸로(머리를 아랫목으로) 잠자기 등의 풍속이 있었다.

20세기 후반까지 전통성 강한 농촌에서 집들이가 행하여지는 계기는 가옥 신축, 가옥 중수, 이사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 가운데서도 집들이잔치를 하는 경우는 대체로 가옥 신축 시와 자기 소유의 가옥으로 이사하였을 때이다. 곧 집들이잔치는 남에게 향응을 베푸는 것인 만큼 경사스러운 일이었고, 자신의 가옥을 남에게 자랑하고 과시하려는 의도에서 한 선택성 의례임을 의미한다. 집들이잔치는 대부분 입주하는 날 행하여졌다. 농촌은 대면 사회여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집을 널리 알려야 할 필요성도 적었다. 보통 찰밥, 국수, 술, 안주 등을 준비하여 나누어 먹고 노래를 부르거나 지신밟기를 하며 노는 정도이므로 잔치라고 말하기에는 소박한 편이다.

최근 농촌에서도 입주 후 별도로 날을 잡아 잔치를 성대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농촌에서조차도 집들이잔치가 입주와 분리되어 가고 있다는 뜻이다. 집들이잔치에 초대된 손님들은 그 집의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로 성냥, 초, 세제, 거울, 돈, 쌀, 휴지 등을 선물하였다. 성냥과 초는 불씨의 뜻을 나타내고, 세제와 휴지는 정화의 의미가 담겨 있다.

20세기 후반의 도시사회에서는 입주를 하여도 집들이고사를 지내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간혹 감사기도나 예배로 대신하기도 한다. 집들이잔치도 새로 집을 장만하였을 때 하는 경우가 많고, 입주행사와 분리하여 이루어지며, 손님의 부류별로 일정을 달리하여 여러 차례 풍성하게 하는 양상을 보인다. 결국 현대 도시에서 집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입주행사가 아니라 집들이잔치를 뜻한다. 도시사회에서는 주인의 관리 아래 가옥을 짓는 것도 아니고 한옥을 짓는 것도 아니므로 건축의례로서 집들이의 의미가 퇴색하였기 때문에 주술종교 의식이 계속 약화되는 것이다. 오히려 사회적 관계의 연망緣網을 중요하게 인식한 집들이잔치가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 잡게 되었다. 농촌에서도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에서처럼 집들이의 형태와 의미가 서서히 변화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전통성이 강한 농촌사회에서 집들이는 사회문화를 완성하는 건축의례이자 그 공간에 사람이 들어가 살기 시작하는 주생활의례였다. 물론 집들이에는 택일, 집들이고사, 입주정화 등 주술종교 행위가 수반되었다. 농촌사회는 지연공동체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입주할 때 친인척뿐만 아니라 이웃사람들도 도와줬으며, 이날 자연스레 뒤풀이까지 하였다. 이때 입주자는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입주한 사실을 공표하였으며, 손님들은 그 집의 번영을 위한 선물을 가지고 왔다. 집들이는 풍성한 잔치라기보다 소박한 행사였다.

현대 도시사회에서는 지연공동체 의식이 희박해지고 직장을 단위로 하는 사회 조직 비중이 커지면서 입주와 별도로 집들이잔치가 여러 차례에 걸쳐 행하여지고 있다. 도시에서 집들이라는 말은 더 이상 가옥을 완공하는 건축의례도 아니고 입주자가 들어가고 이삿짐을 옮기는 입주행사도 아니다. 오직 집들이잔치 의미로만 사용되고 있다. 집들이잔치는 집을 알리고 구경한다는 표면 목적 이외에 다양한 사회관계의 연망을 확인하고 실천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참고문헌 증보산림경제(영인본)(류중림, 아세아문화사, 1981), 집들이엔 집알이를 해야 한다(한갑수, 한글한자문화60,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2004), 집들이 풍속의 전통과 변화(배영동, 비교민속학32, 비교민속학회, 2006), 한국의 주거민속지(김광언, 민음사, 1988).

필자 배영동(裵永東)

집장사

정의 집을 지어 파는 사람으로,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활동하는 건설업자.

내용 집장사는 집을 지어 파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속칭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활동하는 건설업자를 지칭하는 말로도 사용된다. 근대의 집장사는 1920~1930년대에 본격 활동한 건축청부업자, 주택건설업자, 주택 경영 회사들에 의하여 공급된 도시한옥인 이른바 집장사집에서 파생된 용어이다.

1920년대 말부터 1960년대까지 서울에는 소위 집장사집이라고 불린 도시한옥이 집중 건설되었다. 이 시기에 도시로의 급격한 인구 이동과 집중으로 주택난이 심하여졌고, 민간 주택시장이 본격 형성되면서 주택이 대량 공급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오늘날 집합주택 공급 방식과 유사하다. 1930년대를 전후로 당시 주택 경영 회사 또는 건축청부업자들에 의하여 도시한옥 주거지가 조성되었다. 이들 주택건설업자는 기존의 대형 필지를 블록 단위로 나누고 다시 주거지 블록을 중소형 필지로 분할하여 작게는 10여 호에서 많게는 100호 이상의 도시한옥을 동시에 건설하였다. 이렇게 집단으로 공급된 주택은 일명 집장사집으로 불리면서 분양 방식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판매되었다. 당시 대표되는 주택경영회사 또는 건축청부업자는 정세권(건양사 대표), 김동수(공영사 대표), 마종유(마공무소 대표), 오영섭(오공무소 대표), 리민구(조선공영주식회사 대표) 등이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서 토목 건축업은 대부분 일본인에 의하여 수행되었고, 조선인은 일본인 건축청부업자로부터 하청을 받아 일을 하였다. 그러다가 1920~1930년대에 조선인 건축청부업자가 등장하였다. 초기 토착자본의 조선인 건축청부업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소규모 주택 건축이 대부분이었다. 건축청부업자의 일부는 설계와 공사를 겸하면서 활동하였다. 1930년대 주택분양시장이 본격 형성되면서 토착자본에 의한 건설업자들이 활동 영역을 확장하게 된다. 당시 조선의 대표 건축청부업자 정세권은 북촌, 서촌, 봉익동, 성북동, 혜화동, 창신동, 서대문, 왕십리 등 경성 전역에서 활동하며 도시한옥을 건설하는 한편 판매도 겸하였다. 서울의 도시한옥 주거지는 도심부에 남아 있던 대형 필지나 1936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새롭게 공급된 대규모 주거지에 집단으로 조성되었다. 이렇게 건설된 도시한옥은 당시 중산층 주택의 대표 유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특징 및 의의 소위 집장사라는 말은 도시한옥을 집단으로 하여 도시한옥 주거지를 조성한 1920년대 말부터 1960년 건축청부업자들은 폄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오늘날에도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활동하는 건설업 종사자를 속칭 집장사로 부르기도 한다. 일제강점기 건축청부업자들은 중소 규모의 한옥들을 집단으로 건설하여 공급하였다. 판매를 목적으로 건축된 도시한옥은 이른바 개량한옥으로 불리면서 유리와 함석 등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고, 평면과 구조를 단순화·표준화하였다. 이처럼 이윤을 목적으로 주거지 개발 및 공급에 참여하면서 집장사라는 좋지 않은 시각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이들 토착자본의 주택건설업자들은 전통건축 방식을 활용하여 급변하게 돌아간 근대 도시 환경에서 새로운 근대도시 주택 유형을 만들었다. 또한 당시 도시 주택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전통 주거 유형 및 구법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여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건축왕, 경성을 만들다(김경민, 이마, 2017), 도시형 한옥의 유형연구(송인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북촌-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의 터전(서울역사박물관, 2018), 서울 삼청동35번지 도시한옥주거지의 도시건축 유형학적 특성(성태원,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한국근대화 과정의 건축제도와 장인 활동에 관한 연구(김란기,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필자 김영수(金英洙)

집짓기

정의 터를 잡고 터와 어울리면서 집주인의 주생활 문

화 및 요구사항,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을 설계한 후 설계도서에 따라 재료와 인력을 준비하고 땅을 파고 기둥을 세우고 보와 서까래를 걸고 기와를 깔고 구들을 놓고 창문을 달고 하는 등 집과 관련한 모든 작업 행위.

내용 1. 설계 및 시공 준비: 오늘을 살아 가는 사람들 중 살림집을 지을 때 옛것 그대로 짓기를 원하는 사람과 그 속에 담긴 의미와 맛을 음미하면서 오늘에 맞게 짓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나뉜다. 현재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주는 설계자를 결정하여 마련한 터에 적합한 도서를 설계자에게 작성하도록 의뢰하고, 이후에 이 도서를 바탕으로 시공자를 결정하여 공사를 시작한다. 이와 같은 과정은 현재의 모습이다. 과거에는 설계자와 시공자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즉 전통적인 방법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목장이 설계와 시공을 일괄로 진행했다. 따라서 집을 지을 때 과거 대목장의 역할은 중요했다.

시공자 또는 대목장은 도면을 이해하고 사용된 물량 및 예산 등을 산출하며, 또한 집을 지을 터의 환경 및 여건에 대하여 파악한다. 이후 시공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재료를 구입하는 일이다. 특히 목재 구입의 경우 오늘과 과거가 다른 점은 재료 공급 체제가 세분화 되어 있다는 점이다. 과거의 경우 대부분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이었다. 예외적으로 국가 차원 공역의 경우는 다르다. 현재는 대부분 벌목장과 제재소라는 곳을 거쳐 1차 제재된 목재를 구입하여 현장에서 치목한다.



정초식 제물(떡·정화수·소금단지) | 충북 진천 보탑사 | 정연상

과거 대목장과 건축주는 건물에 맞는 목재를 구하기 위하여 산지를 들러보고 목재를 선별했다. 대목장은 산지를 들러보는 동안 목재의 수량과 성질 및 여건들을 파악하고 어떤 목재가 어느 부위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가를 마음속에 그리게 된다. 그리고 대목장은 부편수 및 기타 대목 및 소목, 기타 공정에 따른 장인들을 모아 작업을 준비한다.

목재의 성질과 특성을 파악하고 결정하는 것은 원목을 산판에서 벌목하면서부터 결정된다. 예로 원목의 벌목은 외부 기온이 낮아서 균열 및 해충의 생육이 불가능한 가을부터 초봄 사이가 적기라고 한다. 또한 이 시기를 선택하는 것은 원목 운반이 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벌목된 나무는 균이나 해충이 활동하는 이전에 가공하여 사용한다. 벌목 시점은 목재 내 수분 함량을 결정한다. 나무가 한창 성장하고 있는 시점에 벌목하여 제재한 나무는 수분 함량이 많으며, 이런 목재를 그래도 사용할 경우 목조건물의 심한 변형이 발생한다. 오늘날은 원목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동절기에 많은 양의 나무를 벌채하여 원목 상태로 제재소에 보관하여 자연건조를 하여 필요에 따라 사용한다.

과거 목재 건조 방식은 자연 건조 방식을 따랐는데 현재 건조 방식은 인공건조 방식을 따르고 있다. 원하는 함수율로 목재의 수분 함량을 낮추었지만 외부 습도가 높아지면 목재의 함수율도 높아진다. 따라서 목재의 함수율은 외기와 목재의 평형 함수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기초 및 기단 공사: 과거 선조들은 전통건축물 터파기 전에 모탕고사를 한 후 공사를 시작했다. 모탕고사와 같은 행사는 건축물 조영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 다짐과 믿음을 확인하고, 장비 등을 점검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행위의 '건축의례'다. 과거 전통건축물은 시공하는 동안 중요한 시점에 통과의례를 거친다. 그중 처음으로 하는 건축의례가 모탕고사다. 모탕고사는 건물에 사용할 재목을 준비하고 치목하면서 하늘의 신과 땅의 신에게 고하는 의식이다. 건축 초기

에 행하는 건축의례는 모탕고사 이외에 터를 잡고 땅을 열기 전에 하는 개토제가 있다. 개토제는 모탕고사와 같이 하거나 이후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모탕고사가 개토제를 겸한다.

모탕고사는 건물의 중심이 되는 자리에 나무 하나를 세워 건물 위치를 표시하면서 시작한다. 과거 선조들은 나무를 세워 놓은 자리에 치목한 기둥을 세운 후 기둥 중 우두머리인 상기둥으로 삼았다. 모탕고사에 참여한 건축주와 사람들은 상기둥 앞에서 마음과 자세를 가다듬고 서로 화합하여 사고 없이 좋은 건물을 짓자고 결의를 다진다. 모탕고사와 개토제를 통해 집주인은 공사로 불편함을 겪어야 할 이웃 및 인근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공사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한다. 그리고 집주인은 이와 같은 의례를 통해 공사가 무탈하게 진행되기를 기원한다.

개토제는 말 그대로 땅을 여는 일로 건물의 터가 될 대지를 지켜온 신과 자연에 감사의 표현인 동시에 이웃 사람들에게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알리는 의례다. 개토제는 현대 건축행위 중 기공식에 해당되며, 개토제를 하면서 터파기 공사를 시작한다. 한편에서는 목수와 석공이 나무를 치목하고 석물을 치석한다. 개토제의 철차 및 형식은 모탕고사처럼 정해진 것은 없지만 형편에 따라 정성껏 재물을 마련한 후 진행한다.

살림집이나 규모가 작은 건축물의 기초공사는 주초가 놓일 자리를 달고로 다지거나 웅덩이를 파고 흙과 자그마한 돌을 채워 다진다. 건물의 규모가 크거나 자중이 큰 성곽이나 문루 등과 같은 건축물은 건물이 놓일 자리 전체를 사람 키 이상, 생땅이 나올 때까지 파낸 후 기초공사를 한다. 석공 또는 대목은 다진 땅 위에 주초를 놓는다. 건축주와 장인은 천년을 견딜 수 있는 건축물을 지을 것을 이웃 사람들과 함께 주초 앞에서 정성껏 마련한 제물을 놓고 다짐하면서 정초定礎 의식을 거행한다.

건축재료의 치목 및 가공은 조립 시공 전 단계의 작업으므로 기초공사와 동시에 이루어진다. 건축재료의 치목 및 가공 여건은 수작업에서 기계작업으로 바뀌었다. 과거의 치목은 원목 상태에서 치목을 했지만 현재는 제재소에서 1차 제재 또는 치목한 것을 목수가 2차 제재 및 치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목조건축물 조립은 건물에 사용할 목재의 70~80%를 치목 및 바심질을 한 후 시작한다.


입주식


상량고사

경북 구미 류승번 가옥 | 정연상

3. 목구조 조립 시공: 건물의 조립은 기단을 만들고 기단 위에 주초를 놓은 후 기둥을 세우면서 시작된다. 이를 사람들은 입주라 하며, 기둥을 세우는 행

사를 입주식立柱式이라 한다. 입주식은 보통 오시午時(11~13시) 사이에 행한다. 모든 행사가 그러하듯이 집주인을 비롯한 친지, 인근 주민, 공사 관련 장인들이 모여 행하는데 다른 의례보다 단출하게 치른다. 입주식은 집주인과 장인이 치목한 기둥을 세우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입주식을 통해 건축주는 지금껏 공사를 준비한 장인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장인들은 앞으로의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기를 참여한 사람들과 함께 두 손 모아 기원한다. 기둥을 세우는 일은 집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규모가 작은 살림집의 경우 주초를 놓는 정초식과 동시에 하며, 대목이 주관한다. 집주인과 장인은 입주식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흐트러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하나로 모은 마음과 정신을 기둥에 불어넣는다. 사람들은 이런 기둥을 한번 안아 집주인과 장인의 마음과 정신을 품어 본다.

기둥과 보로 구성된 가구식 우리나라 전통목조건축물은 주초 위에 기둥을 제대로 올려놓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과거 장인들은 이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둥 치목과 입주 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전통목조건축물의 기둥은 그랭이질이라는 방법을 통해 주초에 결속시킨다. 기둥과 기둥은 세로 방향의 보와 가로 방향의 인방재로 결구하여 건물의 구조적 안정을 취한다.

대목장과 건축주는 건물의 주요 가구재 조립이 끝나면 상량식을 한다. 이 시점이면 건물의 전체 윤곽을 확인할 수 있다. 상량식을 하는 날은 건축물을 지으면서 수고한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공사 현장에서 허드렛일을 하던 사람에 이르기까지 조영에 참여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날이다. 또한 상량식은 완성되어 가는 건축물의 모습을 외부 사람들에 첫선을 보이는 날이기도 하다.

장인들은 상량식을 치른 서까래를 걸고, 기와를 올리고, 마루를 놓고, 벽을 꾸미고, 구들을 놓고, 창문을 다는 등의 일을 한다. 서까래는 지붕의 형태와 규모에 따라 수량과 크기가 다르며, 목수가 해야 할 일의 양도 다르다. 그리고 전통건축물은 서까래를 거는 방식에 따라 외관이 다르다. 특히 전통건축물은 처마와 추녀부분의 서까래가 걸리면 그 자태를 드러내는데 많은 사람이 서까래 점이 만들어 내는 처마 곡선을 보고 한국의 아름다운 선 중 하나라고 한다. 대목들은 건물의 처마선을 잡는 것을 '건물의 맥을 잡는다'고 한다.

4. 지붕 공사: 장인들은 상량식 후 서까래를 걸고 기와를 올린다. 이때 서까래를 거는 일은 대목의 일이며 기와를 올리는 것은 와공의 일로 번와 와공이 작업을 주도한다. 목수들은 서까래의 수많은 점 위에 평고대를 건 후 기와를 놓을 와공을 만나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목수들은 건물의 특성과 조영원리, 그간 공사 일정과 앞으로의 공사 일정 등을 설명한다. 과거 와공들은 수제품의 기와를 사용했지만 오늘날 와공은 공장의 기성품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요즘 신한옥 또는 개량형 한옥은 처마 끝에 흰색의 와구토를 사용하지 않고 유지관리를 위해 막새기와를 사용한다. 막새기와를 사용하면 서까래와 평고대가 만들어 내는 처마 곡선은 또렷하지 않다. 흰색 와구토를 사용하여 처마 끝을 마감한 처마 곡선은 또렷하다. 전통가옥의 처마선은 대부분 서까래 열과 수키와 열이 같아 흰색 와구토와 서까래 마구리의 수많은 점이 만들어 낸 선이 건축주와 전통장인의 미의식을 잘 드러낸다.

전통건축물의 지붕 꾸밈은 목수와 와공이 만나면서 시작되고, 또한 상호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한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다. '목수를 잘 알고 이해하는 사람은 와공이고, 목수 능력을 알고 싶으면 와공에게 물어보라'고 한다. 따라서 지붕과 처마의 곡선은 그들의 조형 의식이 결합하여 완성된다. 즉 목수가 잡은 건물의 맥과 와공이 잡은 건물의 맥이 일치하여 같은 높이의 박동 수로 뛸 때 전통건축물의 처마선과 지붕 꾸밈, 건물의 외관이 완성된다. 전통건축물의 처마 선, 용마루 선을 잡기 위해 대목장과 와공은 건물을 멀리서 가까이서 보면서 주변 건물과의 조화, 주변 산과 지형과의 조화, 건물 주인의 인품 및 성향을 헤아린 후 결정한다.

5. 수장 및 마감 공사: 수장공사는 지붕에 기와를

올린 후 진행된다. 벽을 꾸미고, 구들과 마루를 놓고 난간을 설치하고, 창문을 다는 등의 일련의 공정을 말한다. 수장 공사에는 다양한 장인들이 참여 한다. 기둥 및 가구재와 지붕재는 직접 지붕의 하중을 받는 부재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안정감이 있어야 하지만 수장재는 직접적인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구조적 안정감보다 세밀하면서 정요함이 요구된다. 벽체 및 문을 구성하는 수장재와 마루, 난간은 소목장의 섬세함을 갖고 있는 대목이 작업을 진행한다.

마감공사는 한 부분의 공정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공정에서 이루어진다. 좁은 의미로 수장공사라고도 한다. 살림집의 마감공사는 건물의 골격을 짜 놓은 다음 벽체부분 마감공사부터 미장공사, 전기설비공사, 실내 온돌공사, 마루공사, 창호공사, 전기공사, 철물공사, 도배공사, 석공사 등을 말한다. 좁은 의미의 수장공사는 마루공사, 반자공사, 계단 및 난간공사, 도배공사를 말한다. 공사 순서는 현장 상황에 따라 선후 다르지만 벽체 마감공사 및 미장공사, 전기 및 상수도 설비공사, 온돌과 마루공사, 창호공사, 철물공사, 도배공사, 석공사 등 순서로 한다. 또한 살림집의 평면 조건에 따라 공정의 선후뿐만 아니라 일부 공사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살림집의 온돌공사는 난방방법에 따라 화목을 이용한 전통적인 온돌방식과 온수 등을 이용한 온돌방식으로 나뉜다. 전통적인 온돌은 구들 놓기, 굴뚝 쌓기, 부뚜막 만들기, 불지피기 등의 단계로 공사를 진행한다. 구들을 놓을 때 고래를 만든다. 고래바닥은 연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아궁이 쪽은 낮게, 개자리 쪽은 높게 하여 경사지도록 한다. 굴뚝은 돌과 반죽한 진흙을 켜로 쌓거나 속을 파낸 원통형 나무, 목재, 토관, 전벽돌 등을 이용하여 시공한다. 마지막으로 불때기를 할 때 방의 내부, 외부의 고막이, 연도, 굴뚝 등을 점검하여 화기나 연기가 새어 나오는지 확인한다.

마루공사는 실내외의 바닥 위에 널빤지를 평평하게 깔아 놓은 것을, 반자공사는 실내 윗부분 또는 위층의 바닥 밑을 가리어 치장으로 꾸미는 일을 말한다. 도배공사는 종이로 벽, 반자, 장지 같은 것을 바르는


대웅보전 서까래 걸기 | 경북 청도 운문사


창문 및 마루 놓기 | 경북 안동 학구재


고래 설치 | 경북 안동 하회 양진당

집짓기 | 정연상

일을 말한다. 계단은 상하층을 오르내리는 데 쓰이는 여러 단을 말하고, 난간은 높은 기단·누마루 끝·계단 옆 또는 다리의 양 옆에 막아 세운 시설물을 말한다.

석공사는 건물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공사량과 공정 선후가 다르다. 살림집은 기단이나 디딤돌 정도로 공사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어서 마당을 정비하면서 진행된다. 특히 기단은 마당의 배수와 밀접한 관계를 있으며, 또한 아궁이와 굴뚝의 자리 및 높이와 관계가 있어 기초공사를 한 후 주초를 놓으면서 계획하

고 있어야 한다. 이외 철물공사는 창호 및 기타 건물의 치장용 철물을 다루기 때문에 작업량이 미미하다.

특징 및 의의 집짓기는 터를 고르면서 시작된다. 이후 배치 및 평면을 계획하고, 건물의 골격 등을 시공하여 입주할 때까지의 일련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과거 전통가옥은 천연재료인 나무와 흙, 돌 등을 주재로 사용했지만 오늘 날 현대가옥은 천연재료보다 가공재료를 주재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전통적 방법으로 조영된 전통가옥은 현대가옥보다 공사기간이 더 필요하지만 인체에 유익한 친환경적인 공간을 제공한다.

참고문헌 맞춤과 이음(정연상, 고려출판사, 2010),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김왕직, 동녘, 2007),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한옥(신영훈, 현암사, 2005), 집짓는 법(김종남, 돌베개, 2011), 한국건축대계5-목조(장기인, 보성문화사, 1988), 한국건축대계6-개와(장기인, 보성문화사, 1991).

필자 정연상(鄭淵相)

쪽마루

정의 한두 쪽의 넓은 널을 깔아 만든 좁은 마루.

개관 쪽마루는 목조건축의 평주平柱 바깥쪽에 만들어지는 좁은 마루이다. 살림집에서 방과 방을 오고 가기 위한 동선 공간 및 내외부의 매개 공간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공간 활용성을 높였고, 바닥 면적을 넓히는 효과도 있었다.

내용 쪽마루는 한두 쪽의 넓은 널을 깔아 만든 좁은 마루이다. 툇마루는 목조건축의 평주 안쪽에 만들지만 쪽마루는 평주 바깥쪽에 만든다. 툇간이 없는 부분에서 툇마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평주 밖으로 덧달아낸 마루를 뜻한다. 쪽마루는 툇마루에 비하여 폭이 좁으며, 우물마루가 아닌 장마루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 쪽마루는 보통 건물 측면이나 뒷면에서 창호가 있는 부분에 부분 가설하며, 동바리기둥을 사용해서 지지한다.



경북 경주 양동 무첨당 | 2007



경북 영천 만취당 고택 | 2010

쪽마루 | 윤일이

살림집에서 쪽마루의 기능은 툇마루와 유사하여 안방과 건넌방 등을 연결하는 통로 구실도 하며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 잠시 걸터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간단한 가사家事도 처리할 수 있는 등 일상생활의 다목적 공간이다. 서민 살림집인 민가에서는 경제 형편이 안정되면 한 칸의 마루를 구성하였다. 그 이전 단계에서는 들마루나 쪽마루를 구성하여 생활의 편의를 높였다. 제주도 민가에는 상방의 앞쪽에 낮은 기단이 있다. 이것을 '난간(낭간)'이라 부른다. 이곳이 흙바닥인 집도 있고 쪽마루나 툇마루를 깐 집도 있다. 이를 통하여 흙바닥에서 쪽마루, 툇마루로 변화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상류주택에서는 사랑대청에 쪽마루를 연결하고 평난간을 설치하여 실내 면적을 넓게 쓰고, 운치도 더하였다.

일본 민가에서는 손님을 접대하는 '자시키座敷'의 앞쪽에 쪽마루가 먼저 구성되었고, 점차 주변으로 확

대되었다. 한편 오키나와 민가에서는 사방으로 쪽마루가 구성되어 대부분 전면은 거주공간, 후면은 수장공간으로 사용되었다.

특징 및 의의 쪽마루는 목조건축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구성할 수 있고, 툇마루와 동일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우천 시에는 곡물을 건조하는 장소이고, 농·작업 공간이자 낮에 편히 쉬는 장소이면서 접객 장소이기도 하며, 실내로 들어가는 현관 역할도 하였다.

참고문헌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김왕직, 동녘, 2007), 한국건축대계4-한국건축사전(장기인, 보성문화사, 1985).

필자 윤일이(尹一二)

쪽매

정의 두 수장재를 섬유 방향으로 평행하게 옆으로 대어 붙이는 결구 방식.

내용 우리나라 전통목조건축물의 결구 방법은 부재 간 결합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부재 간 결합 방식에는 장인들의 조영 원리가 담겨 있다. 목조건축물은 나무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재료의 조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재료에는 재료의 특성과 물성에 대한 장인의 이해가 담겨 있으며, 구조에는 다양한 하중 응력에 대한 장인의 이해가 담겨 있다. 결구는 크고 작은 목부재를 결합하여 만든 목부재의 짜임새로서 목조건축물의 조영 원리를 담고 있다. 목조건축물의 결구는 목부재 간 다양한 맞춤과 이음을 통하여 만들어진다. 건축물에 따라, 목부재의 역할과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다. 결구와 구조의 기본인 목부재 간 맞춤과 이음 연구는 목조건축물 구조와 결구 및 시공 기술에 대한 이해의 시작이 된다. 현존하는 많은 목조건축물은 목재의 재료적 특성 때문에 크고 작은 목재의 맞춤과 이음으로 짜였다. 특히 목조건축물은 세월이 지나면서 목재의 수축과 이완 등 변형으로 맞춤과 이음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한다. 맞춤과 이음 외의 결구 방법으로는 쪽매가 있다.

쪽매는 두 부재를 섬유 방향으로 평행하게 옆대어 붙여 결구하는 방식이다. 판재를 나란히 옆에 대어 결구하는 방식이다. 서로 맞댄 부분의 결구 방법에 따라 쪽매 명칭은 다르다. 쪽매 종류로는 맞댄쪽매, 반턱쪽매, 빗쪽매, 오늬쪽매, 제혀쪽매, 딴혀쪽매, 양제혀쪽매, 턱물림쪽매 등이 있다. 판재의 서로 맞댄 부분을 반턱으로 대패질하여 깎는 것을 변탕邊鎕이라 하며, 맞댄 부분의 장부 또는 장부 홈을 대패질로 깎는 것을 개탕開鎕이라고 한다.

맞댄쪽매는 두 판재를 가공 없이 서로 맞댄 방식이며, 반턱쪽매는 맞댄 부분을 반턱이음처럼 변탕하여 받을장 엎을장으로 결구하는 방식이고, 빗쪽매는 맞댄 부분을 비스듬하게 깎아 받을장 엎을장으로 결구하는 방식이다. 오늬쪽매는 맞댄 부분을 '〈' 모양과 같이 깎아 결구하는 방식이다.

제혀쪽매는 서로 맞댄 부분을 수장부 암장부 형태[凹凸形]로 깎아 결구하는 방식이고, 딴혀쪽매는 서로 맷댄 부분을 '凹' 형태로 가공한 후 별도의 부재를 끼워 결구하는 방식이다. 나미장쪽매는 서로 맞댄 부분에 나비장을 일정한 간격으로 박아 결구하는 방식이다. 양제혀쪽매는 서로 맞댄 부분에 장부와 장부 홈을 파 결구한다. 턱물림쪽매는 서로 맞댄 판재 중 하나를 반턱쪽매처럼 변탕하여 엎을장으로 하고 받을장의 판재 두께를 얇게 하여 결구하는 방식이다.

특징 및 의의 목조건축물은 단일 부재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다양한 목부재가 서로 결합한 하나의 결구체이기 때문에 부재의 결합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조영 원리를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쪽매는 구조재보다 의장재 또는 마감재 결구에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재료적 특성 및 장인의 이해도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중요하다.

참고문헌 맞춤과 이음(정연상, 고려출판사, 2010),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김왕직, 동녘, 2007), 한국건축대계5-목조(장기인, 보성문화사, 1988).

필자 정연상(鄭淵相)

쪽문

정의 대문 문짝의 일부에 사람이 지나다니게 작게 낸 문 또는 건물과 건물 사이의 경계에 있는 작은 문.

내용 쪽문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문에 문을 내는 형태로, 대문짝에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크기로 낸 작은 문을 말한다. 사람만 출입할 경우 무거운 대문짝을 매번 열지 않아도 된다. 이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다른 하나는 안채·사랑채와 같이 건물과 건물 사이를 오가는 작은 문을 뜻한다. 툇마루나 쪽마루가 이어져 신발을 다시 신고 벗지 않아도 다른 건물로 갈 수 있는 쪽문도 있다. 마루는 이어져 있으나 쪽문을 닫아 두면 각각 별개의 공간을 형성한다.

'쪽문'은 한자로 '일문一門'이고, '샛문'은 한자로 '간문間門'이다. 쪽문과 샛문의 정확한 구분 기준은 알 수 없다. 한자로 직역할 때 쪽문은 하나의 문이고 샛문은 사이에 있는 문이다. 샛문에는 방과 방 사이의 문이라는 뜻도 있다. 현재는 샛문도 쪽문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협문'은 문 양옆에 있는 작은 문이거나 담장에 낸 작은 문이다. 이 협문을 샛문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하나의 문을 샛문, 쪽문, 협문으로 통용해서 지칭하는 때는 하나의 대지 내에서 건물과 건물 사이 담장에 낸 작은 문의 경우로 정리할 수 있다.



쪽문 | 경북 경주 양동 | 국립민속박물관

특징 및 의의 쪽문은 문의 형태보다는 문의 위치와 역할에서 비롯된 용어이다. 대문짝에 작게 낸 문, 공간과 공간을 이어 주는 작은 문이라는 두 가지 뜻으로 쓰인다. 둘 다 작은 문, 즉 규모가 작고 보조 역할을 하는 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점에서 협문과 차이가 있다. 샛문과 쪽문은 있으면 편리하지만 없어도 된다. 공간 이동이 가능한 주된 문이 별도로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문은 공간과 공간 또는 건물 간의 이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이다. 협문 자체가 주된 문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김왕직, 동녘, 2007), 영건의궤(영건의궤연구회, 동녘, 2010), 한국건축개념사전(한국건축개념사전기획위원회, 동녘, 2013), 한국건축대계1-창호(장기인, 보성각, 2000), 한국건축대계4-신편 한국건축사전(장기인, 보성각, 2014), 한국의 문과 창호(주남철, 대원사, 200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stdict.korean.go.kr).

필자 조현정(趙賢貞)

쪽방

정의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거처로, 도시 최빈곤층이 거주하는 매우 작은 주거 공간.

역사 쪽방은 주거 빈곤의 단면을 보여 주는 공간으로, 1960년대 산업화와 더불어 도시화로 인한 개발 시기에 도시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 거주하던 곳이다. 월세를 지불하기 어려운 도시 최빈곤층이 일세를 지불하며 머무르던 무허가 숙박시설도 쪽방이라고 불렀다. 대체로 쪽방은 도시 최빈곤층이 임시로 생활한, 방의 크기가 매우 작은 주거 공간을 일컫는다. 쪽방은 이주민이 도시로 폭증하면서 발생한 주거 형태이다. 산업


건물 형태의 쪽방들 | 2011


쪽방촌의 골목 풍경 | 2010

쪽방 | 서울역사박물관

화와 도시화는 도시 내 건설업·서비스업 등의 일자리를 증가시켰고,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들은 저임금인 단순일용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도시빈민층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주로 종사하는 직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생활하였다. 도시 내 쪽방은 주로 쇠락한 지역 또는 매춘으로 소문난 지역 인접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쪽방의 기원을 사창가나 유곽, 여관이나 여인숙 등으로 보고 있다.

내용 쪽방의 의미를 살펴보면 '쪽'은 하나의 온전한 방이 나뉘었다는 뜻으로, 방의 크기가 매우 작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여러 개의 방으로 나뉘어 사용된다는 의미이다. 쪽방은 도시 최빈곤층을 위한 주거 공간으로, 전세나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저임금의 단순일용직 노동자들은 방세를 일세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았다. 월세로 지불하는 경우에도 보증금은 거의 없었다. 쪽방에는 개별 부엌과 화장실이 없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방의 크기는 한 사람이 누울 수 있을 정도로 좁아 최저 주거 기준에 못 미치는 열악한 수준이었다.

쪽방은 사창가가 쇠락하면서 숙박업으로 전환된 경우와 여관이나 여인숙 등에서 장기 임대 형식으로 임대하는 쪽방 형태가 있었다. 시설이 열악한 무허가 임대시설도 많았다. 그러나 이는 공식 숙박시설이라기보다 비공식 주거 공간이었다. 주로 가족 단위의 거주 공간이 아니라 혼자 상경한 노동자가 단기간 계약으로 방을 임대하여 사용하였다.

쪽방이 많이 위치한 지역으로 서울은 돈의동·창신동·남대문로 5 가동·동자동·영등포동, 부산은 동구 일대, 대구는 태평로2가동과 신암동, 대전은 정동과 선화동, 인천은 부평동과 효성동, 수원은 세류동 등이 있다.

특징 및 의의 쪽방은 방의 크기, 이용자, 임대 운영 측면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첫째, 방의 크기는 성인 한 사람이 누울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작으며, 개별 화장실이나 부엌과 같은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공동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쪽방을 이용하는 계층은 주로 단순노무자, 독신가구, 노인가구, 장애인 등 도시 최빈곤층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가족 단위가 아닌 홀로 사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쪽방은 주로 임대 형식으로 운영되었고, 전세나 월세가 아닌 일세 형태가 많았다. 쪽방촌은 도시의 소외 지역이나 쇠락 지역에 위치하면서도 일자리와 관련하여 대중교통, 인력시장, 재래시장 등과 인접하여 있었다. 쪽방촌은 도시 최빈민층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공간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또 일세 단위로 운영되는 저렴한 주택으로, 도시 최빈곤층이 택할 수 있는 마지막 주거 형태로 기능하였다.

참고문헌 쪽방사람들(김수현 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쪽방지역 실태조사 및 효율적인 정책개발(한국도시연구소, 200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김영수(金英洙)

차양
遮陽

정의 볕을 가리거나 비바람을 막을 목적으로 처마를 연장하거나 덧댄 시설.

내용 차양遮陽의 본래 뜻은 볕가리개이지만 비바람을 막는 부수 기능도 겸하고 있다. 차양과 같이 사용되는 용어로 보첨補簷이 있다. 처마 기능을 보충·보완한다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차양과 보첨은 모두 처마와 같은 기능을 하면서 처마 기능을 보완하는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사高麗史』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포함한 일반 시문집에도 보첨과 차양 기록이 자주 등장한다. 그 가운데에서도 '송첨松簷'에 대한 기록이 많다. 때로는 '송붕松棚'이라고도 하였다. 고려와 조선에서는 민가가 사치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부연을 사용한 겹처마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볕을 피하기 위한 차양 시설은 허용되었기 때문에 많은 민가에서 차양을 필수 시설로 설치하였다.

그림과 문헌을 통하여 보면 초가와 기와집 가릴 것 없이 차양 시설이 나타난다. 궁궐에서도 검약과 소박함의 정신으로 보첨 시설은 기름종이인 유둔油芚을 사용하거나 띠나 갈대 등으로 지붕을 잇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처럼 기와나 동판으로 잇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또 많은 민가에서 솔가지를 꺾어다가 처마 끝에 걸거나 선반처럼 틀을 짜고 솔가지로 지붕을 올리기도 하였다. 이를 송첨이나 송붕으로 불렀다. 규모가 크면 별도로 가는 차양 기둥을 세우기도 하였다.

송첨을 한 사례는 조선시대 김홍도의 <삼공불환도>와 김득신의 병풍화 등에서 볼 수 있다. 사랑채 처마 끝에 솔가지를 별도의 차양 시설 없이 덧달았다. 겸재 정선의 <득의산수도>에서는 초가집 한쪽 측면에 까치발을 세워 차양을 만들고 그 위에 기와 또는 바자로 보이는 재료를 얹었다. 또 <취성도>에서는 초가 앞쪽에 바자를 올린 것이 선명하게 표현되었다. 이외에도 얇은 판재나 유둔을 사용한 사례를 회화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건물의 처마가 차양 기능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볕이 깊게 들어오는 서향은 처마로도 부족해서 별도로 차양을 시설하는 사례가 많았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 따르면 1777년(정조 1) "창경궁의 공묵합恭默閤 서편에 작은 차양시설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차양은 건물 처마에 덧다는 것을 이르지만 때로는 상장례 및 각종 외부에서 치러지는 의례용 가설 건물로 차양막遮陽幕, 차양소遮陽所, 차양각遮陽閣을 짓기도 한다. 사용 기간이 짧은 가설 건물이기 때문에 차양각의 지붕은 주로 유둔을 사용하였으며, 초둔草芚이나 황초黃草를 올리기도 하였다.

특징 및 의의 건물에 차양을 설치한 현존하는 사례는 그


강원 강릉 선교장 열화당


제주 제주시 성읍 고평오 가옥

차양 | 서헌강

리 많지 않다. 궁궐로는 창덕궁 선향재善香齋가 남아 있다. 연경당 사랑채 우측에 위치하여 서재 기능을 하였다. 선향재는 서향이었기 때문에 건물 전면에 깊은 차양 칸을 덧달았다. 별도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은 양쪽 경사로 만들었으며, 동판을 올려 마감하였다. 차양 전면에는 마치 제주도의 풍채와 같이 도리에 창을 걸어 줄을 달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하였다. 볕의 각도에 따라 개폐할 수 있도록 시설한 고급 차양 시설이라 할 수 있다. 민가에서 선향재와 같이 동판을 사용한 사례는 강릉 선교장의 사랑채인 열화당에서 볼 수 있다. 마당에 별도의 차양 칸 기둥을 세우고 양쪽 경사의 차양 지붕을 올려 동판으로 마감한 차양 시설이다. 이보다 더 고급스러운 것은 서산 경주김씨慶州金氏 고택에서 볼 수 있다. 동판 대신 기와를 올렸다. 기와는 무겁기 때문에 차양의 기둥과 보들이 본채 못지않게 육중하다. 이와 같은 유형은 해남 녹우당에서도 볼 수 있다. 또 기와를 올린 사례는 영천의 연정 고택과 거창 동계 고택에서 볼 수 있다. 연정 고택은 사랑채 전면, 동계 고택은 사랑채 누각 사방에 각각 외쪽지붕(눈썹지붕)을 달아내고 기와를 올려 차양을 시설하였다.

소박하지만 실용성이 있는 차양 시설로는 제주도 민가의 풍채를 들 수 있다. 제주도는 비가 많고 바람에 세기 때문에 집들이 낮으며, 안채에 해당하는 안거리 전면에 풍채를 설치한다. 풍채는 목재로 틀을 짜고 이엉을 얹은 외쪽지붕이다. 이를 처마 아래에 걸고 지겟작대기로 받쳐서 열고 닫는다. 볕을 가릴 때는 열어 두었다가 비가 오면 닫아서 비바람을 막는다. 풍채는 대개 안거리에만 설치하지만 성읍마을의 한봉일 가옥은 밖거리에도 설치하였다. 차양은 이처럼 한국건축물에서 널리 사용한 시설이었다. 그러나 내구성이 좋지 않고 처마 길이가 부연 등으로 길어짐에 따라 점차 사라져서 지금은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참고문헌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김왕직, 동녘, 2007), 지혜로 지은 집 한국건축(김도경, 현암사, 2011), 한국건축사전(장기인, 보성각, 1998), 한국 전통건축의 보첨과 차양에 관한 연구(강영환,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25-12, 대한건축학회, 2009).

필자 김왕직(金王稙)

찬광

정의 식품이나 양념 등 반찬거리를 넣어 두는 광.

내용 찬광은 반찬거리를 넣어 두는 광으로, 햇볕이 들지 않고 그늘지며 통풍이 잘되고 서늘하여야 한다. 습기를 피하기 위하여 벽체는 널빤지이거나 터진 개방형 공간으로 만들고, 바닥은 마루로 하며, 지표로부터 높게 설치한다.

광은 살림살이나 그 밖의 여러 가지 물건을 넣어 두는 곳 또는 그런 건물이나 시설을 말한다. 규모면에서 곳간이나 창고보다 작은 가벼운 창고이며, 사용 목적에 따라 김치광, 장광, 나무광, 쌀광 등 보관 품목의 명칭을 써서 부르기도 한다. 독립된 건물로서의 광은 광채라고 부른다. 전통가옥에서는 필수 생활공간이자 부대시설이다.

전통 식생활에서 장광에는 바깥주인이 마련한 일년 먹을 양식과 장이 가득 있다. 안주인은 저장음식을 장만하여 찬광, 장광, 장독대에 차곡차곡 재워 놓는다. 우리나라 음식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어 내놓는 음식보다 미리 장만하였다가 내놓는 자반, 장아찌, 마른반찬, 조림이 더 많았다. 그러므로 사시사철 나오는 재료를 찬광 등에 두고 한 해 동안 먹을 수 있도록 장만하여 두어야 하였다.

찬장饌欌은 일반 장欌과 달리 식생활에 필요한 곡식 및 채소와 발효식품인 된장, 간장, 고추장, 젓갈, 김치 등을 저장하는 데 사용되었다. 장독대라든가 독립된 칸[間], 즉 찬방饌房·찬광 등을 저장 공간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찬장 기능 가운데 일부는 찬광이 대신하기도 하였고, 윗닫이 궤櫃인 그릇궤·곡식궤 등을 통하여 용도가 분리되기도 하였다.

찬광은 반빗간이나 부엌 옆에 부설된 공간을 활용하기도 하며, 장독대 옆에 따로 찬광을 만들기도 한다. 따로 칸을 내어 만드는 것에는 단층과 이층 두 가지가 있다. 남쪽 지역의 잘사는 집은 이층으로 찬광을 만들어서 아래층에서는 찬을 만드는 일을 하고 위층에는 반찬거리를 보관한다.

간장, 된장 등 밑반찬을 갈무리하는 장독대 옆에 뒤주처럼 마루를 깐 바닥의 건물을 만드는 경우에는 바닥이나 벽체에 구멍을 내어 바람이 늘 통하도록 하고, 지붕을 두껍게 하여 뙤약볕을 막고 처마를 깊이 하여 그늘지게 만든다. 찬광에는 무청·산나물·버섯·굴비 등을 넣은 버들고리나 크고 작은 독, 나무로 짠 궤나 반닫이 등을 알맞게 넣어 쟁인다.

국가중요민속자료 제234호 연안김씨 종가(전라남도 영광군 군남면)는 1868년(고종 5년)에 지어진 고택이다. 안채, 사랑채, 곳간채와 사당, 서당 및 안대문, 마구간, 헛간, 찬광, 장독대, 바깥대문 등으로 배치되어 조선 후기 반가의 구조와 공간을 엿볼 수 있다.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에 있는 윤증고택의 안채와 곳간채 건물을 나란히 세우지 않고 여덟팔자 모양으로 배치한 이유는 건물 사이가 넓은 쪽에서 좁은 쪽으로 공기를 끌어들여 바람의 속도를 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공기가 넓은 쪽에서 좁은 쪽으로 흐를 때 바람이 빨라지므로 건물의 좁은 쪽에 차게 보관할 식품을 넣어 두는 찬광을 들였다.

특징 및 의의 전통 서민 가옥의 부엌은 대체로 두 칸 크기로 이루어진다. 부뚜막 반대쪽 벽에 살강을 두고 그 아래 한쪽에 땔감을 쌓아 두며 다른 한쪽에는 개수통을 마련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비하여 경기도의 도서지역이나 일부 내륙지역에서는 부엌 벽을 마당 쪽으로 처마 너비만큼 달아내고 이곳에 나무를 둔다. 이 공간과 부엌 사이에는 벽이 있어서 훌륭한 나무광이 된다. 한편 이보다 더 여유가 있어서 부엌 벽의 좌우 양쪽을 트는 집에서는 한 칸은 나무광으로 쓰고 나머지 공간에는 널을 깔고 찬광으로 이용한다. 이 찬광에는 흔히 쪽퇴를 달고 두 짝의 여닫이도 붙인다. 부엌 내 저장공간으로서 찬광 형태의 특징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궁중음식과 서울음식(한복려, 대원사, 1995), 명문종가이야기(이연자, 컬처라인, 2003), 한국의 부엌(김광언, 대원사, 1978), 두산백과사전(doopedia.c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윤덕인(尹德仁)

찬방
饌房

정의 반찬거리나 반찬 만드는 기구, 상 등을 넣어 두는 방.

내용 조선시대 대저택에서는 간단한 반찬을 만들거나 조리된 음식을 소반 위에 놓아 안방과 사랑방으로 내어 가기 위하여 안채나 부엌에 찬방饌房을 마련하여 상차림에 필요한 소반, 식기류, 뒤주 등을 보관하였다. 그리고 찬방은 음식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로도 쓰였다. 일반 가옥에서는 대청에 찬장饌欌과 찬탁饌卓을 놓고 소반, 함지박 등 부엌 세간살이를 얹거나 걸어 두었다.

찬방은 반찬거리나 조리된 음식을 보관하는 것이 주 용도이므로 식품 재료의 신선도를 위하여 난방은 되지 않은 방 또는 마루 형태로 이루어져서 찬마루라고도 하였다. 오늘날 주택의 부엌방과 다용도실에 해당하는 공간이다. 찬방은 부엌과 문으로 연결되어 있어 부엌에서 조리한 음식을 여기에서 상에 올려 안방과 사랑방 등으로 내갔으며, 간단한 음식은 이곳에서 조리하기도 하였다.

전통 한옥의 바닥을 구성하고 있는 온돌과 마루는 각기 상반된 특성이 있다. 널을 깐 방을 마루방 또는 마루청, 넓은 마루청을 대청이라 하면서 수장收藏 공간으로 이용하였다. 원래 우리나라는 고려 때만 해도 상류층은 입식 생활에 화로를 피우고, 두꺼운 솜을 넣은 옷을 입고 살았다. 조선에 와서도 온돌을 한두 칸만 만들어 노인이나 환자가 사용하였으나 조선 중기에 이르러 거처실은 모두 온돌로 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조선 19대 숙종 때 건축된 인현왕후의 감고당感古堂은 명성황후가 1851년에 태어나 8세까지 살던 곳이기도 하다. 원래 현재의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있다가 1966년 도봉구 쌍문동으로 옮긴 후 2004년 쌍문 중·고교 신축 계획에 따라 철거될 위기에 처한 건물을 2006년에 해체한 후 명성황후의 고향으로 이전 복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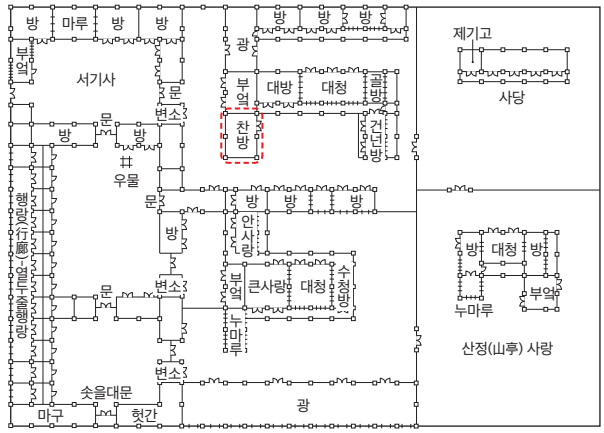
『국학도감』에서 감고당의 평면도를 보면 대방 정침正寢에 붙은 부엌의 남쪽에 찬방이 붙어 있다. 대방 정침을 나와 대청을 지나면 골방이 있고, 이어서 건넌방이 있다. 골방 또한 큰방에 딸린 작은 방으로, 난방이 거의 안 되는 방이다. 큰사랑 정침에도 부엌이 있고, 남쪽에는 다락처럼 높게 만든 마루인 누마루가 있다. 안사랑이 감고당이다. 평면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찬방은 솟을대문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안채나 부엌에 붙어 있으며, 집 안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여성들만의 공간임을 알 수 있다.

퇴계종가의 사랑채와 안채는 ㅁ자 형태이므로 안마당이 사랑채와 안채 사이에 있고, 거기에 장독대가 설치되어 있다. 왼쪽 날개채에는 찬방과 남쪽방이 있으며, 오른쪽 날개채에는 정자와 통하는 문이 있고 문 옆에 고방이 딸려 있다. 안채는 종부를 중심으로 여성들이 거처하는 공간이다. 여기에서 식사나 주안상을 마련하고 일체의 제사음식을 차리는 곳으로 찬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류가옥에는 부뚜막 반대쪽에 찬방이 있었다. 이곳에는 자주 쓰지 않는 시루나 함지 따위의 부엌 세간을 보관하였다. 또한 찬장이나 찬탁을 놓아 식기류를 넣어 두었으며 여러 가지 반찬류도 갈무리하였다. 큰일을 치를 때에는 상도 차렸다. 찬방에서 음식을 다루는 이는 찬모이다. 찬방 책임자인 찬모는 차린 밥상을 마루나 방에까지만 들여다 놓으며, 방 안으로 옮겨 가는 일은 '남녀유별'에 따라 며느리나 딸이 하는 것이 관례였다.

특히 잔치 등 큰일이 있을 때는 부엌이나 한뎃부엌에서 만든 음식을 찬방에 늘어 놓고 보관하거나 간단한 음식은 이곳에서 만들기도 하였다. 오늘날 제주 지역에서는 전통 혼례의 경우 사흘 동안 잔치를 하는데 찬방에서 잔치음식을 배분하는 찬모는 '도감'이라 하며 이날 대단한 권력을 행사한다고 한다.

경상도의 상류가옥 가운데에는 찬방을 안방 위쪽에 마련하는 집도 있다. 이 방에는 주로 마른반찬 따위를 두며, 그 집의 주부가 사랑채로 내가는 주안상 따위를 직접 차려 냈다. 찬방과 안방 사이는 장지문으로 막는다. 서울 종로구 북촌 소재의 현대 한옥인 능



감고당 평면도 중 찬방 | 국학도감

소헌·청송재에서도 안방, 주방식당과 연결되어 있는 찬방을 볼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해남의 구가윤씨 댁은 환기를 위하여 부엌의 지붕을 한층 따로 높여서 환기창과 조명을 겸한 건축 양식을 보여 준다. 그러나 여전히 급수와 하수 시설이 없고, 부엌 및 봉당마루와는 거리가 멀고 또 고저가 있어서 반드시 찬방이 따로 있어야 하는 구조상의 특징이 있다. 옛날에는 잔일하는 사람은 솥이 걸린 데서 일을 하고, 찬모나 주부는 마루방으로 된 찬간에서 일을 하였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부엌 구조에서는 사람을 많이 부리지 않고는 부엌일을 해낼 도리가 없었으리라고 추측된다.

참고문헌 국학도감(이훈종 편저, 일조각, 1970), 안동퇴계이황종가(정우락, 예문서원, 2011), 안팎에서 본 주거문화(주거학연구회, 교문사, 2004), 한국요리백과사전(황혜성, 삼중당, 1976), 한국의 부엌(김광언, 대원사, 1998), 한국의식주생활사전-식생활(국립민속박물관, 2018), 문화콘텐츠닷컴(culturecontent.com).

필자 윤덕인(尹德仁)

찬장
饌欌

정의 음식과 식기류 등 일상생활과 의례에 필요한 기물들을 보관하는 가구.

개관 찬장饌欌의 형태는 단층에서 삼층까지 다양하고, 전체로는 옷장 구조와 유사하며, 다리를 길게 제작한다. 찬장은 기물의 하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골재와 판재를 두껍게 제작하며, 습기 차단과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바닥에서 찬장 아래 판까지 대체로 높게 만든다. 이는 찬장 제작에서 외형의 아름다움보다 견고성과 실용성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내용 조선시대 대가는 부엌에 딸린 찬방饌房을 마련하였고, 일반 가옥은 대청 등에 찬장과 찬탁饌卓을 놓고, 소반과 함지박 등 부엌 세간살이를 얹거나 걸어 두었다. 찬장에 보관하는 식생활용 기물들은 재질이 금속, 사기, 나무 등이어서 전체 무게가 전혀 가볍지 않다. 특히 조선 후기에 들어서 유기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생활 기물들은 내구성이 좋아진 반면에 무게는 더 무거워졌다. 장인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찬장 제작에 견고한 목재를 선정하였고, 구조물의 굵기를 결정하였다.

형태는 단층에서 삼층까지 다양한 편이다. 전체로는 옷장 구조와 유사한 찬장과 다리를 길게 만든 찬장이 보편화된 형태이다. 전자는 골재와 판재가 두꺼워서 외관이 투박하고 튼튼해 보이며, 주로 찬방·대청 등에 배치한다. 주부들은 집안의 대소사에 사용할 기물들을 보관하다가 필요한 행사 당일 꺼내 사용한다. 후자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식기류와 음식 등을 보관하는 찬장으로 주부들이 주로 부엌에 놓고 사용한다. 부엌에 배치한 찬장은 부엌의 흙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차단하고, 통풍이 잘되어야 한다. 따라서 찬장은 기둥이 다리를 겸하도록 하였으며, 부엌 바닥에서 아래 판까지 대체로 높게 만든다.

찬장은 쇠목, 동자, 기둥 등 골재를 굵직하게 짜서 결구한다. 찬장이 보관물의 무게를 이겨 내도록 한 구조이다. 이는 찬장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아름다움보다 견고성과 실용성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잘 보여 준다. 장석은 앞바탕·경첩 등에 돌쩌귀 또는 동그레형, 약과형 같은 튼튼하고 단순한 것을 필요한 곳에만 부착한다. 골재와 장식 면에서 찬장의 중후함과 간결함은 옷장 및 책장을 구별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정형화된 찬장 이외에 뒤주찬장과 살찬장도 있다. 뒤주찬장은 위쪽에 뒤주, 아래쪽에 찬장을 각각 배치하였다. 뒤주는 덮개를 여닫이로 위로 젖혀서 개폐할 수 있으며, 찬장은 중앙에 여닫이문을 배치하여 앞으로 열도록 하였다.

살찬장은 나무로 가늘게 잘라서 살을 만든 다음



찬장 | 가로102 세로44 높이152 | 국립민속박물관



찬장 | 가로36 세로89 높이91 | 국립민속박물관

판을 대신하여 앞면에 세로로 대어 만든다. 이 찬장은 통풍이 잘되어서 식기 등이 빨리 마르며, 음식 냄새가 안에 잘 배지 않고, 음식이 빨리 상하지 않게 하는 장점이 있다.

왕실용 찬장은 영조英祖(1694~1776)와 정순왕후의 가례에서 별공작이 주칠삼층식장朱漆三層食欌 1좌를 제작하여 수라간에서 사용하도록 한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거 방식이 바뀐 현대에도 주부들은 찬장 기능을 하는 가구를 구입한 뒤 각종 식기류와 세간살이 소품 등을 보관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찬장은 실용성과 견고성을 우선시하여 튼튼하게 제작한다. 필요한 부분에만 장석을 부착해서 외장의 아름다움을 억제하며 소박하고 간결한 느낌을 주는 것은 찬장에 있는 보편화한 특징이다. 주부는 부엌, 대청, 찬방 등에 비치한 식기류 등을 행사 당일 유용하게 사용한다. 찬장은 집 안에 있는 가구 중 가족들과 집안 행사를 위한 주부들의 대표적인 전용 가구이다.

참고문헌 한국목가구의 전통양식(배만실,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박종민(朴鍾珉)

찬탁
饌卓

정의 식기류를 얹어 놓거나 음식물을 보관하는 부엌가구.

개관 찬탁饌卓은 다층으로 개방공간과 수납공간을 함께 갖추고 있어서 탁자 및 장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개방공간은 각종 기물, 수납공간은 음식물을 보관한다. 그리고 찬탁은 각종 기물의 무게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골재와 판재 등 구조물은 견고함과 중량감을 갖춘 나무를 택해서 제작한다. 실용성과 효율성을 중시한 가구로, 장식은 단순하다.

내용 찬탁은 식기류를 얹어 놓거나 음식류를 보관하는 부엌가구로, 탁자와 장 기능을 동시에 한다. 기물과 음식을 잘 보관해야 하는 주부에게 찬탁은 매우 필요한 가구이다. 부엌의 한쪽 벽에 찬탁을 붙여 놓고 유효적절하게 각종 기물을 보관한다.

유기나 자기 그릇을 쌓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찬탁은 이것들의 무게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장인 또는 제작자가 내구성을 염두에 두고서 굵은 기둥과 두꺼운 판재, 견고한 짜임과 이음매로 찬탁을 제작하는 것은 당연하다. 겉보기에 굵고 투박한 구조는 오히려 찬탁의 견고함과 신뢰감을 주기도 한다.

찬탁은 다층, 개방공간과 수납공간, 높이와 폭의 비례 등 다양한 모습을 보여 준다. 층 구성은 2층에서 4층으로 다층 구조를 보인다. 공간 형식은 개방공간과 수납공간으로 되어 있다. 층 전체가 개방되어 있는 반면에 개방공간과 수납으로 복합 구성된 찬탁도 있다. 주로 한 층은 수납장이고 나머지 층은 개방되어 있다. 수납장 방식은 층널 중간 또는 하단에 수납장을 두고 여닫이 또는 미닫이 문짝을 배치한다. 네 면을 모두 개방하지만 측널과 뒷널을 배치하고 전면만 개방하기도 한다.

비례는 높이에 비하여 폭을 좁거나 넓게 제작한다. 삼층과 사층 찬탁은 대체로 높이가 폭보다 길다. 이층 찬탁은 높이에 비하여 폭을 넓게 제작한 찬탁으로, 강원도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층 찬탁은 상당히 안정감을 주는 비례의 미를 보여 준다.

수납장은 여닫이문 또는 미닫이문을 달아서 안쪽에 음식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 문은 뒤틀림을 막기 위하여 테두리 나무인 문변자를 댄 문판 또는 통판 등으로 제작한다. 약과형 경첩과 자물쇠 앞바탕 등의 장식은 단순함을 강조한다.

찬탁은 트인 개방 공간이어서 주부들이 식기류를 얹어 두고 매사 꺼내 쓰기에 매우 편리하다. 이곳에는 식기류 이외에 수저통, 양념그릇, 작은 단지 등을 놓는다. 이 공간은 통풍이 잘되어 식기류의 건조 시간도 짧을 수 있다. 탁자 맨 위에는 상을 얹어 놓기도 하고 찬



찬탁 | 가로85 세로32 높이156 | 국립민속박물관

합과 초병 등 부피가 있는 기물들을 얹어 놓기도 한다.

층널은 대체로 통판으로 만들어서 기물의 하중을 지탱하도록 한다. 굵은 쇠목에 얇은 널빤지를 끼우는 찬탁도 있다. 이때는 얇은 층널이 힘을 크게 받지 못하므로 짧은 세로결의 널빤지 여러 쪽을 쇠목에 끼워서 보강한다.

기둥과 쇠목의 결구는 연귀촉짜임이 많고, 때로는 십자형 턱짜임을 하여 튼튼하게 하고 있다. 기둥과 천판의 결구는 연귀장부촉 등으로 하여 깊고 견고하게 하며, 군데군데 나무못으로 보강하여 힘을 받도록 한다. 골재와 판재는 느티나무와 소나무, 부재는 참죽나무를 사용한다.

찬탁 구조는 아름다운 치장보다 간결한 기둥, 튼튼한 쇠목 등 중량감 있는 선들로 연결된 나름의 독특한 조화와 고유한 특징이 있다.

특징 및 의의 찬탁은 그릇 등을 올려놓는 탁자와 음식류를 보관하는 장 기능을 모두 한다. 기물과 음식을 동시에 보관할 수 있는 찬탁은 주부들의 고민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준 부엌가구이다. 찬탁은 치장의 아름다움보다 간결한 기둥과 튼튼한 쇠목 등 묵직한 선들로 이루어진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이 가구는 견고성, 효율성, 실용성을 두루두루 갖춘 대표 부엌가구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이조가구의 미(배만실,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박종민(朴鍾珉)

창호
窓戶

정의 온갖 창과 문을 통틀어 이르는 말.

개관 창窓은 실室의 일조나 환기를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호戶는 실의 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말한다. 각각 전혀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설이다. 인류의 건축 역사는 커다란 개구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서양건축은 오래전부터 돌을 쌓아 건물을 만드는 조적식 구조를 채택하였다. 돌을 쌓는 과정에 커다란 개구부를 만들려면 상부 돌의 무게를 지탱할 거대한 인방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런 까닭에 조적식 구조는 커다란 개구부를 만들기가 무척 어려운 구조였다. 개구부의 크기와 숫자가 한정되다 보니 실내는 항상 어둡기 마련이었다. 새로운 건축 방법과 스테인드글라스가 개발된 고딕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커다란 개구부를 낼 수 있었다.

이에 비하여 동양은 아주 오래전부터 목조가구식 구조를 채택하였다. 가구식의 장점은 외기에 접한 모든 면을 개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창호를 전혀 설치하지 않는 누정건축이 아주 오래전부터 유행하였다. 개구부 설치가 서양보다 훨씬 자유로웠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구조상 모든 면을 개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개방된 형식으로 창호를 달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전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

선시대에 지어진 많은 건물들은 창과 호의 구별이 어렵다. 또 창과 호를 만드는 방법에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런 까닭에 창과 호는 따로 구분하지 않고 창호라는 이름으로 통칭해 왔다.

내용 인류가 고안한 최초의 창호는 판문 형태일 것으로 추정된다. 여러 개의 나무판을 늘어놓고 띠장을 덧댄 다음 못을 박아 만든 창호이다. 차가운 외기로부터 실내를 보호하기 위하여 판문보다 더 유용한 창호는 없었을 것이다. 다만 판문은 빛이 전혀 투과되지 않는다. 판문으로 문과 창을 막아 대면 실내공간은 암흑으로 변한다. 창호를 열 수 없는 겨울이라면 하루 종일 호롱불과 같은 조명을 밝혀야만 실내에서 생활할 수 있다. 현존하는 동양의 고대 건축물은 대부분 창호로 판문을 사용하였다. 우리나라 건축물 가운데 출입하는 문을 판문으로 만든 사례는 영주 부석사浮石寺 무량수전 배면과 영천 은해사銀海寺 거조암居祖庵 영산전靈山殿을 들 수 있다. 거조암 영산전은 출입문을 이중으로 설치하였다. 안쪽 문이 판문으로 되어 있다. 창에 판문을 사용한 사례로는 부석사 조사당과 무량수전 배면이 있다. 두 건물 모두 바깥에는 열리지 않는 살창을 설치한 다음 안쪽에 판문을 달아 여닫았다. 거조암 영산전은 현재 창에 살창만 설치되어 있지만 원래는 내부에 판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창과 문에 육중한 판문을 달아 폐쇄된 공간을 형성하던 것에서 큰 변화가 일었다. 틀을 짜고 내부에 살대를 촘촘히 끼워 넣은 창호가 개발된 것이다. 창호의 안쪽이나 바깥쪽에는 종이를 발라 추위에 견딜 수 있게 하였다. 이 창호는 나무판으로 만든 것보다 훨씬 가벼워졌고, 빛이 투과돼 실내공간을 밝게 할 수 있었다. 다만 살대가 부러지기 쉬워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한정되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좌식 생활이 정착된 고려 중기쯤에는 이런 창호가 널리 사용되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고려 중기를 기점으로 사람들의 생활이 입식에서 좌식으로 변화하였다. 기존에는 서서 생활하였지만 이제부터는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너무나 단순해 보이지만 생활공간인 건축



스테인드글라스 | 프랑스 랭스대성당 | 2010 | 이연노



창호 | 경북 안동 안동권씨 능동재사 | 서헌강



창 | 서울 종로구 창덕궁 낙선재 | 국립민속박물관



문 | 경북 의성 소우당 고택 | 서헌강

물은 혁명과도 같은 변화를 겪어야만 하였다. 바닥 높이와 재질, 천장 높이, 난방 방법, 사용하는 가구 높이 등 모든 것이 변화되었다. 창호 역시 큰 변화가 불가피하였다. 부석사 조사당에 설치된 살창과 판문은 서거나 의자에 앉아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한 창이었다. 이 창은 바닥에 앉아 생활하는 사람에게 무용지물이었다. 바깥을 내다볼 수도 없으며 햇빛이 바닥에까지 도달하지도 않았다. 창의 높이가 현저하게 낮아져야 하였고, 결국 사람이 통과하는 문과 유사한 높이가 되었다. 그렇더라도 창과 문의 구분은 필요하였다. 실내에 가구도 놓아야 하고, 창을 여닫을 때 누운 사람과 부딪치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창 하단에는 낮은 높이의 칸막이인 머름[遠音]을 덧달아서 창과 문을 구분하였다.

고려시대의 창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는 아산의 맹씨행단孟氏杏壇과 부석사 무량수전을 들 수 있다. 맹씨행단은 조선 초기 명재상인 맹사성孟思誠(1360~1438)의 주택으로 알려져 있다. 중앙에 두 칸의 대청을 두었다. 전면에는 칸마다 세 짝의 만살[滿箭] 창호를 설치하였다. 이 가운데 좌측 칸 중앙에 놓인 창호만 하단에 머름을 두지 않았다. 또 좌측칸 중앙의 창호만 여닫이로 하고 다른 창호는 모두 들어열개로 되어 있다. 즉 이 창호만 문으로 설치하였고 나머지 다섯 짝의 창호는 모두 창으로 설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부석사 무량수전의 정면 창호는 칸마다 네 짝으로 구성하였다. 중앙 두 짝은 여닫이로 만들었고, 좌우측 창호는 들어열개로 만들었다. 역시 좌우측 창호 하단에는 머름을 두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칸을 구성하는 데 문과 창을 동시에 설치하는 것은 극히 드문 경우이다. 대부분 하나의 칸에 설치하는 창호는 창과 문의 구별을 명확히 하였다. 하단에 머름을 두고 있으면 창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머름이 없는 경우는 문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창호는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위치와 형태가 너무나 다양하다. 이런 까닭에 창호의 개폐 방식에 따라, 구성에 따라, 형태에 따라, 설치 위치에 따라 각기 다른 명칭으로 불리었다. 몇 짝으로 창호를 구성하는지에 따라 독창獨窓, 쌍창雙窓, 분합分閤으로 나뉘었다. 또 창호를 어떻게 여닫는지에 따라 붙박이, 여닫이, 미닫이, 미서기, 벼락닫이, 들어열개, 안고지기[按具支只] 등으로 나뉜다. 붙박이는 창호가 열리지 않는 고정된 창호를 말한다. 세로나 빗방향으로 살대만을 설치한 살창과 교창이 붙박이에 해당한다.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은 팔만대장경판을 보관하기 위한 건물이다. 칸마다 정면과 배면에 상하로 두 짝씩 살창을 설치하였다. 배면에 설치한 살창은 위쪽 살창이 아래보다 크고, 정면에 설치한 살창은 아래쪽의 살창이 위보다 크게 만들어졌다. 장경판전 뒤쪽 산에서 불어오는 높새바람이 건물 내부로 들어와 제대


충남 홍성 조응식 가옥


전북 정읍 김명관 고택

살창 | 서헌강

로 순환해서 경판을 오래도록 보관하기 위함이었다. 안고지기는 미닫이와 여닫이가 일체화된 창호를 말한다. 현재 논산의 명재고택 사랑채에서만 볼 수 있는 창호이다. 세 짝의 창호로 만들어졌다. 가운데 창호를 좌측으로 밀어 두 개의 창호를 일체화한 다음 이것을 밖으로 여닫는 방법이다. 궁궐에서 많이 사용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경운궁 함녕전 남쪽 행각에 설치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창호를 어떤 형태의 재료로 만들었는지에 따라 널판창과 살대창으로 구분한다. 몇 장의 나무판을 이어서 만든 창호를 판문이라고 한다. 판문 가운데에는 나무판 주위에 울거미(테두리)를 둘러 고급스럽게 만든 창호가 있다. 이것을 울판문[亏里板門] 또는 당판문唐板門이라고 한다. 창호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나무판 대신 살대를 사용한 창호가 널리 사용되었다. 각 살대를 어떻게 기하학 형태로 만들었는지에 따라 무수히 많은 이름이 붙여졌다. 문헌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살대의 명칭은 만살과 세살[細箭]이다. 만살창호는 바둑판 모양으로 가로와 세로에 살대를 가득 설치한 창호이다. 살대로 만든 창호 가운데에서 내구성이 가장 뛰어나다. 세살창호는 세로의 경우 만살창호와 유사하지만 중간중간에 가로로 놓이는 살대를 생략해서 만든다. 경제성과 내구성이 모두 뛰어나기 때문에 궁궐을 비롯하여 민가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건축물에서 널리 사용하였다. 이 외에 완자完字살, 만자卍字살 등이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또 한자 형태에 따라 용用자살과 아亞자살, 살대 방향에 따라 빗살과 소슬빗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특징 및 의의 창호는 건축물의 외관을 최종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아무리 똑같은 형태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개인별로 선호하는 동선, 밝기, 주변 환경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쳐 각기 다른 형태의 창호를 설치하기 마련이다. 동양건축에서 건물을 구성하는 구조체는 나라마다 크게 다르지 않다. 모두 목조가구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목조가구식은 모든 면에 창호를 설치해서 개방할 수 있는 구조이다. 하지만 나라마다, 시대 상황에 따라, 주변 환경에 따라 개방하는 정도는 천차만별이었다. 그 결과 각 나라의 건물은 외관에서 전혀 다른 독특한 모습을 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김왕직, 동녘, 2007), 영건의궤(영건의궤연구회, 동녘, 2010), 지혜로 지은 집 한국건축(김도경, 현암사, 2011), 한국의 문과 창호(주남철, 대원사, 2001), 화성성역의궤 건축용어집(경기문화재단, 2007).

필자 이연노(李演魯)

책상
冊床

정의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사무를 볼 때 사용하는 가구.

개관 오늘날 사무용가구로 분류되는 책상冊床은 크게 사무용책상, 학생용책상 등으로 나뉠 수 있다. 국내에서 책상 사용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이에 서구 문물 영향으로 입식 가구가 유입되면서 소파, 의자, 탁자 등과 함께 왕실 집무실에서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왕실의 수입 가구나 책상이 신고전주의 절충 양식의 전통 유럽풍이라면 20세기 초 보성전문학교 교실에서 사용한 2인용 책상은 직사각형의 판재와 직선의 각목 다리로 단순하게 제작된 기능성 모던Modern가구 디자인이었다. 이러한 근대 초기 형태의 학생용 모던 책상은 국내에서 제작되어 학교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전통 책상, 즉 서안書案은 이 시기를 기점으로 입식화된 건축 및 생활에 의하여 사무실이나 학교 등에서 점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내용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스크desk로 불리는 책상이라는 용어는 중세시대에 나온 것으로, 책을 놓고 글을 쓰는 곳이 강연대나 보면대처럼 주로 경사진 상판 구조였다. 이 형태에서 발전되어 글을 쓰기 위하여 경사진 형태의 닫은 문을 앞으로 열어 수평으로 고정시켜서 책상 상판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데스크 형태는 상판 아래에 주로 서랍을 추가하면서 뷰로bureau, 세크리터리secretary, 대븐포트davenport, 페디스

털pedestal 데스크 등으로 발전하면서 17~19세기에 널리 사용되었다. 그 후 이러한 책상 형태는 20세기 근현대를 통하여 다양한 구조, 크기, 종류, 디자인 등에 영향을 미치며 발전하였다.

현재 국내의 책상은 사무실에서 업무 능률을 위한 사무용책상과 가정에서 주로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생용책상으로 독서실용이나 도서실용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사무용책상은 모듈moudle화된 시스템가구 발전에 중요한 부분이다. 대향식, 배면식, 병렬식, L자형, 링크식, 卍자형, 벤젠식 등의 모듈화는 공간 구조나 크기에 따라 업무 효율을 위한 동선을 고려한 다양한 책상 배치 및 디자인을 창조하는 시스템이다. 사무실의 업무용책상은 개인용 및 회의용으로, 다수가 사용하는 공간에 사무자동화OA기기 배치와 사용을 위한 업무 효율 시스템을 만든다. 그리고 패널 구조의 소재가 다양한 스크린파티션이나 타일식 파티션 등은 사무실에서 원하는 업무나 환경에 따라 책상과 함께 배치한다.

학생용책상은 사무용책상과 거의 구분 없이 사용하였으나 1990년대부터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아동용가구로 분류되면서 본격 양산되어 학생 사용을 목표로 하였다. 이처럼 사무용책상과는 분리되고 당시 보르네오에서 생산된 학생용책상은 아동 연령에 따른 신체 조건에 맞추어 최대 80㎜까지 높이가 조절되도록 개발되었다. 2000년대 이후 학생용가구를 포함한 사무용가구 전문 생산 업체가 증가하면서 멀티탭 등 각종 액세서리가 내장된 책상의 상판 각도를 조절하는 모션책상, 전동식 높낮이 책상, 강의실· 도서실· 실험실 등 교육전문용책상 등이 개발되고 교육 환경 목적에 따라 컨설팅에 의한 맞춤형이 개발되고 있다.

현재 사무용가구 업체에서 생산하는 책상은 주로 높낮이 데스크, 사무용책상, 중역용·임원용책상, 회의 및 강의 시스템 책상, 교실·강의실 책상, 기숙사책상, 도서관책상, 강화유리 등의 유리&가죽디자인책상, 철재디자인책상, 책상보조테이블,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아동용책상, 유아용책상 등으로 분류된다. 책상과 함께 주로 사용되는 품목은 책꽂이, 책장, 파티션, 이동식 서랍장, 옷걸이, 서류함, 모니터받침대, 다양한 거치대, 이동식 칠판 등으로 나타난다.

특징 및 의의 현재 국내 사무용가구는 가구 시장 규모의 24%를 차지하면서, 1위 가정용가구 30%, 2위 부엌가구 27%를 이어 3위에 올라 있다. 국내 책상을 생산하는 리바트, ㈜에넥스, ㈜퍼시스, 일룸, ㈜코아스 등 전문 가구 업체는 각 회사가 추구하는 혁신 공간 창조를 위하여 연구개발R&D센터 등을 두고 사용자의 인간공학·감성공학에 기초해서 그 시대의 첨단 기술과 그 시대를 이끄는 디자인을 적용하는 등 사무용가구에서 핵심 중 핵심인 편리한 책상을 R&D하고 있다.

참고문헌 가구디자인(강신우, 미진사, 2011), 가구사전(문선옥, 경상대학교출판부, 2014), 목가구(국립민속박물관, 2004), 실용가구용어사전(문선옥, 경상대학교출판부, 2014), 한국가구의 역사(조숙경, 미진사, 2019), 한국현대가구사(조숙경, 미진사, 2015).

필자 문선옥(文善玉)



책상 | 에넥스

책장
冊欌

정의 조선시대 왕실에서 제작한 옥책, 죽책, 금책을 함에 넣어 신위를 모신 공간인 혼전이나 종묘 등에 안전하게 봉안하기 위하여 만든 가구.

내용 왕실에서 국왕, 대비, 왕대비, 왕비, 세자 등의 책봉이나 시호·휘호 등을 올릴 때 칭송하는 내용과

업적 등을 옥판이나 죽간·금편에 새겨 기록한 옥책·죽책·금책을 함에 넣어 봉안하고 또 생전의 어책·어필 등도 종묘를 위시한 신위를 모신 공간에 봉안하기 위하여 만든 가구이다.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책장冊欌 관련 기록은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인조 13년 2월 3일) 태묘太廟 숭은전崇恩殿을 봉심奉審하고 온 결과를 보고하는 부묘도감祔廟都監의 계啓에 '우측의 책장에 대여섯 자가 빠졌다.(五六字缺右邊冊欌)'는 내용으로, 책장 표면에 보관된 책의 내용을 표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책장은 1926년에 승하한 순종 대까지 제작되었다. 현재 종묘의 책장들은 고종이 황제가 된 이후 황칠을 하는 등 양식이 바뀌었다.

왕실에서 혼례나 장례 등 큰일이 생기면 일을 치르기 위하여 임시 기구인 도감을 설치하고, 그 과정을 기록한 의궤를 제작한다. 책장은 대부분 소나무 골조에 알갱이는 잣나무로 해서 2~3층으로 만든다. 이때 외형 양식을 동일하게 두 개 만든다. 하나는 책장이고, 다른 하나는 금보·은보·옥보 등 도장을 넣는 보장寶欌이다.

혼전魂殿에서는 책장을 잠시 사용하기 때문에 흑가칠黑假漆을 하였으며, 종묘에 영구히 보관하는 책장은 주칠朱漆을 하였다. 고종이 황제가 된 이후 황칠黃漆을 하여 현재 종묘에는 주칠 책장이 없다. 책장은 보관하는 내용물에 따라 크기와 층수가 달라졌다. 책장 앞면에는 긴 한 쌍의 양선문兩扇門(여다지문)이 달려 있다. 이 양선문은 여러 구획으로 나누어 알갱이를 끼우고 안에는 필요에 따라 시렁(선반)을 매어 문판 구획과 선반 층수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같은 신실에 놓였더라도 책장과 보장의 내면 층수가 다른 경우도 있다.

일반인이 사용한 책장은 조선시대에 서주書廚, 서장書欌이라 하였다. 서주는 나무로 격자를 만들어서 종이를 바르거나 4층 혹은 5층의 시렁(선반)을 원하는 대로 만든다. 매 시렁에는 각각 양선문을 달아 여닫는데 쇄약을 설치한다. 내면에는 다듬은 분전지粉箋紙를 바르고 외면에는 황칠을 하여 칠이 능히 흙벽의 축축한 기운을 멀리하게 한다. 색분전지로 열지어 놓은 책 이름을 문에 붙여 출납에 참고한다. 경서는 심홍전, 예술은 홍전紅箋, 사서史書는 청전靑箋, 지志는 백색, 류서類書는 송황전, 시문집詩文集은 백전白箋으로 한다. 책을 귀히 여기던 조선시대 선비나 사대부들은 귀중본인 경우 오동나무 책갑에 넣어 보관하였다. 책갑 가운데 큰 것은 내면에 2~3칸으로 구획하여 전면에 한짝문[獨扇門]을 내고 문의 중앙에 책명을 각하였다. 한 질이 여러 권으로 구성된 경우 8~9갑에 이를 정도로 수량이 많았다. 이 서주라는 명칭은 조선왕조 몰락 후인 20세기 초반부터 책장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책장은 대체로 2~3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책을 넣기에 편리하도록 머름간·쥐벽간이 생략되거나 작아진 형태로 나타나며, 층마다 두 짝의 문을 달았다. 내면에는 종이를 바르고 외면은 황칠을 하여 습기를 방지하였다. 경우에 따라 여의두문如意頭文, 안상문眼象文이나 시구를 문판에 조각하기도 하였다.

서탁에는 좁고 긴 가판架板에 네 기둥을 받친 3~5층짜리 탁자가 있다. 이것은 막힌 데가 없는 사면 개방의 장탁자로, 여기에 서책을 얹어 둔다. 장탁자에 뒤판을 붙인 것도 있다. 이와 같은 탁자의 한두 층만 걸러서 판벽으로 돌려 막아 격납 공간으로 치장한 탁장이 있다. 이것 역시 서탁·책장 기능을 한다. 이러한 양식의 책장은 일제강점기에 유행하였다. 6·25전쟁 이후 사회가 안정되면서 상하 2단의 원목 책장이 유행하였다. 밑은 여닫이 또는 미닫이로 된 장 위로 하단보다 폭이 좁은 3단의 선반을 달고 유리문을 끼운 중후한 책장이 유행하였다. 주거 형태가 아파트로 바뀌면서 거실에 TV와 책을 함께 꽂아 한 벽면을 채운 벽체형 서가가 설치되었고, 학자의 서재에는 목재로 선반을 이룬 서가가 많이 사용되었다. 요즈음은 철재 앵글에 원목 선반을 얹어 튼튼하고 원하는 대로 높낮이를 자유롭게 조절하는 실용 서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특징 및 의의 책장은 조선시대에 왕실에서 사용한 용어였다. 민간에서는 서주 또는 서장이라 하였다. 왕실 몰락 이후 일반인들 사이에 책장이라는 용어가 쓰이



책장 | 가로106 세로39 높이125 | 조선 후기 | 국립민속박물관

게 되었다. 생활양식이 바뀌어 용도에 따라 요즈음 책장 재료는 나무와 철제 앵글을 함께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참고문헌 承政院日記, 林園經濟志, 定宗大王祔廟都監儀軌, 전통목가구(김삼대자, 대원사, 1997).

필자 김삼대자(金三代子)

처마

정의 서까래가 외벽 밖으로 빠져나온 부분을 통칭하는 명칭.

내용 외벽 밖으로 서까래를 돌출시켜 처마를 깊게 하는 이유는 빗물로부터 외벽을 보호하고 직사광선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그늘을 만들어 주기 위함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나무와 흙을 사용하는 건축에서 처마는 필수 요소이다. 다만 그 처마의 구성과 깊이, 선형과 조형미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한국건축에서 처마는 홑처마와 겹처마 두 종류가 있다. 홑처마는 서까래로만 구성된 처마를 일컫는다. 겹처마는 서까래 끝에 부연이라고 하는 방형 단면의 짧은 서까래를 한 단 더 덧붙인 것을 말한다. 서까래 끝에 부연을 덧달면 처마를 더 많이 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처마를 많이 뺄수록 외벽 보호와 그늘을 만드는 데는 유리하겠지만 구조 문제가 발생한다.

처마가 빠져나온 깊이 이상으로 서까래가 안쪽으로 물려 있어야 처마가 처지지 않고 안전한 구조가 될 수 있다. 또 처마를 만드는 긴서까래[長椽]의 길이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뺄 수도 없다. 이를 약간 보완하는 정도가 부연을 단 겹처마이다. 겹처마는 기능 외에 미학적 측면도 있다. 홑처마는 대개 초가나 기와집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부속건물에 사용되며, 주건물은 겹처마가 일반적 형태이다. 즉 겹처마는 홑처마에 비하여 장식성이 강하고, 권위가 있으며, 화려한 느낌을 준다. 지붕을 바라볼 때도 지붕 면곡이 강하고 처마앙곡을 더욱 강조할 수 있어서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여 준다. 따라서 주전과 큰 건물에서는 겹처마를 선호하였다. 그러나 개인 취향에 따라서는 홑처마도 단순하지만 강직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번다한 장식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형식이다.

처마 깊이는 지역과 건물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다르다. 남쪽으로 갈수록 깊어지는 경향이 있다. 비가 적고 추운 지역에서는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짧게 한다. 시대가 흐를수록 처마 깊이는 깊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구조와 건축 기술이 발달하면서 처마가 깊어졌다고 볼 수 있다. 건물 규모에 따라서는 기둥이 높고 규모가 큰 건물일수록 처마 깊이의 절대 수치는 크지만 비례로는 유사성을 보인다. 현존하는 한국건축물의 처마 깊이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기둥 밑에서 처마 끝을 잇는 가상선을 그릴 때 그 내각이 28~33도로 나타났다. 순천 송광사 국사전의 경우 규모는 작은데 처마내밀기가 41도로 나타나는 등 한국건축물에서는 처마내밀기 비율이 가장 크다. 평균 30도가 일반적으로 기둥이 높으면 처마도 비례해서 함께 빠져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치는 건물 깊이 및 서까래 굵기에 비례한 길이의 한도 등 구조

문제와 태양의 남중고도, 강수량 등 기후가 복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하지 때 태양의 남중고도에 의하여 지면과 이루는 햇빛 각도는 76도이다. 이 정도면 건물 내부는 그늘이 지기 때문에 여름을 시원하게 날 수 있다. 반면 동지 때는 29도를 이루기 때문에 햇빛이 건물 안 깊숙이 들어온다. 처마 내밀기의 절대 길이로 보면 전체 평균은 2*m* 정도 된다. 이 가운데 살림집이 1.3*m*로 가장 짧고 궁궐 건물이 2.5*m* 정도로 가장 길다. 공포 형식별로는 출목이 많은 다포 형식 건물이 2.5*m* 정도로 가장 길다. 다음이 익공 형식, 주심포 형식, 민도리 형식으로 나타났다. 지붕 유형으로는 팔작지붕이 처마 내밀기가 가장 깊었고 우진각지붕이 가장 짧았다. 규모별로는 건물 규모가 크면 내밀기도 당연히 크게 나타났다.

처마 깊이가 구조와 기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처럼 처마 기울기도 마찬가지이다. 처마 기울기는 장연長椽, 즉 처마서까래[檐椽]에 의하여 결정된다. 장연 물매는 건물 규모 및 종류와 관계없이 거의 일정하다. 보통 4치 물매 또는 5치 물매라고 한다. 이는 수평으로 10치를 갈 때 수직으로 4치 또는 5치를 올라가는 비율의 기울기라는 의미이다. 각도로 계산하면 23~26도이다. 단연短椽의 경우는 수평과 수직 비례가 1:1 정도이기 때문에 45도 정도를 이룬다. 이 둘이 결합하여 지붕물매를 만들기 때문에 한국건축물의 지붕물매는 6~7치 물매가 일반 형태이다. 하지만 장연으로만 구성되는 3량가에서는 지붕물매가 장연 물매와 일치하기 때문에 4~5물매로 완만하다. 장연 물매를 지붕물매에 맞추어 급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채광 때문이다. 장연물매를 지붕물매와 같이 6~7물매로 하면 집이 어두워진다. 처마가 깊은 집에서는 채광 때문에 처마 물매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장연과 단연의 기울기 편차에 따른 구조 및 시공상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물매를 달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고 지붕물매를 장연물매와 같이 완만하게 하면 배수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규모가 작은 3량가의 경우 5량가에 비하여 지붕물매가 완만해서 해체하여 보면 서까래가 많이 썩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붕의 빗물은 최대한 빨리 배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서까래에까지 습기가 도달하지 않도록 하고, 혹시 도달하였을 경우는 통풍에 의하여 빨리 건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따라서 처마 물매는 배수, 채광, 구조 등의 문제가 복합 작용하여 결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한국건축물에서 처마 선은 곡선이다. 처마 선은 재료에 따른 지붕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초가지붕의 경우는 위에서 내려다보아 모서리 부분, 즉 추녀 부분을 둥글게 처리한다. 이처럼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곡선으로 처리한 것을 방구매기라 한다. 초가의 추녀와 귀서까래를 짧게 잘라서 처마 기슭을 둥그스름하게 한 것으로, 귀에 오는 이엉을 둥글게 덮는 것이 목적이다. 초가에서 추녀 부분에 각이 지면 방수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와지붕에서는 기와의 방수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방구매기를 할 필요가 없다. 매기라는 의미는 막이의 변음으로, 서까래 및 부재의 끝 등을 가지런히 하는 것을 뜻한다. 방구매기와 달리 일자매기는 서까래 끝을 일직선으로 가지런하게 자르는 것을 뜻한다.

기와지붕은 지붕의 모서리 부분이 바깥을 향하여 곡선을 이루면서 돌출되도록 처리한다. 이를 솟을매기라고 부른다. 기와지붕의 처마는 정면에서 볼 때 양쪽 추녀 쪽으로 갈수록 점차 높아지는 곡선 형태를 띤다. 이것을 조로 또는 앙곡昂曲이라고 일컫는다. 조로란 아래에서 위로 곡선이 져서 휘어 오른 상태를 말한다. 추녀도 여기에 해당한다. 처마를 또 위에서 내려다보면 가운데 부분이 잘록하게 들어간 곡선 형태를 이룬다. 이를 후림 또는 안허리곡이라고 한다. 후림의 원래 뜻은 곡선으로 내밀거나 들어간 상태 모두를 말한다. 한국건축에서 지붕의 후림은 안으로 들어간, 내만한 후림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초가의 경우는 직선 형태여서 오히려 외만한 후림으로 보인다. 한국건축물은 대부분 조로와 후림, 즉 앙곡과 안허리곡이 있으나 일본의 경우 앙곡은 있지만 안허리곡이 없는 경우가 많다. 또 그 선의 모양도 민족마다 차이가 있다. 네팔과 남아시아 지역의 처마는 강수량이 많아


홑처마 | 경북 경주 양동


겹처마 | 경북 안동 하회

처마 | 국립민속박물관

더 깊고 물매도 세지만 앙곡과 안허리곡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처마의 앙곡은 건물 중앙에서 가장 낮고 귀로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추녀에서 가장 높다. 따라서 건물 중앙의 기준서까래와 추녀의 높이차가 전체 처마의 앙곡이 된다. 그런데 이 앙곡도 구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 평연 구간에서는 완만하고 선자연 구간에서는 급격하다. 처마곡의 기준서까래는 건물 정면의 정중앙에 놓인 서까래이다. 이 기준서까래는 휘지 않은 직재를 사용한다. 기준서까래의 코 높이를 '0'으로 하였을 때 평연 제일 마지막 장 코의 높이를 평연의 앙곡이라 한다. 평연의 앙곡은 2치에서 7치로 건물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 중앙의 기준서까래는 휘지 않은 곧은 서까래를 사용하지만 양쪽으로 갈수록 점차 휜 서까래를 걸어서 앙곡을 잡아 나간다. 1961년에 숭례문을 수리하면서 2층 서까래의 경우 좌우로 29개의 평연을 걸고 가운데 3개는 곧은 서까래를 사용하였다. 이를 '정곡正曲'이라고 표현하였다. 3번부터는 조금씩 휜 서까래를 사용하였다. 곡이 2푼이었고, 마지막 29번 서까래는 곡이 7치였다. 21번까지는 완만한 사선으로 올라가다가 22번부터 29번까지 선자연과 만나는 구간에서 급격한 현수선으로 곡을 잡아 나갔다. 이는 선자연에서 곡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완충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된다. 요즘은 서까래를 제재소에서 구입해서 사용하여 운반 등의 이유로 곡선 부재가 반입되지 않기 때문에 평연곡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

중국 청대 건물은 서까래 굵기를 기준으로 앙곡을 설정하였다. 서까래를 5치로 가정한다면 전체 앙곡은 20치 정도로 우리나라보다 크다. 그러나 평연의 앙곡은 없고 모두 선자연 앙곡으로 전체 앙곡을 잡는다. 따라서 처마곡이 유려하지 못하고, 인공미가 강하며, 착시현상에 의하여 평연 구간에서 오히려 위쪽으로 배가 불러 보인다. 한국은 전체 앙곡이 중국보다 작고 평연 구간에서도 앙곡을 주기 때문에 전체 앙곡이 유려하고 탄력 있는 곡선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평연 구간에서도 앙곡이 있어야 위로 휘어 보이지 않고 선자연 구간의 앙곡과 완충 작용하여 무겁고 인공적인 느낌이 아닌 가볍고 부드러운 곡선의 효과가 있다.

처마의 앙곡과 안허리곡은 처마 내밀기에 비하여 기후에 따른 기능성보다 민족과 장인의 조형성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궁궐목수 계보를 잇고 있는 조희환 도편수는 앙곡을 평연 구간은 1~2치로 약하게 하고 선자연 구간은 중도리와 처마도리 간격을 기준으로 한 자에 2.5치로 전체 앙곡을 잡았다. 예를 들어 중도리와 처마도리 간격이 5자라고 한다면 추녀곡은 1.25자가 된다. 이것이 앙곡이다. 안허리곡은 평연 구간에서는 1~2치, 선자연 구간에서는 8~12치로 한다.

또 다른 김창희 도편수의 경우 평연 구간에서는 앙곡과 안허리곡을 주지 않는다. 이는 중국 건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전체 처마곡을 선자연 구간에서 준다는 의미이다. 즉 평연 구간에서는 수평으로 가다가 선자연 구간에서 급격히 들어 올라가는 처마곡을 갖는 것이다. 중국 송대에는 앙곡 관련 규정은 없지만 안허리곡은 건물 칸 수에 따라 4치, 5치, 7치 등으로 규정

하였다. 5칸이 넘는 경우에는 이 비례에 의하여 가감하였다. 청대에는 서까래 직경을 기준으로 앙곡은 직경의 4배, 안허리곡은 3배를 기준으로 하였다. 서까래를 5치로 가정한다면 앙곡은 20치, 안허리곡은 15치라는 의미이다. 안허리곡은 송대 건물에 비하여 청대 건물이 2배 이상 커졌다. 한국에 비하여서도 앙곡과 안허리곡이 조금씩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건물의 앙곡과 안허리곡이 한국 건물에 비하여 크면서도 역동성이 떨어지는 것은 평연 구간이 앙곡 없이 수평으로 가기 때문이다. 또 평연 구간의 직선과 선자연 구간의 급격한 앙곡은 조화롭지 못하고 인공 느낌을 준다. 또 일본 건물은 안허리곡이 없어서 밋밋하다. 이처럼 앙곡은 처마선의 양쪽 끝이 아래로 처져 보이는 착시현상을 교정하는 역할을 하며, 무거운 지붕에 역동성을 주어 가볍게 보이게 한다. 여기에 안허리곡이 더해져서 처마 곡선은 더욱 경쾌해진다.

이와 같은 한국의 처마 곡선을 직접 결정하는 부재는 평고대이다. 평고대는 서까래 끝에 가로로 길게 올라가는 부재이다. 서까래보다 위에 있지만 시공할 때는 평고대를 먼저 걸고 거기에 맞춰 서까래를 걸어 나간다. 겹처마로 부연이 있는 경우 평고대가 부연 끝에도 걸린다. 이를 이매기라고 한다. 평고대를 걸 때는 먼저 앙곡과 안허리곡을 계산하여 건물 중앙에 기준서까래 1~3개와 양쪽 추녀를 건다. 기준서까래와 추녀를 기준점으로 하여 탱기를 틀어 평고대를 휘도록 잡아 걸고, 이를 기준으로 서까래를 걸어 나간다. 이렇게 휜 평고대를 조로평고대라 한다. 이 조로평고대에 의하여 한국건축물의 앙곡과 안허리곡이 만들어진다. 선자연 구간에서는 급격한 앙곡을 만들기 위하여 선자연 아래에 삼각형 부재인 갈모산방을 받치고 선자연을 올려놓는다. 갈모산방을 걸 때는 기문에 따라 기울여서 서까래와 수직으로 거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드물다. 갈모산방은 추녀가 없는 맞배 건물에서 앙곡을 위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맞배 건물의 경우에도 선자연은 없지만 지붕 양쪽이 처져 보이는 착시현상을 교정하기 위하여서는 팔작지붕 평연 정도의 앙곡이 필요하다. 그러나 맞배지붕에서 앙곡은 점차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

참고문헌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김왕직, 동녘, 2007), 지혜로 지은 집 한국건축(김도경, 현암사, 2011), 한국건축사전(장기인, 보성각, 1998).

필자 김왕직(金王稙)

천장
天障

정의 건물 내부에서 지붕 아래쪽을 가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또는 그 형식 자체.

내용 지붕 안쪽의 높은 부분을 가리키는 말로, 건물 상부를 가리지 않더라도 천장天障이라고 한다. 이처럼 상부를 가리지 않고 노출하는 경우를 연등천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본다면 연등천장이 천장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전하여지고 있는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예산 수덕사 대웅전 등 고려시대 건축물은 모두 위를 올려다보면 서까래가 노출되는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다. 서까래 나무와 회벽(또는 황토흙)이 교차하고, 그 아래로 도리·대공·대들보 등 목재의 지붕가구가 노출되는 모습이다. 천장을 가리는 다른 경우와 비교하면 목재 부재와 이를 꾸미는 단청 등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따로 구분하여 이름을 붙이는 것이 어색하지 않다.

천장을 만드는 데 반자를 사용하는 방법이 대표였적이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궁궐건축에서는 반자班子라는 표현이 곧 천장을 의미하였다.

고려시대의 연등천장 불전이 조선시대로 오면서 우물천장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좋은 사례로 개심사 대웅보전이 있다. 우물천장은 불단의 윗부분에만 만들어 불상의 위치를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모습은 점차 건물 내부 전체로 확장되어 간다. 이후의 사찰에서 중요한 불전은 대부분 우물천장인 것을 볼 수 있다.

층단천장은 천장의 높이를 달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우물천장에서 중앙의 반자는 높게 만들고 가장자리는 낮게 만드는 것이다. 보개천장은 궁궐 정전이나 편전에서 어좌 위를 특별하게 공포를 설치하여 다른



보개천장 | 서울 종로구 경복궁 근정전 | 국립민속박물관



우물천장 | 경북 안동 하회 충효당 | 김왕직



연등천장 | 충남 부여 여흥 민씨 가옥 | 김왕직



눈썹천장 | 경북 안동 권성백 고택 | 김왕직

곳보다 높게 만들고, 용이나 봉황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천장을 말한다.

궁의 어좌 또는 사찰의 불단 네 모서리에 기둥을 세우고 위에는 출목이 많은 공포를 설치한 다음 지붕을 이어서 천장 아래에 별도의 실내 구조물을 만든 것이 있다. 이는 닫집 또는 당가唐家라고 한다.

눈썹천장은 팔작지붕에서 외기가 만들어지는 위치를 별도로 우물천장으로 만든 것으로, 그 위치가 눈썹과 같다고 하여 붙인 이름이다. 빗천장은 서까래 경사와 비슷하게 걸쳐서 만든 천장이다. 중앙에 우물천장을 높게 설치하며, 가장자리에는 널을 경사지도록 설치하고, 표면에는 불화를 그려 넣었다. 조선 후기 불전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한편 석조건축에서는 귀접이천장과 빗천장이 주로 확인된다. 귀접이천장은 고구려 벽화고분에서 많이 발견된다. 말각조정이나 투팔천장이라고도 한다. 석실의 모서리에 걸치는 석재를 사용하여 상부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도록 만들고, 마지막에 뚜껑을 덮는 판석으로 마감하는 방식이다. 사라센 건축의 스퀸치와 유사한 형식이다. 실제로 유목민들의 건축문화와 관련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빗천장은 백제의 능산리고분군에서 발견된다. 벽석과 천장의 덮개석 사이를 경사진 석재로 설치하여 연결하고 있다. 이 외에 석굴암은 돔 천장, 무령왕릉은 볼트 천장이라 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지붕 아래 공간에 따로 천장을 만들게 되면 기능상 유리한 점들이 있다. 서까래 사이에 바른 흙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조류나 곤충의 서식지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 실제로 문묘 대성전의 천장은 박쥐가 서식하면서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또한 지붕 바깥의 외부 온도에 대응할 수 있는 단열 효과를 높일 수도 있다.

참고문헌 영건의궤(영건의궤연구회, 동녘, 2010), 한국건축대계5-목조(장기인, 보성각, 1998), 두산백과사전(doopedia.c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류성룡(柳成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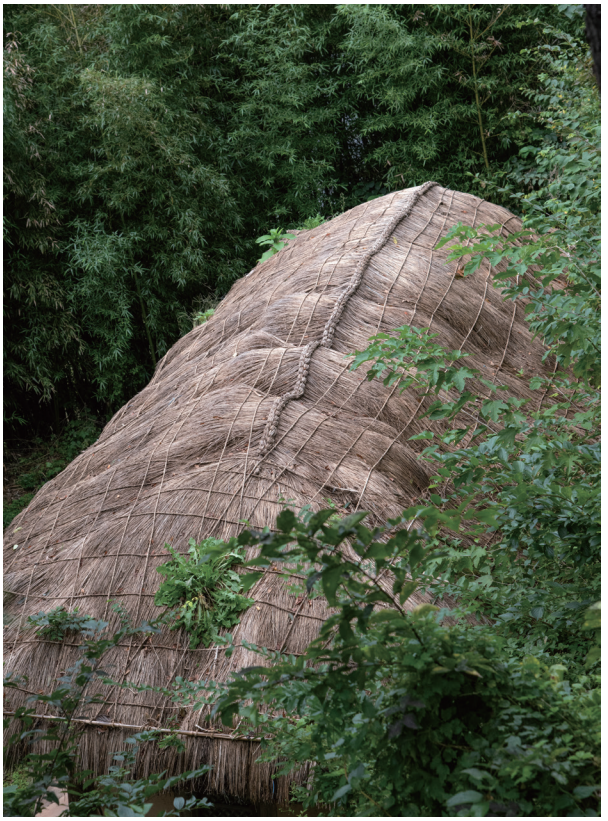
초가집

정의 볏짚이나 억새, 갈대로 지붕을 이은 집을 부르는 명칭.

내용 초가집은 집의 지붕을 볏짚이나 억새, 갈대 등으로 얹은 집을 일컫는 말이다. 일반적으로는 논에서 추수한 볏짚을 지붕의 재료로 사용하지만 그 외에 유사한 것들을 재료로 쓰기도 한다. 예를 들어 벼농사를 짓지 않는 지역에서는 짚을 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경우 대안으로 채택되는 것이 억새나 삼나무 속대 같은 것들이다. 멀리서 보면 짚으로 이은 집과 별다르게 차이가 보이지 않고 식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통칭하여 '초가집'이라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볏짚 이외의 것들로 지붕을 한 집은 별도의 명칭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억새나 갈대를 쓴 집은 '샛집', 삼나무 속대는 '겨릅집' 등이 그것이다.

초가집은 자연에서 바로 재료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적었고 그로 인해 주로 서민들의 주거에 많이 사용되었다. 때에 따라서는 반가에서 안채는 기와집으로 바깥채나 행랑채·부속채는 초가집으로 구성하는 예들도 있다. 초가지붕은 대부분 1년에 한 번씩 새 짚으로 갈아 줘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화재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여러 겹을 올려 단열과 보온에는 뛰어나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초가집을 새로 이는 시기는 한 해의 농사일이 다 끝나는 초겨울이다. 가을에 추수한 벼는 알곡을 털어내고 잘 건조시킨다. 짚에 수분이 남아 있으면 벌레가 생기기 쉽고 그러면 지붕은 쉽게 상해 비바람을 견뎌내지 못한다. 지붕을 새로 이는 것은 각 집마다 가족들끼리 하기보다는 마을에서 품앗이로 이루어진다. 또한 초가지붕에서 용마루에 올리는 '용마름'은 볏짚을 꼼꼼하게 잘 엮어야 하는 작업으로 보통 마을에서 제일 기술이 좋은 사람 한둘이 맡아서 만든다. 지역에 따라 엮는 이엉의 길이, 지붕에 얹는 방향 등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가장 아래에 얹는 이엉은 볏짚의 뿌리 쪽이 밖으로 빠지도록 하는데, 이는 지붕을 다 이고 마지막에 모서리 부분을 정리할 때 더 깔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방에 이엉을 다 돌려 덮고 나면 용마루에 용마름을 얹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초가집의 지붕 모양은 대부분 우진각지붕과 유사하다. 그러나 까치구멍집처럼 특이한 내부 구조인 경우에는 팔작지붕 모양을 하기도 한다. 지붕을 이는 날이 되면 집주인은 함께 수고해 주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해서 고마움을 전한다.



초가의 용마루 | 경북 경주 양동 | 국립민속박물관

기와집과 마찬가지로 초가집 또한 집의 평면 구성은 다양하다. 그래서 실들이 연결되는 방법(홑집, 겹집, ㄱ자집 등)에 관계없이 지붕을 인 재료가 볏짚 등이면 모두 '초가집'이라고 칭한다. 그리고 초가집이라고 해서 작은 규모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붕은 초가집 모양이지만 실의 구성은 반가에 못지않은 크기로 지어진 예들도 있다. 주변에 기와를 굽는 가마가 없거나 매해 초가집 지붕을 새로 이는 것이 힘들지만 이를 해결할 충분한 재력을 갖춘 집의 경우가 그렇다.



초가집 | 전남 순천 낙안읍성 마루방집 | 서헌강

특징 및 의의 한국의 서민주거를 다른 말로 '초가삼간'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방—방—부엌의 세 칸으로 구성되고, 지붕에 볏짚을 인 가옥을 말한다. 근대 모습을 기록한 사진을 보면 1960년대까지 지방은 물론 도시에도 초가집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는 광경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렇게 초가집은 가장 흔한 주거 양식이었으나 1970년대 시작된 새마을운동으로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비를 맞으면 볏짚이 썩기 쉽고 벌레가 생기는 등 생활 환경이 비위생적이고 지붕을 올리는 데 정기적으로 노동력이 많이 소모되었기 때문이다. 초가지붕을 유지하는 데에는 숙련된 기술과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지만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보존하자는 차원에서 민속마을로 지정된 곳에서는 가을이면 초가 지붕을 이는 행사를 진행한다.

참고문헌 서해도서민가 평면형식의 지역적 특성에 관한 연구(박선주,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한국건축대계4-신편 한국건축사전(장기인, 보성각, 1998),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16-주생활(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5).

필자 박선주(朴宣注)

초석
礎石

정의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 밑에 기초로 받쳐 놓은 돌.

개관 초석礎石은 기둥으로부터 전달되는 건물의 무게를 지반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전통건축은 목조건축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초석의 발생은 수혈주거竪穴住居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으며, 초석의 발생과 발달은 건축 구조의 변화·발달 과정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신석기시대 수혈주거지인 평안남도 용강 궁산리弓山里 제4호주거지에서는 지름 20㎝의 기둥구멍 바닥에 납작돌 2~3개를 놓아 기둥을 받쳤다. 이것이 초석의 시원 형태로 여겨진다. 즉 상부 건축물관 지붕이 있는 수혈주거지를 만들어 거주하는 신석기시대 이후부터 초석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 후 이러한 형태의 초석 구조는 청동기시대를 지나 원삼국·삼국·고려·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수혈주거지에 널리 사용되었다. 이와 더불어 청동기시대부터는 수혈주거지 바닥의 기둥자리에 일정한 간격으로 납작한 돌로 초반礎盤을 놓기도 하였는데 점차 기둥구멍 속에 초석을 놓던 것에서 지반이나 주거지 바닥면에 초석을 놓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초석의 실증 자료는 삼국시대 이후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건물지에서 확인된다. 이들은 하나의 초석 위에 하나의 기둥이 놓이는 독립 기초인 것이 특징이다. 고구려의 경우 안악궁이나 중국 지안集安의 국내성·환도산성 내의 건물지에서는 원형 주좌 초석과 방형 주좌 초석이 모두 확인되었으며, 집안 통구通溝에서는 팔각형 초석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백제 역시 자연석 초석과 능산리사지, 관북리 건물지 등에서 원형 주좌柱座 초석과 방형 주좌 초석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건물의 구조와 위상에 따라 초석 형태가 달랐음을 알 수 있다. 한성도읍기의 도성인 풍납토성 건물지에서는 중앙에 원형 구멍이 파인 8각형의 토제주좌가 확인되어 위상이 높은 건물이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신라는 경주 시내를 중심으로 하여 가장 많은 건물지가 발굴되었다. 자연석 초석과 함께 원형 주좌 초석, 방형 주좌 초석, 팔각형 주좌 초석 등 다양한 종류와 크기의 초석이 확인되어 삼국 가운데 가장 다양한 구조의 초석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많은 건축물은 대부분 그랭이질한 자연석 초석을 사용한 경우가 많다. 영주 부석사 무량

수전 초석, 하동 쌍계사雙磎寺 누문 초석, 내소사來蘇寺 대웅전 초석 등 고려~조선시대 사찰건축이나 주거용 건축에 이러한 형태의 초석이 많이 사용되었다.

내용 초석은 크게 돌의 가공 여부에 따라 자연석 초석과 가공석 초석으로 나뉜다. 자연석 초석은 가공하지 않은 자연 상태의 돌을 건물과 기둥의 규모에 맞는 적당한 크기의 돌을 놓아 기둥을 받치는 것으로, '덤벙주초'라고도 한다. 이 자연석 초석은 상면이 울퉁불퉁하나 이를 다듬지 않고 그 위에 놓이는 기둥 밑면을 울퉁불퉁한 초석면에 맞추도록 하였다. 이 작업을 '그랭이질' 또는 '그래질'이라고 한다.

가공석 초석으로는 기둥이 놓이는 자리인 주좌의 가공 형태에 따라 원형초석, 방형초석, 팔각형초석 등이 있다. 초석 높이가 높은 원주형초석圓柱形礎石, 방주형초석方柱形礎石 등도 있다. 삼국~통일신라시대 초석은 대부분 원형초석이나 방형초석이다. 특히 주좌 형태는 그 위에 서게 되는 기둥 모양에 따라 원형, 방형, 팔각형 등으로 다듬는다. 특히 불교가 유행하던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의 궁궐 및 사찰 건축에는 불교 상징 문양인 연꽃 등으로 주좌 주위를 화려하게 장식한 초석이 많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원주형초석이나 방주형초석은 정자, 누각 등에 많이 사용되었다. 정읍 피향정披香亭(보물 제289호)에서는 원주형초석, 경복궁 경회루에서는 방주형초석을 각각 볼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초석이라기보다 돌기둥[石柱]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초석은 시대가 바뀜에 따라 땅속 기둥 구멍에 놓이던 것에서 지면으로, 다시 일정한 높이를 가지며 지상 위로 올라오는 방향으로 변화·발전하였다. 이와 함께 초석의 재질과 형태, 가공 방식, 문양 등도 건물 용도와 기능에 따라 변화·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기둥뿌리의 내구성 유지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즉 땅속의 습기나 지상의 빗물에 노출되어 있는 나무기둥의 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점차 높이를 높이게 되고, 경우에 따라 발해 상경성이나 백제 풍납토성에서 출토된 것과 같은 연유도기 또는 토제의 기둥뿌리 보호 테두리를 끼우기도 하였다.



자연석초석 | 충남 보령 | 1998 | 국립민속박물관



고멕이초석 | 경북 경주 양동 | 국립민속박물관



원형초석 | 주택문화사



활주초석 | 경북 영주 부석사 | 김광현

특징 및 의의 초석은 돌로 된 만큼 그 위에 건립된 목조건축이 자연재해나 화재로 없어졌다 하더라도 초석만은 그 자리에 남게 된다. 따라서 초석의 재질과 형태, 가공 정도, 배치 상태, 초석 간 거리 등을 통하여 당시 건물의 구조·특징·위상·용도·기능을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라의 황룡사지皇龍寺址 목탑지木塔址의 발굴 결과 정면 8줄, 측면 8줄로 정연하게 대형 초석이 놓여 있다. 이를 통하여 황룡사 9층목탑이 정면 7칸, 측면 7칸 구조로 된 정방형 평면 탑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초석 사이 거리 측정을 통하여 당시 적용된 도량형도 파악할 수 있다. 현재의 척尺으로 측정하고 측정된 수치들이 정수로 되는 수치를 찾으면 당시의 사용 척도가 현재의 척도와 얼마의 차이가 있는지와 어떤 척도의 도량형이 적용되어 건축이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초석을 기단 위에 놓을 때는 놓는 자리 아래에 적심積心을 만들어 기초를 튼튼히 하고, 적심 위에 초석을 놓음으로써 보다 초석이 더 오랫동안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적심은 지반이나 기단에 원형 또는 방형으로 깊은 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 크고 작은 막돌, 천석을 다지면서 채워 넣어 만든다. 대부분의 경우 적심 위에 놓인 초석은 유실되거나 이동한 경우가 많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적심의 중심 위치를 찾아 다른 적심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본래 건물의 구조와 특징을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초석과 그 하부 시설인 적심은 본래의 목적이 건축과 관련된 구조역학 요소이지만 없어진 건물을 추정·복원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됨과 동시에 의장 면에서 건물의 형태와 구조, 성격과 위상 파악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초석은 대체로 기둥과 함께 천원지방天圓地方 사상이 반영되어 원형 기둥과 원형 주좌로 된 초석이 방형 기둥과 방형 주좌로 된 초석에 비하여 위상이 높다. 부처가 봉안된 사찰의 대웅전, 유교 제사 건물, 왕이나 황제가 기거하는 궁궐 건물 등의 초석은 원형 주좌 초석에 원형 기둥으로 된 건물로서 방형 주좌 초석에 방형 기둥으로 된 건물에 비하여 현격한 위상차를 보인다.

한편 초석과 적심을 설치할 때 이와 관련된 건축의례도 행하여진다. 원형 적심 속에 제의에 사용된 토기 등을 파손하여 매납한다든지 초석 옆에 별도의 작은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제의 음식물이나 벼·보리 등 곡물을 담은 단지를 매납하는 등의 의례 흔적이 삼국시대 이후 많은 건물지 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의례에는 기둥과 초석이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건축 구성 요소인 만큼 무엇보다 초석이나 기둥의 영구 안정과 나아가 건물의 안정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건축 의장(주남철, 일지사, 1979), 한국고건축단장-하(김동현, 통문관, 1977), 한국건축미(주남철, 일지사, 1983).

필자 김길식(金吉植)

추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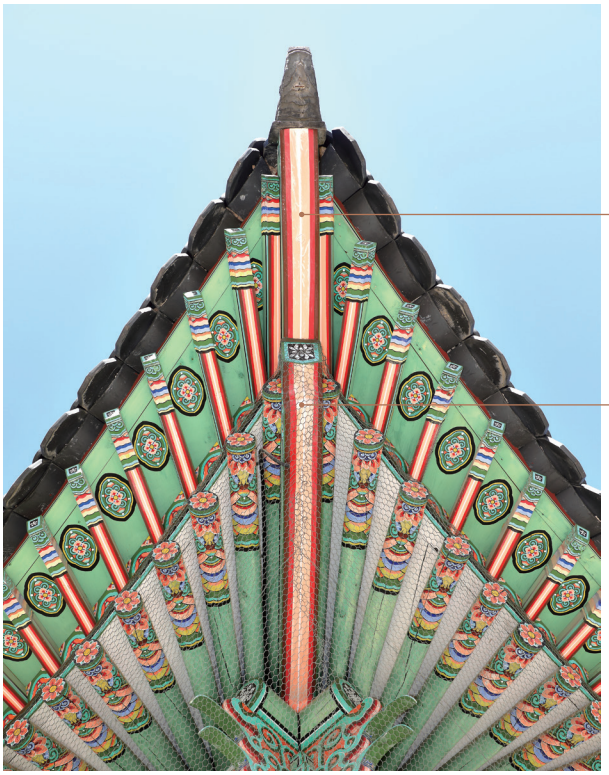
정의 지붕면이 서로 만나는 모서리에서 45도 방향으로 걸리는 방형 단면의 지붕 부재.

내용 추녀는 차음하여 춘설春舌이라고 쓰며, 지붕 모서리에 거는 굵은 방형 서까래의 일종이다. 한국건축물의 처마는 모서리에서 하중 부담이 가장 크기 때문에 평연으로 처리하기는 불가해서 단면이 큰 추녀라는 부재를 사용한다. 지붕 형식에서 맞배지붕에는 추녀가 없고 나머지 팔작지붕, 우진각지붕, 모임지붕에는 추녀가 있다. 지붕 공사에서는 추녀를 가장 먼저 걸고 다음으로 중앙의 기준서까래와 연결하여 평고대를 건다. 그리고 평고대에 맞추어 서까래를 걸어 완성한다. 따라서 추녀는 평고대와 함께 지붕의 처마선을 만드는 중요한 부재이다. 기와지붕은 대개 안허리곡과 앙곡이 있기 때문에 추녀는 처마보다 1~1.5자(30~45㎝) 더 내민다. 또 45도로 걸리기 때문에 장연길이보다 약 2배 더 길고 단면이 크며 곡이 있는 부재를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들보 이상으로 구하기 어려운 부재이다. 추녀곡은 추녀의 들림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추녀의 뒤초리가 앉는 중도리에서 추녀가

처마 밖으로 내민 상단점을 직선으로 연결하였을 때 중간 처마도리와 수직으로 이격된 간격을 말한다. 앙곡은 목수나 건물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보통 처마도리와 중도리 간격의 1/4 정도로 하기 때문에 툇간이 5자 건물이라면 앙곡은 1.25자가 된다. 즉 처마곡이 1.25자(약 38㎝) 정도이고, 그 정도로 휜 부재를 구해야 한다.

추녀의 단면은 방형이지만 폭에 비하여 높이가 높은 장방형이고, 둔탁한 느낌이 없도록 역사다리꼴 형태로 다듬는다. 또 처마로 빠져나온 부분에서는 끝으로 갈수록 밑면을 깎아 높이를 줄여서 마치 한복의 소매와 같은 모양으로 다듬는다. 이를 소매걷이라고 한다. 소매걷이는 한국건축물에서 볼 수 있는 고유한 특징이다. 매우 한국풍의 선을 사용한 것으로, 추녀가 경쾌하고 역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또 추녀 끝부분은 골뱅이처럼 조각해서 깎아 준다. 이를 게눈각이라고 한다. 장식의 일종이지만 추녀의 부피를 줄여서 역시 추녀가 무겁지 않고 역동적으로 보이게 한다. 한국건축물 전반에 나타난 조형 원리가 비대칭과 역동성인 것에 준하여 추녀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

겹처마인 경우에는 부연 위치에 추녀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부재가 추녀 위에 올라간다. 이를 사래라고 한다. 사래는 추녀와 모양이 같으며, 부연과 같이 뒤초리를 삼각형으로 다듬어서 추녀 위에 올린다. 소매걷이와 게눈각 조각 등 치목 기법은 추녀와 같다. 사례는 드물지만 추녀 밑에 받침추녀를 하나 더 두는 경우가 있다. 이를 알추녀라고 한다. 알추녀가 있으면 추녀를 사래처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곡이 충분하지 못한 부재를 구하였을 때 알추녀를 사용하면 곡을 잡기가 유리해진다. 또 곱은자집은 회첨 부분이 생기며, 회첨 아래에 거는 추녀를 회첨추녀라고 한다. 회첨추녀가 없는 건물에서는 좌우 서까래가 서로 직각으로 교차하여 만난다. 회첨은 배수에 가장 취약한 곳이어서 별도로 기와골을 만들어 처리한다. 회첨골 끝에는 회첨을 받기 위하여 평고대, 연함, 개판을 삼각형 모양으로 구성한다. 이를 고삽이라 한다.



추녀와 사래 | 서울 종로구 경복궁 | 국립민속박물관



회첨추녀와 고삽 | 경북 경주 양동 | 국립민속박물관



강다리 | 경기 안성 청룡사 대웅전 | 2003 | 김왕직

특징 및 의의 추녀는 안으로 물린 길이보다 처마 밖으로 빠져나온 길이가 길고 하중이 가장 과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녀가 처지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추녀 끝을 받치는 추녀 전용 받침 기둥인 활주를 세우는 경우가 많다. 활주는 가능하면 눈에 띄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최소 단면으로 만들며, 하부는 기단 모서리에 놓여 사선으로 세워진다. 활주가 있어도 추녀 하중이 과다할 때는 활주가 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한국건축물에서 구조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추녀이다. 그래서 추녀 뒤초리를 눌러 주기 위하여 여러 방안을 강구하였다. 지붕 전후좌우에 길게 큰 멍에목을 올려 지붕 하중에 의하여 추녀를 눌러 주거나 추녀 뒤초리에 무거운 돌을 올려 직접 눌러 주기도 하였다. 돌을 올린 사례는 창경궁의 여러 건물에서 볼 수 있지만 건물이 노후화되면 낙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 또 추녀 뒤초리에 철띠를 감거나 강다리를 사용하여 기둥에 고정시켜서 잡아 주기도 하였다. 강다리는 추녀에 구멍을 뚫어 쐐기목을 아래까지 내린 다음 외기도리에 멍에목으로 걸고 기둥에 고정시키는 고정장치를 말한다. 이렇게 여러 고정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추녀의 들림을 잡아 주는 것이 어려웠음을 반증한다.

참고문헌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김왕직, 동녘, 2007), 지혜로 지은 집 한국건축(김도경, 현암사, 2011), 한국건축사전(장기인, 보성각, 1998), 한옥 짓는 법(김종남, 돌베개, 2013).

필자 김왕직(金王稙)

침대
寢臺

정의 누워서 잠을 잘 수 있도록 네 개의 다리와 함께 표면이 수평으로 평편하게 만들어진 가구.

개관 한국 전통 침실은 온돌 바닥에 침구를 깔고 생활하는 평좌식이지만 1950년대 이후 전통 한식의 개량주택을 비롯하여 아파트 등 주택 구조 변화에 의한 입식생활문화 영향을 받아 침대寢臺는 혼수용 가구 가운데 주요 구입 품목이 되었다. 침대 사용이 확산되면서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용자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국내 침대 시장 규모도 커져 가고 있으며, 침대 매트리스 수입과 침대 전문 업체에 의한 친환경 웰빙 온돌 침대 등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내용 근원을 살펴보면 침대는 원래 가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잠잘 때 까는 천 등의 재료를 말하는 것이었다. 오늘날과 같은 의미의 가구형 침대를 가리키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이후부터로, 이때부터 침대란 침대의 틀과 매트리스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 용어가 되었다. 오늘날 국내에서 침대는 잠잘 때 일반 가정에서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하는 가정용 가구의 하나이다. 침대는 크기에 따라 한 사람이 사용하는 싱글침대 및 슈퍼싱글과 두 사람이 사용하는 더블침대로 나뉘고, 더블침대는 다시 크기에 따라 퀸사이즈와 킹사이즈로 나뉘고 더 큰 것으로는 슈퍼킹사이즈 침대도 있다. 또 사용하는 사람 나이에 따라 크게 유아용, 학생용, 성인용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 밖에도 요새는 1인 가구나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작은 공간에서 일을 하는 소호족 small-office-home-office에게 편리한, 소파 기능을 하면서 침대로 사용할 수 있는 소파형 침대가 널리 사랑받고 있다. 이러한 침대는 모듈module화된 가구로 접거나 펼치면서 다양한 크기 및 형태를 창조, 좁은 공간에서 활용을 효율화할 수 있다.

침대 구조는 기능에 따라 다르지만 원래 네 개의 다리와 결합된 사각의 틀이나 수평의 받침대 위에 매트리스를 놓고, 그 위에 시트 및 침구류를 놓는다. 침대는 매트리스, 프레임, 머리판, 발판, 측판, 바닥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트리스 종류는 크게 스프링 매트리스와 라텍스 매트리스 두 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수입 가구의 영향으로 라텍스 매트리스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오랜 시간을 누워서 사용해야 하는 침대의 성격상 고급스러움이나 안락함을 결정하는 요소는 매트리스의 강도와 탄력 정도이다. 라텍스는 신축

성과 탄력성이 좋고 복원력이 탁월하여 최고급 매트리스 소재로 분류된다.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침대는 웰빙 및 힐링 시대에 따른 돌침대, 대나무 숯 침대, 황토 흙침대 등 건강 침대가 있다. 이러한 침대는 온돌침대로, 우리나라 전통 온돌 양식을 입식 침대에 적용시켜 현대화한 성공 사례에 속한다. 온돌침대는 어느 계절이나 날씨 변화에 따라 개별 사용을 하기에 편하고, 여성과 노년층에서 급격한 사용 증가를 보이고 있다. 다양한 돌, 황토 및 흙으로 개발된 온돌침대 겸용 소파는 이동이 쉽고 활용성이 높아서 특히 여성층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침대는 우리나라 전통 온돌문화에서 사용한, 잠잘 때 요를 깔고 베개를 놓고 이불을 펼쳐 덮고 아침에 개어 장 속에 넣어 두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가구이다. 침대는 대체로 요, 베개, 이불이 항상 놓여 있기 때문에 요를 깔고 갤 필요 없이 정리 정돈으로 마무리가 된다. 침대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바쁜 아침에 시간을 단축시키고, 누웠다 일어나는 데 더 편리하다. 특히 노인들은 허리나 다리를 굽히면서 일어나는 데 무리하지 않아서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준다.

참고문헌 1인 가구를 위한 소파 베드개발에 관한 연구(김상권, 한국가구학회지27-4, 한국가구학회, 2016), 가구디자인(강신우, 미진사, 2011), 가구사전(문선옥, 경상대학교출판부, 2014), 건축·인테리어 용어사전(허동국, 건축세계, 2001), 실용가구용어사전(문선옥, 경상대학교출판부, 2014).

필자 문선옥(文善玉)

침방
寢房

정의 바깥주인이 잠자는 곳으로 쓰이는 방.

개관 우리나라 양반가는 안채와 사랑채를 별동別棟으로 배치하는 까닭에 부부는 식사도 따로 하고 침방寢房도 달리하였다. 1403년(태종 3) 5월에 부부별침夫婦別寢의 영令이 내리자 사랑채에 침방을 두게 되었고, 서민층은 사랑방에서 취침하였다.

내용 침방은 사랑채에서 사랑방과 인접한 방으로, 바깥주인의 취침 공간이다. 1403년(태종 3) 5월 부부별침의 영을 내려 남편과 아내가 동침할 때를 제외한 평상시에는 부부가 방을 따로 쓰도록 하였다. 서민들의 살림집인 민가와 중류주택에서는 사랑방이 침방을 겸하지만 사대부가와 같은 상류주택에서는 사랑방을 침방과 분리하여 접객 공간으로 사용하였다.

침방의 규모는 대부분 한 칸으로, 바닥은 온돌로 하는 한편 천장은 지반자로 구성하였다. 침방은 사랑방에 인접하지만 후면이나 측면에 구성되어 외부 사람에게는 잘 인식되지 않으면서 안채와는 왕래가 편리한 곳이었다. 침방은 벽장을 등진 한쪽에 각게수리를 놓아 중요한 물품을 보관하고 보료를 깐다. 장침과 사방침을 놓는 것은 사랑방과 같다. 여름에는 살평상을 비치한다. 죽부인·요강·타구 등을 갖추고 남자용 의걸이를 두어 의관을 걸어 두며, 관모상자·망건꽂이 등을 놓는다. 침방은 가장 사사로운 공간으로, 외부에서 바로 출입하기보다는 사랑방을 거쳐 들어가도록 하였다. 손님이 갑자기 방문하더라도 침방에서 몸가짐을 챙길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상류주택 사랑채의 침방은 기능이 고정되었다기보다 탄력성 있게 활용되었다. 평상시에는 바깥주인의 침방으로 사용되지만 남자 가족이 많은 경우 상노인이 거주하거나 자제들이 생활하였고, 때로는 빈소가 차려지는 의례 공간으로 전용되었다.

특징 및 의의 사랑채 내 침방은 창덕궁昌德宮 연경당演慶堂, 운현궁雲峴宮, 관훈동민씨가옥寬勳洞閔氏家屋家屋, 김씨가金氏家 등의 서울과 영남지역에서 많이 보이는 사대부가의 특성이다. 침방은 사랑방 근처에 구성되고, 외부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곳이다. 주택 형태에 따라 경상북도 안동 하회 양진당養眞堂에는 사랑채의 침방에서 안채로 연결되는 비밀 통로가 있고, 경주 교동의 주택에는 사랑방에 거주하는 아들이 안채의 건넌방으로 출입할 수 있는 별도의 문을 만들어 놓았다.

참고문헌 한국건축대계4-한국건축사전(장기인, 보성문화사, 1985), 한국의 사랑채(윤일이, 산지니, 2010), 문화콘텐츠닷컴(culturecontent.com).

필자 윤일이(尹一二)

침실
寢室

정의 잠을 자는 사적 공간.

개관 침실寢室은 '실室'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공간의 기능을 나타낸다. 또한 침실은 공적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실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집 안에서 사적인 성격을 갖는 장소이다. 전통 주거공간에서는 온전히 잠만 자는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고, 실室이 아닌 방房에서 취침·식사·교류 등 다양한 행위가 다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상류주택의 경우에만 종종 침방寢房이라 하여 취침의 기능을 분리한 구성을 볼 수 있었다. 오늘날의 침실은 입식 가구인 침대가 배치되어 잠자는 공간으로 확실하게 규정된다.

내용 한국 주거 공간에서 침실의 시작은 전통주택의 '방'이 띠는 다기능이라는 특성이 사라지면서부터다. 가장 먼저 방에서 식食과 침寢으로 분리되면서 주거 공간의 기능 분화가 진행되었다. 재래식 공간 사용 방식에서 오는 비위생성과 비합리성은 일제강점기부터 개선 대상이 되었고, 지속해서 계몽되었다. 1950년대 후반 및 1960년대 초반에 관官 주도의 공영주택에서는 침실이라는 '실' 명칭을 최초로 사용함으로써 주거문화 변화의 선도 역할을 하였다. 아파트의 경우도 최초의 아파트인 1962년 '마포아파트'에서부터 '침실'이 있었다.

이와 달리 보수성이 강한 민간주택에서는 1980년대에 이르러 '침실' 명칭이 등장하였다. 이 시기에 생활공간의 기능 분화는 가구 사용 및 기거 양식 변화와 함께 진행되었다. 즉 식탁 및 침대 도입으로 식사 공간 및 침실 기능이 확실하게 분리·규정되었다. '서구식 주생활'이 추구하는 생활의 합리성·능률성·편리성이 입식 가구를 통하여 진행되었다. 침대는 1970년대부터 중·상류층을 중심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침실에서 입식 가구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바닥 마감재도 장판이 아니라 합성수지, 온돌마루 등 거실과 동일한 재료가 사용되었다.

'부부침실'이라는 명칭은 1970년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한 한강맨션아파트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다. 특히 한 주택 내 여러 침실 가운데에서 '부부침실'은 가장 사사로운 공간으로, 근대 이후 부부가 한 공간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생겨났다. 전통주택에서 서로 분리된 여성과 남성의 공간인 안방과 사랑방이 하나로 통합된 것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 가족의 탄생과 함께 등장한 것이다. 부부침실이 등장한 초창기에는 생활공간으로서의 안방과 사생활 공간으로서의 부부침실이 공존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또한 침대가 있는 부부침실이 가족 교류의 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안방의 교류, 접대, 단란 기능이 점차 거실로 옮겨간 이후 안방은 온전히 부부만의 사생활 공간으로 정착되었다. 현대 한국의 주거 공간에서 안방은 상징적 의미로만 남아 있으며, 그 기능은 전통 안방과는 완전히 다르다.

주거 수준 향상 및 주거 공간 규모의 증대와 함께 주택의 침실 개수도 증가해 왔다. 우선 부모와 자녀의 공간을 분리하고, 자녀의 공간을 성별性別로 분리하였다. 그리고 자녀가 각자 한 명씩 독립된 방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착되어 갔다. 이로써 주거 공간 내 과밀과 사생활 침해 문제가 해소되었다. 이와 함께 공간의 개인화 현상도 가속화되었다.



침실 | 주택문화사

특징 및 의의 가정 내 공동 영역과 개별 영역의 구분은 각 공간의 기능을 정해 주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개인 침실이라는 사생활 공간은 주거 공간의 기능 분화가 진행된 대표 사례이다. 침실은 1980년대 이후 더욱 개인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주거 공간 면적이 계속 넓어지고 가정당 자녀 수가 점점 줄면서 자녀가 공간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가 점차 감소하게 되었다. 좌식 침구인 요를 사용하는 대신 입식 가구인 침대를 사용하면 침실을 여러 명이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침실은 침대가 배치된 '기능이 분화된 공간', 각각 따로따로 사용하는 '개인 공간'이라는 점에서 방과 크게 다르다. 개인화된 근대 사회에서 가족 구성원의 생활이 점점 독립 형태로 변화되고, 이에 따라 공간이 재편성된 대표 사례가 침실이다.

참고문헌 집-집의 공간과 풍경은 어떻게 달라져 왔을까(전남일, 돌베개, 2016), 한국 주거의 공간사(전남일, 돌베개, 2009), 한국 주거의 미시사(양세화·전남일·홍형옥, 돌베개, 2009).

필자 전남일(田南一)

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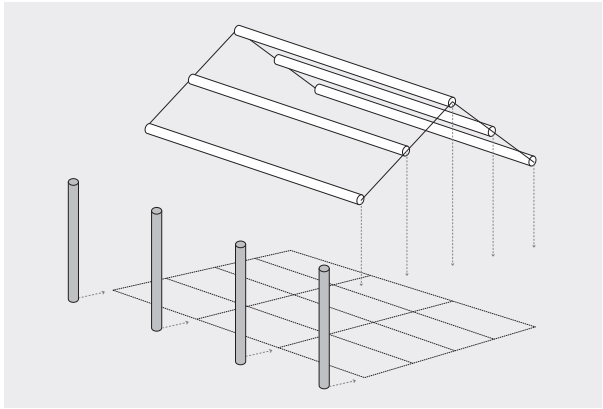
정의 동아시아 건축물에서 기둥 사이의 네모난 공간을 가리키는 단위.

개관 칸은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건축물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공간 단위로, 건축물을 바라볼 때 두 기둥을 옆면으로 하는 사각형 또는 바닥에서 네 기둥을 잇는 선이 이루는 사각형을 가리킨다. 이를 공통으로 '간間'이라는 한자로 표기하지만 나라마다 발음이 조금씩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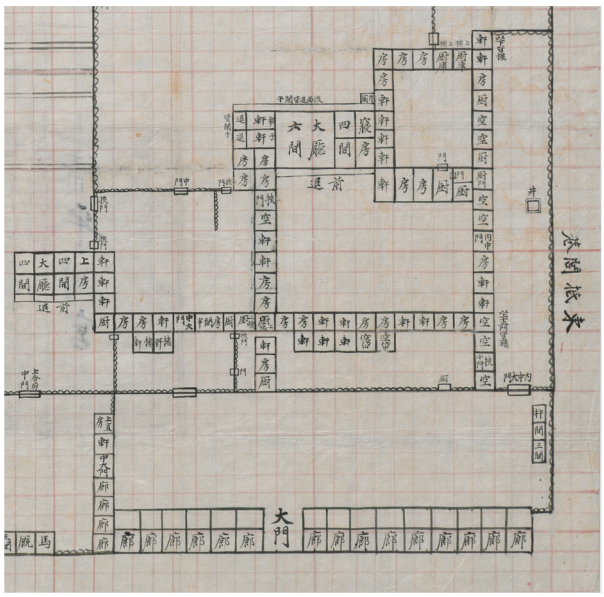
칸 개념은 중국 당대唐代에 신분에 따라 주택 규모를 제한하기 위한 법령이 제정되면서 확산되었다. 8세기의 법전인 『당육전唐六典』에서는 주택 대문의 크기를 신분에 따라 정하였다. 5품 이상은 세 칸, 6품 이하는 한 칸의 크기를 지켜야 하였다. 9세기의 법전인 『당회요唐會要』에서는 주택 본채의 칸수도 정하였다. 5품 이상의 주택은 다섯 칸을 초과할 수 없고, 6품 이하의 주택은 세 칸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다. 그러나 당나라의 율령律令을 도입한 한국과 일본에서는 칸 개념이 곧바로 통용되지 않았다. 『삼국사기三國史記』「옥사屋舍」의 내용은 9세기에 개정된 통일신라 시대의 건축법령이다. 이에 따르면 신분에 따른 주택 규모를 진골眞骨 24척尺, 육두품 21척, 오두품 18척 등 치수로 규정하였다. 즉 체제와 내용을 당나라의 율령에서 가져왔지만 칸 개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는 칸이 당시 막 나온 개념이어서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칸 개념이 없던 고대사회에서는 건축물의 규모가 기록되기 어려웠다. 장丈과 척尺으로 측정되어야 하는 절대 치수는 자가 없으면 알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관찰자의 눈으로 건축물 규모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三國遺事』 기록에서 건축물 크기를 묘사한 문장은 극히 드물다. 백제 임류각臨流閣의 높이가 5장이라거나 신라 황룡사탑皇龍寺塔의 높이가 22장이라거나 문무왕의 창고가 50보步에 이른다는 기록 정도가 남아 있다. 이에 비하여 칸 개념이 확립된 고려 후기의 문헌에서는 훨씬 정확하고 자세하게 건축 관련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목은牧隱 이색李穡(1328~1396)의 『천보산회암사수조기天寶山檜巖寺修造記』에서는 "내가 보기에 보광전은 다섯 칸으로 남쪽을 향해 있다. 보광전의 뒤는 설법전으로 다섯 칸이며, 또 그 뒤로 사리전 한 칸이 있다. 다시 그 뒤로 정청 세 칸이 있는데, 정청의 동서에는 방장이 두 곳 있어서 각각 세 칸씩이다. 동쪽 방장의 동쪽에는 나한전 세 칸이 있고, 서쪽 방장의 서쪽에는 장전 세 칸이 있다."라고 하여 회암사의 건축 상황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회암사 규모를 설명하는 데 칸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칸은 보통 좌우로 배열된다. 각 칸은 동일한 목구조 형식을 띠지만 바닥과 천장의 구성을 통하여 용도가 결정된다. 우물마루를 깔고 천장을 가설하지 않는



칸의 개념 | 이강민



간가도 | 청평위궁평면도 중 부분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곳은 대청이 되고, 온돌을 깔고 천장을 가설하여 도배를 한 곳은 방이 되며, 흙바닥에 다락이 있으면 부엌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칸 자체에는 특정한 기능이 할당되어 있지 않지만 칸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조합을 통하여 용도가 생겨난다. 즉 칸은 공간 용도에 선행하는 건축 틀이라 할 수 있다.

내용 칸의 건축 용례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건물의 정면에서 기둥과 기둥 사이의 공간을 세는 단위이다. 이는 칸의 가장 오래된 용례로, 누구나 건축물을 직관으로 이해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개념이다. 칸수는 눈에 보이는 기둥의 개수에서 하나를 뺀 수이므로 기둥을 세는 것으로 건물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문헌에서는 기둥을 의미하는 '영楹' 자를 써서 칸을 표현한 사례도 있다. 그런데 건물 규모가 앞뒤로 커질 경우에는 건축물의 옆면에서도 칸수를 셀 필요가 생긴다. 이 경우 정면 몇 칸, 측면 몇 칸과 같은 방식으로 각각 규모를 표현한다.

건물 규모가 커져서 실내공간에 기둥이 있을 때 열을 맞추어 배열된 기둥을 꼭짓점으로 삼는 가상의 사각형이 바닥에 그려진다. 이것이 칸의 두 번째 용례가 된다. 바닥 면적을 세는 단위로서 칸은 주로 생활공간의 크기 표현으로 쓰였다. 어느 집의 안방이 네 칸이라거나 육간대청六間大廳이 있다는 등의 이야기는 정면 칸수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실내 바닥 크기를 묘사한 것이다. 다만 건축물의 실내에는 공간을 넓게 사용하기 위하여 기둥이 한두 개 생략된 경우도 많다. 이 경우에는 기둥이 마땅히 있어야 하는 자리를 상정해서 칸수를 센다. 천장을 바라볼 때 목구조가 교차하는 지점이 대개 기둥이 있어야 하는 자리이며, 주변의 다른 기둥들의 상황을 보면 쉽게 그 자리를 찾을 수 있다.

칸의 마지막 용례는 척으로 환산되는 절대 치수에 대응하는 길이 단위이다. 한 칸의 크기가 굳어지는 현상은 일본 건축사에서 두드러진다. 주택에 다다미[疊]를 까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다다미의 규격에 기둥 간격이 맞추어졌기 때문이다. 16세기 말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의 정책에 따라 표준화되기 시작한 칸 치수는 메이지明治 시대에 6척을 1간, 사방 1간을 1평坪으로 하는 단위로 통일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칸의 치수가 명확하게 규정된 근거를 찾기 어렵다. 다만 조선 후기 건축도면의 상당수가 8척 크기의 방안方案 위에 그려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 칸을 8척으로 하는 표준척도가 통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칸은 건축물의 정면과 평면, 길이 단위로 동시에 사용되는 특징을 보인다. 그럼에도 일상생활에서 큰 혼란 없이 익숙하게 사용될 수 있는 까닭은 건축물을 보고 간단하게 사각형을 유추해 내는 능력만 있으면 누구라도 파악할 수 있는 쉬운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칸 개념은 동아시아 사회 전체로 전파되었으며, 칸을 제외하고 건축

물의 규모와 형태를 설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만큼 기본 개념으로 자리잡았다. 나아가 칸은 특정한 뉘앙스를 띠는 장소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주요 생활공간에는 '방房'이나 '청廳' 등의 접미사가 붙었지만 그보다 못한 공간에서는 단순히 '간間'을 붙이는 것으로 공간의 낮은 위계를 표시하였다. '외양간', '마구간', '뒷간' 등은 주택에서 규모가 작고 온전하게 치장을 하지 않는 격식이 낮은 공간들이다. 이와 같은 용법은 주택의 범위를 벗어나 '방앗간', '대장간', '푸줏간' 등으로 확산되었다. 접미사 '간'이 대체로 열등한 장소를 나타내는 말과 결합하는 특징을 보인다.

칸은 건축 단위이기 때문에 일정한 크기와 똑같은 형태를 띨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동아시아 건축의 특성상 한 건축물에서 칸의 형태와 크기는 매우 다양하다. 불전이나 궁전 등 권위적인 건축에서는 중심을 강조하기 위하여 정면 가운데 칸의 규모를 키우며 이 칸을 한자로 '정간正間' 또는 '어간御間'이라 한다. 그 옆은 폭을 차츰 줄여 가며 '차간次間', '협간夾間', '초간梢間' 등을 구성한다. 주택건축의 경우에도 해당 칸의 용도에 따라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기 때문에 모든 칸이 일괄적이라고 할 수 없다. 건축물을 측면에서 보면 칸의 비균질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모든 건축물은 경사 지붕을 얹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안쪽 공간은 천장이 높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천장이 낮아진다. 그러므로 천장이 높은 칸은 중요한 공간으로 넓게 쓰였고 천장이 낮은 가장자리 칸은 규모를 줄여 보조 공간으로 쓰였다. 이러한 가장자리 칸을 '툇간'이라고 한다. 툇간에는 마루를 깔아 신을 벗고 드나드는 교통 공간으로 쓰거나 벽장을 들여서 수납공간으로 활용하곤 하였다. 툇간의 폭은 온칸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처럼 건축물의 기능과 구조를 고려하여 칸의 크기와 위치를 결정하는 작업을 '칸살잡기'라고 한다. 칸살잡기는 안방, 대청, 부엌 등을 각각 몇 칸으로 할 것인가와 동시에 한 칸을 몇 척으로 정할지를 고려해야 하는 작업이다. 칸살잡기 결과물은 간단한 도면으로 제시된다. 건축물을 이루는 크고 작은 사각형의 칸들을 배치하고 그 안에 용도를 기재하며, 담장과 대문 등 외부 공간까지 표현하게 된다. 이와 같은 도면을 '간가도間架圖'라고 하였다. 간가도를 그릴 때는 미리 붉은색이나 연한 먹색으로 바둑판 모양의 방안을 그린 다음 그 선에 맞추어 칸을 표시한다. 이때 방안 한 칸의 간격은 8척인 경우가 보통이다. 간가도를 통하여 건물의 규모와 배치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공간의 칸수를 쉽게 파악하고 서로 비교할 수 있다.

조선 후기가 되면 상류주택의 규모가 커지면서 안채와 사랑채에서 칸의 일부가 두 줄 이상 겹쳐지는 사례가 증가한다. 이런 집을 칸이 한 줄로 길게 배열되는 '홑집'과 구분해서 '겹집'이라고 한다. 겹집은 영동 산간지역 등에서 혹독한 기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어졌지만 실내 공간 효율화, 구조 기술 발전, 새로운 사회질서 출현 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가속화되어 20세기 초 호남지방의 한옥에서 절정에 달하였다. 겹집에서는 칸의 구성을 직관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며, 칸을 구성하는 목구조와 공간 용도가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중첩된다.

특징 및 의의 칸은 동아시아 건축을 이루는 단위 요소로, 건축물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초 개념이다.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칸 개념이 서로 통하는 지역은 기둥을 세우고 두꺼운 보와 도리를 올려 경사지붕을 구성하는 목구조의 동질성을 확보하였다. 이들 지역은 유교, 불교, 한자 문화 등의 영향 아래 동아시아 문명권을 형성하였다. 칸을 단위로 하여 건축을 이해하는 방식은 동아시아 건축의 공통 기반을 형성한다.

칸이 모여 용도를 갖는 공간을 형성하고 이 공간들이 긴밀하게 결합되어 건축물을 이루는 방식은 건축 사고 합리화 과정을 대표한다. 칸 개념이 없는 경우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물의 외곽을 먼저 결정한 다음 실내를 적절한 세부로 나누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와 달리 칸 개념이 확립된 이후의 계획은 한 칸의 크기를 먼저 정하고 그것의 집합으로서 방과 건축물을 구상해 내는 절차로 진행된다. 칸이 건축물을 구성하는 원리는 건축물과 마당이 전체 건축군을 형성하는 원리와 상통하고, 나아가 건축이 자연과 맺는 관계로 발전하여 한국건축의 큰 특징을 이루게 되었다.

정면 단위와 평면 단위로 동시에 사용되는 칸의 용례는 3차원의 육면체 공간을 연상시킨다. 네 개의 기둥과 그 기둥 상부를 연결하는 가로재들로 구성되는 목구조에서 가로로 연결되는 부재들은 보와 도리이다. 이 가운데 도리의 개수는 칸의 규모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된다. 한국의 건축에서는 '양가樑架(량가)'라는 단위로 헤아린다. 즉 '3칸 5량가'와 같은 표현은 건축물의 규모와 격식을 표현하는 더욱 정밀한 형식이다. 한국의 전각 건축이나 주택의 대청에는 천장을 가설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목구조 형식도 누구나 파악할 수 있는 요소였고, 량가는 칸과 함께 건축의 중요한 단위 요소가 되었다.

이처럼 칸은 공간의 용도와 구조적 해법을 결합하는 위치에서 건축을 표준화하고 공업화하는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칸은 더 작은 부재들의 조합이 완결되는 지점인 동시에 더 큰 공간을 만드는 기본 단위가 되었다. 예를 들어 전각건축에서 공포를 일정하게 배열할 때 가운데 칸에는 두 조를 올리고 다른 칸에는 한 조씩만 올리는 식으로 칸 규모와 부재의 크기에 일정한 비례 관계를 형성하였다.

참고문헌 3칸×3칸(이강민·전봉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김봉렬의 한국건축 이야기3(김봉렬, 돌베개, 2006), 도리구조와 서까래구조(이강민, 시공문화사, 2013), 한국건축개념사전(한국건축개념사전기획위원회, 동녘, 2013), 한국의 건축문화재9-전남(천득염, 기문당, 2002).

필자 이강민(李康民)

칼

정의 좁고 긴 쇠판에 날카로운 날을 세워 목재와 같은 재료의 표면을 깎거나 구멍을 깎을 때 사용하는 연장.

개관 칼[刀]은 일상생활 전반에서 사용하는 연장이므로 용도와 기능이 매우 다양하다. 칼은 만드는 재료에 따라 돌칼, 나무칼, 쇠칼 등 여러 가지로 구분된다. 칼은 가정에서 일상으로 사용하는 요리용, 생활용품이나 가구를 만드는 공예용, 전투 시 사용하는 살상용, 자신을 지키는 호신용 등 다양한 용도가 있다. 이와 같이 칼은 기능과 용도에 따라 크기 및 모양이 다양하며, 많은 종류로 구분된다.

내용 칼은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인간생활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칼은 인류 발전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연장으로, 역사가 오래되었다. 인류가 사용한 최초의 칼은 돌을 쪼아서 만든 돌날이었다. 당시의 칼은 사냥을 하거나 식량 채취에 필요한 연장이었다. 차츰 인류의 지혜가 발달하면서 돌을 날카롭게 갈아 성능이 우수한 돌칼을 만들어 썼다. 청동기시대로 넘어와 칼은 더욱 날카롭고 정교해지면서 기능이 확대되어 갔다. 사냥에서도 효과가 뛰어났지만 자신의 집단 세력을 넓히거나 방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또한 집을 짓거나 공예품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등 칼의 기능은 다양해졌다. 이 당시의 칼은 단순한 기능에 국한되지 않고 다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효율성이 엄청난 만능 연장이었다.

칼은 철기시대에 들어와 더욱 정교하고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칼은 좁고 긴 쇠판의 한쪽을 두드려 날을 세워 만든다. 한쪽 끝은 뾰족하게 만들어 날끝이 되고 다른 한쪽은 손잡이가 된다. 칼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간단하고 정교한 물건을 만들기 위하여서는 작은 칼이 사용되지만 짐승을 사냥하거나 전투가 벌어질 때는 큰 칼이 사용되었다.

칼은 쇠를 담금질해서 만든다. 칼날이 단단하여야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칼날이 단단한 반면에 칼몸은 연해야 사용할 때 잘 부러지지 않고 날카로움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 하나의 쇠 몸체에서 단단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지닐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 좋은 칼을 만드는 요체이다. 쇠의 성질을 단단하게 하거나 부드럽게 만드는 것은 쇠 속의 탄소 함유량 조절에 달려 있다. 탄소가 너무 많으면 단단하지만 잘 부러지며, 탄소가 너무 적으면 부드럽지만 잘 무디어진다. 이러한 쇠의 성질을 이용하여 하나의 쇠덩이로 강한 칼날과 부드러운 칼몸을 만드는 것이다. 대장장이가 칼을 만들 때는 쇠덩이를 불에 달구어서 넓고 길

게 늘인 다음 접어서 다시 늘인다. 이러한 작업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칼 모양을 잡아 간다. 날을 강하게 만들려면 담금질할 때 달군 쇠를 물에 식히는 과정에서 날 부분의 탄소 함유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질 좋은 칼을 만드는 것은 장인의 풍부한 경험을 통하여 터득할 수 있는 기술이다. 낫을 만들 때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질 좋은 낫이 될 수 있다.

칼은 기본 기능이 날카로운 날을 이용해서 자르고 깎고 구멍을 내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칼은 힘을 상징하기도 하며 자신을 지켜 주는 의미를 상징하기도 한다. 왕이 칼을 차고 있는 것은 실제로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권위와 힘을 상징하는 것이며, 부녀자가 은장도를 지니고 있는 것은 유사시 자신을 보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무속인들이 칼을 지니고 있거나 사당에 칼을 봉안하는 것에는 해를 끼치는 나쁜 것으로부터 자신이나 집단을 보호하려는 상징의 의미가 담겨있다. 이러한 상징의 의미가 있는 칼은 장식이 화려하고 아름답게 제작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칼은 기능성이나 상징성으로 인류의 변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연장이라 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칼은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연장이다. 날카로운 날이 있어서 편리한 공예품을 만드는 연장이면서 생존을 위하여 요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연장이기도 하다. 칼은 크기와 용도에 따라 다양하고, 기능성 생활 연장이면서 공예품을 만드는 장인에게 가장 중요한 연장이기도 하다. 칼은 인간에게 유익하지만 해를 끼치기도 한다. 인간의 역사와 늘 함께하여 온 중요한 연장이다.

참고문헌 연장과 치목(이왕기, 건축136-4, 대한건축학회, 1992), 조선후기의 건축도구와 기술(이왕기, 한국전통과학기술학회지1-1, 한국전통과학기술학회, 1994), 한국의 건축 도구(이왕기, 건축장인의 땀과 꿈, 국립민속박물관, 1999), 한국의 건축연장 연구1(이왕기, 목원대학교논문집7, 목원대학교, 1984).

필자 이왕기(李王基)

코클

정의 산촌이나 농촌 가옥에서 조명과 부분 난방을 위하여 안방이나 사랑방에 반원통형 또는 반원뿔형으로 설치한 시설.

개관 초와 기름이 귀하던 시절에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관솔(광솔)을 이용하여 겨울에 안방이나 사랑방을 밝히는 조명 기구 역할과 함께 부분 난방 기능을 수행한 코클은 생김새가 사람의 콧구멍과 비슷하다 하여 '코굴'이라고 부르던 데서 유래한다.

지붕에 까치구멍이 있는 두렁집(井자형)이나 전자집(田자형)의 안방 또는 사랑방 모서리에 주로 설치된다. 구조는 관솔을 올려놓고 불을 피우는 아궁이, 연기를 배출하면서 데워져 부분 난방 기능을 하는 기둥, 정지(부엌)나 봉당의 벽으로 연기를 배출하는 배연구(코클 구멍)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코클 아궁이 바닥은 10㎝ 전후 두께의 편평한 돌을 나무 받침대 위에 올려서 만든다.

내용 연기를 쉽게 배출할 수 있고 배연구로 외부 바람이 유입되지 않아 관솔 연기가 방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가옥의 내부에 해당하는 정지(부엌)나 봉당과 맞닿아 있는 벽과 찬바람에 직접 노출된 방의 외벽이 만나는 모서리에 코클을 설치한다. 이에 따라 코클은 주로 안방이나 사랑방에 설치된다. 봉당이나 정지와 맞닿아 있는 벽면이 매우 넓은 큰방 양쪽 모서리에 두 개를 설치한, 울진 12령에 위치한 주막 사례도 있다.

코클은 사용하는 사람이 앉아서 관리할 수 있는 높이에 코클 아궁이를 설치하기 때문에 방바닥으로부터 30~50㎝ 높이에 위치한다. 코클의 윗부분과 천장 사이 거리는 대체로 20~45㎝이다. 그러나 강원도 삼척 원덕읍 동작골에 있는 가옥 등에서는 천장과 코클 윗부분이 맞닿아 있는 사례도 있다. 이와 같이 코클 윗부분이 천장 가까이에 있는 이유는 코클 기둥을 길게 하여 부분 난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연기를 정지



코클 | 강원 삼척 | 1991 | 국립민속박물관



코클 | 강원 삼척 | 한승일

나 봉당의 윗부분으로 배출하기 위함이다.

강원도 삼척시 원덕 지역에서는 코클 입구를 '코클 아궁이'라고 한다. 코클 아궁이 바닥은 물푸레나무를 가로지른 후 그 위에 두께 10~11㎝, 너비 30~34㎝ 크기의 편평한 돌을 올린 형태이다. 돌을 코클 아궁이 바닥재로 사용한 이유는 관솔을 지피는 공간이기 때문에 열에 강하고, 강도를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코클 아궁이 바닥돌이 아궁이에서 앞으로 튀어 나오게 만든 사례도 있다. 코클 아궁이 입구는 장방형이다. 그 크기는 가로 23~39㎝, 세로 12~18㎝이다. 코클 아궁이의 윗부분이 앞으로 튀어 나오게 만든 사례도 있다. 이는 연기가 코클 아궁이에서 방 안으로 나오게 하거나 코클 기둥이 연기에 그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코클의 전체 크기는 가옥마다 다르나 보통 높이 120~175㎝, 아랫부분 둘레 65~70㎝, 윗부분 둘레 45~55㎝이다. 이 수치를 통하여 코클의 아랫부분은 넓고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삼척시 신기면 대이리 굴피집을 비롯하여 일부 사례에서는 아래 부분이 넓고 윗부분이 매우 좁은 원추형으로 설치된 사례도 있다. 그리고 코클 윗부분이 완만하게 기울어져 있다. 이는 코클에서 배출되는 연기가 부엌이나 봉당 벽에 설치된 코클 구멍을 통하여 잘 빠져나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연기를 밖으로 배출하는 배연구 지름은 13~15㎝이며, 별도의 연통이 없고, 부엌이나 봉당의 천장 아래 가운데 바깥 모서리 부분의 귀퉁이에 설치된다. 코클 구멍을 통하여 배출된 연기는 지붕을 덮은 너와나 굴피 사이 또는 까치구멍을 통하여 집 밖으로 배출된다.

강원도 삼척 대이리 굴피집에서 코클을 만든 사례 중심으로 제작 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코클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는 물푸레나무나 싸리나무, 진흙, 두께가 10㎝이고 너비가 30~40㎝ 정도인 넓적한 돌, 볏짚이다. 물푸레나무를 베어 와서 이를 세로 방향으로 쪼개어 갈비뼈처럼 코클의 가로 방향으로 배치한 후 세로 방향으로 칡줄이나 새끼줄로 묶어서 고정시킨다. 가로 방향으로 설치한 물푸레나무 뼈대에도 칡줄이나 새끼줄로 감은 후 잘 이긴 진흙을 발라서 벽체 형태의 코클 연통을 만든다. 이때 사용하는 진흙에는 미리 잘게 썰어 둔 볏짚을 섞어서 접착력을 높인다. 코클 윗부분부터 준비한 진흙을 골조에 손으로 붙여 잘 다지면서 두드려 형태를 만든 후 맷질을 하여 표면을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코클 아궁이 바닥은 계곡이나 하천에서 가져온 삼각형 또는 네모난 돌을 코클에 맞게 모서리 부분을 삼각형으로 잘 다듬어서 가로 방향으로 설치한 물푸레나무 위에 올려 두고, 받침돌 주변 모서리 부분은 진흙 반죽으로 마무리한다.

코클에 불을 지피는 재료는 관솔이나 겨릅(삼의 속대)이다. 소나무를 벤 후 4~5년 지나면 외부는 썩어 없어지고 내부의 심재만 남는다. 이를 관솔이라

고 한다. 강원도 지역에서는 이를 나무의 뼈로 여겨서 '뼈만 남는다'고 표현한다. 관솔은 매우 단단하기 때문에 쪼개어 작은 조각을 만들 때 큰 도끼를 이용하여 20~50㎝ 길이로 다듬어 보관하며, 사용할 때 이를 좀 더 작게 쪼갠다.

관솔 끝의 뾰족한 부분에 불을 붙이며, 옹이가 있는 부분이 좀 더 오래 탄다. 코클 아궁이에 3~5개의 관솔 조각을 포개어 불을 지핀다. 대부분의 집에서는 관솔 조각을 아껴 썼다고 한다.

코클의 연기는 밖으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굴피나 너와가 습기 머금는 것을 막아 주고, 각종 벌레를 퇴치하여 굴피나 너와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코클을 사용하지 않을 때 이곳을 통하여 찬바람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삼척 대이리를 비롯하여 많은 지역에서 코클 구멍을 헝겊이나 수건 뭉치로 막는다.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신리에서는 짚을 이용하여 만든 코클 아궁이 마개로 찬바람이 방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였다고 한다.

특징 및 의의 전통 가옥에서 실내조명을 위하여 사용한 기구는 등잔과 호롱을 비롯하여 정지와 봉당을 함께 밝혀 주는 두등불(두둥불), 안방이나 사랑방에 설치한 코클이다. 이 가운데 코클은 강원도와 경상도를 비롯하여 산간지역이나 농촌지역에 소재한 가옥에 주로 설치하였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집에 설치한 사례는 거의 없다.

코클을 사용한 사례를 보면 새끼를 꼬거나 가마니를 짤 때 조명 유지와 함께 방 안의 온도를 따뜻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특히 겨울에 코클의 온기로 무릎을 따뜻하게 하여 삼실을 무릎에 올려놓고 이를 이어서 삼베를 삼았다고 한다.

실내를 밝히기 위하여 등잔이나 호롱과 함께 코클을 사용한 이유는 코클의 불이 방 안을 매우 밝게 밝히지는 못하지만 실내를 따뜻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강원도 산간지역의 가옥과 생활(국립민속박물관, 1994), 불의 민속(국립민속박물관, 1996), 삼척 가곡·노곡·원덕·하장 민속지(김진순, 삼척문화원, 1997~2004), 삼척 대이리 굴피집(문화재청, 2005), 삼척 대이리 너와집(문화재청, 2005), 삼척 신리 너와집 및 민속유물(문화재청, 2005), 삼척산간지역 두렁집의 주거공간 구성과 확장에 관한 연구(최장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20-7, 대한건축학회, 2004), 삼척의 민가(임상규, 삼척시립박물관, 2011), 울진·봉화지역 선질꾼의 활동과 문화(김도현, 강원민속학24, 강원민속학회, 2010), 현지조사자료(김도현, 강원도 삼척 신기면 대이리·도계읍 신리·미로면 무사리, 2019.6.29~7.4).

필자 김도현(金道賢)

택리지
擇里志

정의 조선 후기 1751년 실학자 이중환이 저술한 인문지리서.

내용 『택리지擇里志』는 이중환李重煥(1690~1756)이 관직에서 배제되어 몰락한 사대부로 불우한 일생을 보낸 시기인 만년에 집필한 것이다. 『택리지』는 「사민총론」, 「팔도총론」, 「복거총론」 및 「총론」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중 팔도총론은 지지적地志的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복거총론은 지역이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민총론」에서는 사농공상의 사민四民의 발생과 연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팔도총론」은 도별 지지로서 평안도·함경도·황해도·강원도·경상도·전라도·충청도·경기도의 자연환경, 인문지리, 지역경제를 조사·서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팔도의 지역과 지세, 풍토, 인물, 역사, 경승지, 산, 하천, 정자, 사찰, 교역, 토지의 생산성, 풍속, 생활상, 인심, 사대부의 유무, 가거지可居地와 불가거지不可居地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복거총론」에서는 가거지의 조건으로 지리地理, 생리生利, 인심人心, 산수山水를 각각 소항목으로 제시하여 상술하고 있다. 지리에서는 가거지 선정에 필요한 지리적 조건인 수구水口, 야세野勢, 산형山形, 토색土色, 수리水理, 조산조수朝山朝水의 여섯 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 생리에서는 토지의 비옥도와 강을 통한 교역에서 얻는 경제적 이익을 지역을 사례로 설명하고 있다. 인심에서는 팔도의 서민과 사대부의 경우로 따로 논한다고 전제한 후 붕당朋黨의 원인이 된 사조정랑史朝正郎의 문제에서 동인과 서인, 남인과 북인의 붕당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산수는 앞과는 다른 체계로 구성된다. 즉 앞의 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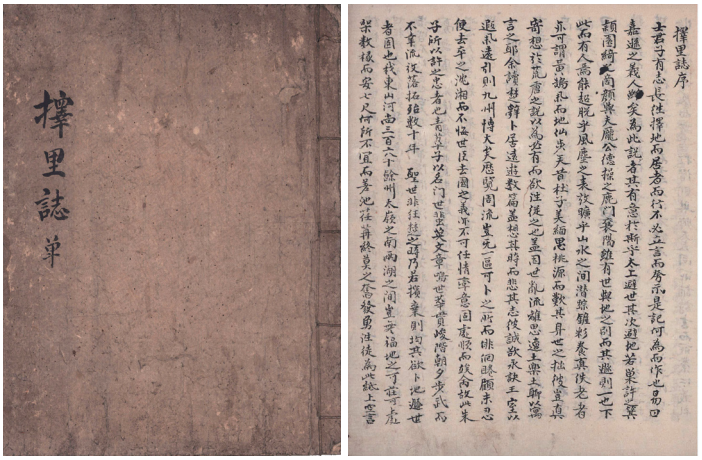
목(지리, 생리, 인심)이 복거卜居를 위한 세부조항이라면, 산수는 국토의 지형을 산수의 지형지세로 논하며 산맥을 따라 명산名山, 도서島嶼, 경승지景勝地, 도읍都邑, 강거江居, 계거溪居, 해거海居를 차례로 거론하였다. 또한 삶의 터로서 가부를 결정하고, 나아가 대를 이어 살 만한 곳이라는 실가거지實可居地로 귀결되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산을 중심으로 국토에서부터 취락으로 집약되는 체계, 즉 전체에서 부분으로 집약해 가는 논리적 체계를 취하고 있다.

「총론」은 앞의 「사민총론」「팔도총론」「복거총론」을 총괄한 결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사민의 내용과 관련된 사회제도의 부정적인 측면들이 결집되어 있다.

특징 및 의의 『택리지』는 인문지리서이지만 상당 부분 풍수를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 풍수연구에서도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복거총론」에서는 가거지를 선택하는 데 네 가지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지리가 좋아야 하고, 다음으로 생리가 좋아야 하며, 그다음 인심이 좋아야 하고, 또 다음은 산수가 좋아야 한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모자라면 살기 좋은 땅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런데 지리가 좋아도 생리가 모자라면 오래 살 곳이 못 되고, 생리가 좋더라도 지리가 나쁘면 이 또한 오래 살 곳이 못 되며, 지리와 생리가 함께 좋으나 인심이 좋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기고, 가까운 곳에 소풍갈 만한 산수가 없으면 정서를 화창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여 입지를 선택하는 데는 지리·생리·인심·산수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위의 네 가지 조건 중 풍수와 관련한 내용은 지리편에 비교적 많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여섯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수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수구란 마을이나 입지 내의 물이 빠져나가는 마지막 장소를 의미하는데, 꽉 닫힌 듯하고 그 안에 들이 넓게 펼쳐진 곳을 이상적인 수구라고 보았다. 또한 거슬러 흘러드는 물[逆水]이나 높은 산이 판국을 한 겹 또는 그 이상 감싸면 좋기 때문에 이런 곳은 완전하게 오랜 세대를



택리지(필사본) | 국립중앙도서관

이어 나갈 터가 된다고 하였다.

둘째, 야세에 대해서는 인간생활과 취락입지의 관련성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즉 사방의 산이 높아 해가 늦게 뜨면서 일찍 진다든가 밤에도 북두성이 보이지 않은 곳은 가장 꺼리는 곳이 된다. 그러나 큰 들판에 낮은 산이 둘러싸고 있는 곳은 하늘빛이 막히지 않고 수기水氣도 멀리 통하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사람은 양기陽氣를 받고 살아야 하는데, 하늘은 곧 양명한 빛이므로 하늘이 넓게 보이는 들이 넓은 장소가 취락터로 좋다고 평가한 것이다.

셋째, 산형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산형은 다락집처럼 치솟은 형세인 동시에 주산은 수려, 단정, 청명하고 아담한 모양이며, 그 다음은 뒤에서 내려온 산맥이 끊기지 아니하면서 들을 건너다 높고 큰 봉우리로 솟으며 지맥地脈이 감싸 돌고 주산은 형세가 온중穩重하고 풍대하며 겹겹이 높은 궁전 같은 모양이며, 그 다음이 사방에 산이 멀리 있어 평탄하고 넓으며 산맥이 평지에 뻗어 내렸다가 물가에 그쳐 들판 터를 만든 모양이라고 하였다. 가장 좋지 않은 산형은 산의 내맥이 약하고 둔하면서 생생한 기색이 없거나 산 모양이 부서지고 비뚤어져 길한 기운이 적은 산형이라고 하여 환경지각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토색에 대해서는 토질이 사토砂土로서 굳고 촘촘하면 우물물이 맑고 차기 때문에 이런 곳이면 살 만한 곳이라고 하였다. 반면 붉은 찰흙이나 검은 자갈 또는 누런 질흙이면 죽은 흙이고 이런 곳은 장기瘴氣

가 있기 때문에 살 만한 곳이 못 된다고 하여 지질학적인 토양의 특징을 풍토병과 관련시키고 있다.

다섯째, 수리에 대해서는 물은 재록財祿을 맡은 것이기 때문에 큰 물가에 부유한 집과 유명한 마을이 많다고 하였다. 따라서 물이 반드시 흘러가야 지리에 합당하며, 산중이라도 시내와 간수澗水가 모이는 곳이라야 여러 대를 이어가면서 오랫동안 살 수 있는 터가 된다고 하였다. 고전풍수에서는 물을 재물로 보고 있는데, 이는 풍수적 시각과 동일한 것이다.

여섯째, 조산조수에서 바람직한 조산은 맑고 빼어나 보이며, 가까이 있으면 맑고 깨끗하고, 한 번만 보아도 기쁨을 느끼는 산이라고 하였다. 조수는 물 너머의 물을 의미하는데, 작은 냇물이 역逆으로 흘러드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큰 냇물이나 큰 강이 역으로 흘러드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였다. 큰물이 역으로 흘러드는 곳은 처음에는 흥왕興旺하지만 오래되면 패망하기 때문에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흘러드는 물은 반드시 산맥의 좌향과 음양 이치에 합치해야 하는데, 이는 곧 물이 굴곡하고 길고 멀게 흘러드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활을 쏘는 듯한 곳은 좋지 못하다고 하였다.

『택리지』는 조선시대 보기 드문 인문지리서이지만 양기풍수적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복거편에서는 환경생태적 시각과 자연지리적 시각도 포괄하고 있는 등 현대의 지리학 및 풍수연구에 있어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다.

『택리지』는 조선시대 엘리트 교육을 받고 관계에서 활동하다가 당쟁에 휘말려 불우한 일생을 마친 한 지식인이 사회의 모순점을 분석·비판하고 동시에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한 책이다. 또한 자신이 안주할 장소를 구하기보다는 도탄에 빠진 백성들이 안주할 수 있는 장소를 발견하여 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백성들 스스로 난세를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주는 지침서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이중환의 정치적 위치와 택리지저술(박광용, 진단학보69, 진단학회, 1990), 풍수사상의 이해(천인호, 세종출판사, 1997), 택리지(이중환, 이익성 역, 을유문화사, 1993), 택리지-한국적 인문지리서(최영준, 진단학보69, 진단학회, 1990).

필자 천인호(千寅鎬)

택보요전
宅譜要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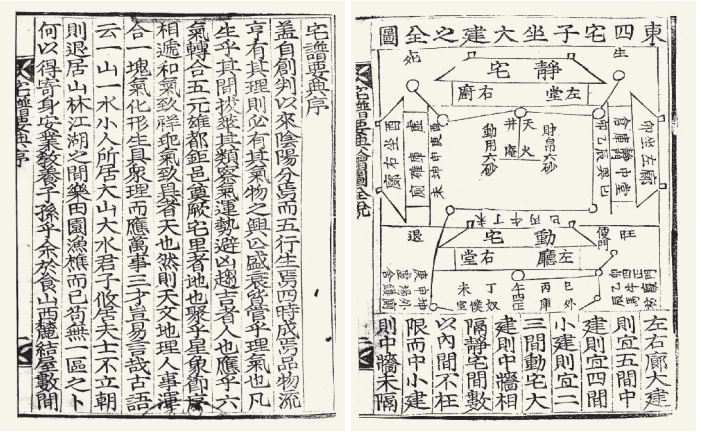
정의 조선 후기 노한용盧瀚容이 편찬한 양택풍 수지리서.

내용 조선 후기 중국에서 많은 양택서가 유입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에서도 중국의 가옥구조와 다른 조선 가옥의 특징을 반영한 양택서들이 출간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손유헌의 『민택삼요民宅三要』와 노한용의 『택보요전宅譜要典』이다. 『택보요전』은 조선 후기 노한용의 저술을 1930년 신태형申泰亨이 교열하여 간행한 것이다.

노한용은 서문에서 내가 식산食山 서쪽 기슭에 집 뒤칸을 짓고 아침, 저녁으로 즐겨 앉아 양택백가陽宅百家의 말을 열현閱賢하고 그 미오微奧한 것을 본 지가 13년이라고 하였다. 『택보요전』의 전체 구성은 중국의 양택서와 달리 여러 가지 잡다한 내용은 생략하고 집의 좌향을 그림으로 설명하는 등 좀 더 간명하다.

『택보요전』은 총 7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의 서문에 이어 양택나반설陽宅羅盤說, 총론집합總論集合, 회도전설繪圖全說, 연운합결年運合訣, 조문총요造門總要, 혼문비지婚門秘旨, 장문비지葬門秘旨, 농문비지農門秘旨 등이다.

특징 및 의의 『택보요전』은 기본적으로 동사택東舍宅과 서사택西舍宅의 원리를 수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중국의 『양택삼요陽宅三要』와 조선 손유헌의 『민택삼요』와 비슷하지만 차이점도 있다. 그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택보요전(목판본) | 1930 | 국립중앙도서관

첫째, 양택의 삼요인 문門, 주主, 조灶에 있어 『민택삼요』는 대문과 주방의 위치를 중요시하였고 부수적으로는 부엌의 위치를 중요시하나 『택보요전』에서는 안채의 좌향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따라 부엌과 주방을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와 사랑채에서 대청과 사랑방을 어느 쪽으로 해야 할 것인가를 중요한 관건으로 여겼다. 아울러 대문의 방위를 중요시하였다. 특히 『택보요전』에서는 집의 좌향을 중심으로 동사택과 서사택을 구분하였는데, 리離를 제외한 동사택은 부엌을 오른쪽에 배치하며 태兌를 제외한 서사택은 부엌을 왼쪽에 배치한다고 하였다.

둘째, 『양택삼요』와 『민택삼요』에서는 문, 주, 조의 위치에 따라 동사택과 서사택으로 구분하였으나 『택보요전』에서는 바깥대문은 사랑채 동사택의 정향위正向位여야 하니 묘방卯方(동쪽)이나 오방午方(남쪽)을, 중소규모이면 묘방卯方(동쪽)을 써야 한다고 하여 남향집의 동쪽 대문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문·주·조를 측정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양택삼요』는 마당의 중심을 옮겨 가면서 측정하지만, 『민택삼요』는 대들보 중간에서 측정한다. 반면 『택보요전』은 나침판을 안채 또는 사랑채 앞 빗물 떨어지는 지시랑청 가운데 두고 측정한다.

넷째, 집의 좌향에 대해서는 8간干인 갑경甲庚, 병임丙壬, 을신乙申, 정해丁亥의 좌坐가 가장 좋고 사유四維인 건곤乾坤, 간태艮兌, 해자亥子의 좌坐가 중길中吉이고 미未, 진辰, 술戌의 자는 천택賤宅이며 인寅, 신申의 좌는 가장 흉하다고 하였다.

『양택삼요』나 『민택삼요』는 점복적인 의도가 다분한 데 반해 『택보요전』은 건축적 계획론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택보요전』이 동서사택의 원리를 수용하였지만 기복적인 내용보다는 집의 앉히는 방법, 즉 좌坐의 방법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부속 건물의 배치를 고려한다는 보다 진전된 건축적 의의를 가진다.

참고문헌 19세기 양택론에 나타난 살림집의 간잡이에 대한 연구(김홍식·이해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4-6, 대한건축학회, 1988), 양택론에 있어서 안채와 사랑채의 간잡이 방식에 대한 연구(김홍식·이해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4-5, 대한건축학회, 1988), 택보요전에 있어서 민택의 간잡이 방법론고(김홍식, 대한건축학회지33-2, 대한건축학회, 198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천인호(千寅鎬)

택호
宅號

정의 기혼 남녀의 이름 대신 처의 출신지명, 남편의 관직명 등을 붙여서 부르는 별칭.

개관 택호宅號는 기혼 남녀의 이름 대신 부르는 별칭이다. 전통사회에서는 상대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택호를 이용하여 칭하였다. 택호의 정확한 연원은 알 수 없으나 이름을 직접 호칭하거나 지칭하는 것을 금기·기피하는 기휘관념忌諱觀念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반가班家의 기혼 여성은 자신의 출신지명으로 지어진 택호로 이름을 대신하였으며, 남편 역시 처의 택호로 호칭되었다.

내용 택호는 여성의 출신지명을 차용하여 지었다. 주로 시부모나 집안 어른이 정하여 준다. 그래서 여성의 경우 '출신지명+댁', 남성의 경우 '처의 출신지명+어른(양반)'으로 각각 부르는 것이 일반 형태이다. 이를테면 '하회' 마을에서 시집 온 여성이라면 '하회댁'이 되며, 그 남편은 '하회어른(혹은 하회양반)'이 되는 식이다. 그런데 마을이나 집안에 택호가 동일한 여성이 있으면 변별성을 띠기 위하여 출신지명의 다른 명칭이나 마을보다 큰 단위인 리里, 면面, 군郡 등의 이름을 차용한다. 택호를 이용하여 개인을 호칭하거나 지칭할 경우 '○○댁'으로 불리는 사람은 그 택호의 주인인 여성뿐이다. 남편을 비롯한 기타 가족 구성원에게는 독립된 형태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을 나타내는 지칭어와 함께 쓰인다. 즉 남편의 경우 '○○어른(양반)', 자녀의 경우 '○○댁 큰아들'처럼 택호 뒤에 개인을 나타내는 지칭 용어를 결합시키는 것이다. 출신지명의 택호는 친족관계에서도 사용된다. 주로 '○○아지매', '○○할배' 등과 같이 '출신지명의 택호+친족용어' 등 형태를 취한다.

택호는 가장家長의 관직官職명을 차용하여 '관직명+댁', 곧 '참봉댁'이나 '대감댁' 등의 형태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관직명 택호는 독립된 형태로 개인을 칭하지 않는다. 즉 '참봉댁'이라는 택호는 집을 가

리킬 때만 사용하며, 여성을 칭할 때는 '참봉댁 아지매' 또는 '참봉댁 할매' 등의 형태를 취한다. 그 외 가족에게는 '참봉어른', '참봉댁 큰아들' 등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마을에 '참봉댁'으로 불리는 집이 여럿 있을 경우 변별성을 띠기 위하여 '윗마을 참봉댁'과 같이 '마을이름+관직명+댁'의 형태를 취하거나 '권참봉댁'처럼 '시댁 성씨+관직명+댁'으로 부른다.

당호堂號를 택호로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당호는 집 이름을 일컫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지명이나 관직 등과 달리 중복될 우려가 거의 없어 변별성이 뛰어난 편이다. 다만 당호 자체가 집 이름에 해당하므로 '당호+댁' 형태를 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당호가 '충효당'이라면 '충효당댁'이라 하지 않고 '충효당'이라고 한다. 그리고 관직명 택호와 마찬가지로 당호만으로 개인을 부르지 않고 '충효당 어른', '충효당 아지매', '충효당 큰아들'처럼 개인을 나타내는 지칭어와 결합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특징 및 의의 전통사회의 혼인 후 거주제居住制는 남성이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는 처가살이혼이 아니라 여성이 남성의 집으로 옮겨 가는 시집살이혼이기 때문에 기혼 여성은 남성의 출신 마을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간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남성의 출신지명을 차용하여 택호를 짓는다면 변별성이 전혀 없다. 즉 '하회' 마을에서 각 집의 택호를 지을 때 남성의 출신지명을 따른다면 '하회' 마을에 살고 있는 모든 남성이 '하회'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모든 집의 택호는 '하회댁'이 된다. 이런 이유로 '하회'로 시집온 여성들의 다양한 출신지명을 차용하여 택호를 짓게 된 것이다.

참고문헌 안동 동성마을의 택호 연구(김미영, 비교민속학22, 비교민속학회, 2002), 언간에 나타난 친족 내에서의 택호 사용에 대한 연구(박부자, 국어사연구19, 국어사학회, 2014), 택호와 종자명호칭(왕한석, 선청어문18,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1989), 향토문화전자대전(grandculture.net).

필자 김미영(金美榮)

텃밭

정의 집터에 딸리거나 집 가까이에 있는 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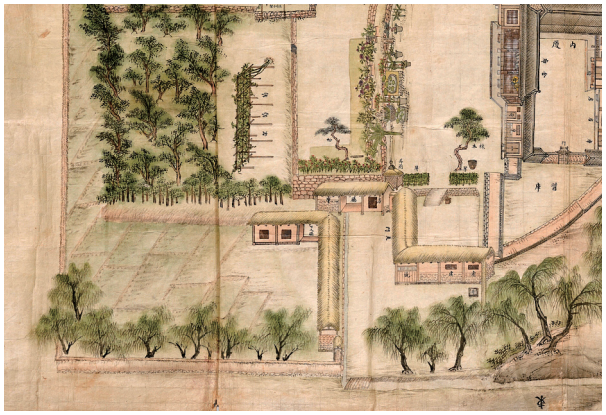
개관 텃밭과 비슷한 용어로 남새밭이 있다. 남새밭은 남새를 심은 밭으로, 채소밭을 이른다. 채소밭은 또한 채마밭, 채마전, 채전, 전포, 포전 등으로도 쓰인다. 보통 채마밭이라 함은 집에서 가꾸어 먹을 정도의 몇 가지 남새를 심은 밭을 말한다. 텃밭은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공간과 가장 가까이서 먹거리를 제공하는 친숙한 장소이다.

내용 텃밭은 대지에 여유만 있으면 사회 신분과 관계없이 조성되었다. 텃밭 위치에 대한 일정한 규칙은 없고 살림집 본채의 전후좌우 어느 곳이든지 햇빛이 잘 드는 곳이면 조성되었다. 그러나 안마당, 사랑마당, 행랑마당 등 비어 있는 마당의 공간과는 구분되었다.

조선 후기 실용주의 자연관을 주장한 다산 정약용은 이상주거 모습을 구체화해서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텃밭 구성에 관한 내용이 등장한다. 『제황상유인첩題黃裳幽人帖』에서 그는 "남새밭 정리는 맷돌처럼 평평하게 해서 마치 고인 물 같아야 한다. 구획을 갈라 네모지게 두둑을 만들어 아욱과 배추 파와 마늘 등을 종류별로 구별해서 서로 뒤섞이지 않게 한다. 모름지기 고무래를 써서 씨를 뿌린다. 싹이 터서 나올 때 보면 아롱진 비단 무늬 같아야 비로소 남새밭이라 이름 붙일 수 있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참외와 고구마를 심는다. 남새밭 둘레에는 매괴화 수천 그루를 심어 울타리로 만든다. 매양 봄여름이 바뀌는 계절이 되면 남새밭을 둘러보는 자가 매운 향기를 코로 맡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는 또한 원포園圃 경영의 당위성을 설파하였다. 원園은 과수를 심는 공간이고 포圃는 채소를 기르는 채마밭이라고 정의하면서 선비가 벼슬길을 떠나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려면 원포를 경영하지 않고는 가계를 꾸려 가기 어렵기 때문에 과수 재배와 누에치기를 통하여 창출할 수 있는 예상 이득까지 자세하게 제시하는 등 사대부도 경제 활동



텃밭 | 경기 양주 백수현 가옥 | 서헌강



텃밭 | 옥호정도 중 부분 | 국립중앙박물관

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다산의 이상주거론은 벼슬을 떠난 사족의 구체화한 자족 생활공간 모델을 제안하였다는 점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특히 텃밭을 비롯한 원포 경영을 통한 경제와 생활 속에 학문 및 예술을 통하여 운치를 깃들이는 삶의 방식을 구체화시켜서 보여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징 및 의의 텃밭은 서민주택뿐만 아니라 상류주택에서도 조성되었다. 그 예를 <옥호정도玉壺亭圖>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옥호정玉壺亭은 순조의 장인이자 당대의 권력과 재력가인 김조순(1765~1831)의 서울 삼청동에 있던 제택第宅이다. 이 그림을 통해서 조선시대 세도가 정원의 실체를 알 수 있다. 여기에 텃밭이 등장한다. 즉 ㄴ자형 대문채의 서쪽으로 하인청下人廳이라고 기록된 ㄱ자형 초가집채가 있고 이 앞으로 넓은 텃밭이 구성되어 있다. 세도가에서는 양반이 직접 채소밭을 경영하지 않고 하인들을 통하여 텃밭을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궁궐에도 일반 살림집의 텃밭과 비슷한 용도의 논이 있다. <동궐도>에는 창경궁 후원 쪽 옥류천이 흘러내리는 개울가에 11배미의 논이 그려져 있다. 그 남쪽에는 관풍각觀豊閣이 있다. 『궁궐지』를 보면 "관풍각은 인조 25년(1647)에 지었는데 금원의 여러 못의 물이 모여 마루 밑으로 흘렀다. 북쪽에는 논이 있고 앞에는 연못이 있다."라고 적혀 있다. 조선의 왕은 매년 경칩 뒤의 해일亥日에 선농단先農壇으로 나아가 신농씨와 후직씨에게 친히 제사를 지내고 이곳에서 직접 쟁기로 논밭을 갈았다. 왕이 직접 백성의 걱정을 덜어 주고 풍년을 기원하는 제주祭主 역할을 하였다. <동궐도>에는 관풍각 옆에 2칸의 초가가 서 있다. 아마도 농사짓는 관리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논이 없어지고 연못(춘당지)이 되었다.

참고문헌 다산의 이상주거론(정민, 동아시아문화연구47,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0), 동궐도 읽기(안휘준 외, 문화재청, 200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stdict.korean.go.kr).

필자 남호현(南虎鉉)

텔레비전

정의 영상과 음성을 전파로 받아 시청 가능하도록 재현하여 주는 가전제품.

내용 한국에서 일부 지역에서나마 텔레비전 시청이 처음으로 가능하여진 시기는 1950년대 중반이었다. 1956년 6월 RCA 한국대리점인 KORCADKorea Office of RCA Dis tributor가 국내 최초의 TV방송국 HLKZ-TV를 설립하였다. 이 방송국은 민간 상업방송국으로서 개국하였으며, 서울 종로 2가에 위치하여 '종로 텔레비전'으로도 불렸다. 다만 서울을 중심으로 반경 16~24㎞에서만 볼 수 있어서 텔레비전을 구입한다 해도 방송을 나오는 지역은 극히 한정되어 있었다. 게

다가 1956년 기준으로 17인치 수상기 1대 가격이 그해 한국의 1인당 GNP 7만 환의 5배가 넘는 37만 5,000환에 이르렀기 때문에 당시 텔레비전 보급 대수는 250여 대에 불과하였다. 비싼 가격으로 말미암아 가정집보다는 서울 시내 일부 대형 상점에서 RCA 21인치 수상기를 구입해서 손님을 끌기 위하여 상점 앞에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흑백 영상을 틀어 주었다. 이러한 가두 텔레비전을 통해 서울 사람들은 처음 텔레비전을 접하였다. 그러나 국내 최초의 텔레비전 방송국은 경영난과 예기치 못한 화재로 1950년대 말에 폐업하였다.

1960년대에는 텔레비전 방송국이 잇달아 설립되고, 외국산 및 국산 흑백텔레비전 보급이 본격화되었다. 1961년 12월 31일 국영방송국인 KBS-TV(채널 9번)가 개국하여서 매일 방송을 시작하였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1962년 2차에 걸쳐 일본과 미국에서 텔레비전을 수입하여 신청 가정에 설치하여 주었다. 이어 1964년 동양 TV(TBC-TV), 1969년 MBC TV 등 텔레비전 방송국이 개국하였다. 1966년 8월 금성(현재 LG전자)이 19인치 국산 흑백텔레비전을 처음으로 출시하였다. 수입 텔레비전에 비하면 저렴하였지만 국산이라고 하여도 텔레비전 한 대 가격이 6만 8,350원이었다. 이는 당시 대졸자 초임 1만 5,000원의 4배, 쌀 27가마에 상당하는 금액이었다. 이처럼 대단히 높은 가격이었지만 텔레비전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많아 추첨을 통하여 판매할 정도였다.

텔레비전 수상기 자체가 고가품이다 보니 텔레비전 옥외 안테나가 눈에 띄면 그 집이 부잣집이라는 걸 알고 도둑이 든다는 이야기가 나돌았다. 텔레비전 전문 절도 사건이 다발하여 일단 구매한 텔레비전은 도난 또는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지 않을 때는 안방의 장롱이나 다락 안에 넣고 자물쇠로 잠가 두곤 하였다. 나중에는 미닫이문이 달린 장식용 케이스에 텔레비전을 넣어 잠글 수 있도록 한 제품이 등장하였다.

텔레비전이 있는 집이 드문 만큼 1960년대에는 프로레슬링·권투 등 스포츠 경기나 MBC의 『개구리 남편』(1969), TBC의 『아씨』(1970), KBS의 『여로』(1972)와 같은 인기드라마가 방영되는 날이면 텔레비전이 있는 집에 이웃들이 모여 단체 시청을 하는 일이 잦았다. 또한 텔레비전 사설 관람소, 만화방에서 돈을 내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다방에 들어가 일부러 음료를 사 마시면서 텔레비전을 보았다.

국내 텔레비전 보급 대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1960년대 말부터였다. 특히 1969년 7월 아폴로 11호가 지구를 떠나 달에 착륙하는 장면이 중계된 일은 텔레비전 보급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영상을 보기 위해 텔레비전을 미리 사려는 사람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어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 1970년 멕시코 월드컵, 1972년 뮌헨 올림픽과 같은 스포츠 행사나 1972년 남북적십자 회담 및 7·4공동성명 등 큰 이벤트가 열릴 때마다 텔레비전 판매가 일시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의 텔레비전 보급 대수는 1970년 37만여 대에서 1979년 596만여 대로 늘어났다. 이는 전체 가구의 79.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1970년대에는 텔레비전을 사치품이 아니라 가정생활의 필수품이자 친근한 오락매체로 인식하게 되었고,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에도 텔레비전 보급률이 높아졌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텔레비전을 장기월부로 구매해서 보내드리라는 '텔레비전 효자캠페인'이 1972년부터 전개되고, 전국에 전기가 들어가 텔레비전 이용이 가능하여진 데다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하여 지방중계소를 신설함으로써 텔레비전 시청 가능 지역이 확대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

1980년대는 흑백텔레비전 인기가 급락하고 컬러텔레비전으로 교체된 시기이다. 국내에서 컬러텔레



텔레비전과 소파가 놓인 거실 | 주택문화사

비전 방송이 개시된 것은 1980년 12월 1일이다. 컬러 방송을 보기 위하여 흑백텔레비전이 있는 집에서는 컬러텔레비전으로 교체하였고, 처음 텔레비전을 사는 가정에서도 컬러텔레비전을 구입하였다.

컬러텔레비전 보급과 함께 1980년대 초반부터 급격히 퍼진 것이 VTRvideo-tape-recorder 또는 VCRvideo-cassette-recorder이라고 하는 '비디오'이다. 오락용이나 교육용으로 비디오의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텔레비전 크기도 커졌다. 또한 1990년대 후반부터는 DVD와 함께 짝을 이뤄 영화 등 다양한 영상자료를 집에서 즐길 때 텔레비전이 이용되면서 더 큰 화면의 텔레비전이 인기를 끌게 되었다.

1991년 3월 SBS-TV, 1995년 케이블TV, 2011년 종합편성채널 개국으로 텔레비전을 통하여 접할 수 있는 콘텐츠가 다양해졌다. 2002년에는 국내에 기존의 브라운관 텔레비전이 아닌 디지털 텔레비전이 출시되었고, 이에 따라 가정에서는 더 큰 화면의 텔레비전을 구매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방송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텔레비전 위상은 과거에 비하여 낮아졌다.

특징 및 의의 1950년대 중반에 가두 텔레비전으로 텔레비전 방송을 처음 접한 한국인은 1960년대 들어와 흑백텔레비전을 이웃 등과 함께 단체 시청하는 일이 많았다. 1970년대 이후 흑백텔레비전이 각 가정에 보급되자 안방이나 마루에서 가족이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아파트 및 아파트형 주거가 일반화되면서 마루에도 바닥난방이 들어오고 이른바 거실로서 공간 성격이 변화하자 텔레비전 위치는 가정마다 비슷한 곳에 자리 잡았다. 건설사가 만들어 놓은 콘센트의 위치에 맞춰 대개 거실 벽면 중앙에 장식장, 오디오나 비디오 기기와 함께 놓이게 되었다. 그 맞은편에는 가족이 편안하게 앉아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는 응접 소파세트를 두는 것이 보편화된 거실 풍경이었다.

흑백텔레비전은 1980년대 들어와 컬러텔레비전으로 교체되었다. 컬러텔레비전 등장은 가구와 패션에도 영향을 미쳐 화려한 색상의 상품이 등장하였다. 이후로도 텔레비전 방송은 각종 유행을 선도하고 생활양식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참고문헌 1960~70년대 텔레비전 붐 현상과 텔레비전 도입의 맥락(임종수, 한국언론학보48-2, 한국언론학회, 2004), 광고 시대를 읽다(국사편찬위원회, 두산동아, 2007), 끝없는 혁명-한국 전자산업 40년의 발자취(서현진, 이비컴, 2001), 대한민국을 즐겨라-통계로 본 한국 60년(김영훈·손해용·정경민, 한국통계진흥원, 2008), 한국인 어떤 옷을 입고 살았나(양미경 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한국인 어떤 집에서 살았나(김혜숙 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필자 김혜숙(金惠淑)

토담

정의 흙을 다져서 쌓아 만든 담장.

개관 토담[土墻]이란 주변의 좋은 흙을 물과 함께 흙반죽으로 만들고 이를 쌓아 올려 만든 담장으로, 예부터 민간에서 사용한 담장의 한 종류이다. 토담을 반듯하게 쌓기 위하여 사용한 판축 기법은 현재 건축공사에서 거푸집을 만들고 콘크리트를 부어 벽을 만드는 형식과 유사하다. 토담은 흙반죽으로만 완성할 수도 있지만 돌이나 깨진 기와를 담장 표면에 끼워 넣어 장식을 가미하기도 하였다.

내용 토담은 흙을 다져서 쌓아올려 만든 담장이다. 흙이나 모래만을 다져서 토성처럼 쌓는 방식, 나무기둥과 널빤지를 세워서 판축 기법으로 쌓는 방식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둥글게 흙덩이를 빚거나 틀에 넣어 일정한 크기의 덩어리로 만든 뒤에 쌓아올려 토담을 만드는 방법이다.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서는 석비레(마사토)를 상급으로, 황토를 그다음으로, 검은 흙을 하급으로 친다고 하였다. 또 흙반죽을 만들 때는 물기가 조금 있어야 쌓기에 좋으며, 먼저 쌓은 흙반죽이 너무 마른 경우에는 물을 뿌려서 새로 쌓는 흙반죽과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후자는 널빤지로 거푸집을 고정시킨 뒤 흙을 채우고 잘 다진 후 어느 정도 굳으면 그 위에 다시 거푸집을 만들어 흙을 채우고


흙벽돌담 | 경기 용인 한국민속촌


판축 토담 | 경북 안동 하회

토담 | 국립민속박물관

다지는 판축 작업을 단계별로 반복하여서 마치 시루떡 만들듯이 쌓아올린 토담을 말한다.

이런 판축 기법에서는 토담의 양면에 붙여 달아 거푸집 역할을 하는 토담틀[土墻板]이 중요하다. 토담틀은 담틀, 담틀널, 축판築板, 연춧대[練築板], 연토판練土板이라고도 한다. 토담의 끝이나 중간 부분에 세워서 토담틀을 지지하는 기둥을 정간楨幹이라고 한다. 토담틀은 토담을 만들 자리에 정간을 수직으로 박아 세우고 널빤지를 정간 안쪽으로 눕혀 달아 틀을 만든 뒤 토담 두께만큼의 버팀대로 토담틀의 너비를 조정하면 완성된다. 『임원경제지』에서는 토담틀 안에 자갈로 기초를 만든 후에 흙반죽을 거칠게 썬 짚과 섞어 토담을 쌓는다. 이때 달굿대로 다지면서 0.3~0.4척 높이(약 10㎝)가 되어 아래쪽 흙이 적당히 마르면 토담틀을 더 높게 설치하고 다시 흙을 쌓는다고 하였다. 판축 기법으로 토담을 쌓은 뒤 흙이 다 마르기 전에 석회와 사벽沙壁으로 반죽하여서 담장면 안팎에 얇게 발라 주기도 한다. 토담의 양면을 곱게 다듬고 내구성을 확보하려는 의도이다. 『영조실록英祖實錄』 권51725년(영조 1) 4월 29일 기록에는 길이 열 칸가량의 토담이 쌓은 지 오래되어서 사토沙土가 벗겨져 있었다는 내용이 있다. 이로 미루어 토담의 마감 방식이 주요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토담을 쌓을 때는 알맞은 돌을 쌓거나 깨진 기와를 넣어서 '눈박이'라는 질박하면서도 멋진 장식을 만들 수 있다. 석재를 원형으로 다듬어서 흙으로 만들어진 담장면에 박아 넣어 특정한 돌덩이가 드러나게 만드는 방식도 있고, 흙을 한 켜 쌓은 뒤에 깨진 암키와나 수키와 조각들을 일직선이 되도록 늘어놓거나 쌓아서 한 켜를 형성하고 그 위에 다시 흙덩이와 기와조각 켜를 반복하여 쌓아서 만드는 방식도 사용되었다. 곡선으로 구부러진 기와의 특성을 살려서 파상선波狀線 형상으로 켜를 만들거나 간단한 식물 형태를 구성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토담을 필요 높이로 쌓은 뒤에는 토담 상단에 잡목으로 서까래를 만들어 얹고, 짚이나 기와를 이어 지붕을 만든다. 빗물이 담장 위로 스며들거나 고여 있지 않게 함으로써 담장을 오랫동안 유지하려는 방편이다.

특징 및 의의 토담은 빚거나 덧붙여서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흙의 소조성塑造性을 활용, 흙반죽을 다져서 쌓아 만드는 다소 쉬운 방식의 담장이다. 흙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 재료이다. 다만 토담은 물이 섞인 흙반죽이 층층이 다져진 후 건조 과정을 거쳐야 강도가 발현되지만 다시 다량의 물에 접촉할 경우 부스러지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토담 안팎으로 석회와 사벽으로 마감하고 토담 상단에 지붕을 만들어 내구력을 보강하려 하였다. 또한 현재의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에서는 토담을 정교하지 않고 투박하게 쌓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담은 사고석담과 같이 매끈하고 규칙성 있는 형태보다 자연스러운 느낌이 드러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林園經濟志, 빛깔있는 책들21-꽃담(조정현, 대원사, 1995), 한국건축대계4-신편 한국건축사전(장기인, 보성각, 1998), 한국건축대계5-목조(장기인, 보성각, 200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장필구(張弼求)

토막촌
土幕村

정의 나뭇가지·가마니·천막 등 온갖 재료를 사용하여 지은, 세궁민들의 거처가 무리지어 있는 곳.

내용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은 토지세 수입과 함께 새롭게 확보한 국유지의 소작을 통하여 거둬들인 자금을 식민지 조선 통치 재정으로 쓰기 위한 것이었다. 1918년 사업 완료 뒤 조선총독부는 최대 지주가 되었고, 동시에 통치 권력을 통하여 소작농을 착취하는 유일한 거대 지주가 되었다. 여기에 제국의 식량 안정 공급과 군량미 비축을 위하여 토지조사사업 후 세 차례 실시한 산미증산계획으로 인하여 조선의 농촌은 피폐를 거듭하였다. 몰락한 농민들은 도시로 몰려들었지만 도시 공업화는 이들을 수용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농민들은 날품으로 연명하는 도시의 세궁민細窮民과 더불어 곳곳에 몰려 살았다.

이들이 모여든 곳은 주로 산비탈이나 성벽·하천 주변, 철로 주변, 다리 밑이나 제방, 화장장과 공동묘지 주변 등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었다. 이들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갖은 재료를 활용하여 거처를 꾸렸다. 이것을 토막이라 하였다. 산비탈에 구덩이를 파서 멍석이나 가마니 등을 덮은 움집이나 토굴도 대개 토막으로 통칭되었다. 당시 조사 기록에 따르면 집이라고 할 수 없는 임시 거처에 불과하였다. 평균 가구원 수 6명의 한 가족이 단칸방에 사는 경우가 전체의 80% 이상이어서 1인당 거주 공간은 0.45평(1.485㎡)에 그쳤다. 하복과 동복을 합쳐 옷가지도 1인당 3.5벌에 불과하였고, 옷 한 벌로 지내는 경우도 과반수에 달하였다. 침구는 한 집에 이불이 1.6장, 요는 1.4장에 불과하였다.



경성부 토막민수용지 | 아현리 산 7번지 불교단체 화광교원 | 1936 | 국가기록원

토막민들의 생계는 날품팔이, 잡부, 직공, 행상 등 육체노동이 태반이었다.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경우는 찾을 수 없어서 뛰는 물가에도 하루 평균 수입이 남자 1원 20전, 여자 56전에 그치는 등 생계를 정상으로 이어 갈 형편이 못 되었다. 게다가 수입의 70% 이상이 음식비에 쓰였으니 평균 34원 8전이나 되는 가구당 빚을 갚을 처지가 못 되었으며, 모두 궁핍한 까닭에 빚을 낼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토막민의 8할 이상은 글을 읽지 못하여 극빈 생활을 극복할 여력이 없었지만 조선총독부나 각급 관청에서는 이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조선인 독지가와 종교단체가 돈을 거둬 이들 구휼에 나서기도 하였다.

특징 및 의의 일제강점기에 토막민에게는 식민지의 조선인이라는 이중 차별이 가해졌고, 조선총독부는 이들을 위생 상태 혐오와 정치 배제 대상으로 여겼다. 몰락 이농민과 세궁민을 위하여 조선총독부가 마지못해 궁리한 것이 부영주택府營住宅이지만 이마저도 사회사업으로 여겨 시늉만 낸 것에 불과하였다. 일본인을 위한 부영주택은 '보통주택普通住宅'이라 칭하고 취사용 가스설비까지 구비하였지만 조선인을 위한 부영주택은 산비탈이나 버려진 땅에 행랑채 모양의 '공동장옥共同長屋'이라는 이름을 붙인, 그야말로 임시구조물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어진 지 채 10년도 지나지 않은 1920년대 후반에는 모두 철거되거나 하급 관리들의 숙사宿舍로 전용되었으니 일제의 조선인 빈민을 위한 사회사업은 형편없었다.

토막이 가장 많던 경성의 경우 1935년 1월 토막민정리시설계획이 마련되었다. 시가지 내 토막을 모두 정리하여서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아현리에 집단토막촌土幕村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호당 부지 면적은 15평으로 책정하였지만 거처는 원래 토막 재료를 재활용하여서 자력으로 건설하는 방식이었다. 부족한 자재는 이왕직, 임업시험장, 경성부 내 임업관계자들의 기부를 통하여 확보하였다. 도로와 하수구 등은 불교단체인 화광교원이 직접 시행하도록 하는 등 조선총독부는 광복이 될 때까지 공간을 분리시켜서 배제하는 것에만 몰두하였다.

참고문헌 1920~1930년대 경성부 주택문제의 전개와 대책(유승희, 아태연구 19-2,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2012), 서울의 기원 경성의 탄생(염복규, 이데아, 2016), 일제강점기 사회와 문화(이준식, 역사비평사, 2017), 朝鮮社会事業要覧(朝鮮総督府内務局社会課, 1927), 土幕民の生活と衛生(京城帝大 衛生照査部, 岩波書店, 1942).

필자 박철수(朴哲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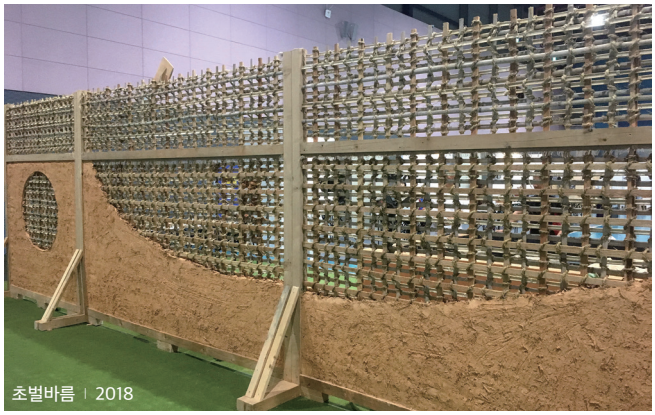
토벽
土壁

정의 기둥의 중심부에 외椳를 엮어 달고 흙[練土]을 이겨 발라서 만든 벽.

개관 토벽土壁은 우리나라 전통주택 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된 벽체 방식이다. 기둥의 중간 높이에 기둥보다 가는 인방을 직교하여 건너지르고, 인방 사이에는 중깃과 외대로 뼈대를 만들어 세워 여기에 여물과 흙을 섞어 반죽하여 이겨 바른다. 이후 적당히 마른 뒤에 회사벽 등으로 마무리하여 완성한다.

내용 목조건축에서 기둥 사이를 가로지른 인방의 중심부에 외를 엮고 흙반죽을 바른 벽을 토벽 또는 흙벽이라고 한다. 토벽은 심벽心壁이라고도 한다. 목조기둥 등의 바깥 면에 판재를 덧대어 기둥을 보이지 않게 하면서 평평하게 만든 바름벽을 평벽平壁이라고 하는 반면에 기둥 열의 가운데에 설치해서 기둥이 벽면보다 돌출되어 보이는 벽을 심벽으로 구분하기 때문이다. 토벽은 기둥 사이의 벽체뿐만 아니라 한옥의 기둥 위쪽에서 지붕을 받치는 공포 사이의 포벽, 서까래 사이 틈새의 당골벽, 마루나 방의 바닥과 기단 사이의 고막이벽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토벽은 지역의 흙을 사용하는 것이 유익하다. 지표면에서 1m 정도 땅속 아래의 것을 채취하는 것이 좋다. 토벽을 만드는 주요 재료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황토를 비롯하여 이 황토가 공기 중에서 수축·팽창하려는 성질을 완화시키는 모래, 벽면의 균열과 박리를 방지하는 여물 등이 있다.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서는 황토의 성질이 거칠고 억세기 때문에 모래


초벌바름 | 2018


재벌바름 | 서울 관악구 하유재 | 2009

토벽 | 장필구

흙을 사용하여 갈램(흙반죽이 마르면서 발생하는 틈) 없는 벽을 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화강암이 풍화되어 밝은색을 띠는 마사토와 백토는 토벽의 가장 바깥면에 사용되며, 생석회는 토벽을 필요 강도로 결합시키는 용도로 사용된다.

토벽은 크게 외엮기, 초벌바름, 재벌바름, 정벌바름 순서로 만들어진다. 먼저 외엮기는 토벽의 뼈대를 만드는 작업으로, 상·중·하인방 사이에 세로 방향으로 세워 대는 중깃과 가로 방향의 외대를 짚이나 덩굴로 엮어서 제작한다. 중깃과 외대는 벽체에 전달되는 하중을 고르게 분산시키고 벽체의 휘어짐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체를 단단하게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인 초벌바름은 완성된 외엮기에 흙반죽을 붙여서 처음으로 벽을 만드는 단계로, 초벽치기라고도 한다. 이때 사용되는 흙반죽은 지표면 1m 정도 아래에서 채취하여 오염이 적은 황토, 잘게 썬 볏짚과 모래를 섞어서 준비한다. 초벌바름은 외엮기 위치를 기준으로 안쪽 홑벽과 바깥쪽 맞벽으로 구성된다. 홑벽은 흙반죽을 외대에 걸쳐 달고 눌러서 반대편으로 충분히 밀려 나가도록 벽 전체에 고르게 발라 주며, 홑벽이 적당히 건조되면 맞벽을 만들어 준다. 초벌바름은 반드시 안쪽 홑벽을 맞벽보다 먼저 만들어야 한다. 흙이 공기에서 굳어지는 기경성 재료이기 때문에 외벽을 먼저 만들 경우 내부는 환기가 어려워 벽체 시공이 불완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혼자서 성질이 다른 두 가지 일을 맡아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뜻의 '안벽치고 뒷벽치기'라는 속담에는 이와 같은 홑벽과 맞벽의 시공 특성이 투영되어 있다. 세 번째로는 초벌바름 위에 재벌바름을 진행한다. 홑벽과 맞벽 표면을 평활하게 하는 고름질 단계를 거친 후 초벌바름과 동일하게 다시 벽을 발라 준다. 마지막인 정벌바름은 흙벽의 마감 작업이다. 반죽 재료에 따라 회사벽바름, 재사벽바름, 사벽바름으로 구분된다. 생석회에 물을 부어 작용시키면 시멘트 역할을 하는 소석회가 만들어진다. 소석회에 마사토와 모래, 풀, 여물을 섞은 반죽으로 마감하면 회사벽이 된다. 소석회·진흙·모래·풀을 섞은 반죽을 사용하면 재사벽이 되고, 여기에서 소석회를 빼면 사벽이 된다. 회사벽은 흰색에 가까운 밝은색을 띠는 고급의 흙벽 마감 방식이다. 재사벽과 사벽은 흙 고유의 색으로 마감한다. 소석회 자체가 귀한 재료였기 때문에 재료 구성이 서로 다른 벽이 만들어졌다.

흙벽을 만드는 기술자를 현대에는 '미장이'이라고 하지만 조선시대 왕실 건축공사를 기록한 영건의궤에서는 '이장泥匠'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다. 미장이가 곱게 마무리하는 기술자를 일렀다면 이장은 흙을 전문으로 다루는 기술자를 말한다. 흙의 성질을 이해하고 사용한다는 업역을 구체화하여 함께 나타내고 있다.

특징 및 의의 토벽은 생명의 근원인 흙을 사용한 생태건축 요소이면서 자연 재료인 흙을 사용하여 인체에 유익한 공간을 만드는 친환경 건축 요소이다. 토벽은 빗물에 취약하기 때문에 처마 길이를 충분하게 만들어야 하고, 흙벽 수리를 일정 주기를 두고 반복해야 하

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황토벽은 아토피 질환을 치유하는 성능과 같이 인체 건강에 유익하다는 사실이 과학 실험을 통하여 증명된 바 있다. 또한 장독과 같이 토벽의 미립자 사이로 공기가 내외로 순환할 수 있으며, 습도에 따라 수분을 머금거나 배출하는 등 실내 공간 미기후微氣候 조절능력도 갖추었기 때문에 콘크리트 건축물이 주류가 된 현재에도 그 가치를 인정받는 전통의 건축 요소이다.

참고문헌 林園經濟志, 한국건축대계4-신편 한국건축사전(장기인, 보성각, 1998), 한국건축대계8-재료(장기인, 보성각, 1999), 한국의 전통미장기술(김진욱, 성안당, 2017).

필자 장필구(張弼求)

톱

정의 좁고 긴 쇠 판에 이빨을 새겨서 틀에 끼운 다음 나무를 자르거나 켤 때 사용하는 연장.

개관 톱[鋸]은 집 짓는 연장 중에서 가장 늦게 개발된 도구라 할 수 있다. 늦게 개발된 연장이지만 오히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연장에 속한다. 목재를 처음 가공할 때나 나무를 자르고 켤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연장이다. 얇은 쇠판에 이빨처럼 생긴 작은 날을 길게 만들어 탕개틀에 끼운 뒤 앞뒤로 누르면서 문지르면 나무가 잘라지는 원리를 이용하여 만든 연장이다.

내용 인류가 금속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톱이 사용된 흔적이 나타난다. 그러나 당시의 톱은 길이가 짧고 톱날도 약하여서 널리 사용되지 못하였다. 톱이 기능성 연장으로 개발되기 전에는 주로 자귀를 이용하여 목재를 가공하였다. 톱 사용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탕개톱이 개발된 이후라 할 수 있다. 탕개톱은 톱날을 틀(톱소매)에 끼우고 반대쪽에 줄을 걸어 조이면 톱날이 당겨지면서 인장력이 가해져 쉽게 휘어지지 않고 강한 톱날이 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만든 연장이다.

탕개톱은 크게 톱냥, 톱자루, 동발, 탕개의 네 종류로 구분된다. 톱 만드는 과정을 보면 우선 좁고 긴 장방형 쇠판 한쪽에 일정한 간격으로 뾰족한 이빨과 같은 날을 낸다. 양끝에는 구멍을 뚫어 둔다. 이것을 톱냥이라 한다. 그다음 톱틀을 만든다. 가운데에 동발을 두고 양쪽에 하나씩 톱자루를 끼운다. 이때 아래는 톱냥을 끼울 수 있게 하고 위에는 끈을 꼬아 만든 탕개줄을 매어 둔다. 탕개줄 가운데는 탕개목을 끼워 줄을 틀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준비된 톱틀 위아래에 각각 톱냥과 탕개줄을 끼우고 탕개줄에 끼워 둔 탕개목을 틀어 조이면 가운데 동발을 중심으로 톱냥이 당겨지면서 팽팽해져 목재를 켤 때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

톱날을 만들 때는 톱니를 좌우로 조금씩 날어김을 해 둔다. 날어김은 대체로 톱 두께의 1.3~1.8배 정도로 한다. 날어김이 지나치게 크면 톱질이 힘들고, 톱니의 마모가 심해진다. 톱냥은 대개 마모에 강한 철을 달금질하여서 만든다. 톱자루는 단단하고 휨에 강한 참나무를 주로 사용한다. 동발로는 참나무 또는 보통나무를 많이 쓰지만 압축에 강한 대나무를 쓸 때도 있다. 탕개줄로는 삼, 닥나무껍질, 말총 등을 꼬아서 사용한다. 흔히 보는 한쪽 편에 손잡이가 달린 부엌칼과 같이 생긴 톱은 일본인들이 개조해 만든 것이다. 이러한 개조된 톱을 만들기 전까지는 한반도에서 전래된 탕개톱을 주로 사용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톱질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조직을 갖추고 공사장을 다니며 일을 하였다. 이들을 '인거장'이라고 불렀다.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인거쟁이 똥은 개도 안 먹는다."는 말도 있었다. 크기에 따라 대톱은 원목을 가공할 때, 중톱과 소톱은 간단하고 세밀한 작업을 할 때 많이 쓰인다. 특히 창호나 가구를 만드는 소목장들이 중톱과 소톱을 많이 쓴다. 톱질할 때는 톱을 톱질틀에 고여 놓고 한다. 이 틀을 '마목'이라고 한다.

톱은 기능과 쓰임새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켤톱[引鋸]은 목재의 섬유 방향으로 켜는 톱이다. 톱냥은 톱자루에 직각 방향으로 눕혀 끼워 둔다. 원목을 길게 켤 때는 대톱을 사용한다. 이를 '인거톱'이라고 한다. 자름톱[斷鋸]은 목재 섬유 방향에 대하여 직각



탕개톱 | 길이50~167 너비18~48 | 20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목재소 | 1900년대 | 국립민속박물관

으로 자르는 톱이다. 톱니의 날어김을 크게 좌우 두 줄로 만든다. 직경이 큰 원목을 자르는 톱은 특히 톱냥과 동발 사이를 넓게 만들어 사용한다. 다른 말로는 '단거톱'이라고 한다. 대톱[大鋸]은 원목을 제재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둘이서 밀고 당기면서 사용한다. 중톱[中鋸]은 혼자서 쓸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만든 톱이다. 다른 말로는 '중걸이'라고 한다. 목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톱이다. 소톱[小鋸]은 크기가 작고 세밀한 곳에 주로 사용한다. 창호나 가구 등을 짜는 소목장들이 특히 많이 사용한다.

특징 및 의의 톱은 목수 연장 중에서도 가장 늦게 개발된 연장이다. 톱날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 빨리 개발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탕개톱이 개발되면서 넓은 판재의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목재 가공에서도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탕개톱은 건축 구조와 양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참고문헌 연장과 치목(이왕기, 건축36-4, 대한건축학회, 1992), 한국의 건축 도구(이왕기, 건축장인의 땀과 꿈, 국립민속박물관, 1999), 한국의 건축연장 연구 1·2(이왕기, 목원대학교논문집7·8, 목원대학교, 1984·1985).

필자 이왕기(李王基)

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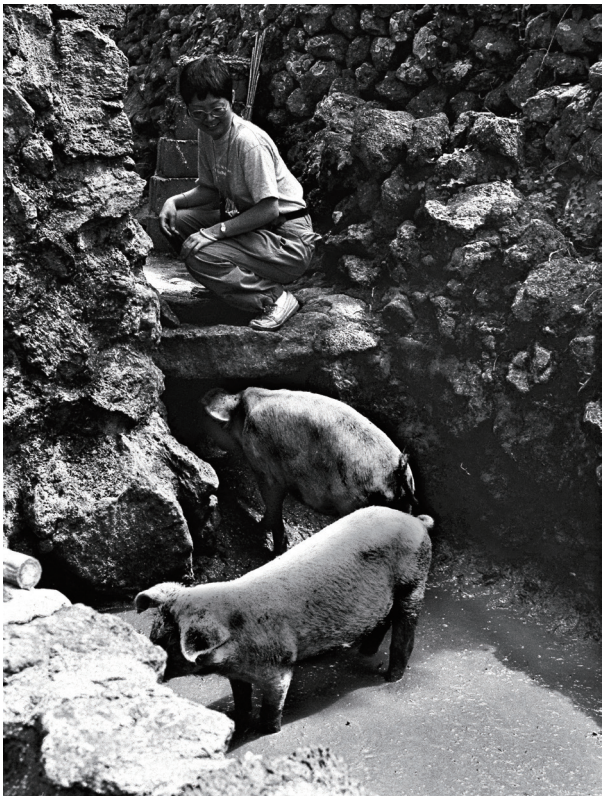
정의 변소와 돼지우리가 하나로 되어 있는 공간.

내용 대소변을 누는 곳과 돼지를 가두어 기르는 곳을 하나로 합쳐져 만든 공간을 제주도에서는 '통시'라고 한다. 통시는 돌담을 쌓아 만드는데 대소변을 누는 곳, 돼지가 사는 공간, 돼지우리 등 세 개의 공간으로 이루어졌다. 돼지가 사는 곳은 지붕을 따로 만들어 비바람으로부터 돼지를 보호하게 해 주었다. 통시에서 키워지는 돼지는 쌀뜨물과 채소 찌꺼기에 부수적으로 인분을 먹고 자랐다. 그래서 '똥돼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통시는 비단 제주도뿐만 아니라 중국·일본·필리핀 등지에서도 보이며, 중국의 경우 한나라 때 이미 전국적으로 유행하였다. 현재도 산둥성山東省·산시성山西省·허베이성河北省 등지에서 볼 수 있다.

통시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첫째는 거름을 생산하기 위함이다. 이때 돼지는 거름을 만드는 매개체이자 주체이다. 돼지가 사는 곳과 뒷간의 거리를 멀리 둔 것도 돼지우리를 거름을 생산하는 장소로 만들기 위함이다. 사람들이 주는 먹이나 똥을 먹기 위해 돼지는 우리로 이동하게 되고, 자신이 눈 똥·오줌과 주인이 넣어 준 짚을 발로 뭉갠다. 시간이 지나면서 뭉갠 똥과 짚이 어우러지면서 양질의 퇴비로 바뀐다. 주인은 돼지발에 밟히면서 자연스레 섞인 '돼지두엄'을 걷어내고, 우리 안에 새로운 짚을 넣고 또다시 일정한 기간이 지나 '돼지두엄'을 꺼내고 새로운 짚을 넣어 주는 작업을 되풀이한다. 이 거름을 제주도에서는 '돗걸름' 또는 '돗가레', '돗갈레'라고 한다. 보리농사를 지을 때는 1년 동안 '돗통시'에서 묵힌 '돗

걸름'에 보리씨를 섞은 다음 그것을 밭에 뿌려 갈았다고 한다.

근래까지 제주와 중국 북방의 건조한 밭농사 지역에서 통시를 이용해 돼지를 키운 것은 이들 지역의 토양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화학비료의 등장으로 통시의 역할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제주도 산간지역의 땅은 대부분 척박해서 화학비료가 시간이 경과되면 오히려 땅의 지력을 떨어뜨려 작물을 재배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나 똥거름은 땅을 기름지게 만들고 지력을 향상시켜 지속적인 작물 재배가 가능하게 만들어 주기에 주민들은 양질의 거름을 얻기 위해 통시를 이용해 돼지를 계속해서 키운 것이다. 제주도처럼 바람에 날리는 푸석푸석한 화산재의 보리밭에는 똥이 최상의 거름이었다. 사람들이 소똥, 개똥, 닭똥 가릴 것 없이 주워 퇴비를 만든 것도 그 때문이다. 소똥을 얻기 위해 소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제주도에서는 자신의 밭에 소들을 가두어 하룻밤 지내기를 바란다. 밭주인은 힘들이지 않고 소똥을 얻어 거름으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시 | 제주 | 국립민속박물관

둘째는 뱀으로부터의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제주도는 뱀을 숭상하여 함부로 죽이지 않는데, 오히려 이것이 뱀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되었다. 따라서 뱀과 천적 관계인 돼지를 집 안에 키움으로써 뱀이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 즉 뱀의 독은 돼지의 가죽을 뚫을 수 없지만 돼지는 뱀을 잡아 먹는 것을 좋아한다. 셋째는 잡식성인 돼지에게 인분을 먹이는 방법을 고안한 것이다. 사람의 똥은 영양분이 가득한 반면 거름으로 바로 이용할 수 없기에 돼지 먹이로 활용한 것이다.

특징 및 의의 돼지를 살찌워 키우기 위해서는 돼지우리를 작게 만들어 돼지의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에 반해 제주도의 통시는 돼지우리와 돼지가 사는 곳을 별도 공간으로 만들고 돼지우리를 크게 만들어 돼지의 활동 범위를 넓게 만들었다. 통시는 거름 생산을 위한 사람들의 지혜의 결실이며, 부가적으로는 뱀으로부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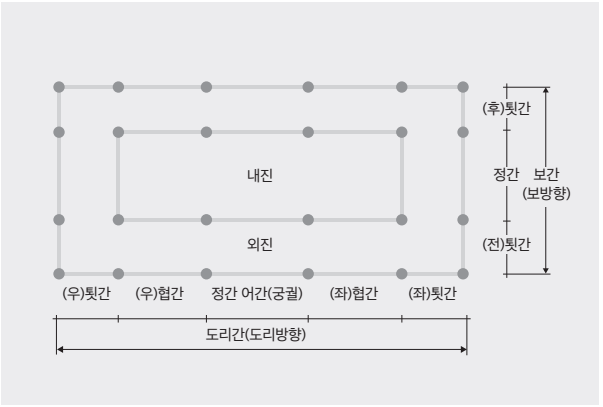
참고문헌 뒷간, 그 서구문화의 확실한 식민지(정연학, 민속문화, 무엇이 어떻게 변하는가, 2001), 똥이 자원이다-인류학자의 환경론(전경수, 통나무, 1992), 우리문화 이웃문화(신영훈, 문학수첩, 1997), 자연을 꿈꾸는 뒷간(이동범, 들녘, 2000), 토종마을 순종사람들(최성민, 웅진출판, 1995), 토종문화와 모듬살이(홍석화, 학민사, 1997), 厠所與民俗(鄭然鶴, 民間文學論壇 第1期, 1997),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grandculture.net).

필자 정연학(鄭然鶴)

뒷간

정의 건물의 내진內陣 밖에 달아 낸 외진外陣의 주간柱間.

개관 뒷간[退間]은 목조건축의 고주高柱(건물 내부에 다른 기둥보다 높게 세운 기둥)와 평주平柱 사이를 지칭한다. 규모가 큰 건물에서는 사방으로 뒷간이 구성되지만 살림집에는 전면에만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뒷간의 구성으로 긴 처마를 확보할 수 있어 강한 햇빛을 막을 뿐만 아니라 빗물로부터 목조건축을 보호하





퇫간 |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 | 김왕직·동녘

는 역할을 하고, 내외부의 매개 공간으로서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되었다.

내용 퇫간은 평면상 고주로 둘러싸인 내진 밖의 외진을 의미한다. 고주가 열주列柱한 외곽의 비庇에 해당하고 좁은 골목 같은 둘레의 통로와 같다고 해서 상廂이라 하기도 한다. 우리말로는 통틀어 퇫간이라 부른다. 이때 건물 정면에서 본 도리간[桁間]에서는 좌우 퇫간이라 하고 건물 측면에서 본 보간[樑間]에서는 전후 퇫간이라 하여 위치에 따라 다르게 불린다. 궁실, 관아, 사찰 등 대규모 건축에서는 퇫간이 사방으로 구성되지만 살림집에서는 전면에만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살림집에서의 퇫간은 방 앞에 반반 칸이나 반 칸 또는 한 칸 넓이로 만들어진 마루를 일컫는다. 지역에 따라서는 방 뒤쪽에 퇫마루가 있는 뒤칸이 설치되기도 한다. 사묘祠廟 건축에서는 전면에 개방된 퇫간을 두는 것이 일반 형태이다. 제주도 민가에서는 전면의 퇫간을 난간이라 부른다.

중국에서의 퇫간은 봉당과 마찬가지의 토상土床으로 맨바닥의 토방土房이지만 한옥의 완성된 구조에서는 여기에 마루가 깔린다. 마루를 깐 퇫간은 일본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이지만 일본 가옥에는 장마루가 깔리고 우리 가옥에는 우물마루가 깔린다. 퇫간의 등장으로 한옥은 다양해진다.

특징 및 의의 목조건축에서 퇫간을 구성할 경우 고주와 퇫기둥이 지붕 하중과 풍하중風荷重(바람으로 인하여 구조물의 외면에 작용하는 하중)을 분담하므로 더 안전한 구조가 된다. 따라서 얇은 부재를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참고문헌 동중국해 문화권의 민가(윤일이, 산지니, 2017), 한국건축대계4-한국건축사전(장기인, 보성문화사, 1985), 한국의 민가(조성기, 한울아카데미, 2006), 한국의 살림집(신영훈, 열화당, 198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윤일이(尹一二)

퇫마루

정의 목조 건축물의 퇫간에 놓인 마루.

개관 퇫마루는 목조건축의 고주와 평주 사이 퇫간에 놓인 마루를 일컫는다. 퇫마루는 외부에 개방되어 있으면서 그늘을 제공하고 방과 방 사이의 통로 구실도 하며 간단한 가사家事도 처리할 수 있는 일상생활의 다목적 공간이다.

내용 퇫마루는 목조건축의 고주와 평주 사이 퇫간에 놓인 마루를 일컫는다. 한옥은 여름과 겨울을 동시에 나야 하기 때문에 내외부 공간 사이에 완충 공간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완충공간이 바로 퇴이고, 퇴에 깔리는 마루가 퇫마루이다. 퇫마루는 외부에 개방되어 있으면서 그늘을 제공하고, 안방과 건넌방 등을 연결하는 통로 구실을 한다. 이뿐만 아니라 잠시 걸터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간단한 가사도 처리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이다.

툇마루의 바닥은 대청과 마찬가지로 우물마루로 하고, 마루의 끝은 외부와 통하게 한다. 온돌방과 툇마루 사이에 있는 벽에는 창호를 둔다. 단칸방인 경우에는 문을 내고 온돌방 옆에 대청이 있는 경우 머름을 설치하고 그 위에 창을 두 짝 낸다. 마루가 높아서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특수하게 머름을 설치하고 창을 다는 경우도 있다. 집으로 들어가는 첫 단계로 토방에 놓인 섬돌을 딛고 올라서면 툇마루가 된다. 툇마루를 놓을 때 아래쪽에 아궁이를 설치하기 위하여 마루를 높여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고상마루[高床抹樓]라고 한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살림집에 툇마루 설치가 늘었다. 대부분 전면은 거주공간, 후면은 수장공간으로 사용되었다. 툇마루는 공간 활용성을 높였고, 실내 면적을 넓히는 효과도 있었다.

일본 민가에서도 내외부 사이에 툇마루와 차양칸의 완충 공간을 두어 강한 비와 일사로부터 건물을 보호하면서 내부 환경을 조절하였다. 이곳은 우천 시 곡물을 건조하는 장소이자 농·작업 공간이었고, 낮에 편히 쉬는 장소이면서 접객 공간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실내로 들어가는 현관 역할도 겸하였다.



툇마루 | 경북 안동 하회 옥연정사 | 최지현

특징 및 의의 툇마루가 생기기 이전에는 툇간을 그냥 흙바닥으로 하였고, 평상 짜듯이 만든 들마루를 놓아서 필요하면 마당에 내어놓기도 하였다. 이동식 마루인 셈이었다. 여름에는 주로 마당에서 쓰고, 눈이나 비가 오거나 겨울에는 툇간에 놓고 썼다. 이것이 발전하여 툇마루가 되었지만 아직도 들마루를 쓰고 있는 집이 상당수 있다.

참고문헌 동중국해 문화권의 민가(윤일이, 산지니, 2017), 알기쉬운 한국건축용어사전(김왕직, 동녘, 2007), 한국건축대계4-한국건축사전(장기인, 보성문화사, 1985), 한국의 살림집(신영훈, 열화당, 198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윤일이(尹一二)

판문
板門

정의 나무 널로 문짝을 만들어 넣은 문의 통칭.

내용 나무 널로 문짝을 만들어 끼워 넣은 문을 '판문板門'이라고 한다. 각종 『영건의궤營建儀軌』에서는 판문의 모양, 사용 위치, 크기 등과 상관없이 단순히 '판문板門'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나뭇가지나 가는 나무를 살로 엮어 만든 사립문과는 달리 판문은 통나무를 그대로 널로 켜서 문짝으로 사용한다. 사립문에 대비되는 대표적인 문의 형태가 판문이다. 판문은 보안과 차폐 성능이 뛰어나 '대문', 맹수의 공격을 받는 지역의 '덧문', 직사광선의 차단이 필요한 '부엌문'과 '곳간문' 등에 널리 쓰였다. 대부분 여닫이 형태이다.

널의 크기와 두께·조립형태 등에 따라 '통판문', '널문', '판장문', '우리판문', '빈지널문' 등으로 세분화된다. 문짝을 하나의 널 형태로 가공하여 넣은 문을 '통판문'이라고 한다. 통판문은 두껍고 튼튼하다. 그러나 부재가 문 한 짝 폭 이상이 되는 대형 부재여야


경북 청송 후송당 고택 | 서헌강


경북 안동 의성김씨 서지재사 | 2008 | 장필구

판문

하고, 문짝이 틀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느 정도 두께가 있어야 하므로 무거운 단점이 있다. 여러 장의 얇은 널을 띠장이라고 하는 얇은 각재로 연결해서 마치 통판문처럼 하나의 문짝으로 만들어 넣으면 '널문' 또는 '널판문'이 된다. 통판문을 보완한 문이 널문 내지 널판문인데, 널문을 쓰면 통판문처럼 굳이 큰 나무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판장문'은 널문과 같이 띠장으로 연결해서 쓰면서도 널의 두께가 널문보다 두껍다. '우리판문'과 '당판문'은 문의 뼈대인 문울거미에 청판이라고 하는 얇은 형태의 널을 끼워 넣은 것이다. 우리판문에서 우리는 울거미를 지칭한다. 당판문은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1801)에서만 나타난다. '빈지널문'은 널을 가로로 차곡차곡 쌓아 올린 형태로 곳간의 곡식량을 빈지널문 높이로 가늠할 수 있다. 빈지널문은 빈지널을 넣고 뺄 수 있는 구조로 만들기 때문이다.

의궤에 등장하는 판문은 크게 두 종류로 정리할 수 있다. 널을 띠장으로 이은 널문 내지 널판문이 그 하나이다. 다른 하나는 사방으로 문의 뼈대에 해당하는 문울거미를 만들고 청판을 끼는 우리판문 형태이다.

특징 및 의의 판문 중에서도 통판문은 수령이 오래된 큰 나무를 찾아야 문짝 하나를 제작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었다. 건조가 덜된 나무로 직사광선이 지속적으로 닿는 부위를 통판문으로 하는 경우 비틀어지기 쉽다. 하지만 목재를 다루는 도구가 발달하면서 널을 얇게 켤 수 있게 되어 판문도 다양해졌다. 차폐 성능이 뛰어난 판문의 장점은 살리면서도 용도에 따라 판문의 두께조절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다. 판문은 무거우므로 문을 달 때 돌쩌귀가 아닌 문얼굴 위아래에 둔테라고 하는 두꺼운 목재를 덧대는 경우가 많다.

부엌문과 같이 빛의 차단이 중요한 공간에는 널을 얇게 켜서 잇는 널문이 주로 쓰인다. 판장문은 중문이나 대문에서 볼 수 있다. 우리판문의 청판과 같이 얇은 판재를 켜서 문울거미에 끼워 넣는 기술은 창호 하단부의 궁판에서도 볼 수 있다. 가벼운 우리판문 제작기술이 보급되면서 투박하지 않고 대청에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손쉽게 판문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곳간에서 사용하는 빈지널문은 각각의 널 뒤에 두 개의 띠장을 붙인다. 이때 널은 가로로 길게 두었을 때 띠장은 세로로 둔다. 널 하나에 두 개의 띠장을 일정 간격으로 고정한다. 널의 띠장은 널의 높이보다 길게 내밀어 위아래 널을 연이어 두었을 때 띠장이 서로 엇갈리게 놓인다. 널을 한 장씩 가로로 넣으면 널 뒤에 있는 띠장이 엇갈리면서 고정되는 원리이다. 널을 한 장씩 빼내면 널이 남아 있는 높이로 곳간에 남아 있는 곡식의 양을 알 수 있다. 빈지널문은 창호의 기능에 보안과 측정의 기능을 더한 복합기능의 문이다.

참고문헌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김왕직, 동녘, 2007), 영건의궤(영건의궤연구회, 동녘, 2010), 한국건축개념사전(한국건축개념사전기획위원회, 동녘, 2013), 한국건축대계1-창호(장기인, 보성각, 2000), 한국건축대계4-신편 한국건축사전(장기인, 보성각, 2014), 한국의 문과 창호(주남철, 대원사, 200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stdict.korean.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조현정(趙賢貞)

판벽
板壁

정의 기둥·샛기둥에 나무 판재를 가로 또는 세로로 막아 만든 벽.

개관 판벽板壁은 벽면에 널을 붙여 막은 것으로, 토벽에 비하여 빗물에 붕괴되지 아니하고 간단하고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주로 목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불에 잘 타고 썩기 쉽다. 실내를 적당한 온도로 유지하는 단열 성능도 토벽에 비하여 낮다.

내용 판벽은 기둥 또는 샛기둥 사이를 나무 판재로 막아서 만든 벽이다. 판벽은 널을 붙여 대는 가로 또는 세로 방향과 판벽을 설치하는 건물 외부 또는 내부 위치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건물 외부 기둥에 널을 가로 대어 만든 판벽을 가로판벽이라 하며, 위쪽 널판을 아래쪽에 겹치게 하여 빗물이 내부에 스며들지 않고 바깥으로 흘러내리게 하는 비늘판벽이 이를 대표한다. 건물 외부에 판재를 세워서 막는 판벽을 세로판벽이라 한다. 판재를 상인방과 하인방 사이에 홈을 파서 끼워 넣고 가로 방향의 중간띠장을 안팎에 대고 못이나 괫쇠로 고정한다. 중간띠장은 외관을 고려하여 두 줄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판재를 경사각으로 빗대는 방법도 있으나 창호 또는 특수의장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다. 외부판벽을 만들 때는 빗물이 내부로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늘판벽의 경우 위 판재를 아래 판재 위에 겹쳐 대거나 반턱맞춤으로 연결하여 해결하였고, 세로판벽의 경우에도 판재 간에 겹치거나 반턱맞춤을 사용하였다. 다만 세로판벽에서는 판재의 외측 면이나 내측 면에 좁고 긴 틈막이대(솔대)를 덧붙여서 판재의 맞댐 면을 보완하기도 한다. 외부판벽은 단열 성능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한옥의 부엌, 창고에 주로 사용되었다. 내부는 마루나 마른 흙바닥으로 구성하여 건조한 실내공간을 유지하였다. 또한 외부판벽은 맞배지붕 측면에서 건물로 불어오는 바람을 막는 풍판風板이나 팔작지붕 측면의 합각판벽에도 사용된다. 풍판과 합각판벽은 도리의 단부에 풍판틀을 성긴 격자 형태로 설치하고, 그 바깥 면에 세로판벽을 박아 대고 솔대로 틈을 막아 완성한다. 판재를 세로로 부착하고 솔대로 틈을 막는 방식은 판재로 담장을 만드는 판장板墻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건물 내부에 사용되는 세로판벽이나 가로판벽 공법은 외부에 사용하는 경우와 동일하다. 다만 내부 가로판벽은 기둥과 샛기둥에 못을 박아서 고정할 수 있지만 세로판벽은 기둥과 샛기둥에 띠장을 가로로 막아 대야 한다. 띠장은 기둥과 샛기둥의 면에 못을 박아 대지만 띠장을 기둥과 샛기둥의 면 내에 둘 때는 띠장을 잘라 대거나 반턱맞춤으로 한다. 세로판벽의 널판은 하부 걸레받이, 상부는 두겁대 또는 반자돌림대에 각각 홈을 파서 끼운다. 판벽을 실내에 사용할 경우 가로판벽과 세로판벽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비늘판벽은 사용하지 않는다. 빗물이 침입하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내판벽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전체를 판벽으로 구성할 수도 있지만 벽체의 하부 쪽에만 판벽을 설치할 경우 특별히 징두리판벽이라는 호칭을 붙였다. 징두리는 바닥에서 1.2m 높이 정도까지의 벽체 아랫부분을 지칭하는 용어로, 징두리판벽은 바닥과 접하는 걸레받이와 벽 중간 높이의 두겁대 사이에 널을 끼워 넣어 조립한다. 징두리판벽 중에서도 걸레받이와 두겁대 사이에 격자 틀을 짜고 사각형의 넓은 널이나 합판을 끼우는 유형을 양판벽洋板壁이라 한다. 양판벽은 판벽 중에서 정밀한 가공을 필요로 하고 래커칠로 마감하는 등 근대에 도입된 내부판벽 수법을 보여 준다.



판벽 | 경북 경주 양동 낙선당 고택 | 국립민속박물관

특징 및 의의 판벽은 흙이나 돌을 사용하지 않고 목재널을 가로 또는 세로 방향으로 막아 대어 조성한 벽체를 말한다. 조적식이 아니기 때문에 경량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흙과 돌에 비하여 습기와 화재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전통건축물의 중심 공간보다는 부엌, 창고 등의 부속 공간에 활용되었다. 실내에서는 공간을 나누는 실물 경계로 활용되었다. 근대에는 징두리벽이나 양판벽과 같은 정교하게 가공한 부분벽체로 활발하게 사용되었다.

참고문헌 林園經濟志, 충북지역 토담집의 조영특성(백성용,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한국건축대계4-신편 한국건축사전(장기인, 보성각, 1998), 한국건축대계5-목조(장기인, 보성각, 200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장필구(張弼求)

판자촌
板子村

정의 판자나 천막, 목재 조각 등을 이용하여 만든 허름한 집들로 형성된 집단 무허가 불량 주거지.

내용 판자촌板子村은 임시 거처를 위하여 판자, 천막, 목재 조각 등을 이용하여 지은 집들로 형성된 무허가 불량 주택지를 일컫는다. 기원은 조선시대 유랑민들이 도성 밖에 토막을 짓고 기거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근대 무허가 불량 주택지는 일제강점기 토막촌에서 광복과 6·25전쟁을 거쳐 월남민과 도시의 이재민이 구릉지, 공터, 천변 등에 주거 형태로 모여 살면서 형성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서울 등 도시로 유입된 이농민들이 높은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워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구릉지, 공터 등에 토굴土窟이나 토막土幕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토막민으로 불렸다. 토막민은 대부분 빈곤한 행상, 일용 노동자 등 하층민 또는 빈민층이었다.

1945년 광복 이후 해외에 거주하던 동포들이 귀국하면서 주택난이 심하여졌다. 1946~1947년 2년에 걸쳐 월남한 피란민들 역시 도시로 몰려들면서 임시 거처를 만들어 거주하였다. 이들은 주로 미군이 남긴 목재 조각과 깡통 등을 이용하여 집을 지었다. 6·25전쟁이 끝난 뒤에도 월남민과 피란민이 서울 등 도시로 한꺼번에 몰리면서 남겨진 빈터와 도시 인접 지역으로 피란처와 같은 천막촌 및 판잣집이 급속도로 늘어났다. 해방촌, 서부 이촌동, 청계천, 금호동, 봉천동 일대가 당시 서울의 대표 판잣집 동네였다. 판잣집은 난방시설, 수도시설, 변소시설 등을 개별로 갖추지 못한 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거주 공간 역시 제대로 된 부재가 없어서 임시로 잡지, 신문지 등으로 창문을 대신하였다. 지붕은 두터운 검정 기름종이, 천막, 가마니로 덮은 형태였다.


청계천가를 따라 빼곡하게 늘어선 판잣집들


판자촌에 빨래가 널린 풍경

판자촌 | 광복 이후 | 서울역사박물관

1950년대에 형성된 무허가 정착지를 철거하고 피란민과 이재민들을 시 외곽 공유지로 이주시키려고 하였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서울시는 1958년 미아리에 정착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시작으로 1972년까지 서울시 외곽에 이주민 정착지를 조성하였다. 1960년대 이후 경제 개발이 본격 시행되면서 농촌으로부터 도시로의 이농현상이 급격히 진행되었다. 당시 농촌 생활의 어려움과 도시 생활에 대한 동경은 농민들의 도시 이주 현상을 더욱 촉진시켰다. 이는 곧 도시의 주택난을 심화시켜 도심 주변에 판자촌과 같은 무허가 정착지를 확산시켰다. 판자촌은 하천변, 구릉지 등에 형성되었다. 주로 일자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심 주변의 빈 땅에 형성되었다.

1960년대 경공업 중심 경제개발 정책으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당시 판자촌은 도시로 유입된 노동자들에게 값싼 주거지였다. 그리고 이렇게 도시 또는 공업지역으로 유입된 대규모의 노동 인력에게 판자촌과 같이 다소 안정된 주거지가 제공되면서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증가하는 불량 주거지로 인해 정부는 1960년대 후반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도시 외곽에는 새로운 정착지를 조성하는 사업과 시민아파트 건립이 추진되었다. 1960년대부터 건립된 시민아파트는 부실 공사 등으로 인하여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 급기야 1970년 마포구 와우 시민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사업이 중단되었다. 1960년 말부터 1970년 초까지 도심 안팎의 무허가 정착지 및 불량 주거지를 철거하고 도시 외곽에 집단 정착지를 새롭게 조성하였다. 이는 서울 도심의 무허가 정착지 또는 불량 주거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이주시키기 위함이었다. 청계천 복개공사와 세운상가 아파트 건립 등으로 생겨난 철거민들 역시 경기도 광주로 집단 이주시키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당시 서울의 대규모 집단이주 정착지는 북부지역의 미아·상계·도봉·쌍문·수유, 서부지역의 홍은·남가좌·북가좌·수색·연희, 강남지역의 사당·봉천·신림·구로, 남동부지역의 가락·거여·마천 등이었다.

서울시는 1970년대 들어서 무허가주택을 양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점유권을 인정하고 주택 개량을 장려하였다. 이때 새로운 판자촌의 형성을 엄격하게 통제하였고 새롭게 유입된 빈곤층은 기존 판자촌에 세를 들어 거주하게 된다. 1980년대 도시 확장 및 개발, 지하철 건설로 판자촌에 대한 개발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재개발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유치 이후에는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재개발사업이 서둘러 진행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 판자촌은 거의 사라졌다.

특징 및 의의 판자촌과 같은 근대의 무허가 불량 주거지는 일제강점기에 자생한 지역과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개발로 인하여 밀려난 사람들이 도시 내 빈터, 구릉지, 천변 등에 임시 거처를 만들면서 조성되었다. 광복과 6·26전쟁 이후에는 월남민, 이재민, 농촌에서 도시로 옮긴 이주민 등이 도시로 몰리면서 기존의 무허가 불량 주거지는 더욱 확산되었다. 이후 도시 외곽에 새롭게 조성된 정착지는 빈곤층의 주거 개선보다 도시 미관 개선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판자촌을 도심 외곽으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같은 판자촌은 근대부터 1970년까지 우리나라의 열악한 도시 환경과 주택 문제의 단면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무허가 정착기 정책과 국가 역할(김수현, 주택연구19, 한국주택학회, 2011), 불량촌과 재개발(김형국, 나남, 1989), 서울시 집단 무허가 불량 주거지의 형성과 변화에 따른 유형화와 특성에 관한 연구(김영욱 외, 도시설계16, 한국도시설계학회, 2015), 최소한의 주택의 사회사적 변천과 공간 특성(전남일,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27-3, 대한건축학회, 2011), 판자촌에서 쪽방까지(이소정, 사회복지연구29,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6).

필자 김영수(金英洙)

팔걸이

정의 팔을 얹어 기댈 수 있는 좌식용 가구.

내용 팔걸이는 전통시대의 좌식생활에서 앉을 때 겨드랑이 밑에 두고 팔을 편하게 얹어서 기대고 앉을 수 있도록 제작한 받침대이다. 좌식용 가구로, 궤상机

床·의침依枕·은궤隱廚·제궤梯廚·빙궤齡廚·협식脇息이라는 명칭으로도 부른다.

신라 문무왕文武王(661~681)이 중국 한나라 공광孔光(기원전 65~기원전 5)의 고사故事에 따라 삼국통일에 공을 세운 김유신金庾信(595~673)에게 처음으로 팔걸이를 하사한 이후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에까지 이어졌다. 조선시대에는 임금이 나이가 70세 이상의 늙은 대신大臣이나 중신重臣에게 지팡이와 함께 팔걸이를 하사하였는데, 이를 사궤장賜几杖이라 하였다. 이와 함께 재상연宰相宴이라는 연회를 베풀고 노고를 치하하였다. 하사한 팔걸이의 모양에 관한 기록은 『세종실록世宗實錄』「오례의五禮儀」에서 찾을 수 있다.

팔걸이는 주로 느티나무, 참죽나무, 소나무 등 목재로 제작하여 옻칠로 마감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팔걸이 구조는 상판과 밑판, 가운데 지지대로 구성하였다. 상판과 밑판은 판재로 제작하여 판재의 앞과 뒤를 원형으로 둥글고 넓게 가공하였다. 가운데 부분은 전체를 곡선으로 가공하였다. 이는 팔을 편하게 얹을 수 있도록 기능이 고안된 것이다. 바닥과 상판을 받치는 중앙 구조는 원통의 봉으로 가운데 지지대를 세우고, 양 측면은 판재로 보강하여 안정된 구조로 제작하였다.

특징 및 의의 팔걸이 가운데의 원통 지지대는 덩굴이나 실타래가 꼬인 형태로 조각하여 장식 효과를 내었다. 사용자의 기호와 요구에 따라 가운데 지지대를 수납공간으로 제작하여 담배 등 기호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한 경우도 있고, 팔걸이의 표면을 나전으로 상감하여 화려하게 장식하기도 하였다. 양 측면의 판재는 만卍자, 수壽자, 십장생, 꽃문양 등 다양한 형태로 조각이나 투각으로 가공하여 장식 효과와 함께 사용자의 불로장생不老長生을 기원하였다.



팔걸이 | 길이41 너비14 높이21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참고문헌 한국 목가구의 전통양식(배만실,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8), 한국의 목공예-하(이종석, 열화당, 1988), e뮤지엄(emuseum.go.kr).

필자 김희수(金憙洙)

팔작지붕

정의 지붕의 한 형태로, 네 면에 지붕면이 있고 측면에 합각이라는 삼각형의 벽이 있는 지붕.

내용 팔작지붕을 합각지붕이라고도 하는 이유는 측면에 삼각형 벽인 합각이 있기 때문이다. 팔작지붕은 마치 우진각지붕 위에 맞배지붕을 올려놓은 것과 같은 형상을 하고, 합각은 맞배지붕의 박공면과 같은 모습이다. 맞배지붕의 단점은 측면이 비바람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우진각으로 만들면 해결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서라도 이를 보완하여야 하였다. 가장 쉬운 방법은 안동·영천 지역의 민가 일부와 영광 영광향교 명륜당과 같이 맞배지붕 측면에 부섭지붕(가적지붕)을 덧다는 것이다. 부섭지붕은 간단한 외쪽지붕으로, 민가에서는 사랑채 측면 함실아궁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맞배지붕에 덧붙여 만드는 경우가 많다. 예산의 추사고택에서 그 사례를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경주 양동 무첨당, 달성 삼가헌, 안동 하회 북촌댁, 영천 숭렬당, 의성 소우당 등 많은 사례가 있다. 이러한 고민들이 구체화되면서 일체식으로 바뀐 것이 팔작지붕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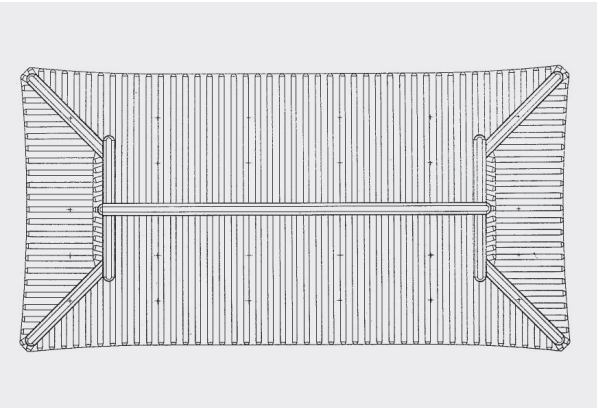
팔작지붕은 측면에 비가 들이치는 맞배지붕의 단점과 추녀 및 선자연이 커지는 우진각지붕의 단점을 보완한 지붕 형식으로, 시대상 가장 늦게 탄생하였다.

현존하는 건물에서 가장 오래된 사례는 고려시대에 건축된 부석사 무량수전을 들 수 있다. 본격 사용된 때는 고려 후기 다포 형식이 도입되면서부터로 추정된다.

특징 및 의의 현존하는 한국건축물의 지붕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은 형식이다. 주로 규모가 큰 정전 등에 사용되었으며, 현재까지 가장 격식 있는 지붕으로 알려져 있다. 팔작지붕은 다포 형식에 많이 사용되었고, 규모가 크며 겹처마가 많다. 지붕마루도 용마루, 내림마루, 추녀마루가 모두 갖추어져 있어서 가장 화려한 지붕 형식이다. 팔작지붕은 맞배와 우진각의 단점을 모두 보완하였지만 추녀, 선자연, 외기 등의 사용으로 맞배집에 비하면 30% 정도 목재 소요량이 많은 지붕 형식이다. 또 추녀를 짧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추녀의 안쪽 물림 길이가 짧아 추녀가 처지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추녀를 받치는 별도 기둥인 활주가 탄생하게 되었다. 건물 내부에서는 추녀 뒤초리가 중도리 위에 올라가면서 측면 서까래 말구가 내부에서 보이기 때문에 외기와 눈썹천장 설치가 부가된다.

팔작지붕은 중국과 일본에도 공히 존재한다. 그러나 합각의 위치, 가구법, 조형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의 팔작지붕은 추녀 양쪽으로 정선자를 거는 것이 일반 형태이다. 즉 선자연의 안쪽 꼭짓점이 중도리 왕찌에서 만나지만 중국의 경우는 추녀에 마족연 형식으로 건다. 일본의 경우는 선자연이 사라져 평연으로 걸면서 서까래가 장식화되었다. 앙곡과 안허리곡이 있는 선자를 작도하고 치목하여 거는 기술은 매우 숙련된 목수 정도가 가능한 고난도 기술이다. 고대에서부터 발달된 선자연기법은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잘 전수되고 있으나 중국과 일본에서는 사라졌다. 한국건축의 지붕곡이 가장 아름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팔작지붕의 용마루는 적새를 높이 쌓아 만든다. 바람이 센 곳이나 궁궐·사당과 같은 건물은 적새 위에 회를 발라 하얗게 마감하기도 한다. 이를 양성이라고 한다. 용마루 양쪽에는 취미와 취두라는 장식기와를 올린다. 대체로 내림마루에는 용두, 추녀마루에는 잡상을 각각 올린다. 대개는 화마를 막는 벽사 의미로 장식기와를 올린다. 합각 부분은 삼각형으로 생긴 수직 벽으로, 합각벽이라고 부른다. 마감 재료와 장식은 다양하다. 팔작지붕은 대개 우물천장을 설치한다. 합각은 우물천장 상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천장 속 환기를 위하여 환기구를 설치한다. 합각벽은 맞배지붕의 풍판과 같이 널판과 쫄대목을 이용한 판벽, 벽돌을 쌓아 만든 화장벽, 기와편을 사용한 와편벽 등 재료와 모양이 다양하다. 화장벽에는 각종 문양을 연출하여 사람의 눈을 그려 환기구를 내기도 한다. 보통 얼굴을 그리거나 화초나 문자문양 등 꽃담과 같이 장식한다.



팔작지붕 와복도 |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 | 김왕직·동녘



팔작지붕 | 경북 안동 | 최지현

참고문헌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김왕직, 동녘, 2007), 지혜로 지은 집 한국건축(김도경, 현암사, 2011), 한국건축대계-신편 한국건축사전(장기인, 보성각, 1998).

필자 김왕직(金王稙)

편액
扁額

정의 글자를 써서 벽이나 문 위에 걸어 놓는 널조각의 통칭.

역사 편액扁額은 고대 중국으로부터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따르면, 신라 경덕왕 때인 757년 백월산(경상남도 창원) 남쪽에 남사南寺를 창건하면서 편액을 내렸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므로 통일신라 때부터는 편액을 건물에 거는 관행이 자리잡았다고 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사찰이나 궁궐·정자에 편액을 달았다는 기사뿐만 아니라 개인 주택이나 서재·정자 등에도 이름을 붙여 편액을 달았다는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 편액이 지배층으로까지 확산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118년(예종 13)에는 안화사安和寺의 불전 편액을 송 황제(북송 휘종)가 직접 써서 주었으며, 절 문의 편액은 황제의 명에 따라 태사 채경蔡京이 써서 보내 주었다는 기사가 『고려사高麗史』에 남아 있다. 이 외에도 고려시대에는 궁궐의 전각이나 정자를 새로 세울 때 그 이름을 지어 편액을 달았다는 사례가 여럿 등장하며, 고려 말의 문신 김구용金九容(1338~1384)은 자신이 거처하던 곳을 육우당六友堂이라 이름 짓고 편액을 달았다고 한다.

내용 현재 남아 있는 편액의 대다수는 조선시대의 것이다. 당시 성문과 궁궐의 전각, 사찰과 정자뿐만 아니라 개인 주택에도 당호堂號를 붙이고 편액을 거는 일이 흔하였다. 편액의 용도도 건물 이름을 나타내는 데 국한되지 않았다. 건물의 내력을 기록한 기문記文을 편액으로 걸거나 정자에 들른 시인 묵객들이 시문을 지어 거는 일도 널리 행해졌다. 그리하여 편액은 조선시대 양반주택 및 정자 건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다.

또한 편액을 통해 건물의 사회적 위상이 좌우되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조선 중기에 이르러 등장한 사액서원이 있다. 1550년(명종 5) 풍기군수가 된 퇴계 이황이 1543년(중종 38) 경상도 풍기군수로 재임하던 주세붕周世鵬(1495~1554)이 세운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에 편액을 내려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는 어필御筆 편액과 서적, 토지 등을 하사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액서원은 숙종 대까지 131곳에 이르렀다. 사액서원은 법적인 특혜뿐만 아니라, 사액을 받지 못한 인근의 다른 서원들보다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누렸다.

근대 이후에는 편액은 그 용례가 다소 변화하고, 사용되는 범위가 제한되는 양상을 띤다. 전통건축 방식으로 짓는 건물의 이름을 편액으로 거는 것은 최근까지도 답습하는 예가 적지 않지만, 한자나 한시를 붙이기보다는 한글로 대체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서양식 건축에 기초한 근현대의 건물은 현판으로 대체하였다. 현대에 가까울수록 전통건축의 비중이 줄고 있기 때문에, 편액이라는 단어는 현대식 건물에 사용



경북 안동 하회 양진당



경북 경주 양동 낙선당 고택

편액 | 국립민속박물관

되기보다 전통건축에 국한하여 쓰이거나 현판과 혼용되는 실정이다.

특징 및 의의 편액은 글씨를 쓴 면과 이를 둘러싼 테두리로 구분되는데, 테두리는 경사를 주고 단청을 칠하거나 조각하여 장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편액의 내용을 경전에서 인용해 쓸 때는 그 건물의 용도에 어울리는 구절을 따오는 예가 많다. 경복궁에서 국왕이 집무하는 편전에 '사정전思政殿'이라는 편액을 다는 식이다. 또한 염원을 담아 편액을 짓기도 한다. 이를 토대로 건축 주체가 추구하는 목표나 인생관 등을 추론할 수 있다. 정자의 편액이라면 경치를 찬미하거나 학문에 임하는 자세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또 시문을 내건 편액이라면 선비의 도락과 풍류를 음미하는 내용이 주종을 이룬다. 따라서 편액을 쓰거나 지은 인물이 건물을 세운 인물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그 지역의 사회적 관계망(학연, 혼맥, 문벌 간의 관계 등)을 분석하는 연구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참고문헌 궁궐 현판의 이해(문화재청, 2006), 편액-뜻이 담긴 현판 편액(한국국학진흥원, 2009).

필자 이대화(李大和)

평
坪

정의 토지와 건물의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

내용 평坪은 토지와 건물의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이다. 1평은 6자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나타내므로 6자×6자를 말한다. 이 단위는 한 사람이 팔과 다리를 벌리고 누울 수 있는 넓이에서 기원하였다고 한다. 1평은 3.3058m^2이며 제곱미터로 표시된 면적은 3.30578로 나누면 평수로 환산된다. 예를 들어 아파트 면적이 80m^2라면 이를 대략 3.3으로 나누면 약 24평이 된다.

면적 단위로서 평은 주로 일본에서 사용되었다. 1909년 도량형법이 개정될 때 평 개념이 등장하면서 법정 단위가 되었고, 일제강점기 토지대장에 평이 사용되면서 면적 단위로 정착되었다. 말하자면 평은 일본이 1900년대 초 우리나라 토지면적을 측정하기 위해 들여온 단위라고 할 수 있다. 1961년 <계량에 관한 법>이 제정되면서 미터법이 시행되어 법정 계량의 기본단위를 미터로 정하고 1964년부터 전면 시행하여 도량단위 통일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983년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제곱미터 단위로 모두 정비되었다. 미터법 발효 이후에도 주택의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보다 평이 많이 사용되었으나 2007년 7월 1일부터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평 단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일반인들이 평을 익숙한 면적 단위로 인식하고 있고, 단위면적당 주택가격도 1m^2가 아닌 3.3m^2를 기준으로 한 가격이 아직도 통용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현행법에 의하면 평 사용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2007년부터 관인계약서에 평 단위를 삭제하였고, 등기부나 토지대장 등 공문서의 면적 단위도 제곱미터로 통일되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해 놓은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역시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평과 같이 사용되는 개념에 '평형'이 있다. 아파트 분양 광고를 보면 '25평형, 전용면적 62.8m^2'라고 표시된 경우가 있다. 이 면적은 평으로 환산하면 19평에 해당하는데 전용면적 19평에 공용면적을 합하면 25평 정도가 되어 '25평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평'과 '평형'은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아파트에는 전용면적·공용면적·공급면적(또는 분양면적) 등 다양한 면적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것을 공급면적(또는 분양면적)으로 이해하면 된다. 통상 말하는 평당 분양가는 공급면적, 즉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한편 취등록세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부과된다.

참고문헌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김왕직, 동녘, 2007),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or.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천현숙(千賢淑)

평상
平牀

정의 좌석座席이나 침상寢牀을 통칭하였다가 19세기 이후 침상 크기의 상면床面을 살로 만든 가구.

개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 '평상平床, 平牀'은 자리 형태나 그 아래로 다리가 달린 앉는 의자 혹은 누울 수 있는 침상 가구 모두를 지칭하였다. 현전하는 조선 후기의 평상은 침상 크기에 낮은 다리를 한 것이다.

본래 의자 형태 혹은 침상 형태를 모두 포함하던 평상의 용도는 고대부터 발달한 중국의 '탑榻'과도 같다. 탑이나 상床이라는 용어는 삼국시대에서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 문헌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의자나 침상을 가리켰다.

중국의 탑은 탑면榻面이 판板으로 되어 있고, 3면에 난간을 만들어 두었으며 다리를 다소 높게 하였다. 이에 비해 조선 후기 이후 만들어진 '평상'은 침상 규모에 낮은 다리를 하고, 상면床面을 살로 만들었으며, 두 개나 세 개의 틀로 나뉘어 이동이 쉽게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즉 평상은 중국 '탑'의 영향을 받아 사용된 것으로, 탑 혹은 상床, 牀의 명칭으로 혼용되다가 조선 후기에 와서 우리나라 생활 여건에 맞도록 고안되어 우리 전통가구로 발전한 것이다.

내용 평상은 옛 문헌에서 '탑' 또는 '자리'의 뜻이며, 탑은 의자와 통용되기도 한다. 즉 평상은 앉는 의자나 눕는 침상 형태를 모두 가리키며, 다리를 늘어뜨릴 수 있는 높이 혹은 그보다 낮거나 다리가 없는 형태 역시 포함한다. 고구려 고분벽화 중 안악 3호분, 덕흥리 고분, 무용총, 쌍용총 등에서 묘주가 앉아 있는 자리 형태 혹은 낮은 다리가 붙은 형태의 가구를 볼 수 있다. 이 탑은 중국 한나라와 동일한 형태의 가구로, 다리가 짧고 탑면은 판板으로 되어 있다. 『고려도경高麗圖經』에서는 용도에 따라 좌탑坐榻과 와탑臥榻으로 구분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상床' 혹은 '상牀'으로도 쓰고, 그 형식이나 쓰임은 의자나 자리 혹은 침상으로 지칭된다. 『역어유해譯語類解』에서도 '상床'을 평상이라고 명시하고 양상凉床, 승상繩床, 호상胡床이 같은 뜻이라고 해서 역시 의자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조선 후기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서는 평상을 '탑' 혹은 '의자'와 구분하여 그 형태를 기록하였다. 『임원경제지』에서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를 인용한 '천연탑天然榻' 항목과 '상탑류牀榻類' 설명에서 탑이라는 것이 의자와 침상 형태를 모두 지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덧붙여 '평상'은 오늘날 전하고 있는 조선 후기 평상 유물과 그 형태가 일치하는 것으로, 탑과 분리한 우리 고유의 가구로 평상을 설명하였다.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섬용지贍用志 내용을 보면 당시 '평상'은 눕는 데 사용하는 와상臥床으로, 그 방식이 침대 틀 안에 창살처럼 나무 대를 설치하고 두 틀을 이어 하나의 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起居之具 臥床).

특징 및 의의 오늘날 전하는 평상은 우리 전통 생활에 맞게 고안된 가구이다. 두세 개로 나뉘어 있어 이동 운반이 편리하게 되어 있고, 상면이 살로 되어 있어 여름과 겨울철에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온돌을 사용한 전통 생활공간에서 낮은 높이로 된 평상에 보료를 깔면 온돌의 열기가 상면의 살 사이로 올라와 온도가 유지되고,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통풍이 되도록 만든 것이다. 제작 방법은 먼저 튼튼한 성질의 나무로 틀을 만들고, 그 안에 막대형 나무 살에 장부촉을 만들어서 틀 안에 촘촘히 끼운 것이다. 난간에는 만자문이나 뇌문을 장식하여 경쾌함을 준다.



평상 | 가로205 세로100 높이50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조선시대 평상을 사용한 계층은 침상 규모의 가구를 둘 공간이 있는 상류층에 한정되어 있었다. 용평상龍平床은 임금만이 사용하던 것으로 도금한 용머리 조각과 주칠朱漆의 화려한 좌구로 일반 평상과 구별된다. 그 외 제례祭禮에 사용된 살평상 역시 평상의 한 종류로 전해진다.

참고문헌 高麗圖經, 三國遺事, 譯語類解, 林園經濟志, 進宴儀軌, 가구(김삼대자, 한국민속의 세계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2001), 조선시대 문방제구(김삼대자, 국립중앙박물관, 1992).

필자 김미라(金美羅)



풍경 | 서울 종로구 조계사 | 국립민속박물관

풍경
風磬

정의 사찰 내 전각, 목탑 등의 처마 끝부분 또는 석탑의 옥개석 끝부분에 매달아 바람에 흔들려 소리를 내게 하는 작은 종.

내용 풍경風磬은 풍령風鈴, 풍탁風鐸, 첨마檐馬 등으로 불린다. 사찰 내 전각殿閣, 목탑 등의 처마 끝부분 또는 석탑의 옥개석 끝부분에 매달아 바람에 흔들려 소리를 내게 하는 작은 종을 말한다. 이는 중국 불교건축에서 유래한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 불교 및 불교건축의 수용과 함께 전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통일신라시대를 거쳐 점차 발전하였고, 고려시대에는 불교예술의 발달과 더불어 화려하고 다양한 모습을 보였으며, 조선시대에 이르러 일반적인 종 모양의 단순한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풍경은 주로 청동·금동·동 등으로 제작하며, 그 크기는 건물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높이가 3~4㎝에서 30㎝가 넘는 것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풍경은 몸통, 바람판, 연결구 등으로 구성된다. 몸통은 보통 종 모양이며 그 입면은 종형·사다리꼴 등으로, 그 평면은 타원형·원형·사각형 등으로 각각 구분된다. 바람판은 풍설風舌이라고도 하는데,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바람에 흔들리는 부재이다. 모양은 나뭇잎, 구름, 물고기 등으로 다양하다.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까지는 주로 나뭇잎과 구름 형태가 많이 나타나며, 조선시대 이후 물고기 형태가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연결구는 몸통과 바람판을 연결하는 부재로서 아래에 연결된 바람판이 움직이면 몸통과 부딪쳐 소리를 낸다.

풍경을 매다는 위치는 건물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사찰 전각의 경우에는 처마의 네 모서리 끝부분에 매다는데, 홑처마인 경우에는 추녀 끝에, 겹처마인 경우에는 사래 끝에 각각 설치한다. 불탑 중 목탑의 경우에는 전각과 마찬가지로 추녀나 사래 끝에 매달며, 석탑의 경우에는 옥개석 끝부분에 매단다. 그 외에도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입상과 같이 불상 머리 위의 사각형 보관寶冠 네 모서리 끝부분에 설치하기도 한다.

현존하는 풍경 중 가장 이르면서도 그 형태가 완전한 사례로는 익산 미륵사지 출토 금동풍경(풍탁)을 들 수 있다. 그 높이는 약 14㎝이며, 입면은 종형이고 평면은 타원형이다. 몸통 상단에는 원형 고리가 있고, 하단은 가운데와 양 끝단 네 개의 꼭짓점이 V자형으로 돌출된 형태이다. 또한 몸통에는 상·하대가 있는데, 상대에는 연곽과 연뢰가, 하대 중앙에는 연화문당좌가 각각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연유로 미륵사지

출토 금동 풍탁은 우리나라 종의 시원양식으로 추정된다. 그 밖에도 경주 황룡사지 출토 청동 풍탁, 경주 감은사지 출토 청동 풍탁, 창녕 말흘리유적 출토 금동 풍경과 바람판 및 연결구, 강릉 보현사 출토 금동 풍탁, 충주 숭선사지 출토 금동 풍탁 등은 우리나라 풍경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징 및 의의 사찰 내 풍경은 범종梵鐘과 마찬가지로 부처님과 중생들에게 소리를 공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 소리를 통해 수행자의 나태함이나 방탕함을 깨우치는 역할을 하는 불구佛具로서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참고문헌 밝은 빛 맑은 소리 풍탁(미륵사지유물전시관, 2011), 시공 불교사전(곽철환, 시공사, 2003),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김왕직, 동녘, 2007), 한국건축대계4-신편 한국건축사전(장기인, 보성각, 2005), 두산백과사전(doopedia.c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현승욱(玄勝旭)

풍수
風水

정의 중국에서 발원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최근에는 미국 및 유럽까지 전파된 터 잡기 이론으로, 터와 그곳에 거주하는 인간 사이에 길흉화복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주장.

개관 풍수風水는 '바람을 갈무리하고 물을 얻는다.'라는 뜻인 장풍득수藏風得水의 줄임말로, 인간의 거주지(무덤·주택·마을·도읍지) 선택에 최상의 조건을 제시하는 이론이다. 당나라와 교류가 빈번하던 삼국시대에 중국에서 유입된 이래 고려와 조선 두 왕조에서 관학官學으로 지정할 정도로 우리 민족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그 흔적을 민속과 문화유산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다.

풍수라는 용어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풍수 고전 『청오경靑烏經』에 처음 등장한다. 그러나 일반명사로서 풍수라는 용어가 우리 민족에게 익숙해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신라시대에는 '청오'가 풍수라는 의미로 쓰였다. 고려에서는 풍수 담당 관청을 '지리업地理業', 그 관리를 '일관日官'이라 하였다. 조선조 풍수관리 선발 과목이 '지리학'이었으며, 9개 고시 과목 가운데 『청오경』과 『장서葬書』를 제외하고 '풍수'란 용어를 언급한 책은 없었다. 그러나 『고려사高麗史』와 달리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는 간간이 '풍수학인' 혹은 '풍수'라는 용어가 '지리', '지술', '감여', '상지' 등과 혼용되기 시작한다. 현재에 이르러 전통의 터 잡기 이론으로 '풍수'라는 용어가 더 흔하게 사용되는 까닭은 광복 이후 서구에서 유입된 '지리학Geography'과의 혼동을 피하고 차별화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내용 풍수에는 집을 짓거나 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터를 잡고, 건물을 짓고, 공간을 배치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조경 작업 등이 포함된다. 나라나 민족을 막론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을 풍수라고 일컫지는 않는다. 중국의 풍수가 유입되기 이전에 우리 민족에게도 터 잡기 이론이 있었다. 우리말에 남아 있는 '집터', '무덤터', '장터', '굿터', '나루터', '일터', '놀이터' 등에서 '터'마다의 특징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또한 이것을 풍수라고 말할 수는 없다.

풍수는 일정한 이론과 공간 모델을 전제로 한다. 바로 동기감응설同氣感應說과 흔히 사신사四神砂로 표현되는 공간 모델이 주요 특징이다.

동기감응설은 풍수 이론의 근거가 되는 핵심으로, '명당발복설'과 동일 개념으로 이해된다. 동기감응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돌아가신 조상의 유골과 살아 있는 후손의 같은 기氣가 서로 감응한다는 것으로, 묘지 풍수와 태실胎室 풍수 이론의 근거가 된다. 다른 하나는 주변의 기와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의 기가 감응한다는 것으로, 양택陽宅 및 양기陽基 풍수의 근거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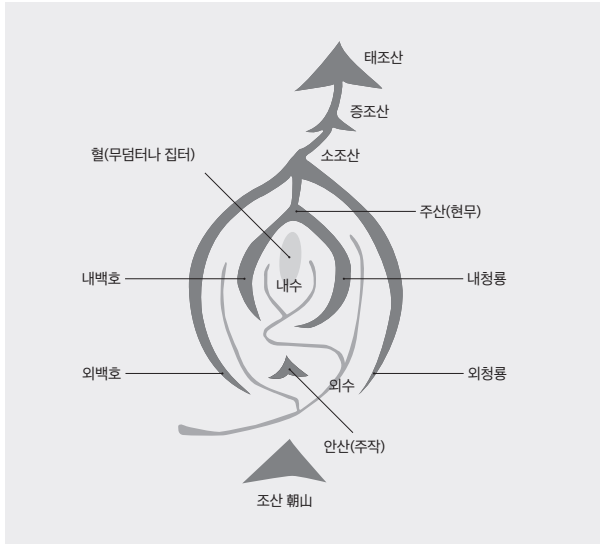
동기감응설은 풍수가 최초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춘추전국시대 이래 제자백가 사상 가운데 유사 관념들을 풍수가 수용하여 만들어진 주장이다.

『주역周易』 건괘乾卦 제이효第二爻의 '동성상응同聲相應'과 '동기상구同氣相求', 한漢 대 동중서에 의하여 완성된 천인상관설天人相關說, 노자老子 『도덕경道德經』의 '현빈지문玄牝之門(우주 간에 있는 하나의 큰 여성 생식기)'에 드러난 지모地母사상, 『황제내경黃帝內經素』 영추편에 드러난 풍기風氣 관념, 회남자의 토기土氣 관념('땅은 각자의 종류에 걸맞게 생산한다. 산기山氣는 남자, 택기澤氣는 여자, 장기障氣는 몽매한 자, 풍기風氣는 귀머거리를 많이 나오게 한다.'), 『관자管子』의 수기水氣 관념('물은 만물의 본원이자 모든 생명체의 종실이며, 아름답고 추함, 어질고 어리석음을 생겨나게 하는 것이다.'), 유가의 귀신론('귀신이 널리 충만하여 마치 위에 있는 듯하기도 하고 좌우에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중용中庸』) 등의 내용이 조선조 지리학 고시과목(『청오경』, 『장서』, 『지리신법』, 『명산론』 등)에 직간접 인용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동기감응설은 성리학자이자 풍수에 조예가 깊은 주자朱子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유골을 온전하게 모셔 그 혼령이 편안하다면 자손이 번창할 것이며 제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입니다. …… 혹시나 땅을 선택함에 있어 세밀하지 못하여 땅이 좋지 못하다면 반드시 물이나 땅강아지, 개미 혹은 바람 등과 같은 것들이 광중을 침범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유골과 혼령이 불안할 것이며, 재앙이나 사망 혹은 대가 끊기는 우환이 있을 것입니다. 대단히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산릉의장山陵議狀』)

풍수설은 용龍, 혈穴, 사砂, 수水, 좌향坐向 등으로 구성된다. 용龍은 중심 산능선을 이른다. 예컨대 서울의 경우 도봉산-삼각산-북악산으로 이어지는 중심 산줄기를 말한다. 땅기운이 용을 통하여 흐른다고 믿어 매우 중시되었다. 땅기운이 흐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지맥을 자른다는 <단맥斷脈설화>도 바로 용의 중요성 때문에 생겨났다. 용을 살피는 법을 간룡법看龍法 혹은 용법龍法이라고 한다.

혈穴은 땅기운이 뭉친 핵심처를 말한다. 무덤의 경우 유체가 안장되는 광중, 주택의 경우 주인이 거주하는 안채, 주요 도시의 경우 그곳 수령이 집무를 보는 관아, 도읍지의 경우 임금이 머무는 궁궐이 각각 혈이 된다. 혈을 살피는 방법을 정혈법定穴法 혹은 혈법穴法이라고 한다.



산 모양과 풍수 용어

사砂는 흔히 '좌청룡·우백호'를 운운하는 사신사를 말한다. 사신四神 관념은 전설의 짐승인 청룡, 백호, 주작, 현무가 동서남북 혹은 전후좌우 방향을 수호하여 준다는 데서 나온 것이다. 『여씨춘추呂氏春秋』, 『회남자淮南子』, 『사기史記』, 『논형論衡』 등에 기록되어 있다. 왕충王充(서기 27~29)은 『논형』의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사신사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동쪽은 목이며 그 별은 창룡倉龍(청룡과 같은 의미)이다. 서쪽은 금이며 그 별은 백호白虎이다. 남쪽은 화이며 그 별은 주조朱鳥이다. 북쪽은 수이며 그 별은 현무玄武이다. 하늘에는 네 별의 정기가 있으며, 그것이 내려와 네 짐승의 형체를 이루었다."

고대 중국의 천문사상이 풍수에 유입되었음을 엿보게 하는 문장이다. 『청오경』과 더불어 가장 오래된 풍수 고전이자 조선조 지리학 고시과목에 포함된 『장서』는 사신사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무릇 장사를 지냄에 있어서 왼쪽을 청룡, 오른쪽을 백호, 앞으로 주작, 뒤를 현무로 삼는다. 현무는 머리를 드리운 듯해야 하고, 주작은 날개를 펴 춤을 추듯 해야 하며, 청룡은 꿈틀거리듯 나아가야 하며, 백호는 마치 호랑이가 걸터앉아 있는 듯해야 한다. 형세가 이 원칙에 반

하면 집안은 망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사砂를 살피는 것을 찰사법察砂法, 장풍법藏風法, 사법砂法 등으로 표현한다.

수水는 수량, 수질, 수세, 물의 오고 가는 방향 등을 살피는 법이다. 득수법得水法, 관수법觀水法, 수법水法 등으로 표현된다. 좌향은 들어설 터의 방향을 말한다. 터의 뒤쪽을 좌坐, 앞쪽을 향向이라 한다. 24방위가 기본 단위이다.

이렇게 용龍, 혈穴, 사砂, 수水, 좌향坐向 등을 살피는 방법에 따라 형세론形勢論과 이기론理氣論 등 두 가지 유파로 나뉜다. 형세론이 육안으로 땅의 아름답고 추함을 살피는 것을 위주로 하는 것에 반해 이기론은 음양·오행·팔괘 이론을 근거로 하여 땅의 좋고 나쁨과 길흉을 판단하는 방법이다. 이 두 유파는 서로 대립하면서도 동시에 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풍수는 대상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무덤 터를 다루는 음택陰宅 풍수와 집터를 고르는 양택陽宅 풍수, 이보다 더 큰 규모의 양기陽基 풍수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양기 풍수는 규모에 따라 마을·도시·국도國都 풍수로 세분된다.

우리나라에 풍수가 유입된 것은 중국 당나라와 교류하던 삼국시대이다. 당에 유학한 학자와 승려에 의하여 한반도에 유입되었으며, 고려와 조선에서는 관학官學으로 채택되었다. 두 왕조에서 관학으로 채택되었지만 풍수 내용은 크게 상이하다.

고려왕조가 채택한 '지리업' 과목은 『신집지리경新集地理經』, 『유씨서劉氏書』, 『지리결경地理決經』, 『경위령經緯令』, 『지경경地鏡經』, 『구시결口示決』, 『태장경胎藏經』, 『가결訶決』, 『소씨서簫氏書』 등 아홉 가지이다. 이 책들 말고도 『신지비사神誌祕詞』, 『도선기道詵記』, 『도선밀기道詵密記』, 『옥룡기玉龍記』, 『삼각산명당기三角山明堂記』, 『삼한회토기三韓會土記』, 『송악명당기松岳明堂記』, 『해동비록海東秘錄』 등이 『고려사』에서 자주 인용된다. 반면에 조선왕조의 '지리학' 과목은 『경국대전』에 규정되어 있다. 『청오경』, 『장서』, 『지리신법地理新法』, 『명산론明山論』, 『지리문정地理門庭』, 『감룡경撼龍經』, 『착맥부捉脈賦』, 『의룡경疑龍經』, 『동림조담洞林照膽』 등 아홉 과목이다. 이 외에도 『조선왕조실록』에는 주자의 『산릉의장』과 정자程子의 『장설』이 종종 인용되었다.

이처럼 고려와 조선의 풍수 내용이 다른 것은 두 왕조가 채택한 국교가 달랐기 때문이다. 고려는 국교가 불교이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는 풍수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고, 조선은 국교가 유교이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는 풍수 내용으로 채워졌다. 고려 풍수의 특징은 불교가 주장하는 불국토佛國土에 상응하여 전 국토를 명당화明堂化한다는 관념이 강했다. 1198년에 산천비보도감山川裨補都監이라는 임시 관청이 설치되어 전국에 걸쳐 비보풍수행위 조산造山, 축돈築墩, 제방쌓기, 비보사찰과 사탑 건립 등이 구체화된 사례이다. 그 흔적들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문화유산으로 남아 있다.

반면에 조선왕조의 풍수는 음택풍수가 주류를 이룬다. 조선의 국교는 유교였으며, 유교가 강조하는 실천 덕목은 충과 효였다.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강조되었다. 살아서 부모를 잘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아가신 부모의 유체를 화장하지 않고 좋은 땅에 모시는 것 또한 효를 실천하는 한 방법이었다(고려에서는 왕실과 귀족들이 불교설에 따라 주로 화장을 하였다). 따라서 당연히 조선왕조에서는 묘지 풍수가 유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풍수는 우리 민속학에도 깊은 흔적을 남겼다. 장승(석장승과 목장승), 당산나무, 서낭당, 돌탑, 조산, 조탑造塔, 숲정이, 비보사찰 등이 대표 사례이다. 주산과 청룡 사이, 주산과 백호 사이가 함몰되어 바람 통로가 되거나 외적의 침입 통로가 되는 곳 혹은 청룡과 백호 사이로 물이 빠져나가는 곳[水口]이 틈새가 많이 벌어져서 그곳이 바람 통로가 되거나 외적의 침입 통로가 되는 곳에도 비보풍수물(당산나무, 돌탑, 조산 등)이 설치된다. 민간에서는 그와 같은 비보풍수물이 마을의 안전과 안녕을 지켜 준다고 하여 함부로 훼손하지 않았으며, 더 나아가 신성시하여 기복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특징 및 의의 삼국시대부터 한반도에 유입된 풍수는 터를 잡고, 건물을 짓고, 공간 배치를 하고, 주변 경관을

조성하는 모든 행위에 관여하였다. 단지 고려와 조선뿐만 아니라 광복 이후 지금까지 풍수는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다. 심지어 새로운 도시 건설(세종특별자치시, 경북도청, 각종 혁신도시) 등 신도시 입지 선정에서 작게는 인테리어에까지 풍수가 지금도 응용되는 등 우리 민족의 아주 오래된 '민속'이 되었다.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수많은 문화유산은 풍수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다. 그 결과 우리 민족에게 전승되어 온 풍수관념은 우리 민족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또한 풍수의 핵심 주장은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이다. 풍수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 및 자연 파괴와 오염을 경고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이론으로서 그 역할을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려시대 연구(이병도, 을유문화사, 1948.), 풍수학사전(김두규, 비봉출판사, 2005), 한국풍수사상사연구(이몽일, 일지사, 1991), 朝鮮の風水(村山智順, 朝鮮總督府, 1931), 조선왕조실록(sillok.history.go.kr).

필자 김두규(金科圭)

피란촌
避亂村

정의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피란민들이 우리나라 남쪽으로 내려와 대규모로 정착하여 살던 마을.

개관 한국전쟁은 대규모 피란민을 발생시켰으며, 이들은 전투로 말미암은 피해가 다소 적은 남쪽으로 이동하였다. 특히 임시수도 부산은 많은 피란민들로 인하여 도심 곳곳에 피란민 마을이 생겨났다. 용두산과 복병산을 비롯하여 보수천 주변, 부두와 부산역 일대, 충무동과 영도 해안가, 영주동, 초량동, 수정동, 범일동 등지에 피란민이 몰려 살았다. 천막과 판잣집 등 임시주거에서 살던 이들은 화재와 철거로 인하여 다시 도심 외곽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많았다. 영도 청학동, 괴정동 새마을 등은 정부와 부산시가 피란민들을 이주시킴으로써 조성된 피란촌避亂村이다.

내용 한국전쟁 발발 직후 군인 가족을 위시한 피란민들이 부산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전쟁 기간에 부산은 임시수도가 되었다. 북한군에게 서울을 빼앗긴 남한 정부는 대전, 대구를 거쳐 부산까지 이동하였다. 한국전쟁 동안 부산은 우리나라의 수도 기능을 하였고 전투가 발발하지 않은 안전 지역이었으므로 많은 피란민이 밀려들었다.

한국전쟁 시 피란민은 전쟁 직후 내려온 1차 피란민과 1·4후퇴를 전후로 내려온 2차 피란민들로 구분된다. 1차 피란민 110만 명 가운데 약 16만 명, 2차 피란민 500만 명 가운데 약 26만 명이 부산으로 유입되었다. 전쟁 전후 부산의 인구 통계를 비교하여 보면 30만~50만 명이 증가하였다. 이렇게 유입된 피란민들로 인하여 부산 원도심의 여러 곳에 피란촌이 형성되었다.

피란민들은 전쟁을 피하여 남하하였지만 자유롭게 부산에 들어올 수 없었다. 정부는 피란민 가운데 불순한 자들이 끼어 있어 임시수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여겼다. 그리하여 피란민들을 현 연제구 연산동 일대에 있던 거제포로수용소에 수용한 후 사상 검증을 거치게 하였다. 피란민들의 대규모 유입은 임시수도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경상남도 거제도 등지로 분산 배치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밤낮으로 떼지어 몰려든 피란민들을 통제하고 분산시키려는 이런 조치는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다.

무작정 부산에 들어온 피란민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거주 공간이었다. 부산에 연고가 있는 피란민들은 친척 또는 지인의 집을 찾아가 숙식을 하였다. 이런 경우는 운이 좋다고 할 수 있지만 피란이 오래될수록 집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불화가 생기거나 눈칫밥을 먹게 되었다. 다음은 정부가 제공하는 피란민 수용소에 들어가는 경우이다. 정부는 부산의 공장과 극장 등 큰 건물들을 피란민 수용소로 활용하거나 빈 대지에 수용소를 지어 피란민들을 입주시키고자 하였다. 즉 영도의 대한도기주식회사, 영도 해안가와 청학동, 우암동의 적기 수용소, 대연고개, 괴정 당리 등 40여 곳에 피란민 수용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1·4후퇴 이후 대거 몰려든 피란민들

로 인하여 수용소 공간이 크게 부족하였기 때문에 정부는 적산가옥이나 여관까지 동원하였다.

정부가 제공하는 피란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피란민들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피란민 수용소에 들어가지 못한 피란민들은 스스로 거주 공간을 찾아야 하였다. 원도심권이나 해안가의 공지에 판잣집을 짓고 살던 피란민들이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다. 예컨대 국제시장 주변의 용두산과 복병산, 보수천 주변, 부두와 부산역 일대, 충무동과 영도 해안가, 영주동, 초량동, 수정동, 범일동 등지에 피란 마을이 집중되었다. 1953년 7월 당국 조사에 따르면 도로와 하천 주변, 산기슭에 약 3만 2,000호의 판잣집이 있었다. 대규모 판자촌이 형성된 곳은 국제시장 근처 1,200호, 영주동 산기슭 1,000호, 영도대교 해안가 700호, 보수동 600호, 송도 300호 등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보다 훨씬 더 많은 판자촌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언론에서는 판잣집을 군인들이 생활하는 막사의 뜻을 빌려 '바락크'라고 불렀다. 하지만 판잣집은 바락크보다 훨씬 못한 임시주거였다. 여기저기서 수집한 목재와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온 박스를 얼기설기 엮어 집 형태를 만들고 바닥에는 가마니를 깔아 판잣집을 만들었다. 바락크에서의 삶은 선사시대의 움집살이와 마찬가지였다. 판자촌 피란민들은 실낱같은 석유 등불에 의지한 채 가족 체온에 기대어 추위와 바람을 이겨내야 하였다.

특징 및 의의 피란민들이 몰려와 대규모로 생성된 부산 지역 피란촌으로는 영주동 산동네, 영도 청학동 마을, 아미동 공동묘지 마을, 우암동 피란민 마을, 당감동 피란민 마을 등을 들 수 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월남 피란민들은 이곳을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정착하였다. 현재까지 이 마을에서는 옛 피란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영주동 산동네는 비탈이 심하게 진 곳으로 사람들이 살기에 적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산항과 가까워 일자리를 구하기가 다소 쉽기 때문에 일제강점기부터 많은 빈민이 모여 살았다. 부산항의 하역노동자로 일하고자 하는 피란민들도 영주동 산동네로 많이 몰리게 되었다. 1953년 당시 영주동에는 약 1,000호의 판잣집이 있었다. 비탈진 산동네에서의 삶은 열악하기 이를 데 없었다. 피란민들은 물을 구하기 위하여 험하고 먼 산길을 다녀야 하였고, 화장실과 분뇨 처리 시설이 없었으므로 열악한 위생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게다가 1954년 1월에 발생한 대화재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고지대인 영도 청학동 마을도 피란민들이 살기에 매우 불편한 곳이었다. 1953년 11월 역전대화재로 부산역 인근 피란민들이 살던 판자촌이 모두 소실되었다. 정부는 이재민들을 청학동 마을로 이주시키고자 하였다. 청학동 마을에 후생주택을 지어 이재민들에게 분양하였지만 가난한 피란민에게는 집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청학동 마을도 피란민들이 지은 판잣집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당시 화재민과 유랑민 약 2,000가구가 청학동 일대에 살았다고 한다. 청학동 피란민들은 수도와 전기 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은 영도다리와 국제시장까지 나오기 위하여 '아리랑 고개'라는 험하고 굽은 산길을 걸어야 하였다.

일제강점기 아미동에는 일본인 공동묘지와 화장장이 설치되었다. 당시 빈민들도 이곳을 죽음의 장소로 꺼렸으므로 공동묘지와 화장장 주변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다. 하지만 전쟁으로 많은 피란민이 몰려들면서 화장장 인근까지 판자촌이 들어섰다. 일본인 공동묘지까지 피란민들이 개간하여 살게 된 것은 전쟁이 끝난 이후였다. 도심에서 화재나 철거로 인하여 쫓겨난 피란민들은 묘지 위에 판잣집을 짓고 살았다. 청학동, 영주동에 비하여 아미동은 국제시장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피란민들은 차라리 죽은 자의 공간을 택한 것이다. 처음에는 천막을 짓고 살다가 점차 사람들이 몰리면서 판잣집이 늘어 갔다. 이후 판잣집은 루핑집, 슬레이트 집으로 바뀌어 갔다. 지금도 산 19번지 일대를 '비석마을'이라 부른다. 옛 공동묘지의 흔적인 일본인 비석과 상석들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우암동의 적기 수용소는 부산에서 가장 많은 피란민을 수용한 대표 피란촌이었다. 1952년에 이곳

을 방문한 『민주신보』의 한 기자는 "적기 수용소에 1,400가구의 6,000여 명이 수용되었으며, 수용소라기보다는 일가의 독립부락을 이루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일제강점기 우암동에는 소막사를 비롯한 검역 시설이 있었다. 일제는 조선의 소를 일본으로 수출하기 전에 전염병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우암동에 소막사와 해부실 및 소각장, 각종 창고 등 대규모 검역 시설을 세웠다. 이런 시설들은 평시에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공간이지만 전쟁을 피하여 몰려든 피란민들을 임시 수용하기에 적합한 곳이었다. 정부는 1950년 12월 무렵부터 피란민들을 이곳에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소막사를 일정하게 구분하여 피란민을 수용하였고, 천막과 판사를 지어 피란민들을 살게 하였다. 정부는 이들에게 하루 두 끼 정도의 양식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이마저도 주지 못할 때가 많았다. 전쟁 이후에도 많은 피란민이 우암동에 정착하여 살았으며, 지금까지도 피란민을 수용하던 소막사가 일부 남아 있다.

피란촌 생활에서 가장 불편한 문제는 수도시설과 화장실이었다. 물을 긷기 위하여 산을 넘어 다녀야 하였고, 급수차 앞에서 양동이를 들고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였다. 또한 화장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여성들이 큰 곤란을 겪었다. 보수천 등 천변에 피란민들이 몰려 산 이유도 분뇨 처리가 고지대 피란촌보다 나았기 때문이었다.

당시 피란촌의 판잣집들은 대개 다닥다닥 붙어 있어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1950년 11월 영도 대한도기회사 피란민 수용소 화재를 시작으로 연간 수백 건씩 피란촌 화재 사건이 발생하였다. 화재에 취약한 재료를 사용한 탓도 있지만 전기 대신 호롱불과 촛불 등을 사용하다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1953년 11월 부산역전 대화재는 중앙동 일대의 판잣집을 비롯하여 부산역과 부산우편국 등 공공건물까지 모조리 불태웠으며, 3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이런 대형 화재 사건은 원도심권 판자촌을 철거하려는 정부와 부산시에 명분을 제공하였다. 부산시는 복병산, 동광동, 보수천 주변, 해안가 등지에서 살던 피란민들을 사하구 괴정, 진구 양정, 영도



보수천변 피란민 움막 | 부산 중구 | 1952 | 김한근

구 청학동 등지로 이주시켰다. 이 철거와 이주 정책은 도심에서 외곽으로 피란촌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부산의 산동네는 피란민들이 살던 마을에서 시작된 것이 대부분이다.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경사면의 주택들, 비좁은 골목, 공동화장실 등은 피란촌 주거문화의 특징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부산은 넓다(유승훈, 글항아리, 2013), 부산의 아미동 아미동 사람들(부산구술사연구회,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1), 우암동 사람들의 공간과 삶(임시수도기념관, 2014), 한국전쟁 피난민들의 부산 이주와 생활공간(류지석·손은하·차철욱, 민족문화논총45,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0).

필자 유승훈(柳承勳)

한뎃부엌

정의 부엌 밖에다 따로 마련하고 솥을 걸어 놓은 부뚜막.

내용 한뎃부엌의 '한데'는 '바깥'이라는 뜻이고, '부엌'은 부뚜막이 부엌의 가장 중요한 곳이라는 데서 유래한다. 이 밖에 딴솥 또는 헛부엌이라고도 일컫는다.

무더운 여름철에 음식을 부뚜막의 솥에 끓이면 방으로 들어오는 열기를 견디기 힘들었고, 상례나 혼인 따위로 모이는 많은 손님의 음식을 마련하려면 부엌 부뚜막의 솥만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엌에서 가까운 안마당이나 뒤란 등지에 간단한 부뚜막을 차려 두고 쓴 것이다.



한뎃부엌 | 충남 보령 | 1995 | 국립민속박물관

상류층 가옥에서는 돌을 파서 만들어 붙박이로 썼으며, 안쪽에 턱을 붙여서 삼발이로 삼은 덕분에 아주 편리하였다. 중류층은 벽돌로 네모반듯하게 쌓았고, 서민들은 진흙에 자갈을 섞어서 반달꼴로 지은 뒤 시멘트를 덧발라서 수명을 늘렸다. 걸어 두는 솥도 형편에 따라 달랐다. 상류층에서는 두세 개, 중류층에서는 두 개, 서민은 한 개를 각각 걸어 놓고 음식을 끓이거나 익혔다. 굴뚝도 솥의 수효에 따라 한두 개를 비스듬히 세웠다. 굴뚝을 흔히 부뚜막 뒤에 세우지만 북한 지방에서는 일자一字 꼴이 되도록 한 끝에 붙였다.

근래에 양철통이 흔해지면서 아래쪽을 네모지게 잘라서 아궁이로 삼은 다음 한쪽에 붙은 쪽을 위로 치켜서 채양으로 삼은 것이 퍼졌다. 이것은 들어 옮기기 쉽지만 솥은 한 개밖에 걸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 밖에 강원도 정선 사북읍 정암사淨岩寺에서는 쇠로 두툼하게 구운 부뚜막에 큰 가마솥을 걸고 썼다.

가장 오랜 한뎃부엌은 전라북도 익산 왕궁리王宮里에서 나온 백제의 것이다. 겉은 밝은 황갈색이지만 안은 회색이며, 무덤이 아닌 집터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실용품일 가능성이 짙다. 다만 높이 23.9㎝(굴뚝 포함), 바닥 지름 23.1㎝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보면 음식보다 차를 끓이거나 술을 데운 것으로 여겨진다. 벽의 두께가 0.5~1.0㎝이고 솥 구멍 지름이 13.3㎝인 점도 마찬가지이다.

고구려 유적에서도 시루 꼴로 빚은 아궁이가 유난히 큰 질 부뚜막이 발굴되었고, 백제와 가야시대 무덤에서도 부뚜막 명기가 출토되었다. 경상북도 경주 안압지에서도 주발처럼 구운 크고 작은 질솥 두 짝을 나란히 앉힌 특별한 명기가 나왔다. 굴뚝의 입은 나발처럼 벌어지고 전과 바닥 사이 두 곳에 점선을 둘러서 꾸민 것이 돋보인다.

우리의 한뎃부엌은 일찍이 일본으로 건너갔다. 6세기 오사카大阪 유적에서 나온 우물에 대한 2005년 3월 3일자 오사카 스이타시吹田市 문화재뉴스 기사 「五反島遺跡出土の土竈形土器」에 "5세기 중기에 들어온 부뚜막[竈形] 토기는 들고 다니는 구조로 되었다.…… 소형은 고훈古墳시대(3~6세기)에 특히 도래인渡來人들이 장송의례葬送儀禮에 썼으며, 8~12세기 말에는 잡

귀를 쫓는 제사에도 쓴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대형은 연희식延喜式에 한국 부뚜막[韓竈]이라고 적힌 대로 제사에 이용했을 것"이라고 적혔다. '도래인'은 '바다를 건너간 한국인'을 가리킨다. 이 밖에 가노 도시쓰구獵野敏次도 "부뚜막은 5세기 무렵 도래인이 가져왔으며, 가라카마韓竈라는 한뎃부엌도 마찬가지"라고 적었다.

특징 및 의의 부엌 부뚜막에 솥을 서너 개씩 걸고 쓰는 상류층에서도 흔히 돌로 깎은 한뎃부엌을 안마당 한 귀퉁이에 마련하며, 중류층에서도 장독대 옆에 널찍한 부뚜막을 세우고 높직한 오지 굴뚝까지 세우는 것은 이러한 유형의 부엌이 아주 유용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좋은 사례이다. 오늘날 농촌에서 널리 이용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중국은 물론 일본에도 없는 점도 자랑거리이다.

참고문헌 동아시아의 부엌(김광언, 눌와, 2015), 獵野敏次(かまど, 法政大學出版局, 2004).

필자 김광언(金光彦)

한옥
韓屋

정의 '한국의 집' 또는 '한국식으로 지어진 한국인의 집'.

내용 '한옥韓屋'이라는 단어는 '한국의 집', '한국식으로 지어진 집', 또는 '한국인의 집'이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한옥은 '한국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한국인의 심성이 표현된 집'이라는 의미가 강조된다. 유사한 표현의 예로서, 한국의 음식을 '한식韓食'이라 하고, 한국의 옷을 '한복韓服'이라 하듯이, 한국의 집을 '한옥'이라 한다고 보면 된다. '집'이라는 단어도 우리만 쓰는 낱말이므로 내용적으로는 '한옥'과 '집'의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집'이 순수 우리말이라면 '한옥韓屋'은 한자로 표기된 '한국의 집'인 셈이다. 단지 '서양 집'이나 '일본 집' 같은 표현에서처럼, '집'은 '한국 집이 아닌 집'을 포함시킬 수 있지만, '한옥'은 '한국 사람의 집이 아닌 집'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렇게 볼 때 '집'은 '한국인이 생각한 인간의 거처'라는 공통성을 포괄하는 반면, '한옥'은 처음부터 '한국 집의 한국적 특성'을 염두에 두려 한다. '집'의 의미 안에는 '인간의 거처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추상적 입장이 포함되지만, 한옥은 '실제로 한국에 지어진 집의 사례에 근거한 집짓기 경향'을 지칭하려는 성격이 더 강한 편이다.

사람이 자기 집을 짓고 사는 일은 그가 사는 지역의 기후풍토적 조건과 정신문화적 배경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집으로 표현하는 일이다. 사람의 집단이 사는 거처는 그 집단이 공유하는 공통적 특성과 일반적 성향을 그대로 표현하게 되므로, '한국 집에서의 자기표현 성향'이 바로 한옥의 의미이고 가치가 된다. 이렇듯 한옥의 의미에서는 한국의 지역적 성격이 중요하지만, 한옥의 한국적 성격 안에는 동북아시아 한자漢字문화권의 공통적 속성이 포함되어져 있다.

그렇다면 한옥의 의미는 동아시아 문화적 공통성이 공유되는 기반 위에서 생성된 한국적 차별성을 의미한다는 사실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동양적 공통성과 한국적 차별성 모두 서양 문화권의 경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20세기의 근대화 과정 이후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한옥의 의미는 '서양과 다른 동양 문화적 공통성향이 함축된 한국 집의 성격'이라는 얘기가 된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서 '한옥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고유성격이 무엇인가?' 차원의 규명과 함께, 중국과 일본과는 어떻게 다르며, 서양의 경우에 비교되었을 때는 무엇이 다른가의 차원에서도 같이 조명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옥의 의미규명을 위해서는 지역적 차이뿐만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도 다른 시각의 조명을 필요로 한다. 조선시대의 한옥의 의미와 지금 우리 시대에서의 한옥의 의미가 같을 수 없다. 과거에는 한옥만이 존재하였으므로 한옥이 우리 집짓기의 전체적 경향이면서 유일한 대안이었지만, 지금 시대의 한옥은 서양근대건축의 대세적 경향 안에서의 한 부분적 현상으로서 과거에 있었던 전통적 집짓기 사례에서 찾아

지는 특수현상 같은 내용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한옥이해의 시대적 분위기는 얼마나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우리 미래의 집짓기에서 어떻게 대처되어야 하는지의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다. 한옥의 의미는 '전통주택으로서의 의미'라는 과거적 의미 이외에, 그러한 '과거적 집짓기 정신이 근대화 과정 이후를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일까'의 과제가 갖는 시대적 비중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다. 이 문제를 배제한 한옥의 의미규정은 한옥의 의미를 박물적 취미나 예스러운 취향 정도의 문제로 제한시키는 결과가 된다. 이 시대 한옥의 의미는 '동양 및 서양 집짓기의 차이가 무엇인가?'의 문제와 함께, '우리 미래의 집짓기에서 한옥의 특성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가?'의 숙제와 연관되어서 찾아지지 않을 수 없다.

한옥의 범위를 어디에서 어디까지로 잡아야 할까? 지역적으로는 한반도의 모든 지역이 포함된다고 보아야겠지만, 20세기 중반 이후 남북으로 분단되고 나서 남과 북의 집짓기가 상당히 달라졌을 뿐 아니라, 우리는 북쪽의 집짓기 사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근대 이후의 우리 집도 '한국 집'이므로 한옥은 전통과 근대의 집 모두를 포함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근대 이후의 집을 '양옥洋屋'이라고 불러서 '한옥'과 구별하려 한다. 건물의 유형에 있어서, 주택에 한정되지 않은 모든 집짓기가 '한옥'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 지칭경향으로 볼 때에 한옥은 '한국의 주택'을 의미하는 경우가 더 보편적이다.

이렇게 볼 때 '한옥'에 대한 설명은 역시 '한반도에서의 전통적 집짓기'를 위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상식적인 답이 된다. 한옥을 이해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물론 현재까지 남아 있는 한옥의 사례들이다. 건물로 현존하지 않는 원시주거나 발굴 자료도 한옥의 흔적들이지만, 집의 전모가 잘 남아 있는 사례에 비해 한국적 특성 파악이 제한된다. 한옥의 주요 재료가 나무였으므로 현존 한옥의 대부분이 조선시대 후반 이후에 지어진 경우이고, 그 안에서도 지어진 연대가 오래될수록 그 수가 급격하게 적어진다.

따라서 한옥의 이해는 대략 지난 3 세기 정도의 기간 안에 지어진 사례에 의존하여 한옥의 보편성과 차별성을 추적해야 하는 문제가 된다. 조선시대의 한옥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민가民家와 반가班家의 구별이 있었고, 동시에 그 중간에 해당되는 경우도 찾아진다. 민가와 반가가 규모와 외관에서 같지 않지만, 구조적 구법과 구성의 개념은 공통적 속성에 기반하고 있음도 확인된다. 여기에서의 설명은 가급적 이러한 공통적 속성에 해당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될 수밖에 없다. 그중에서도 건축사적 의미의 비중보다는 일반인의 상식에서 이해되는 '구법構法과 표현 및 생활적 특성'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되는 방법이 더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옥 짓기의 시작은 '터 잡기'로 시작되고, 그 다음에는 건물이 앉는 방향, 즉 '좌향坐向'을 정하는 일로 이어진다. 이러한 배치적 기본사항이 정해진 후에라야 실제로 건물을 짓는 일이 이어질 수 있었다. 집터를 잡고 좌향을 정하는 세부사항은 풍수風水적 지식이 있는 지관地官들이 담당하였지만, 조선시대 선비들이나 목수들도 어느정도 수준의 풍수적 기초지식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다. 집터와 좌향의 문제는 결국 '인간의 집짓기가 자연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를 정하게 하는 우리 선조들의 인문지리적 견해이었다. 집이란 것이 땅에서의 적당한 위치에 자리잡혀야 하고, 앞뒤 좌우의 방향이 잘 맞추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신념을 보여준다. 그러한 관심은 집짓기를 통해 구현되어야 하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설정의 측면에 있어서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소중한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

집터의 입지조건으로서의 공통적 관심사는 보다 더 기운이 생동하는 집 자리이면서, 자연지형이 인간거처를 안전하게 안위安慰하고, 집 앞으로 좋은 경관을 열어주는 곳에 위치하려는 뜻이었다. 집의 좌향은 일반적으로 해가 잘 드는 남향 내지 동남향을 선호하지만, 집 뒤의 주산과 집 앞의 안산이 만드는 형국의 방향에 따라서는 집의 좌향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었다. 터잡기와 좌향 같은 자연환경과의 관계가 건물을 짓는 일 못지않게 중요했던 것은, 집의 입지조건이 사람의 삶과 직접적으로 영향관계를 맺는다고 생각



충무로 입구 | 일제강점기



기와집 | 일제강점기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삶이 집자리를 통해 자연환경과 생명적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기도 하였다. 한옥의 체험은 건축적 모습을 보는 일에서 시작되기 전에 '집 주변의 형국과 경관과의 연관성'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된다.

집터와 좌향이 정해지면 그 다음으로 신경 쓰이는 일은 배치계획이다. 배치계획은 획일적 규칙에 의해 좌우되기보다 각 집터마다 다른 현실적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법칙적 규칙으로 고정되기 어렵다. 하지만 집터를 아늑하게 둘러싸는 담장과 출입하는 대문 그리고 울타리 안에 생기는 마당의 세 요소는 공통적인 배경적 관심사이었다.

집터 주변의 산세도 집 자리를 안위해 주는 외부적 형국이지만, 담장과 대문은 그 안에서 또다시 집터의 영역을 안위해 주는 내부적 울타리이다. 대문 안의 마당은 항상 통과하는 생활의 장소이면서 계절에 따른 농경적 작업장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집짓기가 본래적으로 하늘-땅 관계의 연장이고, 집-마당 사이의 배치적 관계를 중요시하려는 생각을 보여준다. 문·부엌·방의 위치를 기본으로 하여 배치를 잡되, 바람이 흘러 들어오고 빠져 나가는 흐름을 중요시하여서, 집이 가급적 기氣가 잘 통하고 밝고 생동적 느낌이 살아 있는 곳이 되게 하려 한다.

대문으로 출입하였을 때 가장 안쪽에 안채의 안마당이 위치하게 하고, 안채에서는 정면을 향하는 부엌-방-대청의 중심부가 가운데 위치하게 한다. 집의 규모가 커질 때에는 안채 중심부의 옆과 앞으로 건넌방, 창고, 보조부엌 및 사랑채가 연결되어 ㅁ자형의 배치를 만드는 형식이 가장 일반적이다. 규모가 작은 서민주택은 안채만으로 구성되기도 하지만 규모가 있는 양반주택에서는 행랑채 및 사랑채가 별도로 지어지기도 하며, 그 외에 사당·정자·별채 등의 건물이 추가되어 더 복잡한 배치가 만들어진다. 사랑채는 일반적으로 안채의 동남쪽에 첨가된 남자들의 거처로 시작되지만 조선 중기 이후 점차 규모가 확대되거나 독립채로 분리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양반주택에서와 같이 채가 분리될 경우의 배치계획은 안마당, 사랑마당, 행랑마당, 뒷마당 등의 여러 마당들이 수평적으로 연결되는 방식에 의해 배치계획의 골격이 짜인다. 안채 사랑채 행랑채의 위계나 기본적 위치는 대부분의 한옥에서 공통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집의 배치계획이 같아지는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 같은 배치계획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집집마다 다른 집터의 상황에 따라 배치계획이 달라지며, 그러한 집마다의 차별성이 한옥 배치계획의 묘미이기도 하다. 부엌 주변에는 장독대가 있고, 살림채 주변 한쪽 구석에는 뒷간이 있으며, 사랑마당에는 정원이 꾸며지거나 연못이 있을 수 있고, 안채 뒤쪽으로 텃밭이 있고, 방앗간 및 외양간이 필요에 따라 첨가되고, 별도의 창고가 포함될 수도 있다. 마당 여기저기에는 화초·바위·나무 등의 자연요소가 더해지기도



한옥 | 경기 화성 정용채 가옥 | 서헌강



도시한옥 | 서울역사박물관

하고, 화계花階·계단·축대 등의 인공적 요소들이 필요에 따라 더해진다.

집터와 좌향 다음으로 중요한 한옥의 체험요건은 집마다 다른 배치계획의 고유성과 다양성이다. 안채는 안쪽 깊숙이 숨어 있으면서 집의 중심부를 형성하고, 사랑채는 안채보다 외향적이면서 남자 주인의 이상향을 표현하려 한다. 마당들은 채마다 다른 거주 분위기를 말없이 자아내어 느끼게 한다. 한옥에서의 마당은 '건축적 공간'이기 전에 '삶의 일상적 자리'이므로 '일상생활에서 묻어나고 거주과정을 통해 생성되는 분위기'를 떠나서 설명이 불가능하다. 물론 마당을 물리적으로 형성하는 건물, 문, 담장의 구성방식과 마당들이 연결되어 만드는 이동의 흐름도 한옥이 갖는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이다.

한옥을 짓기 위해 쓰이는 기본적 재료는 세 가지이다. 기단부에 돌을 쓰고, 몸체와 지붕의 뼈대를 나무로 짜서 세우고, 벽은 흙을 발라 막으며, 지붕에는 흙을 구워 만든 기와를 덮어 눈과 비의 침투를 막는다. 기단은 서민 주택에서는 막돌을 활용하고, 고급주택에서는 화강암을 다듬은 장대석을 쌓는다. 기단 위의 주춧돌도 형편에 따라 자연석을 쓰기도 하고 다듬은 돌을 쓰기도 한다. 방과 마루의 바닥은 땅에서 일정 높이만큼 높게 하여 방의 밑에는 온돌을 놓고, 마루의 밑은 바람이 지나가게 하여 통풍과 부패방지 효과를 노린다. 부엌 바닥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하여 아궁이에서 불 때기에 용이하게 하고, 흙바닥을 그대로 노출시킨다. 방의 바닥은 돌 구들을 놓고, 마루 바닥은 나무판을 깔아 덮으므로, 집 전체는 흙-돌-나무의 세 가지 바닥 재료로 구성된 부엌-방-마루의 수평적 구성으로 짜인다. 귀틀집같이 나무를 수평으로 쌓아 올려 벽을 만드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의 몸체가 수직으로 세우는 기둥과 수평으로 연결하는 보 및 도리에 의해 입체적으로 짜인다.

문과 창호 등의 개구부를 제외한 벽체 부분은 위치와 사정에 따라 흙을 바르든가, 벽돌 또는 돌로 쌓아 막는다. 한옥은 기둥 사이의 벽체 부분이 수직 하중을 받아야 하는 부담에서 자유로우므로 벽면과 개구부의 구성이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자유롭고 다양해질 수 있었고, 그 개구부의 다양성이 한옥의 핵심적 특징을 만들어 준다. 문과 창호는 주로 나무로 만들되 필요하면 창호지를 발라 채광의 기능을 해결케 한다. 개구부의 용도, 크기, 재료, 여닫이 방법, 창살 등에 따라 수없이 많은 이름이 붙을 만큼 문과 창호의 종류가 다양했다.

한옥에서는 다양한 개구부를 통해 집 안의 공간과 집 밖의 자연 사이의 내외內外관계를 적절히 맺고 조절하게 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였음을 보여준다. 지붕의 내부구조는 나무부재를 짜서 틀을 짜고, 그 위에 서까래를 경사지게 덮어 경사면을 형성하고 그 위에 기와나 초가를 덮어 빗물이 흘러내리게 한다. 지붕의 아래 쪽 처마가 벽선보다 길게 돌출되어 여름과 겨울의 햇빛을 입사각에 맞게 조절하고, 빗물이 벽에 들이치는 것을 막아준다. 집의 규모가 커지면 처마 길이가 길어져야 하므로 그 길이를 지탱하게 하는 목구조 기술이 건축에서의 중요한 구조기술적 부분이 된다. 집 밖에서 집을 바라볼 때 경사 지붕의 비중이 시각적으로 무겁게 부각되기 때문에 외관상 한옥은 '지붕이 강조된 집'이라는 인상을 주게 된다.

가급적 햇볕을 많이 받아들이도록 남쪽을 향해 더 열리게 하고 북쪽은 닫히게 한다. 대지 경계에 쌓는 외벽 담장은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 집터 안의 공기를 안정적으로 조절하고, 마당을 형성케 하는 건물과 내부 담장은 마당 안의 공기를 안온하게 하여 살림에 도움 되게 한다. 바람은 기氣의 흐름이므로 위치와 장소에 따라 통하고 막히며, 흐르고 멈추게 하는 '바람길'의 관리가 집이 담당해야 하는 중요한 기능이었다. 부엌은 불을 사용하여 취사와 난방을 같이 해결하되 부엌에서 지피는 불길과 연기는 방 밑의 고래를 지나 굴뚝으로 빠져 나가게 하여 방을 덥게 하는 온돌이 겨울 난방을 해결케 하는 중요수단이었다. 많은 경우 바닥이 낮은 부엌의 윗부분은 다락을 만들어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로 쓰이게 하면서 방에서 출입할 수 있게 한다.

대청마루는 지붕구조가 드러나 보이는 연등천장으로 만들고, 방은 밤에 잠을 자는 곳이므로 우물반자라고 불리는 천장을 깔아 대청보다 낮게 한다. 한옥은



평생도 | 국립중앙박물관

실내에서 의자나 침대 같은 가구를 쓰기보다 바닥에 앉고 바닥에 요를 깔고 잠을 자는 좌식생활에 의거한 집이라는 점, 그리고 신을 벗고 실내에 들어간다는 점도 한옥의 성격을 만드는 중요한 특징이다. 신을 벗고 출입하며 좌식생활을 한다는 것은 실내공간의 크기, 재료 및 분위기 형성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외국의 주택에 비교될 때 한옥은 실내공간의 크기가 작은 편이고, 방의 천장도 낮은 편이다. 그 대신 대청은 앞을 향해 완전히 열리고, 누마루나 툇마루 및 정자가 발달하는 등 외부를 행해 개방적이고 자연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려는 특징을 보여준다. 실내공간의 한계를 내외관계 및 외부를 향한 개방감으로 보완하려 한다. 한옥은 조선시대 선비들의 유교적 이상에 적합한 규범과 질서를 구현하는 한편 인성의 계발을 지향하는 거처가 되게 하려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이상과 명분에 충실하려 하면서 현실적 문제점이나 기술적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시도는 충분치 못하였다.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기보다 과거 제도를 답습하려 하고, 생활의 편리나 경제적 효율성을 소홀히 한 문제점도 인정되어야 한다. 재료사용의 경제성이나 구조적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부족했고, 그러한 의미에서 발전을 지향하기보다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었다는 진단을 하게 된다.

대청마루는 마당과 함께 관혼상제를 포함한 중요 행사나 통과의례가 치러지는 곳이므로 집안의 상징적 대표공간으로서의 의미가 더해진다. 조선시대 후반으로 가면서 제사 기능이 강화되고 상례喪禮의 비중이 커지면서 반가를 중심으로 사랑채의 규모가 커지거나 사랑채 마루 부분이 확장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사랑채가 독립적 별채로 분리되기도 한다. 유교적 인습에 따라 여성들의 거주는 안채로 한정되되 반가의 여성들은 집밖으로의 출입도 제한적이었다. 며느리가 시집온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건넌방에서 안방으로 거처를 옮기고,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건넌방으로 옮기는 등 나이에 따른 위계질서와 공간사용 방식의 변화가 삶의 순환적 규범이 된다.

반가 중에서도 사당이 있고, 제사의 책임이 더 부과된 종가집인 경우는 유교적 격식과 의례적 절차가 공간사용 방식과 더 밀접하게 결부된다. 제사와 같은 의례는 조상숭배에 해당되는 종교적 의미가 포함되며, 최근까지도 마루나 방의 중요부분에 선대 어른의 사진을 걸어 혈연과 가문의 흐름을 따르는 관행은 남아 있다. 대부분의 주택에서는 성주신, 조왕신 같은 민간신앙적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한 채의 주택은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 마을의 한 구성요소가 되므로, 마을의 서낭당이나 산신당·빨래터 같은 공동시설과도 연결되며, 인근의 묘墓·재실·서원, 등의 문중 시설들과도 연관되어 총체적 생활권

의 한 부분적 단위가 된다. 한옥은 독립적 건물단위를 중심으로 이해되기보다 환경적·사회적 및 생활적 측면에서 서로 상관되는 요소들과 적절한 관계를 맺어가는 관계망 속의 한 부분단위로 이해되지 않으면 그 본질을 놓칠 수 있다.

주택이 고급화될수록 그 규모나 화려한 정도가 통제되어야 하는 사회적 필요 때문에 집의 규모나 형식 등을 법으로 정하려는 가사규제家舍規制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있어왔다. 집주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주택의 칸수·장식·구조 등을 규정하려 하였지만, 이 제도가 엄정하게 지켜지기 쉽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흔적도 같이 찾아진다.

한옥은 전통사회에서 집을 짓던 관행이므로 사용하는 재료, 구축의 기술, 냉난방 같은 환경관리 방법의 효율성과 생활상의 편리성이 근대적 방법에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한옥에서의 집짓기 관행은 과거의 생활관습, 사회구조, 경제규모 등의 전통사회의 현실을 반영할 뿐 지금의 사회적 관행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시대에서도 우리가 한옥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현대 사회에서도 필요로 하는 '한옥의 정신'이 있고 '한옥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한옥의 정신'이란 '자연에서의 인간거주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떠해야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정신적 고유입장을 대변해 주고, '한옥의 가치'란 '그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인간의 집짓기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치적 관점들을 말한다. 집짓기의 세부사항은 과거적 사회현실을 반영하더라도, 한옥의 정신과 가치는 이 시대 우리 집짓기에서도 필요로 하는 것이고, 또 한국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도 공통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다. 한옥의 정신과 가치는 서양문화에 없거나 약하였고, 따라서 서양근대건축의 경향에서는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

우리는 근대화 과정 중에 서양근대건축을 배워서 받아들이는 일에 치중하면서, 한옥의 정신적 의미를 잊거나 한옥의 숨어 있는 가치를 인정하는 일에도 소홀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서양근대건축의 경향이 팽배될수록 미래의 우리 집짓기는 한옥의 정신과 가치를 더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한옥 중에 좋은 사례를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려 하고 있고, 하회, 양동마을의 경우는 이미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한 사례가 소중한 이유 역시 그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인류가 필요로 하는 보편적 정신과 가치를 구현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특징 및 의의 '한옥'은 '한국의 집' 내지 '한국 사람의 집'을 말하므로, '한반도라는 지역에서의 정신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집'이라는 의미가 중요해진다. 모든 지역문화의 사람들마다 자신이 사는 집을 지을 때 자연, 인간, 사회 및 삶에 대해 가진 생각을 반영하게 되므로 한옥은 한국 사람의 그러한 생각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결과에 해당된다. 우리는 한옥의 의미를 찾으려 할 때, 일반적으로 근대보다는 전통, 일반적 건축물보다는 주택, 과거의 흔적보다는 잘 남아 있는 사례에서 찾으려 한다, 한옥의 의미 자체는 특정 시대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아야 하겠지만 우리에게 알려진 전통주택의 사례는 불가피하게 그 대부분이 조선시대 후반 이후에 남한에 지어진 사례들이라는 점도 기억되어야 한다.

한옥 짓기가 그 시작을 집터를 찾고 주변 산세의 형국과 경관을 보아 좌향을 정하려 하는 것은 자연환경과 집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의 문제로서, 한옥에서는 그 의미의 비중이 작지 않았다. 집터를 평평하게 고른 후에 돌을 써서 기단을 만들고, 그 위에 주초를 놓고, 나무를 써서 집의 틀을 짜고, 흙을 이겨 벽을 바르거나 기와로 만들어 지붕을 덮는다. 집의 평면을 만드는 세 기본요소인 부엌-방-마루 역시 그 바닥은 흙-돌-나무로 형성된다. 땅에서 떠 있는 마루와 온돌을 갖춘 방의 구성은 여름용 다락집과 겨울용 구들집, 즉 남방과 북방 건축요소의 혼합결과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사회적 신분과 경제적 여건에 따라 집의 규모와 배치가 달라지되 민가는 가장 기본적 요소를 갖춘 경우이고, 반가는 채가 나뉘고 추가적 공간이 합해져 더 복잡한 배치를 갖춘다.

남녀, 나이, 신분 등의 인간관계를 관리하려는 유교적 영향은 집 곳곳에 미쳤다. 대청과 마당을 활용하여 관혼상제 같은 통과의례적 행사를 치르되, 특히 조

선 후반으로 가면서 제사가 중요해지는 사회 변화가 사랑채의 확장이나 사당, 별채 등의 증축으로 이어진다. 처마의 길이에 의한 햇빛과 빗물의 처리, 문과 창호 등 개구부를 통한 바람과 시야의 조절, 부엌 아궁이와 온돌을 통한 취사와 난방의 해결 등의 생활환경적 대처방안도 한옥의 기술적 특징들이다.

한옥은 집 한 채의 문제로서 이해되기 어려운 것이, 집은 마을의 구성단위이기도 하고, 씨족구성의 계보에 따른 영향을 받으며, 인근에 위치한 서원·묘 재실 등의 문중 시설과도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근대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으므로 한옥의 정신과 가치는 과거사실적 의미라는 한계를 넘어서, 근대화 과정 이후의 미래 집짓기에 재생 가능한 의미로서 재해석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한옥(신영훈, 현암사, 2000), 조선시대 건축의 이해(김동욱,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한국민속의 세계4(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한국의 주거문화사(이중근, 우정문고, 2013).

필자 김성우(金聲遇)

한옥보존지구

韓屋保存地區

정의 한옥이 밀집되어 있어 역사·문화 가치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 가운데 한옥 및 한옥경관, 거주민의 생활을 보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구.

개관 본래 한옥보존지구韓屋保存地區라는 명칭은 1983년 우리나라 고유의 건축 양식 보전 및 주거생활 환경의 미관 유지를 목적으로 지정된 제4종 미관지구 지정에서 파생된 용어이다. 당시 제4종 미관지구제도는 건축물의 형태나 외관 등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특정 구역 안의 건축 제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한옥의 형태, 규모, 양식 등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한옥보존지구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실제 1983년 서울 종로구 북촌 전체가 제4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었고, 1990년대 초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주장하며 한옥보존해체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한옥보존지구지정 해제를 건의하기도 하였다. 미관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관, 시장, 도지사가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었으나 현재 경관지구와 통합되어 관리되고 있다.

내용 도시 내 한옥주거지역 또는 한옥밀집지역은 제4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한옥 보존을 위한 강력한 규제가 실시되어 왔으나 1990년대 이후 한옥 및 한옥주거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반발과 이들 지역의 개발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한옥에 대한 형태, 규모, 양식 등에 대한 동결식 규제정책은 점차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대표 한옥보존지구로 인식된 북촌 지역에 적용된 한옥 보존 관련 제도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6년 북촌 일대에 대한 민속경관지역 지정을 시작으로 1977년 최고고도지구지정, 역사문화미관지구(제4종 미관지구) 지정으로 이어졌다. 건축 행위의 본격 제한은 경복궁 일대가 최고고도지구 10m 이내로 지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개발 행위에 대하여 규제가 이루어지면서 시작되었다. 북촌의 서측 일부 지역이 최고고도지구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1978년 휘문고등학교가 강남으로 이전한 뒤 현대건설 사옥이 건설되면서 북촌 지역 개발을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위한 제도 마련이 본격화되었다. 당시 북촌 제4종 미관지구 지정에 따른 건축 규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 높이는 단독주택의 경우 1층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 2층 이하, 상업용 건물은 3층 이하로 차등을 두고 제한하였다. 건축물의 형태 및 양식도 망사르드 지붕이나 눈썹지붕 등과 같은 외래 양식은 제한하였다.

하지만 1991년 이후 제4종 미관지구 내 건축물의 높이 기준이 완화(주택의 경우 1층에서 10m 이하 또는 3층 이하)되고 최고고도지구의 높이 제한 역시 10m에서 16m로 완화되었다. 1994년에는 건축 기준 소관 업무가 서울시에서 종로구로 이관되고, 가회동 및 삼청동 일대 건축물의 높이 제한 역시 최대 5층

까지 10m에서 16m로 완화되었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한옥이 철거되고 다세대 또는 다가구 건축물이 본격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북촌 한옥주거지에 대한 보전 및 정비·관리를 위한 다양한 계획이 수립되기도 하였지만 주민들의 사유재산 개발 요구 및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북촌 지역은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특히 1993년 원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1996년 가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동시에 수십 채의 한옥이 철거되기도 하였다.

지역사례 2000년대 초 서울의 한옥 주거지 및 한옥 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도시계획 차원의 정책이 수립된 지역은 북촌한옥마을과 남산골한옥마을이었다. 북촌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추진해 온 다양한 역사경관 보전 정책이 1990년에 들어서면서 점차 주거환경개선 중심 정책으로 바뀌고 주민들의 저항에 부닥치면서 대폭 완화되었다. 이로 인하여 1990년대에 북촌의 한옥 및 한옥 경관이 크게 훼손되었다. 1999년에는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건축법>과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으로 북촌미관지구 내 건축 심의가 없어지고, 사실상 북촌 지역 규제는 최고고도지구만 남게 되었다. 2001년에 이르러 북촌에 대한 새로운 보전정책인 북촌가꾸기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이전까지의 보전정책은 규제 중심이었지만 북촌가꾸기 계획은 마을가꾸기 차원의 보전정책으로, 한옥등록제를 통하여 주민의 자율 참여를 유도하고 서울시 한옥지원조례를 근거로 공공 지원을 전제로 시행되었다. 북촌가









한옥보존지구 | 서울 종로구 | 국립민속박물관

꾸기 계획은 등록 한옥에 대한 개·보수 지원, 한옥 등 매입 후 공공 용도로 활용, 가로환경개선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훼손된 북촌의 역사 경관을 치유하고 회복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현재 북촌한옥마을을 보전할 수 있었다.

반면 서울시 남산한옥마을은 남산 제모습찾기사업의 일환으로 중구 필동에 위치한 전 수도방위사령부 부지에 새롭게 조성된 한옥마을이다. 남산 제모습찾기 사업계획은 1994년 '서울정도 600년'을 계기로 수립되었다. 이 계획에 따라 남산에 위치한 외인아파트가 1994년에 철거되고 1998년 남산골 한옥마을 조성 및 남산주변 고도지구 지정 등이 이루어졌다. 남산골 한옥마을에는 서울에 흩어져 있던 멸실 위기에 놓인 한옥과 훼손된 채 남겨진 한옥 가운데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5개 동을 옮겨와 조성하였다. 김춘영가옥(삼청동 125-1), 부마도위 박영효가옥(관훈동 30-1), 이승업가옥(삼각동 36-2), 순정효황후 윤비친가(옥인동 47-133), 해풍부원군 윤택영 재실(제기동 224) 등 5채의 한옥을 이전 복원하였다. 이들 한옥은 내부 개조가 심하고 본래의 위치에서 보존하기 어려워 남산한옥마을부지(필동2가 84-1)로 옮겨졌다. 사업 기간은 1995년 12월 27일부터 시작하여 1998년 1월 24일까지 2년 1개월이 소요되었다. 남산골 한옥마을 조성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역사 유산을 이축복원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보전한 사례이다.

특징 및 의의 현재 서울을 포함하여 지방에는 한옥주거지 또는 한옥밀집지역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이들 한옥주거지는 한때 한옥보존지구로 알려지면서 법제도 규제를 받아 왔다. 소유주들은 재산권에 대한 규제로 인식하고 반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한옥 및 한옥주거지는 전통주거 유형과 근대기 도시주거 유형, 주거지 구조, 주거문화를 간직하고 있으며 여전히 주거지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주거 양식과 문화 지속성을 보여 주는 중요한 역사 자원이자 생활문화 자원으로서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한옥보전정책은 한옥 자체에 대한 보존에서 벗어나 2014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한옥 등 건축자산법)이 제정되어 한옥 및 한옥 주변의 공간환경까지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역의 역사성을 고려하여 주거 환경을 정비하고 사대문 안 도심부와 같이 특별한 관리 단위로 설정하는 등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북촌한옥마을 보전관리를 위하여 한옥등록제 및 개·보수 지원, 한옥의 매입 및 활용, 정비 사업을 통한 주거 환경 개선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결식 보존이 아닌 현대식 생활을 수용하면서 한옥 본래의 가치가 유지되도록 한옥 보수를 유도하고 지원하고 있다.

남산한옥마을은 북촌한옥마을과 달리 주거나 상업 용도 지역이 아니다. 공공 소유이기 때문에 역사자원 및 경관의 보전 의지와 노력에 따라 현재 조성되어 있는 한옥 경관이 잘 유지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도시 개발 압력이 높아질수록 남산골 한옥마을 보전 방식은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다. 과거 소외된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장됨에 따라 보전 대상이 많아지고, 부득이 멸실 위기에 놓인 역사 유산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전 복원 방식이 취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북촌가꾸기 기본계획(서울특별시, 2001), 북촌 장기발전구상(서울특별시, 2006), 서울도심부 도시한옥주거지의 입지와 특성(송인호 외, 건축역사연구23, 한국건축역사학회, 2014), 전통한옥주거지역의 보존 방안에 관한 연구(손세관 외, 환경과학연구13, 환경과학연구소, 2002).

필자 김영수(金英洙)

함
函

정의 깊은 밑짝에 얕은 운두가 달린 뚜껑을 경첩으로 연결하여 여닫을 수 있도록 한 상자.

내용 함函은 귀중품을 넣는 용도로 쓰이는 상자이며, 자물쇠로 채우도록 되어 있다. 자물쇠는 뚜껑에 부착된 긴 낙목落目(길채라고도 함)의 중간에 달린 고리

(길목)와 몸체에 박힌 두 배목의 고리를 연결하여 잠그도록 되어 있다. 양측 널에는 들쇠가 있어 이동하기에 편하도록 하였다. 함은 요즘도 혼인 때 신랑 집에서 혼서지와 채단을 넣어 신부 집에 보내는 데 사용되고 있다.

함이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삼국시대에 사리를 담는 수정함水精函, 침향함沈香函, 순금함純金函, 은함銀函, 유리함琉璃函, 나전함螺鈿函과 불경을 담은 함 등이 기록되어 있다. 고려시대에는 의식에 사용한 조함詔函(조서를 담은 함), 책함冊函(임금의 칙명을 담은 함), 표함表函(임금에게 올리는 글을 담은 함)에 대한 기록이 있다.

1272년(고려 원종 13)에 원나라 황후가 장경을 담기 위하여 함을 요구하였고, 이를 제작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함조성도감에서는 실제로 상당수의 함을 제작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현존하는 고려시대 목제함은 아직까지 확인된 것이 없지만 고려시대의 나전경함은 조선시대 목제함이나 나전함과 그 양식이 유사하다. 그러나 형태에서 뚜껑 네 변의 모서리를 천판에서부터 경사지게 깎아 낸 점이 다르다. 이러한 뚜껑의 모깎임은 고려시대 청자에서도 나타난다. 또 조선 초기의 함에서 모깎기 양식의 흔적을 볼 수 있으나 중기 이후에는 궁중용 유물과 도장함에서만 확인된다.

고려시대 나전경함은 자물쇠로 잠그기 위하여 낙목만 달린 짧은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이르면 이 낙목이 길채라고 불리는 긴 형태가 되었고, 그 중간에 길목이 있어 잠그도록 되었다. 특히 뚜껑을 열었을 때 이 낙목이 바닥에 닿아 뚜껑이 몸체와 직선을 이루면 백골에 부착할 금구 장식을 맞춤 제작한 고급품임을 알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예부터 함은 귀중품을 담는 용도로 쓰였으며, 그 용도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기본 형태는 변하지 않고 다만 표면을 다채롭게 장식한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함은 사용된 지 100년이 넘는 우리 민족의 정서가 담긴 가구이다.

참고문헌 한국 민속의 세계4-주거환경(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필자 김삼대자(金三代子)



①



②

함 | 국립민속박물관
① 나전혼수함 | 가로70세로39 높이23 | 19세기 ② 서류함 | 가로35 세로18 높이22 | 조선

함실
函室

정의 온돌 구조에서 고래가 갈라지는 지점에 위치한 커다란 구덩이.

내용 함실은 움푹 들어간 구멍이라는 뜻으로 온돌 구조에서는 바닥을 데우기 위한 고래가 갈라진 지점에 위치한 커다란 구덩이를 지칭한다.

온돌 구조의 기본 틀은 불을 지피는 아궁이와 열기를 전달하는 고래로 구성된다. 방 전체에 구들을 까는 전면온돌의 경우 여러 줄기의 고래를 설치해야 하고 한곳에서 만든 열원을 모든 고래로 보내기 위해서 고래의 입구를 한 구멍에 모이게 해야 하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구멍을 함실이라 한다.

함실은 방바닥 아래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함실 내부 | 서울 종로구 창경궁 숭문당 | 정정남

만 양주 회암사지에서는 벽선을 중심으로 밖으로 돌출되어 설치된 유구도 확인된다. 함실이 방바닥 하부에 위치한 방보다 바깥으로 돌출된 함실에 불을 피우는 경우 함실이 아궁이가 되기 때문에 '함실아궁이'라 부른다. 별도로 부뚜막을 설치하여 불을 지피는 경우는 그저 함실이라고만 한다.

함실은 고래로 갈라지는 불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열기가 가장 강한 곳이다. 이에 함실 상부에 설치하는 구들은 함실을 덮을 수 있을 정도로 크기가 크고 열기를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두꺼운 것을 사용하는데, 이 구들장을 특별히 함실장이라 한다.

특징 및 의의 함실은 온돌 구조에서 열기가 모여서 갈라지는 곳으로 이곳의 상부가 온돌방의 아랫목이 된다. 함실에서 불 조절이 잘 안되면 방바닥의 아랫목은 시꺼멓게 타거나 불이 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덕수궁의 준명당이나 석어당과 같은 궁궐건축에서는 함실장 위에 구들장을 더 깔아 이중으로 만든 사례도 확인된다.

참고문헌 18세기 이후 조선사회의 온돌에 대한 인식변화와 난방효율 증대를 위한 건축적 모색(정정남, 건축역사연구27-3, 한국건축역사학회, 2018),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김왕직, 동녘, 2007), 한국건축개념사전(한국건축개념사전기획위원회, 동녘, 2013), 한국건축대계4-신편 한국건축사전(장기인, 보성각, 2005), 한국의 전통건축(장경호, 문예출판사, 1994), 두산백과사전(doopedia.c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정정남(鄭貞男)

해막
解幕

정의 동제 기간에 '피 부정不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신부를 마을 바깥으로 피신시키고 그 기간에 출산도 하도록 만든 임시 막사.

내용 마을제의에 있어 가장 큰 부정은 '산 부정'과 '죽은 부정'이다. 산 부정은 아기의 출생, 죽은 부정은 초상이 난 것을 각각 일컫는다. 죽은 부정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산 부정은 출산을 대략 짐작할 수 있어 동제 기간에 만삭滿朔의 임신부는 마을신의 영역을 벗어나 임시 막사인 '해막'에서 아이를 출산한다.

해막은 방 한 칸, 부엌 한 칸으로 이루어진 오두막으로 나무를 때서 불을 지필 수 있는 온돌도 놓았다. 임신부의 남편은 미리 해막에 가서 청소도 하고 땔나무와 식량도 마련해 놓는다. 아이를 받는 산파産婆도 미리 해막에 가서 여러 준비를 해두고, 임신부의 안녕과 순산을 위하여 해막신에게 제사를 간단히 올린다. 외연도에서 산파는 대개 아이를 많이 받아 본 경험이 있는 할머니로 '해막할매'라고 한다. 당제 기간 동안 해막에 피신해 있는 임신부들을 돌보는 역할까지 하며, '해막지기'라고도 부른다. 임신부가 해막으로 이동할 때는 대개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가 동행한다.

마을제사의 날짜와 제관들이 선정되면 마을에서 출산을 앞둔 여인들은 자신들의 마을을 떠나 일정한 장소로 옮겨야 한다. 충청남도와 경상남도 도서지방의 경우 섬 앞 무인도에 작은 집을 짓고 그곳으로 사람들이 자리를 옮긴다. 그 집을 애기를 낳는 곳이라 하여 '해산막解産幕' 또는 '애기집'으로 부른다. 피막避幕이라고도 부른다. 마을의 제사가 끝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부인들은 집으로 돌아오고, 해산막에서 아이를 받는 산파는 곡물 등의 일정한 대가를 받는다.

충남 서해안 섬지방의 해막은 대개 마을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반대 방향의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다. 일부 마을은 공동묘지나 사람이 죽을 때 혼불이 날아가는 장소 언저리에 해막이 있었다. 마을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라면, 해막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즉 비인간적인 영역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해막에서 낳은 아이가 마을로 돌아올 때는 일정한 의식을 치르기도 하였다. 비인간적인 영역에서 인간의 땅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치러지는 일종의 입사식入社式 같은 의식이다. 갓난아이가 배에서 내리기 전에 산모가 먼저 내려서 바닷가 개펄의 흙을 떠서 아이의 이마에 발라준다. 충남 보령 금촌에서는 1930년까지 애기고랑에 해막이 있어 12월 초부터 1월 중순 사이에 산고가 예상되는 부인들은 미리 그곳으로 피신을 하였다가 제의가 끝나면 귀가하였다. 충남 장고도에서도 정초에 진대서낭제를 지낼 즈음이면 임신부들이 '해막'으로 자리를 옮겼다.

전라북도 위도 지역에서는 당굿 때 출산을 '산막'에서 하도록 한다. 마을 회의에서 당제 날짜가 잡히고 제관이 선정되어 제물을 구입하기 위해 장배가 뜨면 곧바로 임신부들은 산막으로 피신하였다. 만일 임신부가 피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을에 재앙이 일어난다면 임신부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쫓아내기 전에 스스로 피한다. 임신부가 산막에 피신해 있는 동안에는 마을 사람과 서로 만날 수 없으며, 그것을 어기면 부정에 휩쓸리게 된다. 임신부가 산막에 가 있는 동안 식구들이 갑자기 급한 일로 연락할 일이 있으면 마을과 산막 한가운데 있는 산고개에 올라가 소리로 전달하였다.

경남 통영 비진도에서도 동제를 지내면 임신부들이 마을 고개를 넘어 해막으로 자리를 옮겼다. 해막은 돌로 담을 두른 두 칸 규모의 작은 집으로 그곳에서 아이를 분만한 산모도 있었다고 한다. 해막은 없지만 동제를 지내는 경우 다른 마을로 피신하는 사례도 전국적으로 나타난다. 가령 서울의 용문동 남이장군 사당제와 답십리 도당제, 행당동 당굿 등을 행할 때 임신부를 동네 밖으로 보내고, 아이를 낳은 집에서는 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징 및 의의 동제 기간에 마을에 출산이 생기는 경우 제의 자체를 연기하거나 지내지 않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개인의 출산은 마을 전체를 부정하게 만든다고 여겼다. 출산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후대를 생산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동제를 앞둔 마을 전체의 입장에서는 신성한 영역을 오염시키는 부정으로 여기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피 부정을 막아 마을을 성역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해막'이다.

참고문헌 마을신앙의 사회사(이필영, 웅진, 1994), 서울민속대관(박세직, 삼성출판사, 1990), 충남 서해 도서지방의 당제 연구-외연도를 중심으로(이필영, 국사관논총82, 국사편찬위원회, 1998), 파도를 건너는 천년의 노래(강남주, 빛남, 1992), 한국의 굿-위도 띠배굿(김수남, 열화당, 1993), 해막(이필영, 한국민속신앙사전-마을신앙, 2010).

필자 정연학(鄭然鶴)

해방촌
解放村

정의 광복 후 해외에서 귀국한 동포나 북에서 내려온 월남민들이 정착하여 형성된 주거지.

내용 해방촌解放村은 광복 이후 해외에서 돌아온 동포와 월남민, 6·25전쟁 이후 피란민과 이재민이 정착하게 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서울의 해방촌은 용산구 용산동에 위치하는 마을로, 남산의 서남부 구릉지를 사람들이 임시 거처를 사용하면서 조성되었다. 처음에는 광복 후에 생긴 마을이라는 뜻에서 해방동으로 불리었으나 대개 해방촌으로 불리었다.

남산 기슭의 언덕에 새로 조성된 해방촌은 광복 이전까지 산림지역이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의 사격장으로 사용되었다가 광복 후 미군정청이 관할하였다. 월남민들은 1946년경 당시 비어 있던 육군 관사를 집단 점거해서 살기 시작하였다. 당시 미군정은 이들 불법 체류민을 강제로 퇴거시켰고, 퇴거민들은 지금의 이태원동·용산동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이후 1960년대 해방촌은 산업화 과정에서 서울로 이주한 농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도심에서 인접한 곳에 정착한 주거 공간이었다.

본래 해방촌은 귀국 동포 및 월남민을 주축으로

광복 후 조성된 마을이었다. 하지만 6·25전쟁과 산업화 등으로 귀환 동포, 월남민, 피란민, 이재민, 이주민 등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조성한 무허가 주거지였다. 이후에는 미군과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 되었다. 오늘날 해방촌은 여러 국가에서 온 외국인과 한국인이 모여 살면서 이국 생활문화와 도시 경관이 형성되고, 이국 분위기의 카페·음식점 등이 생기면서 많은 사람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해방촌 지역은 2015년에 근린재생 일반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16년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역사례 현재 해방촌은 서울시 용산구와 구로구, 경기도 광명 지역의 일부 불량 주거지 및 공장지역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용산구에 위치한 해방촌은 행정구역상 용산 2가동으로, 용산동 4가까지 포함한다. 용산동 4가 중 미군기지가 있던 곳은 제외된다. 주한미군 용산기지는 이전 계획에 따라 2017년부터 미8군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평택기지로 이전하였다. 이 지역은 조선시대 이래 군사 요충지로, 러일전쟁 당시 일본군대가 주둔한 곳이기도 하다. 용산동 2가 역시 미군부대 시설이 있던 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해방촌 영역이다. 경기도 광명의 해방촌은 옥길동에 위치하며, 해방촌길을 따라 다수의 조립식 공장들이 들어서 있다. 서울 구로구 해방촌은 온수동에 있었으며, 현재 이곳은 온수동 연립주택 단지이다.

특징 및 의의 해방촌은 한국의 근현대 이주민의 역사 장소이다. 일제강점기부터 광복 후 6·25전쟁에 이르기까지 일본군 주둔, 광복 후 미군정의 관할과 월남민 정착, 산업화 시대의 농촌에서 상경한 이주민 정착, 이주 노동자와 외국인 유입 등 다양한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장소이다. 해방촌에 정착한 사람들은 크게 시기별로 구분할 수 있다. 1940~1950년대 광복 이후에는 해외에서 귀국한 동포들과 6·25전쟁 후 북에서 내려온 실향민들이 정착하였고, 1960~1970년에는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 개발로 시골에서 상경한 이촌향도민이 정착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는 미군 등 외국인이 거주하며 다문화 주거지로 변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도시지역의 형성 및 생태적과정에 관한 연구(이문웅,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6), 서울시 해방촌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도시재생(이나영 외, 한국도시지리학회지21, 한국도시지리학회, 2018), 서울을 거닐며 사라져가는 역사를 만나다(권기봉, 알마, 2008), 월남인 마을 해방촌(용산2가동) 연구(이신철, 서울학연구14,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0).

필자 김영수(金英洙)

행랑채

정의 하인 혹은 머슴이나 노비들의 살림방인 행랑방과 광 등으로 구성된 부속채.

개관 과거 신분사회에서 외거노비들은 양반주택 인근에 가랍집이라고 부르는 별도의 살림집에서 거주하였으나 솔거노비들은 주인 집의 행랑채에 거주하였다. 양반주택에서 안채나 사랑채의 바깥쪽에 배치되는 행랑채는 노비 가족이 살림하는 실들과 수납공간인 광 등으로 구성된다. 행랑채에 문간이 설치돼 문간채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전통적인 농촌주택은 안채를 기본으로, 여력이 있으면 사랑채를 두고 나아가 머슴을 부려 농사를 지을 정도면 행랑채를 두었다.

조선 후기 신분제도의 철폐와 함께 행랑채의 사용자인 노비가 점차 사라져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행랑채가 거주 기능을 잃고 부속채의 하나로 사용되었고, 근대주택에서는 행랑채가 사라지게 되었다. 농가에서는 머슴의 생활공간이던 행랑채가 사랑채의 역할을 하거나 축사나 잠실 등 생산 혹은 부속 용도로 바뀌었다.

내용 행랑채는 거주 기능과 작업 및 수장 기능을 수용하는 복합용도 건물이다. 농촌주택에서는 행랑채에 소막 혹은 외양간을 설치해 일꾼들과 가축을 가까이 두려 하였다. 행랑채와 사랑채가 나란히 배치되거나 두 채가 하나의 몸체로 결합된 경우도 있다.



행랑채 | 강원 강릉 선교장 | 한필원

노비 혹은 머슴이 사용하는 행랑채는 주인 가족이 사용하는 안채나 사랑채보다 격을 낮추어 팔작지붕이 아닌 맞배지붕이나 우진각지붕으로 하고, 지붕 재료도 기와가 아니라 초가로 해 사용자의 신분을 드러냈다.

행랑채를 안행랑채와 바깥행랑채 등 두 채로 구성하는 규모 있는 집에서는 일반적으로 바깥행랑채에 집 전체의 주출입구인 대문을 설치하고 안행랑채에는 안채로 가는 중문을 설치해 행랑채가 곧 문간채가 된다. 대지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바깥행랑채는 밖으로 난 개구부가 적으며 내부의 주거영역을 견고히 둘러싼 형태이다. 바깥행랑채와 안행랑채 사이에는 작업공간인 행랑마당이 형성된다. 바깥행랑채 바깥으로 조성한 바깥마당은 머슴들이 가마니나 멍석을 짜고 타작을 하기도 하였던 작업마당이다. 바깥행랑채에 바깥마당 쪽으로 툇마루를 내어 채와 마당이 긴밀히 연결되도록 한 집들도 있다.

지역사례 안동 하회마을에서는 주택의 전면에 행랑채와 사랑채를 나란히 배치한 집들을 볼 수 있다. 충효당에서는 안채 앞의 안행랑채가 사랑채와 나란히 연결되어서 안채 앞을 길게 가려 준다. 조순희 가옥은 문간을 중심으로 행랑채와 사랑채가 좌우로 나란히 배치되었다. 이 두 채는 각각 세 칸으로 칸수가 같고 건물 높이도 대등하나 지붕 재료는 다르다. 사랑채는 기와, 행랑채는 초가로 함으로써 지붕 재료로 채에 거주한 사람들의 신분 차이를 나타냈다.

특징 및 의의 1828년(순조 28) 창덕궁의 후원인 금원 안에 건립되어 전형적인 조선시대 상류주거의 모습을 보여주는 연경당에서 볼 수 있듯이, 하인들이 사용하는 행랑채는 규모와 형태요소 그리고 구조방식 등에서 다른 채들보다 격이 낮다. 연경당에서 안채와 사랑채는 세벌대의 높은 기단 위에 놓여 있는 데 비해 행랑채는 외벌대의 낮은 기단 위에 지어졌다. 구조형식과 지붕에서도 이러한 위계가 나타나는데, 안채와 사랑채는 오량 구조에 위계가 높은 건물에 주로 사용된 팔작지붕을 이었으나 행랑채는 간략한 3량 구조에 맞배지붕으로 지어졌다.

참고문헌 오래된 도시의 골목길을 걷다(한필원, 휴머니스트, 2012), 집의 사회사(강영환, 웅진출판, 1992), 한국의 살림집(신영훈, 열화당, 1983), 한국의 전통마을을 찾아서(한필원, 휴머니스트, 2011).

필자 한필원(韓弼元)

헛간

정의 막 쓰는 물건을 넣어 두는 한 면이 트여 있는 광.

개관 헛간과 비슷한 용어로 허청虛廳이 있다. 허청은 청판廳板이 없이 흙바닥으로 된 간으로, 공청空廳으로도 쓰인다. 바닥마루나 반자를 꾸미지 않고 창문도 달지 않은 간이다. 보통 헛간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즉 헛간은 곳간과 달리 문이나 창문이 없는 개방된 공간으로, 흙바닥으로 된 공간을 말한다. 이곳에는 귀중한 물품이나 곡류 등을 보관하는 곳간과 달리 막 쓰는 물건을 보관하는 곳이다. 헛간채에는 농가 필수 공간으로 광, 우사, 여물을 쌓아 두는 공간 등이 들어선다.

내용 헛간은 따로 독립된 건물을 이루는 수도 있으나 보통 행랑채나 안채 일부로 부속되어 있는 경우가 흔

하다. 헛간 구조는 가장 간단한 가구 형식인 3량집이 보통이다. 앞이나 뒤에 반 칸 정도의 툇간을 마련하기도 한다. 헛간 구조의 특색은 마당에 면한 벽면의 경우 벽체를 두지 않고 개방시켜서 출입을 편하게 하는 데 있다. 바닥은 대부분 흙바닥으로 되어 있다. 천장은 설치하지 않으며, 지붕은 대부분 짚으로 덮는다. 조선시대 서민 주택의 경우 헛간 용도는 복합 성격이어서 건초나 곡물 저장은 물론 간단한 작업장이 되기도 하고 기물창고나 외양간을 겸하기도 하였다. 부잣집 주택의 경우 주로 행랑채와 안채의 일부에 부속되어 있다. 행랑채에 부속된 헛간은 가마·수레 등을 놓아두거나 작업용 기물을 두는 방으로 쓰이며, 안채에 부속된 헛간은 곡물창고로 쓰인다. 헛간채가 안마당에 면하여 독립하는 경우 방아실을 마련하기도 한다. 헛간은 주거 건물 외에 관아에서도 행랑의 일부로 지어져 기물 보관 장소나 마구간으로 사용되었다.

특징 및 의의 농촌에서 퇴비를 만들 목적으로 풀이나 재 등을 헛간에 쌓아 두고 그 한쪽에 노둣돌을 놓아 용변을 보도록 꾸미기도 한다. 즉 헛간채에 재래식 변소가 부설되는 형식이다. 이런 경우 측간厠間의 한 종류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보통 잿간[灰間]이라고 부른다. 잿간은 재래식 변소가 있는 건물로, 부엌에서 나온 재를 모아 두는 곳이다. 재는 변과 함께 두엄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 특성상 냄새가 나기 때문에 잿간 내부에 쌓아 두었다가 논, 밭의 밑거름으로 쓴다. 변소에 독을 묻어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독을 묻지 않고 디딤돌만 두는 경우도 있다.

조선 효종 때 이유태李惟泰(1607~1684)가 이상형의 집에 관하여 서술한 『초려집草廬集』에는 헛간 용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는 중옥重屋이라고 표현하며 침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초가인 중옥을 세우되 3간 가운데 2간은 곳간[庫間]이어야 하고, 나머지 1간은 헛간으로 하여 땔나무 등을 쌓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조선 후기 서유구徐有榘가 지은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 따르면 재를 쌓아 놓는 잿간[灰屋]은 유酉 방위가 적합한데 그곳에 지으면 주인에게 곡식이 많아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잿간은 반드시 측간과 가까이 지어야 좋다고 하였고, 이곳의 뜨거운 재는 불이 나기 쉬우므로 인거人居에 바짝 붙여서 지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또한 잿간은 사면에 벽을 쌓은 뒤 앞면에는 작은 문을 하나 뚫고 널판 문을 달아 둔다. 윗부분은 보를 얹고 서까래를 깐 뒤 삿자리를 덮고 이엉으로 지붕을 잇는다. 매일 사람의 오줌을 가져와서 재에 뿌린다. 그러면 분뇨를 비료로 만들 뿐만 아니라 뜨거운 재에서 불이 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문을 낼 때는 바람을 맞는 곳은 반드시 피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초가 헛간 | 경기 용인 한국민속촌 | 국립민속박물관

참고문헌 산수간에 집을 짓고(서유구, 안대회 역, 돌베개, 2009), 한국의 살림집(신영훈, 열화당, 198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stdict.korean.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남호현(南虎鉉)

현관
玄關

정의 외부 공간에서 내부 공간으로, 내부 공간에서 외부 공간으로 출입할 때 거치는 전이轉移 공간.

개관 현관玄關이란 외부 공간에서 내부 공간으로 진입하는 데 거치는 매개 공간이다. 개항기의 서양식 주택이나 한·양식 절충주택, 20세기 초 서양의 영향을 받은 일·양 절충식 주택을 통하여 현관이 처음 소개되었다. 현관이란 '어두운 공간'이란 뜻의 일본식 표현이다. 현관이 띠는 또 하나의 기능은 우리나라와 같이 좌식생활을 하는 주택의 경우 신을 벗어 놓는 장소라는 것이다. 전통주택에서 대청 양쪽의 방은 쪽마루를 통하여 들어가기도 하였지만 주로 대청 전면으로 올라가 대청을 통과하여서 진입하도록 되어 있어, 대청이 곧 오늘날의 현관 역할을 대신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내용 현관의 등장은 주거공간이 내실화되고 대청이 거실로 변화하면서 대청 전면의 개방 성격이 사라지는 것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전통한옥에서 현관과 견줄 수 있는 공간은 대청이다. 또한 전통주택이나 도시한옥의 경우 대청과 툇마루 혹은 쪽마루가 있어 각 실에서 외부 공간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많았다. 그러나 서구식 주택에서는 외부로 통하는 동선이 현관이라는 하나의 진출입進出入 공간에 집중된다. 대청은 마당으로 개방되어 있었고, 그 전면에 댓돌을 두어 신을 벗어 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한옥에 설치된 현관의 초기 사례는 대청 전면에 포치porch와 비슷한, 기둥이 있는 지붕을 부가한 형태였다. 이러한 사례는 1910~1920년대의 몇몇 근대한옥에서 볼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서양식 주택이 본격 지어지기 시작하면서 거주공간 전면에 유리창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화되었고 대청이나 마루의 전면을 통하여 진출입하는 방식 대신 따로 현관을 갖추어 사용하게 되었다.

현관은 우리의 주생활 양식처럼 실내에서 신을 신지 않는 경우, 실내용 신으로 갈아 신는 경우 등에 신을 벗어 놓는 장소이다. 일제강점기의 건축가 박동진은 "신발은 풍우에 젖거나 엄동에 얼거나 할 염려가 조금도 없으며……."라고 하여 현관의 장점을 강조하였다. 일제강점기 건축가 박길룡 역시 전통주택에서의 분산된 각실 간 동선을 합리 타당하게 해결하고 신을 처리하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내실화된 현관, 즉 일본식 현관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초창기 일식주택의 영향을 받은 주택의 경우 현관은 평면의 후면 또는 측면에 위치하고 이것이 대체로 주거공간 내부의 복도와 연결되는 형태였다. 이와 달리 대청이 변화하면서 나타난 현관은 주로 6·25전쟁 이후 1960~1970년대 지어진 민간 단독주택에서 관찰할 수 있다. 이때 현관은 평면의 전면에 위치하며, 복도가 나타나지 않고, 직접 거실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이 크게 다른 점이다.

특징 및 의의 현관 유무는 전통주택과 서구화된 주택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주택 전체 평면 구성을 좌우한다. 박길룡은 홑집 형태 주택에서 나타나는 분산형 동선과 재래식인 중정식 주택 및 겹집 형태 주택에서 드러나는 집약된 동선, 현관의 존재가 특징인 집중식 동선을 비교·연구하였다. 이 두 형식은 한국 주택의 변화 과정에서 꾸준히 논의 대상이 되었다. 한옥의 경우 대청·툇마루·쪽마루 등이 각 방에서 외부



현관 | 주택문화사

공간으로 진출입하는 통과 공간, 즉 현관 역할을 하였다면 서구식 주택에서는 외부로 통하는 동선이 한 곳을 거치도록 현관에 집중되어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의 연계가 약하다. 현재 한국의 주택에서 현관은 반드시 존재한다. 다른 주거 공간의 바닥과 10㎝ 정도 단차를 두어 기능이 신을 벗어 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다른 공간과의 구분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 현관문을 닫으면 외부 세계와 단절된, 사생활 공간이 완전히 보장되는 구성이다.

참고문헌 우리생활 100년 집(김광언, 현암사, 2000), 집-집의 공간과 풍경은 어떻게 달라져 왔을까(전남일, 돌베개, 2016), 한국 주거의 공간사(전남일, 돌베개, 2009), 한국 주거의 미시사(양세화·전남일·홍형옥, 돌베개, 2009), 한국건축개념사전(한국건축개념사전기획위원회, 동녘, 2013), 한국건축사(주남철, 고려대학교출판부, 2002), 한옥과 한국 주택의 역사(권용찬·전봉희, 동녘, 2012).

필자 전남일(田南一)

현판
懸板

정의 글자 또는 그림을 새겨 문 위나 벽에 다는 널.

개관 조선시대에는 편액扁額과 조금 다른 의미로 현판懸板이 사용되었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원문을 살펴보면, 조선 초기에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일을 공지할 목적이나 시영詩詠을 지어 정자 안에 걸어 둘 목적으로 널빤지에 새긴 것을 '현판'이라 표현하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다. 반면 건물의 이름을 명명하는 목적으로 글씨를 새겨 내거는 경우 편액을 주로 사용하였다.

편액과 현판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시기는 20세기로 추정된다. 20세기에 들어서 현판은 편액의 의미까지 아우르며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또한 근대적 형태에 맞게 제작된 현판은 오로지 현판으로만 불리기 시작하였다. 반면 전근대에 제작되어 현전하거나 전통 양식에 의하여 새롭게 제작된 '편액'은 현판과 편액이라는 명칭이 혼용된다.

내용 『조선왕조실록』의 용례에 따르면, 조선시대의 현판은 크게 두 가지 용도로 구분된다. 우선 '공지'의 목적이다. 1441년(세종 23) 진공마進貢馬를 명나라로 보내는 시기를 어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승문원 안에 진공 종마색進貢種馬色을 두고 벽에 현판을 걸어 상황을 기록하게 하였다. 1463년(세조 9)에 죄를 지은 중을 국문케 하고, 이를 제역諸驛·제사諸寺의 대문에다 모두 현판을 걸어 보이도록 명령하였다. 이러한 기사를 통해 현판은 오늘날의 게시판과 흡사한 용도로 사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아울러 제영題詠이나 문기文記를 새겨 누정 등에 걸어 놓은 널빤지를 '현판'으로 칭하는 사례가 조선왕조 전 시기에 걸쳐 종종 보인다. 1460년(세조 6) 왕이 부벽루浮碧樓에 올랐을 때 "현판의 제영을 보았다."



현판 | 경기 용인 한국민속촌 | 강희원



현판 | 서울 마포구 | 1981 | 국가기록원

라고 한 것이나, 1704년(숙종 30) 왕이 지은 제영을 이를 때 "벽에 걸린 현판[壁上懸板]"이라 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므로 조선시대의 편액과 현판에는 개념상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둘 사이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현판이 오늘날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근대, 즉 20세기 이후의 변화이다. 을사늑약 이후 이왕직李王職(일제강점기에 조선 왕실의 일을 맡아보던 관청)에 의해 편찬된 『고종실록高宗實錄』을 보면, 신설된 관청의 명칭을 새겨 대문에 걸어 두는 것과 기문을 지어 건물에 붙이는 일을 통틀어 '현판'으로 기록하였다. 또한 중건된 경복궁의 각 문과 전각들의 이름을 새겨 거는 경우에도 현판이라 적었다. 즉 편액과의 구분이 모호해진 것이다. 새로 출범하는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의 명칭을 널빤지에 쓰거나 새겨서 내거는 관행은 현재까지도 매우 널리 행해지지만, 20세기 이후에는 그 양식이 다소 차이가 난다.

20세기 초반부터 현재까지 사용된 현판의 용례를 『동아일보』를 통해 살펴보면, 현판과 편액의 의미가 혼용되는 가운데 전통적 양식의 편액을 지칭할 때 '현판'이 사용된 사례가 증가하였다. 그에 비해 근대 이후에 세워져 오늘날의 현판 형태로 만들어진 것을 편액으로 칭하는 예는 매우 적다. 따라서 건물이나 기관의 명칭을 널빤지에 새긴 경우, 만들어진 시기가 조선시대 이전이거나 제작된 방식이 조선시대 이전의 것을 따랐다면 '편액'으로, 근대 이후의 양식으로 제작되어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면 현판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특징 및 의의 현판은 본래 특정한 사안을 공지하려는 목적으로 벽에 설치하는 널빤지였다. 그런데 건축 양식이 서구의 근대적 형태로 변화하고, 일본이 한국을 강점한 이후 근대 일본식 현판이 도입되었다. 그에 따라 기관이나 단체명을 널빤지에 써서 소재한 곳의 정문에 내거는 것을 현판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편액과의 구분이 모호해졌다. 따라서 현판의 형태 또한 편액과는 달라졌는데, 편액 가장자리의 장식적 테두리는 거의 사라진 대신 기관이나 단체명을 방문객이나 행인에게 공지하는 기능적 측면이 강조되었다. 아울러 기관을 새로 설치하거나 이전할 때에 현판을 떼고 내거는 현판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정문에는 크고 화려한 현판을 달고, 후문에는 그보다 작은 현판을 다는 것도 현판에 관한 건축적·주생활적 특징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명찰편액순역 김일두저 명필의서체 한눈에(동아일보, 1979.8.27).

필자 이대화(李大和)

협문
夾門

정의 삼문의 정칸 좌우에 있는 작은 문 또는 건물 측면이나 배면 담장에 별도로 낸 작은 문.

내용 '협문夾門'은 작은 문을 지칭하는 것이며, 크게 두 가지 형태이다.

첫째, 대문 양옆에 설치된 작은 문 형태이며 삼문에서 볼 수 있다. 이때 솟을삼문에 있는 협문이라면 사람 한 명이 통과할 정도로 작고 정간의 문보다 낮게 한다. 평삼문이라면 협문의 폭을 정간보다는 좁게 설치하나 지붕 높이는 같다. 궁궐에서 볼 수 있다. 건물의 칸[間]을 나눌 때 정간, 협간, 툇칸 순으로 나누는 것과 유사한 원리이다.

둘째, 동일 대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담장에 내거나, 담장으로 둘러싸인 일정 구획의 출입문이다. 크기는 사람 한 명이 통과하는 정도의 작은 문이다. 대지 내 건물 간의 통로, 대지 밖으로의 통로에서 모두 볼 수 있다. 이때의 협문은 '쪽문', '샛문'과 혼용하는 경우도 있다. 살림집의 경우라면 안채와 사랑채 사이 내외담에 내는 작은 문이 쪽문, 샛문, 협문에 해당한다. 궁궐 내에서는 전각 사이 측면이나 배면 담장에 내는 작은 문, 성곽에서는 문루 주변에 두른 담장의 출입문이 모두 협문이다.

협문은 대개 담장보다는 조금 높게 설치하나 성인 한 명이 고개를 숙여 지나가야 할 만큼 작은 규모


경북 청도 운강 고택


경기 양주 백수헌 가옥


강원 삼척 김진흥 가옥

협문 | 주택문화사

가 많다. 이때 궁궐 등에서 볼 수 있는 평삼문의 협문은 예외이다. 협문은 규모가 작으므로 담장에 붙여 일각문이나 사주문으로 설치한 형태가 많다. '일각문一角門'은 두 개의 기둥을 세우고 주로 두 짝의 널판문을 끼우며 기와지붕을 하는 형태가 많다. '사주문四柱門'은 네 개의 기둥을 네 모서리에 두어 한 칸을 만들고 두 짝 널판문을 끼운 후 기와지붕을 이은 형태가 많다.

특징 및 의의 협문을 일각문으로 조성하는 경우는 서까래를 산 모양처럼 가운데가 솟아오른 형태로 만들 수 없다. 따라서 서까래는 지면과 나란히 평평하게 두는 경우가 많다. 이때 사용되는 서까래는 대부분이 '방형 서까래(방연方椽)'이다. 앞뒤의 서까래가 서로 지지하는 형태가 아니어서 지면과 나란히 조립하기 때문에 조립이 용이한 방연을 선호하였다. 다수의 『영건의궤營建儀軌』에서도 협문에 원형서까래가 아닌 방형서까래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의궤에 기록한 방연方椽이 방형의 서까래이다. 협문에 따라서는 방연을 이중으로 설치하는데, 아래에 짧은 방연을 두고 위에 긴 방연을 둔다. 이 긴 방연을 장방연長方椽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협문을 쪽문 혹은 샛문과 혼용하는 경우가 많다. 쪽문, 샛문, 협문 모두 동일하게 작은 문을 의미하지만 이 세 종류의 문을 명확하게 구분해 놓은 사료는 없다. 다만 용례상 쪽문과 샛문은 유사하고, 협문이 이 둘과 조금 다르다는 특징은 파악할 수 있다. 쪽문과 샛문은 편의를 위해 추가로 설치한 문인 사례가 많다. 쪽문과 샛문은 공간 이동을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해 설치한 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된 문은 별도로 있다. 같은 위치에 크게 설치하거나 위치 자체가 다르기도 하다. 이렇듯 보조 역할을 하는 문이 쪽문과 샛문이다.

협문은 협문 자체가 주된 문인 용례가 다수이다. 삼문의 협문은 협문으로만 다닐 수 있는 사람과 정칸의 문으로 다니는 사람을 구분하였다. 건물 간의 이동에 필요한 협문의 경우는 주변이 담장으로 가로막혀 협문이 없으면 그 공간의 통로가 없어지는 셈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쪽문과 샛문은 보조문으로서 성격이

강하지만, 협문은 규모만 작을 뿐 중문이나 대문처럼 대개 독립적인 출입로 역할을 하였다.

참고문헌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김왕직, 동녘, 2007), 영건의궤(영건의궤연구회, 동녘, 2010), 한국건축개념사전(한국건축개념사전기획위원회, 동녘, 2013), 한국건축대계1-창호(장기인, 보성각, 2000), 한국건축대계4-신편 한국건축사전(장기인, 보성각, 2014), 한국의 문과 창호(주남철, 대원사, 200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stdict.korean.go.kr).

필자 조현정(趙賢貞)

호롱

정의 석유를 담고 뚜껑에 심지를 끼운 작은 항아리 형태의 등.

개관 밀초[蜜燭]나 동·식물성 기름을 사용하는 전통 등燈을 대신하여 석유石油 수입 이후부터는 석유를 연료로 한 유등油燈이 널리 쓰이게 되었다. 석유등石油燈은 빛의 밝기와 연료 구입의 편리성,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점차 전통 기름등잔을 대체하여 갔다. 1970년대 전국에 전기가 보급될 때까지 석유등은 중요한 조명 수단이었다.

우리나라에 석유가 처음 수입된 것은 1876년(고종 13) 일본과의 통상조약 이후로 본다. 그러나 황현黃玹은 『매천야록梅泉野錄』 석유시용조石油始用條에서 1880년(고종 17)이라고 기술하였다. 석유가 보급되면서 산과 들에 기름을 짜는 열매가 번성하지 않게 되었으며, 온 나라에 석유로 등을 사용하지 않는 자가 없게 되었다고 한다. 호롱불을 처음 사용하였을 때는 그 색깔이 붉고 냄새가 고약하였으며, 한 홉[合]이면 열흘 밤을 켤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몇 년 지나지 않아 색깔이 점점 희어지고 냄새도 없어졌지만 화력이 줄어들어 한 홉으로 사나흘 밤 정도를 사용할 수 있었다.

내용 등잔에 사용한 전래의 기름은 석유가 수입되면서 석유로 급격히 대체되었다. 등잔 형태 또한 종지형에서 호형壺形 또는 원통형으로 바뀌었다. 석유의 인화성引火性 때문에 따로 뚜껑을 만들고 여기에 심지[燈心]를 박아 사용하게 된 것이다. 작은 항아리 모양을 닮았다 하여 '호롱'으로 불리었지만, 석유등으로서 유리로 된 바람막이가 있는 남포등[lamp, 洋燈]과 함께 전기 도입 이전까지 널리 사용되었다. 오늘날 사람들의 추억 속 등잔은 대개 이 호롱이다.



호롱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① 남포등 | 밑지름17 높이30 ② 쌍심지호롱 | 밑지름7 높이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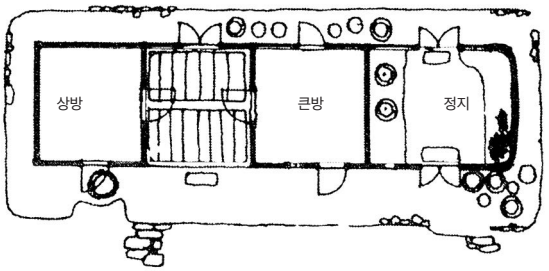
호롱은 사기나 유리, 놋쇠 또는 양철 따위로 작은 병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아래에는 석유를 담을 수 있도록 둥글게 하고 위 뚜껑에는 심지를 해서 박아 불을 켤 수 있도록 작은 구멍을 내었다. 간혹 조도照度를 밝게 하기 위하여 심지를 쌍으로 내거나 '불조심'과 같은 화재 예방 문구를 몸통에 새겨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동이 편리하도록 호롱 몸통에 손잡이를 달거나 등잔 심지를 쉽게 오르내리세 하여서 불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나사 방식으로 개량한 것도 있다.

특징 및 의의 호롱에서 쌍심지 형태는 한 등잔에 두 개의 심지구멍을 내고, 여기에 심지를 박아 불을 밝힐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심지가 하나일 때보다는 둘일 때 더 밝기 때문에 조도를 높이기 위하여 고안된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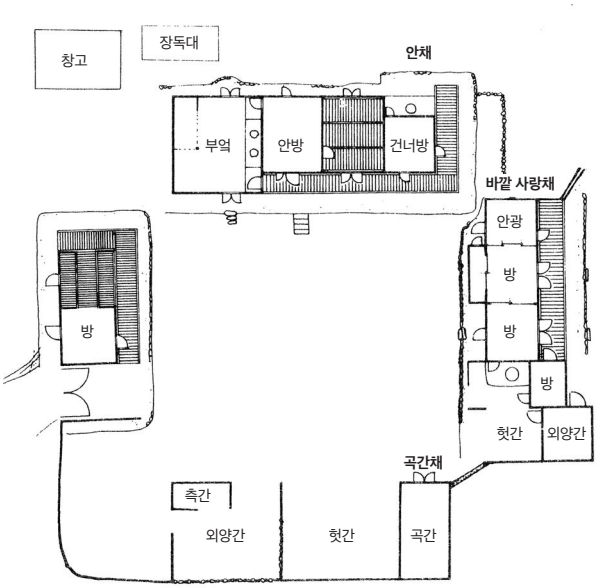
우리 속담에 '두 눈에 쌍심지(를) 켠다.'라는 말도 이러한 호롱 모습에서 유래한다. 지금도 몹시 화를 내어 두 눈에 열화熱火를 띤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두 개의 심지를 박아 사용하다 보니 그만큼 기름이 많이 소모된다. 당시 비싼 석유값 때문에 일명 '부자富者등잔'으로도 불리었다. 쌍심지 형태뿐만 아니라 심지가 여러 개 있는 3심지나 4심지 형태의 호롱도 가끔 볼 수 있다.

참고문헌 梅泉野錄, 빛(국립민속박물관, 2005), 두산백과사전(doopedia.c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e뮤지엄(emuseum.go.kr).

필자 민병근(閔丙槿)



홑집 | 한국의 민가 | 조성기·한울아카데미



홑집으로 구성된 민가 | 김지민

홑집

정의 한국 전통 살림집 평면 분류의 한 유형으로, 각 방이 종도리 아래에서 한 줄로 나란히 들어서는 구조.

내용 한국 전통 살림집은 방의 배열 방식에 따라 평면 유형으로 분류된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횡으로 긴 장방형 구조인 一자형과 이를 기본으로 하여 변형·발전한 ㄱ자형, ㄷ자형, ㅁ자형 등 외형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건물 내부에서 방의 배치 형식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이다. '홑집'은 바로 후자 형식에서 나온 분류 방법의 하나이다. 이와 대비되는 '겹집'도 있다.

홑집은 각 방이 대들보 아래에서 한 줄로 나란히 들어서는 구조를 하고 있다. 즉 전후로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 사이에 벽체를 구성하여 방을 배치하는 형식이다. 구조상 정면 칸(도리 칸)은 여러 개일 수 있으나 측면 칸(보 칸)은 한 칸이다. 이 구조는 방들이 한 줄로 들어서기 때문에 길이에 비하여 폭이 좁고, 구조 측면에서도 단순하다. 방을 구성할 때 지역 특징이 반영되기도 하였으나 서민층의 경우는 규모의 한계와 경제성 등으로 부엌, 안방, 대청(마루방) 등 주생활에 필요한 기본 방으로 한정되었다. 홑집은 앞뒤로 창호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각각의 방이 개방되고, 채광과 환기에 유리하다.

홑집은 여건상 추운 함경도나 강원도 등 산간지역과 제주도 같은 특별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에 걸쳐 고루 분포한 한국의 보편화된 집 구조이다. 특히 서해안의 기후가 온화한 평야지대와 연평균 기온이 다른 곳에 비하여 높은 남부지방에서 발달하였다. 또한 홑집은 서민과 상류층 등 신분과 관계없이 지속 발전하였다. 한편 조선 후기로 갈수록 중농가가 늘면서 안채만

으로 살림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행랑채 같은 부속채를 따로 건립하기도 하였다. 이 집들도 홑집 구조로 되어 있다.

홑집은 전면 또는 전후면, 더 나아가 측면에까지 선택해서 툇간을 둠으로써 공간 확대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그곳은 '툇마루'라고 일컫는 마루가 설치되어 실내로 들어가는 전이 공간 역할을 하기도 하고 앉아 쉴 수 있는 공간도 된다. 후면에도 같은 형식으로 툇간을 두어 기존 방이 그곳까지 넓혀지기도 하고 골방이나 고방 등이 독자 형태로 꾸며지기도 한다. 이러한 구조는 공간 수요가 증대되는 근대기 가옥에서 많이 나타나는 홑집 변천 과정의 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집을 툇집이라고도 한다.

특징 및 의의 홑집은 고대 움집 이후 우리나라 살림집의 초기 발생부터 조선시대까지 널리 지어진 대표 주거 유형이다. 구조가 간편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 노력 없이도 대체로 쉽게 집을 지을 수 있었고, 환경으로도 채광과 환기가 용이하였다. 기후가 온화한 한반도 서부와 남부지역에서 마당과 함께 널리 발달하였다. 홑집은 학자에 따라 외통집이라고도 한다.

참고문헌 집의 사회사(강영환, 웅진출판, 1992), 한국의 민가(조성기, 한울아카데미, 2006), 한국의 살림집(신영훈, 열화당, 1983).

필자 김지민(金知民)

화단
花壇

정의 꽃을 심기 위하여 흙을 한 층 높게 하여 꾸며 놓은 꽃밭.

내용 삼국시대에 정원의 축조가 시작되면서 이미 화단花壇을 꾸미는 일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헌상에는 화오花塢라는 용어가 고려 중엽에 등장하며, 고려 후기에는 화장오花藏塢라는 말도 나타난다. 오塢는 낮은 섬을 일컫는다. 꽃을 심어 가꾸는 자리의



낙선재 화계 | 서울 종로구 창덕궁 | 국립민속박물관



교태전 화계 | 서울 종로구 경복궁 | 국립민속박물관



화단 | 경북 안동 | 최지현



화단 | 경남 거창 동계 종택 | 서헌강

주위를 장대석으로 성곽과 같은 모양으로 낮게 둘러놓았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이 생겨났다. 조선 지식인들 사이에서 화오라는 말이 널리 쓰였고,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꽃밭이라는 우리말이 널리 쓰였다.

원래 우리나라 살림집에는 예전부터 안마당 또는 앞마당에 나무나 꽃을 심어 정원을 꾸미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대부분 뒤뜰이라고 부르는 후원後苑에 화단을 조성한다. 후원은 집에서 가장 후미지고 아늑한 장소이다. 이곳은 곧 여성의 세계에 속한다. 이러한 후원에는 기화奇花와 이초異草가 만발하고 화과花果가 무르익으며, 특히 화계花階와 괴석이 경관을 이룬다. 화계는 경사진 땅을 몇 개의 단으로 만들 때 생기는 단차에 꾸민 화단이다. 화계는 단차를 평범한 토목구조물인 옹벽으로 처리하지 않고 옹벽 겸 화단으로 조성된 매우 아름다운 과학 조형물이다. 화계에 꽃과 나무를 직접 심기도 하였지만 괴석怪石이나 석분石盆을 두기도 하였고, 화분을 철따라 바꾸어 화계에 늘어놓았다.

특징 및 의의 마땅한 후원이 없는 집에서는 안뜰이나 앞뜰에 화단을 두어 조그만 석가산石假山을 쌓고 화목花木을 심어 꾸미기도 하였다. 살림집에서의 화단은 마당 일부에 평지나 담장 아래 장대석을 쌓아서 흙을 채우고 나무나 화초를 심는 방식으로 하였다. 화단에 심는 식물을 선정할 때는 풍수지리설이나 민속 또는 지식인들의 유교 사상 원리 등에 의거하여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가렸다. 즉 고아高雅, 부귀, 운치 등과 같은 형이상학적 기준과 함께 이용의 편리 등과 같은 경제 기준에 따라 식물의 등급이 매겨졌고, 그 기준에 따라 식물을 심었다. 또한 화단에 식물을 심을 때 수종뿐만 아니라 장소도 제한되었다. 권장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금기시되는 것도 있었다. 가령 큰 나무를 중정에 심는 것을 상당히 꺼리고 꽃나무나 꽃을 심는 것을 권장하였다. 이는 마당의 양기를 나무의 음기가 가리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현실을 감안하여 집 안의 환경을 양명하게 하고 가용 기간을 늘려 실리를 얻기 위한 원칙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대문 앞, 마당 안, 담장 옆 등에 심는 꽃과 나무의 종류 및 위치 등도 제한되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분재盆栽, 취병翠屛, 절화折花 등 따로 심는 그릇이나 장치를 곁들여 심기도 하였다. 분재는 정원의 면적이 좁거나 기후가 적합하지 않는 정원에서 많이 애용되었다. 꽃나무나 초화草花뿐만 아니라 소나무 같은 것도 분에 심어졌으며, 일정한 장소에 정연하게 두고 즐겼다. 분에는 추위에 약한 치자, 서향화, 동백, 석류뿐만 아니라 추위에 강한 소나무도 즐겨 심었다고 한다. 작약, 모란 같은 꽃나무는 꽃을 꺾어 화병에 꽂아 실내에 두고 즐기기도 하였다. 취병은 꽃나무를 심고 그 가지를 틀어 올려 문이나 병풍처럼 꾸민 것을 말한다. 시선을 가리거나 공간의 깊이를 더하기 위하여, 직접 관상하며 즐기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조선 후기 서유구가 지은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 따르면 화계는 서재 남쪽과 북쪽 뜰의 담장 아래에 돌을 쌓아서 만든다. 여기에 화훼花卉를 심고, 분경盆景(하나의 화분 안에 소형의 화초를 재배하고 적당한 샘과 돌을 배열하여 자연 경물의 축소판을 만든 것)을 진열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계단 위에는 대나무 난간으로 두른다. 이때 반죽斑竹(얼룩무늬 대나무)을 쓰는 것이 아름답고, 나무로 만든다면 신회蜃灰(대합조개의 껍질을 태워서 만든 회)를 발라 두면 비바람에 잘 견딘다고 하였다. 만일 색깔이 있게 하려면 석간주石間朱(붉은 산화철을 많이 함유하여 빛이 붉은 흙)나 석록石綠(그림 그릴 때 쓰는 녹색)을 사용하여 법제유法製油(오동나무 기름)를 회와 섞어서 바르면 나무 사이에서 빛이 휘황할 것이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산수간에 집을 짓고(서유구, 안대회 역, 돌베개, 2009), 한국의 살림집(신영훈, 열화당, 1983), 한국전통조경(황기원 외, 도서출판 조경, 199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stdict.korean.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남호현(南虎鉉)

화로
火爐

정의 숯불을 담아서 주로 음식을 끓이거나 난방을 보조하는 기구.

개관 화로火爐는 주로 조리와 난방 등을 보조하는 기구로 안방과 사랑방에 배치된다. 시원은 선사시대까지 올라가며, 변화를 거쳐서 지역에 따라 여러 형태를 보인다. 함경도 등듸, 강원도 화티, 제주도 봉덕 등은 화로의 이전 단계 모습을 보여 준다. 토기와 도자기, 무쇠와 놋쇠, 돌 등은 화로 제작에 쓰이는 주요 재료이다. 구성은 전, 몸체, 다리 등이다. 형태는 둥글거나 네모지다. 몸체에는 무늬가 없거나 '卍(만)'과 '壽福(수복)', 장생과 기하문 등 상서로운 문구 또는 길상 문양을 새기거나 그려 놓는다. 화로는 실용성 있는 생활도구이면서 공예와 회화 측면의 아름다움도 지니고 있다.

내용 화로는 생활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된다. 화로는 불씨를 보존하고, 찌개를 데우고, 밤이나 고구마를 구워 먹고, 언 손을 녹이고, 담뱃불을 붙이고, 물을 끓여서 차를 달이는 등 다양하게 쓰인다. 추운 겨울에는 웃풍을 막아 주는 난방 보조기구로 사용된다. 바느질하는 여인이 화로에다 인두를 꽂아 뜨겁게 달구어서 사용하기도 하였다. 방에서 손을 쬐거나 담뱃불을 붙이거나 가마 안에서 쓰던 작은 화로로 수로手爐가 있다. 동제와 향교 제례의 향불을 특정한 집에서 옮겨 다 사용함으로써 화로 용도는 매우 다양해졌다.

재질은 오지, 무쇠, 놋쇠, 돌 등을 이용한다. 형태는 둥근 화로가 대부분이다. 정방형도 있다. 질화로는 자배기처럼 둥글고 넓적하다. 입은 벌어졌으며, 손잡이는 좌우 양쪽에 있으나 받침은 대부분 없다. 무쇠화로는 형태가 질화로와 비슷하나 손잡이가 달려 있고, 바닥에 세 개의 발이 달려 있다. 놋쇠화로는 상류층에서 주로 사용하며, 전이 대체로 넓고 다리가 개다리처럼 살짝 돌출되어 있다. 돌화로는 곱돌을 이용하며, 따뜻한 기운을 오래 간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둥근 쇠를 좌우 양쪽에 꿰어서 손잡이로 삼기도 한다.

백동·돌·도자기 화로에는 '卍'과 '壽福', 장생과 기하문 등 상서로운 문구 또는 길상 문양을 새기거나 그린다. 각과 은입사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바람과 장식 효과를 거둔다. 공예와 회화의 아름다움이 깃든 화로는 따뜻함 이상의 방 안 분위기를 자아냄으로써 가족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화로 | 국립민속박물관

화로는 화덕에서 비롯되었으며 등듸·화티·봉덕의 단계를 거쳐 완성되었다. 함경도 지역의 등듸는 선사시대 화덕의 발전된 모습을 보인다. 청동기시대 화덕은 집자리 가운데 땅을 오목하게 파고 테두리를 돌로 둘렀다. 철기시대는 진흙으로 둘렀다. 등듸는 정주간에서 부엌으로 내려가는 한 끝에 진흙을 쌓아 만든 초기 화덕 형태로 불씨 보존과 주변 조명을 위하여 아궁이 불을 옮겨 놓는 곳이다. 봉덕은 마루 한복판에 박아 놓은 네모꼴 돌로, 이곳에 불을 지펴서 음식을 끓이거나 집 안을 밝힌다. 추운 때는 가족들이 모여 봉덕 주위에서 잠을 잔다. 화티는 부뚜막 한쪽에 진흙을 화로 모양으로 쌓은 것이다. 위에는 솥을 건 후 불을 담아서 음식을 데우거나 집 안도 밝히고, 아래에는 네모난 구멍을 내어 불씨를 묻는다.

불씨를 아궁이에서 화로로 옮겨 담을 때는 여러 도구가 필요하다. 불고무래, 부등가리, 불돌, 삼발이, 다리쇠, 부삽, 부젓가락 등은 화로에 불씨를 담을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이런 도구는 화로로 불씨를 옮기는 데 편리함을 제공한다.

화로 기능은 집에서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집에서는 불씨가 집안의 재운을 좌우한다고 믿었다. 시어머니는 불씨를 담은 화로를 며느리에게 대대로 물려주었다. 불씨를 꺼뜨린 며느리는 시어머니로부터 크게 혼이 났다. 남의 집에 가서 불을 빌리는 것은 며느리로서 무능함을 드러내는 행동이다. 종가宗家에서 분가分家할 때는 맏아들이 불씨 화로를 들고 이사하는 새집에 먼저 들어간다. 화로와 관련해서 갖추어야 할 예절도 있다. 손님 또는 연장자를 맞을 때는 화로를 그들 가까이에 놓아서 따뜻한 정을 표하였다.

특징 및 의의 화로는 이동식 기구로, 생활 속에서 조리와 난방 등 두루두루 쓰던 다기능 살림살이이다. 겨울철에 웃풍을 이길 수 있어서 쓰임새가 특출한 대표 세간살이이다. 게다가 상서로운 문구 또는 길상 문양을 몸체에 새기거나 그려 넣은 화로도 있다. 실용성이 있는 생활도구이지만 일부 화로는 공예품으로서 미감까지 갖추고 있어서 방 안 분위기를 더 따듯하게 한다.

참고문헌 한국민속대관1~6(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82), 한국의 주거민속지(김광언, 민음사, 198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박종민(朴鍾珉)

화장실
化粧室

정의 대소변을 보고 이를 위생 처리하기 위하여 양변기와 세면대를 설치한 공간.

개관 화장실化粧室이란 뒷간·측간·변소라 불리던 배설 장소를 순화하여 부르게 된 용어로, 용변 행위를 직접 지시하지는 않는 표현이다. 화장실은 원래 20세기 초 영어 토일레트toilet의 번역어로 유입되었고, 어원은 몸치장을 뜻하는 프랑스어의 투알레트toilette에서 유래하였다. 우리나라 주거공간에서 화장실이라는 용어는 냄새나고 불결한 곳이 위생적인 장소로 바뀌면서부터 사용되었다.

내용 화장실은 넓은 의미에서는 배설·생리·위생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의미한다. 개인 주거 공간 외에 공공장소의 경우에도 화장실이 존재한다. 또한 시기 구분 없이 용변 보는 장소를 모두 포괄한다. 좁은 의미에서의 화장실은 서양에서의 용도와 무관하게 우리나라의 주생활 문화에서 특정 시기부터 사용된 용어이다. 이러한 화장실은 공간 구성 및 설비 전형을 보인다.

원래 조선시대까지 뒷간 혹은 측간으로 불리던 가정의 배설 공간은 냄새나고 불결한 공간이어서 '거주공간'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장소였다. 전통주거공간에서 뒷간은 생활공간과 분리되어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고, 이곳을 출입하는 것은 매우 불편하였다. 요강은 이를 대신하여 실내에서 용변을 처리하는 임시 설비였다. 변소라는 용어는 20세기 초부



화장실 | 주택문화사

터 사용되었고, 수세식이 소개되기 전까지 사용된 일반 명칭이다. 불결하고 불편한 재래식의 퍼내기식 변소는 주택 개량의 우선 과제가 되었다. 일제강점기 서양식 문화주택에서 변소가 실내에 설치된 사례가 있었으나 설비가 불충분하여서 악취 등이 문제가 되었다. 이후 재래식 변소는 도시주택에서도 1970년대까지는 마당에 별도 공간으로 마련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배설 공간의 위생 환경은 도시에 상수도 설비가 보급되고 이어서 수세식 변기가 도입됨으로써 이루어졌다. 단독주택의 경우 변소가 실내로 들어온 것은 수세식 설비가 도입된 1970년대 후반부터였다. 수세식 변소 초기에는 재래식 변소처럼 쭈그리고 앉아 용변을 볼 수 있는 도기질의 화변기가 설치되었다. 이러한 형식의 수세식 변소에서는 바닥을 '물로 씻어 내는' 모든 행위, 즉 빨래 및 간단한 세면이 가능하였고 세면대나 욕조 없이 쭈그리고 앉아서 하는 반좌식半座式의 기거문화를 유지하였다.

양변기는 아파트 문화 시작과 함께 소개되었다. 그 시작은 1962년에 건설된 대한주택공사의 마포아파트에서였다. 양변기 보급으로 청결하고 편리한 공간으로서의 화장실이 보편화되었고, 이는 변소가 화장실로 변화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바닥이 오물로 더럽혀지지 않는 화장실은 용변 및 생리행위와 위생행위를 동시에 할 수 있게 하였다. 즉 물을 쓰는 생활행위가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세면대와 욕조를 설치하여 목욕탕과 변소를 결합하는 것이 한국 주거 환경에서 구성하는 화장실 전형이다. 따라서 화장실은 '욕실'이라는 명칭과 병행하여 사용된다. 화장실은 반좌식의 문화로부터 변화한 입식의 기거문화를 수용한다. 현재 한국 주거문화에서 화장실은 쾌적함에 대한 욕구, 위생 공간으로서의 기능에 대한 욕구, 건강과 휴식에 대한 욕구를 계속 반영하면서 변화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근대화 과정에서 용변과 위생은 한 사회의 '문명화' 정도를 유추하는 척도로 여겨지고 일상 행위가 되었다. 그럼으로써 배설 공간은 위생 혁신을 지속하게 되었고, 일상 공간으로 변화하였다. 화장실 정착은 '주거 공간의 문명화 과정'인 깨끗하고 냄새나지 않는 위생 설비 등장, 상하수도와 같은 도시 내 기반시설 보급, 기능성 주거공간으로의 혁신 등과 함께 진행되었다.

참고문헌 집-집의 공간과 풍경은 어떻게 달라져 왔을까(전남일, 돌베개, 2016), 한국건축개념사전(한국건축개념사전기획위원회, 동녘, 2013), 우리생활 100년·집(김광언, 현암사, 2000), 한국 주거의 미시사(양세화·전남일·홍형옥, 돌베개, 2009).

필자 전남일(田南一)

화재막이

정의 주거생활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하는 행위.

개관 우리나라 전통가옥은 목조건물로 화재에 취약하며, 화재 발생 시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집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집을 건축할 때부터 드러난다. 즉 상량의례에서 마루의 들보에 상량문을 적을 때 문장 좌우에 수신인 '龍(용)'과 '龜(귀)'를 적고, 대문 문미나 빗장을 거는 문돌쩌귀를 거북 모양으로 장식하여 앞으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랐다. 이처럼 거북은 장수의 동물 이전에 화재를 잡아주는 수신이다. 수원 영동시장의 거북신당도 시장에 자주 발생하는 화재를 막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일상생활에서도 주기적으로 물 또는 소금을 집 안 곳곳에 뿌리고 부적을 붙이거나 종이옷 태우기를 통해 집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예방하였다.

궁궐에서도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각 위에 바닷물을 불러 모으는 능력을 보이는 용생구자龍生九子의 하나인 이문螭吻을 설치하였다. 또한 경복궁의 근정전과 창덕궁의 인정전 앞에는 넓적하게 생긴 독인 '드므' 안에 물을 가득 담아 두었는데, 그러면 화마火魔가 그것을 보고 도망간다고 여겼다. 실제로 드므는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불을 끄기 위한 방화수를 준비해 둔 것이다.


거북빗장 | 경북 산청


드므 | 서울 종로구 경복궁

화재막이 | 정연학

내용 화재막이는 세시나 화재수가 들었다고 생각될 때 지붕, 대문, 굴뚝, 기둥 등 가옥 구조물에 물 또는 바닷물을 상징하는 간수와 소금을 뿌리는 직접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 이때 "화재막이 하자. 화재막이 하자."하고 주문을 외쳤다. 지붕에는 주로 물과 소금을 뿌렸는데, 과거 민가의 지붕은 대개 볏짚으로 만들었기에 화재 발생 시 집 안 곳곳으로 쉽게 번지고 오히려 불쏘시개 역할을 하였기에 지붕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다. 사람들은 화재가 화마에 의해 발생한다고 여겨 가옥의 출입구인 대문 좌우에 간수를 세 번씩 뿌렸고, 아궁이의 연기가 빠지는 굴뚝에도 소금을 뿌렸다.

민간에서 화재막이용으로 많이 뿌린 것이 쌀뜨물이다. 쌀뜨물을 굴뚝, 기둥과 지붕, 마당 등 집 안 곳곳에 뿌려 화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랐다. 전북 정읍에서는 쌀뜨물에 재, 소금, 고추 등을 넣어 화마의 부정이 가시기를 기원했다.

아궁이, 굴뚝, 잿간과 같은 화기火氣가 서린 곳에는 부적을 붙여 화재를 막았다. 강원도에서는 '수水자'를 거꾸로 붙여 항상 집 안에 물이 쏟아지는 모습을 나타내어 화마가 근접하지 못하게 하였고, 전라도에서는 정월대보름 새벽에 '火화자' 주변에 '水수자'가 빙 둘러싸게 써서 불을 물의 힘으로 눌렀음을 나타내었다. 그 밖에 독특한 풍속으로 종이로 옷을 만들었다가 불로 태우는데, 이로써 식구들이 모두 화재를 당하였으니 더 이상 화마가 접근하지 말라는 주술적인 행위이다.

특징 및 의의 화재막이는 불과 상극을 이루는 물을 통해 재앙을 막아 내고자 한 의식이었다. 물을 다스리는 용과 거북을 이용하거나 물의 성질을 지닌 물질을 직접 뿌려 화재를 예방하는 모의주술적인 행위를 펼치었다. 특히 소금 뿌리기의 경우 소금 자체가 바닷물로 만들어지기에 소금은 거대한 바닷물을 상징하였다. 그 밖에 부적을 통하여 정월에 화마를 누르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간물단지신앙의 용신신앙적 성격(김명자, 월산임동권박사송수기념논문편찬위원회, 1986), 문과 상징(정연학, 시월, 2009), 불막이제(임승범, 한국민속신앙사전-마을신앙, 국립민속박물관, 2010),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전북(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5), 한국의 가정신앙-충남·전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6·2008), 화재막이(안태현, 한국민속신앙사전-가정신앙, 국립민속박물관, 2011), 화재막이(정연학, 한국세시풍속사전, 국립민속박물관, 2004).

필자 정연학(鄭然鶴)

화티

정의 불씨로 사용할 숯덩이를 재에 묻어 두기 위하여 봉당이나 정지(부엌)에 설치한 고정형 화로.

개관 전통 가옥에서 난방과 취사를 위하여 부엌 아궁이와 화로·화덕 등이 이용되고 조명 기구인 등잔, 조명과 부분 난방을 위하여 코클이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불을 이용한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불씨이고, 이를 보관한 시설이 화티이다.

화티 형태는 가옥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체로 아랫부분은 10~20㎝ 높이의 턱을 만들어서 재가 흘러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만들었고, 화티 바닥은 깊게 파서 많은 재를 넣어 불씨를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둥은 돌을 쌓고, 진흙으로 외벽을 마감하였다. 화티 위에는 넓적한 큰 돌을 그대로 얹거나 돌 위를 진흙으로 마무리하였다. 전체로 볼 때 화티의 입구는 부엌의 아궁이에 비하여 넓고, 높이는 부뚜막보다 높다.

화티가 설치된 곳은 봉당 입구에 큰 가마솥을 걸어 둔 아궁이 옆, 정지와 봉당 사이에 설치한 빈지, 흙벽 왼쪽 또는 오른쪽에 연접해 있거나 부엌에서 뒤뜰로 나가는 출입문 옆 등 다양하다.

화티를 설치하면서 화덕을 배치한 사례도 있다. 이를 구분하면 화티만 설치한 화티 단독형, 화티 위에 화덕을 설치한 유형, 화티 옆에 화덕을 설치하여 음식 조리의 편의성을 도모한 유형이 있다.

화티의 불씨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거나 코클에 관솔불을 켤 때 이용되었고, 화티의 온기를 이용하여 가옥 내부에 설치된 대청마루 아래에 저장 구덩이를 만들어 감자 등을 얼지 않도록 임시로 저장하는 공간으로도 활용되었다. 이와 함께 봉당에 접해 있는 외양간을 따뜻하게 하여 가축들이 겨울 추위에 견딜 수 있게 하는 등 정지나 봉당의 부분 난방에 도움이 되었다. 또한 감자·고구마 등을 굽기 위한 화덕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화티 윗부분은 편평하고 내부 불씨로 인하여 온돌처럼 따뜻하기 때문에 온기를 유지하여야 하는 음식을 올려 두거나 습기가 많은 소금가마를 올려 두어 소금을 말려서 보관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화티에서 배출된 재는 거름으로 이용되었다.

내용 화티는 화티 아궁이, 아궁이 턱, 깊은 움 형태를 띤 화티 바닥, 화티 기둥, 넓적한 돌을 올려서 만든 화티 상단부로 구성되어 있다.

강원도 삼척 도계읍 신리 너와집의 봉당에 있는 화티 아궁이 크기는 45×38㎝, 경상북도 울진 서면 소광1리 정지에 있는 화티 아궁이 크기는 28×24㎝이다. 난방과 취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부엌의 아궁이보다 크게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화티에 불씨를 잘 보관하기 위하여 많은 재를 넣고, 다 탄 재를 빼내는 편의를 위함이었다.

화티 내부에 있는 재가 밖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든 아궁이 턱의 높이는 정지나 봉당 바닥에서 10~20㎝였다. 일부이지만 삼척 노곡면에 소재한 가옥 사례를 보면 화티 아궁이 아래의 턱이 화티 전체 높이의 1/2을 차지한다. 이는 불씨를 오래도록 많이 보관하고, 일부 난방 기능도 수행하기 때문에 재를 많이 넣기 위하여 다른 화티와 비교하여서 턱을 매우 높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는 달





화티 | 강원 삼척 | 국립민속박물관

리 경북 울진 주인2리에 소재한 가옥의 화티는 아궁이 내부 바닥을 깊게 파서 재를 보관할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였기 때문에 아래쪽에다 별도의 턱을 만들지 않았다. 이를 통하여 아궁이 턱의 높이는 화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강원도 삼척 도계읍 신리에 소재한 가옥에서의 화티 크기는 82×87×88㎝, 또는 85.5×90×43㎝, 65×38×110㎝이고, 경상북도 울진 북면 주인 2리에 소재한 가옥의 화티 크기는 42×70×60㎝이다. 즉 화티의 크기는 각 지역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그 쓰임새에 따라 그 크기가 매우 다양하였음을 알 수 있다.

화티의 바닥 깊이 또한 사례마다 다양하다. 도계읍 신리에 소재한 가옥의 화티는 봉당 바닥에서 40㎝ 정도 깊이로 움을 만들었다. 대체로 화티 바닥 깊이는 아궁이 턱의 높이와 반비례하기 때문에 화티 아궁이 턱이 낮으면 재를 많이 보관하기 위하여 움을 더 깊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화티의 윗부분은 대체로 네모난 돌을 덮어 마무리한다. 그러나 삼척 원덕읍과 경북 울진 북면 주인리의 일부 가옥에서는 화티 윗부분에 나지막한 화덕을 설치한 사례도 있다. 즉 화티를 크게 만든 후 그 위에 화덕을 배치한 화덕·화티 일체형으로 볼 수 있다. 신리 가옥의 화티도 윗부분에 숯을 채운 후 그 위에 작은 솥을 걸 수 있을 정도로 움푹하게 파여 있다. 이와 같은 형태는 화티 정면에 아궁이를 만든 후 화티 윗부분은 작은 화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으나 아궁이 내부와 통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

울진과 삼척 일부 가옥에서는 아궁이가 설치된 부뚜막과 별개로 화티 옆에 작은 화덕을 설치한 사례도 있다. 주로 작은 규모의 귀틀집 등에서 발견된다. 부엌에 솥 1개가 걸린 아궁이가 있어 물을 데우거나 난방을 위하여 사용하고 제주도의 봉덕처럼 부엌 바닥에 자그마한 돌을 2~3층 쌓아 올려 화로를 만들어서 부뚜막과 별개로 취사에 사용된다.

화티를 만드는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화티를 설치할 장소에 10~40㎝ 깊이의 구덩이를 판 후 아궁이 턱과 양 옆, 뒷면의 기둥은 돌을 막돌 허튼층쌓기한 다음 반죽한 진흙으로 화티 내부와 외부 표면을 마감한다. 이후 두께 10㎝ 이상인 방형의 돌을 덮은 후 그대로 두거나 반죽한 진흙으로 매질을 하여 마무리한다.

화티에는 불씨로 사용할 5~10개의 숯 동가리를 넣은 후 그 위에 재를 많이 덮어 꾹꾹 눌러 보관한다. 이때 넣은 불씨는 참나무나 소나무 장작에 불기가 많이 남아 있는 딱딱한 붉은 숯 형태를 띨 때 화티의 재 안에 넣어 보관한다. 화목火木으로 사용하는 나무는 소나무를 비롯하여 참나무 등 다양하다. 그러나 소나무는 물러서 화티 보관용 숯불로 적합하지 않다. 참나무 숯이 다소 오래 지속된다. 보통 4~5일 불씨로 보관된다.

보통 아침저녁으로 취사와 난방 등을 위하여 장작불을 지피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들어진 불기가 많이 있는 숯 동가리를 화티에 넣는다. 다 탄 숯은 꺼내기 때문에 화티에 보관된 불씨는 계속 유지된다. 이 과정에서 알불이 약하면 장작을 하나 새로 올려서 알불을 만든 후 이를 재에 묻어 둔다.

화티에 보관된 불씨를 이용하여 불을 지필 때 불기가 있는 숯 동가리에 마른 갈비를 대어 입으로 불면 불기가 갈비에 옮겨 붙는다. 그러면 이를 아궁이로 옮겨서 불을 지핀다.

화티에서 다 탄 재는 밭으로 가져가서 거름으로 이용하거나 화장실에 뿌려서 인분과 섞이게 하여 농사용 밑거름으로 사용한다. 일부 지역에서 화티 재를 화장실 옆에 설치된 잿간에 투기한 후 대변이나 소변과 섞어 밑거름으로 사용한 사례도 있다.

화티에 사용된 도구는 곰배와 삽(부삽)이다. 화티에서 불을 꺼낼 때 사용하는 곰배는 정丁자 형태의 나무를 베어 와서 이를 다듬어 만든다. 주로 아궁이에서 숯을 꺼내거나 아궁이의 숯불을 뒤적거려서 정돈할 때 사용한다. 나무이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물에 담가 식힌 후 다시 사용한다. 삽은 부엌 아궁이에서 불씨를 화티로 옮기거나 숯 또는 재를 옮길 때 사용한다.

특징 및 의의 성냥이 없거나 귀하던 시기에 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다. 이 때문에 불씨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만들

고, 불씨 보존을 위한 도구가 만들어졌다. 이를 대표하는 것이 화로, 화티, 봉덕 등이다.

산간이나 추운 지역에서는 봉당에서의 활동이 많고 가축 보온을 위하여 화티를 주로 봉당에 설치하였다. 그러나 봉당을 잘 활용하지 않거나 부엌에서 불씨와 재를 많이 생산할 경우 부뚜막 옆에 화티를 설치하였다.

제주도에서 화티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화로, 봉덕, 화심(화승)이 있다. 주로 화로에 알불을 재에 묻어 두는 형태로 불씨를 보관하였다. 화로가 없는 집에서는 불씨 보관과 함께 난방 및 조명과 간단한 조리를 위하여 고정형 돌확인 봉덕을 설치하였다. 봉덕은 상방(마루) 바닥 일부를 뜯어서 설치하거나 봉당이나 부엌에 구덩이를 파서 설치하였다. 불씨를 재에 덮어 보관한 봉덕은 장방형의 함지 형태이다. 크기는 한 면이 500㎜ 전후, 깊이 100~150㎜이다. 성냥이 귀하던 1960년대까지 제주도에서는 화심을 만들어서 불씨를 보관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화심 길이는 500㎜ 정도이고, 12시간 정도 지속되는 이동형 불씨였다. 집에서는 이를 아궁이에 두거나 부엌 구석에 두었다가 불을 지필 때 사용하였다.

불씨를 지키는 민속은 우리나라 전역에 폭넓게 전승되었으며, 역사도 매우 오래되었다. 그 배경에는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오래 간직하는 것이 가운家運의 융성 및 재복을 가져다 준다는 믿음이 강하였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불씨가 꺼지면 집안이 망한다고 믿었고, 이 때문에 며느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불씨 보존이었다. 불씨를 꺼뜨린 며느리가 쫓겨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화티를 이용하여 불씨를 보관하던 풍속은 사라졌지만 화티에 불씨를 소중히 보관하던 유구는 전통 가옥에 남아 있다.

참고문헌 강원도 산간지역의 가옥과 생활(국립민속박물관, 1994), 경북 내륙지역의 가옥과 생활(국립민속박물관, 1998), 대대로 내려온 불씨담의 성격과 불 기원신화적 면모(권태효, 구비문학연구26, 한국구비문학학회, 2008), 불의 민속(국립민속박물관, 1996), 삼척 가곡·노곡·원덕·하장 민속지(김진순, 삼척문화원, 1997~2004), 삼척 대이리 굴피집(문화재청, 2005), 삼척 대이리 너와집(문화재청, 2005), 삼척 신리 너와집 및 민속유물(문화재청, 2005), 삼척산간지역 두렁집의 주거공간 구성과 확장에 관한 연구(최장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20-7, 대한건축학회, 2004), 삼척의 민가(임상규, 삼척시립박물관, 2011), 현지조사자료(김도현, 강원도 삼척 신기면·도계읍·미로면,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2019.6.29~7.4, 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jeju.grandculture.net).

필자 김도현(金道賢)

횃대

정의 긴 막대형으로 옷을 걸어 두는 기구.

개관 둥근 막대형의 단순한 형태에 특별한 장식도 없이 만들어진 옛 실용 옷걸이이다. 막대 양쪽 끝에 끈을 달아매어 벽에 걸어 두고 관복이나 긴 치마와 같이 구겨질 수 있는 옷들을 손쉽게 걸어 정리하였다.

『속동문선續東文選』 권11 어세겸魚世謙(1430~1500)의 『기물명이십수효왕위器物銘二十首效王褘』에서 '이椸'를 찾을 수 있다. 즉 당시 생활의 중요한 기물이었다는 것이다.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복식지구服飾之具의 '이椸' 항목에 따르면 일본의 횃대는 옻칠에 금으로 그림을 그리고 막대 양쪽 끝을 동으로 덮었으며, 우리의 것은 옻칠을 하고 양쪽 끝에는 골각이나 동을 써서 장식하고 청색이나 흑색의 끈을 달았다고 전한다. 금장식의 화려함보다는 단정하고 실용성적인 목적을 두고 만든 것이다. 현전 유물을 보면 옻칠을 하고 양쪽 끝에 덮은 동에 무늬를 새겨 넣어 마무리한 것이나, 간혹 막대를 각진 형으로 만들어서 옷이 떨어지지 않게 고



횃대 | 길이117 | 국립민속박물관

안된 것도 볼 수 있다. 실생활에 간소한 필수품으로, 조선의 선비들은 여기에 사치스러운 비단옷을 걸어 두는 것을 경계하였다. 또 『예기禮記』「내측內則」에서는 남녀가 함께 횃대를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의미를 담아 함부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는데, 조선 문헌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내용 횃대는 대나무, 오동나무, 잡목 등에 옻칠을 하는 등 다양한 소재로 만들어졌다. 횃대는 대나무 지팡이보다 조금 길게 만들어졌고 긴 옷을 손쉽게 정리해 둘 수는 있었지만 옷을 벽에 붙여서 걸게 됨으로써 습기가 차는 단점이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임원경제지』 복식지구 '이' 항목에 전하는 말이다. 장기간 걸어 두어 보관하기에는 '의걸이장'과 같은 문짝이 달린 수납장이 필요하겠지만 단시일 보관하는 용도로는 그 쓰임이 편리하여 일상생활에서 늘 가까이 둔 생활용구로 쓰였다. 채제공蔡濟恭(1720~1799)의 시문집 『번암선생집樊巖先生集』에 수록된 이명椸銘에는 "횃대에 알맞은 무게를 헤아려 구기지 않게 걸면 유용하나 무리하게 걸어 두면 옷이 접히고 삐뚤어져 떨어질 수 있으니 많이 담기를 탐하지 말 것"이라는 시문이 있다. 늘 가까이 두는 생활용품에서도 삶의 지혜를 찾을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조선 문인들의 글에서는 횃대 쓰임과 관련하여 『예기주소禮記注疏』 권28 「내측」의 내용을 자주 인용하였다. 수건과 빗뿐만 아니라 횃대 혹은 옷상자도 남녀 구별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작은 생활용품이지만 함부로 사용하여서는 안 될 물건임을 말한 것이다.

횃대는 일상생활 용구로 쓰였지만 의례용 횃대도 있었다. 김장생金長生의 『가례집람도설家禮輯覽圖說』에서 그 형태를 엿볼 수 있다. 이는 『임원경제지』에서 언급한 거울걸이와 흡사한 형태로, 일상의 옷걸이와는 구별되었다.

특징 및 의의 횃대는 실용을 위한 가장 단순한 형태로 제작되었으면서도 용도에 맞게 옷이 떨어지지 않도록 마디가 있는 대나무 혹은 각진 나무막대 형태로 고안되기도 하였다. 또 옻칠을 하여 내구성을 갖추거나 양쪽 끝에 골각 또는 조이(금, 은, 동 등으로 만든 물건에 무늬를 새기는 일)를 한 동장식으로 마무리함으로써 단아한 꾸밈 요소를 겸비하기도 하였다. 따로 공간도 필요 없이 긴 옷을 구기지 않고 보관할 수 있어 크지 않은 전통 생활공간에 걸맞은 생활용품이었다. 옷을 보관하는 전통가구로는 상자 외에 안에 횃대를 걸친 의걸이장이나 관복장이 있다. 긴 옷을 횃대에 걸치도록 되어 있어 장의 높이가 양복장처럼 높을 필요가 없어, 의걸이장 아랫부분에는 옷을 접어 넣을 수 있는 수납공간을 추가하는 구성도 가능하였다. 이렇듯 전통가구는 쓰임에 따른 가장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적절하게 꾸밈을 하는 등 생활용품 기능성을 잘 갖추고 있었다.

참고문헌 續東文選, 林園經濟志, 국역 송남잡지(조재삼, 강민구 역, 소명출판, 2008), 민족생활어사전(이훈종, 한길사, 1993), 한국고전종합DB(db.itkc.or.kr).

필자 김미라(金美羅)

훑이기

정의 서까래 또는 이와 유사한 둥근 목재를 깎는 건축도구.

개관 훑이기는 주로 둥근 서까래를 깎고자 할 때 사용하는 연장이다. 서까래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크기의 목재를 원형으로 깎고자 할 때 쓴다. 용도가 대패와 비슷하지만 겉모습은 전혀 다른 전통 연장이다. 다른 말로 훑이대패라고도 한다.

내용 훑이기는 쓰임새가 다양하지 않다. 주로 서까래를 다듬는 데 사용된다. 서까래는 처음부터 큰 목재를 활용하지 않고 서까래 굵기보다 조금 더 큰 목재를 이용한다. 집을 지을 때 개수로 보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재가 서까래이다. 서까래 목재가 현장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거친 면을 다듬고 껍질을 벗기는 일이다. 다음으로 서까래가 놓이는 위치에 따라 순번을 정하고 말구의 직경을 정확히 그려 놓는

다. 그다음 작업은 서까래의 휘어진 모양과 말구의 직경에 맞춰 치목을 한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훑이기다. 한국의 전통건축에 사용되는 서까래 가운데 덧서까래(부연)를 제외하고 모든 서까래는 직경이 원형이다. 훑이기는 이처럼 서까래 굵기 정도의 목재를 깎는 데 가장 적합하게 개량된 연장이라 할 수 있다.

훑이기의 모양을 보면 다른 연장에 비하여 형태가 간단하다. 나무토막 가운데에 길고 납작한 날을 끼워서 양손으로 잡고 앞으로 밀어 사용한다. 만드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한 자 정도 길이의 나무토막을 둥글넓적하게 다듬는다. 양 끝은 손으로 잡기 좋을 정도로 작게 다듬어 두고 중심부는 한쪽을 약간 욱어지게 파낸다. 이것이 훑이기 틀이 된다. 날은 길고 납작하게 만든 쇠판에 한쪽 날을 세우고 양 끝은 뾰족하게 한 다음 직각으로 꺾어 틀에 끼울 수 있도록 한다. 나무틀에는 날을 끼울 수 있도록 양쪽에 작은 구멍을 내어 둔다. 날을 끼우면 날이 잘 빠지지 않도록 쐐기를 박아 단단히 고정시킨다. 날을 박을 때 틀과 날 사이는 너무 넓어도 안 되고 너무 좁아도 안 된다. 깎는 요령과 목재의 질에 따라 적당히 조절하여야 한다.

훑이기는 날이 앞으로 향하도록 틀의 양 끝을 잡고 밀어서 사용한다. 서까래 목재는 대부분 육송을 사용하기 때문에 표면이 반듯하거나 고르지 않다. 나뭇가지가 있던 자리에는 가지심 때문에 목질이 단단할 수 있고, 옹이가 생겨서 단단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서까래를 다듬을 때는 반드시 말구가 앞으로 향하도록 놓고 훑이기를 써야 좀 더 쉽게 다듬을 수 있다. 만약 반대로 벌구를 앞으로 놓고 하면 훑이기를 밀 때 옹이나 가지심을 만나면 걸려서 깎이지 않게 된다. 가지심의 각도가 말구 쪽으로 향하여 있기 때문이다. 가지심이 많거나 옹이가 있는 서까래를 잘 깎기 위하여서는 특히 날을 잘 갈아서 써야 한다. 훑이기는 날이 쉽게 문드러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용하면 날을 갈아야 한다. 서까래 수가 많다 보니 훑이기 날이 쉽게 무디어진다. 그래서 서까래 목재가 구르지 않고 옹이가 많은 경우 여러 개의 훑이기를 준비하여서 사용하기도 한다. 거친 목재가 많을 때는 초다듬용과 재다듬용으로 구분하여서 사용하기도 한다.



훑이기 | 너비7 길이36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다듬기 | 1997 | 국립무형유산원

특징 및 의의 훑이기는 나무틀에 쇠날을 끼워 사용하는 서까래 깎는 연장이다. 이 연장은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한국의 독특한 건축연장이다. 한국의 서까래는 중국이나 일본의 서까래와 같이 반듯하지 않은 목재도 많이 사용된다. 반듯한 부분뿐만 아니라 굽어진 부분도 깎을 수 있도록 개량된 건축연장이 바로 훑이기이다. 가로로 길게 날을 끼워서 쓰는 독특한 건축연장이다.

참고문헌 연장과 치목(이왕기, 건축36-4, 대한건축학회, 1992), 한국의 건축 도구(이왕기, 건축장인의 땀과 꿈, 국립민속박물관, 1999), 한국의 건축연장 연구2(이왕기, 목원대학교논문집8, 목원대학교, 1985).

필자 이왕기(李王基)

휘장
揮帳

정의 공간을 구획하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둘러치는 막.

내용 휘장揮帳은 여러 폭의 피륙을 이어 만들어서 둘러치는 장막帳幕을 일컫는다. 장막이란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벽을 둘러치거나 천막처럼 비바람을 막고자 만든 일시적 시설을 의미한다. 일찍이 고대사회는 직물이나 자연 소재로 만든 막으로 어떤 행사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장소를 마련하고 이를 지배 계층의 임시 거처로 삼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임시 장막은 다양한 행사에도 유용하여 조선시대 궁궐에서도 이어져 왔다.

휘장은 외부에서는 두터워야 하지만 실내에서는 부드러운 직물로 된 커튼이나 가리개처럼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내공간의 구획이 발달하지 않은 때에 휘장은 공간을 구분하고 보호막으로 사용하기가 용이하여 오랫동안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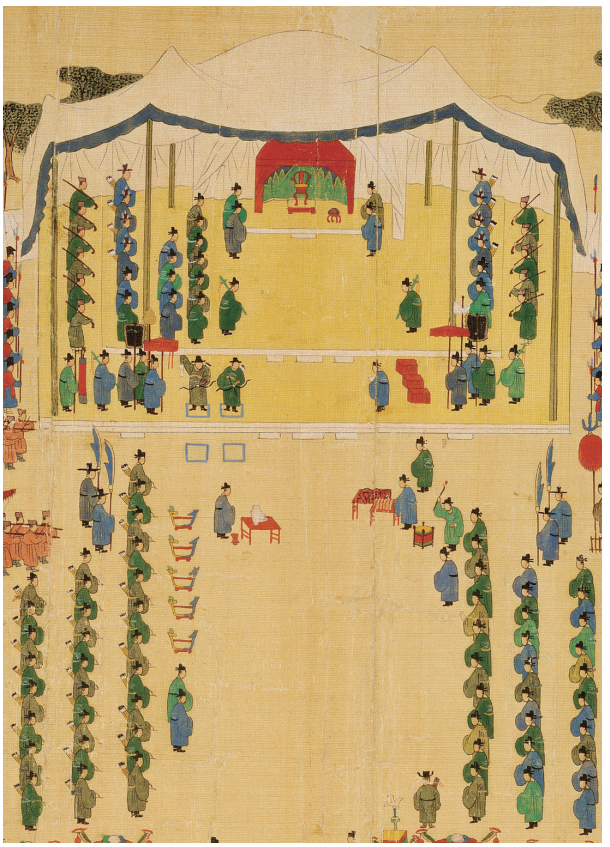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나고 있는 휘장 역시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5세기 초의 덕흥리 고분이나 무용총 벽화, 사신총이나 안악3호분에 나타난 휘장 모습은 상부를 막고 늘어뜨린 휘장의 부분을 가는 천으로 묶거나 술로 장식하였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옥사조屋舍條에 전포氈布(동물의 털이나 가죽으로 이어 만든 것)로 방장을 만들어 사용하였다는 기록 역시 휘장의 실내 사용을 보여 준다. 이후 조선시대 의궤나 궁중 행사도를 보면 휘장 사용이 매우 구조화되고 잘 발달된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

조선시대의 규모가 큰 연회도나 행사도를 보면 대부분 뜰의 외부 경계에 장막을 두르고 출입에는 휘장을 쳐서 수월하게 드나들 수 있게 하였으며, 임금이



휘장 | 안악3호분 고분벽화 | 고구려



휘장 | 대사례도 중 부분 | 조선 | 국립중앙박물관

앉는 어좌 공간의 상층부와 주변을 직물 휘장으로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 세밀하게 그려져 있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경우는 직물 휘장으로만 설치한 모습이 나타난다.

그 밖에도 휘장은 조선시대 종묘 정전에서 위패를 모신 각 방을 구분하는 데 사용되었고, 실내에서는 외기의 침입을 막기 위한 방장으로도 사용되었다. 휘장이 기능에 맞게 다양한 크기로 변화·발전한 것을 알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휘장은 공간을 임시 구획하는 등 규모나 기능에 맞게 다양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오늘날 휘장은 제품화된 천막이나 기능성 차양 시설로 개발되어 건물이 없는 곳에 행사를 치르기 위한 임시 거처 시설이나 간이 휴식 시설을 설치하는 데 각광받고 있다.

참고문헌 고구려 회화(안휘준, 효형출판, 2007),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박정혜, 일지사, 200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박선희(朴善姬)

흘림기둥

정의 기둥머리를 밑동보다 가늘게 다듬은 기둥.

개관 기둥은 입면 형태에 따라 원통형기둥, 배흘림기둥, 민흘림기둥으로 구분된다. 원통형은 머리와 밑동 굵기를 같게 만든 기둥이다. 배흘림기둥은 기둥 높이의 1/3 지점을 가장 굵게 가공하고, 기둥머리가 가장 가늘거나 밑동과 같은 두께로 깎은 기둥을 말한다. 한편 민흘림기둥은 기둥머리가 가장 가늘고 기둥밑동을 가장 굵게 깎은 기둥이다. 배흘림기둥은 높이의 1/3–밑동–머리 순서로 가늘어지지만 민흘림기둥은 밑동–중앙–머리 순서로 가늘어진다.

내용 1957년에 한글학회에서 발간한 『조선말 큰사전』에서 '배흘림기둥'과 '민흘림기둥'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흘림'에 대해 건축용어이며, "기둥의 대가리를 아래보다 약간 가늘게 하는 일. 위와 아래가 똑같은 것보다 보기에 아름다움"이라는 설명이 올라 있다. 1958년에는 건축학회에서 편찬하고 장기인이 기술한 『건축용어집』이 발간되었다. 이 책 역시 '배흘림기둥'과 '민흘림기둥'을 다루지 않았고, 흘림기둥 역시 수록하지 않았다. 다만 '흘림'에 대하여 "材의 밑동보다 웃곳을 주려 가늘게 한 것"이라고 하며 관련 삽도를 수록하였다. 『조선말 큰사전』과 형태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조선말 큰사전』은 기둥에 한하여 기술한 반면에 『건축용어집』에서는 기둥을 포함한 다른 목재를 깎는 기법으로 설명한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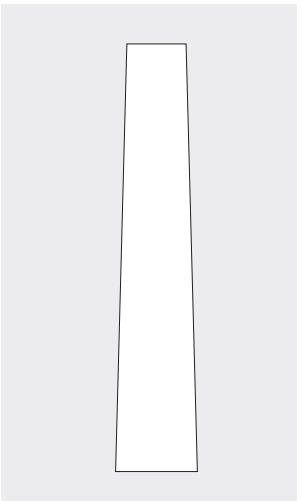
조선의 마지막 도편수라 할 수 있는 배희한은 기둥을 다듬는 기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술하였다. "기둥두 또 아래 우가 빨르구 가운데 배떼기가 쑥 나오게 항아리처럼 허는 거는 이 근래 몇해 전부터 그래. 그 뭐 고구려 적에 그렇게 했다나. 고구려 적에 그렇게 했다구 그렇게 허는 절두 있더군. 그런데 지금 대궐에 나가봐두 그런 거 없거든. 저, 죽은 조은재라는 목수가 맡은 탑골 공원 정문, 그거 그렇게 했지. …… 배때기가 불르구 아래 우는 빠르구 이렇게 했어. 그런데 나는 입때꺼정 그렇게 안 해 봤어. 그렇게 허며는 배때기가 불르니깐드루 이 문설주를 갖다 세두 문설주를 또 그와 같이 깎아야 하걸랑. 그런데 그거 뵈기 싫다구. 그냥 흘림으루, 기둥 꼭대기가 한자며는 밑구녕은 자 한 치 이렇게 흘려서 해두 그렇게 항아리 기둥으루는 안 해 봤어." 이상을 종합하면 1950년대에는 현재의 민흘림기둥이 '흘림기둥'이었고, 당시에는 배흘림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 가운데가 배부른 기둥을 만드는 기법이 없었는데 이것을 지칭하는 이름이 있었을 리 만무하다.

1989년 북한에서 발간한 리화선의 『조선건축사』에도 기둥의 입면 형태에 관한 언급이 있다. "대체로 고려말-리조초에는 기둥에서 가장 굵은 부분이 밑에서부터 2/5 높이에 있었다면(배부른 기둥) 리조중엽에 와서는 그것이 1/3~1/4 높이에 있었으며(약간 배부른 기둥) 리조말기에 와서는 그것이 기둥의 제일 아래(1/4 이하의 직경이 같은 경우가 많다)였다(흘

림식기둥).”라고 기술되어 있다. 즉 북한에서 흘림기둥은 민흘림기둥을 말하며, 배흘림기둥이라는 용어는 없고 ‘배부른 기둥’, ‘약간 배부른 기둥’이라고 부르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배부른 기둥’, ‘약간 배부른 기둥’이라는 단어도 북한에서 임의로 지어 부른 이름임에 틀림없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민흘림’과 ‘배흘림’이라는 용어도 근래에 지어진 것이 분명하다. 1963년에 고고미술동인회에서 스기야마 노부조杉山信三의 『고려말조선초의 목조건축에 관한 연구』 번역본을 발간하였다. 신영훈이 번역한 이 책에서 안동 봉정사 극락전을 비롯한 여러 건물의 기둥에 대하여 ‘배흘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1950년대 후반에 ‘배흘림’과 ‘민흘림’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배부른 기둥’이라는 기둥 형식은 일제강점기 일본 학자들에 의하여 널리 알려졌을 가능성이 짙다. 이때 예산 수덕사修德寺 대웅전, 영주 부석사浮石寺 무량수전과 같이 ‘배부른 기둥’을 사용한 건축물이 일본인들에 의하여 수리되었다. 호류지法隆寺 금당에도 ‘배부른 기둥’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일본 학자들은 ‘배부른 기둥’에 대하여 관심이 컸다. 게다가 이때 서양건축 역사가 소개되었고, 고대 그리스 건축에 ‘엔타시스enthasis’라는 유사한 기둥이 사용되었다는 것도 알려졌다. 이에 더하여 기둥의 배가 부른 까닭이 사람의 착시현상과 연관이 있다는 내용도 소개되었다. 일본 학자들은 이 기둥을 ‘胴張り柱’라고 불렀다. ‘창자를 넓힌 기둥’이라는 뜻이며, ‘배부른 기둥’과 같은 말이다. 이것을 ‘흘림기둥’이라고 기록한 책이 1955년에 국립박물관에서 펴낸 『미술·고고학용어집-건축』이다. 임천林泉이 기술한 것으로 알려진 책이며, 국내에서 발간된 최초의 건축용어 사전이다. ‘흘림기둥’의 한자를 ‘胴張柱’라고 표기하였고 ‘엔타시스를 가진 기둥’이라고 하였다. 일본 학자들이 고려시대 수덕사 대웅전, 부석사 무량수전의 기둥에 대해 ‘胴張柱’라고 기술한 내용을 ‘흘림기둥’으로 잘못 기술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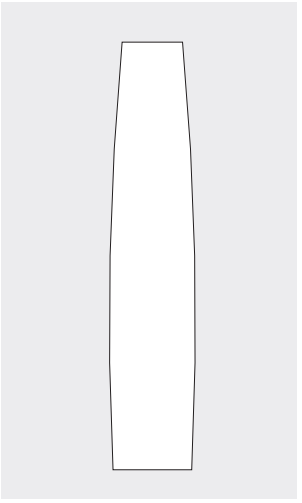
특징 및 의의 ‘배부른 기둥’이 인간의 착시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서양건축 역사학자들의 주장은 매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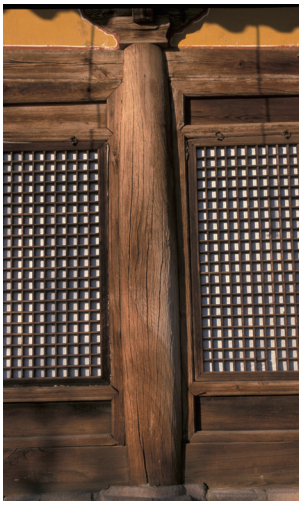
흘림기둥 |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 김왕직·동녘



흘림기둥 | 경남 양산 통도사 대광명전 문화재청



배부른 기둥 |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 김왕직·동녘



배부른기둥 | 경북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국립무형유산원

흥미롭다. 한편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건축에 적용한 고대 장인들의 노력이 감탄스럽다. 게다가 서양건축 역사학자들이 그리스의 파르테논Parthenon 신전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귀솟음과 안쏠림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결국 고대건축에서는 서양이나 동양이나 매한가지로 인간의 착시를 알고 있었으며, 이것을 보정하기 위하여 건축의 세세한 부분까지 조정하는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그런데 기둥 이름을 ‘배흘림’이나 ‘민흘림’과 같이 모두 흘림으로 부르다 보니 혼동하는 일이 발생한다. ‘배흘림기둥’이 인간의 착시와 관련된 것이라면 ‘민흘림기

둥'은 어떤 착시를 교정하는 것인지 궁금하여진다. 하지만 여기에 대하여 시원하게 답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냥 기둥의 아래가 넓으면 안정되어 보이겠지 하는 정도의 추측만 할 뿐이다.

조선시대 흘림기둥을 만드는 기법이 인간의 착시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기둥이나 규모가 큰 구조재의 재목은 말원경末圓徑을 기준으로 벌채한다. 각종 건축 관련 의궤에는 말원경이 기록되어 있다. 나무는 밑동의 굵기가 가장 굵고 가지 부분으로 갈수록 가늘어진다. 따라서 목부재의 규격을 맞추려면 굵기가 가장 가는 가지 부분이 치수에 합당하여야만 하였다. 다른 부재와 달리 기둥은 굵기가 동일한 필요가 없다. 게다가 기둥 하부에는 장귀틀, 인방과 같은 부재가 결구된다. 같은 목재라면 기둥 하부의 굵기가 최대한으로 굵은 것이 내구성 면에서 유리하다. 흘림기둥은 사람의 착시 보정보다 기둥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건축용어집(장기인, 대한건축학회 편, 영륜사, 1958), 고려말 조선초의 목조건축에 관한 연구(杉山信三, 신영훈 역, 고고미술동인회, 1963), 미술·고고학용어집-건축(김재원, 을유문화사, 1965), 이제 이 조선톱에도 녹이 슬었네(배희한 구술, 이상룡 편, 뿌리깊은나무, 1992), 조선건축사(리화선,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9).

필자 이연노(李演魯)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주생활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of Basic Necessities
HOUSING

부록

Ⅰ. 지정 문화재 살림집 목록 Ⅱ. 속담·관용구 Ⅲ. 색인 Ⅳ. 필자

지정 문화재 살림집 목록

I

강원도



강릉 반송댁
江陵 盤松宅
문화재자료 제61호
강원 강릉시 | 1985-01-17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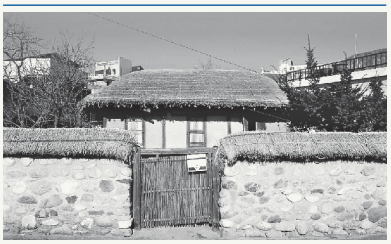
강릉 시호 고택
江陵 詩湖 古宅
문화재자료 제91호
강원 강릉시 | 1985-01-17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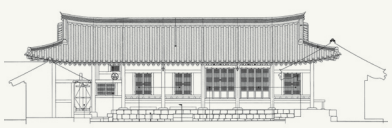
강릉 동은 고택
江陵 東隱 古宅
문화재자료 제55호
강원 강릉시 | 1985-01-17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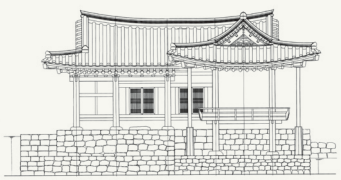
강릉 서지 조진사댁
江陵 鼠垈 曺進士宅
문화재자료 제62호
강원 강릉시 | 1985-01-17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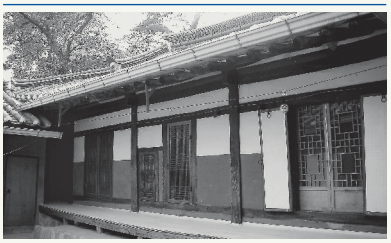
강릉 오금집
江陵 오금집
시도유형문화재 제80호
강원 강릉시 | 1985-01-17 지정



강릉 만성 고택
江陵 晩惺 古宅
시도유형문화재 제93호
강원 강릉시 | 1985-01-17 지정



강릉 선교장
江陵 船橋莊
국가민속문화재 제5호
강원 강릉시 | 1967-04-20 지정



강릉 운파고택
江陵 雲波古宅
문화재자료 제56호
강원 강릉시 | 1985-01-17 지정



강릉 모학당 고택
江陵 茅鶴堂 古宅
문화재자료 제60호
강원 강릉시 | 1985-01-17 지정



강릉 수리골 고택
江陵 수리골 古宅
시도유형문화재 제79호
강원 강릉시 | 1985-01-17 지정



강릉 초당동 고택
江陵 草堂洞 古宅
문화재자료 제59호
강원 강릉시 | 1985-01-17 지정



강릉 추산 고택
江陵 秋汕 古宅

시도유형문화재 제81호
강원 강릉시 | 1985-01-17 지정



강릉조수환가옥
江陵曺守煥家屋

시도유형문화재 제96호
강원 강릉시 | 1985-01-17 지정



강릉함대식가옥
江陵咸大植家屋

문화재자료 제92호
강원 강릉시 | 1985-01-17 지정



강릉 회계고택
江陵 晦溪古宅

문화재자료 제57호
강원 강릉시 | 1985-01-17 지정



강릉조철현가옥
江陵曺喆鉉家屋

문화재자료 제87호
강원 강릉시 | 1985-01-17 지정



보진당
葆眞堂

문화재자료 제6호
강원 강릉시 | 1984-06-02 지정



강릉김윤기가옥
江陵金潤起家屋

문화재자료 제58호
강원 강릉시 | 1985-01-17 지정



강릉최선평가옥
江陵崔善平家屋

문화재자료 제81호
강원 강릉시 | 1985-01-17 지정



상임경당
上臨鏡堂

시도유형문화재 제55호
강원 강릉시 | 1976-06-17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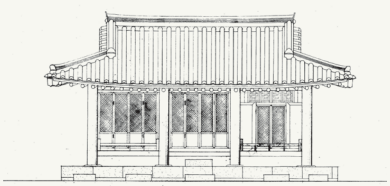
강릉박치규가옥
江陵朴穉奎家屋

문화재자료 제82호
강원 강릉시 | 1985-01-17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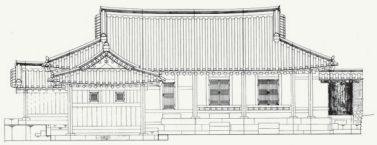
강릉최씨동원군종택
江陵崔氏東原君宗宅

문화재자료 제136호
강원 강릉시 | 2005-12-30 지정



임경당
臨鏡堂

시도유형문화재 제46호
강원 강릉시 | 1974-09-09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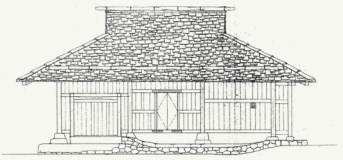
고성 어명기 고택
高城 魚命驥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31호
강원 고성군 | 1984-01-14 지정



동해 김진사 고택
東海 金進士 古宅

시도유형문화재 제83호
강원 동해시 | 1985-01-17 지정



삼척 신리 너와집과 민속유물
三陟 新里 너와집과 民俗遺物

국가민속문화재 제33호
강원 삼척시 | 1975-10-21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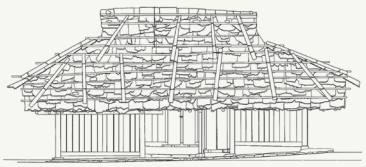
고성왕곡마을
高城旺谷마을

국가민속문화재 제235호
강원 고성군 | 2000-01-07 지정



동해 심의관 고택
東海 沈議官 古宅

시도유형문화재 제82호
강원 동해시 | 1985-01-17 지정



삼척대이리굴피집
三陟 大耳里 굴피집

국가민속문화재 제223호
강원 삼척시 | 1989-03-10 지정



고성이덕균가옥
高城李德均家屋

문화재자료 제77호
강원 고성군 | 1985-01-17 지정



삼척 고천리 고택
三陟 古川里 古宅

문화재자료 제96호
강원 삼척시 | 1985-01-17 지정



삼척대이리너와집
三陟 大耳里 너와집

국가민속문화재 제221호
강원 삼척시 | 1989-03-10 지정



고성함정균가옥
高城咸丁均家屋

문화재자료 제78호
강원 고성군 | 1985-01-17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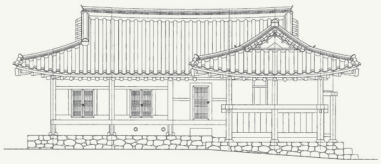
삼척 삼성헌 고택
三陟 三省軒 古宅

시도유형문화재 제95호
강원 삼척시 | 1985-01-17 지정



속초김근수가옥
束草金根洙家屋

문화재자료 제64호
강원 속초시 | 1985-01-17 지정



속초김종우가옥
束草金宗友家屋

시도유형문화재 제85호
강원 속초시 | 1985-01-17 지정



양양조규승가옥
襄陽曺圭承家屋

문화재자료 제80호
강원 양양군 | 1985-01-17 지정



정선 수고당 고택
旌善 守孤堂 古宅

시도유형문화재 제88호
강원 정선군 | 1985-01-17 지정



양양김성래가옥
襄陽金成來家屋

문화재자료 제79호
강원 양양군 | 1985-01-17 지정



영월 북쌍리 고택
寧越 北雙里 古宅

문화재자료 제70호
강원 영월군 | 1985-01-17 지정



춘천 혈거 유지
春川穴居遺址

시도기념물 제1호
강원 춘천시 | 1971-12-16 지정



양양김택준가옥
襄陽金澤俊家屋

시도유형문화재 제90호
강원 양양군 | 1985-01-17 지정



영월 창원리 고택
寧越 蒼院里 古宅

문화재자료 제72호
강원 영월군 | 1985-01-17 지정



춘천김정은가옥
春川金正殷家屋

문화재자료 제68호
강원 춘천시 | 1985-01-17 지정



양양이두형가옥
襄陽李斗炯家屋

시도유형문화재 제91호
강원 양양군 | 1985-01-17 지정



정선 상유재 고택
旌善 桑惟齋 古宅

시도유형문화재 제89호
강원 정선군 | 1985-01-17 지정



춘천민성기가옥
春川閔聖基家屋

문화재자료 제66호
강원 춘천시 | 1985-01-17 지정

경기도



춘천최재근가옥
春川最在根家屋
문화재자료 제65호
강원 춘천시 | 1985-01-17 지정



동래정씨동래군파종택
東來鄭氏東來君派宗宅
문화재자료 제95호
경기 군포시 | 2000-03-24 지정



평창대하리전통가옥
平昌大下里傳統家屋
문화재자료 제128호
강원 평창군 | 2000-01-22 지정



이천보고가
李天輔古家
문화재자료 제55호
경기 가평군 | 1984-09-12 지정



남양주 궁집
南楊州 宮집
국가민속문화재 제130호
경기 남양주시 | 1984-01-14 지정



평창지동봉가옥
平昌智東鳳家屋
문화재자료 제74호
강원 평창군 | 1985-01-17 지정



일산밤가시초가
一山밤가시草家
시도민속문화재 제8호
경기 고양시 | 1991-10-19 지정



남양주 동관댁
南楊州 東官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29호
경기 남양주시 | 1984-01-14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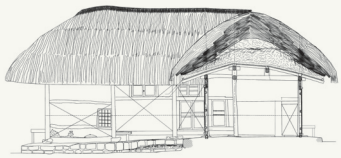
홍천 풍암리 고택
洪川 豊岩里 古宅
문화재자료 제69호
강원 홍천군 | 1985-01-17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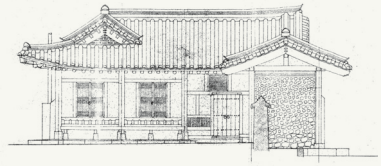
오리이원익종택및관감당
梧里李元翼宗宅및觀感堂
문화재자료 제90호
경기 광명시 | 1996-12-24 지정



수내동가옥(이택구가옥)
數內洞家屋(李宅求家屋)
문화재자료 제78호
경기 성남시 | 1989-12-29 지정



수원 광주이씨 고택
水原 廣州李氏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23호
경기 수원시 | 1984-01-14 지정



양주 매곡리 고택
楊州 梅谷里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28호
경기 양주시 | 1984-01-14 지정



여주 보통리 고택
驪州 甫通里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26호
경기 여주시 | 1984-01-14 지정



안산청문당
安山淸聞堂
문화재자료 제94호
경기 안산시 | 2000-04-17 지정



죽산안씨연창위종가
竹山安氏延昌尉宗家
문화재자료 제103호
경기 양주시 | 2001-01-16 지정

여주해평윤씨동강공파종택
驪州海平尹氏東岡公派宗宅
문화재자료 제97호
경기 여주시 | 2000-03-24 지정



안성정무공오정방고택
安城貞武公吳定邦古宅
시도유형문화재 제175호
경기 안성시 | 2000-03-24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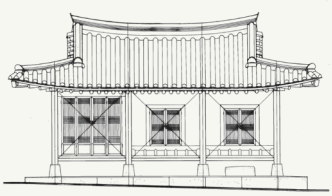
김병호고가
金丙浩古家
시도민속문화재 제5호
경기 양평군 | 1984-09-12 지정



용인 한산이씨 음애공파 고택
龍仁 韓山李氏 陰崖公派 古宅
시도민속문화재 제10호
경기 용인시 | 1997-12-26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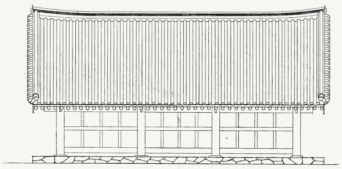
이해룡고가
李海龍古家
문화재자료 제73호
경기 안성시 | 1985-09-20 지정



양평 창대리고가
楊平倉垈里古家
시도민속문화재 제7호
경기 양평군 | 1985-06-28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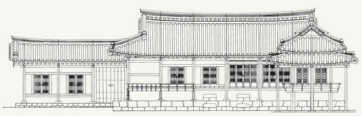
용인이주국장군고택
龍仁李柱國將軍古宅
문화재자료 제96호
경기 용인시 | 2000-03-24 지정



서계박세당사랑채
西溪朴世堂舍廊채
문화재자료 제93호
경기 의정부시 | 2000-04-17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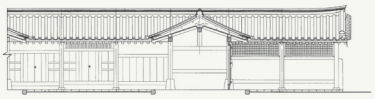
화성 정수영 고택
華城 鄭壽永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25호
경기 화성시 | 1984-01-14 지정



거창 동계 종택
居昌 桐溪 宗宅
국가민속문화재 제205호
경남 거창군 | 1984-12-24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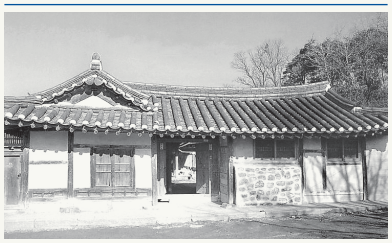
김좌근고택
김左根古宅
시도민속문화재 제12호
경기 이천시 | 2003-04-21 지정



화성 정시영 고택
華城 鄭時永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24호
경기 화성시 | 1984-01-14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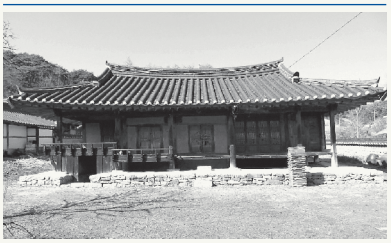


거창 무릉리 최진사 고가
居昌 武陵里 崔進士 古家
문화재자료 제537호
경남 거창군 | 2011-07-14 지정



정원채고가
鄭元采古家
시도민속문화재 제6호
경기 화성시 | 1985-06-28 지정

경상남도



거창 반구헌
居昌 反球軒
문화재자료 제232호
경남 거창군 | 1996-03-11 지정



홍승인고가
洪承仁古家
문화재자료 제74호
경기 화성시 | 1985-09-20 지정



거제 학동 진석중 가옥
-
등록문화재 제277호
경남 거제시 | 2006-09-19 지정



거창 사병리 밀양 변씨 고가
居昌 士屛里 密陽卞氏古家
문화재자료 제559호
경남 거창군 | 2012-12-27 지정



거창 서간소루
居昌 西澗小樓

문화재자료 제252호
경남 거창군 | 1997-12-31 지정



거창 화경당
居昌 和敬堂

문화재자료 제623호
경남 거창군 | 2016-04-07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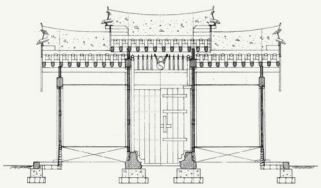
거창황산리신씨고가
居昌黃山里愼氏古家

시도민속문화재 제17호
경남 거창군 | 1994-07-04 지정



거창 영은 고택
居昌靈隱古宅

문화재자료 제371호
경남 거창군 | 2005-03-31 지정



거창갈계리임씨고가
居昌葛溪里林氏古家

시도민속문화재 제9호
경남 거창군 | 1985-01-14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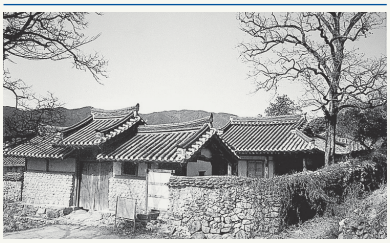
고성 최필간고택
固城 崔必侃古宅

문화재자료 제178호
경남 고성군 | 1990-12-20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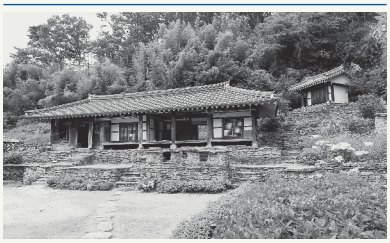
거창 월헌 고가
居昌 月軒古家

문화재자료 제583호
경남 거창군 | 2014-04-17 지정



거창동호리이씨고가
居昌 東湖里 李氏古家

문화재자료 제122호
경남 거창군 | 1985-01-23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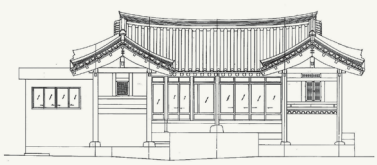
고성 학림리 최씨종가
固城 鶴林里 崔氏宗家

시도민속문화재 제22호
경남 고성군 | 2011-07-14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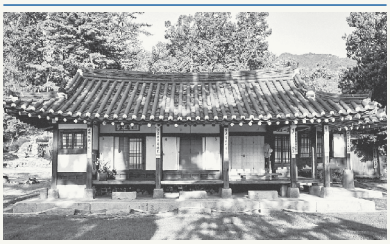
거창 정장리 양식 가옥
-

등록문화재 제203호
경남 거창군 | 2005-09-14 지정



거창무릉리정씨고가
居昌武陵里鄭氏古家

시도유형문화재 제287호
경남 거창군 | 1992-10-21 지정



고성봉동리배씨고가
固城鳳東里裴氏古家

시도민속문화재 제16호
경남 고성군 | 1994-07-04 지정



고성송계리이씨고가
固城松溪里李氏古家
문화재자료 제162호
경남 고성군 | 1986-08-06 지정



밀양 교동 근대 한옥
-
등록문화재 제151호
경남 밀양시 | 2005-04-15 지정



밀양교동손대식씨고가
密陽校洞孫大植氏古家
문화재자료 제175호
경남 밀양시 | 1990-12-20 지정



고성장산리허씨고가
固城章山里許氏古家
문화재자료 제115호
경남 고성군 | 1985-01-23 지정



밀양 교동 밀성 손씨 고가
密陽校洞密城孫氏古家
문화재자료 제399호
경남 밀양시 | 2006-07-20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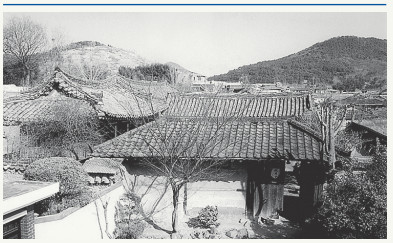
밀양교동손병순씨고가
密陽校洞孫炳淳氏古家
문화재자료 제184호
경남 밀양시 | 1991-12-23 지정



김해 시례리 염수당
金海 詩禮里 念修堂
문화재자료 제402호
경남 김해시 | 2006-07-20 지정



밀양 청운리 안세환 가옥
密陽青雲里安世煥家屋
문화재자료 제388호
경남 밀양시 | 2006-01-12 지정



밀양교동손병준씨고가
密陽校洞孫炳俊氏古家
문화재자료 제185호
경남 밀양시 | 1991-12-23 지정



김해 장방리 갈대집
金海 長方里 갈대집
문화재자료 제421호
경남 김해시 | 2007-03-15 지정



밀양 퇴로리 근대 한옥
-
등록문화재 제152호
경남 밀양시 | 2005-04-15 지정



밀양교동손씨고가
密陽校洞孫氏古家
문화재자료 제161호
경남 밀양시 | 1986-08-06 지정



밀양교동손정식씨고가
密陽校洞孫正植氏古家
문화재자료 제186호
경남 밀양시 | 1991-12-23 지정



밀양퇴로리이씨고가
密陽退老里李氏古家
문화재자료 제112호
경남 밀양시 | 1985-01-23 지정



산청 특리 근대 한옥
-
등록문화재 제148호
경남 산청군 | 2005-04-15 지정



밀양다죽리손씨고가
密陽茶竹里孫氏古家
문화재자료 제111호
경남 밀양시 | 1985-01-23 지정



사천환덕리조씨고가
泗川還德里趙氏古家
문화재자료 제116호
경남 사천시 | 1985-01-23 지정



산청남사리이씨고가
山淸南沙里李氏古家
문화재자료 제118호
경남 산청군 | 1985-01-23 지정



밀양단장면허씨고가
密陽丹場面許氏古家
문화재자료 제110호
경남 밀양시 | 1985-01-23 지정



단계박씨고가
丹溪朴氏古家
시도민속문화재 제4호
경남 산청군 | 1983-08-12 지정



산청남사리최씨고가
山淸南沙里崔氏古家
문화재자료 제117호
경남 산청군 | 1985-01-23 지정



밀양청운리안씨고가
密陽靑雲里安氏古家
문화재자료 제113호
경남 밀양시 | 1985-01-23 지정



산청 박인현 고택
山淸 朴寅鉉 古宅
문화재자료 제444호
경남 산청군 | 2008-02-05 지정



산청단계리권씨고가
山淸丹溪里權氏古家
문화재자료 제120호
경남 산청군 | 1985-01-23 지정



산청단계리박씨고가
山淸丹溪里朴氏古家
문화재자료 제119호
경남 산청군 | 1985-01-23 지정



의령 덕교리 강씨고가
宜寧 德橋里 姜氏古家
시도민속문화재 제11호
경남 의령군 | 1986-08-06 지정

진주 담산고택
晉州 澹山古宅
문화재자료 제538호
경남 진주시 | 2011-07-14 지정



산청대포리민씨고가
山淸大浦里閔氏古家
문화재자료 제163호
경남 산청군 | 1986-08-06 지정



의령 상정리 조씨고가
宜寧 上井里 曺氏古家
시도민속문화재 제15호
경남 의령군 | 1993-12-27 지정



진주 이세후 종가
晉州 李世厚 宗家
문화재자료 제414호
경남 진주시 | 2006-11-02 지정



산청소남리권씨고가
山淸召南里權氏古家
문화재자료 제164호
경남 산청군 | 1986-08-06 지정



진주마진리이씨고가
晉陽麻津里李氏古家
문화재자료 제106호
경남 진주시 | 1985-01-23 지정



진주 은헌 고택
晉州 隱軒 古宅
문화재자료 제345호
경남 진주시 | 2004-03-18 지정



산청소남리조씨고가
山淸召南里趙氏古家
문화재자료 제165호
경남 산청군 | 1986-08-06 지정



진주청원리이씨고가
晉陽淸源里李氏古家
문화재자료 제107호
경남 진주시 | 1985-01-23 지정



창녕 반곡 고택
昌寧 盤谷古宅
문화재자료 제420호
경남 창녕군 | 2007-03-15 지정



창녕 석리 성씨고가
昌寧 石里 成氏古家
문화재자료 제355호
경남 창녕군 | 2004-07-01 지정



창녕 부곡리 이씨고가
昌寧 釜谷里 李氏古家
문화재자료 제108호
경남 창녕군 | 1985-01-23 지정



함안 무기연당
咸安 舞沂蓮塘
국가민속문화재 제208호
경남 함안군 | 1984-12-24 지정



창녕 영산 신씨고가1
昌寧 靈山 辛氏古家1
문화재자료 제109호
경남 창녕군 | 1985-01-23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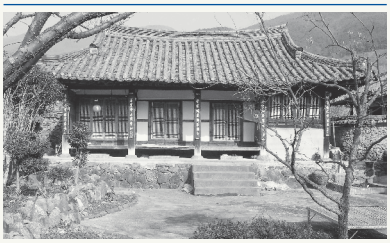
창원 이승만 전대통령 별장 및 정자
昌原 李承晩 前大統領 別莊 및 亭子
시도유형문화재 제265호
경남 창원시 | 1990-01-16 지정



함양 개평리 하동 정씨 고가
咸陽介坪里河東鄭氏古家
문화재자료 제361호
경남 함양군 | 2004-10-21 지정



창녕 영산 신씨고가2
昌寧 靈山 辛氏古家2
문화재자료 제354호
경남 창녕군 | 2004-07-01 지정



하동 동매리 김씨고가
河東 東梅里 金氏古家
문화재자료 제462호
경남 하동군 | 2009-03-12 지정



함양 노참판댁 고가
-
문화재자료 제360호
경남 함양군 | 2004-10-21 지정



창녕 진양하씨 고택
昌寧 晉陽河氏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0호
경남 창녕군 | 1968-11-25 지정



함안 무기리 주씨고가
咸安 舞沂里 周氏古家
시도민속문화재 제10호
경남 함안군 | 1985-01-14 지정



함양 풍천 노씨대 종가
咸陽 豊川 盧氏大 宗家
문화재자료 제343호
경남 함양군 | 2004-03-18 지정



함양 허삼둘 고택
咸陽 許三乭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207호
경남 함양군 | 1984-12-24 지정



주필각및월화당
駐蹕閣 및 月華堂
문화재자료 제173호
경남 합천군 | 1990-01-16 지정



합천대목리심씨고가
陜川大目里沈氏古家
문화재자료 제192호
경남 합천군 | 1992-10-21 지정



함양오담고택
咸陽梧潭古宅
시도유형문화재 제407호
경남 함양군 | 2004-03-18 지정



합천 묵와 고택
陜川 默窩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206호
경남 합천군 | 1984-12-24 지정

경상북도



함양우명리정씨고가
咸陽牛鳴里鄭氏古家
문화재자료 제121호
경남 함양군 | 1985-01-23 지정



합천 역평리 송씨종가
陜川 驛坪里 宋氏宗家
문화재자료 제105호
경남 합천군 | 1984-11-23 지정



난포고택
蘭圃故宅
시도유형문화재 제80호
경북 경산시 | 1975-08-18 지정



함양일두고택
咸陽 一蠹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86호
경남 함양군 | 1984-01-14 지정



합천 팔심리 윤씨고가
陜川 八尋里 尹氏古家
시도민속문화재 제18호
경남 합천군 | 1995-05-02 지정



경주 양동 무첨당
慶州 良洞 無忝堂
보물 제411호
경북 경주시 | 1964-11-14 지정



경주 양동 향단
慶州 良洞 香壇
보물 제412호
경북 경주시 | 1964-11-14 지정



경주 양동마을 두곡 고택
慶州 良洞마을 杜谷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77호
경북 경주시 | 1979-01-26 지정



경주 양동마을 수졸당 고택
慶州 良洞마을 守拙堂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78호
경북 경주시 | 1979-01-26 지정



경주 양동마을
慶州 良洞마을
국가민속문화재 제189호
경북 경주시 | 1984-12-24 지정



경주 양동마을 사호당 고택
慶州 良洞마을 沙湖堂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74호
경북 경주시 | 1979-01-26 지정



경주 양동마을 이향정 고택
慶州 良洞마을 二香亭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79호
경북 경주시 | 1979-01-26 지정



경주 양동마을 근암 고택
慶州 良洞마을 謹庵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76호
경북 경주시 | 1979-01-26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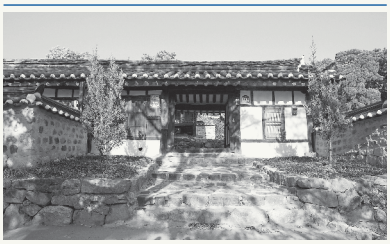
경주 양동마을 상춘헌 고택
慶州 良洞마을 賞春軒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75호
경북 경주시 | 1979-01-26 지정



경주 월암 종택
慶州 月菴 宗宅
국가민속문화재 제34호
경북 경주시 | 1977-01-08 지정



경주 양동마을 낙선당 고택
慶州 良洞마을 樂善堂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73호
경북 경주시 | 1979-01-26 지정



경주 양동마을 송첨 종택
慶州 良洞마을 松簷 宗宅
국가민속문화재 제23호
경북 경주시 | 1970-12-29 지정



경주 최부자댁
慶州 崔富者宅
국가민속문화재 제27호
경북 경주시 | 1971-05-27 지정



월성주사댁
月城主事宅
문화재자료 제383호
경북 경주시 | 2000-04-10 지정



죽유종택
竹유宗宅
시도기념물 제139호
경북 고령군 | 2001-08-20 지정



모원당
慕遠堂
문화재자료 제390호
경북 구미시 | 2000-09-04 지정



육의당
六宜堂
시도유형문화재 제263호
경북 경주시 | 1991-05-14 지정



구미쌍암고택
龜尾 雙巖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05호
경북 구미시 | 1979-12-31 지정



수남위종택
水南位宗宅
문화재자료 제51호
경북 구미시 | 1985-08-05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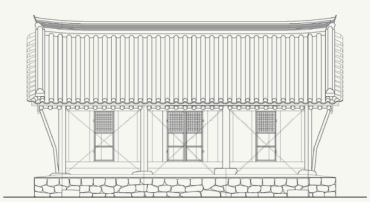
충의당
忠義堂
시도민속문화재 제99호
경북 경주시 | 1993-02-25 지정



근암고택
近庵古宅
문화재자료 제55호
경북 구미시 | 1985-08-05 지정



용와종택및침간정
용窩宗宅및枕澗亭
시도민속문화재 제18호
경북 구미시 | 1979-12-18 지정



점필재종택
佔畢齋宗宅
시도민속문화재 제62호
경북 고령군 | 1985-10-15 지정



망천동임당댁
輞川洞林塘宅
시도민속문화재 제59호
경북 구미시 | 1985-10-15 지정



임하댁
臨河宅
문화재자료 제53호
경북 구미시 | 1985-08-05 지정



해평동북애고택
海平洞北厓故宅
시도민속문화재 제41호
경북 구미시 | 1983-06-20 지정



문경 녹문리 고병숙 가옥
聞慶 鹿門里 高柄璹家屋
문화재자료 제365호
경북 문경시 | 1999-08-09 지정



개암종택
開巖宗宅
시도기념물 제138호
경북 봉화군 | 2000-04-10 지정



호고와종택
好古窩宗宅
문화재자료 제57호
경북 구미시 | 1985-08-05 지정



문경 송죽리 개성 고씨 가옥
聞慶 松竹里 開城高氏家屋
문화재자료 제589호
경북 문경시 | 2011-06-02 지정



경암헌고택
경菴軒故宅
시도민속문화재 제53호
경북 봉화군 | 1984-12-29 지정



군위 남천고택
軍威 南川古宅
시도민속문화재 제164호
경북 군위군 | 2013-04-08 지정



문경 장수황씨 종택
聞慶 長水黃氏 宗宅
시도민속문화재 제163호
경북 문경시 | 2013-04-08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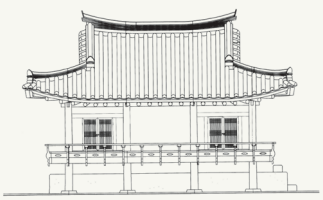
김갑동 가옥
金甲東家屋
문화재자료 제353호
경북 봉화군 | 1998-05-25 지정



성산 여씨 하회댁
星山呂氏河回宅
문화재자료 제388호
경북 김천시 | 2000-09-04 지정



문경 지취헌 고택
聞慶 篪吹軒古宅
문화재자료 제575호
경북 문경시 | 2010-06-10 지정



도암정
陶巖亭
시도민속문화재 제54호
경북 봉화군 | 1984-12-29 지정



봉화 기헌 고택
奉化起軒古宅
문화재자료 제419호
경북 봉화군 | 2002-02-14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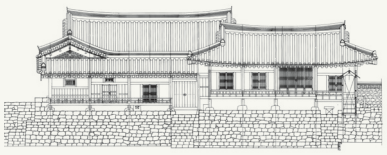
봉화 서설당 고택
奉花 瑞雪堂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293호
경북 봉화군 | 2017-08-25 지정



봉화 유곡리 근대 한옥
-
등록문화재 제218호
경북 봉화군 | 2005-11-11 지정



봉화 남호 구택
奉化南湖舊宅
문화재자료 제385호
경북 봉화군 | 2000-04-10 지정



봉화 송석헌 고택
奉化 松石軒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249호
경북 봉화군 | 2007-10-12 지정



봉화 의양리 권진사댁
奉花 宜陽里 權進士宅
시도민속문화재 제181호
경북 봉화군 | 2013-04-08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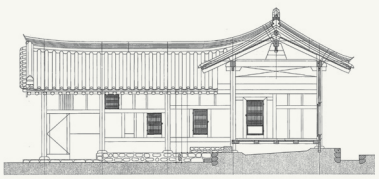
봉화 만산고택
奉化 晩山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279호
경북 봉화군 | 2013-12-12 지정



봉화 수온당 고택
奉化 睡穩堂 古宅
문화재자료 제605호
경북 봉화군 | 2013-06-24 지정



봉화 팔오헌 종택
奉化八吾軒宗宅
문화재자료 제445호
경북 봉화군 | 2003-08-14 지정



봉화 만회 고택
奉化 晩悔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69호
경북 봉화군 | 1984-01-14 지정



봉화 쌍벽당 종택
奉化 雙碧堂 宗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70호
경북 봉화군 | 1984-01-14 지정



봉화 해은 구택
奉化 海隱舊宅
문화재자료 제560호
경북 봉화군 | 2009-11-23 지정



봉화법전강씨종택
奉化法田姜氏宗宅
시도민속문화재 제40호
경북 봉화군 | 1982-12-01 지정



설매리겹집
雪梅里겹집
시도민속문화재 제109호
경북 봉화군 | 1994-09-29 지정



해저김건영가옥
海底金建永家屋
시도기념물 제117호
경북 봉화군 | 1996-12-05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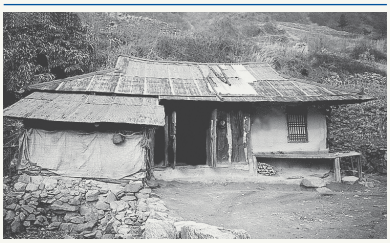
봉화설매리3겹까치구멍집
奉化 雪梅里 3겹 까치구멍집
국가민속문화재 제247호
경북 봉화군 | 2007-01-12 지정



오고당구택
五高堂舊宅
시도민속문화재 제52호
경북 봉화군 | 1984-12-29 지정



병암고택(사랑채)
甁菴故宅(사랑채)
문화재자료 제130호
경북 상주시 | 1985-08-05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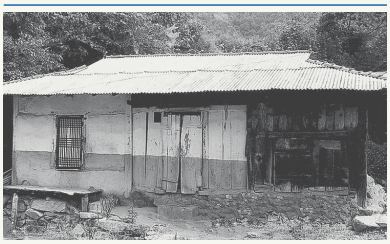
분천리까치구멍집
汾川里까치구멍집
시도민속문화재 제108호
경북 봉화군 | 1994-09-29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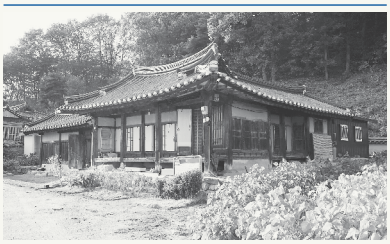
옥계종택
玉溪宗宅
문화재자료 제547호
경북 봉화군 | 2008-12-29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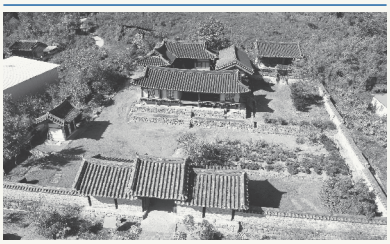
상주 양진당
尙州 養眞堂
보물 제1568호
경북 상주시 | 2008-07-10 지정



분천리도토마리집
汾川里도토마리집
시도민속문화재 제107호
경북 봉화군 | 1994-09-29 지정



해와 고택
海窩古宅
문화재자료 제338호
경북 봉화군 | 1997-09-29 지정



상주 우복 종택
尙州 愚伏 宗宅
국가민속문화재 제296호
경북 상주시 | 2018-11-01 지정



상주 의암고택
尙州 依巖古宅
시도민속문화재 제153호
경북 상주시 | 2012-10-22 지정



대산동교리댁
大山洞校理宅
시도민속문화재 제43호
경북 성주군 | 1983-06-20 지정



성주 대산리 하회댁
星州 大山里 河回宅
시도민속문화재 제176호
경북 성주군 | 2013-04-08 지정



상주 취은 고택
尙州 醉隱古宅
문화재자료 제582호
경북 상주시 | 2011-01-03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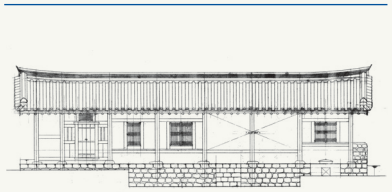
대산동월곡댁
大山洞月谷宅
시도민속문화재 제46호
경북 성주군 | 1983-06-20 지정



성주 예산리 만산댁
星州 禮山里 晩山宅
시도유형문화재 제389호
경북 성주군 | 2006-09-14 지정



상주오작당
尙州 悟昨堂
시도민속문화재 제32호
경북 상주시 | 1982-02-24 지정



대산동한주종택
大山洞寒洲宗宅
시도민속문화재 제45호
경북 성주군 | 1983-06-20 지정



성주 예산리 배리댁
星州禮山里裵里宅
문화재자료 제514호
경북 성주군 | 2006-09-14 지정



수암종택
修巖宗宅
시도민속문화재 제70호
경북 상주시 | 1986-12-11 지정



성주 극와고택
星州 極窩古宅
시도민속문화재 제177호
경북 성주군 | 2013-04-08 지정



성주 응와종택
星州 凝窩宗宅
시도민속문화재 제44호
경북 성주군 | 1983-06-20 지정

성주 죽백 고택
星州 竹栢古宅
문화재자료 제602호
경북 성주군 | 2012-12-13 지정



성주백세각
星州百世閣
시도유형문화재 제163호
경북 성주군 | 1982-08-04 지정



광산김씨긍구당고택
光山金氏肯構堂古宅
시도유형문화재 제316호
경북 안동시 | 2000-04-10 지정



성주 한강 종택
星州 寒岡宗宅
문화재자료 제614호
경북 성주군 | 2013-09-12 지정



성주수성리중매댁
星州水成里中梅宅
시도민속문화재 제86호
경북 성주군 | 1989-05-29 지정



긍구당
肯構堂
시도유형문화재 제32호
경북 안동시 | 1973-08-31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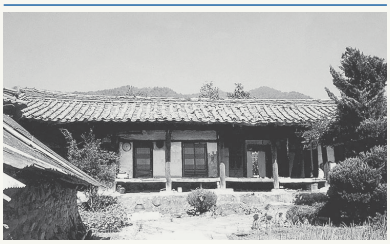
성주대산리도동댁
星州大山里道東宅
시도민속문화재 제132호
경북 성주군 | 2004-06-28 지정



완정고택
浣亭古宅
문화재자료 제163호
경북 성주군 | 1985-12-30 지정



남천 고택
南川古宅
문화재자료 제324호
경북 안동시 | 1996-12-05 지정



성주대산리진사댁
星州大山里進士宅
시도민속문화재 제124호
경북 성주군 | 2000-09-04 지정



가류동박씨고가
加流洞朴氏古家
시도민속문화재 제15호
경북 안동시 | 1973-08-31 지정



두릉구택
杜陵舊宅
문화재자료 제259호
경북 안동시 | 1992-07-18 지정



묵재고택
默齋古宅
시도민속문화재 제85호
경북 안동시 | 1989-05-29 지정



안동 고성이씨 탑동파 종택
安東 固城李氏 塔洞派 宗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85호
경북 안동시 | 1984-01-14 지정



안동 귀봉종택
安東 龜峰宗宅
국가민속문화재 제267호
경북 안동시 | 2011-11-09 지정



삼소재
三素齋
시도민속문화재 제66호
경북 안동시 | 1985-12-30 지정



안동 광산김씨 탁청정공파 종택
安東 光山金氏 濯淸亭公派 宗宅
국가민속문화재 제272호
경북 안동시 | 2012-08-24 지정



안동 도암 종택
安東 陶庵 宗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81호
경북 안동시 | 1984-01-14 지정



수애당
水涯堂
문화재자료 제56호
경북 안동시 | 1985-08-05 지정



안동 국탄댁
安東 菊灘宅
시도민속문화재 제188호
경북 안동시 | 2017-05-15 지정



안동 두산 고택
安東 斗山故宅
문화재자료 제664호
경북 안동시 | 2018-07-16 지정



수졸당및재사
守拙堂및齋舍
시도민속문화재 제130호
경북 안동시 | 2003-08-14 지정



안동 권성백 고택
安東 權成伯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202호
경북 안동시 | 1984-12-24 지정



안동 번남 고택
安東 樊南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268호
경북 안동시 | 2011-11-09 지정



안동 비안공 구택
安東 比安公 舊宅
시도민속문화재 제148호
경북 안동시 | 2012-10-22 지정



안동 소호헌
安東 蘇湖軒
보물 제475호
경북 안동시 | 1968-12-19 지정



안동 오류헌 고택
安東 五柳軒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84호
경북 안동시 | 1984-01-14 지정



안동 삼벽당
安東 三碧堂
시도민속문화재 제149호
경북 안동시 | 2012-10-22 지정



안동 수곡 고택
安東 樹谷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76호
경북 안동시 | 1984-01-14 지정



안동 유일재 종택
安東 惟一齋 宗宅
시도민속문화재 제113호
경북 안동시 | 1996-01-20 지정



안동 성성재 종택
安東 惺惺齋 宗宅
시도민속문화재 제159호
경북 안동시 | 2013-04-08 지정



안동 시은고택
-
국가민속문화재 제287호
경북 안동시 | 2016-04-27 지정



안동 의성김씨 종택
安東 義城金氏 宗宅
보물 제450호
경북 안동시 | 1967-06-23 지정



안동 소산동 동야고택
安東 素山洞 東야古宅
시도민속문화재 제147호
경북 안동시 | 2012-10-22 지정



안동 예안이씨 충효당
安東 禮安李氏 忠孝堂
보물 제553호
경북 안동시 | 1971-08-30 지정



안동 일성당 고택
安東 日省堂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78호
경북 안동시 | 1984-01-14 지정



안동 정재종택
安東 定齋宗宅
시도기념물 제170호
경북 안동시 | 2012-10-22 지정



안동 진성이씨 종택
安東 眞城李氏 宗宅
국가민속문화재 제291호
경북 안동시 | 2017-06-29 지정



안동 하회마을 양오당 고택
安東 河回마을 養吾堂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91호
경북 안동시 | 1979-01-26 지정



안동 죽헌고택
安東 竹軒古宅
시도민속문화재 제146호
경북 안동시 | 2012-10-22 지정



안동 하회 양진당
安東 河回 養眞堂
보물 제306호
경북 안동시 | 1963-01-21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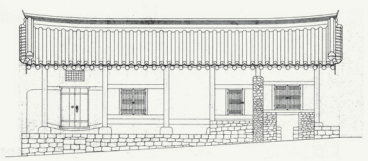
안동 하회마을 염행당 고택
安東 河回마을 念行堂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90호
경북 안동시 | 1979-01-26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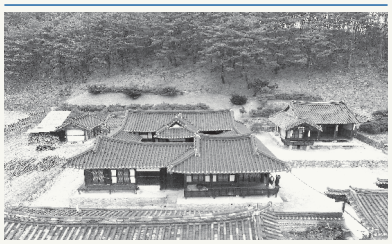
안동 지촌종택
安東 芝村宗宅
시도민속문화재 제187호
경북 안동시 | 2017-05-15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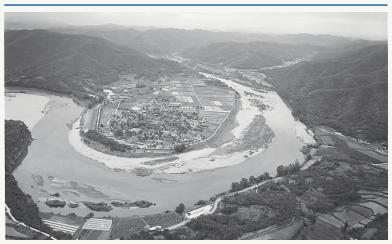
안동 하회 충효당
安東 河回 忠孝堂
보물 제414호
경북 안동시 | 1964-11-14 지정



안동 하회마을 작천 고택
安東 河回마을 鵲泉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87호
경북 안동시 | 1979-01-26 지정



안동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
安東 眞城李氏 溫惠派 宗宅
국가민속문화재 제295호
경북 안동시 | 2018-11-01 지정



안동 하회마을
安東 河回마을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
경북 안동시 | 1984-01-14 지정



안동 하회마을 하동 고택
安東 河回마을 河東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77호
경북 안동시 | 1984-01-14 지정



안동 하회마을 화경당 고택
安東 河回마을 和敬堂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84호
경북 안동시 | 1979-01-26 지정



안동 후조당 종택
安東 後彫堂 宗宅
국가민속문화재 제227호
경북 안동시 | 1991-08-26 지정



안동마령동기와까치구멍집
安東馬嶺洞기와까치구멍집
시도민속문화재 제69호
경북 안동시 | 1986-12-11 지정



안동 학암고택
安東 鶴巖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79호
경북 안동시 | 1984-01-14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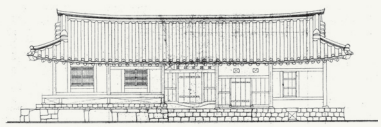
안동권씨병곡종택
安東權氏 屛谷宗宅
시도민속문화재 제138호
경북 안동시 | 1999-12-30 지정



안동사월동초가토담집
安東沙月洞草家土담집
시도민속문화재 제14호
경북 안동시 | 1973-08-31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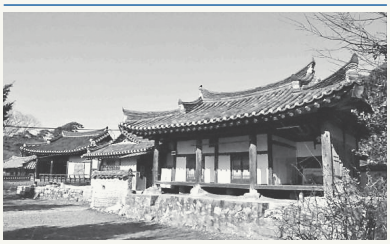
안동 향산 고택
安東 嚮山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280호
경북 안동시 | 2014-02-25 지정



안동김씨북애공종택
安東金氏北涯公宗宅
시도민속문화재 제27호
경북 안동시 | 1981-04-25 지정



안동서부동송곡고택
安東西部洞松谷故宅
시도민속문화재 제4호
경북 안동시 | 1973-08-31 지정



안동 허백당 종택
安東 虛白堂 宗宅
국가민속문화재 제284호
경북 안동시 | 2015-08-21 지정



안동김씨종택
安東金氏宗宅
시도민속문화재 제25호
경북 안동시 | 1981-04-25 지정



안동송소종택
安東 松巢宗宅
국가민속문화재 제203호
경북 안동시 | 1984-12-24 지정



안동예안동간재고택
安東禮安東澗齋故宅
시도민속문화재 제5호
경북 안동시 | 1973-08-31 지정



안동제산종택
安東霽山宗宅
시도민속문화재 제129호
경북 안동시 | 2002-10-14 지정



애일당
愛日堂
시도유형문화재 제34호
경북 안동시 | 1973-08-31 지정



안동원촌동치암고택
安東遠村洞恥巖故宅
시도민속문화재 제11호
경북 안동시 | 1973-08-31 지정



안동토계동계남고택
安東土溪洞溪南故宅
시도민속문화재 제8호
경북 안동시 | 1973-08-31 지정



예안이씨사직공파구택
禮安李氏司直公派舊宅
시도민속문화재 제68호
경북 안동시 | 1986-12-11 지정



안동의촌동초가도토마리집
安東宜村洞草家도토마리집
시도민속문화재 제6호
경북 안동시 | 1973-08-31 지정



안동풍산김씨영감댁
安東豊山金氏令監宅
시도민속문화재 제39호
경북 안동시 | 1982-12-01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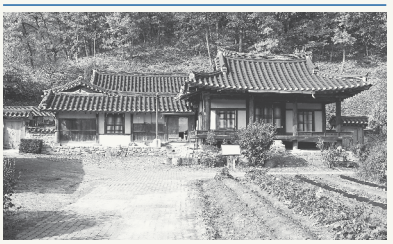
원주변씨간재종택및간재정
原州邊氏簡齋宗宅및簡齋亭
시도민속문화재 제131호
경북 안동시 | 2003-12-15 지정



안동전주류씨삼산종택
安東全州柳氏三山宗宅
시도민속문화재 제36호
경북 안동시 | 1982-12-01 지정



안동하회지산고택
安東 河回 志山古宅
시도민속문화재 제140호
경북 안동시 | 2010-04-19 지정



의성김씨운암종택
義城金氏雲岩宗宅
시도민속문화재 제50호
경북 안동시 | 1984-12-29 지정



의성김씨학봉종택
義城金氏鶴峰宗宅
시도기념물 제112호
경북 안동시 | 1995-12-01 지정



인금리 심씨댁
仁今里沈氏宅
문화재자료 제389호
경북 안동시 | 2000-09-04 지정



지예동양동댁
知禮洞良洞宅
시도민속문화재 제58호
경북 안동시 | 1985-10-15 지정



이우당종택
二愚堂宗宅
시도민속문화재 제49호
경북 안동시 | 1984-05-21 지정



인금리 월오헌 고택
仁今里月塢軒古宅
문화재자료 제330호
경북 안동시 | 1997-09-29 지정



추원재
追遠齋
시도유형문화재 제37호
경북 안동시 | 1973-08-31 지정



이육사생가
李陸史生家
시도민속문화재 제10호
경북 안동시 | 1973-08-31 지정



작산정사및가창재사
鵲山精舍및可倉齋舍
시도민속문화재 제21호
경북 안동시 | 1980-12-30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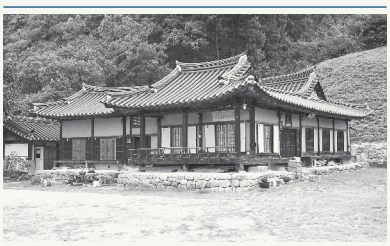
치헌
恥軒
문화재자료 제43호
경북 안동시 | 1985-08-05 지정



이태형고택
李泰衡古宅
문화재자료 제47호
경북 안동시 | 1985-08-05 지정



전주유씨무실종택
全州柳氏務實宗宅
시도민속문화재 제47호
경북 안동시 | 1984-05-21 지정



한산 이씨 대산 종가
韓山李氏大山宗家
문화재자료 제408호
경북 안동시 | 2001-11-01 지정



강파헌 정침
江波軒正寢

문화재자료 제358호
경북 영덕군 | 1999-03-11 지정



대은종택
臺隱宗宅

문화재자료 제278호
경북 영덕군 | 1993-11-30 지정



영덕 괴시동 태남댁
盈德 槐市洞 台南宅

시도민속문화재 제168호
경북 영덕군 | 2013-04-08 지정



경수당종택
慶壽堂宗宅

시도유형문화재 제297호
경북 영덕군 | 1997-09-29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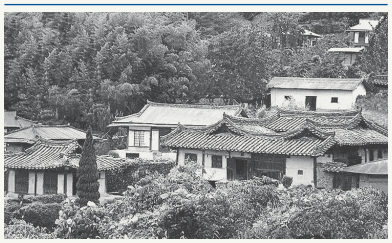
면운재고택 및 별묘
眠雲齋古宅 및 別廟

시도민속문화재 제96호
경북 영덕군 | 1991-05-14 지정



영덕 괴시동 해촌고택
盈德 槐市洞 海村古宅

시도민속문화재 제170호
경북 영덕군 | 2013-04-08 지정



경주김씨 눌곡종택
慶州金氏訥谷宗宅

시도민속문화재 제119호
경북 영덕군 | 1999-08-09 지정



목사공 종택
牧使公宗宅

문화재자료 제320호
경북 영덕군 | 1996-07-16 지정

영덕 괴시리 사곡댁
盈德槐市里沙谷宅

문화재자료 제425호
경북 영덕군 | 2002-07-15 지정



곡강고택
曲江古宅

시도민속문화재 제123호
경북 영덕군 | 2000-09-04 지정



영덕 괴시동 물소와고택
盈德 槐市洞 勿小窩古宅

시도민속문화재 제169호
경북 영덕군 | 2013-04-08 지정



영덕 괴시리 영감댁
盈德槐市里令監宅

문화재자료 제424호
경북 영덕군 | 2002-07-15 지정



영덕 괴시리 영은 고택
盈德槐市里瀛隱古宅
문화재자료 제459호
경북 영덕군 | 2004-03-11 지정



영덕 번호댁
盈德樊湖宅
문화재자료 제379호
경북 영덕군 | 1999-12-30 지정



영덕 오봉종택
盈德 五峯宗宅
문화재자료 제538호
경북 영덕군 | 2008-06-16 지정



영덕 난고 종택
盈德 蘭皐 宗宅
국가민속문화재 제271호
경북 영덕군 | 2012-04-13 지정



영덕 삼벽당
-
시도민속문화재 제190호
경북 영덕군 | 2017-05-15 지정



영덕 오촌리 냉천 고택
-
문화재자료 제484호
경북 영덕군 | 2005-06-20 지정



영덕 무안박씨 무의공파 종택
-
국가민속문화재 제286호
경북 영덕군 | 2016-04-27 지정



영덕 송천세려고택
-
시도민속문화재 제189호
경북 영덕군 | 2017-05-15 지정



영덕 우경 고택
盈德 虞卿古宅
문화재자료 제665호
경북 영덕군 | 2018-07-16 지정



영덕 백회재 고택
盈德 百悔齋 古宅
문화재자료 제629호
경북 영덕군 | 2014-12-18 지정



영덕 시암 고택
盈德 時庵古宅
문화재자료 제576호
경북 영덕군 | 2010-06-10 지정



영덕 우계종택
盈德 愚溪宗宅
시도민속문화재 제184호
경북 영덕군 | 2013-07-11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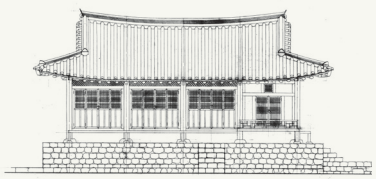
영덕 천전댁
盈德川前宅
문화재자료 제378호
경북 영덕군 | 1999-12-30 지정



영양남씨괴시파종택
英陽南氏槐市派宗宅
시도민속문화재 제75호
경북 영덕군 | 1987-12-29 지정



오촌리 갈암 고택
梧村里葛庵古宅
문화재자료 제399호
경북 영덕군 | 2000-09-04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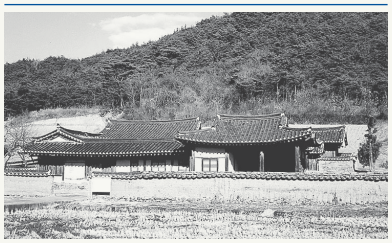
영덕 충효당 종택
盈德 忠孝堂 宗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68호
경북 영덕군 | 1984-01-10 지정



영해 경주댁
寧海慶州宅
문화재자료 제395호
경북 영덕군 | 2000-09-04 지정



인양리용암종택
仁良里龍巖宗宅
시도민속문화재 제61호
경북 영덕군 | 1985-10-15 지정



영덕도곡동충효당
盈德陶谷洞忠孝堂
시도민속문화재 제83호
경북 영덕군 | 1988-09-23 지정



영해 구계댁
寧海邱溪宅
문화재자료 제396호
경북 영덕군 | 2000-09-04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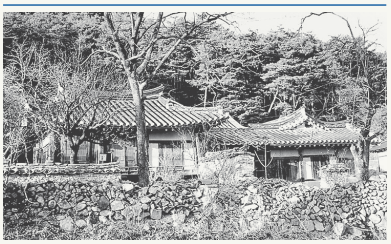
존재종택 및 명서암.우헌정
存齋宗宅및冥棲庵.于軒亭
문화재자료 제293호
경북 영덕군 | 1994-09-29 지정



영덕만괴헌
盈德晩槐軒
문화재자료 제209호
경북 영덕군 | 1988-09-23 지정



영해 주곡댁
寧海注谷宅
문화재자료 제393호
경북 영덕군 | 2000-09-04 지정



지족당
知足堂
문화재자료 제274호
경북 영덕군 | 1993-02-25 지정



석계고택
石溪古宅
시도민속문화재 제91호
경북 영양군 | 1990-08-07 지정



영양 숭조고택
英陽 崇祖古宅
시도민속문화재 제137호
경북 영양군 | 2008-02-18 지정



영양 한양조씨 사월 종택
英陽 漢陽趙氏 沙月 宗宅
국가민속문화재 제294호
경북 영양군 | 2017-12-29 지정



영양 가산고택
-
문화재자료 제195호
경북 영양군 | 1987-12-29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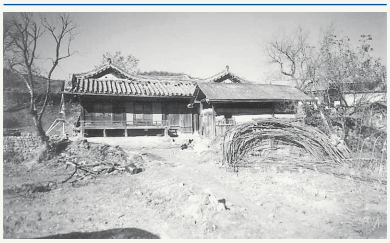
영양 야성정씨 참판공 종택
英陽 野城鄭氏 參判公 宗宅
문화재자료 제77호
경북 영양군 | 1985-08-05 지정



영양남씨 신암공파 종택
英陽南氏 愼菴公派 宗宅
문화재자료 제489호
경북 영양군 | 2005-09-15 지정



영양 도계리 조동흥 가옥
英陽 道溪里 趙東興 家屋
문화재자료 제491호
경북 영양군 | 2005-09-15 지정



영양 월잠 종택
英陽月岑宗宅
문화재자료 제430호
경북 영양군 | 2002-08-19 지정



영양돈간재및주사
英陽敦艮齋및廚舍
시도기념물 제142호
경북 영양군 | 2003-04-17 지정



영양 석간 고택
英陽 石澗古宅
문화재자료 제603호
경북 영양군 | 2013-03-18 지정



영양 하담 고택
英陽荷潭古宅
문화재자료 제441호
경북 영양군 | 2003-04-17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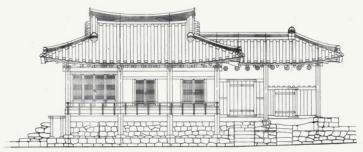
오류정종택
五柳亭宗宅
문화재자료 제82호
경북 영양군 | 1985-08-05 지정



원리주곡고택
院里做谷古宅
시도민속문화재 제114호
경북 영양군 | 1996-12-05 지정



태화당 고택
太華堂古宅
문화재자료 제477호
경북 영양군 | 2005-01-10 지정



만죽재고택
晩竹齋古宅
시도민속문화재 제93호
경북 영주시 | 1990-08-07 지정



유우당
惟于堂
문화재자료 제285호
경북 영양군 | 1994-04-16 지정



학초정및정침
鶴樵亭및正寢
시도민속문화재 제64호
경북 영양군 | 1985-12-30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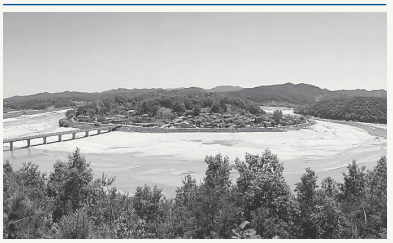
영주 괴헌고택
榮州 槐軒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262호
경북 영주시 | 2009-10-30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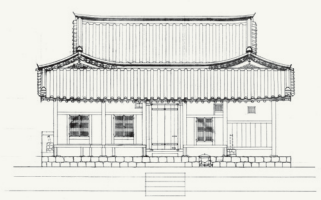
주강정 및 사고 종택
柱江亭 및 沙皐宗宅
문화재자료 제499호
경북 영양군 | 2006-02-16 지정



회곡고택
晦谷古宅
시도민속문화재 제79호
경북 영양군 | 1988-09-23 지정



영주 무섬마을
榮州 무섬마을
국가민속문화재 제278호
경북 영주시 | 2013-08-23 지정



주곡동옥천종택
注谷洞玉川宗宅
시도민속문화재 제42호
경북 영양군 | 1983-06-20 지정



금광리장씨고택
金光里張氏古宅
문화재자료 제233호
경북 영주시 | 1991-03-25 지정



영주 석포리 까치구멍집
榮州 石浦里 까치구멍집
문화재자료 제580호
경북 영주시 | 2010-10-28 지정



영주 수도리 김규진 가옥
榮州水島里金圭鎭家屋
문화재자료 제361호
경북 영주시 | 1999-08-09 지정



영주 수도리 김정규 가옥
榮州水島里金廷奎家屋
문화재자료 제362호
경북 영주시 | 1999-08-09 지정



영주 유연당
榮州 悠然堂
문화재자료 제534호
경북 영주시 | 2008-03-24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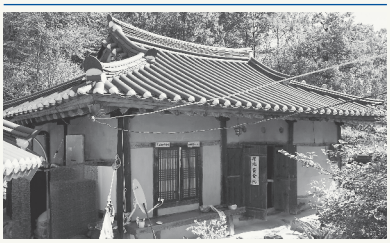
영주 수도리 김덕진가옥
榮州水島里金德鎭家屋
시도민속문화재 제117호
경북 영주시 | 1999-08-09 지정



영주 수도리 박덕우 가옥
榮州水島里朴德雨家屋
문화재자료 제363호
경북 영주시 | 1999-08-09 지정



영주금광리장석우가옥
榮州金光里張錫雨家屋
시도유형문화재 제341호
경북 영주시 | 2002-10-14 지정



영주 수도리 김뢰진가옥
榮州水島里金賚鎭家屋
시도민속문화재 제118호
경북 영주시 | 1999-08-09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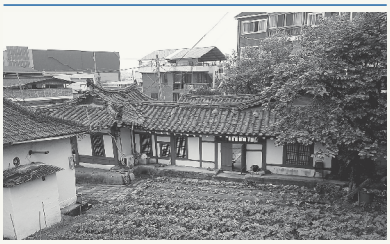
영주 수도리 박천립 가옥
榮株水島里朴天立價屋
문화재자료 제364호
경북 영주시 | 1999-08-09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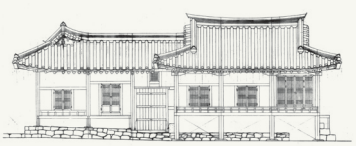
우금촌두암고택
友琴村斗巖古宅
시도유형문화재 제81호
경북 영주시 | 1975-12-30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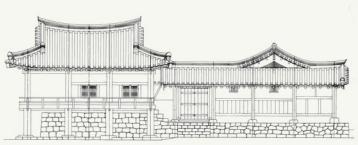
영주 수도리 김위진 가옥
榮州水島里金渭鎭家屋
문화재자료 제360호
경북 영주시 | 1999-08-09 지정



영주 영주동 근대 한옥
-
등록문화재 제720-3호
경북 영주시 | 2018-08-06 지정



해우당고택
海愚堂古宅
시도민속문화재 제92호
경북 영주시 | 1990-08-07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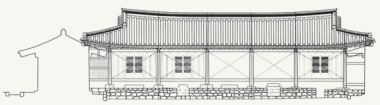
화기리인동장씨종택
花岐里仁同張氏宗宅

시도민속문화재 제98호
경북 영주시 | 1992-11-26 지정



영천 과전동 일본식 가옥
-

등록문화재 제253호
경북 영천시 | 2006-06-19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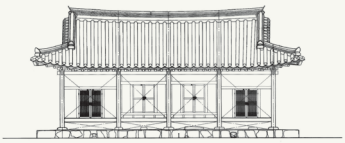
영천 연정 고택
永川 蓮亭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07호
경북 영천시 | 1979-12-31 지정



금산당
琴山堂

시도유형문화재 제333호
경북 영천시 | 2001-11-01 지정



영천 만취당 고택
永川 晩翠堂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75호
경북 영천시 | 1984-01-14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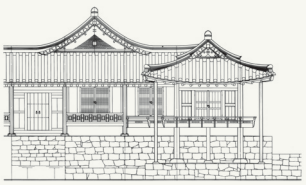
영천 지산고택
永川 芝山故宅

시도민속문화재 제139호
경북 영천시 | 2010-03-11 지정



모고헌
慕古軒

시도유형문화재 제271호
경북 영천시 | 1992-07-18 지정



영천 매산 고택과 산수정
永川 梅山古宅과 山水亭

국가민속문화재 제24호
경북 영천시 | 1970-12-29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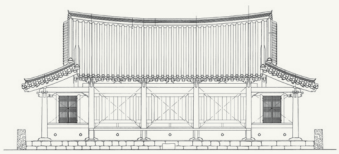
오회공종택
五懷公宗宅

시도유형문화재 제72호
경북 영천시 | 1975-08-18 지정



영천 경주 김씨 지사공 종택
永川慶州金氏知事公宗宅

문화재자료 제373호
경북 영천시 | 1999-12-30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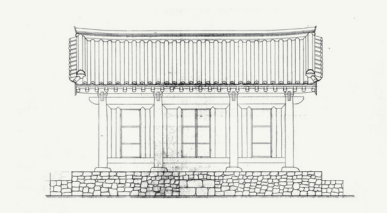
영천 숭렬당
永川 崇烈堂

보물 제521호
경북 영천시 | 1970-07-23 지정



완귀정
玩龜亭

시도민속문화재 제20호
경북 영천시 | 1980-06-17 지정



호수종택
湖수宗宅
시도유형문화재 제90호
경북 영천시 | 1977-07-15 지정



연안이씨별좌공종택
延安李氏別坐公宗宅
시도민속문화재 제71호
경북 예천군 | 1987-05-13 지정



예천 석문 종택
醴泉 石門宗宅
문화재자료 제492호
경북 예천군 | 2005-09-20 지정



미산고택
味山故宅
문화재자료 제137호
경북 예천군 | 1985-08-05 지정



예천 남악 종택
醴泉 南嶽 宗宅
국가민속문화재 제248호
경북 예천군 | 2007-01-12 지정



예천 예천권씨 초간공파 종택
醴泉 醴泉權氏 草澗公派 宗宅
국가민속문화재 제201호
경북 예천군 | 1984-12-24 지정



반송재고택
伴松齋故宅
문화재자료 제262호
경북 예천군 | 1992-07-18 지정



예천 물체당 고택
醴泉 勿替堂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74호
경북 예천군 | 1984-01-10 지정



예천 윤우식 생가
-
등록문화재 제571호
경북 예천군 | 2013-10-29 지정



연곡고택
延谷古宅
시도민속문화재 제103호
경북 예천군 | 1993-11-30 지정



예천 상금곡동 사괴당고택
-
시도민속문화재 제179호
경북 예천군 | 2013-04-08 지정



예천권씨 초간종택 별당
醴泉權氏 草澗宗宅 別堂
보물 제457호
경북 예천군 | 1967-06-23 지정



춘우재고택
春雨齋古宅
시도민속문화재 제102호
경북 예천군 | 1993-11-30 지정



울릉 나리동 투막집
鬱陵 羅里洞 투막집
시도민속문화재 제183호
경북 울릉군 | 2013-04-08 지정



의성 서계당
義城西溪堂
문화재자료 제377호
경북 의성군 | 1999-12-30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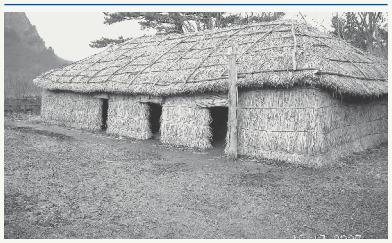
울릉 나리 너와 투막집과 억새 투막집
鬱陵 羅里 너와 투막집과 억새 투막집
국가민속문화재 제256호
경북 울릉군 | 2007-12-31 지정



울릉 도동리 일본식 가옥
-
등록문화재 제235호
경북 울릉군 | 2006-03-02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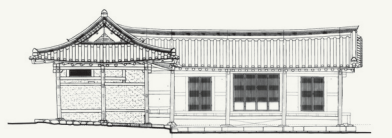
의성 소계당
義城小溪黨
문화재자료 제376호
경북 의성군 | 1999-12-30 지정



울릉 나리 억새 투막집
鬱陵 羅里 억새 투막집
국가민속문화재 제257호
경북 울릉군 | 2007-12-31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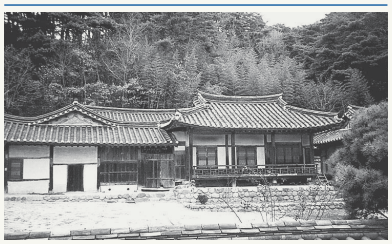
울진 매화리 윤광수 가옥
蔚珍 梅花里 尹光洙 家屋
문화재자료 제494호
경북 울진군 | 2005-09-20 지정



의성 소우당 고택
義城 素宇堂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237호
경북 의성군 | 2000-01-07 지정



울릉 나리동 투막집
鬱陵 羅里洞 투막집
시도민속문화재 제182호
경북 울릉군 | 2013-04-08 지정



울진 평해황씨 해월종택
蔚珍 平海黃氏 海月宗宅
시도민속문화재 제156호
경북 울진군 | 2012-10-22 지정



의성 운곡당
義城 雲谷堂
시도민속문화재 제165호
경북 의성군 | 2013-04-08 지정



의성 점우당
義城 漸于堂
시도민속문화재 제166호
경북 의성군 | 2013-04-08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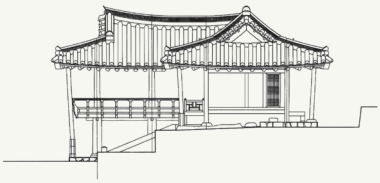
청도 섬암고택
淸道 剡巖故宅
시도민속문화재 제172호
경북 청도군 | 2013-04-08 지정



사남 고택
泗南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282-3호
경북 청송군 | 2014-06-19 지정



운곡정사
雲谷精舍
시도민속문화재 제90호
경북 청도군 | 1990-08-07 지정



청도 운강 고택과 만화정
淸道 雲岡故宅과 萬和亭
국가민속문화재 제106호
경북 청도군 | 1979-12-31 지정



서벽 고택
棲碧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282-2호
경북 청송군 | 2014-06-19 지정



청도 도일고택
淸道 道一故宅
시도민속문화재 제175호
경북 청도군 | 2013-04-08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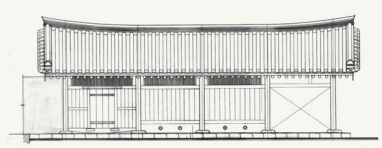
청도 운남고택
淸道 雲南故宅
시도민속문화재 제174호
경북 청도군 | 2013-04-08 지정



청송 성천댁
靑松 星川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72호
경북 청송군 | 1984-01-14 지정



청도 명중고택
淸道 明重故宅
시도민속문화재 제173호
경북 청도군 | 2013-04-08 지정



청도 운림 고택
淸道 雲林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245호
경북 청도군 | 2005-01-31 지정



청송 송소 고택
靑松 松韶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250호
경북 청송군 | 2007-10-12 지정



청송 송정 고택
青松 松庭古宅
문화재자료 제631호
경북 청송군 | 2015-05-18 지정



묵헌종택
默軒宗宅
문화재자료 제245호
경북 칠곡군 | 1991-05-14 지정



칠곡 해은고택
漆谷 海隱故宅
시도민속문화재 제178호
경북 칠곡군 | 2013-04-08 지정



청송 초전댁
青松草田宅
문화재자료 제421호
경북 청송군 | 2002-04-15 지정



칠곡 경수당
漆谷 敬守堂
문화재자료 제583호
경북 칠곡군 | 2011-03-28 지정



영일기천고택
迎日杞泉故宅
문화재자료 제205호
경북 포항시 | 1988-09-23 지정



청송 후송당 고택
青松 後松堂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73호
경북 청송군 | 1984-01-14 지정



칠곡 지경당
漆谷 止敬堂
문화재자료 제620호
경북 칠곡군 | 2014-02-17 지정



포항 오덕리 근대 한옥
-
등록문화재 제373호
경북 포항시 | 2008-02-28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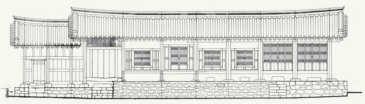
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
平山申氏 判事公派 宗宅
국가민속문화재 제282-1호
경북 청송군 | 2014-06-19 지정



칠곡 진주댁
漆谷 晉州宅
문화재자료 제646호
경북 칠곡군 | 2016-09-12 지정



포항여연당고택
浦項與然堂古宅
시도민속문화재 제158호
경북 포항시 | 2013-04-08 지정



포항오덕리사우정고택
浦項吾德里四友亭古宅
시도민속문화재 제81호
경북 포항시 | 1988-09-23 지정

광주광역시



이장우가옥
李章雨家屋
시도민속문화재 제1호
광주 남구 | 1989-03-20 지정



포항오덕리애은당고택
浦項吾德里愛隱堂古宅
시도민속문화재 제80호
경북 포항시 | 1988-09-23 지정



광주 장덕동 근대 한옥
-
등록문화재 제146호
광주 광산구 | 2004-12-31 지정



최승효가옥
崔昇孝家屋
시도민속문화재 제2호
광주 남구 | 1989-03-20 지정



포항용계정
浦項龍溪亭
시도유형문화재 제243호
경북 포항시 | 1989-05-29 지정



김봉호가옥
金鳳鎬家屋
문화재자료 제25호
광주 광산구 | 2000-05-16 지정



김용학가옥
金容鶴家屋
시도민속문화재 제3호
광주 북구 | 1989-03-20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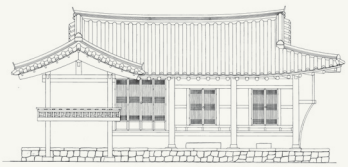


포항우각리여주이씨고택
浦項牛角里驪州李氏古宅
시도유형문화재 제462호
경북 포항시 | 2013-04-08 지정



고원희가옥
高元熙家屋
문화재자료 제8호
광주 남구 | 1987-06-01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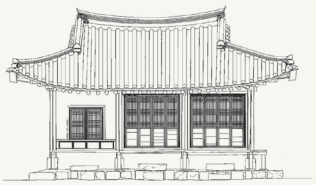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달성 삼가헌 고택
達城 三可軒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04호
대구 달성군 | 1979-12-31 지정



수구당
數咎堂
문화재자료 제41호
대구 동구 | 2006-04-20 지정



대전 회덕 동춘당
大田 懷德 同春堂
보물 제209호
대전 대덕구 | 1963-01-21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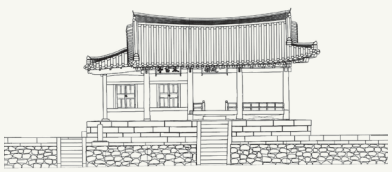


달성 조길방 고택
達城 趙吉芳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200호
대구 달성군 | 1984-12-24 지정

대전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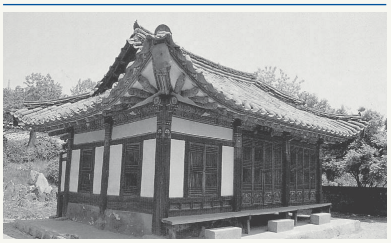
제월당및옥오재
霽月堂및玉吾齋
시도유형문화재 제9호
대전 대덕구 | 1989-03-18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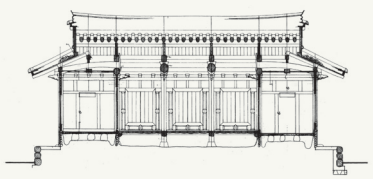
달성 태고정
達城 太古亭
보물 제554호
대구 달성군 | 1971-12-06 지정



대전 동춘당 종택
-
국가민속문화재 제289호
대전 대덕구 | 2016-08-26 지정



회덕쌍청당
懷德雙淸堂
시도유형문화재 제2호
대전 대덕구 | 1989-03-18 지정



대구 백불암 고택
大邱 百弗庵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261호
대구 동구 | 2009-06-19 지정



대전 소대헌·호연재 고택
-
국가민속문화재 제290호
대전 대덕구 | 2016-08-26 지정



송자고택
宋子古宅
문화재자료 제39호
대전 동구 | 1995-05-27 지정



파평윤씨서윤공파고택
坡平尹氏庶尹公派古宅
문화재자료 제34호
대전 서구 | 1992-10-28 지정



부산 우암동 소막마을 주택
-
등록문화재 제715호
부산 남구 | 2018-05-08 지정



월계동각심재
月溪洞恪心齋
시도민속문화재 제16호
서울 노원구 | 1977-03-17 지정



대전 대흥동 일·양 절충식 가옥
-
등록문화재 제377호
대전 중구 | 2008-07-03 지정



부산 초량동 일본식 가옥
-
등록문화재 제349호
부산 동구 | 2007-09-21 지정



용강동정구중가옥
龍江洞 鄭求中 家屋
시도민속문화재 제17호
서울 마포구 | 1977-03-17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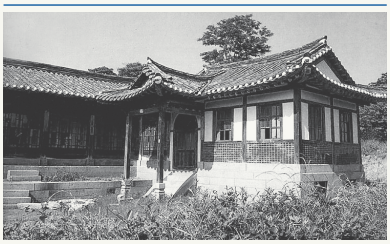
안동권씨유회당종가일원
安東權氏有懷堂宗家一圓
시도유형문화재 제29호
대전 중구 | 2001-06-27 지정

서울특별시



마포 최사영 가옥
麻浦 崔思永 家屋
문화재자료 제37호
서울 성북구 | 2007-05-30 지정

부산광역시



도정궁경원당
都正宮 慶原堂
시도민속문화재 제9호
서울 광진구 | 1977-03-17 지정



상허이태준가옥
尙虛 李泰俊 家屋
시도민속문화재 제11호
서울 성북구 | 1977-03-17 지정



성북동이종석별장
城北洞 李鍾奭 別莊

시도민속문화재 제10호
서울 성북구 | 1977-03-17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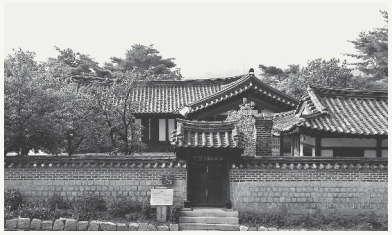
가회동 이준구 가옥
嘉會洞 李俊九 家屋

문화재자료 제2호
서울 종로구 | 1991-05-30 지정



반계 윤웅렬 별장
磻溪 尹雄烈 別莊

시도민속문화재 제12호
서울 종로구 | 1977-03-17 지정



장교동한규설가옥
長橋洞 韓圭卨 家屋

시도민속문화재 제7호
서울 성북구 | 1977-03-17 지정



가회동백인제가옥
嘉會洞 白麟濟 家屋

시도민속문화재 제22호
서울 종로구 | 1977-03-17 지정



서울 계동 근대 한옥
-

등록문화재 제229호
서울 종로구 | 2006-03-02 지정



장위동김진흥가옥
長位洞 金鎭興 家屋

시도민속문화재 제25호
서울 성북구 | 1977-09-05 지정



가회동한씨가옥
嘉會洞 韓氏 家屋

시도민속문화재 제14호
서울 종로구 | 1977-03-17 지정



석파정 별당
石坡亭 別堂

시도유형문화재 제23호
서울 종로구 | 1974-01-15 지정

가회동 김형태 가옥
嘉會洞 金炯泰 家屋

시도민속문화재 제30호
서울 종로구 | 1999-07-10 지정



경운동민병옥가옥
慶雲洞 閔丙玉 家屋

시도민속문화재 제15호
서울 종로구 | 1977-03-17 지정



숭보사
崇報祠

시도민속문화재 제21호
서울 종로구 | 1977-03-17 지정



옥인동 박노수 가옥
玉仁洞 朴魯壽 家屋
문화재자료 제1호
서울 종로구 | 1991-05-30 지정



필운동 홍건익 가옥
弼雲洞 洪建翊 家屋
시도민속문화재 제33호
서울 종로구 | 2013-05-16 지정



만리동 정영국 가옥
萬里洞 鄭榮國 家屋
시도민속문화재 제32호
서울 중구 | 2006-05-01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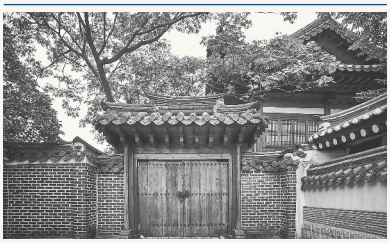
운니동 김승현 가옥(운현궁 영로당)
雲泥洞 金承鉉 家屋(雲峴宮 永老堂)
시도민속문화재 제19호
서울 종로구 | 1977-03-17 지정



해공신익희가옥
海公 申翼熙 家屋
시도기념물 제23호
서울 종로구 | 2005-02-11 지정



삼각동 도편수 이승업 가옥
三角洞 都片手 李承業 家屋
시도민속문화재 제20호
서울 중구 | 1977-03-17 지정



원서동백홍범가옥
苑西洞 白鴻範 家屋
시도민속문화재 제13호
서울 종로구 | 1977-03-17 지정



혜화동 김상협 가옥
惠化洞 金相浹 家屋
시도민속문화재 제28호
서울 종로구 | 1992-01-10 지정



삼청동오위장김춘영가옥
三淸洞 五衛將 金春榮 家屋
시도민속문화재 제8호
서울 중구 | 1977-03-17 지정



체부동 홍종문 가옥
體府洞 洪鍾文 家屋
시도민속문화재 제29호
서울 종로구 | 1994-02-22 지정



관훈동 민씨 가옥
寬勳洞 閔氏 家屋
시도민속문화재 제18호
서울 중구 | 1977-03-17 지정

세종시



세종 홍판서댁
世宗 洪判書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38호
세종 | 1984-01-14 지정

인천광역시



삼목도 선사주거지
三木島 先史住居址
시도기념물 제55호
인천 중구 | 2006-09-11 지정

울산광역시



강화 솔정리 고씨가옥
江華 率丁里 高氏家屋
시도유형문화재 제60호
인천 강화군 | 2006-05-15 지정

전라남도



울산학성이씨근재공고택
蔚山鶴城李氏謹齋公古宅
문화재자료 제3호
울산 울주군 | 1997-10-09 지정



철종외가
哲宗外家
문화재자료 제8호
인천 강화군 | 1995-03-02 지정



곡성 제호정 고택
谷城 霽湖亭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55호
전남 곡성군 | 1984-01-14 지정



울주 검단리 유적
蔚州 檢丹里 遺蹟
사적 제332호
울산 울주군 | 1990-08-21 지정



남북동 조병수가옥
南北洞 趙炳秀家屋
문화재자료 제16호
인천 중구 | 1997-07-14 지정



구례 운조루 고택
求禮 雲鳥樓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8호
전남 구례군 | 1968-11-25 지정



나주 계은 고택
羅州 溪隱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51호
전남 나주시 | 1984-01-14 지정



나주최석기가옥
羅州崔奭基家屋
문화재자료 제158호
전남 나주시 | 1988-03-16 지정



담양고재환가옥
潭陽高在煥家屋
시도민속문화재 제37호
전남 담양군 | 2001-09-27 지정



나주 남파고택
羅州 南坡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263호
전남 나주시 | 2009-12-17 지정



나주홍기종가옥
羅州洪起宗家屋
시도민속문화재 제10호
전남 나주시 | 1986-02-07 지정



담양김선기가옥
潭陽金善基家屋
문화재자료 제180호
전남 담양군 | 1990-02-24 지정



나주 우남 고택
羅州 愚南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65호
전남 나주시 | 1984-01-14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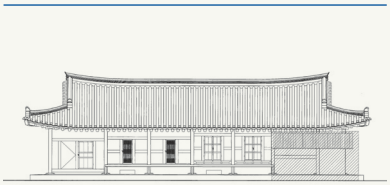
나주홍기창가옥
羅州洪起昌家屋
시도민속문화재 제9호
전남 나주시 | 1986-02-07 지정



담양유종헌가옥
潭陽柳宗憲家屋
문화재자료 제192호
전남 담양군 | 1992-11-30 지정



나주김효병가옥
羅州金孝炳家屋
시도민속문화재 제11호
전남 나주시 | 1986-02-07 지정



담양고재선가옥
潭陽高在宣家屋
시도민속문화재 제5호
전남 담양군 | 1986-02-07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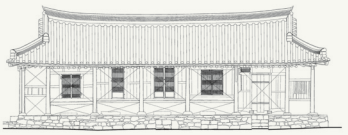
창평장전이씨고택
昌平 長田 李氏古宅
시도민속문화재 제41호
전남 담양군 | 2008-04-11 지정



창평춘강고정주고택
昌平 春崗 高鼎柱古宅
시도민속문화재 제42호
전남 담양군 | 2008-04-11 지정



목포 영산로 일본식 가옥
-
등록문화재 제718-4호
전남 목포시 | 2018-08-06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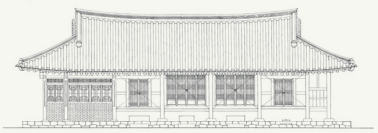
보성 이승래 고택
寶城 李昇來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58호
전남 보성군 | 1984-01-14 지정



목포 번화로 일본식 가옥-1
-
등록문화재 제718-1호
전남 목포시 | 2018-08-06 지정



무안 유교리 고택
務安 柳橋里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67호
전남 무안군 | 1984-01-14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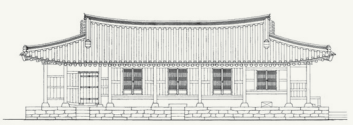
보성 이용우 고택
寶城 李容禹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63호
전남 보성군 | 1984-01-14 지정



목포 번화로 일본식 가옥-2
-
등록문화재 제718-2호
전남 목포시 | 2018-08-06 지정



보성 안규홍⊠박제현 가옥
-
등록문화재 제699호
전남 보성군 | 2017-12-05 지정



보성 이정래 고택
寶城 李井來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57호
전남 보성군 | 1984-01-14 지정



목포 번화로 일본식 가옥-3
-
등록문화재 제718-3호
전남 목포시 | 2018-08-06 지정



보성 율어리 고택
寶城 栗於里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56호
전남 보성군 | 1984-01-14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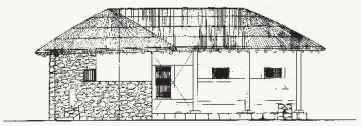


보성 이준회 고택
寶城 李駿會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60호
전남 보성군 | 1984-01-14 지정



보성 이진래 고택
寶城 李進來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59호
전남 보성군 | 1984-01-14 지정



순천 낙안읍성 ㄱ자집
順天 樂安邑城 ㄱ字집

국가민속문화재 제97호
전남 순천시 | 1979-01-26 지정



순천 낙안읍성 마루방집
順天 樂安邑城 마루방집

국가민속문화재 제95호
전남 순천시 | 1979-01-26 지정



보성봉강리정씨고택
-

문화재자료 제261호
전남 보성군 | 2005-12-27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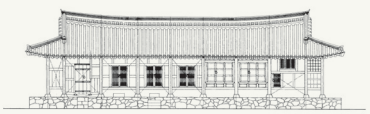
순천 낙안읍성 대나무 서까래집
順天 樂安邑城 대나무 서까래집

국가민속문화재 제96호
전남 순천시 | 1979-01-26 지정



순천 낙안읍성 서문성벽집
順天 樂安邑城 西門城壁집

국가민속문화재 제99호
전남 순천시 | 1979-01-26 지정



보성이종선가옥
寶城李鍾善家屋

시도민속문화재 제15호
전남 보성군 | 1986-02-07 지정



순천 낙안읍성 들마루집
順天 樂安邑城 들마루집

국가민속문화재 제93호
전남 순천시 | 1979-01-26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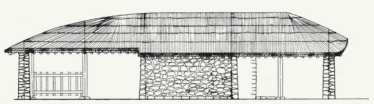
순천 낙안읍성 이방댁
順天 樂安邑城 吏房宅

국가민속문화재 제92호
전남 순천시 | 1979-01-26 지정



취송정
翠松亭

문화재자료 제136호
전남 보성군 | 1987-01-15 지정



순천 낙안읍성 뙤창집
順天 樂安邑城 뙤窓집

국가민속문화재 제94호
전남 순천시 | 1979-01-26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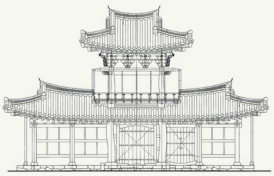
순천 낙안읍성 주막집
順天 樂安邑城 酒幕집

국가민속문화재 제98호
전남 순천시 | 1979-01-23 지정



순천 낙안읍성 향리댁
順天 樂安邑城 鄕吏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00호
전남 순천시 | 1979-01-26 지정



영광 매간당 고택
靈光 梅磵堂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234호
전남 영광군 | 1998-01-05 지정



영암 삼성당 고택
靈岩 三省堂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64호
전남 영암군 | 1984-01-14 지정



순천 옥천동 일본식 가옥
-

등록문화재 제225호
전남 순천시 | 2005-12-09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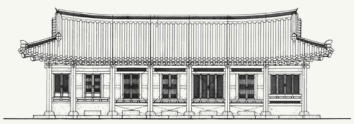
영광 창녕 조씨 관해공 가옥
-

등록문화재 제678호
전남 영광군 | 2017-04-20 지정



영암문창집가옥
靈岩文昶集家屋

문화재자료 제149호
전남 영암군 | 1987-06-01 지정



승주조순탁가옥
昇州趙淳卓家屋

시도민속문화재 제30호
전남 순천시 | 1990-02-24 지정



영광신호준가옥
靈光辛鎬俊家屋

시도민속문화재 제26호
전남 영광군 | 1988-12-21 지정



영암월곡리전씨고택
靈岩月谷里全氏古宅

시도민속문화재 제3호
전남 영암군 | 1978-09-22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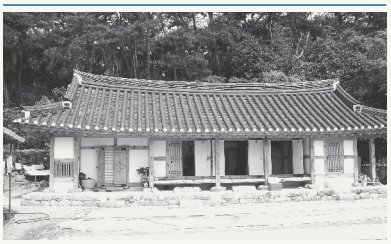
승주조승훈가옥
昇州趙昇勳 家屋

문화재자료 제178호
전남 순천시 | 1990-02-24 지정



영광이규헌가옥
靈光李奎憲家屋

시도민속문화재 제22호
전남 영광군 | 1987-06-01 지정



영암조종수가옥
靈巖曺鐘洙家屋

시도민속문화재 제35호
전남 영암군 | 2001-06-05 지정



영암현종식가옥
靈岩玄宗植家屋
시도민속문화재 제14호
전남 영암군 | 1986-02-07 지정

장흥 방촌리 근암고택
長興 傍村里 勤庵古宅
시도민속문화재 제46호
전남 장흥군 | 2010-08-27 지정



장흥 죽암 고택
長興 竹菴 古宅
시도민속문화재 제38호
전남 장흥군 | 2002-11-27 지정

장성이진환가옥사랑채 [야은재]
長城李振桓家屋사랑채 [野隱齋]
문화재자료 제242호
전남 장성군 | 2003-10-04 지정



장흥 신와고택
長興 新窩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269호
전남 장흥군 | 2012-04-13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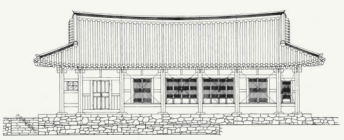
장흥 죽헌 고택
長興 竹軒 古宅
시도민속문화재 제6호
전남 장흥군 | 1986-02-07 지정



장흥 기양리 일본식 가옥
-
등록문화재 제131호
전남 장흥군 | 2004-12-31 지정



장흥 예양리 일본식 가옥
-
등록문화재 제130호
전남 장흥군 | 2004-12-31 지정



장흥존재고택
長興 存齋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61호
전남 장흥군 | 1984-01-14 지정



장흥 무계고택
長興 霧溪古宅
문화재자료 제161호
전남 장흥군 | 1988-03-16 지정



장흥 오헌고택
長興 梧軒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270호
전남 장흥군 | 2012-04-13 지정



함평 월호리 일본식 가옥과 창고
-
등록문화재 제118호
전남 함평군 | 2004-12-31 지정

함평이건풍가옥
咸平李建豊家屋
문화재자료 제251호
전남 함평군 | 2004-02-13 지정



해남 윤철하 고택
海南 尹哲夏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53호
전남 해남군 | 1984-01-14 지정



화순 양참사댁
和順 梁參事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52호
전남 화순군 | 1984-01-14 지정



함평이규행가옥
咸平李圭行家屋
문화재자료 제150호
전남 함평군 | 1987-06-01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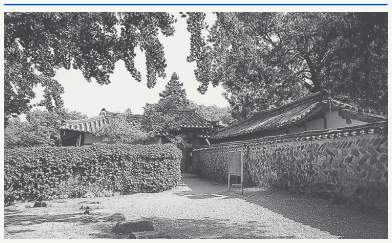
해남민정기가옥
海南閔正基家屋
문화재자료 제186호
전남 해남군 | 1992-03-09 지정



화순 학재 고택
和順 鶴齋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54호
전남 화순군 | 1984-01-14 지정



함평이재혁가옥
咸平李載爀家屋
문화재자료 제250호
전남 함평군 | 2004-02-13 지정



해남윤씨 녹우당 일원
海南尹氏 綠雨堂 一圓
사적 제167호
전남 해남군 | 1968-12-19 지정



화순이경휴가옥
和順李京休家屋
시도민속문화재 제40호
전남 화순군 | 2004-09-20 지정



해남 공재 고택
海南 恭齋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232호
전남 해남군 | 1996-02-13 지정



해남정명식가옥
海南鄭明植家屋
시도민속문화재 제8호
전남 해남군 | 1986-02-07 지정

전라북도



고창신재효고택
高敞 申在孝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39호
전북 고창군 | 1979-01-26 지정



채원병가옥
蔡元秉家屋
시도민속문화재 제24호
전북 군산시 | 1986-09-08 지정



남원 몽심재 고택
南原 夢心齋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49호
전북 남원시 | 1984-01-14 지정



김정회고가
金正會古家
시도민속문화재 제29호
전북 고창군 | 1993-08-31 지정



김제 신풍동 근대 한옥
-
등록문화재 제219호
전북 김제시 | 2005-12-09 지정



남원죽산박씨종가
南原竹山朴氏宗家
시도유형문화재 제180호
전북 남원시 | 2000-06-23 지정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
등록문화재 제183호
전북 군산시 | 2005-06-18 지정



김제 신풍동 일본식 가옥
-
등록문화재 제187호
전북 김제시 | 2005-06-18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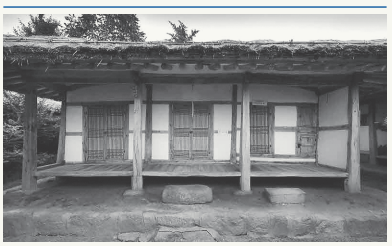
윤영채가옥
尹永彩家屋
문화재자료 제117호
전북 남원시 | 1986-09-08 지정



이영춘 가옥
李永春家屋
시도유형문화재 제200호
전북 군산시 | 2003-10-31 지정



김제 종신리 한·일 절충식 가옥
-
등록문화재 제220호
전북 김제시 | 2005-12-09 지정



부안 김상만 고택
扶安 金相萬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50호
전북 부안군 | 1984-01-14 지정



이배원 가옥
李培源 家屋

시도민속문화재 제37호
전북 익산시 | 2012-11-02 지정



권희문가옥
權熙文家屋

시도민속문화재 제22호
전북 장수군 | 1986-09-08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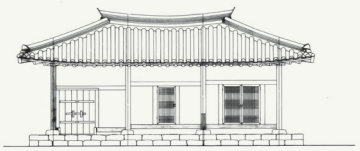
정읍 관청리 근대 한옥
-

등록문화재 제214호
전북 정읍시 | 2005-11-11 지정



조해영가옥
趙海英家屋

문화재자료 제121호
전북 익산시 | 1986-09-08 지정



장재영가옥
張在英家屋

시도민속문화재 제21호
전북 장수군 | 1986-09-08 지정



진안 강정리 근대 한옥
-

등록문화재 제191호
전북 진안군 | 2005-06-18 지정



노동환가옥
盧東煥家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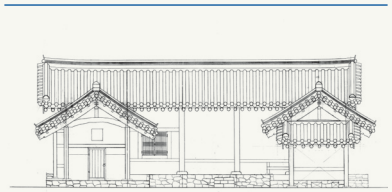
문화재자료 제118호
전북 임실군 | 1986-09-08 지정



정상윤가옥
丁相潤家屋

문화재자료 제119호
전북 장수군 | 1984-04-01 지정

제주도



이웅재고가
李雄宰古家

시도민속문화재 제12호
전북 임실군 | 1977-12-31 지정



학인당
學忍堂

시도민속문화재 제8호
전북 전주시 | 1976-04-02 지정



송종선가옥
宋宗善家屋

시도민속문화재 제3-46호
제주 서귀포시 | 1978-11-14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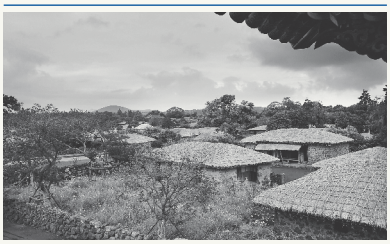
양금석가옥
-
시도민속문화재 제3-45호
제주 서귀포시 | 1978-11-14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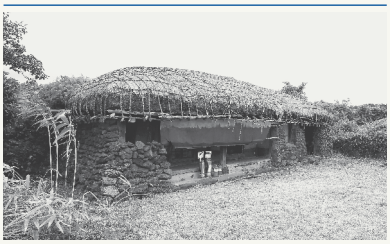
문형행가옥
-
시도민속문화재 제3-8호
제주 제주시 | 1978-11-14 지정



조군현가옥
-
시도민속문화재 제3-20호
제주 제주시 | 1978-11-14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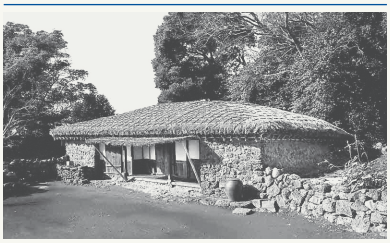
제주 성읍마을
濟州 城邑마을
국가민속문화재 제188호
제주 서귀포시 | 1984-06-12 지정



변효정가옥
-
시도민속문화재 제3-9호
제주 제주시 | 1978-11-14 지정



조군현가옥
-
시도민속문화재 제4-6호
제주 제주시 | 1978-11-14 지정



제주 성읍마을 한봉일 고택
濟州 城邑마을 韓奉日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71호
제주 서귀포시 | 1979-01-26 지정



북촌리 선사주거지 유적
北村里先史住居址遺跡
시도기념물 제42호
제주 제주시 | 1990-05-30 지정



조천리 황씨 종손 가옥
朝天里 黃氏 宗孫 家屋
시도민속문화재 제4-5호
제주 제주시 | 1978-11-14 지정



김석윤가옥
金石崙家屋
시도민속문화재 제4-1호
제주 제주시 | 1978-11-14 지정



삼양동초가
-
시도민속문화재 제3-1호
제주 제주시 | 1978-11-14 지정



하가리 문귀인 가옥
-
시도민속문화재 제11호
제주 제주시 | 2012-05-23 지정

충청남도



임수택가옥
林粹澤家屋
문화재자료 제292호
충남 논산시 | 1987-12-30 지정



부여 군수리 고택
扶餘 軍守里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93호
충남 부여군 | 1984-12-24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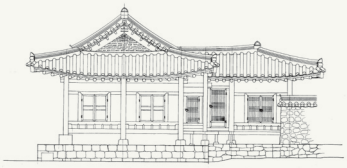
논산 백일헌 종택
論山 白日軒 宗宅
국가민속문화재 제273호
충남 논산시 | 2012-10-26 지정



당진 송규섭 가옥
唐津宋圭燮家屋
시도민속문화재 제27호
충남 당진시 | 2010-01-11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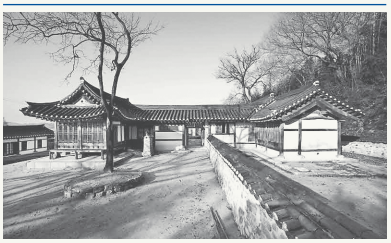
부여 송국리 유적
扶餘 松菊里 遺蹟
사적 제249호
충남 부여군 | 1976-12-31 지정



논산명재고택
論山 明齋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90호
충남 논산시 | 1984-12-24 지정



당진 한갑동 가옥
唐津韓甲東家屋
문화재자료 제330호
충남 당진시 | 1993-12-31 지정



부여 여흥민씨 고택
扶餘 驪興閔氏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92호
충남 부여군 | 1984-12-24 지정



윤황선생고택
尹煌先生古宅
시도민속문화재 제8호
충남 논산시 | 1985-12-31 지정



신경섭가옥
申慶燮家屋
문화재자료 제291호
충남 보령시 | 1987-12-30 지정



서산 경주김씨 고택
瑞山 慶州金氏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99호
충남 서산시 | 1984-12-24 지정



서산 휴암리 선사유적지
瑞山休岩里先史遺蹟址
시도기념물 제169호
충남 서산시 | 2005-10-31 지정



서천 이하복 고택
舒川 李夏馥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97호
충남 서천군 | 1984-12-24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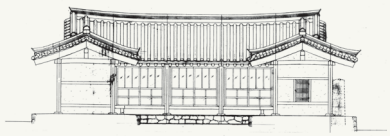
아산 외암마을 참판댁
牙山 外岩마을 參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95호
충남 아산시 | 1984-12-24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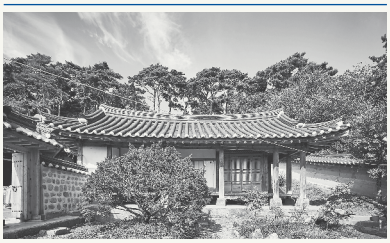
서산김동진가옥
瑞山김동진가옥
시도민속문화재 제21호
충남 서산시 | 2005-10-31 지정



아산 김효직가옥
-
시도민속문화재 제26호
충남 아산시 | 2009-10-20 지정



아산 용궁댁
牙山 龍宮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94호
충남 아산시 | 1984-12-24 지정



서산유기방가옥
瑞山유기방家屋
시도민속문화재 제23호
충남 서산시 | 2005-10-31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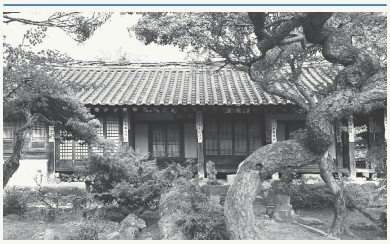
아산 박우현 가옥
-
문화재자료 제404호
충남 아산시 | 2010-02-22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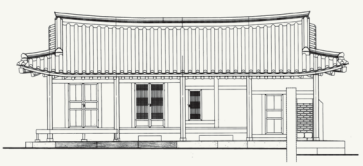
아산외암마을
牙山外巖마을
국가민속문화재 제236호
충남 아산시 | 2000-01-07 지정



서산유상묵가옥
瑞山유상묵가옥
시도민속문화재 제22호
충남 서산시 | 2005-10-31 지정



아산 외암마을 건재 고택
牙山 外岩마을 建齋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233호
충남 아산시 | 1998-01-05 지정



아산윤승구가옥
牙山尹勝求家屋
시도민속문화재 제15호
충남 아산시 | 1990-12-31 지정



윤일선가옥
尹日善家屋
시도민속문화재 제12호
충남 아산시 | 1986-11-19 지정



예산 수당고택
禮山 修堂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281호
충남 예산군 | 2014-02-25 지정



정대영 가옥
鄭大泳家屋
문화재자료 제285호
충남 예산군 | 1987-12-30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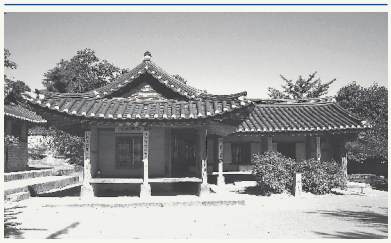


윤제형가옥
尹堤亨家屋
시도민속문화재 제13호
충남 아산시 | 1986-11-19 지정



예산 오추리 고택
禮山 梧楸里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91호
충남 예산군 | 1984-12-24 지정

민익현가옥
閔益鉉家屋
문화재자료 제290호
충남 천안시 | 1987-12-30 지정



김정희선생고택<안채.사랑채>
金正喜先生古宅<안채.사랑채>
시도유형문화재 제43호
충남 예산군 | 1976-01-08 지정



이광임선생고택
李廣任先生故宅
시도유형문화재 제83호
충남 예산군 | 1978-12-30 지정



방기옥가옥
方基鈺家屋
문화재자료 제279호
충남 청양군 | 1985-12-31 지정



박기성가옥
朴基星家屋
문화재자료 제286호
충남 예산군 | 1987-12-30 지정



이한직가옥
李漢稙家屋
문화재자료 제287호
충남 예산군 | 1987-12-30 지정



청양 임동일가옥
靑陽 林東一家屋
시도민속문화재 제31호
충남 청양군 | 2010-12-29 지정



청양윤남석가옥
青陽尹男石家屋
시도민속문화재 제18호
충남 청양군 | 2002-08-10 지정



태안상옥리가영현가옥
泰安上玉里가영현家屋
시도민속문화재 제17호
충남 태안군 | 2001-06-30 지정



홍성 사운 고택
洪城 士雲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98호
충남 홍성군 | 1984-12-24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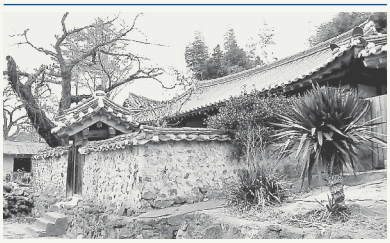


청양임석주가옥
青陽 林錫周家屋
시도민속문화재 제25호
충남 청양군 | 2009-10-20 지정



김우열가옥
金宇烈家屋
시도민속문화재 제10호
충남 홍성군 | 1985-12-31 지정

충청북도



청양임찬주가옥
青陽林纘周家屋
시도민속문화재 제24호
충남 청양군 | 2009-10-20 지정



전용일가옥
田溶一家屋
시도민속문화재 제11호
충남 홍성군 | 1985-12-31 지정



괴산 김항묵 고택
槐山 金恒默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36호
충북 괴산군 | 1984-01-14 지정



태안 동문리 근대 한옥
-
등록문화재 제704호
충남 태안군 | 2017-12-05 지정



홍성 노은리 고택
洪城 魯恩里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231호
충남 홍성군 | 1996-02-13 지정



괴산 송병일 고택
槐山 宋秉一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47호
충북 괴산군 | 1984-01-14 지정



괴산 수월정
槐山 水月亭
시도기념물 제74호
충북 괴산군 | 1987-03-31 지정



보은 박기종 고가
報恩 朴起鍾 古家
시도민속문화재 제18호
충북 보은군 | 2010-09-03 지정



보은 최감찰댁
報恩 崔監察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39호
충북 보은군 | 1984-01-14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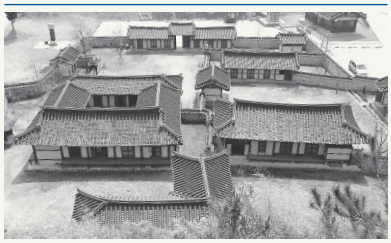
괴산 이창훈 고가
槐山 李昌勳 古家
시도민속문화재 제17호
충북 괴산군 | 2007-06-08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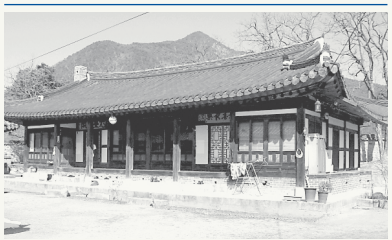
보은 선병묵 고가
報恩 宣炳默 古家
문화재자료 제4호
충북 보은군 | 1986-04-28 지정



보은 최동근 고가
報恩 崔東根 古家
문화재자료 제77호
충북 보은군 | 2010-09-03 지정



괴산 홍범식 고가
槐山 洪範植 古家
시도민속문화재 제14호
충북 괴산군 | 2002-12-20 지정



보은 선병우 고가
報恩 宣炳禹 古家
문화재자료 제5호
충북 보은군 | 1986-04-28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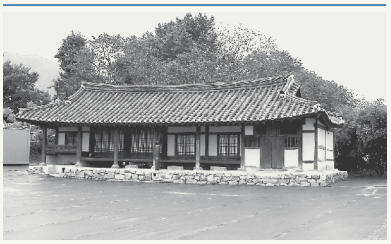
보은 최재한 고가
報恩 崔在翰 古家
문화재자료 제44호
충북 보은군 | 2004-09-17 지정



단양 조덕수 고택
丹陽 趙德壽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45호
충북 단양군 | 1984-01-14 지정



보은 우당 고택
報恩 愚堂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34호
충북 보은군 | 1984-01-14 지정



보은 최혁재 고가
報恩 崔赫在 古家
시도민속문화재 제16호
충북 보은군 | 2005-03-11 지정



영동 가곡리 고가
永同 柯谷里 古家

시도유형문화재 제147호
충북 영동군 | 1985-12-28 지정



영동규당고택
永同 圭堂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40호
충북 영동군 | 1984-01-14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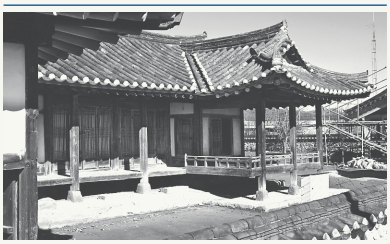
음성 잿말 고택
陰城 잿말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41호
충북 음성군 | 1984-01-14 지정



영동 김참판댁
永同 金參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42호
충북 영동군 | 1984-01-14 지정



영동소석고택
永同 少石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32호
충북 영동군 | 1984-01-14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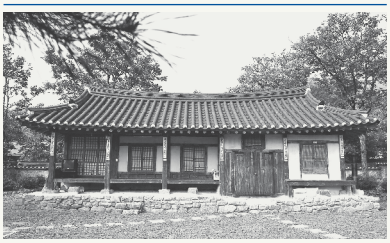
음성 팔성리 고가
陰城 八聖里 古家

문화재자료 제3호
충북 음성군 | 1985-12-28 지정



영동 묵정리 고가
永同 墨井里 古家

시도유형문화재 제146호
충북 영동군 | 1985-12-28 지정



옥천 백운리 고가
沃川 白雲里 古家

문화재자료 제60호
충북 옥천군 | 2007-09-07 지정



제천 김세균 고가
堤川 金世均 古家

시도유형문화재 제88호
충북 제천시 | 1981-05-01 지정



영동 성장환 고택
永同 成章煥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44호
충북 영동군 | 1984-01-14 지정



음성 공산정 고택
陰城 公山亭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43호
충북 음성군 | 1984-01-10 지정



제천 도화리 고가
堤川 桃花里 古家

시도유형문화재 제83호
충북 제천시 | 1981-05-01 지정



제천 명오리 고가
堤川 鳴梧里 古家
시도민속문화재 제5호
충북 제천시 | 1981-05-01 지정



제천 중전리 고가
堤川 中田里 古家
시도유형문화재 제86호
충북 제천시 | 1981-05-01 지정



진천 신헌 고가
鎭川 申櫶 古家
문화재자료 제1호
충북 진천군 | 1985-12-28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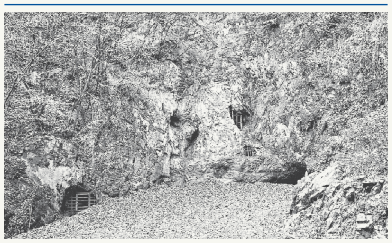
제천 박용원 고택
堤川 朴用元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37호
충북 제천시 | 1984-01-14 지정



제천 지곡리 고가
堤川 池谷里 古家
시도유형문화재 제89호
충북 제천시 | 1981-05-01 지정



청주 고은리 고택
淸州 高隱里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33호
충북 청주시 | 1984-01-14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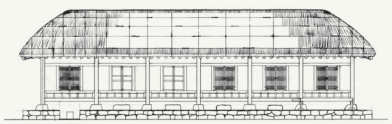
제천 점말동굴 유적
堤川 점말洞窟 遺蹟
시도기념물 제116호
충북 제천시 | 2001-02-02 지정



제천 황석리 고가
堤川 黃石里 古家
시도유형문화재 제84호
충북 제천시 | 1981-05-01 지정



청주 과필헌
淸原 果必軒
시도민속문화재 제8호
충북 청주시 | 1989-12-08 지정



제천 정원태 고택
堤川 鄭元泰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48호
충북 제천시 | 1984-01-14 지정



제천 후산리 고가
堤川 後山里 古家
시도유형문화재 제85호
충북 제천시 | 1981-05-01 지정



청주 관정리 고가
淸原 官井里 古家
문화재자료 제38호
충북 청주시 | 2003-04-11 지정



청주 노현리 고가
淸原 蘆顯里 古家

시도유형문화재 제220호
충북 청주시 | 2003-04-11 지정



청주 신전동 고가
淸州 薪田洞 古家

시도유형문화재 제145호
충북 청주시 | 1985-12-28 지정



청주 문화동 일·양 절충식 가옥
-

등록문화재 제9호
충북 청주시 | 2002-02-28 지정



청주 신형호 고가
淸原 申鑾浩 古家

시도유형문화재 제148호
충북 청주시 | 1985-12-28 지정



청주 방서동 고가
淸州 方西洞 古家

문화재자료 제37호
충북 청주시 | 2002-08-16 지정



충주 윤양계 고택
忠州 尹養桂 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35호
충북 충주시 | 1984-01-14 지정



청주 부강리 고가
淸原 芙江里 古家

시도유형문화재 제221호
충북 청주시 | 2003-04-11 지정



충주 최응성 고가
忠州 崔應聖 古家

시도유형문화재 제87호
충북 충주시 | 1981-05-01 지정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읓
키읔
티읕
피읖
히읗

속담·관용구

II

기역

속담·관용구	내용
가게 기둥에 입춘[주련]	추하고 보잘것없는 가겟집 기둥에 '입춘대길'이라 써 붙인다는 뜻으로, 제격에 맞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가까운 데 집은 깎이고 먼 데 절[집]**은 비친다**	가까운 데 있는 절이나 집은 자잘한 흠도 잘 드러나서 좋지 않아 보이고 먼 곳에 윤곽만 보이는 절이나 집은 좋아 보인다는 뜻으로, 늘 가까이에 있는 것은 그 뛰어남이 보이지 않는 반면 멀리 있는 것은 실제보다 더 돋보이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가난한 집 신주 굶듯	가난한 집에서는 산 사람도 배를 곯는 형편이므로 신주까지도 제사 음식을 제대로 받아 보지 못하게 된다는 뜻으로, 줄곧 굶기만 한다는 말.
가난할수록 기와집 짓는다	1. 당장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넉넉지 못한 가난한 살림일수록 기와집을 짓는다는 뜻으로, 실상은 가난한 사람이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기 싫어서 허세를 부리려는 심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가난하다고 주저앉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잘살아 보려고 용단을 내어 큰일을 벌인다는 말.
가을 메는 부지깽이도 덤벙인다	1. 가을에 메는 용도가 많아 부지깽이도 메로 쓰인다는 뜻으로, 어떤 물건이 자주 쓰이어 그와 비슷한 것까지 마구 대용됨을 이르는 말. 2. 가을걷이 때에는 일이 많아서 누구나 바삐 나서서 거들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갑갑한 놈이 우물 판다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	제일 급하고 일이 필요한 사람이 그 일을 서둘러 하게 되어 있다는 말.
같이 우물 파고 혼자 먹는다	여럿이 함께 노력하여 이룬 일의 성과를 혼자서 차지하는 것을 이르는 말.
개를 따라가면 측간으로 간다	못된 자와 어울려 다니면 좋지 아니한 곳으로 가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개 못된 것은 부뚜막에 올라간다	못된 개가 도적은 지키지 않고 더러운 발로 부뚜막에 올라간다는 뜻으로, 제구실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 못된 짓만 함을 이르는 말.
겉방살이 불내기 겉방에서 불낸다	남에게 세를 내준 겉방에서 잘못하여 불이 일어난다는 뜻으로, 평소에 눈에 거슬리던 데서 사고가 생겨 더욱 밉다는 말
겉방살이 코 곤다 겉방 년이 코 곤다[구른다]	남의 집에서 겉방살이를 하는 사람이 코를 곤다는 뜻으로, 제 분수도 모르고 버릇없이 함부로 굴거나, 나그네가 오히려 주인 행세를 함을 이르는 말
굴뚝 막은 덕석같다	검고 더러운 옷이나 물건 따위를 이르는 말.
굴뚝 보고 절한다	빚에 쪼들리어 한밤중이나 이른 새벽에 도망가는 사람이 이웃 사람에게 인사는 할 수 없어 하는 수 없이 굴뚝을 보고 절하고서 도망간다는 뜻으로, 무엇을 피하여 몰래 달아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굴뚝에 바람 들었나	굴뚝에 바람이 들면 아궁이로 연기가 나와 불을 때는 이의 눈에서 눈물이 난다는 데 빗대어, 왜 우느냐고 되묻는 투로 이르는 말.
굴우물에 돌 넣기	1. 깊은 우물에 돌을 아무리 넣어도 차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제힘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을 감히 하려고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아무리 하여도 한限이 없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굴우물에 말똥 쓸어 넣듯 한다	1. 음식을 가리지 아니하고 마구 먹음을 조롱하여 이르는 말. 2. 가망 없는 일에 밑천을 한정 없이 많이 밀어 넣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굶은 개 부엌 들여다보듯	게걸스럽고 치사스럽게 남의 것을 바라는 모양을 욕으로 이르는 말.

속담·관용구	내용
귀한 것은 상량문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귓구멍이 도자전 마룻구멍이다	배우지 않았으나 얻어들어서 아는 것이 많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기둥보다 서까래가 더 굵다	주主가 되는 것과 그에 따르는 것이 뒤바뀌어 사리에 어긋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기둥을 치면 대들보가[들보가/붓장이] 운다[울린다]	1. 직접 맞대고 탓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넌지시 말을 하여도 알아들을 수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주主가 되는 대상을 탓하거나 또는 그 대상에 일격을 가하거나 하면 그와 관련된 대상들이 자연히 영향을 입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기와집 물려준 자손은 제사를 두 번 지내야 한다	초가집 지붕 이기가 귀찮고 힘듦을 이르는 말.
기와집에 옻칠하고 사나 그렇게 하면 뒷간에 옻칠을 하나	그렇게 하면 뒷간에까지 값비싼 옻칠을 하고 살겠느냐는 뜻으로, 매우 인색하게 굴면서 재물을 모으는 사람을 비꼬는 말.
기와집이면 다 사창社倉인가	겉이 훌륭하다고 하여 내용까지 다 훌륭하지는 않다는 말.
기와 한 장 아끼다가 대들보 썩힌다	조그마한 것을 아끼려다가 오히려 큰 손해를 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길가에 집 짓기	1. 길가에 집을 지으면 오가는 사람들이 저마다 간섭을 하여 집을 짓지 못한다는 뜻으로, 무슨 일에 참견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주견이 없이 남의 간섭이나 의견만 좇다가는 아무 일도 제대로 끝을 맺을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김씨가 한몫 끼지 않는 우물이 없다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말.
까막까치도 집이 있다 갈매기도 제집이 있다 / 우렁이도 집이 있다	하찮은 까마귀나 까치들도 다 제집이 있는 법이라는 뜻으로, 집 없는 사람의 서러운 처지를 한탄하여 이르는 말.

니은

나간 놈의 집구석이라	집 안이 어수선하고 정리가 안 되어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나중에 들어온 놈이 아랫목 차지한다	1. 늦게 왔지만 제일 좋은 조건을 차지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늦게 와서 주제넘게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우쭐대는 경우를 놀림조로 이르는 말.
남이야 뒷간에서 낚시질을 하건 말건 남이야 전봇대로 이를 쑤시건 말건	남이야 무슨 짓을 하건 상관할 필요가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냅기는 과부 집 굴뚝이라	과부 집에는 나무를 뻐개고 말리고 할 사람이 없어서 마르지 않은 나무를 그대로 때므로 연기가 심하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보다 심히 곤란한 처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너의 집도 굴뚝으로 불을 때야 하겠다	불을 거꾸로 때야 할 집이라는 뜻으로, 일이 꼬이기만 하는 집안을 이르는 말.
노름은 도깨비 살림	도박의 성패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어 돈이 불어 갈 때에는 알 수 없을 만큼 쉽게 또 크게 늘어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속담·관용구	내용
늦바람이 용마름을 벗긴다	늦게 불기 시작한 바람이 초가집 지붕마루에 얹은 용마름을 벗겨 갈 만큼 세다는 뜻으로, 사람도 늙은 후에 한번 바람이 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디귿

다 가도 문턱 못 넘기	애써 일을 하였으나 끝맺음을 못하여 보람이 없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단칸방에 새 두고 말할까	한집안 식구처럼 가깝게 지내는 사이에 무슨 비밀이 있겠느냐는 말.
닭 쫓던 개 울타리 넘겨다보듯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개에게 쫓기던 닭이 지붕으로 올라가자 개가 쫓아 올라가지 못하고 지붕만 쳐다본다는 뜻으로, 애써 하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남보다 뒤떨어져 어찌할 도리가 없이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담벼락을 문이라고 내민다	시치미를 떼고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억지를 써서 우겨 댄다는 말.
담벼락하고 말하는 셈이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상대를 비꼬는 말.
담에도 귀가 달렸다 벽에도 귀가 있다	비밀은 없기 때문에 경솔히 말하지 말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담을 쌓고 벽을 친다	의좋게 지내던 관계를 끊고 서로 철저하게 등지고 삶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담을 쌓았다 헐었다 한다	이렇게도 궁리하여 보고 저렇게도 궁리하여 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대들보 썩는 줄 모르고 기왓장 아끼는 격	장차 크게 손해 볼 것은 모르고 당장 돈이 조금 든다고 사소한 것을 아끼는 어리석은 행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대명전 대들보의 명매기 걸음	맵시를 내고 아양을 부리며 아장아장 걷는 여자의 걸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대문 밖이 저승이라 문턱 밑이 저승이라	1.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뜻으로, 사람의 목숨이 덧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머지않아 곧 죽게 될 것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대문이 가문	1. 아무리 가문이 높아도 가난하여 집채나 대문이 작으면 위엄이 없어 보인다는 말. 2. 겉보기가 훌륭하여야 남에게 위압을 준다는 말.
대문턱 높은 집에 정강이 높은 며느리 들어온다 문턱 높은 집에 무종아리 긴 며느리 생긴다	일이 마침 알맞게 잘되어 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더부살이가 주인 마누라 속곳 베 걱정한다 더부살이 환자 걱정, 칠월 더부살이가 주인 마누라 속곳 걱정한다	남의 집에 더부살이하면서 제 옷도 변변히 못 입는 형편에 주인집 마누라의 속곳 마련할 걱정을 한다는 뜻으로, 주제넘게 남의 일에 대하여 걱정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도깨비 수키왓장 뒤듯 도깨비 기왓장 뒤듯	1. 집안이 망하려면 도깨비가 기왓장을 뒤져 흐트러뜨린다는 이야기에서 나온 것으로, 쓸데없이 이것저것 분주하게 뒤지기만 하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남 보기에 분주하게 일을 엄벙덤벙하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도둑맞고 사립[빈지] 고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소를 도둑맞은 다음에서야 빈 외양간의 허물어진 데를 고치느라 수선을 떤다는 뜻으로,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

속담·관용구	내용
도둑의 집에도 되는 있다	못된 짓을 하는 사람에게도 경위와 종작이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도둑의 집에 한당이 들었다	몹쓸 놈이 그보다 더 몹쓸 놈에게 변을 당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돈은 도적맞을 수 있어도 땅은 도깨비도 떠메고 갈 수 없다	땅이 가장 안전하고 없어질 걱정이 없는 재산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돌담 구멍에 족제비 눈깔 돌담 구멍에 독사 주둥이	1. 돌담에 족제비가 많은 것처럼 무엇이 흔하게 많이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눈매가 날카로운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돌담의 부른 배는 쓸모가 없다 돌담 배 부른 것	도무지 유용한 데는 없고 해만 끼치는 존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돌아본 마을 뀌어 본 방귀	놀러 다니던 사람일수록 잘 돌아다니며 방귀는 뀌어 보기 시작하면 안 할 수 없다는 뜻으로, 무엇이나 하기 시작하면 재미가 붙어 그만둘 수 없음을 이르는 말.
돌쩌귀에 녹이 슬지 않는다 홈통은 썩지 않는다	1. 창문이나 미닫이문이 계속 왕복하는 홈통은 썩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무슨 일이든 쉬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하여야 실수나 탈이 안 생긴다는 말. 2. 물건이나 재능 따위를 쓰지 아니하고 놓아 두면 못 쓰게 되므로 항상 잘 활용하라는 말.
돌쩌귀에 불이 나겠다 돌쩌귀에 불이 난다	문을 자주 여닫는다는 뜻으로, 사람이 많이 드나듦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동방화촉 노ᄅᆞ도령이 숙녀 만나 즐거운 일 칠십 노인 구 대 독자 생남을 한 듯	동방에 비치는 환한 촛불이라는 뜻으로, 혼례를 치르고 나서 첫날밤에 신랑이 신부 방에서 자는 의식을 이르는 말.
뒷간과 사돈집은 멀어야 한다 사돈집과 뒷간은 멀수록 좋다	사돈집 사이에는 말이 나돌기 쉽고 뒷간은 고약한 냄새가 나므로 둘 다 멀리 있을수록 좋음을 이르는 말.
뒷간 기둥이 물방앗간 기둥을 더럽다 한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자기는 더 큰 흉이 있으면서 도리어 남의 작은 흉을 본다는 말.
뒷간에 갈 적 마음 다르고 올 적 마음 다르다 똥 누러 갈 적 마음 다르고 올 적 마음 다르다	자기 일이 아주 급한 때는 통사정하며 매달리다가 그 일을 무사히 다 마치고 나면 모른 체하고 지낸다는 말
뒷간에 앉아서 개 부르듯 한다	자기에게 필요할 때만 찾는다는 말.
뒷간에 옻칠하고 사나 보자	재물을 인색하게 모으는 사람에게 뒷간까지 옻칠을 해 가며 살겠느냐는 뜻으로, 얼마나 잘사는지 두고 보겠다는 말.
뒷집 마당 벌어진 데 솔뿌리 걱정한다 마당 벌어진 데 웬 솔뿌리 걱정	마당이 벌어졌는데 그릇이 터졌을 때 필요한 솔뿌리를 걱정한다는 뜻으로, 당치도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수습하려 하는 어리석음을 비웃는 말.
뒷집 짓고 앞집 뜯어 내란다	1. 자기에게 방해가 되거나 손해가 된다 하여 자기보다 먼저 한 사람의 일을 못하게 한다는 말. 2. 사리事理는 제쳐 놓고 제 경우와 제 욕심만을 옳다고 한다는 말.
들어오는 복도 문 닫는다	방정맞은 짓만 하여 오는 복도 마다함을 나무라는 말.
등잔 뒤가 밝다	가까이서보다는 조금 떨어져 보는 편이 상황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는 말.

속담·관용구	내용
등잔 밑이 어둡다	대상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도리어 대상에 대하여 잘 알기 어렵다는 말.
딸 셋을 여의면 기둥뿌리가 팬다 딸 삼 형제 시집보내면 좀도둑도 안 든다	딸은 시집보내는 비용도 많이 들고 시집간 딸들이 무엇이고 가져가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도둑도 안 들 정도로 살림이 준다는 뜻으로, 딸이 많으면 재산이 다 줄어든다는 말.
딸의 시앗은 바늘방석에 앉히고 며느리 시앗은 꽃방석에 앉힌다	딸은 귀하게 여겨 어떻게 하든지 그 시앗을 없애려 하나, 며느리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마음으로 며느리가 시앗을 보고 괴로워하는 것을 도리어 통쾌하게 여긴다는 말.
딸의 차반 재 넘어가고 며느리 차반 농 위에 둔다	1. 딸은 차반을 재를 넘어 시집으로 가져가고 며느리는 남편에게 주려고 차반을 제 방 농 위에 둔다는 뜻으로, 딸이나 며느리나 부모보다는 제 남편을 더 위하고 생각한다는 말. 2. 딸에게 줄 차반은 아끼지 않으면서 며느리에게 줄 차반은 아까워 농 위에 두고 망설인다는 뜻으로, 며느리보다 딸을 더 생각한다는 말.
딸이 셋이면 문을 열어 놓고 잔다 딸 삼 형제 시집보내면 좀도둑도 안 든다	딸은 시집보내는 비용도 많이 들고 시집간 딸들이 무엇이고 가져가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도둑도 안 들 정도로 살림이 준다는 뜻으로, 딸이 많으면 재산이 다 줄어든다는 말.
딸 죽은 사위 불 꺼진 화로 불 없는[꺼진] 화로 딸 없는[죽은] 사위	직접적인 인연이나 관계가 끊어져 쓸데없거나 긴요하지 않게 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똥 누고 간 우물도 다시 먹을 날이 있다 이 샘물 안 먹는다고 똥 누고 가더니 그 물이 맑기도 전에 다시 와서 먹는다	두 번 다시 안 볼 것같이 하여도 나중에 다시 만나 사정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뜬 소 울 넘는다	동작이 매우 느린 소가 울타리를 넘는다는 뜻으로, 평소에 동작이 느린 사람이 뜻밖에 장한 일을 이룸을 이르는 말.

미음

마구 뚫은 창	질서나 순서도 없이 되는대로 함부로 하는 행동을 이르는 말.
마당 벌어진 데 웬 솔뿌리 걱정 뒷집 마당 벌어진 데 솔뿌리 걱정한다, 마당 터진 데 솔뿌리 걱정한다	마당이 벌어졌는데 그릇이 터졌을 때 필요한 솔뿌리를 걱정한다는 뜻으로, 당치도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수습하려 하는 어리석음을 비웃는 말.
마당이 환하면 비가 오고 계집 뒤가 반지르르하면 애가 든다	아이 어머니의 쇠약하였던 몸이 다시 회복되고 몸매가 반지르르하게 되면 또 아이를 가지게 됨을 이르는 말.
마루 밑에 볕 들 때가 있다 마룻구멍에도 볕 들 날이 있다	마루 밑과 같은 음침한 곳에도 볕이 들 때가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이나 고정불변한 것은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마루 아래 강아지가 웃을 노릇	어떤 일이 경우에 몹시 어긋남을 이르는 말.
마룻구멍에도 볕 들 날이 있다	고생을 참고 기다리면 좋은 시기를 만날 수도 있다는 말.
마음은 걸걸해도 왕골자리에 똥 싼다	말로는 잘난 체 큰소리를 하여도 실제로는 못난 짓만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막다른 골목이 되면 돌아선다	일이 막다른 지경에 이르면 또 다른 방책이 생긴다는 말.
만만찮기는 사돈집 안방 사돈네 안방 같다	사돈네 안방처럼 감히 넘겨다보지 못할 만큼 어렵고 조심스러운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속담·관용구	내용
말 잃고 외양간 고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소를 도둑맞은 다음에서야 빈 외양간의 허물어진 데를 고치느라 수선을 떤다는 뜻으로,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
며느리 상청에서도 떡웃지짐이 제일	죽은 며느리를 위하여 베푸는 상청에서도 떡 위에 놓여 있는 지짐이에 신경을 쓴다는 뜻으로, 먹는 데만 정신이 팔리어 체면 차리지 않고 맛있는 것만 골라 먹는다는 말.
모래 위에 선 누각[집] 모래 위에 쌓은 성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여 곧 허물어질 수 있는 물건이나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 갑갑한 놈이 송사한다, 갑갑한 놈이 우물 판다, 답답한 놈이 송사한다[소지 쓴다]	제일 급하고 일이 필요한 사람이 그 일을 서둘러 하게 되어 있다는 말.
목마른 송아지 우물 들여다보듯 소금 먹은 소 굴우물 들여다보듯	소금 먹은 소가 목이 말라 깊은 굴우물을 들여다보며 안타까워한다는 뜻으로, 무엇을 골똘하게 궁리하거나 해결 방도를 찾지 못하여 애쓰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목수가 많으면 기둥이 기울어진다 목수가 많으면 집을 무너뜨린다	여럿이 일하는데 의견이 너무 많으면 도리어 일을 망친다는 말.
목수가 많으면 집을 무너뜨린다 목수가 많으면 기둥이 기울어진다	여럿이 일하는데 의견이 너무 많으면 도리어 일을 망친다는 말.
목수가 해금통을 부순다	자기의 재주만 믿고 섣불리 덤비다가 오히려 일을 망치는 수가 있다는 말.
못된 바람은 수구문[동대문 구명]**으로 들어온다**	궂은일이나 실패한 일의 책임은 자기에게만 돌아온다고 항변하는 말.
못된 벌레 장판방에서 모로 긴다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이 난다	미운 자가 하는 짓마다 미운 짓만 함을 이르는 말.
못살면 터 탓 잘되면 제 탓[복] 못되면 조상[납] 탓	일이 안될 때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태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몽둥이 들고 포도청 담에 오른다	제가 지은 죄를 숨기려고 남보다 먼저 나서서 떠드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무른 땅에 말뚝 박기	1. 몹시 하기 쉬운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세도 있는 사람이 힘없고 연약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학대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문 돌쩌귀에 불 나겠다	문을 자주 여닫음을 이르는 말.
문 연 놈이 문 닫는다 맺은 놈이 풀지	무엇이든 처음 하던 사람이 그 일의 끝을 내야 한다는 말.
문 열고 보나 문 닫고 보나 보기는 일반 문틈으로 보나 열고 보나 보기는 일반	드러내 놓고 하나 몰래 하나 하기는 마찬가지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문을 연 사람이 바로 문을 닫은 사람	원인에 따른 결과가 있기 마련이라는 말.
문전 나그네 흔연대접	어떤 신분의 사람이라도 자기를 찾아온 사람은 친절히 대접하라는 말.

속담·관용구	내용
문턱 높은 집에 무종아리 긴 며느리 생긴다 대문턱 높은 집에 정강이 높은 며느리 들어온다 / 확 깊은 집에 주둥이 긴 개가 들어온다	일이 마침 알맞게 잘되어 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문턱 밑이 저승이라 대문 밖이 저승이라	1.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뜻으로, 사람의 목숨이 덧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머지않아 곧 죽게 될 것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문틈으로 보나 열고 보나 보기는 일반 문 열고 보나 문 닫고 보나 보기는 일반	드러내 놓고 하나 몰래 하나 하기는 마찬가지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문풍지 떨어진 데는 풀비가 제격	문풍지가 떨어지면 풀비로 풀칠을 하는 것이 좋다는 뜻으로, 격에 맞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물 좋고 정자 좋은 데가 있으랴	모든 조건을 두루 갖춘 곳이 있기는 힘들다는 말.
미운 개가 주걱 들고 조왕에 오른다	미운 개가 못되게도 밥주걱을 물고서 부엌 귀신을 위해 두는 조왕에 오른다는 뜻으로, 미운 것이 더욱더 미운 짓을 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비읍	
반자를 받다	성이 나서 펄펄 뛰다.
반자가 얕다 하고 펄펄 뛰다	몹시 성이 나서 반자에 닿을 정도로 펄펄 뛴다는 말.
반풍수 집안 망친다 반편이 명산 폐묘한다	못난 것이 도리어 잘난 체하다가 명산을 모르고 묘를 폐한다는 뜻으로, 못난이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오히려 이러쿵저러쿵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방바닥에서 낙상한다 장판방에서 자빠진다	1. 안전한 곳에서 뜻밖에 실수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마음을 놓는 데서 실수가 생기는 것이니 항상 조심해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방 안 풍수風水	방 안에 앉아 있으면서 주제넘게 알지도 못하는 바깥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다는 뜻으로, 자기가 직접 겪어 보지 못했거나 구체적인 실정을 모르는 일에 대하여 마음대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방에 가면 더 먹을까 부엌에 가면 더 먹을까 부엌에 가면 더 먹을까 방에 가면 더 먹을까 / 이 장떡이 큰가 저 장떡이 큰가	남보다 더 먹기 위하여 방에 들어갈까 부엌에 들어갈까 타산한다는 뜻으로, 어느 쪽이 더 이익이 많을까 하고 잇속을 따지느라 망설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방에서는 매부 말이 옳고 부엌에 가면 누이 말이 옳다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다	양편의 말이 모두 일리가 있어서 시비를 가리기가 어려운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방앗간에서 울었어도 그 집 조상弔喪	집 안까지 들어가지 않고 밖에 있는 방앗간에서 울었다고 하여도 그 집에 조상한 것이라는 뜻으로, 마음이 문제이지 장소나 형식이 문제가 아님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벽을 치면 대들보가 울린다	1. 암시만 주어도 곧 눈치를 채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서로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변소에 기와 올리고 살겠다

인색하게 굴어도 큰 부자는 못 됨을 비꼬는 말.

병자년 까마귀 빈 뒷간 들여다보듯

병자년에 큰 흉년이 든 데서 나온 말로, 어떤 일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구차스럽게 여기저기 기웃거리거나 돌아다니면서 기다리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봄 방 추우면 맏사위 달아난다

봄철에 방이 추우면 견디기 힘듦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봉당을 빌려주니 안방까지 달란다

매우 염치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부뚜막 땜질 못하는 며느리 이마의 털만 뽑는다

동정 못 다는 며느리 맹물 발라 머리 빗는다

부뚜막에 땜질 하나 제대로 못 하여 너절하게 하고 사는 며느리가 그래도 모양을 내겠다고 이마의 털만 뽑고 있다는 뜻으로, 일을 할 줄 모르는 주제에 멋만 부리는 밉살스러운 행동을 비꼬는 말.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가까운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넣지 아니하면 음식이 짠맛이 날 수 없다는 뜻으로, 아무리 좋은 조건이 마련되었거나 손쉬운 일이라도 힘을 들이어 이용하거나 하지 아니하면 안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부엌에 가면 더 먹을까 방에 가면 더 먹을까

방에 가면 더 먹을까 부엌에 가면 더 먹을까

남보다 더 먹기 위하여 방에 들어갈까 부엌에 들어갈까 타산한다는 뜻으로, 어느 쪽이 더 이익이 많을까 하고 잇속을 따지느라 망설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부엌에서 숟가락을 얻었다

살강 밑에서 숟가락 얻었다[주웠다]

대단치 아니한 일을 하여 놓고 성공이나 한 듯이 자랑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불한당 치른 놈의 집구석 같다

집 안이 몹시 어수선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비 오기 전에 집이다

비 오기 전에 집에 와 있다는 뜻으로, 미리 마련하거나 갖추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비 오는 것은 밥 짓는 부엌에서 먼저 안다

비가 오려고 기압이 낮아지면 아궁이에 불이 잘 안 붙으므로 부엌의 아낙네들이 비 오는 것을 먼저 알게 된다는 말.

빈 외양간에 소 들어간다

빈 외양간에 소를 들여다 매면 어떤 빈자리가 적절하게 채워지게 된다는 뜻으로, 일의 형편이나 외모가 좋아져 꼭 짜이게 잘 어울리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빈집에 소 매였다

없는 살림에 큰 횡재를 하였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사옷

사당 당직은 타도 빈대 당직 타서 시원하다

사당의 당직은 불타 버렸지만 그와 함께 빈대까지 탔으니 시원하다는 뜻으로, 제게 손해가 되더라도 시끄럽고 귀찮던 것이 없어져 시원함을 이르는 말.

사당치레하다가 신주 개 물려 보낸다

사당 겉치레만 하며 돌아다니다가 사당에 두는 신주를 개한테 물려 보냈다는 뜻으로, 겉치레만 지나치게 하다가 그만 중요한 것을 잃어버림을 이르는 말.

사람 안 죽은 아랫목 없다

사람 사는 집에서 사람 안 죽은 집이 거의 없다는 뜻으로, 알고 보면 어느 곳이나 험하고 궂은 일이 있었던 자리일 수 있음을 이르는 말.

사위 집 더부살이

장인이나 장모가 출가한 딸네 집에서 더부살이하기란 떳떳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이르는 말.

속담·관용구	내용
사촌 영장도 부엌부터 들여다보아야 한다	사촌의 장례를 지내는 경우에도 먹을 것이 있는가를 알아보아야 한다는 뜻으로, 경황없는 환경에서도 먹을 것을 알아보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사촌네 집도 부엌부터 들여다본다	친한 사이인 사촌네 집조차도 먹을 것이 있어야 찾아다닌다는 뜻으로, 남을 만날 때 얻어먹을 것만 바라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삼간초가가 다 타도 빈대 죽어 [타 죽는 것만] 좋다	비록 자기에게 큰 손해가 있더라도 제 마음에 들지 아니하던 것이 없어지는 것만은 상쾌하다는 말.
새로 집 지은 후 삼 년은 마음을 못 놓는다	새로 집을 짓고 살면 처음 삼 년은 무슨 사고가 있을까 하여 마음을 놓지 못한다는 말.
새벽 봉창 두들긴다	1. 한참 단잠 자는 새벽에 남의 집 봉창을 두들겨 놀라 깨게 한다는 뜻으로, 뜻밖의 일이나 말을 갑자기 불쑥 내미는 행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 2. 너무나도 뜻밖의 일을 당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새벽바람 사초롱	새벽바람에 꺼질까 봐 조심스럽게 들고 있는 비단 초롱이라는 뜻으로, 매우 사랑스럽고 소중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색시가 고우면 처갓집 외양간 말뚝에도 절한다 아내가 귀여우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한다	1. 아내가 좋으면 아내 주위의 보잘것없는 것까지 좋게 보인다는 말. 2. 한 가지가 좋아 보이면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 어떤 사람을 너무 좋아하여 사리 판단이 어두워지면 실수를 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서투른 풍수 집안만 망쳐 놓는다	무슨 일에 잘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체하여 일을 하다가 아주 크게 그르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서푼짜리 집에 천 냥짜리 문호	서푼짜리 초라한 집을 지어 놓고 대문은 천 냥짜리로 요란하게 만들어 달았다는 뜻으로, 크고 값지게 만들어야 할 것은 작게 하고 작아야 할 것은 요란하게 만들어 주객이 바뀐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시집 울타리 귀신이 되어야 한다	여자는 한번 시집을 가면 무슨 일이 있어도 시집에서 끝까지 살아가야 한다는 말.
시형님 잡숫고 조왕님 잡숫고 이제는 먹어 보랄 게 없다	많지 아니한 것을 여기저기 주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는 말.

이응

아쉬워 엄나무 방석이라	아쉬운 대로 엄나무 방석에 앉았다는 뜻으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어서 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아욱으로 국을 끓여 삼 년을 먹으면 외짝 문으로는 못 들어간다	아욱으로 늘 국을 끓여 먹으면 몸이 불어서 외짝 문으로 못 들어간다는 뜻으로, 아욱이 몸에 매우 좋다는 말.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다	양편의 말이 모두 일리가 있어서 시비를 가리기가 어려운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방에서는 매부 말이 옳고 부엌에 가면 누이 말이 옳다.
안방을 밝히면 못쓴다	남녀 관계에서 절제하는 생활을 하여야 함을 이르는 말.
안벽 치고[붙이고] 밭벽 친다[붙인다]	1. 겉으로는 도와주는 체하면서 속으로는 방해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이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편에서는 저렇게 말하여 둘 사이를 이간질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속담·관용구	내용
앞문으로 호랑이를 막고 뒷문으로 승냥이를 불러들인다	겉으로 공명정대한 체하나 뒷구멍으로 온갖 나쁜 짓을 다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얌전한 고양이[강아지/개]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겉으로는 얌전하고 아무것도 못 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딴짓을 하거나 자기 실속을 다 차리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염초청 굴뚝 같다	마음보가 검고 음흉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오뉴월 장마에 토담 무너지듯	힘없이 내려앉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울바자가 헐어지니 이웃집 개가 드나든다	자신에게 약점이 있으니까 남이 그것을 알고 업신여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울타리 밖을 모르다	일정한 범위 안에만 머물러 세상 물정을 전혀 모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부자리 보고 발을 펴라 누울 자리 봐 가며 발을 뻗어라	어떤 일을 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생각하여 미리 살피고 일을 시작하라는 말.
이불깃 봐 가며 발 편다	무슨 일이고 간에 조건과 사정을 보아 가며 거기에 알맞게 일을 하여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불 밑에 엿 묻었나 노구 전에 엿을 붙였나	뜨거운 노구솥 가에 엿을 붙여 놓고 왔다면 곧 녹아 흐를 것이니 바삐 돌아가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뜻으로, 집에 빨리 돌아가려고 몹시 안달을 하는 경우를 이르는 말.
이불 속[안]에서 활개 친다	남 앞에서는 제대로 기도 못 펴면서 남이 없는 곳에서만 잘난 체하고 호기를 부리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불 속에서 하는 일도 안다	이불 속에서 하는 일을 알 정도로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뜻으로, 남이 없는 곳에서도 항상 조심하여야 함을 이르는 말.
이 우물에 똥을 누어도 다시 그 우물을 먹는다	두 번 다시 안 볼 것같이 하여도 나중에 다시 만나 사정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웃집 새 처녀도 내 정지에 들여 세워 보아야 한다	사람의 됨됨이는 겪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음을 이르는 말.
입의 말 다 듣자면 고래등 같은 기와집도 하루아침에 넘어간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다가는 아무리 큰 재산이라도 다 거덜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입춘 거꾸로 붙였나	입춘 뒤 날씨가 몹시 추운 경우에 이르는 말.

지읒

장님이 문고리 바로 잡았다 장님이 문 바로 들어갔다	재주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 어떤 일을 우연히 성취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장님 등불 쳐다보듯	1. 서로 아무 관계 없이 지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아무리 보아도 그 진미[眞美]를 알아볼 능력이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장님 문고리 잡기 봉사 문고리 잡기	1. 눈먼 봉사가 요행히 문고리를 잡은 것과 같다는 뜻으로,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쩌다가 요행수로 어떤 일을 이룬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가까이 두고도 찾지 못하고 헤맴을 이르는 말.

속담·관용구	내용
장님이 문 바로 들어갔다	재주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 어떤 일을 우연히 성취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장님이 집골목을 틀리지 않는다	무슨 일이든지 익숙해지면 실수 없이 해낸다는 말.
장판방에서 자빠진다 방바닥에서 낙상한다	안전한 곳에서 뜻밖에 실수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잿불 화로의 불씨가 끊어져서는 집안이 망한다	예전에 불씨를 보전하는 것이 살림살이의 중요한 부분이었던 데서, 불씨를 꺼뜨리는 소홀한 살림살이로는 한집안을 잘 꾸려 나갈 수 없다는 말.
저 긷지 않는다고 우물에 똥 눌까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가 없는 남의 경우라도 살펴 주고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
저승길과 변소 길은 대代로 못 간다	죽음이나 용변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말.
저승길이 대문 밖이다 대문 밖이 저승이라	1.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뜻으로, 사람의 목숨이 덧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집을 나서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험악한 세상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제 코도 못 씻는 게 남의 부뚜막 걱정한다 제 코도 못 닦는 것이 남의 코 닦으려고 한다	자기 일도 감당 못하는 주제에 남의 일에 참견함을 비꼬는 말.
조는 집은 대문턱부터 존다	1. 주인이 게을러 졸고 있으면 집안 전체가 다 그렇게 된다는 말. 2. 대문짝을 보면 그 집 주인들의 생활 기풍을 알 수 있다는 말.
좁쌀만큼 아끼다가 담 돌만큼 해害 본다 기와 한 장 아끼다가 대들보 썩힌다	조그마한 것을 아끼려다가 오히려 큰 손해를 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주린 개가 뒷간을 바라보고 기뻐한다	누구나 배가 고프면 무엇이고 먹을 수 있는 것만 보아도 기뻐한다는 말.
중년 상처는 대들보가 휜다	어린 자녀를 많이 남겨 놓고 아내가 죽게 되면 집안 살림이 엉망이 된다는 말.
중방 밑 귀뚜라미	무엇이고 잘 아는 체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지각하고는 담쌓았다	1. 지각없이 못난 짓만 함을 비꼬는 말. 2. 도무지 철이 나지 아니하였다는 말.
지신에 붙이고 성주에 붙인다	가뜩이나 적은 것을 이곳저곳에 뜯기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는 말.
집과 계집은 가꾸기 탓	집은 손질하기에 달렸고 아내는 가르치기에 달렸다는 말.
집도 절도 없다	가진 집이나 재산도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닌다는 말.
집 떠나면 고생이다	1. 이러니저러니 해도 제 집이 제일 좋다는 말. 2. 집을 떠나 돌아다니게 되면 아무리 대접을 받는다 해도 고생스럽고 불편한 점이 있기 마련이라는 말.
집 안에 연기 차면 비 올 징조	궂은 날에는 저기압으로 인하여 아궁이에 역류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

속담·관용구	내용
집 안 좁은 건 살아도 마음 좁은 건 못 산다	집이 좁은 건 참으면서 살 수 있으나 속이 좁아서 쩨쩨하게 구는 사람하고는 같이 생활하기 힘들다는 뜻으로, 집안이나 집단이 화목해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집에 금송아지를 매었으면 내 알 게 무엇이냐	아무리 귀중하고 훌륭한 물건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을 볼 수도 없고 쓰지도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말.
집에 꿀단지를 파묻었나	집에 빨리 가고 싶어 안달하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들에 가도 샌다	본바탕이 좋지 아니한 사람은 어디를 가나 그 본색을 드러내고야 만다는 말.
집에서 큰소리치는 놈 나가서 어쩌지 못한다	집안의 만만한 식구들한테 큰소리치며 못살게 구는 사람이 밖에 나가 남들 앞에서는 꼼짝도 못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집을 사면 이웃을 본다 팔백 금으로 집을 사고 천 금으로 이웃을 산다	집을 정할 때는 집 자체보다도 주위의 이웃을 더 신중히 가려서 정해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집이 망하면 지관 탓만 한다 집안이 망하면 집터 잡은 사람만 탓한다	무슨 일이 잘못되면 남의 탓만 한다는 말.
집이 타도 빈대 죽으니 좋다 초가삼간 다 타도 빈대 죽는 것만 시원하다	비록 자기에게 큰 손해가 있더라도 제 마음에 들지 아니하던 것이 없어지는 것만은 상쾌하다는 말.
집 태우고 바늘 줍는다	큰 것을 잃은 후에 작은 것을 아끼려고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치읓

찬물 먹고 냉돌방에서 땀 낸다	1. 도무지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이니 하지도 말라는 말. 2. 당치 않은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려고 어리석게 행동함을 비꼬는 말.
참새가 방앗간[율조밭]을 그저 지나랴	1. 욕심 많은 사람이 이끗을 보고 가만있지 못한다는 말. 2. 자기가 좋아하는 곳은 그대로 지나치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참새가 방앗간에 치여 죽어도 짹 하고 죽는다 참새가 죽어도 짹 한다	아무리 약한 것이라도 너무 괴롭히면 대항한다는 말.
청국장이 장이냐 거적문이 문이냐	못된 사람은 사람이라 할 수가 없고 좋지 아니한 물건은 물건이라 할 수 없다는 말.
청을 빌려 방에 들어간다 행랑 빌리면 안방까지 든다	1. 대청을 빌려 쓴다는 구실로 시작해서 방에까지 들어간다는 뜻으로, 염치없이 처음에 한 약속을 어기고 야금야금 침범해 들어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처음에는 조심하여 삼가다가 차차 통이 큰 짓까지 하게 된다는 말.
초가삼간 다 타도 빈대 죽는 것만 시원하다 삼간초가가 다 타도 빈대 죽어[타 죽는 것만] 좋다 / 절은 타도 빈대 죽는 게 시원하다 / 집이 타도 빈대 죽으니 좋다 / 초당 삼간이 다 타도 빈대 죽는 것만 시원하다	비록 자기에게 큰 손해가 있더라도 제 마음에 들지 아니하던 것이 없어지는 것만은 상쾌하다는 말.

속담·관용구	내용
초가집 대교待敎가 없고 물 건너 대교가 없고 얽은 대교가 없다	가난한 집에서 대교 벼슬이 나올 수 없고 물 건너 사는 세력 없는 집에서도 대교가 나올 수 없으며 낯이 얽어 못생긴 사람 가운데서도 대교가 나올 수 없다는 뜻으로, 어떤 자격으로서 돈 많고 세력 있고 외모가 번듯해야 함을 요건으로 내세울 때 이르는 말. 옛날 규장각奎章閣 대교 벼슬의 인선이 매우 까다로웠다 하여 나온 말.
초당 삼간이 다 타도 빈대 죽는 것만 시원하다 초가삼간 다 타도 빈대 죽는 것만 시원하다	비록 자기에게 큰 손해가 있더라도 제 마음에 들지 아니하던 것이 없어지는 것만은 상쾌하다는 말.
초저녁 구들이 따뜻해야 새벽 구들이 따뜻하다	먼저 된 일이 잘되어야 그에 따른 일도 잘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촌년이 아전 서방을 하더니 초장에 길청 문밖에 와서 갖신 사 달라 한다 촌년이 아전 서방을 하면 날 샌 줄을 모른다	변변치 못한 사람이 조그만 권력이라도 잡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잘난 체하며 몹시 아니꼽게 굶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춘향이네 집 가는 길 같다	이 도령이 남의 눈을 피해서 골목길로 춘향이네를 찾아가는 길과 같다는 뜻으로, 길이 꼬불꼬불하고 매우 복잡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춘향이 집 가리키기	집이 어디냐고 묻는 이 도령의 질문에 춘향이가 대답한 사설이 까다롭고 복잡했다는 데서, 집을 찾아가는 길이 복잡한 경우를 이르는 말.
칠월 더부살이가 주인 마누라 속곳 걱정한다 더부살이가 주인 마누라 속곳 베 걱정한다	남의 집에 더부살이하면서 제 옷도 변변히 못 입는 형편에 주인집 마누라의 속곳 마련할 걱정을 한다는 뜻으로, 주제넘게 남의 일에 대하여 걱정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침 뱉은 우물 다시 먹는다 이 샘물 안 먹는다고 똥 누고 가더니 그 물이 맑기도 전에 다시 와서 먹는다	두 번 다시 안 볼 것같이 하여도 나중에 다시 만나 사정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키읔	
큰 집 무너지는 데 기둥 하나도 버티지 못한다	큰 것이 망하거나 무너질 때에는 작은 힘으로 막기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티읕	
터를 닦아야 집을 짓는다	기초 작업을 해야 그다음 일을 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터주에 놓고 조왕에 놓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시형님 잡숫고 조왕님 잡숫고 이제는 먹어 보랄 게 없다	많지 아니한 것을 여기저기 주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는 말.
터주에 붙이고 조왕에 붙인다	무엇을 찢어서 사방에 갈라 붙이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피읖	
포도청 뒷문에서도 그렇게 싸지 않겠다	장물도 그렇게 싸지 않겠다는 뜻으로, 물건값이 비싸다고 하면서 깎으려 할 때 그렇게 싼 데가 어디 있느냐고 비꼬는 말.
포도청의 문고리 빼겠다	대담하고 겁이 없는 사람의 행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히읗

속담·관용구	내용
한 계단씩 밟아 올라가다	낮은 데서부터 높은 데로 순차적으로 올라간다는 말.
한량이 죽어도 기생집 울타리 밑에서 죽는다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본색이나 행실을 죽을 때까지 버리지 못한다는 말.
한 마을 공사 한 마루 공사	같은 관청의 일이라는 뜻으로, 하는 일마다 한결같음을 이르는 말.
한집 살아 보고 한배 타 보아야 속을 안다	사람의 마음은 오래 같이 지내면서 역경을 겪어 보아야 알 수 있다는 말.
행랑 빌리면 안방까지 든다 청을 빌려 방에 들어간다	1. 대청을 빌려 쓴다는 구실로 시작해서 방에까지 들어간다는 뜻으로, 염치없이 처음에 한 약속을 어기고 야금야금 침범해 들어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처음에는 조심하여 삼가다가 차차 통이 큰 짓까지 하게 된다는 말.
행랑이 몸채 노릇 한다	1. 손님이 주인 노릇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제치고 일을 주관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행실을 배우라 하니까 포도청 문고리를 뺀다 버릇 배우라니까 과부 집 문고리 빼어 들고 엿장수 부른다	좋은 버릇을 길러 품행을 단정히 하라고 이르니까 오히려 못된 짓만 하고 돌아다님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허청 기둥이 측간 기둥 흉본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자기는 더 큰 흉이 있으면서 도리어 남의 작은 흉을 본다는 말.
호랑이 보고 창구멍 막기 범 본 여편네[할미/늙] 창구멍을 틀어막 듯	범을 본 여편네가 질겁하여 범이 창구멍으로 들어오지나 않을까 걱정하여 창구멍을 틀어막는다는 뜻으로, 급한 나머지 임시변통으로 어리석게 맞추려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호조 담을 뚫겠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아 이익이 있는 일이라면 형벌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말.
혼인 뒤에 병풍 친다 열흘날 잔치에 열하룻날 병풍 친다	때를 놓치고 일이 다 끝난 다음에야 하려는 것을 비꼬아 이르는 말.
홍두깨 세 번 맞아 담 안 뛰어넘는 소가 없다	아무리 참을성이 많은 사람도 혹심한 처우에는 저항을 하기 마련이라는 말.
힘센 놈의 집에 져다 놓은 것 없다	힘이 세다는 것을 믿고 게으름을 부린다는 말.

색인

III

기역

ㄱ자집	018, 127
가구	145, 275, 430, 459, 543, 551, 576, 647, 651, 652
가대제한	022
가도	034
가람 배치	534
가랍집	019, 056, 720
가례	247, 435
가례집람도설	738
가리개	020, 252, 256, 272, 642, 740
가묘	039, 248, 418
가문	433, 623
가사관계	035
가사규제	080, 434
가사노동	131
가사명문	035
가사제한	022, 246
가스	116
가스등	175
가스레인지	027, 432, 475
가스보일러	278, 562
가신	029, 451, 546, 553, 565, 629
가야	187
가옥도본	034
가옥도형	033, 090
가옥문기	034
가을떡	504
가전제품	584
가족	433
가칠단청	134
각게수리	037, 218
각기소리	037
각성마을	193
간룡법	506
간접조명	176
간편주택	074
갈대	443
갈모산방	204
갈집	443
갈형도격	235
갈형론	235
갈형명목	235
감실	038, 418, 460
감실장	192
갑창	237
개공제	039
개기제	040, 044
개량한옥	040, 184
개머리판	459
개별난방	042, 621
개수대	475
개수통	288
개업	462
개자리	061
개토제	039, 043, 635
객청	422
거름	687
거실	045, 544
거주	624
거중기	046, 050
거처	623
거피칼	049, 111
건궁	452
건넌방	047, 183, 253, 665
건물	625
건설업자	633
건재 고택	482
건축	625, 629, 634
건축연장	048, 209
건축의례	634
걸거장	219
겨릅집	050, 659
견본주택	212
결구	205, 639
겹집	051, 066, 161, 281, 559, 728
겹처마	214, 699
경국대전	229
경대	053
경도잡지	228
경상	515
경주 양동마을	054
계단	059, 180, 711
고구려	179, 187, 201, 227, 660, 706, 740
고래	061, 086, 477, 525, 717
고래등	195
고려도경	222, 227, 698
고려사	700
고미반자	251

고방 072, 289, 729
고분벽화 530
고비 062
고상마루 689
고상식 187
고상주거 127
고상창고 283
고성 왕곡마을 064
고시원 068, 164, 457, 544
고위관료 465
고주 187, 687
고팡 199
고패집 018, 230
곡간 289
곡자 569
골목 068
골목길 198
골부인 280
곱은자집 018, 230
곱자 070
곳간 071, 644
공 557
공동 164
공동주택 073, 084, 129, 130, 213, 605, 607
공동체주거 075
공예품 465, 612
공유경제 074
공유주택 074, 436
공인중개사 076
공장기숙사 484
공정 136
공포 077, 274, 657
관리 614
관아 464
관혼상제 185, 712
광 289, 721
광재물보 255, 498
광창 080, 082, 296
괘등 177
교창 081, 082
구들 477, 525, 601
구들장 062, 516
구멍 611
구유 531
국가민속문화재 054, 064, 479
국민주택 083, 244, 607, 609
굴도리 156, 191
굴도리집 084
굴뚝 085, 512, 525, 619, 734
굴묵 287
굴피나무 619
굴피지붕 088, 616, 621
굴피집 087, 168, 444, 619, 672
궁가 088
궁궐 464, 625
궁집 088
궤 090, 249, 498
궤상 693
궤연 512
궤장 498
귀두 189
귀리 227
귀면 201
귀속재산 581
귀접이천장 658
귀중품 716
귀틀집 088, 091, 536, 736
그래자 093
그랭이질 093
근대 692
근대화 158, 733
금고 037
금단청 134
금입택 095
긋기단청 134
기거장 219
기공식 039
기구 609
기단 059, 097, 634
기둥 100, 128, 274, 541, 543, 563, 603, 635, 687
기름보일러 277
기숙사 073, 164
기와 103, 188, 512, 619
기와지붕 616, 655
기와집 066, 105, 181, 630, 654
기왓골 188
기중기 047
기초 106
길일 464

김치냉장고 121
김치움 541
까귀 049
까치구멍집 109, 162, 521
깎낫 049, 110
깔개 571
꺾음집 230
꽃담 111
끌 049, 113

ㄴ은

나무널 121
난간 114, 116, 187, 638
난로 116
난방 116, 287, 516, 525, 577, 621, 731
난방설비 622
난분 224
남귀여가혼 450
남녀유별 246
남동여서 184
남산골한옥마을 715
남새밭 677
납도리 156, 191
납도리집 117
내담 118
내림마루 188, 213
내별당 269
내외담 057, 118
내외법 119, 246
내외벽 118
냉동 119
냉동식품 585
냉장 119
냉장고 119, 433
너새집 165
너와 536
너와지붕 616, 621
너와집 121, 168, 444
널문 690
널빤지 121
널판문 690
네모송곳 466
노둣돌 180
녹로 050, 122
농 431, 527, 575
농기구 179
농촌문화주택 442
농촌주택 441
농촌주택개량사업 442
농한기 473
누마루 047, 058, 124, 187, 712
누정 124
눈꼽재기창 125
눈박이 681
느티나무 170, 210

ㄷ근

ㄷ자집 126
다가구주택 130, 458
다다미 668
다락 124, 127, 267
다림보기 128
다세대주택 073, 129, 457
다용도실 131, 432
다포 695
다포계 206
다포식 078
닥나무 227
단독주택 132, 184, 212, 295, 505, 544, 583, 584, 607
단지 171
단청 023, 134, 227, 528
닫집 201
달고 050
달구지 468
달구질 136
달굿대 681
달동네 138
담장 111, 113, 118, 140, 142, 265, 464, 476, 483
담집 142
당육전 667
당초 201
당호 144, 677, 696
당회요 667
대각선 070

대길지 428
대나무 210, 738
대동여지도 426
대들보 145, 451
대마 050
대목 162, 192, 530
대목장 146, 219, 460, 634
대문 148, 225, 301, 509, 612, 640
대문간 150
대문채 072, 150
대인거장 219
대잡이 503
대장간 202, 669
대주 503
대청 152, 183, 185, 192, 293, 296, 435, 470, 499, 647, 723, 728
대청마루 480
대패 049, 153
댓돌 723
더부살이 155
덤벙주초 661
데릴사위제 450
도끼 049
도래인 706
도로 467
도르래 046
도리 084, 145, 156, 274, 616
도배 157, 579
도서지역 192
도시가스 614
도시한옥 040, 158
도시화 159
도장 289
도투마리집 161
도편수 146, 162, 530, 741
독서실 068
독신자주택 163
독창 650
돌기와집 165
돌담 141, 165
돌랭이 167
돌집 165
돌쩌귀 174, 264, 510
돌층계 180
돌코랭이 177
동계 181
동국세시기 228
동기시대 731
동바리 188
동사택 675
동사택서사택 167
동산 587
동성마을 193
동아시아 669, 707
동이전 450
동제 718
뒷박 169
두둥불 673
두등불 177, 673
두렁집 122, 168
두레박 169
두루거리집 168
두리집 168
둔테 302, 510
둘레집 168
둘리집 168
뒤주 170, 267, 644
뒷간 171, 669, 732
뒷간귀신 172
뒷마당 709
드므 733
득수법 506
들거리집 168
들마루 187, 689
들쇠 174, 294
들어열개 173, 650
들어열개문 293
등 175, 591
등나무 227
등듸 731
등롱 177, 592
등유 175
등잔 176, 598
디딜방앗간 179
디딤돌 180
땔감 577
똥돼지 686
똬리집 183
뜰집 181, 183
띠쇠 206

리을

레토르트	584

미음

ㅁ자집	183
마가리집	020
마구	169
마구간	530
마당	184, 198, 212
마당비	298
마래	188, 192
마루	186, 192, 281, 435, 638
마루광	289
마루기와	188
마루비	298
마름질	190, 568
마리	039, 192
마사토	680
마을	193
마조장	220
마차	050
마한조	221
막살이집	020, 199
막새	190, 200
막새기와	618
만살	238
만송정	491
말갈조	221
말구	191
말명	029
망새	190
망와	103, 189, 190
망치	050, 202
맞배지붕	105, 203, 662
맞벽	239
맞춤	205, 555, 639
매우	173
매천야록	727
매화틀	173
맨션	073, 294
맹장지	174, 238, 579
머름	187, 207
머름동자	207
머릿장	209
먹쇠메	203
먹자	569
먹통	209
멍석	180
메	050, 202
명당	211
명당도	508
명산	622
명산론	211
명장지	174
모델하우스	212
모로단청	134
모영전	227
모임지붕	105, 213, 662
모탕고사	039, 634
목가구	215, 423
목도	046
목민심서	227
목소장	219
목수	146, 163, 190, 192, 210, 219, 570, 635
목욕	534
목혜장	219, 466
무늬	134
무량수전	203, 695, 742
무악식	201
무허가	692, 720
문	221, 648, 711
문간채	150
문갑	224
문고리	225, 510
문방가구	037
문방구	226
문방사우	226
문배	228
문서	224
문설주	510
문자형집	229
문지방	230, 464
문턱	231
문패	232
문화주택	132, 173, 234, 295, 505
물두멍	288

물레방아 179
물형론 194, 235, 428
미닫이 237, 650
미레자 569
미장 238, 239
미장이 239, 684
민가 109, 241, 535, 541, 708
민도리집 042, 117, 243, 459
민영아파트 280
민영주택 244, 607
민촌 193
민택삼요 245, 675
민흘림 742
민흘림기둥 741
밑반찬 171

비읍

바깥채 467
바라지창 081
바래기기와 190
바심질 128
바자울 476
박공 204
밖거리 199, 488, 595
반가 246, 676, 708
반곡 511
반다지 090
반닫이 249, 431
반빗간 643
반자 250, 657
반좌식 733
반지하 458
반촌 193
반친영혼 450
발 020, 252, 437
발코니 263
발해 189, 661
발효식품 575
밥상 471
방 253
방갈로 505
방바닥 579
방비 298
방석 255, 433
방앗간 591
방위 168, 602
방장 256
방주 100
밭농사 687
밭담 167
배산임수 194, 257, 258, 520, 602
배흘림기둥 741
백두대간 424
백제 201, 660, 706
백호 194
뱃집 203
버드나무 227
버선장 209
번암선생집 738
번와 620
벌구 191
벌집촌 259
범종 700
법사 500
베개 261, 551
베란다 262
벼락닫이 650
벼락닫이창 264
벼루 431, 514
벼루집 514
벽 265
벽감 018, 038
벽돌담 141
벽돌벽 266
벽사 189, 564
벽장 267
벽체 536, 543
변기 268
변소 171, 268, 686, 732
별당 247, 269
별서 271, 588
별업 271
별저 271
별제 271
볏짚 443
병풍 020, 218, 272
병화불입지 064
보 145, 274, 543

보꾹 174
보료 275, 665
보일러 042, 277, 535, 613
보조주방 131
보증금 582
보첨 642
보통주택 683
복덕방 278
복부인 280
봉당 161, 168, 185, 281, 735
봉덕 731, 736
봉사혼 450
봉창 282, 437
봉침 548
부경 072, 127, 283
부고 188
부넘기 061
부동산 279
부뚜막 285, 287, 477, 590, 735
부삽 731
부섭 286
부섭지붕 694
부속채 720
부엌 162, 253, 287, 429, 475, 489, 500, 590, 603, 644, 647, 706, 728, 734
부엌비 298
부연 290, 654
부연기와 447
부영주택 683
부용대 491
부재 554
부적 567
부젓가락 731
부정 231
부지깽이 291
부출각시 172
북촌한옥마을 715
분가 292, 435
분양 161
분양가 212
분합 650
분합문 293
불교 189
불란서주택 294, 442
불목 061
불발기 294, 296
불발기창 296
불밝이쌀 501
불씨 731, 735, 737
붓 514
붙박이 650
붙박이장 297, 433
붙박이창 282
블라인드 022
비 298
비녀장 174
비늘판벽 691
비데 269
비보 212, 300, 507
비보론 506
비보풍수 300, 572
빈민촌 138
빈소 512
빈지널문 689
빌라 073
빗장 301
빗접 053
빗천장 658
빨래 456
뽕나무 227

시옷

사개 191
사개맞춤 206
사공 219
사글세 458, 544
사당 038, 248, 418, 436
사당마당 184
사랑대청 152, 184
사랑마당 184, 677, 709
사랑방 247, 253, 419, 449, 665, 666
사랑채 124, 269, 421, 445, 613
사래기와 447
사롱 177, 438
사립 422
사립문 422, 689
사방 194
사방침 276

사방탁자 423, 449
사슴털 227
사신 186
사위 450
사찰 533, 625
사창 081, 438
사창가 641
산간지역 168
산경표 424
산담 167
산도 235
산동네 138
산림경제 186, 230
산맥체계 425
산뽕나무 227
산신당 195, 712
산업화 159
산줄기 424
산지 206
산태극수태극 426, 490
살강 429
살림살이 430, 533, 643
살림집 241, 433, 495, 536, 542, 556, 632
살림채 185, 559, 709
살미 077
살창 437
삼국사기 224, 530, 667, 740
삼국유사 667
삼국지 221
삼년상 510
삼신 029, 479, 496
삼신당 493
삼신메 501
삽작 422
상가 605
상가주택 513
상량고사 441
상량문 440
상량식 451, 636
상량제 440
상류주택 096
상방 200, 286
상수리나무 619
상여집 195
상자 716
새마을보일러 277, 517
새마을운동 441, 660
새마을주택 441
샛담 118
샛문 640, 726
샛방 168
샛집 443, 659
생깃문 188
생울 444
생활용품 610
서계 181
서고 445
서까래 156, 191, 192, 275, 290, 446, 543, 616, 636, 654, 657, 658, 738
서까래기와 447
서낭당 195, 712
서랍 037
서류부가혼 450
서사택 675
서안 449, 651
서양식 234
서옥 450
서원 464
서장 653
서주 653
석가탄신일 178
석비레 680
석수 147, 162, 209
석유 116
석유곤로 027
석장 203
석축기단 097, 107
석탄 116
선반 267, 470
선방 533
선장 203, 220
설부 227
섬돌 180
성리학 022
성문 509
성주 193, 501, 554, 566
성주독 452
성주매기 451
성주신 029, 040, 451
성주올리기 193

성줏단지	452
성줏대	503
성호사설	226
섶나무	477
세간살이	470, 646
세로살창	438
세면	534
세면대	454, 732
세모송곳	466
세살목수	461
세종실록지리지	227
세탁	131
세탁기	433, 456, 535
세탁실	455
세화	228
셋방살이	457
셰어하우스	075
소금	567
소나무	227
소도리	203
소란반자	250
소로	077
소로수장집	042, 160, 459
소목	209
소목장	050, 071, 219, 459, 466
소반	472, 644
소인거장	219
소파	461
속동문선	737
속신	233
손괘	462
손 없는 날	462, 472
솔거노비	720
솟을대문	148, 464, 509
솟을삼문	464
송곳	465
송남잡지	226
쇠막	530
쇠메	202
수구	507
수납공간	470
수렛간	434, 467
수막새	528
수맥	469
수석	224
수장	637
수키와	529, 620
수혈주거	626
숙박	522
숙식	155
숭어턱깎기	191
슬레이트지붕	442
승려	533
승방	533
시공	239
시공자	634
시렁	267, 470
시비	422
식기	644, 646, 647
식탁	471
신구간	472, 554
신도	229
신라	201, 660
신주	038, 418
신한옥	636
신행	532
실내공간	562
실향민	720
심벽	683
십승지	473
십승지지	428
십장생	694
싱크대	028, 475
싸리나무	476
싸리문	422
싸리울	476
쌍창	237, 650
쐐기	205

이응

아궁이	062, 285, 287, 291, 477, 478, 512, 516, 525, 531, 545, 604, 671, 717, 734
아랫목	031, 477, 478, 546, 718
아산 외암마을	479
아언각비	184
아파트	073, 232, 456, 484, 625, 697
안거리	199, 488, 595

안거리·밖거리 488
안대청 152
안동 하회마을 489
안마당 183, 184, 677, 709, 730
안방 047, 253, 419, 495, 501, 546, 666, 728
안방물림 497
안석 275, 276, 498
안악3호분 467
안자장 466
안채 247, 613
안택 451, 500
안허리곡 540
앉은굿 500
암막새 528
암문 221
암키와 529, 620
앙곡 540
앞다지 249
애기장 209
액막이 452
약장 038
양념 171
양동마을 182
양반가 464
양반주거 183
양복장 551
양옥 132, 295, 504, 708
양진당 489, 493
양탄자 180
양택 245, 506
양택삼요 245, 675
양택풍수 237
양통집 053, 281, 559
어룡 189
억새 443, 536
업가리 029
업신 029
여관 641
여닫이 238, 509, 650
여막 510
여묘살이 510
여칸집 183
역어유해 226
연가 512
연갑 515
연귀자 569
연꽃 181, 201
연도 085
연료 577, 613
연립주택 073, 513
연목 446
연목기와 447
연상 449, 514
연세 545
연잎 181
연장 110, 114, 122, 153, 154, 202, 568, 570, 611, 670, 685
연적 224
연탄 027, 477, 516
연탄보일러 042, 277, 562
연탄아궁이 277, 517
연화교 181
열하일기 227
영남학파 183
영단주택 517
영당 418
영동지역 181
영조척 518
영주 무섬마을 428, 520
예기 231, 738
예기주소 738
오동나무 730, 738
오막살이집 559
오주연문장전산고 226
오피스텔 164, 457, 522
옥사 667
옥사조 224, 740
옥상 523
옥탑방 524
온돌 061, 187, 281, 435, 478, 525, 545, 601, 637, 698, 717
온돌문화 665
온돌방 512, 545, 546
온수 614
올레 069, 585
옷장 527, 646
와공 528, 618, 636
와우형 194
와적기단 097, 107

완자살 238
왕대나무 210
외거노비 019, 720
외기반자 250
외양간 468, 530, 591, 669, 709, 720, 722
외엮기 238, 684
외통집 559, 729
요 551
요강 532, 665, 732
요사 533
요사등 177
요사채 533
욕실 455, 534, 544, 733
용 538
용단지 029
용두 189, 695
용마루 188, 213, 618, 620, 659, 695
용마름 659
용머리 699
용밥주기 538
용비어천가 171
용알뜨기 538
용왕제 538
우데기 093, 535
우데기집 536
우등불 169
우리판문 689
우마신 029
우물 169, 185, 537
우물마루 188
우물반자 250
우물신 030
우물천장 695
우물 훔치기 538
우백호 212
우사 721
우진각지붕 105, 539, 659, 662
우차 050
울루 229
울타리 115, 140, 444, 476
움 541
움물 537
움집 213, 285, 511, 525, 542, 626, 682, 729
웃방 159, 546
원두막 187
원룸 164, 457, 544
원장 140
원주 100
월남민 719
월방 047
월세 458, 544
위서 221
위지공 229
위패 418
윗다지 090, 249
윗목 478, 545
윗방 546
유곽 641
유네스코 058
유악식 201
육전조례 229
윤달 473
윤도판 547
윷집 020
은신처 434
음택 506
음택풍수 235
응접실 461, 549
의걸이장 449, 527, 550
의자 433, 600, 651, 698
이부자리 551
이불 551
이사 462, 472, 553, 565, 631
이엉 659
이엉엮기 620
이음 554, 639
이장 473, 684
이촌향도 198
익공 557
익랑 182
인거장 685
인면 201
인방 191, 230, 683
인자수지 211
일문 640
ㅡ자집 558
일제강점기 234, 697, 704, 733
일주문 148
임대료 582

임대아파트	485
임대주택	457, 484, 485, 487, 560, 607
임원경제지	186, 288, 293, 531, 680, 730, 737
임종	479
입사식	719
입식	454, 461, 471, 561
입식부엌	475, 517
입주	563
입주식	636
입춘첩	564
입택	441, 566, 631
입택고사	565

지읒

자	518, 568
자개	209
자귀	049, 191, 569, 685
자단나무	210
자동차	606
자리	255, 571, 698
자물쇠	716
자생풍수	572
자수	209
작업장	722
작예군	219
잔치	632
잠금장치	225
잡귀잡신	503
잡상	103, 189, 695
잡지	596
잣성	167
장	209, 431, 527, 575
장광	501, 573
장도리	203
장도리메	203
장독간	573
장독대	185, 573, 643, 709
장독신	030
장롱	297, 527, 575
장벽	140
장식	134, 597
장유유서	246
장인	146, 162, 202, 219, 569, 634, 671
장작	116, 477, 577
장지	238
장지문	578
장척	530
장침	276
장판	571, 579
장풍득수	211
장풍법	506
장혀	441
재벌	239
재벌바름	684
재벌벽	239
재사벽	239
잿간	072, 722
적산가옥	580
적산주택	581
적새	188
전기냉장고	121
전기등	175
전세	545, 582
전원주택	583
전자레인지	028, 475, 584
전축기단	097, 107
점판암	165, 619
정감록	474
정낭	585
정낭귀신	172
정방형	070
정벌	239
정벌바름	684
정벌벽	239
정약용	047
정원	483, 587
정자	187, 270
정주간	286, 590
정주석	586
정지	287, 489
정착생활	434
정초식	634, 636
정침	247, 418, 548
정혈법	506
제등	591
제사	421
제석신	029
제액초복	567

제의 197
제주 199
제주도 166, 188
제주 성읍마을 593
제청 422
조경 587
조계 181
조명 175, 599, 671, 734
조산 300
조상 192
조상신 029
조선건축 596
조왕 501
조왕신 029
조족등 178
종갓집 546
종도리 440, 446
좌경 053
좌변기 268
좌상 600
좌식 561, 601
좌식생 712
좌식생활 723
좌청룡 212
좌향 259, 418, 441, 602
좌향론 506
주독 038
주두 077
주련 185, 603
주렴 252
주방 603
주산 490, 506
주상복합 074, 605
주생활 433, 625, 631
주심포 203, 557
주심포식 078
주자가례 246
주작 194
주차장 606
주초 635
주춧돌 563
주택 623, 625
주택개량 234
주택개량운동 040, 505
주택건설계획 607
주택법 607
주택복권 608
죽부인 609, 665
준주택 068, 607
줄 050, 611
중문 612
중앙난방 043, 278, 613, 621
중침 548
증보산림경제 226
지게 050, 467
지관 614
지기 300
지네철 204
지롱 177
지번 232
지봉유설 226, 227
지붕 203, 213, 539, 615, 657
지붕개량사업 442
지붕마루 188
지붕얹기 619
지상주거 544
지신 629
지역난방 621
지팡이 180
지표수 469
지하수 469
직각 071
직접조명 178
진산 622
진숙보 229
짐수레 467
집 433, 623, 629
집들이 631
집성마을 479
집성촌 422, 489
집수리 462, 472
집안 623
집장사 459, 633
집장사집 040
집짓기 625, 633
짚 619
짜는머름 207
쪽마루 187, 638, 723
쪽매 555, 639
쪽문 640, 726

쪽방 068, 260, 640

치읓

차양 201, 642
착고 188
찬광 289, 643
찬방 289, 644, 647
찬장 267, 429, 643, 644, 645
찬탁 644, 646, 647
참판댁 480
창 648
창고 643, 722
창방 191
창호 125, 207, 237, 264, 509, 648, 711
창호장 071, 209
채광 437
채광창 109
채마밭 677
책갑 653
책상 218, 431, 433, 449, 651
책장 449, 652
챗방 199, 595
처마 192, 290, 616, 618, 642, 654, 687, 699
처마도리 446
천장 657, 658
철기시대 203, 731
철륭 030
첨차 077
청동기시대 660
청령국지 227
청룡 194
청석집 444
청장관전서 226
초가 654
초가삼간 559, 630
초가지붕 442, 540, 621
초가집 020, 051, 619, 659
초롱 177, 592
초반 660
초배 580
초벌바름 684
초벽 238
초석 660
초헌 464
촌계 196
촛대 431, 598
추녀 192, 540, 619, 655, 662, 699
추녀마루 188
축원문 441
출산 718
출입문 148
충량 275
충효당 489
취두 103, 189
취락 622
취문 103
취병 445
취사 287, 577
측간 072, 171, 722, 732
측간신 030
측도부인 172
측신각시 172
치목 191
치문 189
치미 189
친영제도 422
친정 450
칠성 030, 501
침구 431
침대 433, 664, 667
침방 665
침상 698
침실 666

키읔

칸 667
칸막이 238
칼 670
커튼 021
코클 169, 177, 671, 734
코하우징 074
큰방 497

티읕

타구	431
타래송곳	466
탁자	471, 651
탈수기	457
태백산	169
택리지	673
택보요전	675
택일	464, 500, 631
택호	676
탱자나무	444
터주	501, 566
터주신	029, 185
터줏가리	029
텃고사	040
텃밭	677
텔레비전	433, 678
토광	072
토담	141, 680
토담집	020, 143
토막	682, 692
토막집	143
토막촌	682
토벽	179, 266, 282, 683, 691
토벽집	143
토수	190
토축기단	097, 107
톱	685
통과의례	441, 712
통머름	207
통시	171, 686
통일신라	201
통판문	689
퇴량	275
퇴비	687
퇴침	262
툇간	187, 687
툇마루	187, 638, 688, 712, 723, 729
투막집	093, 536
특권	465

피읖

판담	141
판문	649, 689
판벽	168, 266, 691, 695
판자촌	138, 692, 704
판장문	689
판축	681
팔걸이	693
팔작지붕	105, 662, 691, 694
패철	507, 547
편액	145, 185, 696, 725
평	697
평대문	148, 465
평상	698
평주	187, 557, 687
포치	723
풍경	699
풍령	699
풍수	194, 435, 506, 548, 572, 615, 623, 628, 700
풍수가	615
풍수사	615
풍수사상	257
풍판	204
피란민	719
피란촌	703
필통	224

히읗

하마비	224
하회마을	058, 428
한국주택은행	609
한뎃부엌	185, 706
한양가	227
한옥	433, 504, 625, 707
한옥보존지구	714
함	716
함실	061, 187, 477, 531, 717
함실아궁이	282
합각	694
합각지붕	694
해막	718

해방촌	719
해우소	172
행랑마당	184, 709
행랑채	072, 150, 155, 247, 464, 531, 559, 613, 720, 722
행주형	194
향교	464
허청	721
헛간	179, 531, 721
헛간채	559
헛담	118
현관	722
현등	176
현무	194
현어	204
현판	460, 697, 724
협문	640, 725
형국론	506
호남지방	669
호령창	188
호롱	727
호자	532
호적	232
호주	232
호지집	020
혼수품	054
혼인	462
홍살문	148
홑집	051, 559, 728
홑처마	214, 699
화각	209
화강암	711
화계	711
화단	729
화덕	285, 286, 291, 543, 731, 734
화로	553, 730, 734
화방벽	266
화성	046
화성성역의궤	690
화장대	054
화장실	173, 268, 455, 732
화재막이	733
화전민	168
화창	283
화티	731, 734
환기	437
환기공	109
활비비	466
활주	101, 664
횃대	737
회다짐	136
회룡포	428
후원	587
훈몽자회	171, 184
훈민정음해례	169
훑이기	049, 192, 738
휘장	021, 256, 437, 740
흑룡만리	166
흘림기둥	741
흙담	143
흙벽돌집	143
흥보가	218

필자

Ⅳ

강영환 姜榮煥 울산대학교

가랍집	019
개공제	039
개토제	043
귀틀집	091
달구질	136
민가	241
살림집	433
상량제	440
샛집	443
움집	542
입주	563
정주간	590

권용찬 權容贊 서울대학교

국민주택	083
민영주택	244

기량 奇亮 국립민속박물관

마당	184

김광언 金光彦 인하대학교

두레박	169
뒷간	171
부뚜막	285
비	298
요강	532
우물	537
장독대	573
한뎃부엌	706

김기덕 金起德 건국대학교

마을	193
배산임수	257
산경표	424
산태극수태극	426
십승지	473
윤도판	547

김길식 金吉植 용인대학교

금입택	095
기단	097
기초	106
디딤돌	180
부경	283
수렛간	467
초석	660

김도현 金道賢 태동문화재연구원

코클	671
화티	734

김두규 金頭奎 우석대학교

지관	614
풍수	700

김만태 金萬泰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손 없는 날	462

김명자 金明子 안동대학교

가신	029

김미라 金美羅 숙명여자대학교

고비	062
문방구	226
연상	514
좌상	600
죽부인	609
평상	698
횃대	737

김미영 金美榮 한국국학진흥원

사당	418
아랫목	478
윗목	545
택호	676

김삼대자 金三代子 전 국립민속박물관

각게수리	037
궤	090
뒤주	170
머릿장	209
목가구	215
문갑	224
반닫이	249
의걸이장	550
장롱	575
책장	652
함	716

김선중 金仙中 울산대학교

공동주택	073
임대주택	560

김성갑 金性甲 한국토지주택공사

가옥문기 034

김성구 金誠龜 전 국립경주박물관

기와 103
마루기와 188
막새 200
서까래기와 447

김성우 金聲遇 연세대학교

집 623
한옥 707

김시덕 金時德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내외담 118
여막 510

김영수 金英洙 서울학연구소

개량한옥 040
도시한옥 158
집장사 633
쪽방 640
판자촌 692
한옥보존지구 714
해방촌 719

김영재 金永才 국립민속박물관

방석 255
안석 498

김왕직 金王稙 명지대학교

맞배지붕 203
모임지붕 213
부연 290
서까래 446
우진각지붕 539
지붕 615
차양 642
처마 654
추녀 662
팔작지붕 694

김지민 金知民 목포대학교

감실 038
겹집 051
마리 192
벽장 267
홑집 728

김태일 金泰一 제주대학교

골목 068
돌담 165
막살이집 199
정낭 585
제주 성읍마을 593

김하나 金하나 서울대학교

독신자주택 163
주상복합 605

김혜숙 金惠淑 원광디지털대학교

가스레인지 027
냉장고 119
붙박이장 297
세탁기 456
연탄 516
장작 577
전자레인지 584
텔레비전 678

김화봉 金華峰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까치구멍집 109
도투마리집 161
뜰집 181
우데기 535

김효경 金孝慶 한남대학교

입택고사 565

김희수 金憙洙 국립한글박물관

사방탁자 423
팔걸이 693

남호현 南虎鉉 순천대학교

곳간 071
다락 127
디딜방앗간 179
별서 271
외양간 530
정원 587
텃밭 677
헛간 721
화단 729

류성룡 柳成龍 고려대학교

난간 114
반자 250
별당 269
천장 657

문선옥 文善玉 경상대학교

변기 268
서안 449
세면대 454
소파 461
식탁 471
싱크대 475
옷장 527
책상 651
침대 664

민병근 閔丙槿 전기박물관

등 175
제등 591
좌등 598
호롱 727

박경립 朴耕立 강원대학교

고성 왕곡마을 064

박경옥 朴庚玉 충북대학교

개별난방 042
공유주택 074
단독주택 132
모델하우스 212
전원주택 583
중앙난방 613
지역난방 621

박선주 朴宣注 국립민속박물관

경주 양동마을 054
기와집 105
초가집 659

박선희 朴善姬 전북대학교

건넌방 047
발 252
방장 256
병풍 272
보일러 277
부엌 287
살림살이 430
윗방 546
입식 561
족자 597
좌식 601
휘장 740

박종민 朴鍾珉 국립산악박물관

경대 053
난로 116
문고리 225
부지깽이 291
빗장 301
살강 429
시렁 470
찬장 645
찬탁 647
화로 730

박철수 朴哲守 서울시립대학교

벌집촌 259
불란서주택 294
새마을주택 441
아파트 484
토막촌 682

배영동 裵永東 안동대학교

안방 495
집들이 631

손승광 孫勝光 동신대학교

다세대주택 129
연립주택 513

송석기 宋石基 군산대학교

적산가옥 580
조선건축 596

오상학 吳尙學 제주대학교

물형론 235

유승훈 柳承勳 부산광역시

달동네 138
피란촌 703

윤덕인 尹德仁 가톨릭관동대학교

찬광 643
찬방 644

윤일이 尹一二 일리건축사사무소

누마루 124
사랑방 419
서고 445
쪽마루 638
침방 665
툇간 687
툇마루 688

은현정 殷賢貞 국립민속박물관

주차장 606

이강민 李康民 한국예술종합학교

칸 667

이경아 李炅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주택 234
양옥 504
영단주택 517

이대화 李大和 중앙대학교

더부살이 155
문패 232
복부인 280
분가 292
셋방살이 457
편액 696
현판 724

이연노 李演魯 경기도문화재위원회

계단 059
공포 077
기둥 100
대목장 146
도편수 162
목수 219
문 221
미닫이 237
소목장 459
여닫이 509
익공 557
창호 648
흘림기둥 741

이왕기 李王基 목원대학교

거중기 046
건축연장 048
곱자 070
그랭이질 093
깎낫 110
끌 113
녹로 122
다림보기 128
대패 153
마름질 190
망치 202
먹통 209
송곳 465
아산 외암마을 479
영조척 518
자 568
자귀 569
줄 611
지붕얹기 619
칼 670
톱 685
훑이기 738

이우종 李雨鍾 영남대학교

광창 080
교창 082
눈꼽재기창 125
벼락닫이창 264
봉창 282
분합문 293
살창 437
장지문 578

이필영 李弼泳 한남대학교

안택 500

이호열 李鎬洌 부산대학교

가사제한 022
머름 207
반가 246

임승범 林承範 국립무형유산원

성주매기 451

장필구 張弼求 동양미래대학교

꽃담 111
담장 140
담집 142
벽 265
토담 680
토벽 683
판벽 691

전남일 田南一 가톨릭대학교

거실 045
다용도실 131
방 253
베란다 262
옥상 523
욕실 534
응접실 549
주방 603
침실 666
현관 722
화장실 732

정명섭 鄭明燮 경북대학교

들어열개 173
불발기창 296
영주 무섬마을 520

정연상 鄭淵相 안동대학교

굴도리집 084
납도리집 117
대들보 145
도리 156
맞춤 205
미장 238
미장이 239
민도리집 243
보 274
소로수장집 459
안동 하회마을 489
와공 528
이음 554
장판 579
집짓기 633
쪽매 639

정연학 鄭然鶴 국립민속박물관

문배 228
문지방 230
봉당 281
안방물림 497
움 541
이사 553
입춘첩 564
주련 603
통시 686
해막 718
화재막이 733

정재국 鄭在國 가톨릭관동대학교

겨릅집 050
굴피집 087
너와집 121
돌기와집 165
두렁집 168

정정남 鄭貞男 건축문헌고고스튜디오

가리개 020
가옥도형 033
고래 061
굴뚝 085
궁가 088
당호 144
도배 157
사랑채 421
서옥 450
아궁이 477
안채 499
연가 512
온돌 525
자리 571
함실 717

조인철 趙仁哲 원광디지털대학교

동사택서사택 167
좌향 602

조현정 趙賢貞 문도건축유산보존연구소

대문 148
사립문 422
생울 444
솟을대문 464
싸리울 476
중문 612
쪽문 640
판문 689
협문 725

천인호 千寅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명당 211
민택삼요 245
수맥 469
양택 506
택리지 673
택보요전 675

천현숙 千賢淑 SH도시연구원

고시원 068
공인중개사 076
복덕방 278
오피스텔 522
원룸 544
월세 544
전세 582
주택법 607
주택복권 608
평 697

최원석 崔元碩 경상대학교

비보풍수 300
자생풍수 572
진산 622

최은수 崔銀水 국립민속박물관

베개 261
보료 275
이부자리 551

한필원 韓弼元 한남대학교

대문채 150
대청 152
마루 186
행랑채 720

허남춘 許南春 제주대학교

부섭 286
신구간 472
안거리·밖거리 488

현승욱 玄勝旭 강원대학교

단청 134
요사 533
풍경 699

홍승재 洪升在 원광대학교

ㄱ자집 018
ㄷ자집 126
ㅁ자집 183
문자형집 229
ㅡ자집 558

관내자문
기량
김종규
박선주
정연학

관외자문
강영환(울산대학교)
김기덕(건국대학교)
김길식(용인대학교)
김명자(안동대학교)
김시덕(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박선희(전북대학교)
박철수(서울시립대학교)
이왕기(목원대학교)
전봉희(서울대학교)
정정남(건축문헌고고스튜디오)
천인호(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홍승재(원광대학교)

감수위원
김광언(인하대학교)
김삼대자(전 국립민속박물관)
김성우(연세대학교)
윤인석(성균관대학교)